

발간 등록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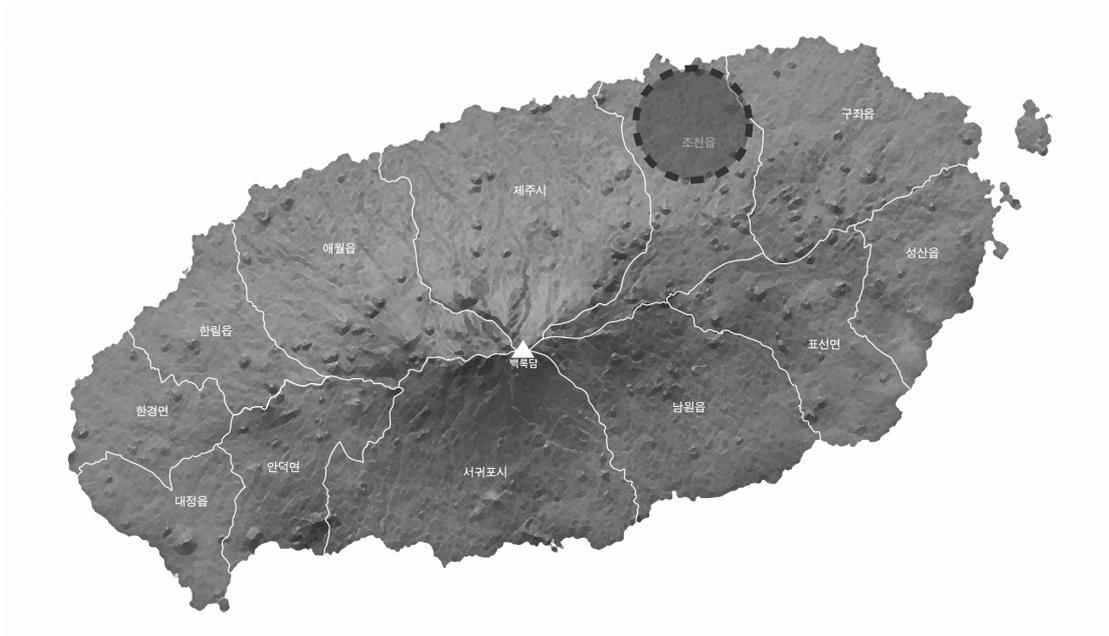
79-65000000-000409-01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조천읍 선흘1리

구술: 조수용
전사·표준어대역: 김미진

2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7년 제주어구술자료집(1-1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

-조천읍 선흘1리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5
2. 사업 기간	5
3. 사업 참여자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6
5. 사업 추진 과정	7
6. 표준어 대역	8
7. 주석	8

II.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9
2. 제보자 일생	36
3. 밭일	56
4. 들일	94
5. 의생활	137
6. 식생활	197
7. 주생활	244
8. 신앙	302
9. 세시풍속	306
10. 놀이	358
11. 통과의례	396
12. 민간요법	463
13.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485

1.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른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친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이 표준어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7년 3월 ~ 2017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이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는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배당함으로써 표준어 대역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원만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함으로써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사업 참여자의 소속과 전공, 연구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돈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앗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과 구술 제보자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비고(담당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산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량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5. 사업 추진 과정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본래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모든 사업 참여자들이 모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모아 통일하였다. 매달 모임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회의를 거치며 통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불능인 경우는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기로 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의 띄어쓰기를 같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ㅎ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하고, ‘허는구나, 헛구나’ 등 ‘ㄱ’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한다. 구술자료의 @는 조사사, #은 구술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며, 첫 줄은 ‘들여쓰기’ 하기로 한다.

-장 구분을 할 때는 enter를 2회 치기로 한다.

한편 월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가 채록	■	■								
추가 전사			■	■						
표준어 대역			■	■	■	■	■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	■	■	■	■	
자료집 발간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사된 모든 구술 자료는 표준어 대역을 한다.
- 조사된 내용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를 번갈아 가며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문맥에 맞게 의역한 경우는 주석에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 ’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그 내용을 밝힌다.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인 경우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석을 간단하게 처리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이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II. 구술 자료

(@: 김미진, #: 조수용)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이, 처음에 이 선홀이 어떻게 생겨신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이서마씨?(이 마을이, 처음에 선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있나요?)

101001 # 엇어. 선홀 마을 어떻게 선홀로 된 거주, 뒤, 옛날.(없어. 선홀 마을 어떻게 선홀로 된 거지, 뒤, 옛날.)

101002 @ 이 마을엔 주로 무슨 씨, 무슨 씨가 하?(이 마을에는 주로 무슨 성씨, 무슨 성씨가 많아?)

101002 # 지금 이 선홀이.(지금 이 선홀이.)

101002 @ 옛날.(옛날.)

101002 # 옛날은이 안씨가 주로 막 살안에, 안씨가 막 해난디 안씨덜이 안 돼여 가지고 다 웨지로 떠나불언.(옛날은 안씨가 주로 막 살아서, 안씨가 막 했었는데 안씨들이 안 되어 가지고 다 외지로 떠나버렸어.)

101002 @ 응.(응.)

101002 # 엇어. 안씨, 고씨.(없어. 안씨, 고씨.)

101002 @ 응.(응.)

101002 # 부칩 하난디 이젠이 윈 엇다게, 문딱 떠난.(부씨 집 많았었는데 이제는 전혀 없다, 모두 떠났어.)

101002 @ 응.(응.)

101002 # 우린 친정이 조씨여, 조가. 한양 조씨.(우리 친정이 조씨야, 조가. 한양 조씨.)

101002 @ 옛날은 안씨가 하나지 안햇수과?(옛날은 안씨가 많지 않았어요?)

101002 # 응.(응.)

101001 @ 이디 안 판관 그건 무신 얘기?(여기 안 판관 그것은 무슨 이야기?)

101001 # 안 판관은 지금 ㅁ뜨민이 국회의원이라.(안 판관은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이야.)

101001 @ 응.(응.)

101001 # 도의원, 국회의원. 경헌디 선홀에서 이제 그 안 판관이 낫주게.(도의원, 국회의원. 그런데 선홀에서 이제 그 안 판관이 나왔지.)

101001 @ 응.(응.)
 101001 # 계연 이제 판관을 잘못 살아 가지고.(그래서 이제 판관을 잘못 살아 가지고.)
 101001 @ 응.(응.)
 101001 # 그 판관이 성공을 못한 거라이. 경혜부난 선홀 마을이 안 됐었저게.(그 판관이 성공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선홀 마을이 안 되었어.)
 101001 @ 응.(응.)
 101001 # 경허난 정의는 이제 정의원¹⁾이라고 허고.(그러니까 정의는 ‘정의원’이라고 하고.)
 101001 @ 응.(응.)
 101001 # 이디ㄴ란 모관이엔 현다, 이 남군ㄴ란.(여기보고는 ‘모관’이라고 해, 이 남군보고는.)
 101001 @ 응.(응.)
 101001 # 경허민 이제 모관은 판관.(그러면 이제 ‘모관’은 판관.)
 101001 @ 응.(응.)
 101001 # 경혜여근에 ‘모관 판관’, 정의원, 대정원. 대정도 ‘원’이엔 허고.(그렇게 해서 ‘모관 판관’, ‘정의원’, ‘대정원’ 대정도 ‘원’이라고 하고.)
 101001 @ 응.(응.)
 101001 # 그런 사람이 이제, 이제 ㄴ뜨민 도의원이라이.(그런 사람이 이제, 이제 같으면 도의원이야.)
 101001 @ 응.(응.)
 101001 # 도의원. 경현 사람이. 경 관덕정에.(도의원. 그런 사람이. 그렇게 관덕정에.)
 101001 @ 응.(응.)
 101001 # 막 이제 판관으로 올라가민 그 딸이나 메누리덜은이.(막 이제 판관으로 올라가면 딸이나 며느리들은.)
 101001 @ 응.(응.)
 101001 # 가메에 모사근에 스령덜이 이서. 또, 수역병것²⁾ 썬 사름덜.(가마에 모셔서 사령들이 있어. 또, 전립 쓴 사람들.)
 101001 @ 무신거 병것 쓴 사름?(무엇 병거지 쓴 사람?)
 101001 # 응, 이제 그 흐루기 관덕정에 거 잇더라, 넘어오명 보난. 막 열 짓언. (응, 이제 어느 날 관덕정에 그것 잇더라, 지나오면서 보니까. 막 열을 지어서.)
 101001 @ 예, 예.(예, 예.)
 101001 # 옛날 옷 입언덜.(옛날 옷 입어서.)

1) ‘정의원’은 제보자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의현’의 관직을 말하는 것 같다. 지금의 ‘도의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부모가 죽으면 ‘원’도 못 살았다고 했다. 조선시대 제주도의 행정구역인 정의현, 대정현의 현감과 같은 관직명으로 ‘정의원’, ‘대정원’을 사용하고 있다.
 2) ‘수역병것’은 무관들이 쓰는 전립을 말하는데 짐승의 털로 만든 모자이다.

101001 @ 예, 예.(예, 예.)

101001 # 그 사름덜이 그거이 스렁이라고 허여, 스렁.(그 사람들을 그것을 사렁이라고 해. 사렁.)

101001 @ 스렁?(사렁?)

101001 # 응, 경헝 그 판관이 왔다 갖다할 때민 이제 가메ㄴ라 뉘께³⁾엔 허여. 별룬 뉘께.(응. 그렇게 해서 그 판관이 왔다 갖다할 때면 이제 가마보고 ‘뉘께’라고 해. ‘별룬 뉘께’.)

101001 @ 뉘께. 응.(독교, 응.)

101001 # 경혜영 막 므사갈 때 재미나낫젠 헤라.(그렇게 해서 막 모셔갈 때 재미있었다고 하더라.)

101001 @ 응.(응.)

101001 # 막 재미나. 경혜영 그 판관 메뉴리도 므사가곡 툄도 므상 텅기고 경헝 때민 그 신도.(아주 재미있어. 그렇게 해서 그 판관 며느리도 모셔가고 딸도 모셔 다니고 그렇게 할 때면 그 신발도.)

101001 @ 응.(응.)

101001 # 가막창신⁴⁾에 코젹이보선⁵⁾에.(‘가막창신’에 ‘코젹이보선’에.)

101001 @ 응.(응.)

101001 # 그 판관 딸이나 메뉴리는 그렇게 출리곡.(그 판관 딸이나 며느리는 그렇게 차리고.)

101001 @ 응.(응.)

101001 # 경헝 막 울르레 바레여. 경혜난.(그렇게 해서 막 위로 봐. 그렇게 했었어.)

101001 @ 응.(응.)

101001 # 경허단에 안 판관도 안뉘고.(그러다가 안 판관도 안뉘고.)

101001 @ 응.(응.)

101002 # 우리 어머님 이제 고모부가 강 판관 헤낫어.(우리 어머님 이제 고모부가 강 판관 했었어.)

101002 @ 아.(아.)

101002 # 강 판관이라고.(강 판관이라고.)

101002 @ 응.(응.)

101002 # 경헝 이제 그.(그렇게 이제 그.)

101002 @ 선홀 사름?(선홀 사름?)

101002 # 으, 그 사름이 이제 시에 간에 우리 옥은 후제 저 산림 간수, 산림계에.(응, 그 사름이 이제 제주시에 가서 우리 어른이 된 후에 저 산림 간수, 산림계

3) ‘뉘께’는 독교의 제주어로 딸이나 소를 이용한 가마를 말한다. 주로 결혼식 때 신부는 독교를 탄다.
 4) ‘가막창신은 검은색 가죽으로 만든 여자 신발이다. 신부나 부잣집 여자들이 신던 신발로 바닥에는 쇠로 정을 박아 걸으면 소리가 난다.
 5) ‘코젹이보선’은 코가 뾰족하게 솟아있는 버선을 말한다.

에.)

101002 @ 응.(응.)

101002 # 그 우리 어머님 고모, 고모 아덜. 스촌 오라방이주, 경허난.(그 우리 어머님 고모, 고모 아덜. 사촌 오라버니지, 그러니까.)

101002 @ 응.(응.)

101002 # 그 켤당이 나 두린 때 낫장은 시에 동문통에 살아났저게.(그 친척이 나 어릴 때까지는 제주시 동문통에 살았었어.)

101002 @ 아.(아.)

101002 # 경허단 이제 어디사 어떻게신디 몰라. 우리 어머님 고모 돌아가 불었지. 그 강 모세기엔 현 그 우리 어머님 조케, 스촌도 돌아가 불고 허난 그 다음은 몰르크라. 어떻사 해신디. 강 판관도 서나고 안 판관도. 강 판관이 먼저.(그러다가 이제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 우리 어머님 고모 돌아가서 버렸지. 그 강 뭐라고 한 그 우리 어머님 조카, 사촌도 돌아가 버리고 하니까 그 다음은 모르겠어. 어떻게 야 했는지. 강 판관도 있었고 안 판관도. 강 판관이 먼저.)

101002 @ 응.(응.)

101002 # 안 판관은 그 다음. 경헤났어. 경헤나실 거라.(안 판관은 그 다음.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했었을 거야.)

101002 @ 응.(응.)

101002 # 경헤연 그 이제 이 모관은 이제 모관 판관이라고 허고.(그렇게 해서 그 이제 이 모관은 이제 모관 판관이라고 하고.)

101002 @ 응.(응.)

101002 # 대정원, 정의원, 이제 이 저 표선이로 이제 저쪽은 이제 정의라이.(‘대정원’, ‘정의원’, 이제 이 저 표선으로 이제 저쪽은 이제 정의야.)

101002 @ 응.(응.)

101002 # 경행 그디는 의원, 정의원. 이제 저 구좌면에 또이 집이 저 정의원, 대정원 헛단에.(그렇게 해서 거기는 의원, ‘정의원’. 이제 저 구좌면에 또 집이 저 ‘정의원’, ‘대정원’ 했다가.)

101002 @ 예.(예.)

101002 # 그냥 그 하르방도 잘 안돼부난 우리 하르방⁶네 켤당.(그냥 그 할아버지도 잘 안되버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친척.)

101002 @ 응.(응.)

101002 # 경헤부난 이제 그 옛날은.(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옛날은.)

101002 @ 예.(예.)

101002 # 부모가 돌아가면은 삼 년을 상 직만 허영이 원도 못 살앗쟁 허여.(부모가 돌아가시면 삼 년을 상을 지키는 것만 해서 관원도 못 살았다고 해.)

101002 @ 예.(예.)

6) ‘우리 하르방’은 ‘우리 할아버지’뜻이나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말하는 것이다.

101002 # 경혜부난 이제 그 이 집이 김제 하르방네.(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이 집의 김씨 할아버지네.)

101002 @ 응.(응.)

101002 # 어떻헤연 정의원을 헤연 나갔는데 부모가 돌아가 불엇어. 거난 원을 못 살앗거든.(어떻게 해서 ‘정의원’을 해서 나갔는데 부모가 돌아가서 버렸어. 그러니까 관원을 못 살앗거든.)

101002 @ 예.(예.)

101002 # 못 사난 그때도 국가에 돈을 많이 써신ㄴ라 그 빚을 물렌 막 헤부난 저 그 권당덜 밋아올라 재산아올라 문딱 국가에서 풀아가불언.(못 사니까 그때도 국가에 돈을 많이 썼는지 그 빚을 물라고 막 헤버리니까 저 그 권당들 밋마저 재산마저 모두 국가에서 팔아 가버렸어.)

101002 @ 아.(아.)

101002 # 경허난 우리 시하르바님네도 상돈7)디 이젠 돈을 하도 문 풀아가가난 이제 곱전 온 생이라, 옛날에.(그러니까 우리 시할아버님네도 상도인데 이젠 돈을 하도 모두 팔아가니까 이제 숨겨온 모양이야, 옛날에.)

101002 @ 응.(응.)

101002 # 경헨 이디 완 아무 것도 엇이 오란 사는디 그 이녁으로 자수성가헨 살앗주게. 경헤연 그 살아난 역서 이제 우리베끼 몰라.(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아무 것도 없이 와서 사는데 그 당신대로 자수성가해서 살았지. 그렇게 해서 그 살았던 역사 이제 우리밖애 몰라.)

101002 @ 계난.(그러니까.)

101002 # 우리도 우리 시하르바님이 그 역설 곶아쥬 들언. 경헨어. 이제 그 손지가 이제 함덕 살암서. 대정원 손지.(우리도 우리 시할아버님이 그 역사를 말해쥬서 들엇어. 그랬어. 이제 그 손자가 이제 함덕 살고 있어. 대정원 손자.)

101001 @ 처음에 이 선홀애 뭐, 무슨 그런 얘기 엇어?(처음에 이 선홀애 뭐, 무슨 그런 얘기 없어요?)

101001 # 관관헤난 거?(관관헨던 거?)

101001 @ 관관헤난 거 말고. 처음에 뭐, 본풀이나, 조상신 뭐 이런 거 엇어마쥬?(관관헨던 거 말고. 처음에 뭐 본풀이나, 조상신 뭐 이런 거 없어요?)

101001 # 엇어.(없어.)

101001 @ 그런 거 엇어? 처음에 안씨가 이 동네 완애 뭐, 어떻 헥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뭐.(그런 거 없어? 처음에 안씨가 이 동네 와서 뭐, 어떻게 해서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뭐.)

101001 # 아, 그런 거 이서도 이 저 무신 무당덜 빌영 뭐 헨 때나 그런 본풀이 허쥬. 그런 본풀이 잘 곤지 안헤.(아, 그런 거 있어도 무슨 무당들 빌려서 뭐 할 때

7) ‘상도’는 제주도 구좌읍 상도리를 말하는 것으로 제보자 남편의 할아버지 고향이 ‘상도리’라는 말이다.

나 그런 본풀이 하지, 그런 본풀이 잘 말하지 않아.)

101001 @ 곧지 안해.(말하지 않아.)

101001 # 이제 안씨가 삼형제가 들어왔 막 이제 그 산에 갖당 그 조상 만나근에 막 그 위허여 가지고 잘 살앗쟁 허여8).(이제 안씨가 삼형제가 들어와서 막 이제 그 산에 갔다가 그 조상 만나서 막 위해 가지고 잘 살았다고 해.)

101001 @ 아.(아.)

101001 # 경허영 거 본풀이 허메. 그 이제 집이서 뭐 할 때 무당덜.(그렇게 해서 그거 본풀이해. 그 이제 집에서 뭐 할 때 무당들.)

101001 @ 아.(아.)

101001 # 경허주. 우리 옛말로 곱아봤자 누게 알아들어? 몰르지.(그렇게 하지. 우리 옛말로 말해봐도 누가 알아 듣겠어? 모르지.)

101001 @ 그건 이 선흘 동네 얘기주예?(그건 선흘 동네 이야기지요?)

101001 # 응, 선흘 동네 얘기. 선흘 동네 얘기고 이제 안침이는 이제 그 본풀이를 허여, 안침이는.(응, 선흘 동네 얘기. 선흘 동네 이야기고 이제 안씨 집은 그 본풀이를 해, 안씨 집에서는.)

101001 @ 아. 안침이는 헤마씨?(아. 안씨 집에서는 해요?)

101001 # 응, 허여. 우리도 우리 어머니가 안씨주게.(응, 해. 우리도 우리 어머니가 안씨거든.)

101001 @ 아, 어무니가 안씨?(아, 어머니가 안씨?)

101001 # 응. 경허난에 이제 그런 때 흐뎀 거느리민 날7라 뭐 그런 신 ㅁ사왓 쟈 저 동세가 그렇게도 말헤난. 막 억울헤여, 그렇게 허면 안 돼지.(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 조금 이야기하면 나보고 뭐 그런 신 모셔왔다고 동서가 그렇게도 말했었어. 아주 억울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01001 @ 응.(응.)

101001 # ㅁ사오는 것이 아니고 옛날 역사라 말이여, 것도.(모셔오는 것이 아니고 옛날 역사라 말이야, 그것도.)

101001 @ 그지.(그렇지.)

101001 # 그런 역서도 몰르고 그렇게 몰분쉬헌 말 헤부니까 나가 억울허지. 경헌다게, 그거베끼 엇어.(그런 역사를 몰르고 그렇게 분수에 맞지 않는 말 헤버리니까 내가 억울하지. 그렇게 해, 그거밖에 없어.)

101001 @ 응.(응.)

8) '선흘 안 판관 본풀이'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안 판관(安 判官) 집안의 수호신 이야기이다. 옛날 안씨 삼형제가 제주도에 들어와 정착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선흘리에 이르렀다. 삼형제는 갈 곳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뱀이 나타났다. 삼형제는 그 뱀이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벗어놓고 뱀에게 올라 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뱀은 막내 동생의 옷 위로 기어오르므로, 이를 싸서 선흘리 마을로 와서 모시고 정착하여 살았다. 그 뒤 집안이 번성하여 자손 중에서 제주판관이 나왔다고 한다. 이 안판관은 고씨 심방을 불러 곁을 하면서 벼슬이 낫다고 불평을 하였다. 이 말에 토라진 뱀신은 고씨 심방의 쌀자루에 들어가 고씨를 따라가서 제주시 삼도동 고씨 심방 집안을 번창시켰다고 한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 요약

101001 # 또 부침이도 그런 본풀이가 이신디 부침이 거 우리 잘 몰르고. 부침이도 그런 높은 하르방 살아난, 벼슬자리 해난 사름 그런 본풀이 다 한다. 부침이고 어느 집이고 물론허고 허여, 허여.(또 부씨 집도 그런 본풀이가 있는데 부씨 집의 것은 우리 잘 몰르고. 부씨 집도 그런 높은 할아버지가 살았어, 벼슬자리 했던 사람 그런 본풀이 다 해. 부씨 집이고 어느 집이고 물론하고 해, 해.)

101002 @ 이디 하르버진 무슨 씨? 김씨?(여기 할아버진 무슨 성씨? 김씨?)

101002 # 김씨, 광산 김씨. 계남 상도서 막 신안⁹⁾도 잇고 막 이제 묘도 보면. (김씨, 광산 김씨. 그래도 상도서 막 지관도 잇고 이제 묘도 보면.)

101002 @ 예.(예)

101002 # 이제 그 신체가 여기를 허면은 일로 저래 풍골¹⁰⁾이라고 해 가지고 신체가 떠나분텐 허는 그 자리도 이서났젠.(이제 그 시체가 여기 하면은 여기서 저리로 ‘풍골’이라고 해 가지고 시체가 떠나버린다고 하는 그 자리도 있었다고.)

101002 @ 응?(응?)

101002 # 그 땅속에 이제 신체를 모신디 그 신안이 이디는 풍골이다, 땅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 가지고 경행 그것이 이제 몰아가불영 땅 알로.(그 땅속에 이제 시체를 모셨는데 그 지관이 여기는 풍골이다, 땅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몰아가버려서 땅 아래로.)

101002 @ 예.(예.)

101002 # 아니 곶아, 경 해났젠 해고. 그런 아는 사름이 잇단 이젠 엇주게. 그런 아는 사름이 신안이엔 해 가지고 정시, 이제 그뜨민 정시.(말 안 해, 그렇게 했었다고 하고. 그런 아는 사름이 있다가 이제는 없지. 그런 아는 사름이 ‘신안’이라고 해 가지고 지관, 이제 같으면 지관.)

101002 @ 정시를 옛날에 신안이엔 곶아난?(지관을 옛날에 ‘신안’이라고 말했어요?)

101002 # 응, 신안. 이 땅속 아는 신안이 이서났주게.(응, ‘신안’, 이 땅속 아는 ‘신안’이 있었지.)

101002 @ 아, 땅속을 아는 신안.(아, 땅 속을 아는 ‘신안’.)

101002 # 겨난 그 이디도 대정원 그 시절에는 막 아주 잘 살안, 막. 경해가단 그 대정원을 못 살아부난.(그러니까 그 여기도 대정원 그 시절에는 막 아주 잘 살았어, 막. 그러다가 그 대정원을 못 살아버리니까.)

101002 @ 응.(응.)

101002 # 그냥 집이 안돼엇주게. 막 돈 다 털어가 불고.(그냥 집이 안되었지. 막 돈 다 털어가 버리고.)

101002 @ 응.(응.)

101002 # 경해부난, 국가에서. 그 역서 이제 대정원 손지덜은 알아.(그렇게 해버

9) ‘신안’은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밧자리 등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지관(地官)’을 이르는 말이다. ‘정시’라고도 한다.

10) ‘풍골’은 바람이 들어 시체를 몰아가버린다고 하는 밧자리이다.

리니까, 국가에서. 그 역사 이제 대정원 손자들은 알아.)

101002 @ 대정원 손자? 대정원이 어디?(대정원 손자? 대정원이 어디?)

101002 # 대정원계, 그 광산 짐칩이 하르방. 우리는 권당이라도 이제 그렇게 우리 하르바님도 망허었는데.(대정원. 그 광산 김씨 집 할아버지. 우리는 권당이라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도 망했는데.)

101002 @ 응.(응.)

101002 # 그 손지덜은 오죽 망해서냐게? (그 손지들은 오죽 망했겠냐?)

101002 @ 대정원이 뭐?(대정원이 뭐?)

101002 # 계, 꺫사 아이 곶아냐게, 도의원 허는 대정원계.(그렇지, 아까 안 말했냐, 도의원 허는 대정원말이야.)

101002 @ 아, 대정, 모슬포.(아, 대정, 모슬포.)

101002 # 응.(응.)

101002 @ 대정원에.(대정원에.)

101002 # 이제 이 모슬포. 이 저 짐녕으로 저레는 그 원을 헤여.(이제 이 모슬포. 이 저 짐녕으로 저리는 그 원을 해.)

101002 @ 응.(응.)

101002 # 이 모관은 짐녕으로 이레가 모관이라. 시에깁장. 갱 판관허고.(이 모관은 짐녕으로 이리가 모관이야. 제주시까지. 그렇게 해서 판관하고.)

101002 @ 응. 아까 곶은 거.(응. 아까 말한 거.)

101002 # 응. 모관 판관, 이제 정의원, 대정원, 경. 거난 일로 저레는 정의원이고 저레는 대정원. 대정더렌 대정원.(응. 모관 판관, 이제 '정의원', '대정원', 그렇게. 그러니까 이리로 저리는 '정의원'이고 저리는 '대정원'. 대정쪽은 '대정원'.)

101003 @ 이 동네 사름덜은 주로 옛날에 무슨거 허멍 살안 마씨?(이 동네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았어요?)

101003 # 무시거 허여서계, 흘 게 셔?(무엇을 했겠느냐, 할 게 있어?)

101003 @ 농사 짓주예?(농사 짓지요?)

101003 # 농스. 조.(농사, 조.)

101003 @ 농사는 보통 무신 농사 지어난마씨?(농사는 주로 어떤 농사 지었어요?)

101003 # 조, 보리, 콩베끼 무시거 흘 거 시냐?(조, 보리, 콩밖에 뭐 할 게 있니?)

101003 @ 조, 보리, 콩.(조, 보리, 콩.)

101003 # 산뒤.(밭벼.)

101003 @ 산뒤예.(밭벼요.)

101003 # 모들.(메밀.)

101003 @ 모들예.(메밀요.)

101003 # 응.(응.)

101003 @ 그다음에 소나 말도 많이 키우지 안헐?(그다음에 소나 말도 많이 키우지 않았어요?)

101003 # 많이 키웠주게.(많이 키웠지.)

101003 @ 주로 무신거 하영 키와낫수과?(주로 무엇 많이 키웠었습니까?)

101003 # 손, 집마다 소 혼 서너 개씩은 집마다 메었어.(소는, 집마다 소 한 서너 개씩은 집마다 매었어.)

101003 @ 응 집마다 서너 개씩 매고예.(응, 집마다 서너 개씩 매고요.)

101003 # 응, 경허고 돼지 혼 므리씩 집마다 질루고게.(응, 그리고 돼지 한 마리씩 집마다 기르고.)

101003 @ 예.(예.)

101003 # 우리 저 하르방 아버지¹¹⁾ 스삼스건에 돌아가불고 또 하르바님이 물을 이 막 물테 많이 헤난.(우리 저 할아버지 아버지 사삼사건에 돌아가서버리고 또 할아버지가 말을 막 말때 많이 했었어.)

101003 @ 아, 물도 하영 헤났구나.(아, 말도 많이 했었구나.)

101003 # 응. 많이 헤난. 혼 칠십 개깅장 헤났젠 혼다. 칠십 도엔 허여, 경허민.(응, 많이 했었어. 한 칠십 개까지 했었다고 한다. 칠십 도라고 해, 그렇게 하면.)

101003 @ 칠십 도?(칠십 도?)

101003 # 응, 경허단에 그 스삼스건에 오뎨 내불어된 함덕 느려가부난.(응. 그러다가 그 사삼사건에 그만 내버리고 함덕 내려가버리니까.)

101003 @ 응.(응.)

101003 # 그 돌도 흐나토 엇이 엇어져불고.(그 말도 하나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101003 @ 다 죽어불언? 가져가불언?(다 죽어버렸어요? 가져가버렸어요?)

101003 # 죽어불엇주게. 간수 안허민 어뎨 허여게?(죽어버렸지. 간수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101003 @ 할아버지가?(할아버지가?)

101003 # 응, 저 하르방 하르버지.(응, 저 남편의 할아버지.)

101003 @ 아, 아버지가 아니고?(아, 아버지가 아니고?)

101003 # 아버지도 허고게.(아버지도 하고.)

101003 @ 아버지도 허고.(아버지도 하고.)

101003 # 응, 경헌 때 막 부제침이엔 헤났저게, 이디.(응, 그런 때 아주 부자집 이라고 했었어, 여기.)

101003 @ 할머니 시집을 때 막 부제침이라낫구나예?(할머니 시집을 때 막 부자집이었군요?)

101003 # 아, 아, 그때 벨로 엇언.(아, 아, 그때 별로 없었어.)

11) 제보자가 '저 하르방'이라고 한 것은 남편을 뜻하는 것으로 '저 하르방 아버지'라고 하면 시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다.

101003 @ 벨로 엇언. 옛날에가?(별로 없었어. 옛날에가?)

101003 # 아버지도 사삼사건에 돌아가불고.(아버지도 사삼사건에 돌아가버리고.)

101004 @ 이 마을 주변에 물도 있고 오름도 잇주예?(이 마을 주변에 물도 있고 오름도 잇지요?)

101004 # 오름은 저 바메기¹²⁾.(오름은 저 ‘바메기’.)

101004 @ 바메기베끼 엇어?(‘바메기’밖에 없어요?)

101004 # 바메기가 큰바메기, 족은바메기 두 개주.(‘바메기’가 ‘큰바메기’, ‘작은바메기’ 두 개지.)

101004 @ 큰바메기, 족은바메기.(‘큰바메기’, ‘작은바메기’.)

101004 # 경헌디 바메기가 삼성사라고 고양부 삼성사 엇어?(그런데 ‘바메기’가 삼성사라고 고양부 삼성사 잇어?)

101004 @ 예예.(예예.)

101004 # 그디 땅이라고 해서 그 사름덜이 다 풀아가 불엇어. 선흘 땅이 아니라 난.(거기 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팔아가 버렸어. 선흘 땅이 아니었어.)

101004 @ 응.(응.)

101004 # 선흘 밭을 땅이라시민 지금도 선흘 오름으로 해서 헐 건디 어디 그것이 삼성사 땅이엔 헤네이 삼성사에서 다 풀아 불어시네, 경헛저게.(선흘 마을 땅이 었으면 지금도 선흘 오름으로 해서 할 것인데 어디 그것이 삼성사 땅이라고 해서 삼성사에서 다 팔아 버렸어, 그렇게 했어.)

101004 @ 이 동네 오름은 바메기 오름 그거 하나예?(이 동네 오름은 ‘바메기’ 오름 그거 하나예요?)

101004 # 응, 그것이 선흘 지경이주. 선흘 지경이고, 경헌디 이제 그 삼성스 땅 이라이.(응, 그것이 선흘 지경이지. 선흘 지경이고, 그런데 이제 그 삼성사 땅이야.)

101004 @ 계난 이 바메긴 무사 바메기, 이름은?(그러니까 이 ‘바메기’는 왜 ‘바메기’, 이름은?)

101004 # 이름은 게 무시거 영 높은 거 보민 바메기 오름 닳다, 영 허영 허난. 거 노프다고.(이름은 무엇 이렇게 높은 거 보면 ‘바메기’ 오름 같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거 높다고.)

101004 @ 거기 밤나무가 하?(거기 밤나무가 많아?)

101004 # 엇어, 엇어. 엇어. 밤낭도 이서도 밤낭을 위해서 굳는 말이 아니.(없어, 없어. 없어. 밤나무 잇어도 밤나무를 위해서 말하는 말이 아니야.)

101004 @ 아.(아.)

101004 # 그냥 저 노프다고 해서 바메기라?(그냥 저 높다고 해서 ‘바메기’야?)

101004 @ 그냥 노프다고 해서 바메기.(그냥 높다고 해서 ‘바메기’.)

101004 # 멍칭이 바메기.(멍칭이 ‘바메기’.)

12) ‘바메기오름’은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큰바메기(웃바메기), 작은바메기(알바메기) 두 개의 오름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현재 알밤오름, 웃밤오름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밤(栗)과는 관련이 없는 듯하다.

101004 @ 응.(응.)

101004 # 선홀 바메기라고 해 가지고 죽은바메기, 큰바메기 영허난 우린 선홀 건중만 알았거든.(선홀 ‘바메기’라고 해 가지고 ‘작은바메기’, ‘큰바메기’ 이렇게 하니까 우린 선홀 것인 줄만 알았거든.)

101004 @ 응.(응.)

101004 # 경헛는디 내중에 보니 그게 아니라고.(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라고.)

101004 @ 응.(응.)

101004 # 그게 아니라 삼성사 땅이고, 요 큰바메기는 개인 땅이라. 개인 요 이제 그 옛날 서부 측량이라고 해 가지고이.(그게 아니라 삼성사 땅이고, 요 ‘큰바메기’는 개인 땅이야. 개인 요 이제 그 옛날 서부 측량이라고 해 가지고.)

101004 @ 예.(예.)

101004 # 땅을 선홀 지경 북촌 지경 다 같은 거라.(땅을 선홀 지경, 북촌 지경 다 가른 거야.)

101004 @ 응.(응.)

101004 # 게서 선홀 관할에 든디 그것도 개인이 산에, 샷단 폴아불언, 큰바메기.(그래서 선홀 관할에 들었는데 그것도 개인이 사서, 샷다가 팔아버렸어. ‘큰바메기’.)

101004 @ 아.(아.)

101004 # 게난 이제 개인 땅이라 것도, 큰바메기도.(그러니까 이제 개인 땅이야 그것도, ‘큰바메기’도.)

101004 @ 응.(응.)

101004 # 선홀 것이 아니라. 다 폴아불엇어. 겨난 이 선홀 아무것도 아니여.(선홀 것이 아니야. 다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선홀 아무것도 아니야.)

101004 @ 하하하.(하하하.)

101004 # 선홀곳아올라 이젠 또 선홀 거라난디 다 이제 국가에 폴아불엇어. 겨난.(‘선홀곳’마저 이젠 선홀 거였는데 다 이제 국가에 팔아 버렸어. 그러니까.)

101004 @ 선홀곳은 어디보고 선홀곳이엔 허는 거파?(‘선홀곳’은 어디보고 ‘선홀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101004 # 이제 동백동산이렌 현 디가이.(이제 동백동산이라고 한 데가.)

101004 @ 동백동산?(동백동산?)

101004 # 숲이주게, 숲.(숲이지, 숲.)

101004 @ 예.(예)

101004 # 경헌디 이젠 국가에서 다 사 불어세. 선홀 사름신디 돈 쥘. 돈을 개인 별로 흐끔씩 쥘서, 호호 방문허연. 경헛이 이제 국가 땅 뤄연. 국가 땅 뤄난 이제 자연유산으로 허영 세계 각국이 다 온덴 험져. 모리, 막.(그런데 이젠 국가에서 다 사 버렸어. 선홀 사람에게 돈 주어서. 돈을 개인별로 조금씩 쥘어, 집집마다 방문해

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땅 되었어. 국가 땅 되니까 이제 자연유산으로 해서 세계 각국에서 다 온다고 하고 있지. 모레, 막)

101004 @ 계난.(그러니까.)

101004 # 시에도 막 광고 부쩍젠 헐게.(제주시에도 막 광고 붙었다고 하던데.)

101004 @ 예. 막 선전해서마씨.(예 막 선전하고 있어요.)

101004 # 저 스무이튿날은이 막 노픈 사름덜 도지스 뭐 무슨 지스 문 온덴 헤라. 스무이튿날.(저 스무이튿날은 막 높은 사람들 도지사 뭐 무슨 지사 모두 온다고 하더라. 스무이튿날.)

101004 @ 스무이튿날?(스무이튿날?)

101004 # 응, 이튿날 허곡 삼일날은 또 막 사름이 막 모일 거.(응, 이튿날 하고 삼일날은 또 막 사름이 막 모일 거.)

101004 @ 응, 금요일날?(응, 금요일날?)

101004 # 금요일날. 금요일이 모리가?(금요일날. 금요일이 모레니?)

101004 @ 내일. 금요일.(내일. 금요일.)

101004 # 내일 금요일이지.(내일 금요일이지.)

101004 @ 토요일에 헌덴 허는 거 뉘안게마는. 난 토요일이엔 들어신디.(토요일에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마는. 난 토요일이라고 들었는데.)

101004 # 아니, 이십삼일날은 전국 다 모이고 낼은 따로.(아니, 이십삼일날은 전국 다 모이고 내일은 따로.)

101004 @ 아.(아.)

101004 # 계민 나가 내일로 안디. 노인당에서 굿사 나영 드뿔지. 오늘 스무하루 아이가?(그러면 내가 내일로 아는데. 노인당에서 아까 나랑 다뿔지. 오늘 스무하루 아니냐?)

101004 @ 응, 오늘 스무하루.(응, 오늘 스무하루.)

101004 # 경헌디 계메게. 에이구.(그런데 글썽. 아이고.)

101004 @ 이 동네 계난 내창은 엇어?(이 동네 내는 엇어?)

101004 # 응?(응?)

101004 @ 내창.(내)

101004 # 내창은 엇어, 이디.(내는 엇어, 여기.)

101004 @ 이디 내창은 엇어.(여기 내는 엇어.)

101004 # 내창, 요 이제 함덕광 요 사이에 명죽내¹³⁾라고 헌 내를이.(내창, 요 이제 함덕과 요 사이에 '명죽내'라고 한 내를.)

101004 @ 명죽내?(명죽내?)

101004 # 응, 그 내가 비가 하영 왕 명죽내 세 번 터지민 송년 진덴 헤낫저. 비 많이 왕.(응, 그 내가 비가 많이 와서 '명죽내' 세 번 터지면 흥년 든다고 했었어. 비 많이 와서.)

13) '명죽내'는 조천읍 선흘과 함덕 사이에 있는 내로 '선내'라고도 한다.

101004 @ 아.(아.)

101004 # 경허단 이제 막았어.(그러다가 이제 막았어.)

101004 @ '선내'가 똑ㄴ튼 거?(선내가 똑같은 거?)

101004 # 응, ㄴ튼 거. 명죽내가 선내. 함덕으로 이레 차도 못 다녀. 그 명죽내 터지민.(응, 같은 거. '명죽내'가 '선내'. 함덕에서 이리 차도 못 다녀. 그 '명죽내' 터지면.)

101004 @ 비 하영 오민?(비 많이 오면?)

101004 # 응. 계단 막았어. 이제 막안.(응, 그러다가 막았어. 이제 막았어.)

101004 @ 메와불민 또, 저.(메워버리면 또, 저.)

101004 # 막안에 그 물줄기를 영 이제 바당더레 흐르게 막 헤어났게.(막아서 그 물줄기를 이렇게 이제 바다로 흐르게 막 해놓았어.)

101004 @ 아.(아.)

101004 # 경해연 터지운 거주게. 질르레 올라오지 못허게. 시에도 다 그 내창 다 헛주게. 게 안허민 사름 못 살아.(그렇게 해서 터지게 한 거지. 길로 올라오지 못하게. 제주시에도 다 그 내 다 했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 못 살아.)

101004 @ 근데 경해부난 홍수 나난, 비 하영 오난예, 홍수 난예 막 저 물 안 내려가 가지고.(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홍수 나니까, 비 많이 오니까, 홍수 나서 막 저 물 안 내려가 가지고.)

101004 # 그 흔 해게 시에 오죽 해사게.(그 한 해 제주시에 오죽 했냐?)

101004 @ 계난 그 도남예, 차도 막 떠내려 가불고예.(그러니까 그 도남요, 차도 막 떠내려 가버리고요.)

101004 # 도남이라? 서문통이주게.(도남이냐? 서문통이지.)

101004 @ 서문통. 응 서문통까지.(서문통, 응 서문통까지.)

101004 # 서문통 우리 큰년네도이, 우리 큰뜰네.(서문통 우리 큰년네도, 우리 큰뜰네.)

101004 @ 응.(응)

101004 # 안거리에서 막 그냥 그때 쓰레뜨집이 살 때여.(안채에서 막 그냥 그때 슬레이트 집에 살 때야.)

101004 @ 응.(응.)

101004 # 저 그 비브름이 막 쳐가난 쓰레뜨가 막 걷어짐직이 들럭들럭해가난.(저 그 비바람이 막 치니까 슬레이트가 막 걸힐 것처럼 들썩들썩해가니까.)

101004 @ 응.(응)

101004 # 밧거린 또 조그만헌디 밧거리나 가겐 헨 밧거리 온디. 윈 흔 시간만 더 오민 즈물크라렌. 흔 시간 아니 흔 십 분만 더 와서민. 계단 비가 그차렌게.(바깥채는 또 조그마한데 바깥채나 가자고 해서 바깥채 왔는데. 윈 한 시간만 더 오면 잠기겠더라고. 한 시간 아니 한 십 분만 더 왔으면. 그러다가 비가 그치더래.)

101004 @ 응.(응)

101004 # 다섯, 으섯 새끼가 그디 담아진다. 경헨 이제 아니 이젠 동스무실에 전화허난 그디 우리도 못 간덴. 차 떠나불언.(다섯, 여섯 식구가 거기 담아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니 이젠 동사무소에 전화하니까 거기 우리도 못 간대. 차 떠나 버려서.)

101004 @ 응.(응)

101004 # 경헨 차, 비 개연 보건이. 큰 차 우이 죽은 차, 큰 차 우이 죽은 차. (그렇게 해서 차, 비 개어서 보니까. 큰 차 위에 작은 차, 큰 차 위에 작은 차.)

101004 @ 하하하.(하하하.)

101004 # 차가 멧 개씩 경. 그디 시계빵.(차가 멧 개씩 그렇게. 거기 시계 가게.)

101004 @ 그디 내창 막아부난 경헨 거 아니파?(거기 내 막아버리니까 그런 거 아납니까?)

101004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1004 @ 아니.(아니.)

101004 # 내창 막은 게 아니고 물이 버천 다 흘러가질 못허연.(내 막은 것이 아니고 물이 부쳐서 다 흘러가지 못했어.)

101004 @ 다 막아불엇수게. 경허니까 더 내려가질 못허는 거라.(다 막아버렸잖 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지 못하는 거야.)

101004 # 몰라. 다 흘르게 멘들앗주, 알로. 알로 이제사 다 멩글안.(몰라. 다 흐르게 만들엇지, 아래로. 아래로 이제야 다 만들엇어.)

101004 @ 응.(응.)

101004 # 그 홍수 터저난 후에 막앗어, 막앗어. 흘르게 막앗어. 바당드레 흘르게.(그 홍수 터지고 난 후에 막앗어, 막앗어. 흐르게 막엇어. 바다로 흐르게.)

101004 @ 응.(응.)

101004 # 이디 멩죽내베끼 엇어.(여기는 ‘멩죽내’밖에 없어.)

101004 @ 멩죽내베끼 엇어?(‘멩죽내’밖에 없어?)

101004 # 응, 저 교래리가 내가 한다, 교래, 옛날도.(응, 저 교래리에 내가 많아, 교래, 옛날도.)

101004 @ 이디 큰 바위나 이런 건 엇어?(여기 큰 바위나 이런 건 없어?)

101004 # 엇다.(없다.)

101004 @ 돌, 큰 돌이나 이런 거.(돌, 큰 돌이나 이런 거.)

101004 # 엇어, 엇어. 거 동백동산 거 구경허는 거.(없어, 없어. 그거 동백동산 그거 구경하는 거.)

101004 @ 그럼 굴, 동굴?(굴, 동굴은?)

101004 # 동굴도 이디 엇고.(동굴도 여기 없고.)

101004 @ 무사 잇주. 뭐 들어신디. 목시물굴.(왜 있지. 뭐 들었는데. ‘목시물 굴¹⁴⁾’.)

14) ‘목시물굴’은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작은 굴 이름이다. 4·3 당시 선흘 사람들이 이 굴속에 숨어

101004 # 아이고 그거, 그까짓 굴. 그 목시물굴 잊주게.(아이고 그거, 그렇게 작은 굴. 그 ‘목시물굴’ 있지.)

101004 @ 계난 굴 여러 개엔 허던데.(그러니까 굴이 여러 개라고 하던데.)

101004 # 여라 갠 미시거. 목시물굴 허나. 도틀굴¹⁵⁾이여, 대섭이굴¹⁶⁾이여 잊주마는 굴덜 헤끔씩 현 것달이여.(여러 개는 무슨. ‘목시물굴’ 하나. ‘도틀굴’이다, ‘대섭이굴’이다 있지마는 굴들 조그마한 것들이야.)

101004 @ 헤끔씩 현 거라?(조그마한 거라?)

101004 # 도틀굴 요새에 세지 안 험주. 막아져불언. 도틀굴 막아전, 막아져어. 목시물굴 이제게 허나 잊주게.(‘도틀굴’ 요새 세지 않지. 막혀버렸어. ‘도틀굴’ 막혔어, 막혔어. ‘목시물굴’ 이제 하나 있지.)

101004 @ 목시물굴?(‘목시물굴’?)

101004 # 반못¹⁷⁾으로 안트레 이제 저 대길이 아방네 벌 놓는 디 목시물굴, 목시물.(‘반못’에서 안으로 이제 저 대길이 아버지네 벌 놓는 데 ‘목시물굴’, ‘목시물.’)

101004 @ 응.(응.)

101004 # 계메 도틀굴은 막아전 못 땡기고. 그 질 에염에 것^ㄹ라 대섭이굴이엔 험신가? 이제 것도 도 막았어.(그러게 ‘도틀굴’은 막혀서 못 다니고. 그 길 옆에 그것보고 ‘대섭이굴’이라고 하는가? 이제 그것도 입구 막혔어.)

101004 @ 대섭이굴?(‘대섭이굴’?)

101004 # 대섭이굴. 너르도 안허여. 저 성창이네 가지 못헌 디. 것도 안 널른 디.(‘대섭이굴’. 넓지도 않아. 저 성창이네 가지 못한 데. 그것도 안 넓은데.)

101004 @ 이런 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이런 거 엇수과?(이런 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이런 거 없어요?)

101004 # 엇어게. 아이고, 그 굴 때문에, 저 목시물굴 때문에이 스삼사건에 그디 강 곱으민 아이고 그디 멀영 못 가카부덴.(없어. 아이고, 그 굴 때문에, 저 ‘목시물굴’ 때문에 사삼사건에 거기 가서 숨으면 아이고 거기 멀어서 못 갈까봐.)

101004 @ 응.(응.)

101004 # 선흘 사름 그디 곱앗단 흐 멧 명 다 죽어세. 그디서.(선흘 사름 거기 숨었다가 한 몇 명 다 죽었어. 거기서.)

101004 @ 아.(아.)

101004 # 그디 곱으레 갓단.(거기 숨으러 갔다가.)

101004 @ 아, 쫓쫓쫓.(아, 쫓쫓쫓.)

101004 # 그 굴에. 견디 이 선흘 사름이 그 바로 그 굴도에 벌 질람서. 벌 질뤄.(그 굴에. 그런데 이 선흘 사름이 그 바로 그 굴 입구에서 벌 기르고 있어. 벌 길러.)

있다가 죽었다고 한다.

15) ‘도틀굴’은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작은 굴 이름이다.

16) ‘대섭이굴’은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작은 굴 이름이다.

17) ‘반못’은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연못 이름이다.

101004 @ 아.(아.)

101004 # 겨고테 대단허텐 헛주, 난. 무섭도 안허영 대단허텐.(그리길래 대단하다고 했지, 난. 무섭지도 않고 대단하다고.)

101004 @ 옛날 사름 죽어난 단디?(옛날 사람 죽었던 곳인데?)

101004 # 사름이 혼돌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죽은 사름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 우리는 가지도 안 허여난.(사람이 혼돌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죽은 사름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 우리는 가지도 안했어.)

101004 @ 응.(응.)

101004 # 목시물, 식산 그 곳덜.(‘목시물’, ‘식산’ 그 숲들.)

101004 @ 아까 선홀곳 말고. 아까 목시물굴 이디 쉽디다. 이거 목시물굴. 도틀 굴.(아까 ‘선홀곳’ 말고. 아까 ‘목시물굴’ 여기 있던데요. 이거 ‘목시물굴’ ‘도틀굴’.)

101004 # 도틀굴도 썬구나?(‘도틀굴’도 썬구나.)

101004 @ 응, 잇어.(응, 잇어.)

101004 # 것도 굴이라고.(그것도 굴이라고.)

101004 @ 계난.(그러니까.)

101004 # 거 굴 크지 안허여.(그거 굴 크지 않아.)

101004 @ 크지 안허여?(크지 않아?)

101004 # 우린이 스삼사건 전이 다 봐낫주게.(우리는 사삼사건 전에 다 봤었지.)

101004 @ 응.(응.)

101004 # 봐난디 스삼사건에 이 도틀굴에서도 사름이 더러 죽엇주게.(봤었는데 사삼사건에 이 ‘도틀굴’에서도 사람이 더러 죽었지.)

101004 @ 아.(아.)

101004 # 경 해난 후로 난.(그렇게 한 후로 난.)

101004 @ 그레 안 가예.(그리 안 가요.)

101004 # 안 가, 안 가. 절대 안 가. 저 고사리 거끄레도 그디 에돌양 가주, 글로 안 가.(안 가, 안 가. 절대 안 가. 저 고사리 꺾으러도 거기 에둘러서 가지, 글로 안 가.)

101004 @ 아.(아.)

101004 # 가지 실패. 도틀굴도 잇긴 잇어. 크지 안허여, 건.(가기 싫어. ‘도틀굴’도 잇긴 잇어. 크지 않아. 그것은.)

101004 @ 응.(응.)

101004 # 우리 알기에는 지금 다 막아진 걸로 안디. 요새 소낭 비명 터져신가?(우리 알기에는 지금 다 막힌 것으로 아는데. 요새 소나무 베면서 터졌나?)

101004 @ 응.(응.)

101004 # 것도 굴은 굴이라. 큰 굴 아니.(그것도 굴은 굴이야. 큰 굴 아니.)

101004 @ 이 동네는 큰 기관이나 이런 거는 엇어마씨?(이 동네는 큰 기관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101005 # 기관?(기관?)

101005 @ 동사무소, 마을회관 있고 또 무신거 있어?(동사무소, 마을회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101005 # 마을회관, 체육관베끼 더 셔?(마을회관, 체육관밖에 더 있어?)

101005 @ 마을회관, 체육관예?(마을회관, 체육관요?)

101005 # 요디 체육관, 보건소 옆이.(요기 체육관, 보건소 옆에.)

101005 @ 보건소. 또 뭐 이신고?(보건소. 또 뭐 있나요?)

101005 # 뭐 엇주게. 보건소허고.(뭐 없지. 보건소하고.)

101005 @ 학교, 초등학교 잇주예?(학교, 초등학교 잇지요?)

101005 # 초등학교허고.(초등학교하고.)

101005 @ 또?(또?)

101005 # 거베끼 무신거 셔?(그거밖에 뭐 있어?)

101005 @ 노인당허고.(노인당하고.)

101005 # 응.(응.)

101005 @ 동백동산습지센터. 이거 허고예.(동백동산습지센터. 이것 하고요.)

101005 # 응. 이거 어제, 그지께 엽서 올라세.(응. 이거 어제, 그제 엽서 왔네.)

101005 @ 응.(응.)

101005 # 엽서 이거 데왔어, 문.(엽서 이거 나눠줬어, 모두.)

101004 @ 응, 아니 거난 바메기오름을 알밤오름이라고.(응, 아니 그러니까 ‘바메기오름’을 ‘알밤오름’이라고.)

101004 # 경허난.(그러니까.)

101004 @ 거난 난 밤 하영 나는 딴가 헛주.(그러니까 나는 밤 많이 나는 데인가 했지.)

101004 # 나도 경헌디 그게 아니고 알바메기엔 말을 알밤오름이엔 헛주게.(나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알바메기’라는 말을 ‘알밤오름’이라고 했지.)

101004 @ 거난 밤오름, 바메기오름을 밤오름이엔.(거난 ‘밤오름’. ‘바메기오름’을 ‘밤오름’이라고.)

101004 # 응.(응.)

101004 @ 웃밤오름, 알밤오름. 이렇게.(‘웃밤오름’, ‘알밤오름’. 이렇게.)

101004 # 응.(응.)

101004 @ 계난, 그래서 밤이 많이 나는 딴가 헛주.(그러니까, 그래서 밤이 많이 나는 데인가 했지.)

101004 # 밤낭 멧 개 엇다. 밤이 나도 경헌 밤낭 멧 개 낵 헤신가 허난 그게 아니. 밤 우렁 허는 거 아니.(밤나무 멧 개 엇다. 밤이 나도 그렇게 해서 밤나무 멧 개 놓고 했나 하니까 그게 아니야. 밤 위해서 하는 거 아니.)

101004 @ 응.(응.)

101006 @ 이 마을에 혹시 계 같은 거, 접. 마을 사람들끼리 헤근에 허는 거 잇

어난? 옛날에.(이 마을에 혹시 계 같은 거, 접. 마을 사람들끼리 해서 하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101006 # 계?(계?)

101006 @ 접. 아까 무신거엔 낄앗저마는.(접. 아까 뭐라고 말했는데.)

101006 # 제.(계.)

101006 @ 응, '제'.(응, 계.)

101006 # 제 셋주마는게 것사 개인 거시기.(계 있었지마는 그거야 개인 거시기.)

101006 @ 개인이 허는 거라예. 마을이 통채로 허는 건 엇어?(개인이 하는 거지요. 마을이 통채로 하는 것은 없어요?)

101006 # 엇어.(없어.)

101006 @ 그냥 친목허는 거예?(그냥 친목하는 거지요?)

101006 # 응, 우리게 서른 다섯 명이 허단에 설리불고계. 그것이 큰 제랏저계.(응, 우리 서른 다섯 명이 하다가 그만두고. 그것이 큰 계였어.)

101006 @ 이것이 큰 제라난예.(이것이 큰 계였었다고요.)

101006 # 계고, 이 곳제, 곳 아이 폰 때 곳제도 허꼭계.(그리고, 이 '곳제'. 숲 팔지 않았을 때 '곳제'도 하고.)

101006 @ 곳제는 무신거?('곳제'는 뭐?)

101006 # 계, 곳 관리.(그렇지, 숲 관리.)

101006 @ 아.(아.)

101006 # 곳 관리허는 거.(숲 관리하는 거.)

101006 @ 아, 곳 관리허는 거 헤근예. 사름이 모영, 여러 사름이 모영 헤난?(아, 숲 관리하는 거 해서. 사름이 모여서, 여러 사름이 모여서 했었어요?)

101006 # 막 그냥 관리했주계. 낭, 누계 해, 놀낭 그차 가지 못허계.(막 그냥 관리했었지. 나무, 누구 해, 날나무 잘라 가지 못하게.)

101006 @ 응.(응.)

101006 # 막 관리허연.(막 관리했어.)

101006 @ 응.(응.)

101006 # 막 당번허명.(막 당번하면서.)

101006 @ 당번허명, 사름덜 낭 못 헤가계?(당번 하면서 사름들이 나무 못 헤가계?)

101006 # 응. 낭 못 헤가계. 놀낭 그치도 못허계.(응. 나무 하지 못하게. 생나무 자르지도 못하게.)

101006 @ 아, 놀낭 그치도 못허계 허고.(아, 생나무 자르지도 못하게 하고.)

101006 # 경헤난.(그렇게 했었어.)

101007 @ 이 마을에 혹시 내려오는 풍습 이런 거.(이 마을에 혹시 내려오는 풍습 이런 거.)

101007 # 포제 그런 거?(포제 그런 거?)

101007 @ 응.(응.)
101007 # 포제 허고.(포제 하고.)
101007 @ 포제 허고.(포제 하고.)
101007 # 딱로 저 정월 일뤼, 일뤼할망¹⁸⁾신디도 호호 방문, 호당마다 가.(또 저 정월 이레. ‘일뤼할망’에게도 집집마다 방문, 호마다 가.)
101007 @ 어디마다, 호당마다?(어디마다, ‘호당’마다?)
101007 # 이 저 이녁 집집마다.(이 저 자기 집집마다.)
101007 @ 응.(응.)
101007 # 집집마다 소원 빌레 가주게.(집집마다 소원 빌러 가지.)
101007 @ 어디 가? 일뤼당¹⁹⁾에?(어디 가? ‘일뤼당’에?)
101007 # 으. 당이 있어.(응. 당이 있어.)
101007 @ 일뤼당은 어디 셔?(‘일뤼당’은 어디 있어?)
101007 # 율로 가민 잇주.(요리로 가면 있지.)
101007 @ 흐뎡 잇당 ㄱ리쳐 줍서예?(조금 있다가 가르쳐 주세요?)
101007 # ㄱ리쳐 무신거 허젠.(가르쳐서 무엇 하려고?)
101007 @ 사진 찍젠.(사진 찍으려고.)
101007 # ㄱ리쳐 봐도 소용 엇어.(가르쳐도 소용 없어.)
101007 @ 이디 분향당도 잇주예?(여기 분향당도 있지요?)
101007 # 저 거시기 안선홀.(저 거시기 ‘안선홀’.)
101007 @ 아 건 알선홀에 이신 거?(아, 그것은 ‘알선홀’에 있는 거?)
101007 # 알선홀, 알선홀.(‘알선홀, 알선홀’.)
101007 @ 응.(응.)
101007 # 알선홀은이.(‘알선홀’은.)
101007 @ 예.(예.)
101007 # 저, 정월 십사일날.(저, 정월 십사일날.)
101007 @ 예.(예.)
101007 # 음력으로.(음력으로.)
101007 @ 예.(예.)
101007 # 그날에 이제 큰 제로 헤여서 가고, 여기는 이제.(그날에 이제 큰 제로 해서 가고, 여기는 이제.)
101007 @ 일월 십사일날.(일월 십사일날.)
101007 # 이딘 또 칠일날만 가고.(여기는 또 칠일날만 가고.)
101007 @ 칠일날만? 칠일, 십칠일?(칠일날만? 칠일, 십칠일?)
101007 # 으, 십칠일날도 가고 칠일날은 가. 이십칠일날도 가고.(응, 십칠일날도 가고 칠일날은 가. 이십칠일날도 가고.)

18) ‘일뤼할망’은 치병, 출산, 육아를 관장하는 ‘일뤼당’에 모신 여성신이다.

19) ‘일뤼당’은 매달 7일, 17일, 27일에 다니는 신당이다.

101007 @ 응.(응.)
101007 # 이제 일뤼가 대목이라고 해 가지고.(이제 이레가 대목이라고 해 가지고.)
101007 @ 칠일, 이십칠일, 십칠일?(칠일, 이십칠일, 십칠일?)
101007 # 응.(응.)
101007 @ 혼 달에 세 번 가는 거라?(한 달에 세 번 가는 거야?)
101007 # 아니. 일 년에 혼 번 가는데.(아니. 일 년에 한 번 가는데.)
101007 @ 아.(아.)
101007 # 이제 그런 일뤼날은 간다고.(이제 그런 이레날은 간다고.)
101007 @ 응.(응.)
101007 # 이녁 가지는 날.(자기 갈 수 있는 날.)
101007 @ 이권 무신 당이라?(이권 무슨 당이에요?)
101007 # 일뤼할머니.(‘일뤼할머니’.)
101007 @ 일뤼할머니당?(‘일뤼할머니’당?)
101007 # 응.(응.)
101007 @ 할망당?(‘할망당’?)
101007 # 응, 겐디 이 선홀 마을을 직허는.(응, 그런데 이 선홀 마을 지키는.)
101007 @ 계난 이름이 할망당?(그러니까 이름이 ‘할망당’?)
101007 # 응. 경 이제, 정월드레도 가고 또 이제 2월에 십일월들에 이제 많은 곡식을 이제 헤여 드렸수다 허영 또 제 지내레 가.(응. 그렇게 이제, 정월에도 가고 또 이제 가을에 십일월에 이제 많은 곡식을 이제 해 들였습니다 해서 또 제 지내러 가.)
101007 @ 응.(응.)
101007 # 경 허는 거.(그렇게 하는 거.)
101007 @ 할머니도 가난?(할머니도 갔었어?)
101007 # 가고말고.(가고말고.)
101007 @ 응.(응.)
101007 # 대목 가지. 음력 정월들에.(많이 가지. 음력 정월에.)
101007 @ 정월 초일뤼날 가는 거?(정월 초이레날 가는 거?)
101007 # 응.(응.)
101007 @ 일월 칠일날?(일월 칠일날?)
101007 # 일월 칠일날 못 가면 십칠일날 가곡.(일월 칠일날 못 가면 십칠일날 가고.)
101007 @ 응.(응.)
101007 # 이녁 못 가면. 또 몸이 이제 부정 타나 뭐허민 못 가지게.(자기 못 가면. 또 몸이 이제 부정 타거나 뭐하면 못 가지.)
101007 @ 응.(응.)

101007 # 경허민 또 십칠일날 가곡.(그러면 또 십칠일날 가고.)
101007 @ 응.(응.)
101007 # 또 십일월달에도 가고.(또 십일월 달에도 가고.)
101007 @ 일 년에 그른 두 번 가는 거라?(일 년에 그러면 두 번 가는 거예요?)
101007 # 응, 두 번.(응, 두 번.)
101007 @ 갈 때 무신거 행 가?(갈 때 무엇을 해서 가요?)
101007 # 무신거 행 가? 밥 허영 메, 이제, 메렌 허주, 밥그라.(무엇 하고 가? 밥 하고 메, 이제 메라고 하지, 밥 보고.)
101007 @ 예, 메.(예, 메.)
101007 # 메 시 개 거리곡.(메 세 개 뜨고.)
101007 @ 메 시 개 거리곡.(메 세 개 뜨고.)
101007 # 갯것 제숙²⁰ 두 개 굽곡.(바닷고기 두 개 굽고.)
101007 @ 갯것 퀘기?(바닷고기?)
101007 # 응. 또 이제 떡도 신가지 제물로 출려 지는냥. 떡도 허여지민 허여도, 못 허여. 매번 못 허여.(응. 또 이제 떡도 여러 가지 제물로 차려지는대로. 떡도 해지면 해도 못 해. 매번 못 해.)
101007 @ 계민 집이서 돌레떡이라도 행 가지 안허여?(그러면 집에서 ‘돌레떡’이라도 해서 가지 않아요?)
101007 # 헤영 가지민 좋주마는 요새엔이 못 헨다게.(해서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요새는 못 해.)
101007 @ 요새 못 해도 옛날에 헨 거?(요새는 못 해도 옛날에는 헨 거?)
101007 # 옛날엔 허고말고.(옛날에는 하고말고.)
101007 @ 무신거 헤낫수과?(뭐 했었어요?)
101007 # 돌레떡. 모물궤롤로도 행 가고.(돌레떡. 메밀가루로도 해서 가고.)
101007 @ 모물로 돌레떡 해, 아니민 쓸로 해?(메밀로 돌레떡 해, 아니면 쌀로 해?)
101007 # 쌀로 허곡, 모물로 허곡.(쌀로 하고, 메밀로 하고.)
101007 @ 두 개 해?(두 개 해?)
101007 # 아니게, 혼 가지.(아니야, 한 가지.)
101007 @ 아, 쓸도 허고, 쓸 헨 때도 잇고 모물 헨 때도 잇고.(아, 쌀도 하고, 쌀 할 때도 잇고 메밀 할 때도 잇고.)
101007 # 응.(응.)
101007 @ 돌레떡 헨나만 행 가?(돌레떡 하나만 해서 가?)
101007 # 응.(응.)
101007 @ 돌레떡은 몇 개 필요헙니까?(돌레떡은 몇 개 필요헙니까?)
101007 # 몇 개게? 저 혼 반에이 세 개씩 올려.(몇 개? 저 한 반기에 세 개씩

20) ‘제숙’은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를 말하는 것으로 ‘제육’의 제주어다.

올려.)

101007 @ 아 그민 아홉 개가 필요하네.(아 그러면 아홉 개가 필요하네.)

101007 # 겨민 또 혼 열 개 더 아정 가야 돼지. 올리구정 허민 더 올리고.(그러면 또 한 열 개 더 가져 가야 돼지. 올리고 싶으면 더 올리고.)

101007 @ 응.(응.)

101007 # 것도 뭐.(그것도 뭐.)

101007 @ 그 다음에.(그 다음에.)

101007 # 과일.(과일.)

101007 @ 과일은 몇 개?(과일은 몇 개?)

101007 # 삼종.(삼종)

101007 @ 삼종.(삼종)

101007 # 미강, 사과, 배.(귤, 사과, 배.)

101007 @ 응. 그거 세 개?(응, 그거 세 개.)

101007 # 응. 삼종 행.(응. 삼종 해서.)

101007 @ 삼종으로 세 개 해야 돼? 밥이 세 개난.(삼종으로 세 개 해야 돼요? 밥이 세 개니까.)

101007 # 아이, 건, 과일은 삼종 허는 거난게.(아니, 그건, 과일은 삼종 하는 거니까.)

101007 @ 아, 하나만?(아, 하나만?)

101007 # 허는 거난. 혼 사라에 세 개씩.(하는 거니까. 한 접시에 세 개씩.)

101007 @ 거난 혼 사라에 세 개씩. 세 사라 해야 돼여?(그러니까 한 접시에 세 개씩. 세 접시 해야 돼요?)

101007 # 응, 세 사라.(응 세 접시.)

101007 @ 세 사라 허는 거?(세 접시 하는 거?)

101007 # 응.(응.)

101007 @ 독새긴 안허여?(달같은 안해요?)

101007 # 헤여.(해.)

101007 @ 독새긴 몇 개나 허여?(달같은 몇 개나 해요?)

101007 # 독새기 상 강 두 개도 올리고, 하나씩도 올리고 그자.(달같 사서 가서 두 개도 올리고, 하나씩도 올리고 그냥.)

101007 @ 하나씩도 올리고 두 개씩도 올리고?(하나씩도 올리고 두 개씩도 올리고.)

101007 # 이녀 출렁가지는 혼. 무신 누게가 하영 출리라 무시건 엇어. 이녀 막 음껏, 정성껏.(자기 차리고 가지는 만큼. 무슨 누가 많이 차리라 무었은 없어. 자기 마음껏, 정성껏.)

101007 @ 경행 가정 가민 어떻게?(그렇게 해서 가져 가면 어떻게 해요?)

101007 # 떡주, 어떻허여?(떡지, 어떻게 해?)

101007 @ 그디 강 제 지내?(거기 가서 제 지내?)
 101007 # 응.(응.)
 101007 @ 제 지내는 건 어떻 헤근에 허는 거?(제 지내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
 101007 # 이제, 강 절도 허고.(이제, 가서 절도 하고.)
 101007 @ 응.(응.)
 101007 # 또 그 신이 오면, 저 ‘신안’²¹⁾, 오면은 말멩²²⁾도 허영 신수도 보고.(또 그 신이 오면, 저 무당, 오면은 기원하고 운수도 보고.)
 101007 @ 그디 ‘신안’이 와마씨?(거기 무당이 와요?)
 101007 # 게, 저, 심방.(그렇지, 저, 무당.)
 101007 @ 심방이엔 안 곶앙 ‘신안’이엔 곶아?(무당이라고 안 하고 ‘신안’이라고 말해요?)
 101007 # ‘신안’이엔도 곶고 보살이엔도 곶곡 헐다게.(‘신안’이라고도 말하고 ‘보살’이라고도 말하고 한다.)
 101007 @ 아.(아.)
 101007 # 요새엔 다 보살이라.(요새는 다 보살이야.)
 101007 @ 응.(응.)
 101007 # 보살도 오곡.(보살도 오고.)
 101007 @ 옛날은 ‘신안’이엔 곶아난?(옛날은 ‘신안’이라고 말했었어요?)
 101007 # 응.(응.)
 101007 @ ‘신안’은 심방허고 툃난 거.(‘신안’은 무당하고 다른 거?)
 101007 # ‘신안’도 그뜰 거주게, 그뜰 거.(‘신안’도 같은 거지. 같은 거.)
 101007 @ 응.(응.)
 101007 # 신안이 시냐? 요새. 아는 사름이 없어.(신안이 있니? 요새. 아는 사름이 없어.)
 101007 @ 응.(응.)
 101007 # 옛날은 신안이 잇주마는.(옛날은 신안이 있지마는.)
 101007 @ 예.(예.)
 101009 @ 그 다음에 이 마을에 특산물, 자랑거리?(그 다음에 이 마을에 특산물, 자랑거리?)
 101009 # 자랑거리가 셔? 동백동산 게 막 자랑거리 아이가? (자랑거리가 있니? 동백동산 그게 막 자랑거리 아니냐?)
 101009 @ 동백동산예.(동백동산요.)
 101009 # 막 그냥 세계적으로 자랑거리라.(막 그냥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야.)
 101009 @ 예.(예.)

21) ‘신안’은 주역이나 풍수 질병 따위에 능통한 사람을 일컫는데 여기서는 무당을 ‘신안’이라고 했다.

22) ‘말멩’은 ‘말뎡, 말미’라고도 하며 무당이 기원하는 말이다.

101009 # 남산²³⁾ 마을로 하고. 남산 마을이엔 허여근에 마을도 바짜.(남산 마을로 하고. 남산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도 바짜.)

101009 @ 람사르.(람사르)

101009 # 람사르 참. 경해도 남산마을이엔 헨게게.(람사르 참. 그래도 남산마을이라고 하던데.)

101009 @ 람사르 마을.(람사르 마을.)

101009 # 응, 람사르 마을. 뜻을 모르크라.(응, 람사르 마을. 뜻을 모르겠어.)

101009 @ 그거 아까 좇아봐신디예, 이란에 있는, 다른 나라에 마을 이름인디예 그 마을에서 이런 습지를 보존하자고 약속을 헛덴마씨.(그거 아까 찾아봤는데요, 이란에 있는, 다른 나라의 마을 이름인데요, 그 마을에서 이런 습지를 보존하자고 약속을 헛대요.)

101009 # 응.(응.)

101009 @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습지를 보존하자고 회의를 해 가지고. 람사르 협약 이런 거.(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습지를 보존하자고 회의를 해 가지고. 람사르 협약 이런 거.)

101009 # 응. 경해연 람사르엔 헤불엇주.(응. 그래서 람사르라고 해버렸지.)

101009 @ 예. 도시 이름, 도시 이름.(예. 도시 이름, 도시 이름.)

101009 # 것도 아무나 몰라.(그것도 아무나 몰라.)

101009 @ 이 동네 젤 자랑거린 동백 동산?(이 동네 젤 자랑거리는 동백동산?)

101009 # 응.(응.)

101009 @ 옛날엔 그 동산에도 올라 강 놀곡 헤낫수과?(옛날에는 그 동산에도 올라가서 놀고 했어요?)

101009 # 우린이 그디가이 막 곳 소곱이여.(우린 거기가 막 숲속이야.)

101009 @ 아.(아.)

101009 # 멀어, 이디서. 멀어근엥에 헨디 그디가 ‘상돌²⁴⁾엉덕’이라고 해 가지고.(멀어, 여기서. 멀어서 한데 거기가 ‘상돌엉덕’이라고 해 가지고.)

101009 @ 응.(응.)

101009 # 이제 돌로 영 싸여져서 ‘상돌’이 이제, 제스 앞이 놓는 ‘상돌’ 어샤게?(이제 돌로 이렇게 쌓여서 상돌이 이제, 제사 앞에 놓는 상돌 없냐?)

101009 @ 예, 예.(예, 예.)

101009 # 그것ㄴ치 영 주썩헛여 가지고 그 동산에 강 사민 마을 봐져.(그것 처럼 이렇게 우뚝해 가지고 그 동산에 가서 서면 마을을 볼 수 있어.)

101009 @ 아.(아.)

23) 람사르(Ramsar)를 ‘남산’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선홍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협회가 지정, 등록하여 보호하는 습지)로 지정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24) ‘상돌’은 ‘돌향로’를 이르는 말로 동백동산이 우뚝 솟아 있는 모양을 보고 ‘상돌동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101009 # 경허난 그디가 상돌엉덕이엔 헤난. 돌로 막 싸여진 엉덕이라.(그러니까 거기가 상돌엉덕이라고 했어. 돌로 막 쌓여진 언덕이야.)

101009 @ 동백동산을?(동백동산을?)

101009 # 응, 엉덕, 상돌엉덕.(응, 언덕, 상돌언덕.)

101009 @ 상돌엉덕이라고 골아났다고?(상돌언덕이라고 말했었다고?)

101009 # 골아났저게, 우린.(말했었어, 우린.)

101009 @ 그른 옛날부터 동백동산이엔 곤진 안 헤낫구나예?(그러면 옛날부터 동백동산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었군요.)

101009 # 아니, 이제사 동백동산.(아니, 이제야 동백동산.)

101009 @ 아. 옛날엔.(아 옛날에는.)

101009 # 상돌엉덕, 상돌엉덕이엔 헤난. 아이고 저 안에서 상돌엉덕 강은앵이 저 올라사민 막 밋을도 봐지고 경허명 헤낫저게. 경헤낫어.(상돌언덕, 상돌언덕이라고 했어. 아이고 저 안에서 상돌엉떡 가서 올라서면 막 마을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어. 그랬었어.)

101009 @ 그 동백동산 꼭대기에도 무사 동산 올라가도 물 이수게?(그 동백동산 꼭대기에도 왜 동산 올라가도 물 있잖아요?)

101009 # 물 엇어.(물 없어.)

101009 @ 물 잇는 건 어디? 그른. 동산 올라가당 보민 물 잇던데.(물 잇는 것은 어디? 그러면. 동산 올라가다 보면 물 잇던데.)

101009 # 무슨 물이 셔? 그디 물 엇어.(무슨 물이 있어? 거기 물 없어.)

101009 @ 언덕 위에.(언덕 위에.)

101009 # 물 엇다. 골른 물이주. 골른 물.(물 없다. 고인 물이지. 고인 물.)

101009 @ 골른 물.(고인 물.)

101009 # 골른 물인디 그디 널른 물이 엇는다.(고인 물인데 거기 너른 물이 없는데.)

101009 @ 아니 쥬 우에.(아니 제일 위에.)

101009 # 질 우에, 게메 물이 엇어.(제일 위에, 그렇게 물이 없어.)

101009 @ 지난 번에 가신디 그디 막.(지난 번에 갔는데 거기 막.)

101009 # 반못 봐신가?(‘반못’ 봤었나?)

101009 @ 그게 반못인가?(그게 ‘반못’인가?)

101009 # 일로 가민 질에 거?(이리로 가면 길에 것?)

101009 @ 아니 질에 거 아니. 동산 올라간에.(아니 길에 거 아니. 동산 올라가서.)

101009 # 동산 올라강 어디 물이 셔? 물 엇어.(동산 올라가서 어디 물이 있어? 물 없어.)

101009 # 곳 소곱엔 들어가민 족으만씩헌 물통덜 잇주마는 선흘곳 안엔 엇고. 저 마장에 나가사, 물통덜도.(숲 속에 들어가면 자그마한 물통들 있지마는 선흘 숲

안에는 없고.)

101009 @ 어디 나가사, 마장에?(어디 나가야. 마장에?)

101009 # 저 난 베끼디, 숲 소곱 말양 그냥 낭 없는디, 이젠 다 낭이 컷져마는 옛날은 곳 안에 물 엇고.(저 난 밖에, 숲 속에 말고 그냥 나무 없는데. 이제는 다 나무가 컷져마는 옛날은 숲 안에 물 엇고.)

101009 @ 응.(응.)

101009 # 물 엇어.(물 없어.)

101009 @ 식당 이신 디가 ‘먼물깍²⁵⁾’?(식당 있는 데가 ‘먼물깍’?)

101009 # 거 ‘반못’.(그거 ‘반못’.)

101009 @ 거기가 ‘반못’.(거기가 ‘반못’.)

101009 # 응.(응.)

101009 @ 식당 이신 옆이가 ‘반못’.(식당 있는 옆에가 ‘반못’.)

101009 # ‘반못’. ‘먼물깍’엔 식당 엇고.(반못. ‘먼물깍’에는 식당 없고.)

101009 @ ‘먼물깍’에는 뭐 잇어?(‘먼물깍’에는 뭐 잇어요?)

101009 # 아무 것도 엇어.(아무 것도 없어.)

101009 @ ‘먼물깍’은 어디?(‘먼물깍’은 어디?)

101009 # 올로 간 디, 일로 강 글로 나감세. 글로 강 일로 나오곡, 일로 강 글로 나오고.(이리로 간 데, 이리로 가서 그리로 나가는 거야. 거기서 가서 이리로 나오고, 이리로 가서 거기서 나오고.)

101009 @ 차로 못 가, 먼물깍은?(차로 못 가, ‘먼물깍’은?)

101009 # 못 가.(못 가.)

101009 @ 걸영 올라가당.(걸어서 올라가다가.)

101009 # 응.(응.)

101009 @ ‘먼물깍’ 가났구나.(‘먼물깍’ 갔었구나.)

101009 # ‘먼물깍’ 가났구나.(‘먼물깍’ 갔었구나.)

101009 @ 걸영 가신디.(걸어서 갔었는데.)

101009 # 응 거, 먼물깍, 먼물깍. 소르무랑 현 물통.(응 그거, ‘먼물깍’, ‘먼물깍’. 길쭉한 물통.)

101009 @ 예. 동산 막 올라가신디.(예. 동산 막 올라갔었는데.)

101009 # 게메 그디게.(글쎄, 거기)

101009 @ 꼭대기가 아니구나, 그디가.(꼭대기가 아니구나, 거기.)

101009 # 꼭대기 아니.(꼭대기 아니.)

101009 @ 하하.(하하.)

101009 # 그이 먼물깍 가 놓고.(그 ‘먼물깍’ 가 놓고.)

101009 @ 응.(응.)

101009 # 이 반못으로 나오젠 허민 한참 걸어야 돼여.(이 ‘반못’으로 나오려고

25) ‘먼물깍’은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습지의 지명이다.

하면 한참 걸어야 돼.)

101009 @ 거난 한참 걸영 갖거든마씨. 막 올라가신디.(거난 한참 걸영 갖거든요.)

101009 # 우리 선흘 살아도 질 뺨 후제 아이 봤저.(우리 선흘 살아도 질 뺨 후에 안 봤어.)

101009 @ 질 뺨 후제 안 판.(질 뺨 후에 안 봤어.)

101009 # 안 판.(안 봤어.)

101009 @ ‘먼물깍’ 안 가판?(‘먼물깍’ 안 가봤어?)

101009 # 옛날 알아난 거난 보구정치 안허여. 암만 질을 뺨에 이제 막 관광객이 뎅기건 디가 막 오래엿주게.(옛날 알았던 거니까 보고 싶지도 않아. 아무리 길을 빼서 이제 막 관광객이 다닌 지가 아주 오래되었지.)

101009 @ 예.(예.)

101009 # 경해도 예~, 우리 매날 봐난 거 뭐, 볼 거 뭐라 허연 안 간. 안 가 불어.(그래도 예~, 우리 맨날 봤었던 거 뭐, 볼 거 뭐야 해서 안 간. 안 가 버려.)

101009 @ 계난 먼물깍은 차로 못가는 디지예?(그러니까 ‘먼물깍’은 차로 못가는 곳이지요?)

101009 # 못 가.(못 가.)

101009 @ 걸영 가야예?(걸어서 가야지요?)

101009 # 응, 반뫓으로 가면은 또 반뫓으로 가도 반뫓ㄱ장 배피 못 가주. 질 안 터서. 찻길 안 터서.(응, ‘반뫓’으로 가면 또 ‘반뫓’으로 가도 ‘반뫓’까지 밖에 못 가지. 질 안 냐어. 찻길 안 냐어.)

101009 @ 응. 거난 걸영 올라갔어.(응. 그러니까 걸어서 올라갔어.)

101009 # 걸영. 거난 올렛길 걷는 거주. 올렛길 걷는 거.(걸어. 그러니까 올렛길 걷는 거지. 올렛길 걷는 거.)

101009 @ 아, 나 먼물깍 갖다왔구나.(아, 나 ‘먼물깍’ 갖다 왔구나.)

101009 # 응 먼물깍 갖다 와신게. 올렛길, 올렛길.(응, ‘먼물깍’ 갖다 왔네. 올렛길, 올렛길.)

101009 @ 또 이런 디 그딤 ‘반뫓’이구나. 물 이신디 옆에 식당에 강 밥 먹어신디.(또 이런 데 거기는 ‘반뫓’이구나. 물 있는데 옆에 식당에 가서 밥 먹었는데.)

101009 # 응, 거 ‘반뫓’.(응, 그거 ‘반뫓’.)

101009 @ 그 물은이 옛날부터 이 선흘물이라고 해서 도분²⁶⁾에도 이신 물. 이 지적도에 잇다고 그 물은. 것도 아무나 몰라 나베끼. 젊은 사름덜 배우난 알암주마는 옛날 사름덜은. 우린 거 들언 알았주. 도분에 그 물은 이신 물이여.(그 물은 옛날부터 이 선흘물이라고 해서 도분에도 있는 물. 이 지적도에 잇다고 그 물은. 그것도 아무나 몰라 나밖에. 젊은 사름들 배우니까 알지마는 옛날 사름들은. 우리는 그

26) ‘도분’은 지적도 혹은 지도를 뜻하는 것으로 위도와 경도를 읽는 도분초 방식에서 온 말인 듯하다.

거 들어서 알았지. 도분에 그 물은 있는 물이야.)

101009 @ 무신거에? 도분에?(무엇에? 도분에.)

101009 # 도분게, 이 저 지적도, 지적도. 지적도에 어느 지경은 이제 선홀 지경에 물통이 있다. 그 반못이 돌아졌어.(도분, 이 저 지적도, 지적도. 지적도에 어느 근방은 이제 선홀 근방에 못이 있다. 그 ‘반못’이 올라가 있어.)

101009 @ 응.(응.)

101009 # 이제 젊은 사름덜 하간 거 막 아노렌 허여도.(이제 젊은 사름들 여러 가지 많이 안다고 해도.)

2. 제보자 일생

102001 @ 고향은 이디?(고향은 여기?)

102001 # 이디서 난 이디서 켜 고자 살안. 하르방도 이 세계.(여기서 나서 여기서 커서 이제까지 살았어. 남편도 이 지역.)

102001 @ 하르방도 이디서 난 이디서 켜, 이디서 장게가고?(할아버지도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커서, 여기서 장가가고?)

102001 # 겨난 우리 스삼사건에 함덕 간 살단 이디 올라왔저게.(그러니까 우리 사삼사건에 함덕 가서 살다가 여기 올라왔어.)

102001 @ 아.(아.)

102001 # 스삼사건에 함덕 간 살단 이디.(사삼사건에 함덕 가서 살다가 여기.)

102001 @ 그때 원래 다 피신 간 때 아니?(그때 원래 다 피신 간 때 아니?)

102001 # 응, 피신 간.(응, 피신 간.)

102001 @ 응.(응.)

102001 # 피신 갖단에 이디 완.(피신 갔다가 여기 왔어.)

102001 @ 기구나.(그렇구나.)

102001 # 겨난 무시거엔 곶을 것고게.(그러니까 무어라고 말할 거니?)

102001 @ 이름 먼저 곶아줍서.(이름 먼저 말해주세요.)

102001 # 이름 조수용.(이름 조수용.)

102001 @ 조수...(조수...)

102001 # 용.(용.)

102001 @ 용, 남자 이름 닳다.(용, 남자 이름 같다.)

102001 # 응, 맞아. 남자 이름 닳아. 쓸 용제, 목숨 수제에.(응, 맞아. 남자 이름 같아. 쓸 용자, 목숨 수자에.)

102001 @ 아이고.(아이고.)

102001 @ 옛날에 학교도 하영 뎡깁디가?(옛날에 학교도 많이 다녔습니까?)

102001 # 아이고, 참. 말 말라. 학교 이제 제국 때에 들어간 혼 육 개월 뎡기노

렌 흐난 해방 돼불엇주.(아이고, 참. 말 말아라. 학교 이제 제국 때에 들어가서 한
육 개월 다니노라고 하니까 해방 되어버렸지.)

102001 @ 응.(응.)

102001 # 갱헨 이젠 못헌디 이젠 스삼스건 나부난.(그래서 이젠 못했는데 이젠
사삼사건 나버리니까.)

102001 @ 아.(아.)

102001 # 허여시민 우리 침 공부 일등허주.(했으면 우리 침 공부 일등하지.)

102001 @ 경혜실 겨우다게. 완전 요망지게 딱 보니까 할머니가.(그렇게 했을 것
입니다. 완전 ‘요망지게’ 딱 보니까 할머니가.)

102001 # 그냥이 수판도 나가 암산이 빨라, 나가.(그냥이 주판도 내가 암산이 빨
라, 내가.)

102001 @ 아, 응.(아, 응.)

102001 # 어린 때.(어릴 때.)

102001 @ 응. 생일, 생일 곶아지쿠과? 생일.(응. 생일, 말할 수 있습니까?)

102001 # 생일?(생일?)

102001 @ 멧 년생이라, 팔십오 세든, 팔십육세든.(멧 년생이야, 팔십오 세면, 팔
십육 세면.)

102001 # 예, 무시겨 삼공년인가, 삼, 무시것고 나 몰르켜, 잘.(예, 무엇 삼공년
인가, 삼, 무엇이니 나 모르겠어, 잘.)

102001 @ 삼공년.(삼공년.)

102001 # 거, 이서봐.(거, 있어봐.)

102001 @ 무신 떠마씨?(무슨 떠예요?)

102001 # 들떠주게, 들떠.(말떠지, 말떠.)

102001 @ 들떠. 멧 월 메칠?(말떠. 멧 월 며칠?)

102001 # 십일월 십사일.(십일월 십사일.)

102001 @ 십일월 십사일.(십일월 십사일.)

102001 # 경헌디 호적에 저거 틀렛젠 헤여.(그런데 호적에 저거 틀렛다고 해.)

102001 @ 응, 호적은 잘못 올라간.(응, 호적은 잘못 올라갔어.)

102001 # 응. 우리 친정 하르버지가 동깃들에 난디.(응, 우리 친정 할아버지가
동깃달에 태어났는데.)

102001 @ 응.(응.)

102001 # 한문 선생이라났어. 막 올려, 침 올려 낫주게. 우리 하르바님, 친정 하
르바님.(한문 선생이었어. 막 유명해, 참 유명했었지. 우리 할아버님, 친정 할아버
님.)

102001 @ 응.(응.)

102001 # 이디 시하르방도 짐 훈장이엔 헤영.(여기 시할아버지도 김 훈장이라고
해서.)

102001 @ 응. 이 집은 원래 할아버지네 대대로 살던 집?(응. 이 집은 원래 할아버지네 대대로 살던 집?)

102001 # 아니. 저 학교 저곳디 살단.(아니, 저 학교 곁에 살다가.)

102001 @응.(응.)

102001 # 흑교레 이제 땅 막 내노렌 헤부난.(학교에 이제 땅 막 내놓으라고 해버리니까.)

102001 @ 응.(응.)

102001 # 내놔두고 이제 이레 왓저게.(내놔두고 이제 이리로 왔어.)

102001 @ 응.(응.)

102001 # 흑교 저곳디 오래 살안.(학교 곁에 오래 살았어.)

102001 @ 응.(응.)

102001 # 흑교 밋에.(학교 밑에.)

102001 @ 계난 할무니 이 동네는 주로 어떤 농사 지어근에 옛날에 살아났수과?(그러니까 할머니 이 동네는 주로 어떤 농사 지어서 옛날에 살았습니까?)

102001 # 옛날게 꺄사 글아말적 아이라도 조, 보리가 전공이고.(옛날에 아까 말한 것처럼 조, 보리가 주고.)

102001 @ 응.(응.)

102001 # 이, 사람이 양식이, 먹는 게.(이, 사람이 양식이, 먹는 게.)

102001 @ 응.(응.)

102001 # 또 산뒤는 특별히 가는 거고게.(또 산뒤는 특별히 가는 거이고.)

102001 @ 응.(응.)

102001 # 산뒤도 같고, 콩도 같고 모뎀.(밭벼도 같고, 콩도 같고, 메밀.)

102001 @ 노뎀.(나뎀.)

102001 # 모뎀, 모뎀.(메밀, 메밀.)

102001 @ 아, 모뎀.(아, 메밀.)

102001 # 메밀.(메밀.)

102001 @ 예, 예.(예)

102001 # 참, 것도 우린 제줏말로 모뎀, 모뎀허는디.(참, 그것도 우린 제줏말로 메밀, 메밀하는데.)

102001 @ 모뎀, 모뎀, 응.(메밀, 메밀, 응.)

102001 # 메밀이엔 허는 거게.(메밀이라고 하는 거.)

102001 @ 표준어 말고 제줏말로 글아쥬사.(표준어 말고 제줏말로 말해쥬야.)

102001 # 모뎀게, 모뎀.(메밀, 메밀.)

102001 @ 응, 모뎀, 모뎀.(응, 메밀, 메밀.)

102001 # 겨곡게 이젠 고구마엔 허주마는 감저엔 허고. 잘 근곡.(그러고 이젠 고구마라고 하지마는 '감저'라고 하고. 잘 말하고.)

102001 @ 감저도 하영 허곡.(고구마도 많이 하고.)

102001 # 아니, 제죽말로 감저라, 감저엔 허고.(아니 제죽말로 ‘감저’야, ‘감저’라고 하고.)

102001 @ 응.(응.)

102001 # 또 이제 지슬이엔 허고.(또 이제 ‘지슬’이라고 하고.)

102001 @ 지슬이엔 허고예.(‘지슬’이라고 하고요.)

102001 # 경 곱아낫어.(그렇게 말했었어.)

102001 @ 할머니는 나이 속인 거 닷아.(할머니는 나이 속인 거 같아.)

102001 # 응?(응?)

102001 @ 너무 젊어. 팔십 안 되어 보염수다.(너무 젊어. 팔십 안 되어 보입니다.)

102001 # 고맙다. 고마와.(고맙다, 고마워.)

102001 @ 칠십, 이제 일흔 뉘나 마나.(칠십, 이제 일흔 되나마나.)

102001 # 고마와.(고마워.)

102001 @ 할머니 젊었을 때 잘도 고와나시크라마씨.(할머니 젊었을 때 잘도 고왔었겠어요.)

102001 # 쥘 곳어²⁷난.(제일 곳었어.)

102001 @ 무사, 지금 막 곤디.(왜, 지금 아주 고운데.)

102001 @ 할머니 어렸을 때, 시집오기 전이 살아난 말 곱아줍서.(할머니 어렸을 때, 시집오기 전에 살았던 말 해주세요.)

102001 # 살아난 건게.(살았던 것은.)

102001 @ 아까 밧디 가곡 막 헤난 거.(아까 밧에 가고 막 했던 거.)

102001 # 아이고, 살아난 건게 어머니영 살 때. 밧디 가젠 허민.(아이고, 살아난 것은 어머니랑 살 때. 밧에 가려고 하면.)

102001 @ 멧 형제? (멧 형제?)

102001 # 이?(응?)

102001 @ 멧 형제?(멧 형제?)

102001 # 아이고, 우리 하다마는 오레비가 엇다. 아이고, 인척이도 밥 먹으멍 그냥 뉘엔 곱앗당 가시 먹영 아이고 잘못 곱아젧수텐.(아이고, 우리 많다마는 남동생이 없어. 먼저도 밥 먹으면서 그냥 뉘라고 말했다가 가시 먹어서 아이고 잘못 말했다고.)

102001 @ 무사, 무사?(왜, 왜?)

102001 # 하하하.(하하하.)

102001 @ 무사 무신 말 곱앗길래.(왜? 무슨 말 했길래?)

102001 # 이제 우리가이 열 슬 안네는 막 그냥 이 늬 돈 어려운 것도 몰르고 막 이제 잘 살단 열니 설 나가, 열니 설, 열다섯, 열시 설, 열두 설, 열다섯 그리에

27) ‘곳다’ 표준어에서 ‘날씨가 나쁘다, 언짢고 나쁘다’의 의미로 쓰이나 여기서는 얼굴이 예쁘지 않다는 뜻으로 쓰였다.

이제 오레비가 었어부니까.(이제 우리가 열 살 안에는 막 그냥 이 남 돈 어려운 것도 모르고 막 이제 잘 살다가 열네 살 내가, 열네 살, 열다섯, 열세 살, 열두 살, 열다섯 근방에 이제 남동생 없어서.

102001 @ 응.(응.)

102001 # 오레비가 둘이가 가분 거라게.(남동생이 둘이가 가버린 거야.)

102001 @ 사삼사건으로?(사삼사건으로?)

102001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2001 @ 그 전이?(그 전에?)

102001 # 어린 때, 어린 때. 우리 어머니가 오레비를 잘 나 가지고 키우질 못 현 거지.(어린 때, 어린 때. 우리 어머니가 남동생을 잘 낳아 가지고 키우지 못 한 거지.)

102001 @ 아.(아.)

102001 # 경허니까 나가 부에 나 가지고 아까 밥 먹으멍 뭐엔 현 중 알았다?(중략)(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가지고 아까 밥 먹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니?)

102001 # 흐쓸 허민 느네도 일 배울 일이여. 사름은, 여자는 저 혼 번 결혼해 가지고 아무리 못 살아도 나도 이 하르방이 늬이 막 나무리고 나도 벨 볼 일 었주 마는.(조금 하면 너희도 일 배울 일이다. 사름은, 여자는 저 한 번 결혼해 가지고 아무리 못 살아도 나도 이 할아버지 남이 막 나무라고 나도 벨 볼 일 없지마는.)

102001 @ 응.(응.)

102001 # 허여도 영 춤으멍 이때도록 다 인생을 못까시네게.(해도 이렇게 참으면서 이때까지 다 인생을 마무리했네.)

102001 @ 경해야 좋은 건가?(그래야 좋은 건가?)

(중략)

102001 # 우리 어머니가 아덜을 삼형제 나도 키우질 못했저게.(우리 어머니가 아들 삼형제 낳아도 키우지 못했어.)

102001 @ 예.(예)

102001 # 경허니까 말체에 온 어멍 난 오레비가 커 가지고 대는 이섯저. 조케 두 개 이서.(그러니까 나중에 온 어머니가 낳은 남동생이 커 가지고 대는 이었어. 조카 두 명 있어.

102001 @ 응.(응.)

102001 # 경헌디 그 오레비도 우린 오레비 아이 테와부난 막 좋아라마는 죽어 불었저게. 이제.(그런데 그 남동생도 우리 남동생 없는 팔자라서 막 좋더라마는 죽 어버렸어. 이제.)

102001 @ 아.(아.)

102001 # 경헌 이제 올케 잇저, 올케. 게민 나 제삿날 갈 땐.(그래서 이제 올케 있어, 올케. 그러면 나 제삿날 갈 땐.)

102001 @ 응.(응.)

102001 # 막 올케가 고마와 가지고이.(막 올케가 고마워 가지고.)
102001 @ 아.(아.)
102001 # 나이 첩 믿음적으로 무신거 하영 앳앙강 주진 못해도.(나 참 마음을 무엇 많이 가져가서 주지는 못해도.)
102001 @ 응.(응.)
102001 # 나 막 올케 위헤진다게. 고맙덴, 경헤져.(나 막 올케를 위헤. 고맙다고, 그렇게 해.)
102001 @ 언니나 여동생은?(언니나 여동생은?)
102001 # 여동생은 으라이여.(여동생은 여러 명이야.)
102001 @ 멧이파?(멧이에요?)
102001 # 으섯 성제.(여섯 형제)
102001 @ 아.(아.)
102001 # 이제 으섯 성제 다 잇저.(이제 여섯 형제 다 있어.)
102001 @ 다 이서. 아.(다 있어. 아.)
102001 # 다 이서. 겐디 이제 함덕에 일등 아시 두 개여게. 함덕에.(다 있어. 그런데 이제 함덕에 일등 아우 두 명이야. 함덕에.)
102001 @ 다 함덕 살암수과?(다 함덕 살고 있어요?)
102001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2001 @ 어디 어디 살아?(어디 어디 살아요?)
102001 # 둘이만 함덕이고.(둘이만 함덕이고.)
102001 @ 둘인 함덕에 잇고.(둘이는 함덕에 잇고.)
102001 # 하나 큰성 일본 가고, 스삼사건에 셋성은 죽어불고.(하나 큰언니는 일본 가고, 사삼사건에 둘째언니는 죽어버리고.)
102001 @ 응. 할머니 셋째 딸?(응, 할머니가 셋째 딸?)
102001 # 응, 세번차, 나가 말젧년.(응, 세번째. 내가 셋째딸.)
102001 @ 말젧년.(셋째딸)
102001 # 경 헤 가지고 우리 큰성 이신 때는 우리 큰성이 십구세에 일본 가불 엇어.(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큰언니 있을 때는 우리 큰언니 열아홉 살에 일본 가버렸어.)
102001 @ 응.(응.)
102001 # 그때는 아버지가 그 동생 엇이카부덴 생각도 안허고 각시도 안 얻어 난 때여게.(그때는 아버지가 그 동생 없을까봐 생각도 앳고 새부인도 안 얻엇던 때야.)
102001 @ 응.(응.)
102001 # 케니까 큰성도 그 사실을 몰라. 이 어려운 고통을 모르고.(그러니까 큰 언니도 그 사실을 몰라. 이 어려운 고통을 모르고.)
102001 @ 일본 가부난예?(일본 가버리니까.)

102001 # 응, 또 셋성은 스삼사건에 흐뎡 알단에 죽어 불었어.(응, 또 둘째언니는 사삼사건에 조금 알다가 죽어 버렸어.)

102001 @ 응.(응.)

102001 # 거니까 모르고.(그러니까 모르고.)

102001 @ 응.(응.)

102001 # 이제 함덕 나보단 다섯나 알에 동생잊저게, 아시.(이제 함덕에 나보다 다섯 살 아래에 동생 있어, 동생.)

102001 @ 응.(응.)

102001 # 그건 두려부난 잘 몰라.(그 애는 어렸기 때문에 잘 몰라.)

102001 @ 하하하.(하하하.)

102001 # 이 아버지, 어머니 살아난 역스는 나 가슴에만 댕혔단 말이야.(이 아버지, 어머니 살았던 역사는 내 가슴에만 댕혔단 말이야.) (중략)

102001 # 세 술에 이제 그 오레비를 키운 거라이, 우리가.(세 살에 이제 그 남동생을 키운 거야, 우리가.)

102001 @ 아이고.(아이고.)

102001 # 갱 키완에 장게 보내고 허난 아기도 서오누이 난에 허단 그만 재게 죽어불언게.(그렇게 키워서 장가 보내고 하니까 아기도 삼남매 낳아서 하다가 그만 일찍 죽어버렸어.)

102001 @ 응.(응.)

102001 # 계난 술 먹어져도 나신디만 오라낫저게, 그 오레비. 부산 간 살단.(그러니까 술 먹어도 나에게만 왔었어, 그 남동생. 부산 가서 살다가.)

102001 @ 응.(응.)

102001 # 들어완. 계난 묘도 친정 묘도 소분도 나가 죽장 헛저, 죽장 헛어.(들어왔어. 그러니까 묘도 친정 묘도 벌초 내가 계속 했어, 계속 했어.)

102001 @ 아, 남자 형제 잊어부난.(아, 남자 형제 없어서.)

102001 # 응. 혼 이십 년 나가 허단.(응. 한 이십년 내가 하다가.)

102001 @ 응.(응.)

102001 # 어머니도 이젠 아버지 재게 돌아가불언 어머니만 계실 때 나가 죽장, 이 선홀 지경이니까.(어머니도 이젠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계실 때 내가 계속, 선홀 근방이니까.)

102001 @ 응.(응.)

102001 # 허단에 어머니 돌아간 후제도 나가 혼 십 년 해서이. 견디 오레비가 부산에서 와서. 부산에서 오니까 이젠 소분도 오레비가 인계 마트고 허니까 나가 하느님신디 절헛주게. 나가 인계헤지난.(그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한 십 년 했어. 그런데 남동생이 부산에서 왔어. 부산에서 오니까 이젠 벌초도 남동생이 인계해서 맡고하니까 내가 하느님께 절 했어. 내가 인계하니까.)

102001 @ 고맙다고?(고맙다고?)

102001 # 그 사실은 오레비나 올케나 알아.(그 사실은 남동생이나 올케는 알아.)
 102001 @ 거난 고맙덴 헐 수 밖에게.(그러니까 고맙다고 할 수 밖에.)
 102001 # 게, 이제. 제스도 이제 제숫날도 부산에 못 가민 나가 막 서운해 가지고 그냥 앓지 못허여.(그렇지, 이제. 제사도 이제 제삿날도 부산에 못 가면 내가 막 서운해 가지고 그냥 앓지 못해.)
 102001 @ 응.(응.)
 102001 # 겨민 이제 메도 겨렁 아버지, 어머니만게. 할머니, 하르버니네는 참 이 저 흘 겨주마는 못허고. 여기 고모덜이 잇거든.(그러면 이제 메도 떠서 아버지, 어머니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 이 저 할 겨지마는 못하고. 여기 고모들이 잇거든.)
 102001 @ 응.(응.)
 102001 # 경해도 우리 고모네는 그렇게 속상헿 안허더라고. 경헌디 나는 그렇게 못헤여.(그래도 우리 고모네는 그렇게 속상해서 안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해.)
 102001 @ 응.(응.)
 102001 # 계난 제숫날도 이제 잇지 못허영 오레비 안 온 땐 메도 겨렁 올리곡. 하르방은 또 그런 거 굿넨은 안헤여.(그러니까 제삿날도 이제 잇지 못해서 남동생 안 온 때도 메도 떠서 올리고. 남편은 또 그런 것 굿다고는 안해.)
 102001 @ 조상 위허는 일인디게.(조상 위하는 일인대.)
 102001 # 소분도 느랑 허연, 하르방이.(벌초도 늘 했어, 남편이.)
 102001 @ 할아버지도 착하네.(할아버지 착하네.)
 102001 # 응. 할머니, 하르버지, 어머니, 아버지 산은 느랑 헤연. 혼 이십 년. 경허단 오레비네 오난 참.(중략) 거난이 어머니, 아버지네가 잘 살아난 사름은 시상 몰라. 난 하도 겪은 일이 만허여. 겪은 일이 많아.(응,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산은 늘 했어. 한 이십 년. 그렇게 하다가 남동생네 오니까 참.(중략)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네가 잘 살았던 사름은 세상 몰라. 나는 하도 겪은 일이 많아. 겪은 일이 많아.)
 102002 @ 부모님은 농사 지어났수과?(부모님은 농사 지었었어요?)
 102002 # 응, 농스 지고 우리 하르바님은 한문 선생이라났저게.(응, 농사 짓고 우리 할아버님은 한문 선생이었어.)
 102002 @ 아, 할아버지가 한문 선생.(아, 할아버지가 한문 선생.)
 102002 # 우리 아버지도 글이 막 좋주게. 모르는 게 엇어났저.(우리 아버지도 글이 아주 좋지. 모르는 게 없었어.)
 102002 @ 딸이라부난 공부 안 시켰구나예?(딸이니까 공부를 안 시켰구나.)
 102002 # 공부 안 시켄, 공부 안 시켜부난 막 어떤 때 하르방신디 옥헤저, 나.(공부 안 시켄, 공부 안 시켜부난 막 어떤 때 할아버지께 옥해, 나.)
 102002 @ 무사?(무사?)
 102002 # 그 글 날 베와취된 죽지 아니 헿젠.(그 글 날 베와취된 죽지 아니 헿

젠.)

102002 @ 하하하.(하하하.)

102002 # 나 자꾸 경 곱아져. 겨난 우린 초가집이라도이 침 낭문, 오리문 탁 들 양 안으로 종갓당 올앗당 허곡 우리 요 가운데 살아났저. 우리 어린 때, 요디.(나 자꾸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린 초가집이라도 참 나무문, 대문 탁 달아서 안으로 잠갔다가 열었다가 하고 우리 요 가운데 살았었어. 우리 어린 때, 요기.)

102002 @ 이디?(여기.)

102002 # 이 선홀에. 우리 살아난 집 이제 뜬 사름 살암저마는, 우리 친정에 살아난.(이 선홀에. 우리 살았던 집 이제 다른 사람 살고 있지마는, 우리 친정에 살았어.)

102002 @ 친정집.(친정집.)

102002 # 이 초가집이라도이 시방 스라브집이나 마찬가지. 마리도 다까 노민 막 시원허곡 난간에, 밧거리도, 경허민 글 읽는 사름덜이 막 하, 청년덜.(이 초가집이라도 지금 슬레이트집이나 마찬가지. 마루도 닦아 놓으면 막 시원하고 난간에, 바깥채도, 그러면 글 읽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청년들.)

102002 @ 서당처럼 해 가지고.(서당처럼 해 가지고.)

102002 # 서당이주, 서당. 경허민이 식게 허민 선홀서 막 위혜영 떡도 많이 가져오고 막 허주께.(서당이지, 서당. 그러면 제사 하면 선홀에서 막 위해서 떡도 많이 가져오고 막 하지.)

102002 @ 응.(응.)

102002 # 막 선생네 집이엔 경혜났저. 차룽에 막 떡 많이 가져와.(막 선생네 집이라고 그렇게 했었어. 차룽에 막 떡 많이 가져와.)

102004 @ 하하하. 또 다른 거 기억나는 건 엇수과? 어렸을 때 헤난 거. 열 살 전이 헤난 거.(하하하. 또 다른 거 기억나는 것은 없어요? 어렸을 때 했던 거. 열 살 전에 했던 거.)

102004 # 겨난게 열 설 전이 이젠 제사도 하고 허난 막 일이 많아.(그러니까 열 살 전에 이제 제사도 하고 하니까 막 일이 많아.)

102004 @ 예.(예.)

102004 # 동생들은 어리고 언니는 큰언니가 주로 일을 잘 허단 일본 떠나볼고 현 후에 나가 이젠 옥은 걸로 허연.(동생들은 어리고 언니는 큰언니는 주로 일을 잘 하다가 일본 떠나버리고.)

102004 @ 응.(응.)

102004 # 밧된 일도 허젠 허민 침.(밭에 일도 하려고 하면 참.)

102004 @ 아침 세백이 일어낭예.(아침 새벽에 일어나서요.)

102004 # 아침 세백이 일어나곡 이제 어머니 밥할 때 이제 나 강 물 강 질어오곡.(아침 새벽에 일어나고 이제 어머니 밥할 때 이제 내가 가서 물 가서 길어오고.)

102004 @ 물 강 질어오고.(물 가서 길어오고.)

102004 # 경 허명게 집안일을 많이 헛주게.(그렇게 하면서 집안일을 많이 헛지...
 102004 @ 응.(응.)

102004 # 경허고 우리 아버지네가 이젠 그 제국 때에.(그리고 우리 아버지네가 이젠 그 제국 시대에.)
 102004 @ 응.(응.)

102004 # 공항²⁸)에 일허레 강 스십일 썩 살아라게.(공항에 일하러 가서 사십일 썩 살더라.)
 102004 @ 공항에?(공항에?)

102004 # 강제로, 강제로 끌어 가지고 공항 이제 그.(강제로, 강제로 끌어 가지고 공항 이제 그.)
 102004 @ 짓는 디?(짓는 데?)

102004 # 짓는 디. 공항 그때게 터 이제 막 골라세.(짓는 데. 공항 그때 터를 이제 말 골랐어.)
 102004 @ 아.(아.)

102004 # 그때 스십일썩 살아불면 막 그냥 복잡해, 집이 살질 못 허여. 경 헤나 고이 제국 때에.(그때 사십일썩 살아버리면 막 그냥 복잡해, 집이 살지 못해. 그렇게 헛고 제국 때에.)
 102004 @ 응.(응.)

102004 # 경헛 때 나가 주로 물 질어오고 그 일을 헛저, 집안일을게. 경헤낭 이제 어머니가 막 불쌍허여, 경허난. 경허건 아덜만 키와시민 그 애로 사항이 엇일 건 디 아덜을 못 키와부니까 어머니 가슴이 막 참 맥힌 일이 많아어.(그렇게 할 때 내가 주로 물 질어오고 그 일을 헛어, 집안일을. 그렇게 하고나서 이제 어머니가 막 불쌍해, 그러니까. 그래도 아들만 키웠으면 그 애로 사항이 없을 것인데 아들을 못 키워버리니까 어머니 가슴이 막 참 맥힌 일이 많아.)
 102004 @ 응.(응.)

102004 # 경허고 아부지도 아덜 안 커부니까 그 아덜을 키우젠 허난 애로가 많고.(그리고 아버지도 아들 안 커버리니까 그 아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애로가 많고.)
 102005 @ 제국 시대엔 공출 같은 것도 하영 헤낫수게?(제국 시대엔 공출 같은 것도 많이 헛었쥬?)

102005 # 공출 허여부난 우리 밥도 못 먹어나세게.(공출 해버리니까 우리 밥도 못 먹었었어.)
 102005 @ 무신거 공출 헤낫수과?(무엇을 공출 헛었어?)

102005 # 곡식을 허민 그냥 문딱 썩어가 불어. 보리도 허민 이제 멧 가맹이 바 찌라 허민 신 건 다 이제 털어가 불어.(곡식을 하면 그냥 모두 썩어가 버려. 보리도 하면 이제 멧 가마니 바쳐라 하면 있는 것은 다 이제 털어가 버려.)
 102005 @ 아이고.(아이고.)

28) 서귀포시 대정읍 알드르 비행장 공사를 말하는 것이다.

102005 # 경허고 또 감저이 절간감저엔 현 감저 썰엿 물리와.(그리고 또 고구마 절간고구마라고 한 고구마 썰어서 말려.)

102005 @ 빼떼기?(절간고구마?)

102005 # 빼떼기. 그것도 현 집이 멧 가맹이 할당 나와.(절간고구마. 그것도 한 집에 멧 가마니 할당이 나와.)

102005 @ 응.(응.)

102005 # 겨민 그거 물리왕 이젠 우리 어린 때도 밧디 널민 걸 다 좇어. 좇엿 물리왕 곱게 현 건 일등 메기고, 경 안현 건 또 막 하치로 그냥. 돈도 아이 주고 경 헛자. 경혜연 돈 받아 가곡. 경허명 막 불편하게 살았저게.(그러면 그거 말려서 이젠 우리 어린 때도 밧에 널면 그걸 다 주워. 주워서 말려서 곱게 한 것은 일등 메기고, 그렇게 안 한 것은 또 막 하질로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모두 받아 가고. 그러면서 막 불편하게 살았어.)

102005 @ 제국시대 땀 공출 때문에 못살아서예?(제국시대 땀 공출 때문에 못살았지요?)

102005 # 어, 못살안. 경허고 또로이 늦그릇, 늦그릇.(응, 못살았어. 그리고 또 늦그릇, 늦그릇.)

102005 @ 늦그릇, 맞아.(늦그릇, 맞아.)

102005 # 하나 엇이 든딱 좇어 가 불어, 코콜이. 제에 씨는 늦쟁반.(하나 없이 모두 주워 가 버려, 깨끗이. 제사에 쓰는 늦쟁반.)

102005 @ 응.(응.)

102005 # 동이는 하도 아까우난 불치²⁹⁾ 소곱에 물어난.(동이는 아주 아까우니까 재 속에 묻었어.)

102005 @ 어디 소곱? 불치 소곱에?(어디 속에? 재 속에?)

102005 # 응. 부엌에, 불치 걸언 묻언, 묻언.(응. 부엌에, 재 걸어서 묻었어, 묻었어.)

102005 @ 모르게 곱전에, 안 가정 간?(모르게 숨겨서, 안 가져 갔어요?)

102005 # 응, 곱전, 곱전. 막 내노렌 해도 엇덴 현. 늦순가락, 쟁반, 늦사발은 다 좇어가불고. 다 아저가 불어. 갱 멧 개 아까운 거 놔두민 또 것도 내노렌 행 돈 아저가 불어났저.(응, 숨겼어, 숨겼어. 막 내놓으라고 해도 없다고 했어. 늦순가락, 쟁반, 늦사발은 다 주워가버리고. 다 가져가 버려. 그렇게 해서 멧 개 아까운 거 놔두면 또 그것도 내놓으라고 해서 모두 가져가 버렸어.)

102005 @ 아.(아.)

102005 # 제국시절에도 제국시절만이 살기가 굿고, 스삼사건도 스삼사건만이 우리ㄴ치 스태 나쁜 사름은 엇다게. 게도 시에도 시엿 사름도 그자락 안헛저마는 특히나 이 산간 부락이 더 헛저게, 스삼사건에.(제국시대에도 제국시대만큼 살기 굿고, 사삼사건도 사삼사건만큼 우리같이 사태 나쁜 사름은 없어. 그래도 제주시에도

29) ‘불치’는 불을 때고 나서 남은 재이다.

제주시 사람들도 그렇게 안했지마는 특히나 이 산간 부락이 더 했어, 사삼사건에.)

102005 @ 예, 사삼사건엔 아멩해도 산간 부락이예.(예, 사삼사건에는 아무래도 산간 부락이.)

102005 # 경허고 또 시에는 감저빼떼기 ㄴ쁜 거 안 해나선게.(경허고 또 제주시에는 절간고구마 같은 거 안 했었던데.)

102005 @ 아.(아.)

102005 # 근는 거 보난. 이 용스 짓는 디만 이 함덕으로 이제 조천멘으로. 경혜선계게. 함덕 사름도이 이저 절간감저를 할당이 족으니까 좁쌀 아정완 바짜 가라.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농사 짓는 데만 이 함덕으로 이제 조천면으로. 그렇게 했더라. 함덕 사람들도 이저 절간고구마를 할당이 작으니까 좁쌀 가져와서 바뀜 가더라.)

102005 @ 아.(아.)

102005 # 할당 채웁젠. 할당 아이 채우민 막 그냥 못살게 굴어. 경혜부난.(할당 채우려고. 할당 안 채우면 막 그냥 못살게 굴어. 그러니까.

102006 @ 사삼사건 뎀 어떻 해낫수과?(사삼사건 뎀 어떻게 했었습니까?)

102006 # 계, 스삼사건 뎀 어떻 허느니게, 늬이 대동 이젠 막 우린.(그렇지, 사삼사건 뎀 어떻게 하니, 남과 같이 이젠 막 우리는.)

102006 @ 어디 내려간?(어디 내려갔어?)

102006 # 함덕 내려갓주.(함덕 내려갔지.)

102006 @ 함덕 내려간.(함덕 내려갔어.)

102006 # 경허난 우리 나잇 사름도 많이 죽엇저게. 견디 난이 동생들 건스하고 막 그냥 어린 걸로 추급허연 활동을 안 했어. 나가지 안허여. 곱으레도 안 가고. 우리 우이, 우리 동갑도 많이 죽엇저. 흥뎀 영 처녀ㄴ찌 출린 사름은 다 죽언.(그러니까 우리 나이의 사름도 많이 죽엇어. 그런데 나는 동생들 건사하고 막 그냥 어린 것으로 취급해서 활동을 안 했어. 나가지 았았어. 숨으려도 안 가고. 우리 위에, 우리 동갑도 많이 죽엇어. 조금 이렇게 처녀처럼 차린 사름은 다 죽엇어.)

102006 @ 할머니 키 죽으난 애긴줄 안 거 아니?(할머니는 키 작으니까 애기인 줄 안 거 아니?)

102006 # 어, 계난이 그때가 십오 세웁 뎀가? (응, 그러니까 그때가 십오 세웁 뎀가?)

102006 @ 응.(응.)

102006 # 난 겨난 십오 세노렌 안 허연.(난 그러니까 십오 세라고 안 했어.)

102006 @ 할머니가 삼십년 생이네.(할머니가 삼십년 생이네.)

102006 # 응.(응.)

102006 @ 겨난 사삼사건이 사십칠년인가 사십팔년인가 난 열일곱, 열여섯, 열일곱 정도 웁 때라.(그러니까 사삼사건이 사십칠년인가 사십팔년인가니까 열일곱, 열여섯, 열일곱 정도 된 때라.)

102006 # 그 열여섯, 열일곱에는 막 다 든 때고.(그 열여섯, 열일곱에는 막 다 들어온 때고.)

102006 @ 응.(응.)

102006 # 그 전이 혼 삼 년 앞서부떠 헤라.(그 전에 한 삼 년 앞서부터 하더라.)

102006 @ 아.(아.)

102006 # 혼 삼 년 앞서부떠 흑교도 오란 점령허연 군인 살아불고.(한 삼년 앞서부터 학교도 와서 점령해서 군인들이 살아버리고.)

102006 @ 응.(응.)

102006 # 경허단 그 사람이 막 죽고 살고 할 때가 그저 어느 때여게. 우리가 혼 열일곱 된 때라.(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막 죽고 살고 할 때가 그저 어느 때야. 우리가 한 열일곱 된 때야.)

102006 @ 그땐 계남 할머니 함덕 내려간?(그땐 그러니까 할머니 함덕 내려갔어?)

102006 # 내려간.(내려갔어.)

102006 @ 함덕은 어디 아는 디 이수과?(함덕은 어디 아는 데 있습니까?)

102006 # 이모네 그디 사난.(이모네 거기 사니까.)

102006 @ 아.(아.)

102006 # 그디 이모네 집이 갓주.(거기 이모네 집에 갔지.)

102006 @ 쟁 그디서 몇 년 살단 왓수과?(그렇게 해서 거기서 몇 년 살다가 왔습니까?)

102006 # 그디 살단에 우리 아버지넨 선흘 살기 실프덴 아니 오고.(거기 살다가 우리 아버지네는 선흘 살기 싫다고 안 오고.)

102006 @ 응.(응.)

102006 # 우리만 결혼인가 무신 이 하르방이영 허연에, 함덕 간 집이영 샳단 이 선흘 완.(우리만 결혼인가 무슨 이 할아버지랑 해서, 함덕 가서 집이랑 샳다가 이 선흘 왔어.)

112007 @ 어떻행 이 하르방이영 결혼 험디가?(어떻게 해서 이 할아버지랑 결혼 했습니까?)

112007 # 몰라.(몰라.)

112007 @ 중매?(중매?)

112007 # 중매로 허연. 우리 하르바님은 스장³⁰⁾ 글스장이고 이디 하르방은 훈장이야.(중매로 했어. 우리 할아버님은 사장, 글사장이고 여기 할아버지는 훈장이야.)

112007 @ 아.(아.)

112007 # 그 하르방네찌리 사돈도 허였주.(그 할아버지네끼리 사돈도 했지.)

112007 @ 옛날은 다 경헛주예? 거난 하르방네끼리 들리 손지, 손녀 결혼하게

30) '사장(師匠)'은 학문이나 기예에 능하여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 또는 학문이나 기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영 허연에 결혼한 거?(옛날은 다 그랬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네끼리 둘이 손자, 손녀 결혼하게 이렇게 해서 결혼한 거?)

112007 # 경혜연, 경혜연.(그랬지, 그랬지.)

112007 @ 아.(아.)

112007 # 뭐 잔칫날이 언제산디 몰르고. 침, 우리 혼 동네서 난 컷젠 해도 경가깝게 지내도 안 해나고.(뭐 잔칫날이 언제인지 몰르고. 참, 우리 한 동네서 낳아서 컷다고 해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었고.)

112007 @ 봐 보지도 안 헨?(봐 보지도 않았어?)

112007 # 예, 가깝게 지내도 안 해나고.(예,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었고.)

112007 @ 어렸을 때 혼 동네라나시큰게예?(어렸을 때 한 동네였었겠네요.)

112007 # 혼 동넨디 이 하르방은 저 알동네 흑교 저끄디고, 우린 요 중간에 살안.(한 동네인데 이 할아버니(남편)은 저 아랫동네 학교 곁이고, 우리는 요 중간에 살았어.)

112007 @ 아.(아.)

112007 # 또 우리광 막 천지차이주. 우리 하르방넨 막 글선생허고 스몯.(또 우리랑 아주 천지차이지. 우리 할아버지네는 막 글선생하고 사몯.)

112007 @ 아까 할아버지네도 혼장이라낫젠 허멍마씨?(아까 할아버지네도 혼장이었다고 하면서요?)

112007 # 응 혼장. 혼장이라도게 나보단 두 슬 밑에고 허난 우린 상관도 안헤난디. 이 하르방 만난 일생 못까세, 일생 못까서.(응 혼장. 혼장이라도 나보다 두 살 밑이고 하니까 우린 상관도 않았었는데. 이 할아버지(남편) 만나서 일생을 마무리지었네, 일생을 마무리했어.)

102008 @ 결혼할 때 사주, 궁합 이런 것도 보주예?(결혼할 때 사주, 궁합 이런 것도 보지요?)

102008 # 보아실테주게.(보았겠지.)

102008 @ 어떻 헤낫텐 안 곱읍디가?(어떻게 했었다고 안 말합니까?)

102008 # 안 곱아라게. 좋덴만 허멍.(안 말하더라. 좋다고만 하면서.)

102008 @ 좋덴만.(좋다고만.)

102008 # 응. 거난 침 우리 어머니영 살 때 침 공부도 못허고, 경 애로 사항도 하고, 일도 많이 허고 헛저게.(응. 그러니까 참 우리 어머니랑 살 때 참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애로사항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했어.)

102001 @ 야학은 흐뎡 텅기지 안헨?(야학은 조금 다니지 않았어?)

102001 # 야학 그거 혼 육개월 텅기난에 해방돼 불언. 경허난에 그 일본글 나 흐뎡 헤낫저게. 일본 글이 저 언해가 두 가지라. 히라가나허고 가다가나허고.(야학 그거 한 육개월 다니니까 해방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그 일본글 나 조금 했었어. 일본 글이 저 **이 두 가지야. 히라가나하고 가다가나하고)

102001 @ 응.(응.)

102001 # 겐 나도 체언해도 막 배와난. 체언해에도 배와나고. 한제도 일본말로 배와나고 조선말로 허젠 허난 많이 잊어불언. 많이 잊어불언 이젠 잘 몰라.(그래서 나도 ***해도 막 배웠었어. ***도 배웠었고. 한자도 일본말도 배웠었고 조선말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잊어버렸어. 많이 잊어버려서 이젠 잘 몰라.)

102001 @ 응.(응.)

102001 # 게난게 하르방ㄱ라 욱이주게. 글 아이 배와쥬.(그러니까 할아버지보고 욱이지. 글 안 배워쥬서.)

102001 @ 하하하.(하하하.)

102001 # 이녁으로 배운 거주, 윈. 하르방신디 배와보지 안허연. 경헨. 한글은 또 야학에서 배왔주. 흑교에선 우리 헐 때 안 배와주고.(자기대로 배운 거지. 윈. 할아버지께 배워보지 않았어. 그렇게 했어. 한글은 또 야학에서 배웠지. 학교에서 우리 할 때 안 배워주고.)

102001 @ 조선글 안 배와주고예?(조선글 안 배워주고요?)

102001 # 안 배와주고.(안 배워주고.)

102001 @ 멧 살 때 야학 간 한글 배와수과?(멧 살 때 야학 가서 한글 배웠어요?)

102001 # 야학헐 때 학교 뎡기기 전이 어린 때도 막 어른덜이영.(야학할 때 학교 다니기 전에 어릴 때도 막 어른들이랑.)

102001 @ 아.(아.)

102001 # 어른덜이영 가도 우리가 재기 배와 나삿주게.(어른들이랑 가도 우리가 빨리 배웠지.)

102001 @ 조선글 배와 주는 거?(조선글 배워 주는 거?)

102001 # 응. 야학헐 때 일본글 허단 또 한글 나난 한글도 야학 헤낫저, 흑교에서, 밤이.(응, 야학할 때 일본글 하다가 또 한글 나오니까 한글도 야학했었어, 학교에서, 밤에.)

102001 @ 응.(응.)

102001 # 경헤난. 침, 야학소엔 허여근에 야학소에 강. 그것도 저르 엇영.(그렇게 했었어. 참, 야학소라고 해서 야학소에 가서. 그것도 겨를 없어서.)

102001 @ 응.(응.)

102001 # 밤이 것도 멧심혜사 가.(밤에 그것도 멧심해야 가.)

102001 @ 맞아, 일헿예?(맞아, 일해서요?)

102001 # 일허영, 우리집이 또 일은 하, 친정에. 막 밧덜도.(일해서, 우리집에 또 일은 많아, 친정에. 막 밧들도.)

102001 @ 밧이 하낫구나?(밭이 많았었구나.)

102001 # 밧도 존 밧덜만 헤 먹었저마는 막 일 하. 놉 빌영 일허고. 그뎡 곡식 하루 허민 혼 말이라이.(밭도 좋은 밧들만 해서 먹었지마는 막 일이 많아. 놉 빌어서 일하고. 그뎡 곡식 하루 하면 한 말이야.)

102001 @ 일당이?(일당이?)

102001 # 일당이. 이젠 곤살이 혼 푸대라도. 그땐 김질메민 쓸 혼 관뉘.(일당이. 이제는 흰쌀이 한 부대라도. 그땐 김매면 쌀 한 되.)

102001 @ 응.(응.)

102001 # 또로 흐루 헤원 허민 조나 보리 혼 말.(또 하루 종일 하면 조나 보리 한 말.)

102001 @ 응.(응.)

102001 # 조 비어도 혼 말, 무신 일 해도 혼 말이라. 경허민, 경해도 열흘 허민 열 말이라.(조 베어도 한 말, 무슨 일 해도 한 말이야. 그러면, 그래도 열흘 하면 열 말이야.)

102001 @ 응.(응.)

102001 # 둘이 빌영 허민이 닷새만 해도 혼 가뎡이 지어 가라게. 열 말 뉘여노민.(둘을 빌어서 하면 닷새만 해도 한 가마니 지어서 가더라. 열 말 되면.)

102001 @ 응.(응.)

102001 # 갱 우리 놉 빌영 하영 헤낫저게, 이녁만 못헤영. 게고 수눌영도 하영 허고.(그래서 우리 놉 빌어서 많이 했었어, 자기만 못해서. 그리고 품앗이도 많이 하고.)

102001 @ 수눌영도 하영 허고예.(품앗이도 많이 하고요.)

102001 # 김질메레 가민 수눌영 우리 어린 때, 우린 어려부난 헛주마는 우리 어머님네, 우리도 열네 설 나난 막 김질 수눌언 메언, 그 스삼사건 전이.(김매러 가면 품앗이해서 우리 어릴 때. 우리는 어려서 그랬지마는 우리 어머님네, 우리도 열네 살 나니까 막 김 품앗이해서 매었어, 그 사삼사건 전에.)

102001 @ 응.(응.)

102001 # 메엇저게. 메어근에게 막 사대소리³¹⁾ 허는 거 들어나고.(매었어, 매어서 막 사대소리 하는 거 들었었고.)

102001 @ 하하하.(하하하.)

102001 # 아이 거 들어서민 오닐 재미나게.(아니 그거 들었으면 오늘 재미있게.)

102001 @ 지난번에 반, 그때.(지난번에 봤어요, 그때.)

102001 # 게메게, 나 요새 어치낙 어떻헨 테레비 안 뉘더라. 또 틀어봐야 뉘겏다.(그러게, 나 요새 엇저녁 어떻게 해서 텔레비전 안 되더라. 또 틀어봐야 되겠다.)

102009 @ 할무닌 시집올 때 무신거 행 읍디가?(할머니는 시집올 때 무엇 해서 왔어요?)

102009 # 아이고 무시거 헤시니게? 저런 경대 흐나허고 이불 두 채 헨 왓주게. 뉘 험 게 이시니?(아이고 무엇 했니? 저런 경대 하나하고 이불 두 채 해서 왔지.)

102009 @ 응.(응.)

102009 # 저 돈 또 우리 결혼헨 때 돈 바꿨어³²⁾.(저 돈 또 우리 결혼할 때 돈

31) '사대소리'는 김멜 때 부르는 민요를 말한다.

바꿨어.)

102010 @ 결혼식은 어디서 헨마씨?(결혼식은 어디서 했어요?)

102010 # 응?(응?)

102010 @ 결혼식은 어디서 헨?(결혼식은 어디서 했어?)

102010 # 집이서 헛주게, 옛날은.(집에서 했지, 옛날은.)

102010 @ 응.(응.)

102010 # 집이서.(집에서.)

102010 @ 할머니네, 할아버지네 집 마당에서?(할머니네, 할아버지네 집 마당에서?)

102010 # 응.(응.)

102010 @ 사진도 찍었어?(사진도 찍었어?)

102010 # 사진 찍음이랑마랑 그때 사진 찍는 사람 몇 사람 엇었저, 참.(사진 찍음이나마나 그때 사진 찍는 사람 몇 사람 없었어, 참.)

102010 @ 족두리 썩 헛주예?(족두리 써서 했지요?)

102010 # 응, 족두리 쓰는 체허곡.(응, 족두리 쓰는 체하고.)

102010 @ 응.(응.)

102010 # 장옷 입고 허연.(장옷 입고 했어.)

102010 @ 응, 응.(응, 응.)

102010 # 그것뿐 헛주 무신.(그것뿐 했지 무슨.)

102011 @ 신혼 살림은 어디서 헤수과?(신혼 살림은 어디서 했습니까?)

102011 # 집 셔난, 함덕.(집 있었어, 함덕.)

102011 @ 함덕에서?(함덕에서?)

102011 # 응.(응.)

102011 @ 결혼도 함덕에서 헨 그림?(결혼도 함덕에서 했어, 그림.)

102011 # 시하르버지가 함덕 간 집 좋지 안헌 거라도 그 이 선홀 불칸 집 엇어 부난.(시할아버지가 함덕 가서 집 좋지 않은 거라도 그 이 선홀 불타서 집 없어버리니까.)

102011 @ 응.(응.)

102011 # 임시 살젠 허난에게.(임시 살려고 하니까.)

102011 @ 응.(응.)

102011 # 집 산 그디 살아난.(집 사서 거기 살았어.)

102011 @ 아, 결혼식도 함덕서 헨?(아, 결혼식도 함덕에서 했어?)

102011 # 응.(응.)

102011 @ 아.(아.)

102011 # 경 헨에 그디서 허연. 이디 밧덜 이서부난.(그렇게 해서 거기서 했어. 여기 밧들 잃어버리니까.)

32) ‘돈을 바꿨다’는 것은 1950년에 있었던 화폐개혁을 말하는 것이다.

102011 @ 응.(응.)
 102011 # 그때 차도 엇곡 현 때난 이디 와불엇주게, 선홀을.(그때 차도 없고 한 때니까 여기 와버렸지, 선홀을.)
 102011 @ 다시 갱 언제 올라옵디가?(다시 그래서 언제 올라왔습니까?)
 102011 # 응?(응?)
 102011 @ 결혼헨 몇 해 잇단에 올라완?(결혼해서 몇 해 있다가 올라왔어?)
 102011 # 결혼허연에 혼 오 년.(결혼해서 한 오 년.)
 102011 @ 응.(응.)
 102011 # 우리 큰딸 혼 네 설에 와실 거라.(우리 큰딸 한 네 살에 왔을 거야.)
 102011 @ 응.(응.)
 102011 # 네 설. 다섯 설쯤에 왔구나.(네 살, 다섯 살쯤에 왔구나.)
 102011 @ 응.(응.)
 102011 # 경헨 완 고생이 막 그냥 허엇저게. 중학교 땡기젠 해도 걸어 아전 함 덕 중학교 혜세, 큰딸.(그래서 와서 고생이 막 그냥 했어. 중학교 다니려고 해도 걸 엇 함덕 중학교 했어, 큰딸.)
 102011 @ 아, 아이들.(아, 아이들.)
 102011 # 큰딸, 큰딸 헐 때.(큰딸, 큰딸 할 때.)
 102012 @ 그때 애기가 모두 몇 개엔 헛저마는, 팔남매?(그때 아기가 모두 몇 명이라고 헛다마는, 팔남매?)
 102012 # 그루후제 그 큰딸허고 셋딸만 그때 난 때고게.(그 후에 큰딸하고 둘째 딸만 그때 난 때고.)
 102012 @ 응.(응.)
 102012 # 그후제 난에게.(그 후에 낳아서.)
 102012 @ 갱 젤 처음에 큰딸.(그래서 제일 처음에 큰딸.)
 102012 # 응, 셋딸.(응, 둘째딸.)
 102012 @ 셋딸 그다음에.(둘째딸 그다음에.)
 102012 # 아덜.(아들.)
 102012 @ 큰아덜. 그다음?(큰아들. 그다음?)
 102012 # 그다음 딸 나된 또 아덜 낳주.(그다음 딸 낳아두고 또 아들 낳지.)
 102012 @ 그른 말젓딸.(그럼 셋째딸.)
 102012 # 응, 말젓딸에 또.(응, 셋째딸에 또.)
 102012 @ 셋아덜?(둘째아들?)
 102012 # 셋아덜 나된에 또 딸 나고.(둘째아들 낳아두고 또 딸 낳고.)
 102012 @ 셋아덜 나된에 또. 그때 그건 무신 딸이라, 말젓딸 다음은?(둘째 아들 낳아두고 또. 그때 그건 무슨 딸이야, 셋째딸 다음은?)
 102012 # 말젓딸 다음은 큰족은년.(셋째딸 다음은 ‘큰족은년’.)
 102012 @ 큰족은년 나고 그다음엔?(‘큰족은년’ 낳고 그다음은?)

102012 # 그다음에 쌍둥이 난에게 두 개. 이제게 작은딸.(그다음에 쌍둥이 낳아서 두 개. 이제 막내딸.)

102012 @ 쌍둥이? 하나 둘 셋 넷. 아, 아덜 셋 아니?(쌍둥이? 하나 둘 셋 넷. 아, 아들 셋 아니?)

102012 # 셋. 쌍둥이가 아덜 하나게.(셋. 쌍둥이가 아들 하나.)

102012 @ 아, 쌍둥이에 아덜 하나, 딸 하나?(아, 쌍둥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

102012 # 응.(응.)

102012 @ 응. 그 큰 젤 작은아덜은 큰아덜, 셋아덜, 작은아덜?(응. 그러면 제일 막내아들은 큰아들, 둘째아들, 막내아들?)

102012 # 응.(응.)

102012 @ 그 큰 딸은 큰딸, 셋딸, 말쑥딸, 큰족은년, 작은년?(그러면 딸은 큰딸, 둘째딸, 셋째딸, 넷째딸, 막내딸?)

102012 # 응.(응.)

102012 @ 젤 막내가 작은년?(제일 막내가 '작은년'?)

102012 # 막내가 작은년.(막내가 '작은년'.)

102012 @ 응. 계난 큰족은년이 시집을 안 갔다고?(응, 그러니까 넷째딸이 시집을 안갔다고?)

102012 # 막내딸게, 쌍둥이.(막내딸, 쌍둥이.)

102012 @ 아 쌍둥이 작은년이 시집 안 갔다고?(아 쌍둥이 막내딸이 시집 안 갔다고?)

102012 # 응.(응.)

102013 @ 시집 오난 저 시어머닌 막 힘들게 험? 시집살이험?(시집 오니까 저 시어머니는 막 힘들게 했어? 시집살이했어?)

102013 # 아니, 우리 시어머니 막 좋아난.(아니, 우리 시어머니 아주 좋았었어.)

102013 @ 응.(응.)

102013 # 흐디 흐, 애기 다 나도록 ㄴ치 살안, 흐 집이.(함께 한, 애기 다 낳도록 같이 살았어, 한 집에.)

102013 @ 응, 응. 안거리, 밧거리?(응, 응. 안채, 바깥채?)

102013 # 아니 그냥 그 안거리, 밧거리 엇은 디라부난 영 구들 두 개 허연 영.(아니 그냥 그 안채, 바깥채 없는 데라버리니까 이렇게 방 두 개 해서 이렇게.)

102013 @ 응.(응.)

102013 # 시어머닌 흐 구들 살고, 우리 흐 구들 살고 헤연.(시어머니는 한 방에 살고, 우리 한 방에 살고 해서.)

102013 @ 응.(응.)

102013 # 쌍둥이만 시어머니네 시아주방 풀안 결혼헌 후제 낫주.(쌍둥이만 시어머니네 시아주버니 팔고 결혼한 후에 낳았지.)

102013 @ 응.(응.)

102013 # 다 시어머니영 ㄱ치 살 때.(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 때.)
102013 @ 응.(응.)
102013 # 우리 시어머닌 막 좋아나고, 좋은 어른.(우리 시어머니는 아주 좋았었고, 좋은 어른.)
102013 @ 아명 좋아도 시어머닌 시어머니 아니?(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아니?)
102013 # 시어머니라도 경해도 막.(시어머니라도 그래도 막.)
102013 @ 난 우리 시어머닌 아명 좋아도 시어머닌 시어머니주.(난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102013 # 흔 집이 못 사는 사름 많아.(한 집에 못 사는 사람 많아.)
102013 @ 계난.(그러니까.)
102013 # 경헌디 우린 흔 십이 년 흔디 살아져실 거라. 아기덜 문. 식게 멩질도 ㄱ치 허곡. 시아주방도, 겨난 그때게 시아주방 두 개, 시누이에 너이 새끼가 흔디 살 때도 막 사이가 좋게 살안.(그런데 우리는 한 십이 년 함께 살았을 거야. 아기들 모두. 제사 멩질도 같이 하고. 시아주버니도, 그러니까 그때 시아주버니 두 개, 시누이 넷이 함께 살 때도 아주 사이가 좋게 살았어.)
102013 @ 응.(응.)
102013 # 동세네 오난에 뜰로 살앗주게, 시아주방이 결혼허난.(동서네 오니까 따로 살았지, 시아주버니 결혼하니까.)
102013 @ 아 시아주방이 결혼허난.(아 시아주버니가 결혼하니까.)
102013 # 동세 둘 이서.(동서 둘 있어.)
102013 @ 시동생 둘?(시동생 둘?)
102013 # 응, 시누이.(응 시누이.)
102013 @ 시누이 흥나?(시누이 하나?)
102013 # 응. 시누이 함덕서 막 잘살아. 동세덜도 막.(응 시누이 함덕에서 아주 잘 살아. 동서들도 아주.)
102013 @ 이디 할아버지 큰아덜?(여기 할아버지 큰아들?)
102013 # 응.(응.)
102013 # 할머니 큰메누리구나.(할머니 큰며느리구나.)
102013 # 큰메누리.(큰며느리.)
102013 @ 큰메누리난 힘들지 안헨?(큰며느리니까 힘들지 않았어?)
102013 # 힘들면 뭐 그때부터 식게 겨난.(힘들면 뭐 그때부터 제사 그러니까.)
102013 @ 식겐 멩 번이나 험수과?(제사는 몇 번이나 합니까?)
102013 # 으섯 번 헌디 육십 멩 년 헛저, 계난.(여섯 번 하는데 육십 멩 년 했어, 그러니까.)
102013 @ 계난. 우리 친정어머닌예 나 큰메누리로 시집가켄 허난 가지 말렌예. 많고 많은디 무사 큰메누리 허젠 험시넌 허멍.(그러니까. 우리 친정어머니는요 나

큰머느리로 시집가겠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요. 많고 많은데 왜 큰머느리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102013 # 계메. 큰메누리 해도계 좋아근에게 살주마는 우린. 침, 계난 동셀 잘 만나사 뉘여.(그러게. 큰머느리 해도 좋아서 살지마는 우리는. 참, 그러니까 동서를 잘 만나냐 돼.)

102013 @ 동세를.(동서를.)

102013 # 동서만 잘 만나민 큰메누리도 어떻 안헤여.(동서만 잘 만나면 큰머느리도 어떻게 안 해.)

102013 @ 우리 동센 착해.(우리 동서는 착해.)

102013 # 겨난 좋주게.(그러니까 좋지.)

102013 @ 응.(응.)

102013 # 겨난게 시어머니 돌아간 이제 말짜엔 후회가 나주게. 잘 못헤드린 것도 후회나고 경허여.(그러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서 이제 나중엔 후회가 나지. 잘 못헤드린 것도 후회되고 그렇게 해.)

102013 @ 응.(응.)

102013 # 겨난 저 춤으멍.(그러니까 저 참으면서.)

102013 @ 응.(응.)

102013 # 잘 허여근에게 동생들이.(잘 해서 동생들이.)

102013 @ 춤으멍 살아?(참으면서 살아?)

102013 # 응. 동생들이 좋게 살고, 시어머니광도 잘 지내곡.(응 동생들이 좋게 살고, 시어머니랑도 잘 지내고.)

102013 @ 응.(응.)

102013 # 그렇게 해서 여즈가 임무라.(그렇게 해서 여자가 임무야.)

102013 @ 계메, 여잔 왜 이렇게 힘든 거를.(그러게, 여잔 왜 이렇게 힘든 거를.)

102013 # 계메 말이주. 경허난 이제 노래.(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노래.)

3. 밭일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 해난 말 흐뭇 곶아줍서.(보리농사 했던 말 조금 말해 주세요.)

103002 # 응?(응?)

103002 @ 보리농사.(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보리농사?)

103002 @ 보린 어떻 행 허는 거?(보린 어떻게 해서 하는 거?)

103002 # 아, 보리. 보리 갈 때 허는 거?(아, 보리. 보리 갈 때 하는 거?)

103002 @ 예, 예.(예, 예.)

103002 # 씨 뿌릴 때 허는 거?(씨 뿌릴 때 하는 거?)

103002 @ 예.(예.)

103005 # 그건이 음력으로 이제 시월, 음력 구월 한 보름부터 시월 구물도록 갈 주게 그걸.(그건 음력으로 이제 시월, 음력 구월 한 보름부터 시월 저물도록 갈지 그걸.)

103005 @ 어떻 행 갈아?(어떻게 해서 갈아?)

103005 # 그거, 옛날은 비료가 없어부니까 소걸름.(그거, 옛날은 비료가 없으니까 쇠두엄.)

103005 @ 응, 소걸름.(응, 쇠두엄.)

103005 # 돼지 질좌근에 돼지걸름 해다가 뿌려 가지고.(돼지 길러서 돼지거름 해다가 뿌려 가지고.)

103005 @ 어디다가?(어디다가?)

103005 # 밧디, 영.(밭에, 이렇게.)

103005 @ 응, 밧디 강은에 소걸름 뿌려?(응, 밧에 가서 쇠두엄 뿌려?)

103005 # 밧디 강 허꺼, 영 밧디. 허꺼 가지고 이젠 보리씨 빼영 가는 거주게. 갱 갈아. 갱 낫당 이제 이 중간에 비료가 나난에 이젠 걸름 놓고 비료도 농곡 허난 비료도 잘 되고. 옛날에는 보리도 잘 안 돼여.(밭에 가서 흘뜨려, 이렇게 밧에. 흘뜨려 가지고 이젠 보리씨 뿌려 가는 거지. 그렇게 갈아. 그렇게 놓았다가 이제 이 중간에 비료가 나니까 이젠 거름 놓고 비료도 놓고 하니까 비료도 잘 되고. 옛날에는 보리도 잘 안 돼.)

103005 @ 쉼걸름 내치젠 허민 무신거에 담양 내쳐?(쇠두엄 내려고 하면 무엇에 담아서 내?)

103005 # 내침이게 옛날은. 이젠 참 경운기여 뭐 차여 헛주마는 그뎨게 지어도 가고 사름덜이.(내는 것이 옛날은. 이젠 참 경운기다 뭐 차다 헛지마는 그뎨 저서도 가고 사름들이.)

103005 @ 무신거에?(무엇에?)

103005 # 등짐으로 맥에 담양.(등짐으로 먹서리에 담아서.)

103005 @ 아, 맥에 담양.(아, 먹서리에 담아서.)

103005 # 맥 알아져?(먹서리 알아?)

103005 @ 예.(예.)

103005 # 그 맥에 담양 지어도 가고 걸름 지엄젠 허영.(그 먹서리에 담아서 저도 가고 거름 지고 있다고 해서.)

103005 @ 아.(아.)

103005 # 경허곡 중간엔 이제 구루마가 이제 나건 디도 오래지 안해서.(그렇게 하고 중간엔 이제 달구지가 이제 난 지도 오래지 않았어.)

103005 @ 아.(아.)

103005 # 구루마 나난 구루마로 시끄고, 또 구루마 허단 경운기 나니까 이제 경

운기로 시끄고 경허단 이제 차 나난 경운기도 사용 안허고.(달구지 나니까 달구지로 신고, 또 달구지 하다가 경운기 나니까 이제 경운기로 신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차 나니까 경운기도 사용 았고.)

103005 @ 하하하.(하하하.)

103005 # 경허는 거. 츠츠츠츠 발전돼 가지고.(그렇게 하는 거. 차츠차츠 발전되어 가지고.)

103005 @ 예.(예.)

103005 # 시대가 겨난 침, 경허 허는 겨주, 뒤.(시대가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해서 하는 겨지, 뒤.)

103005 @ 그른 저 쉼걸름 밧디 뿌렁, 그다음에 보리 뿌렁 그다음엔 어떻게? 밧을 갈아?(그러면 저 쇠두엄 밧에 뿌려서, 그다음에 보리 뿌려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 밧을 갈아?)

103005 # 응.(응.)

103005 @ 무신걸로 갈아?(무엇으로 갈아?)

103005 # 쉼로 갈았주, 그때는.(소로 갈았지, 그때는.)

103005 @ 쉼에 무신거?(소에 무엇?)

103005 # 쉼 잠데 메왕.(소 쟁기 메워서.)

103005 @ 잠데 메왕.(쟁기 메워서.)

103005 # 잠데엔도 허고 쟁기엔도 허여, 그것은.(‘잠데’라고도 하고 쟁기라고도 해.)

103005 @ 응.(응.)

103005 # 겨난 곧건덜 쟁기여, 잠데여.(그러니까 말하기를 쟁기다, ‘잠데’다.)

103005 @ 예.(예.)

103005 # 응. 쟁 소에 메와 가지고 소 이제 멍에 썩와근앵이 잠데 메왕 가린석.(응. 그렇게 해서 소에 메워 가지고 소 이제 멍에 썩워서 쟁기 메워서 가린석.)

103005 @ 예.(예.)

103005 # 영행 등기곡, 쉼가 잘못 가가민 영 등겨. 이레 가가민 영 등기곡 저레 가가민 영 등기곡 쉼로 밧 갈 때. 우린 경헛저. 우리로 우트레 어른덜은 다 그렇게 생활을 허고.(이렇게 해서 당기고, 소가 잘못 가가면 이렇게 당겨. 이리로 가가면 이렇게 당기고 저레 가가면 이렇게 당기고 소로 밧 갈 때. 우린 그렇게 했어. 우리도 위로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103005 @ 응.(응.)

103005 # 우리도 이제 한참 시절은 그렇게 헛 살았어. 이젠 늙으난에 시대가 발전 뒀주.(우리도 이제 한창 시절은 그렇게 해서 살았어. 이젠 늙으니까 시대가 발전 되었지.)

103005 @ 쟁 밧 영 갈든 다 어퍼져마씨?(그렇게 밧 이렇게 갈면 다 얹어져요?)

103005 # 경허난 이제 그 어떤 땐 산파엔 허영 작작 빼영 같고.(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땐 산파라고 해서 짹짹 뿌려서 갈고.)

103005 @ 응.(응.)

103005 # 골 해여 가지고 영 고랑에만 거름 허꺼 가지고 보리씨 빼어 가지고. 꼬슬퀴³³)가 이서. 또 쪼어, 쪼어, 그걸 문짝.(골 해 가지고 이렇게 고랑에만 거름 쪼어 가지고 보리씨 뿌려 가지고. ‘꼬슬퀴’가 있어. 또 끌어, 끌어. 그걸 푹.)

103005 @ 아.(아.)

103005 # 씨를 묻어야 돼니까.(씨를 묻어야 되니까.)

103005 @ 꼬슬퀴는 무신걸로 만드는 거?('꼬슬퀴'는 무엇으로 만드는 거?)

103005 # 낭으로 멘들어. 낭으로 멘들앙 쪼어.(나무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어서 끌어.)

103005 @ 사름이 쪼어? 췌가 쪼어?(사람이 끌어? 소가 끌어?)

103005 # 응, 췌도 메왕 쪼꼭 사름으로 쪼지, 하영.(응, 소도 메워서 끌고 사름으로 쪼지, 많이.)

103005 @ 아, 보통 사람으로.(아, 보통 사람으로.)

103005 # 갱 씨를 이제 더퍼줘, 그 흙을. 계민 보리가 잘 나주. 종자가 잘 나. (그렇게 씨를 이제 덮어줘, 그 흙을. 그러면 보리가 잘 나지. 종자가 잘 나.)

103006 @ 보리도 종류가 여러 개 이신가마씨?(보리도 종류가 여러 개 있나요?)

103006 # 응, 슬오리엔 허영 이제 현 것도 있고 또 맥주보리게.(응, 쌀보리라고 해서 이제 한 것도 있고 또 맥주보리.)

103005 @ 응.(응.)

103005 # 맥주 멘드는 거 그것도 췌고. 종류가 이제 더 여러 가지란게.(맥주 만드는 거 그것도 있고. 종류가 이제 더 여러 가지더라.)

103006 @ 옛날엔 두 개뿐?(옛날엔 두 개뿐?)

103006 # 어, 두 개뿐이라난디 이제 먹보리라고 해서 보리쌀이 검어어.(어, 두 개뿐이었는데 이제 ‘먹보리’라고 해서 보리쌀이 검어.)

103006 @ 아, 옛날에도 있어난?(아, 옛날에도 있었어?)

103006 # 응, 그것도 나고. 이 중간에 또 밀, 밀도 같아나고.(응, 그것도 나고. 이 중간에 또 밀, 밀도 같았었고.)

103007 @ 보리밭은 블라줘사 뽕니까?(보리밭은 밟아줘야 됩니까?)

103007 # 그 중간에는 이제 보리가 부꺼³⁴) 가지고 아이 웬텐 막 이 사름덜이 동원헤연 블르기도 헤낫어. 보리밭 블르레 나가, 일등이 막 사름.(그 중간에는 이제 보리가 ‘부꺼’ 가지고 안 된다고 막 이 사람들이 동원헤서 밟기도 했었어. 보리밭 밟으러 나가, 일등이 막 사름.)

103007 @ 사름이 블라, 췌나 들로 블라?(사람이 밟아, 소나 말로 밟아?)

33) ‘꼬슬퀴’는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구로,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수없이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든다.

34) ‘부꺼다’는 액체가 끓어 넘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날씨가 추워서 흙이 얼어서 부풀어 오른 것을 표현한 것이다.

103007 # 쉼로 불르젠 해도 쉼물이 경 말 들엉 불러져?(소로 밟으려고 해도 마소가 그렇게 말 들어서 밟아?)

103006 @ 하하하. 말을 안 들어?(하하하, 말을 안 들어?)

103006 # 사름으로 불랏지, 불랏어, 사름으로.(사람으로 밟았지, 밟았어, 사람으로.)

103006 @ 사름으로.(사람으로.)

103006 # 사름으로 불라. 더러 불릅단에 이젠 보리용스도 설르고.(사람으로 밟아. 더러 밟다가 이젠 보리농사도 그만두고.)

103008 @ 검질도 메사주예? 보리밭디예?(김도 매야지요? 보리밭에?)

103008 # 메고말고. 지금 이제 날 따시민 매일 보리왓디 검질메레 갖주게.(매고말고. 지금 이제 날 따뜻하면 매일 보리밭에 김매러 갔지.)

103008 @ 아, 무신 검질 보리왓던 하영 납니까?(아, 무슨 김 보리밭엔 많이 납니까?)

103008 # 아이고 뭐, 오만 가지 다 나.(이이고 뭐, 오만 가지 다 나.)

103008 @ 검질 이름은 무신거 무신거 이서?(김 이름은 무엇 무엇 있어?)

103008 # 검질 이름은 저 콩쿨.(김 이름은 저 ‘콩쿨’.)

103008 @ 응.(응.)

103008 # 또 진쿨.(또 별꽃.)

103008 @ 진쿨.(별꽃.)

103008 # 또 소시락쿨.(또 ‘소시락쿨’)

103008 @ 소시락쿨, 소시락쿨은 어떤 거?(‘소시락쿨, 소시락쿨’은 어떤 거?)

103008 # 소시락쿨 이세, 보리왓디 많이 나는 거.(‘소시락쿨’ 있잖아, 보리밭에 많이 나는 거.)

103008 @ 보리왓디 하영 나는 거.(보리밭에 많이 나는 거.)

103008 # 그거 나민 막 검질이 막 마더. 메젠허민.(그거 나면 막 김이 막 마더. 매려고 하면.)

103008 @ 모더?(모더?)

103008 # 응, 오래여, 그걸 뽑아내젠 허민.(응, 오래 걸려, 그걸 뽑아내려고 하면.)

103008 @ 아, 뿌리가.(아, 뿌리가.)

103008 # 응. 저 진쿨허고 콩쿨은 그래도 좀 해도 것도 나빠.(응. 저 별꽃하고 ‘콩쿨’은 그래도 좀 해도 그것도 나빠.)

103008 @ 응.(응.)

103008 # 경허곡 뭐 안 나는 건 엇고 다른 것도 다 나.(그리고 뭐 안 나는 건 없고 다른 것도 다 나.)

103008 @ 보리밭 검질은 몇 번이나 메사워여?(보리밭 김은 몇 번이나 매어야 돼?)

103008 # 거 흔 셔? 두 불은.(거 한이 있어? 두 벌은.)

103008 @ 두 불은.(두 벌은.)

103008 # 보통으로 메고.(보통으로 매고.)

103008 @ 보통으로 두 불?(보통으로 두 벌?)

103008 # 또 이제 남아근에 보리가 커가면 또 세 불 매는 사람도 있고.(또 이제 남아서 보리가 커가면 또 세 벌 매는 사람도 있고.)

103008 @ 보리밭도 세 불도 매는구나예?(보리밭도 세 벌도 매는구나예?)

103008 # 응. 또 대우리가 있어. 보리밭디 대우리라고 해 가지고.(응. 또 귀리가 있어. 보리밭에 귀리라고 해 가지고.)

103008 @ 응.(응.)

103008 # 요샌 그걸로 들 출헌덴 허멍. 대우리 막 갈아 가지고.(요새는 그것으로 말 풀한다고 하면서. 귀리 막 갈아 가지고.)

103008 @ 대우리?(귀리?)

103008 # 대우리엔 현 거 보리밭디 나는 거. 보리가 이제.(귀리라고 한 거 보리밭에 나는 거. 보리가 이제.)

103008 @ 보리영 비슷하게 생긴 건가?(보리랑 비슷하게 생긴 건가?)

103008 # 아니, 이제 보리가 이제 막 피어 가지고 검질멩 놔두민 그 대우리만 엇이민 좋은디 대우리가 많이 난 밧은 대우리도 메야 돼여.(아니, 이제 보리가 이제 막 피어 가지고 김매서 놔두면 그 귀리만 없으면 좋은데 귀리가 많이 난 밧은 귀리도 매어야 돼.)

103008 @ 아.(아.)

103008 # 것도 흔 가지 검질이라.(것도 한 가지 김이야.)

103008 @ 검질이라예.(김이에요.)

103008 # 보리에 대행은.(보리에 대해서는.)

103010 @ 보리 익어가든 보리 비어살 거 아니예?(보리 익어가면 보리 베어야할 거 아니예?)

103010 # 응.(응.)

103010 @ 보리 빌 땀 어떻 해낫수과?(보리 벨 땀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10 # 어떻 헤여? 호미로 비주.(어떻게 해? 낫으로 베지.)

103010 @ 호미로?(낫으로?)

103010 # 응.(응.)

103010 @ 강 밧디 가근에 비든 그거 어떻 행 무꺼살 거 아니?(가서 밧에 가서 베면 그거 어떻게 해서 묶어야할 거 아니?)

103010 # 그것을 이제 초담은 무꺼근엥이 이제 집이 저당 클 이서, 또. 홀트는 거.(그것을 이제 처음은 묶어서 이제 집에 저다가 틀 있어, 또. 훑는 거.)

103010 @ 클, 홀트는 거.(틀, 훑는 거.)

103010 # 보리 홀트는 거. 우리 거 저디 요작ㄱ장 놔단 데껴붙엇저.(보리 훑는

거. 우리 거 저기 요사이까지 놔두었다가 던져버렸어.)

103010 @ 하하하.(하하하.)

103010 # 흘트는 거. 그걸로 흘타 가지고 이젠 맥타기가 나니까 그걸로 두드리고 옛날은 도끼로도 두들어.(훑는 거. 그걸로 훑아 가지고 이젠 탈곡기가 나니까 그걸로 두드리고 옛날은 도리깨로도 두드려.)

103011 @ 아, 도끼로도, 집이서? 집이 앓앙 왕?(아, 도리끼로도, 집에서? 집에 가져 와서?)

103011 # 응, 마당에서.(응, 마당에서.)

103011 @ 마당에서 흘튼 다음에.(마당에서 훑은 다음에.)

103011 # 막 이제 구루마로 시꺼당 데며놔. 놀었다근앵이.(막 이제 달구지로 실어다가 쌓아놔, 가렸다가.)

103011 @ 응.(응.)

103011 # 그걸 이제 흘타 가지고 이제 두드리주게. 계난 맥타기 나니까 사름덜이 살기가 좋았어이, 도끼도 아니 두들어.(그걸 이제 훑아 가지고 이제 두드리지. 그러니까 탈곡기 나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좋았어, 도리끼도 안 두드려.)

103011 @ 도끼 어떻게 두드리는 거꽈?(도리끼는 어떻게 두드리는 겁니까?)

103011 # 도끼 어떻허여? 어야홍 엇어?(도리끼 어떻게 해? 어야홍 없어?)

103011 @ 어야홍?(어야홍?)

103011 # 여기 이제 제주 민요에 나완게. 것도 옛날 제주인덜 살아난 거.(여기 이제 제주 민요에 나오던데. 그것도 옛날 제주인들 살았던 거.)

103011 @ 예.(예.)

103011 # 그거 이제 노래 이제 저거 걸언 들엄주. 검질메는 사대소리.(그거 이제 노래 이제 저거 걸어서 듣고 있지. 김매는 사대소리)

103011 @ 검질메는 건 사대소리, 도끼질 허는 건?(김매는 건 사대소리, 도리끼 질 하는 건?)

103011 # 어야홍허영 도끼 마당질 소리가 이서.(어야홍하면서 도리끼 마당질 소리가 있어.)

103011 @ 도끼도 무사 이름이 다 이십니께? 요기 잡는 디영, 요디 영 웬 디영.(도리끼도 왜 이름이 다 있잖습니까? 요기 잡는 데랑, 요기 이렇게 된 데랑.)

103011 # 도끼?(도리끼?)

103011 @ 응.(응.)

103011 # 그건 도끼어시, 영 잡는 건 어시.(그건 도리끼장부, 이렇게 잡는 건 장부.)

103011 @ 어시. 잡는 건 어시.(장부. 잡는 건 장부.)

103011 # 또로 그 영 뭐허는 건 도끼아덜.(또 그 이렇게 뭐하는 건 도리끼덜.)

103011 @ 도끼아덜.(도리끼덜.)

103011 # 우리가 곱아난 말이주.(우리 했던 말이지.)

103011 @ 계난 골아난 말예. 므작져진 디?(그러니까 했던 말요. 매듭진 데?)

103011 # 그 므작진 딴 도께 저 거시기. 그건 이젠 허젠 허민 도께틀레, 틀레.
(그 매듭진 덴 도리께 저 거시기. 그건 이젠 하려고 하면 도리께꼭지, 꼭지.)

103011 @ 틀레.(꼭지.)

103011 # 나무 끈어다가 그것을 불에 귀 가지고 테왕 그 틀레를 멘들양 이제 그 도께아덜 회초리 닳은 거.(나무 잘라다가 그것을 불에 구어 가지고 틀어서 그 꼭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 도리깨열 회초리 같은 거.)

103011 @ 응.(응.)

103011 # 그거 놔 가지고 이제 노끈으로 이제 줄라 무꺼. 막 도께 메젠 허민 것도 어려워.(그거 놔 가지고 이제 노끈으로 이제 줄라 묶어. 막 도리께 매려고 하면 것도 어려워.)

103011 @ 응.(응.)

103011 # 도께 메영, 경혜사.(도리께 매어서, 그래야.)

103011 @ 계민 양착에 멧 사름이나 상 두드립니까?(그러면 양쪽에 멧 사름이나 서서 두드립니까?)

103011 # 그건 뭐 사름이 이시민 둘이도 두드리고 서이도, 건 혼 엇고. 혼자도 두드리고.(그건 뭐 사름이 있으면 둘이도 두드리고 셋도. 그건 한 없고. 혼자도 두드리고.)

103011 @ 혼자도 두드리고.(혼자도 두드리고.)

103011 # 사름 엇이민, 경혜여.(사람 없으면, 그렇게 해.)

103011 @ 도께질 헤나든 그 다음엔 어떻 허여?(도리께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103011 # 어떻 헤여? 그걸 이제 브름에 불리든지 어떻 헤야지.(어떻게 해? 그걸 이제 바람에 불리든지 어떻게 해야지.)

103011 @ 무신걸로 불려?(무엇으로 불려?)

103011 # 솔박³⁵⁾으로 거리멍게.(‘솔박’으로 뜨면서.)

103011 @ 솔박으로 거리멍. 요디 올레 상.(‘솔박’으로 뜨면서. 요기 ‘올레’ 서서.)

103011 # 올레 상. 우리집 불림질³⁶⁾ 허기 좋아, 브름이.(‘올레’ 서서. 우리집 ‘불림질’ 하기 좋아, 바람이.)

103011 @ 하하하.(하하하.)

103011 # 경허단이 유채 갈안, 선풍기가 나세,(그러다가 유채 갈았어, 선풍기가 나왔어.)

103011 @ 응.(응.)

103011 # 선풍기로 주로 불리고. 이젠 불림질 잘 헤. 선풍기 덕분에. 뭐 흐끔헌 것도 선풍기. 꿩도 갈민 선풍기로 불리고.(선풍기로 주로 불리고. 이젠 ‘불림질’ 잘

35) ‘솔박’은 나무를 등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이다.

36) ‘불림질’은 곡식 따위를 바람에 부쳐서 필요 없는 것을 없애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불리다’의 명사형 ‘불림’과 ‘하는 일’의 의미인 ‘-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해. 선풍기 덕분에. 뭐 조그만 것도 선풍기. 참깨도 같면 선풍기로 불리고.)

103011 @ 아.(아.)

103011 # 그렇게, 선풍기 나난.(그렇게, 선풍기 나오니까.)

103010 @ 보리 비어근에 영 무릅니께, 무끄는 건 무신거엔 글아?(보리 베어서 이렇게 묶잖아요, 묶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

103010 # 묶음질.(묶음질.)

103010 @ 묶음질?(묶음질?)

103010 # 응.(응.)

103010 @ 끈 닦은 거.(끈 닦은 거.)

103010 # 끈 닦은 거?(끈 닦은 거?)

103010 @ 것도 보리낭으로.(그것도 보릿대로.)

103010 # 응, 보리낭으로도, 저 산뒤쪽으로 께, 께.(응. 보릿대로도, 저 밭벼대로 매끼, 매끼.)

103010 @ 께. 그걸로 영 해근에.(매끼. 그걸로 이렇게 해서.)

103010 # 응.(응.)

103010 @ 영 무꺼예?(이렇게 묶어요?)

103010 # 이제 보리 무끄젠 허민 보리가 팔민 산뒤쪽으로나 쥘 데왕 가, 집이 서.(이제 보리 묶으려고 하면 보리가 뻗뻗하면 밭벼대로나 매끼 틀어서 가, 집에서.)

103010 @ 아.(아.)

103010 # 데왕 가지 안허민 보리 잘 못 무꺼.(틀어서 가지 않으면 보리 잘 못 묶어.)

103010 @ 아, 집이서.(아, 집에서.)

103010 # 보리가 또 죽죽허영 무꺼질 땐 그 보리 딱 오그려놔 그걸로 삭삭 무끄주게.(보리가 또 죽죽해서 묶을 수 있을 땐 그 보리 딱 오그려 놓고 그것으로 삭삭 묶지.)

103010 @ 응.(응.)

103010 # 경 해낫어.(그렇게 했었어.)

103010 @ 응.(응.)

103010 # 건 께라고.(그것은 매끼라고.)

103014 @ 게민 저 늢어근에 놔두든가. 보리낭도?(그러면 저 가려서 놔두든가. 보릿대도?)

103014 # 응, 보리낭도 늢엇당 거름허여, 것도, 돼지 질를 때. 돛통에 담아놔.(응, 보릿대도 가렸다가 거름해, 그것도. 돼지 기를 때. 돼지우리에 담아놔서.)

103014 @ 아.(아.)

103014 # 이젠 안 해도 도새기 가호마다 이제 하나 질봐, 한 마리.(이젠 안 해도 돼지 가호마다 이제 하나 길러, 한 마리.)

103014 @ 응.(응.)

103014 @ 벤소게 벤소, 이제 ㄹ뜨민 화장실.(변소 변소, 이제 같으면 화장실.)

103014 @ 응.(응.)

103014 # 거기 가서 똥 누주게.(거기 가서 똥 누지.)

103014 @ 보리짖 거기다 깔아 주는구나예?(보릿대 거기다 깔아 주는군요.)

103014 # 응. 경행 답아낱 이제 그 보리낱이 썩으면 이제 내쳐 가지고 보리 갈아.(응. 그렇게 해서 답아서 이제 그 보릿대가 썩으면 이제 꺼내 가지고 보리 갈아.)

103014 @ 그걸로.(그걸로.)

103014 # 응, 쉼 메면 이제 쉼 걸름도 내쳐 가지고 보리 갈곡.(응, 소 매면 이제 쇠두엄도 꺼내 가지고 보리 갈고.)

103014 @ 응.(응.)

103014 # 경행 막 사용했주. 그걸로 제주인들이 살았, 살아온 거.(그렇게 해서 막 사용했지. 그걸로 제주인들이 살아서, 살아온 거.)

103014 @ 보리쌀 불림질해난 건 어디?(보리쌀 ‘불림질’했던 건 어디?)

103014 # ㄹ시락.(뎨라기.)

103014 @ ㄹ시락?(뎨라기?)

103014 # ㄹ시락도이 옛날은 이 구들을 때주게.(뎨라기도 옛날은 이 구들을 때지.)

103014 @ 아, ㄹ시락으로 구들 때여.(아, 뎨라기로 구들을 때어.)

103014 # 응, 구들을 이제 이디 구들 맨들아 가지고 냥으로도 때고 ㄹ시락으로 깎혀게 이제 답아 가지고 부찌민 저 카명 이 구들이 뜨거와.(응, 구들을 이제 여기 구들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도 때고 까끄라기로 깎혀게 이제 답아 가지고 붙이면 타면서 이 구들이 뜨거워.)

103014 @ 응. 그른 ㄹ시락은 영 모아 놔두는가?(응, 그러면 까끄라기는 이렇게 모아 놔두나?)

103014 # 응.(응.)

103014 @ 어디레 모양 놔뉘, 그건?(어디에 모아서 놔뉘, 그건?)

103014 # 이디 저 저런 우리 ㄹ치 밧거리 신 사람은 밧거리에 담양 낱 놔두고 경 안허민 베껏디 놀어 가지고 비 아이 맞게 잘 더겨 뉘야 뉘여.(여기 저 저런 우리 같이 바깥채 있는 사람은 바깥채에 답아서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 가려 가지고 비 안 맞게 잘 덮어 뉘야 돼.)

103014 @ 응.(응.)

103014 # 더퍼, 느람지로, 저 새허영 느람지 잇주게. 새로 예긴 거.(덮어, 이영으로, 저 떠해서 이영 있지. 띠로 엮은 거.)

103014 @ 불림질해 나민 그거 영 마당에 널영 물리기도 허고?(불림질하고 나면 그거 이렇게 마당에 널어서 말리기도 하고?)

103014 # 아니, 그냥 툼 거난게.(아니, 그냥 말린 거니까.)

103014 @ 아 툼 거난.(아, 마른 거니까.)

103014 # 담양 치와야주, 것도게.(담아서 치워야지, 그것도.)

103014 @ 뭐에 담아?(뭐에 담아?)

103014 # 것도게 그냥 담앗당 굴채로 담으명덜 구들도 때고.(그것도 그냥 담앗다가 삼태기로 담으면서 구들도 때고.)

103014 @ 응.(응.)

103014 # 경 안 해영 사용 엇이민 밧디 치와다 불어야지, 강.(그렇게 안 해서 사용 없으면 밧에 치워 버려야지, 가서.)

103012 @ 응, 게문 이거 보리, 보리쌀 멘들어살 거 아니파예?(응, 그러면 이거 보리, 보리쌀 만들어알 거 아닙니까?)

103012 # 보리 몰려 가지고.(보리 말려 가지고.)

103012 @ 응.(응.)

103012 # 초담은 이제 들벙이. 옛날은.(처음은 이제 연자방아. 옛날은.)

103012 @ 응, 들벙이.(응, 연자방아.)

103012 # 들벙이에서 지어 가지고 쌀 멘들아 먹었지마는, 그 이제 정미소 난 후젠게 정미소에서.(연자방아에서 짚어 가지고 쌀 만들어 먹었지마는, 그 이제 정미소 난 후에는 정미소에서.)

103012 @ 들벙인 어떻 행 허는 거파?(연자방아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103012 # 물 서꺼근엥이 보리를 이제 돌리멍 지어. 지는 거엔 허멍 들벙이라고.(물 섞어서 보리를 이제 돌리면서 짚어. 짚는 거라고 하면서 연자방아라고.)

103012 @ 들벙인 물, 쉼나 물 메우는 거파?(연자방아는 말, 소나 말 메우는 것입니까?)

103012 # 아이, 쉼도 신 사름은 메왕허고, 엇인 사름은 사름으로.(아니, 소도 있는 사름은 메워서 하고, 없는 사름은 사름으로.)

103012 @ 아, 사름으로. 멧 사름이 행 험니까?(아, 사름으로. 멧 사름이 해서 합니까?)

103012 # 사름으로 혼 댓 사름 들어.(사름으로 한 댓 사름 들어.)

103012 @ 아, 쟁 그거 밀려, 돌을?(아, 그렇게 해서 그거 밀어, 돌을?)

103012 # 밀려, 밀렁 뱅뱅 돌멍.(밀어, 밀어서 뱅뱅 돌면서.)

103012 @ 뱅뱅 돌멍.(뱅뱅 돌면서.)

103012 # 들벙이 짓는 거.(연자방아 짚는 거.)

103012 @ 거문 밑에 저 보리 놔두민 보리 꺾질 벳겨져?(그러면 밑에 저 보리 놔두면 보리 꺾질 벳겨져?)

103012 # 보리 낱 이제 안네 놔근에 비치락질을 허여이.(보리 놔서 이제 안에 놔서 빗자루질을 해.)

103012 @ 응.(응.)

103012 # 이젠 도로 츠츠츠 지어지는 건 속속 올리멍.(이젠 입구로 차츠차츠 짚어지는 건 속속 올리면서.)

103012 @ 응.(응.)

103012 # 다 지어지민 또 안네 거 속속 누리웁고 경허멍.(다 쪼어지면 또 안에 거 쪽쪽 내리우고 그렇게 하면서.)

103012 @ 아, 비차락으로?(아, 빗자루로?)

103012 # 응, 비차락으로.(응, 빗자루로.)

103012 @ 그 이 비차락은 무신 비차락이엔 곶아?(그 이 빗자루는 무슨 빗자루라고 말해?)

103012 # 비차락이주, 그건.(빗자루지, 그건.)

103012 @ 그냥 비차락예?(그냥 빗자루요?)

103012 # 응, 이제 그것도이 옛날은 대죽, 비차락 매는 대죽이 이서이.(응, 이제 그것도 옛날은 수수, 빗자루 매는 수수가 있어.)

103012 @ 응, 응.(응, 응.)

103012 # 밧디 낫당 대죽으로 비차락 매어. 이제도 풀지 안허여게, 대죽 비차락.(밭에 놓았다가 수수로 빗자루 매어. 이제도 팔지 않느냐, 수수 빗자루.)

103012 @ 응.(응.)

103012 # 그걸로 물벙이도 허곡 집안도.(그걸로 연자방아도 하고 집안도.)

103012 @ 쓸곡예?(쓸고요?)

103012 # 또 ㄹ레, 집이서 ㄹ레 곶민 ㄹ레 씨는 비차락허고 이 집안 씨는 비차락이 뜨나주게.(또 맷돌, 집에서 맷돌 같면 맷돌 쓰는 빗자루하고 이 집안 쓰는 빗자루가 다르지.)

103012 @ 응.(응.)

103012 # 추접허카부덴. 그런 건 낫당 물벙이도 지곡.(더러워질까봐, 그런 건 놓았다가 연자방아도 쪼고.)

103012 @ 응.(응.)

103012 # 이제 ㄹ레도 썰곡 경허는 거. 이 청소허는 비차락은 따로 놔두고 ㄹ쁜 거라도.(이제 연자방아도 쓸고 그렇게 하는 거. 이 청소하는 빗자루는 따로 놔두고 같은 거라도.)

103012 @ 예, 예.(예, 예.)

103012 # 그렇게 사용헤여.(그렇게 사용해.)

103012 @ 영 집이서 영 이 ㄹ레도 ㄹ는가?(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이 맷돌도 가는가?)

103012 # 응, ㄹ레 곶주게. 우리도 ㄹ레 이서, 마당에.(응, 맷돌 같지. 우리도 맷돌 있어, 마당에.)

103012 @ 아, 이수과? 그걸로도 보리쌀도 영 곶니까?(아, 있습니까? 그걸로도 보리쌀도 이렇게 곶니까?)

103012 # 응, 보리쌀도 헤영 떡곡, 모뭇쌀도 곶앙 먹고 그걸로 하영 사용헷주게.(응, 보리쌀도 해서 먹고, 메밀쌀도 갈아서 먹고 그걸로 많이 사용헷지.)

103012 @ 응.(응.)

103012 # 하영 사용했어.(많이 사용했어.)

103012 @ 저 물방엔 하영 헐 때 허고 요 ㄹ레헐 땐?(저 연자방아에 많이 할 때 하고 요 멧돌할 땐?)

103012 # ㄹ레엔 또 ㄹ를 굴주게.(멧돌엔 또 가루 같지.)

103012 @ 아, ㄹ루를.(아, 가루를.)

103012 # ㄹ루를 굴곡 또 보리쌀도이 그 물벙이에 진 것은 검퍼 가지고 쌀을 멘들어야 밥을 해여.(가루를 갈고 또 보리쌀도 그 연자방아에 찼은 것은 거피해 가지고 쌀을 만들어야 밥을 해.)

103012 @ 검퍼는 건 어떻 허는 거?(거피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

103012 # 그 ㄹ레에 두 번씩 벌러지게.(그 멧돌에 두 번씩 쪼개지게.)

103012 @ 아, 물벙이에 혼 번 곱앙 그다음에 또 ㄹ레에 또 곱아?(아, 연자방아에 한 번 갈아서 그다음에 또 멧돌아 또 갈아?)

103012 # ㄹ레에 검평.(멧돌에 거피해서.)

103012 @ 검평, 응.(거피해서. 응.)

103012 # 경헝 밥헝 먹는 거.(그렇게 해서 밥해서 먹는 거.)

103012 @ 경햐야 밥헝 먹어지는 거.(그렇게 햐야 밥해서 먹을 수 있는 거.)

103012 # 경햐단 정미소 나난 이젠 그 물 서끈 보리도 정미소에서 지어단 물리 와 가지고 ㄹ레에 검편 밥을 헐 먹단.(그렇게 하다가 정미소 나오니까 이젠 그 물 섞은 보리도 정미소에서 찼어다가 말려 가지고 멧돌에 거피해서 밥을 햐서 먹다가.)

103012 @ 응.(응.)

103012 # 이젠 차츰차츰 이젠 보리도 다끄는 법이 나지 안햐샤게.(이젠 차츰차츰 이젠 보리도 쏘는 법이 나지 안햐냐?)

103012 @ 어떻?(어떻게?)

103012 # 물도 안 서경.(물도 안 섞어서.)

103012 @ 물도 안 서꺼근에.(물도 안 섞어서.)

103012 # 응, 요샌 다 다끄지, 물도 아이 서경.(응, 요새는 다 쏘지, 물도 안 섞어서.)

103012 @ 다끄는 건 어떻 허는 거라?(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103012 # 방에에 지영 다깍주게.(방아에 찼어서 쏘지.)

103012 @ 아, 방에에.(아, 방아에.)

103012 # 응, 저 정미소에.(응, 저 정미소에.)

103012 @ 정미소에서 응.(정미소에서 응.)

103012 # 이제 우리 물도 아이 서끄고 그냥 므른 채 다깍 먹는 거라, 이제, 지금은, 경햐어.(이제 우리 물도 안 섞고 그냥 므른 채 쏘어서 먹는 거야, 이제, 지금은, 그렇게 햐어.)

103014 @ 보리 꺾데긴 무신거엔 곱아? 보리쌀 벗겨지는 꺾데기.(보리 꺾데기는

무엇이라고 말해?)

103014 # 껌데긴 채. 보리채.(껌데긴 겨, 보릿겨.)

103014 @ 보리채, 그 보리채 그냥 데껴 부는 건가?(보릿겨, 그 보릿겨는 그냥 던져 버리는 건가?)

103014 # 그거 지금 밧디 사용허엄실걸. 이제 제주 차부에 가민 보리 다끄는 정미소 있지 안허여?(그거 지금 밧에 사용하고 있을걸. 이제 제주 차부에 가면 보리 쏘는 정미소 있지 않니?)

103014 @ 예.(예.)

103014 # 거기 이제 채 담아근에 막 마대에 담양 대멋어. 것도 다 사가.(거기 이제 겨 담아서 막 마대에 담아서 재어 놓았어. 그것도 다 사가.)

103014 @ 아, 옛날엔 어떻 해낫수과?(아,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014 # 옛날도 우리도게 사용했주게.(옛날도 우리도 사용했었지.)

103014 @ 무신걸로.(무엇으로.)

103014 # 옛날은이 그 보릿ㄴ루도 누룩 멘들아근에 술도 허여.(옛날은 그 보릿가루로 누룩 만들어서 술도 해.)

103014 @ 아, 보리채로?(아, 보릿겨로?)

103014 # 보리채, 그 ㄴ루에 검퍼난 ㄴ루.(보릿겨, 그 멧들에 거피한 가루.)

103014 @ 아 보릿ㄴ루.(아, 보릿가루.)

103014 # 그거 헤여근에 물 서꺼근에 이제 탁 그 이제 티와.(그거 해서 물 섞어서 이제 탁 그 이제 띄워.)

103014 @ 응.(응.)

103014 # 티와 가지고 소주허는 디도 들어가고 막걸리도 행 먹고 그렇게도 해 낫어.(띄워 가지고 소주하는 데도 들어가고 막걸리도 해서 먹고 그렇게도 했었어.)

103014 @ 쌀 할 때 나오는 ㄴ루마씨?(쌀 할 때 나오는 가루요?)

103014 # 응, ㄴ루. 채는 그냥 버리고게.(응, 가루. 겨는 그냥 보리고.)

103014 @ 응, 채는 버리고예.(응, 겨는 버리고요.)

103014 # 채는 도새기 먹주, 도새기.(겨는 돼지 먹지, 돼지.)

103014 @ 아, 도새기 맥여?(아, 돼지 먹여?)

103014 # 응, 돼지 맥여. 도새긴게, 제주 사람은 도새기, 도새기했주게, 이젠 돼지, 돼지해도.(응, 돼지 먹여. 돼지는, 제주 사람은 '도새기, 도새기'했지, 이젠 돼지, 돼지해도.)

103015 @ 응. 쟁 옛날 보리농사 하영 해낫수과?(응. 그렇게 해서 옛날 보리농사 많이 했었습니까?)

103015 # 하영 허고말고. 먹을 만이 헤야지, 식구에.(많이 하고말고. 먹을 만큼 헤야지, 식구에.)

103015 @ 응.(응.)

103015 # 겨당 보리썰도 엇인 사람은 엇어?(그러다가 보리썰도 없는 사람은 없

어?)

103015 @ 응.(응.)

103015 # 다 이 그 양식을 돌, 보리, 이제 보리 갈앙 새 보리 나도록 먹는 집은 건 잘사는 집이고.(다 이 그 양식을 돌, 보리, 이제 보리 갈아서 새 보리 나도록 먹는 집은 그것은 잘사는 집이고.)

103015 @ 응. 엇이민 어떻 해?(응. 없으면 어떻게 해?)

103015 # 경 안 현 사름은 양식도 엇어, 엇어. 대음현 사름덜은 못 먹어.(그렇게 안 한 사람은 양식도 없어, 없어. 명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먹어.)

103015 @ 계민 엇이민.(그러면 없으면.)

103015 # 그 그르에 이제 조 허주게, 또 조.(그 그루에 이제 조 하지.)

103015 @ 아.(아.)

103015 # 보릿그르에.(보리 그루에.)

103015 @ 응.(응.)

103015 # 조 불령 또 ㄱ을 들면은 좁쌀 헤여근앵이 보리쌀 서꺼 먹고.(조 밝아서 또 가을 들면 좁쌀 헤서 보리쌀 섞어 먹고.)

103015 @ 응.(응.)

103015 # 제주 사름덜은이 보리쌀, 좁쌀이 양식이주게. 이제야 이 곤쌀도 난 뭐 곤밥을 통일이주. 느네는 잘 먹었저.(제주 사람들은 보리쌀, 좁쌀이 양식이지. 이제야 이 흰쌀도 나서 뭐 쌀밥을 통일이지. 너희는 잘 먹었지.)

103015 @ 예.(예.)

103015 # 우리 아이덜 클 때도 이제 그때 곤쌀이 엇어. 우리가 갈앙 곤쌀이 떨어지주, 산뒤도 갈아도.(우리 아이들 클 때도 이제 그때 흰쌀이 없어. 우리가 갈아서 흰쌀이 떨어지지, 밍벼도 갈아도.)

103015 @ 응.(응.)

103015 # 경행 떨어지면 이제 초담은 조안미엔 행 그 나쁜 쌀, 그것도 곤쌀이라고 막 사 먹고.(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처음은 조안미라고 해서 그 나쁜 쌀, 그것도 흰쌀이라고 막 사 먹고.)

103015 @ 아.(아.)

103015 # 이젠 그다음은 이 나룩쌀이 나온 거라.(이젠 그다음은 이 쌀이 나온 거야.)

103015 @ 응.(응.)

103015 # 경현 때도 우리 쌀, 곤쌀이 엇엉 것도 벨미로.(그런 때도 우리 쌀, 흰쌀이 없어서 그것도 벨미로.)

103015 @ 응.(응.)

103015 # 우리 셋아덜은 또 보리밥 잘 안 먹어. 경허민 동제허여 줌으로 것도 곤쌀 햅뎀 사당 서경 먹었주. 허허허 잘도 웃겨.(우리 둘째 아들은 또 보리밥 잘 안 먹어. 그러면 따로 지어 줌으로 그것도 흰쌀 조금 사다가 섞어서 먹었지. 허허허 잘

도 웃겨.)

조농사

103018 @ 조는 언제 행은에 가는 거파?(조는 언제 해서 가는 것입니까?)

103018 # 조는 이제 오월달에 허여.(조는 이제 오월에 해.)

103018 @ 오월달에?(오월에?)

103018 # 오월달에 허여 이제 구월 나면은 다 곡식허여 들여.(오월에 해서 이제 구월 나면 다 곡식해 들여.)

103019 @ 그른 조는 씨 빨 댐 보리영 햅뭍 다른가?(그러면 조는 씨 뿌릴 댐 보리랑 조금 다른가?)

103019 # 응.(응.)

103019 @ 빠는 게? 어떻?(뿌리는 게? 어떻게?)

103019 # 보릿그르 갈아 가지고 또 밧을 잘 이제 멘들아 가지고 검질 웃게, 게서 줍씨 빼어근에 이제 그때는 물로 불려.(보리 그루 갈아 가지고 또 밧을 잘 이제 만들어 가지고 김 없게. 그래서 줍씨 뿌려서 이제 그때는 말로 밧아.)

103019 @ 응.(응.)

103019 # 물테 혜영 막. 밧 불리는 소리도 막 좋주. 이제 여기 나와. 저거 틀건 든젠?(말땀 해서 막. 밧 밧는 소리도 아주 좋지. 이제 여기 나와. 저거 틀면 들을 래?)

103019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19 # 제주인들 해난 거.(제주인들 했던 거.)

103019 @ 쟁은에.(그래서.)

103019 # 나가이 우리 딸네 집이 큰 텔레비난 시에 가민 그거 들언 좋아허니까 저거 또 완 걸어쥬.(내가 우리 딸네 집에 큰 텔레비전이니까 제주시에 가면 그거 들어서 좋아하니까 저거 또 와서 설치해쥬어.)

103019 @ 아.(아.)

103019 # 저것도 무시거, 무시것고? 7번 우리 손지도 그디 땡겍서, 방송국에.(저것도 무엇, 무엇이니? 7번 우리 손자도 거기 다니고 있어, 방송국에.)

103019 @ 응.(응.)

103019 # 쟁 그디 신청허난 완 걸어쥬. 나 심심허민 거 들어.(그래서 거기 신청하니까 와서 설치해쥬어. 나 심심하면 그거 들어.)

103017 @ 조팍된 걸름 안 해?(조밭엔 거름 안 해?)

103017 # 걸름 안 행 그 보리 갈아나민 걸어.(거름 안 해서 그 보리 갈아나민 걸어.)

103017 @ 아.(아.)

103017 # 쟁 보릿그르에 조.(그래서 보리 그루에 조.)

103017 @ 응, 보릿그르에.(응, 보리 그루에.)

103019 @ 그 밧 갈민 무사, 밧 고랑하고 이랑이 이십니께?(그 밧 갈면 왜, 밧 고랑과 이랑이 있잖습니까?)

103019 # 응.(응.)

103019 @ 그건 무신거엔 곶아, 제주도 말로는.(그건 무엇이라고 말해, 제주도 말로는.)

103019 # 그건 제주도 말론. 이것을 밧을 영 갈 거 아니냐? 갈민 이제 이랑은 높아.(그건 제주도 말로는. 이것을 밧을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갈면 이제 이랑은 높아.)

103019 @ 응.(응.)

103019 # 고랑은 이제 납작헌 디가 고랑.(고랑은 이제 납작한 데가 고랑.)

103019 @ 아. 밑에 영 들어간 디.(아, 밑에 이렇게 들어간 데.)

103019 # 들어간 딴 고랑, 이딴 이랑.(들어간 데는 고랑, 여기는 이랑.)

103019 @ 응, 그거 하나는 무신거엔 곶아? 이랑 하나, 고랑 하나.(응, 그거 하나는 무엇이라고 해? 이랑 하나, 고랑 하나.)

103019 # 경행 그디 이제 씨를 뿌려, 경행 더프고. 이제 파나 무시거 요샌 비니 루 더경 싱그난 해도 옛날은이 고랑 끄서 가지고 영 고랑더레 영 파 놔 가지고 더 퍼.(그래서 거기 이제 씨를 뿌려, 그래서 덮고. 이제 파나 무엇 요샌 비닐도 덮어서 심으니까 해도 옛날은 고랑 끌어 가지고 이렇게 고랑으로 이렇게 파 놔 가지고 덮어.)

103019 @ 줍씨 게민 어떻 허는 거라?(줍씨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103019 # 줍싰 그냥 바라³⁷⁾로 빼어.(줍씨는 그냥 날개로 뿌려.)

103019 @ 바라로 빼고?(날개로 뿌리고?)

103019 # 응. 줍씨.(응, 줍씨.)

103019 @ 그냥 막 빼어?(그냥 막 뿌려?)

103019 # 응. 경행 이제 씨가 좇게 나민 뽑아주곡.(응. 그렇게 해서 이제 씨가 좇게 나면 뽑아주고.)

103022 @ 조팏디 검질은 어떤 검질 하영 납니까?(조밭엔 검은 어떤 검 많이 납니까?)

103022 # 최고 잘 나는 거 쉼비눔.(최고 잘 나는 거 쇠비름.)

103022 @ 쉼비눔.(쇠비름.)

103022 # 제완지.(바랭이.)

103022 @ 응?(응?)

103022 # 검질 이름.(검 이름.)

103022 @ 응, 쉼비눔.(응, 쇠비름.)

103022 # 제완지, 조팏디 나는 거.(바랭이, 조밭에 나는 거.)

103022 @ 조팏디 나는 거.(조밭에 나는 거.)

37) '바라'는 일본어 'ばら'에서 온 말로 씨를 뿌릴 때 '날개'로 뿌린다는 의미이다.

103022 # 그루에 검질 많아.(그루에 김 많아.)
 103022 @ 조팠디 검질은 메기 막 힘든가?(조밭에 김은 매기 막 힘든가?)
 103022 # 힘들주게. 경허민게 사대 불르멍 검질메야주게.(힘들지. 그러면 사대소리 부르면서 김매야지.)
 103022 @ 응.(응.)
 103022 # 거, 제주인들.(거, 제주인들.)
 103021 @ 몇 번, 몇 번 검질메마씨, 거문 조팠디?(몇 번, 몇 번 김매요, 그러면 조밭에.)
 103021 # 두 불 메어사 웨어, 것도.(두 벌 매어야 돼, 그것도)
 103021 @ 두 불 매사.(두 벌 매야.)
 103021 # 두 불, 시 불 메어야 웨어.(두 벌, 세 벌 매어야 돼.)
 103021 @ 두 불, 세 불 매사.(두 벌, 세 벌 매야.)
 103021 # 또 산뒤도 갈민 두 불, 시 불 메야 웨고. 산된 스월에 갈아.(또 밭벼도 갈면 두 벌, 세 벌 매야 되고. 밭벼는 사월에 갈아.)
 103021 @ 응.(응.)
 103021 # 산뒤도 많이 허민 곤솔 이녁 길로 먹곡.(밭벼도 많이 하면 흰쌀 자기 것으로 먹고.)
 103021 @ 응.(응.)
 103021 # 제스도 허곡, 경헛주게.(제사도 하고, 그랬었지.)
 103021 @ 응.(응.)
 103023 @ 조는 그거 다 익으면 그것도 비는 거봐? 조코고리 타는 거봐?(조는 그거 다 익으면 그것도 베는 것입니까? 조이삭 따는 겁니까?)
 103023 # 응, 비어근에 조코고리 툄다당, 거 타당.(응, 베어서 조이삭 뜯어다가, 거 따다가.)
 103023 @ 응, 타다당.(응, 따다가.)
 103023 # 것도 두드려야 웨어. 것도 메탁기로 두드려, 이제. 메탁기 나난.(그것도 두드려야 돼. 그것도 탈곡기로 두드려, 이제. 탈곡기 나오니까.)
 103024 @ 메탁기 나기 전이 도께로예?(탈곡기 나기 전에 도리깨로요?)
 103024 # 도께로.(도리깨로.)
 103024 @ 게문 고고리를 다 손으로 다 타?(그러면 이삭을 다 손으로 다 따?)
 103024 # 응.(응.)
 103024 @ 갱 어디레 담아?(그래서 어디에 담아?)
 103024 # 맥에 담안 시꺼 왓주게.(떡서리에 담아서 실어 왔지.)
 103024 @ 맥에 담양 시꺼와예.(떡서리에 담아서 실어오지요.)
 103024 # 지어오곡, 시꺼오곡.(져서 오고, 실어 오고.)
 103024 @ 응.(응.)
 103026 @ 좁쌀로는 또 뭐 만듭니까?(좁쌀로는 또 뭐 만듭니까?)

103026 # 좁쌀로는 밥 주로 헨 먹고.(좁쌀로는 밥 주로 해서 먹고.)

103026 @ 조팍?(조밥?)

103026 # 응, 조팍. 보리쌀 서끄민 것도 괜찮여, 풋 숯곡 허민 맛이서.(응, 조밥. 보리쌀 섞으면 그것도 괜찮아, 팔 삶고 하면 맛있어.)

103026 @ 응, 또 밥헿 먹고?(응, 또 밥해서 먹고?)

103026 # 밥헿 먹고, 술도 헿 먹고.(밥해서 먹고, 술도 해서 먹고.)

103026 @ 술도 헿 먹고.(술도 해서 먹고.)

103026 # 흐린좁쌀, 또 모원좁쌀이 이서.(차좁쌀, 또 메좁쌀이 있어.)

103026 @ 예.(예.)

103026 # 흐린좁쌀로 옛도 허곡 막걸리도 허민 맛좋아.(차좁쌀로 옛도 하고 막 걸리도 하면 맛있어.)

103026 @ 흐린좁쌀로는 옛허고.(차좁쌀로는 옛허고.)

103026 # 응.(응.)

103026 @ 모원조로는?(메조로는?)

103026 # 모원조로 밥 강 헿 먹어.(메조로 밥 가서 해서 먹어.)

103026 @ 밥.(밥.)

103026 # 밥만 헿 먹어.(밥만 헿 먹어.)

103026 @ 밥만 헿 먹어.(밥만 헿 먹어.)

103026 # 건디 모원좁쌀이 주로 양식이주, 흐린좁쌀은이 주로 먹지 안헤. 것도 맛 좋게 헿 먹젠 허민 흐린좁쌀 농곡 보리쌀에 흐린조팍 허민 첨 잘 먹주.(그런데 메 좁쌀이 주로 양식이지, 차좁쌀은 주로 먹지 았아. 그것도 맛있게 해서 먹으려고 하면 차좁쌀 놓고 보리쌀에 차조밥 하면 참 잘 먹지.)

103026 @ 맛은 뭐가 좋습니까?(맛은 뭐가 좋습니까?)

103026 # 흐린조팍 맛좋아.(차조밥이 맛있어.)

103026 @ 흐린조팍이 맛 좋아? 건디 무사 모원조로만 밥헿?(차조밥이 맛있어? 그런데 왜 메조로만 밥헿?)

103026 # 그것이.(그것이.)

103026 @ 아까운난?(아까워서?)

103026 # 응. 흐린좁쌀이 경 주로 먹지 안헤, 엇어.(응. 차좁쌀이 그렇게 주로 먹지 았아, 없어.)

103026 @ 엇어.(없어.)

103026 # 흐린좁쌀.(차좁쌀.)

103028 @ 좁쌀도 종류가 이수게? 강돌와리여 무신.(좁쌀도 종류가 있잖아요? ‘강돌와리’다 무슨.)

103028 # 응, 강돌와리.(응, ‘강돌와리’.)

103028 @ 또 무신거 잇어?(또 무엇이 잇어?)

103028 # 조, 이제 흐린조 게우리조엔 허영.(조, 이제 차조 ‘게우리조’라고 해

서.)

103028 @ 게우리조?(‘게우리조’?)

103028 # 그것도 이름이 이서난디 잊어붙어졌저.(그것도 이름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103028 @ 흐린조가 게우리조?(차조가 ‘게우리조’?)

103028 # 응. 저 흐린좁쌀. 쉼머리조, 궂발시리.(응. 저 차좁쌀. ‘쉼머리조, 궂발시리’.)

103028 @ 응. 새머리조?(응. ‘새머리조’?)

103028 # 쉼머리조.(‘쉼머리조’.)

103028 @ 또.(또.)

103028 # 또 강돌와리 건 잘 아네.(또 ‘강돌와리’ 그건 잘 아네.)

103028 @ 강돌와리.(‘강돌와리’.)

103028 # 강돌와린 모원조라.(‘강돌와리’는 메조야.)

103028 @ 강돌와린 모원조고.(‘강돌와리’는 메조고.)

103028 # 쉼머리존 흐린조.(‘쉼머리조는 차조.)

103028 @ 쉼머리존 흐린조고.(‘쉼머리조’는 차조고.)

103028 # 응.(응.)

103028 @ 게우리조, 쉼머리조는 언제, 언제 부르는 거마씨?(‘게우리조, 쉼머리조’는 언제, 언제 부르는 거예요?)

103028 # 조팍디 가근에 허민 고고리가이 까릿까릿헌 게 아이고, 저 게우리조 해연 좋다, 영도 곤곡 해난.(조밭에 가서 하면 이삭이 ‘까릿까릿’한 게 아이고, 저 ‘게우리조’해서 좋다, 이렇게도 말하고 했었어.)

103028 @ 아.(아.)

103028 # 그거라. 이멩시리엔 헌 것도 잇고, 이멩시리.(그거야. ‘이멩시리’라고 한 것도 있고, ‘이멩시리’.)

103028 @ 이멩시리.(‘이멩시리’.)

103028 # 것도 흐린조.(그것도 차조.)

103028 @ 흐린존 무신거 무신거파?(차조는 무엇 무엇입니까?)

103028 # 흐린존 이멩시리도 잇고.(차조는 ‘이멩시리’도 잇고.)

103028 @ 이멩시리.(‘이멩시리’.)

103028 # 쉼머리조.(‘쉼머리조’.)

103028 @ 쉼머리조, 게우리조.(‘쉼머리조, 게우리조’.)

103028 # 하하하.(하하하.)

103028 @ 게우리조 이건 흐린조고.(‘게우리조’ 이건 차조고.)

103028 # 흐린조, 흐린조.(차조, 차조.)

103028 @ 모원조는?(메조는?)

103028 # 모원조 강돌와리.(메조는 ‘강돌와리’.)

103028 @ 강돌와리.(‘강돌와리’.)

103028 # 육깃모원조.(육지 메조.)

103028 @ 육깃모원조.(육지 메조.)

103028 # 그 육깃모원조 들어오난이 조가 막 좋아났저. 육지서 개발허연.(그 육지 메조 들어오니까 조가 아주 좋았었어. 육지서 개발해서.)

103028 @ 궤발시린 뭐라?(‘궤발시리’는 뭐야?)

103028 # 궤발시리도 거 흐린줄 거여.(‘궤발시리’도 그거 차조일 거야.)

103028 @ 아, 흐린조.(아, 차조.)

103028 # 응. 궤발시리. 게난 으라 가지 쓰지 마. 궤발시리허곡 저 이멩시리 그거가 이제 쓰민 좋켜.(응. ‘궤발시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쓰지 마. ‘궤발시리’하고 저 ‘이멩시리’ 그것이 이제 쓰면 좋겠어.)

103028 @ 응.(응.)

103028 # 흐린조.(차조.)

103028 @ 아, 그게 흐린조.(아, 그게 차조.)

103028 # 우리가 곱아난 말.(우리가 말했던 말.)

103023 @ 조 고고리 탈 땐 무신 걸로 타? 손으로 해 아니면?(조 이삭 딸 땐 무엇으로 따? 손으로 해 아니면?)

103023 # 호미.(낫.)

103023 @ 호미로.(낫으로.)

103023 # 영 ㄱ짱ㄱ짱 헤영 탁 그창 농곡.(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딱 잘라서 놓고.)

103023 @ 어떻 어떻? 다시 해봐.(어떻게 어떻게? 다시 해 봐.)

103023 # 이것이 조낭차 신 거 아니가?(이것이 조대째 있는 거 아니냐?)

103023 @ 예.(예.)

103023 # 경허민 이제 영 ㄱ짱ㄱ짱 허영 호미로 영 ㄱ차놔.(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낫으로 이렇게 잘라 놔.)

103023 @ 아 영. 다 비어 낱?(아 이렇게. 다 베어 놓고?)

103023 # 응. 비어 낱.(응. 베어 놓고.)

103023 @ 비어 낱 고고리만 영영 잘라 놓는 거구나예?(베어 놓고 이삭만 이렇게 이렇게 잘라 놓는 거군요?)

103023 # 응, 잘라 놔. 호미로 잘라 놔.(응, 잘라 놔. 호미로 잘라 놔.)

103027 @ 조는 조짱은 뭐 어떻 안 써?(조는 조짱은 뭐 어떻게 안 써?)

103027 # 조짱은 무사 아이 써게? 쉼 맥엇주게.(조짱은 왜 안 쓰니? 소 먹었지.)

103027 @ 쉼 맥이고.(소 먹이고.)

103027 # 소덜 맥여.(소들 먹여.)

103027 @ 응.(응.)

103027 # 조칩 흔 늘, 이제 또로 그냥 비어당 흔 늘. 소 질룰 땐 우리도 이디

막 놀 크게 놀언.(조짚 한 가리, 이제 또 그냥 베어다가 한 가리. 소 기를 땀 우리도 여기 막 가리 크게 가렸어.)

103027 @ 응.(응.)

103027 # 막 놉덜 빌어근에. 팔월 나민 또 출 비어. 물리와근에 헤 뒤서 저을에 소 먹일 거난.(막 놉들 빌려서. 팔월 나면 또 꼴 베어. 말려서 헤 뒤서 겨울에 소 먹일 거니까.)

103027 @ 응.(응.)

103027 # 우리 이 집 개발헨 지섯주마는 옛날 밧거리 신 때도 소 흔 땀 개씩 메어난.(우리 이 집 개발해서 지었지마는 옛날 바깥채 있을 때도 소 한 땀 마리씩 매었었어.)

103027 @ 응.(응.)

103027 # 겿당 듯사가민 드르에 목장에 올려 가, 저을에 메엇당. 개단 이제 소도 설르고 다 설러불엇어.(그랬다가 따듯해져 가면 들에 목장에 올려 가, 겨울에 매 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소도 그만두고 다 그만뒀어.)

103025 @ 좁쌀은 아까 보리쌀추룩 것도 물벙이에 강 허는 거?(좁쌀은 아까 보리쌀처럼 그것도 연자방아에 가서 하는 거?)

103025 # 응, 좁쌀도 조도 지어, 물벙이에.(응, 좁쌀도 조도 찢어, 연자방아에.)

103025 @ 물방에에 가근에?(연자방아에 가서?)

103025 # 응, 그 물방에 질 때는 조도 이제 물벙이에 전 먹언.(응, 그 연자방아 찢을 때는 조도 이제 연자방아에 찢어서 먹었어.)

103025 @ 응.(응.)

103025 # 경허단 정미소 나난에 조도 정미소에서 짓고.(그러다가 정미소 나니까 조도 정미소에서 찢고.)

103025 @ 물벙이에만 헤도 웨어, ㄱ레에 안 갈아도 웨어, 좁쌀은?(연자방아에만 헤도 돼, 맷돌에 안 갈아도 돼, 좁쌀은?)

103025 # 응, 좁쌀은.(응, 좁쌀은.)

103025 @ 흔 번만?(한 번만?)

103025 # 흔 번 지어근에게.(한 번 찢어서.)

103027 @ 그건 좁쌀 그건 뭐 엇수과, 껍데기영 이런 거 엇수과?(그건 좁쌀 그건 뭐 없어요. 껍데기랑 이런 거 없습니까?)

103027 # 채 무사 엇어, 조채.(겨 왜 없어, 조 겨.)

103027 @ 조채 이서?(조 겨 있어?)

103027 # 응, 것도 돼지, 돼지 맥여.(응, 그것도 돼지, 돼지 먹여.)

103027 @ 것도 돼지 맥여예. 조 갈 때는 골은 안 가는가?(그것도 돼지 먹여요. 조 갈 때는 골은 가는가?)

103027 # 아니.(아니.)

103027 @ 그건 안 나와?(그건 안 나와.)

103027 # 그냥 평지에 쓱 뿌려. 또 용서 콩 갈곡게 콩 주로 갈곡 산뒤, 모뭇, 그거.(그냥 평지에 쓱 뿌려. 또 농사 콩 같고 콩 주로 같고 밭벼, 메밀, 그거.)

콩 농사

103029 @ 콩은 어떻, 콩 허젠 허민 어떻해마씨?(콩은 어떻게, 콩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103029 # 콩은 이추축 빼영 같아야지. 이제 기계로도 씨 뿌령 같아.(콩은 이렇게 뿌려서 같아야지. 이제 기계로도 씨 뿌려서 같아.)

103029 @ 아, 씨 뿌려 그냥.(아, 씨 뿌려 그냥.)

103029 # 콩 씨 뿌려 가지고.(콩 씨 뿌려 가지고.)

103029 @ 이제 말고계, 옛날 헤난 거.(이제 말고, 옛날 했던 거.)

103029 # 게메 옛날도 씨 뿌령 같아.(그러게 옛날도 씨 뿌려서 같아.)

103029 @ 씨 먼저 뿌린 다음 같아?(씨 먼저 뿌린 다음 같아?)

103029 # 응, 콩은 그렇게 해.(응, 콩은 그렇게 해.)

103030 @ 어느 철에 어느 들에?(어느 철에 어느 달에?)

103030 # 오월들.(오월.)

103030 @ 오월들에.(오월에.)

103030 # 음력 오월.(음력 오월.)

103030 @ 먼저 콩밭에 콩을 뿌려, 경행 밭을 갈아. 게믄 콩은 어떻게? 그 고망 더레 들어가는 건가?(먼저 콩밭에 콩을 뿌려, 그래서 밭을 갈아. 그러면 콩은 어떻게 해?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건가?)

103030 # 경해낫주게. 이젠 기계로도 콩쌀 뿌령 같아. 이제 기계로, 이제 다 기계로 갈암세게.(그랬었지. 이젠 기계로도 콩쌀 뿌려서 같아. 이제 기계로, 이제 다 기계로 같고 있잖아.)

103030 @ 옛날 헤난 거 말 듣젠 햄주게, 우리.(옛날 했던 거 말 들으려고 하지, 우리.)

103030 # 게메 옛날도 그렇게 허여, 콩은.(그러게 옛날도 그렇게 해, 콩은.)

103031 @ 콩밭디 걸름 험니까?(콩밭에 거름 합니까?)

103031 # 걸름 헤지민 좋주마는 어디 걸름 이서?(거름 할 수 있으면 좋지마는 어디 거름 있어?)

103031 @ 게난예. 게믄 콩밭딘 걸름 안 해?(그러니까요, 그러면 콩밭엔 거름 안 해?)

103031 # 이제는 콩 갈명도 비료 놓고 갈암주마는.(이제는 콩 갈면서도 비료 놓고 같고 있지마는.)

103031 @ 응.(응.)

103031 # 그때는 그냥 같아.(그때는 그냥 같아.)

103032 @ 응, 그냥. 갱 콩밭 장만헐 때 콩 씨 빼어근에.(응, 그냥. 그래서 콩밭

장만할 때 콩 씨 뿌려서.)

103032 # 갈아.(갈아.)

103032 @ 그냥. 갈 땐 뭘로 갑니까?(그냥. 갈 땐 뭘로 갑니까?)

103032 # 소 그땐 소개.(소 그땐 소.)

103032 @ 잠데로?(쟁기로.)

103032 # 응, 잠데로. 쟁 갈단 개발허난게 기계로 갈곡.(응, 쟁기로. 그래서 갈다가 개발하니까 기계로 갈고.)

103032 @ 기계로 갈고.(기계로 갈고.)

103032 # 경허는 거주.(그러는 거주.)

103034 @ 검질도 막 날 거 아니?(김도 막 날 거 아니?)

103034 # ㄹ따, 조팍이나 콩밭이나.(갈아, 조밭이나 콩밭이나.)

103034 @ 그믐 제완지 이런 거 막 나는구나예?(그러면 바랭이 이런거 막 나는군요.)

103034 # 응, 제완지, 쉼비늬 뭐, 또 뭐 무신.(응, 바랭이, 쇠비름 뭐, 또 뭐 무슨.)

103034 @ 뭐?(뭐?)

103034 # 그것 저 비늬이엔 현 것도 지레 큰 게 이서.(그것 저 비름이라고 한 것도 키가 큰 게 있어.)

103034 @ 아.(아.)

103034 # 그것도 있고 많아. 이제도 검질은 마찬가지로. 옛날이나 이제나. 이제 약을 뿌려도 검질이 많이 나.(그것도 있고 많아. 이제도 김은 마찬가지로. 옛날이나 이제나. 이제 약을 뿌려도 김이 많이 나.)

103033 @ 콩밭디도 그믐 두 불, 세 불 검질메야 돼마씨?(콩밭에도 그러면 두 불, 세 불 김매야 돼요?)

103033 # 응, 매어사 돼어. 약도 뿌려 검질 못 나게.(응, 매야 돼. 약도 뿌려 김 못 나게.)

103033 @ 검질멜 때는 무사 수눌어 가명 ㄹ치 동네사람덜 ㄹ치 강 맵니까?(김멜 때는 왜 품앗이해 가면서 같이 동네사람들 같이 가서 맵니까?)

103033 # 응, 경허주게, 우리가 오늘 메민 낼은 다른 밭 강 메고, 수눌영. 경행 재미있게게.(응, 그러지, 우리가 오늘 매면 내일은 다른 밭 가서 매고, 품앗이해서.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103033 @ 게믐 옛날에는 장갑도 엇곡 어떻행 해수과?(그러면 옛날에는 장갑도 없고 어떻게 해서 했었습니까?)

103033 # 그냥 헛주게, 그냥.(그냥 했지, 그냥.)

103033 @ 맨손으로예?(맨손으로요?)

103033 # 응.(응.)

103033 @ 발은? 신발은?(발은? 신발은?)

103033 # 신발이 어디 시니게? 양말이 어디 시멍, 이제 양말 제왕.(신발이 어디 있니? 양말은 어디 있으며, 이제 양말 겨워서.)

103033 @ 맨발로?(맨발로?)

103033 # 장갑이 어디 셔?(장갑이 어디 있니?)

103033 @ 게른 신발 영 벗어뒤근에.(그러면 신발 이렇게 벗어두고.)

103033 # 응, 벗어똥. 초신, 우리 두린 때 초신 신으민 그거 검질 하루 땀다간 다 끈어져 불영 신영 오지 못해.(응, 벗어두고. 짚신, 우리 어린 때 짚신 신으면 그거 김 하루 땀다가는 다 끊어져 버려서 신어서 오지 못해.)

103033 @ 아, 게난 벗어똥예, 맨발로예.(아, 그러니까 벗어두고요, 맨발로요.)

103033 # 응, 벗워똥 갈 때 올 때만 신어.(응, 벗어두고 갈 때 올 때만 신어.)

103033 @ 게른 다 ㄴ치 영 일렬로 쫄쫄런이 영 앓아근에 검질매기 시작허여?(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이렇게 앓아서 김매기 시작해?)

103033 # 응.(응.)

103033 @ 게른 잘허는 사름도 있고 못허는 사름도 있지 안허여?(그러면 잘하는 사름도 있고 못하는 사름도 있지 않아?)

103033 # 경허, 그렇주게. 잘허는 사름은 잘 메고 못 메는 사름은 못 메도 다 ㄴ찌 허주게게.(그러, 그렇지. 잘하는 사름은 잘 매고 못 매는 사름은 못 매도 다 같이 하지.)

103033 @ 응.(응.)

103033 # 어떻 못 메는 사름 툄라 불어? 못 메도 수늘영 가곡 잘 메어도 수늘영 가고 경헛주.(어떻게 못 매는 사름 따돌려 버려? 못 매도 품앗이하면서 가고 잘 매어도 품앗이하면서 가고 그렇게 했지.)

103033 @ 옷은 무신거 입어근에 검질메어?(옷은 무엇 입어서 김매?)

103033 # 그때는이 주로 갈중의.(그때는 주로 '갈중의'.)

103033 @ 응.(응.)

103033 # 감 디여 가지고 흰 천에 감들여 가지고.(감 들여 가지고 흰 천에 감물 들여 가지고.)

103033 @ 응.(응.)

103033 # 이 요새엔 뭐 감을, 감옷을 벨 길로 허주마는 제주인털은 그 감옷이 아니민 비누도 엇곡 다른 옷 입영 강은 빨 수가 엇어, 잘. 게니까 갈물 들여 가지고 그 옷을 입은 거라.(이 요새엔 뭐 감을, 감옷을 벨 길로 하지마는 제주인들은 그 감옷이 아니면 비누도 없고 다른 옷 입고 가서는 빨 수 없어, 잘. 그러니까 감물 들여 가지고 그 옷을 입은 거야.)

103033 @ 이젠 방식도 이런 거 이신디 옛날은 그런 것도 엇일 거 아니?(이젠 방식도 이런 거 있는데 옛날은 그런 것도 없을 거 아니?)

103033 # 엇어.(없어.)

103033 @ 게른 어떻 헤?(그러면 어떻게 해.)

103033 # 그냥 헛주게.(그냥 했지.)

103033 @ 그냥 땅바닥에 조침 맞아?(그냥 땅바닥에 ‘조침’맞아?)

103033 # 응, 조침 맞인 사름도 싣고 그냥 뭇썩이 맞인 사름도 싣고, 경허주 뉘. 방석도 이제도 콩밭딘 못 매어.(응, ‘조침’ 맞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뭇썩이’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뉘. 방석도 이제도 콩밭엔 못 매어.)

103033 @ 아.(아.)

103033 # 콩 꺼꺼정.(콩 꺾어져서.)

103033 @ 콩 꺼꺼져 부난.(콩 꺾어져 버리니까.)

103033 # 이제 당근 파레덜이나 그런 작업허는디 방석도 필요허주.(이제 당근 파러들이나 그런 작업하는데 방석도 필요하지.)

103033 @ 계민 무신 걸로 굴갱이로?(그러면 무슨 걸로 호미로?)

103033 # 굴갱이로게. 굴갱이, 호미 주로 싣고.(호미로. 호미, 낫 주로 싣고.)

103033 @ 호미도?(낫도?)

103033 # 호미 어샤게?(낫 없니?)

103033 @ 검질매는 디 호미 싣?(검매는 데 낫 싣?)

103033 # 아니 굴갱이. 육지 사름은 낫이엔 헤.(아니 호미. 육지 사름은 낫이라고 헤.)

103033 @ 우리 제주도 옛날에 할머니네 헤난 건 굴갱이로 그냥예.(우리 제주도 옛날에 할머니네 했던 건 호미로 그냥요.)

103033 # 굴갱이, 호미 그거라.(호미, 낫 그거야.)

103035 @ 콩은 어떻 꺼릅니까?(콩은 어떻게 꺾습니까?)

103035 # 콩도 굴갱이로도 거끄고 호미로도 거꺼.(콩도 호미로도 꺾고 낫으로도 꺾어.)

103035 @ 아.(아.)

103035 # 똑똑허게 거깁은앵이 이제 것도 이제 옛날은 도께로 주로 태작헌디 이젠 기계 나난.(똑똑하게 꺾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옛날은 도리깨로 주로 타작했는데 이젠 기계 나오니까.)

103035 @ 옛날에 태작할 땐 어떻 헤낫수과?(옛날에 타작할 땐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035 # 도께로, 도께로.(도리깨로, 도리깨로.)

103035 @ 도께로.(도리깨로.)

103035 # 마당에 앓당.(마당에 가져다가.)

103035 @ 것도 마당에 앓아당.(그것도 마당에 가져다가.)

103035 # 응, 가져당.(응, 가져다가.)

103035 @ 것도 등짐 지영 왕?(그것도 등짐 지어 와서?)

103035 # 쉼로도 시꺼오고, 등짐 저당 허영 것도 콩도 콩국도 끌령 먹고, 죽도 쭈영 먹고. 제주 사름덜 많이 헛주.(소로도 실어오고, 등짐 저다가 해서 그것도 콩

도 콩국도 끓여서 먹고, 죽도 쑤어서 먹고. 제주 사람들 많이 했지.)

103036 @ 콩늬물도 행은에?(콩나물도 해서?)

103036 # 제스 때마다 콩늬물 딱 놓곡.(제사 때마다 콩나물 딱 놓고.)

103036 @ 콩늬물은 어떻 행 키웁니까?(콩나물은 어떻게 해서 키웁니까?)

103036 # 어떻 행 키와? 이 여름에는 바깥에 낵 물만 영 주면은.(어떻게 해서 키워? 이 여름에는 바깥에 낵서 물만 이렇게 주면은.)

103036 @ 무신거에?(무엇에?)

103036 # 그냥 저 오가리에 놓곡.(그냥 저 항아리에 놓고.)

103036 @ 응.(응.)

103036 # 오가리에 낵근에 이제 다라에 비왕 시쳐근에 또 오가리에 낵두민 막 커이.(항아리에 낵서 이제 대야에 비워서 씻어서 또 항아리에 낵두면 막 커.)

103036 @ 응.(응.)

103036 # 계민 또로 물만 주명도 잘 크고 현디 저을엔 열영 잘 아이 크민이 이 디 방에도 앓다당 오가리 들러다근에 이디 낵근앵이 곧 천으로 더꺼 가지고 영 이 불 두꺼운 걸로 더핑 키우곡, 경행 제스헛주. 이제 그자 주로 사.(그러면 또 물만 주면서도 잘 크고 하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잘 안 크면 여기 방에도 가져다가 항아 리 들어다가 여기 놓고 고운 천으로 덮어 가지고 이렇게 이불 두꺼운 것으로 덮어 서 키우고, 그래서 제사했지. 이제는 그냥 주로 사.)

103036 @ 콩으로는 웬장도 할 거 아니?(콩으로는 된장도 할 거 아니?)

103036 # 웬장게 주로 허주게.(된장 주로 하지.)

103036 @ 장은 어떻 담급니까?(장은 어떻게 담급니까?)

103036 # 어떻 등가? 먼저 안 곶아서? 메주, 콩 삶아 가지고.(어떻게 답아? 먼저 안 말했니? 메주, 콩 삶아 가지고.)

103036 @ 예.(예.)

103036 # 띄와 가지고.(띄워 가지고.)

103036 @ 예.(예.)

103036 # 이제 콩 삶양 이렇게 멘들아 가지고.(이제 콩 삶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03036 @ 예.(예.)

103036 # 낵두민 이제 그것이 이제 곱팡이 피영 막 그것이 뜨는 거라고 행이.(낵두면 이제 그것이 이제 곱팡이 피어서 막 그것이 뜨는 거라고 해서.)

103036 @ 예.(예.)

103036 # 경행 이제 물리와. 물리왕 깨끗이 시쳐근앵이. 아, 올리도 나 장 돕 안.(그래서 이제 말려서. 말려서 깨끗이 씻어서. 아, 올해도 나 장 담았어.)

103036 @ 응.(응.)

103036 # 우린 일생 살명 이때도록 장 돕아.(우리는 일생 살면서 이때까지 장 담가.)

103036 @ 응.(응.)

103036 # 이녁 먹을 거.(자기 먹을 거.)

103036 @ 응.(응.)

103036 # 전인 콩을 그냥 닳 말씩 삶아 가지고 물을 큰 항에다가 으답 허벅
씩 담아난디 이젠 흐뭇베끼 아니허여. 혼 혼 말, 두 말. 쟁해도 시에서 장덜 앓당
먹어, 아이덜.(전에는 콩을 그냥 닳 말씩 삶아 가지고 물을 큰 항에다가 여덱 허벅
씩 담갔었는데 이젠 조금밖에 안 해. 한 한 말, 두 말. 그래도 제주시에서 장들 가
쳐다가 먹어, 아이들.)

103036 @ 아이덜? 콩 삶아근에.(아이들? 콩 삶아서.)

103036 # 콩 삶양게 메주 멘들양.(콩 삶아서 메주 만들어서.)

103036 @ 메주 멘들양, 메주 퇴왕 그다음에?(메주 만들어서, 메주 띄워서 그다
음에?)

103036 # 그다음에 이제 깨끗이 시쳐 가지고 물리와근에.(그다음에 이제 깨끗이
씻어 가지고 말려서.)

103036 @ 무신 걸로 시쳐, 옛날에?(무엇으로 씻어, 옛날에?)

103036 # 물로개.(물로.)

103036 @ 물로 해근에 수세미?(물로 해서 수세미?)

103036 # 수세미로 막 밀어.(수세미로 막 밀어.)

103036 @ 옛날엔 수세미 엇어나실 거 아니?(옛날에는 수세미 없었을 거 아니?)

103036 # 엇영게, 그때 손으로 시쳐도 장만 맛있주. 장국은 매일 먹으니까.(없어
서, 그때 손으로 씻어도 장만 맛있지. 된장국은 매일 먹으니까.)

103036 @ 예. 시쳐근에 그다음에.(예. 씻어서 그다음에.)

103036 # 우리가 찌개도 잘 안 먹고, 장국을 주로 먹어.(우리는 찌개도 잘 안 먹
고, 장국을 주로 먹어.)

103036 @ 시쳐 계민 항에 담아?(씻어서 그러면 항아리에 담아?)

103036 # 응, 소금이.(응, 소금.)

103036 @ 예, 얼마나 봐야 됩니까?(예, 얼마나 봐야 됩니까?)

103036 # 물 혼 허벅에다가 관뎀로 세 개.(물 한 동이에다가 되로 세 개.)

103036 @ 소금을 관뎀로 세 개.(소금을 되로 세 개.)

103036 # 그렇게 허민 정확허여.(그렇게 하면 정확해.)

103036 @ 물 혼 허벅에 관뎀로 소금 세 개.(물 한 동이에 되로 소금 세 개.)

103036 # 계니까 이젠 허벅도 엇어부니까이 바가쓰로 두 개민 혼 허벅이라. 바
가쓰로 두 개.(그러니까 이제는 동이도 없으니까 양동이로 두 개면 한 동이야. 양동
이로 두 개.)

103036 @ 아.(아.)

103036 #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두 바가쓰에 이제 관뎀로 세 개.(그렇게 해 가
지고 이제 두 양동이에 이제 되로 세 개.)

103036 @ 메주 낱 그냥 소금물을 담아?(메주 놓고 그냥 소금물에 담가?)

103036 # 소금물 영 녹여 가지고 항아리에 낱 그것이 소금도 요샌 고난 경 안 해도 돼주마는이 옛날은 거 흔 삼일 골라앗정 곱닥허면 그 아쟁인 데껴불고.(소금물 이렇게 녹여 가지고 항아리에 놓고 그것이 소금도 요새는 고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옛날은 그거 한 삼일 가라앉혀서 고우면 그 앙금은 던져버리고.)

103036 @ 응.(응.)

103036 # 걸 낱 현디 요샌 소금 고난 하루에 해도 돼여. 막 고와.(그걸 놓고 하는데 요새는 소금 고우니까 하루에 해도 돼. 아주 고와.)

103036 @ 갱 그거 저.(그래서 그거 저.)

103036 # 아쟁인 데껴불고.(앙금은 던져버리고.)

103036 @ 아쟁인 데껴 불고, 메주영 그 소금물이영 ㄱ찌 놔.(앙금은 던져 버리고, 메주랑 그 소금물이랑 같이 놔.)

103036 # 티갈 엇이게 행 깨끗하게 행. 갱 천으로 탁하게 싸면은 프리도 안 들어가고.(띠끌 없이 해서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천으로 탁하게 싸면 과리도 안 들어가고.)

103036 @ 아.(아.)

103036 # 갱 잘 간수해야돼, 장은.(그래서 잘 간수해야 돼, 장은.)

103036 @ 잘 간수해야 돼예. 비라도 맞아볼민 안 될 거 아니?(잘 간수해야 돼. 비라도 맞아버리면 안 될 거 아니?)

103036 # 안 돼여. 우리 매날 아침 장 올고.(안 돼. 우리 맨날 아침 가서 열고.)

103036 @ 응.(응.)

103036 # 더끄곡 험서. 하르방³⁸⁾이영 나영, 하르방. 어디 갈 때민 비왓직 허민 장 더곱서 영 허민 더끄곡.(덜고 하고 있어. 할아버지랑 나랑, 할아버지. 어디 갈 때면 비올 것 같으면 장 덮으세요 이렇게 하면 덜고.)

103036 @ 언제쯤에 메주는 허는 거와?(언제쯤에 메주는 하는 것입니까?)

103036 # 메주는이 십일월들에.(메주는 십일월에.)

103036 @ 십일월들에.(십일월에.)

103036 # 십일월들에 이 저 삶아근앵이 십이월 이제 돼면은 그 장을 커야 돼여.(십일월에 이 저 삶아서 십이월 이제 되면은 그 장을 잠가야 돼.)

103036 @ 응. 게문 다 언제쯤 돼민 다 웬 거라?(응. 그러면 다 언제쯤 되면 다 된 거야?)

103036 # 삼 개월.(삼 개월)

103036 @ 삼 개월.(삼 개월)

103036 # 나 이제 십일월, 십이월들에 허니까 이제 정월, 이월, 삼월 나면 그거 이제 메주허고 장물허고 따로 놔둬야 좋아.(나 이제 십일월, 십이월에 하니까 이제 정월, 이월, 삼월 나면 그거 이제 메주하고 간장하고 따로 놔둬야 좋아.)

38) 여기서 '하르방'은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103036 @ 응.(응.)

103036 # 메주는 건져 가지고 이제 딱 또 손으로 장갑 찌렁 꺾어근영에 비니루 장갑 어샤게, 요새?(메주는 건져 가지고 이제 딱 손으로 장갑 꺾서 이겨서 비닐 장갑 없니, 요새?)

103036 @ 예.(예.)

103036 # 그걸로 뽕뽕 누르땡 오가리에 이제 딱로 담고.(그걸로 뽕뽕 눌러서 항아리에 이제 따로 담고.)

103036 @ 응.(응.)

103036 # 담양 소금 더경.(담양 소금 덜어서.)

103036 @ 우에 소금 더꺼?(위에 소금 덜어.)

103036 # 응, 탁허게시리 미시거 범접 못허게게. 프리도.(응, 탁하게 무엇 범접 못하게. 파리도.)

103036 @ 응.(응.)

103036 # 게고 장물은 또로 거렁 낫당 장물 딱로 먹고.(그리고 간장은 또 떠 놓았다가 간장 따로 먹고.)

103036 @ 응. 그민 웬장허고 장물 뒤는 거라예?(응. 그러면 된장하고 간장 되는 거지요?)

103036 # 응, 경허여.(응, 그렇게 해서.)

103036 @ 쟁 그다음엔 항 열어주고 안 허여도 뒤여, 그냥 내붙어도 뒤어?(그렇게 해서 그 다음엔 항아리 열어주고 안 해도 돼, 그냥 내버려도 돼?)

103036 # 것도이 혼 뱃 나근에 머헌 땡 흐뽀 올아도 뒤고.(그것도 한 별 나서 뒤한 때 조금 열어도 되고.)

103036 @ 응.(응.)

103036 # 그렇지, 안 올아도 어떻 안 해.(그렇지, 안 열어도 어떻게 안 해.)

103036 @ 안 열아도 어떻 안 해.(안 열어도 어떻게 안 해.)

103036 # 근 맞이민 어떻 안허여.(간 맞으면 어떻게 안 해.)

103036 @ 이젠 경해도 옛날에는 할무니 얼마니씩 담아낫수과?(이젠 그래도 옛날에는 할머니 열만큼씩 담았었습니까?)

103036 # 옛날?(옛날?)

103036 @ 응, 하영 담아낫주예?(응, 많이 담았었지요?)

103036 # 우리 하영 담아난. 항덜 이서, 큰 항덜.(우리 많이 담았었어. 항아리들 있어, 큰 항아리들.)

103036 @ 큰 항으로 땡 개나 담아낫수과?(큰 항아리로 땡 개나 담았었습니까?)

103036 # 흐나게, 담으민 뒤주. 식구 뒤 이녁 가정 먹을 거난.(하나, 담으면 되지. 식구 뒤 자기 가정 먹을 거니까.)

103036 @ 응. 게민 그긴 쿡은 얼마나 들어가? 메주 얼마나?(응. 그러면 거기는 쿡은 얼마나 들어가? 메주 얼마나?)

103036 # 메주가 그때는 콩 닳 말기장 솥아났저, 우리 식구 하난.(메주가 그때는 콩 닳 말까지 삶았었어, 우리 식구 많으니까.)

103036 @ 아. 계민 콩 닳말 메주헌 게 그 항 하나에 다 들어가?(아. 그러면 콩 닳말 메주헌 게 그 항아리 하나에 다 들어가?)

103036 # 응, 물 으넝 허벅.(응, 물 여넝 동이.)

103036 @ 물 으넝 허벅? 항이 얼마나 큰 거짜?(물 여넝 허벅? 항아리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103036 # 으넝 허벅 드는 거 이서. 뒤티에 보라, 어퍼졌저, 큰 항. 것도 제주도 붉은 항은 안 돼여이.(여넝 허벅 들어가는 거 있어. 뒷뜰에 보라, 얹어졌지, 큰 항. 그것도 제주도 붉은 항은 안 돼.)

103036 @ 아.(아.)

103036 # 육깃항 검은 항. 물이 절대 숨지도 안 허곡 좋아. 이제 나 조그만씩 헌 거 장물 거리는 것도 육깃항덜.(육지 항아리 검은 항아리. 물이 절대 스며들지 않고 좋아. 이제 나 조그마한 거 간장 뜨는 것도 육지 항아리들.)

103036 @ 아.(아.)

103036 # 그 항이 옛날은 이 제주도 그건 궤양항이엔 혜영이.(그 항이 옛날은 이 제주도 그건 '궤양항'이라고 해서.)

103036 @ 무신 항?(무슨 항?)

103036 # 궤양항. 빨간 거.(궤양항'. 빨간 거.)

103036 @ 궤양항.(궤양항'.)

103036 # 응, 제주도에서 군 건 물이 숨어.(응, 제주도에서 구운 것은 물이 스며.)

103036 @ 응.(응.)

103036 # 경해서 장 못 담아.(그래서 장 못 담아.)

103036 @ 혹시 장 담글 때 무신거 허민 안 웬다 영허는 거 이수과?(혹시 장 담을 때 무엇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103036 # 무시거, 이제 이 상가에 ㄱ튼 디 가오민 아니 돼.(무엇, 이제 이 상가에 같은 데 갔다오면 안 돼.)

103036 @ 아, 가오민 장이.(아, 갔다오면 장이.)

103036 # 옛날 우리도 들은 말이주게. 지내어 봐시냐?(옛날 우리도 들은 말이지. 지내 봤니?)

103036 @ 예, 계난. 경허민 장이 잘 안 웬텐 허여?(예, 계난. 그러면 장이 잘 안 된다고 해?)

103036 # 경혜근앵이 메주 솥을 때도 그런 디는 흐뎡 안 강 헤여.(그렇게 해서 메주 삶을 때도 그런 데는 조금 안 가서 해.)

103036 @ 아. 뭐 무신 날 솥으는 날이 무신 날, 무신 날 이서?(아. 뭐 무슨 날 삶는 날이 무슨 날, 무슨 날 있어?)

103036 # 아 그건이 옛날 법이 이녁 집이 저 무신 헤치 엇인 날 숯넌 허여.(아 그것은 옛날 법이 자기 집에 저 무슨 띠 없는 날 삶는다고 해.)

103036 @ 아, 헤치 엇인 날.(아, 띠 없는 날.)

103036 # 응, 경허는 거고. 옛날 법으로 것도. 우리 옛날 헤난 거 곧는 거난.(응, 그러는 거고. 옛날 법으로 그것도. 우리 옛날 했던 거 말하는 거니까.)

103036 @ 예, 예.(예, 예)

103036 # 경 헤난. 이제도 그거.(그렇게 했었어. 이제도 그거.)

103036 @ 거난 두부도 콩으로 만들지예?(그러니까 두부도 콩으로 만들지요?)

103036 # 콩으로 두부사게.(콩으로 두부야.)

103036 @ 두분 어떻게 멘드는 거파?(두부는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103036 # 두부 옛날은 이제 콩을 이제 갈아다근앵이 그 주멩기로 짜근앵이.(두부 옛날은 이제 콩을 이제 갈아다가 그 주머니로 짜서.)

103036 @ 응.(응.)

103036 # ㄹ루 갈아당 허고. 옛날 막 옛날은 물 컷당 콩을 이제 ㄹ레에 갈아.(가루 갈아다가 하고. 옛날 막 옛날은 물 담갔다가 콩을 이제 멧돌에 갈아.)

103036 @ ㄹ레에 갈아. 예.(멧돌에 갈아.)

103036 # 큰 도고리가 이서, 옛날 냥으로 멘든 거. 그디 ㄹ레 드리앗져 가지고 이제 갈아근에. 또 주멩기로 짜근에 이제 솟디 놉근앵이 숯으민 두부 되는 거.(큰 함지박이 있어, 옛날 나무로 만든 거. 거기 멧돌 들어앉아 가지고 이제 갈아서. 또 주머니로 짜서 이제 솟에 놉서 삶으면 두부 되는 거.)

103036 @ 물은 소금물로 허는 거? 바닷물 떠당도 헤낫덴 헨 게마는.(물은 소금물로 하는 거? 바닷물로 떠다가도 했었다고 하던데마는.)

103036 # 바닷물 떠당 헤여.(바닷물 떠다가 해.)

103036 @ 아, 바닷물 떠당 헤여. 그거 무신 물이엔 갈아?(아, 바닷물 떠다가 해. 그거 무슨 물이라고 말해?)

103036 # ㄹ물.(간물.)

103036 @ ㄹ물. 응, ㄹ물 떠다근에.(간물. 응, 간물 떠다가.)

103036 # 견디 바당에 이렇게 보니까 그 ㄹ되는 막 지저분헌 거 많이 테끼지 안허느냐?(그런데 바다에 이렇게 보니까 그 바닷가는 아주 지저분한 거 많이 던지지 않느냐?)

103036 @ 예.(예.)

103036 # 게니까 나가 헐 맨 저 소금물 곶양 드쁜 곶라앗양 장 됴을 때 ㄹ치.(그러니까 내가 할 맨 저 소금물 갈아서 충분히 가라앗혀서 장 됴을 때 같이.)

103036 @ 응.(응.)

103036 # 그렇게 해서 메주, 저 두부 삶아 가당 솟드레 영 노면은 두부가 트랑 트랑허민 이제 두부 거렁 포에 쌍.(그렇게 해서 메주. 저 두부 삶아 가다가 솟에 이렇게 놓으면은 두부가 딱딱하면 이제 두부 떠서 보자기에 짜서.)

103036 @ 예.(예)
 103036 # 안반더레 놔근에 걸 이제 지들봐.(안반에 놔서 그걸 이제 지질러.)
 103036 @ 아, 안반으로 지들봐?(아, 안반으로 지질러.)
 103036 # 안반에 놔 가지고.(안반에 놔 가지고.)
 103036 @ 안반에 놔 가지고 무신걸로 지들봐?(안반에 놔 가지고 무엇으로 지질러.)
 103036 # 아무 거라도 그디.(아무 거라도 거기.)
 103036 @ 그레착?(멧돌착?)
 103036 # 응, 것도 있고 또 이젠이 물 혼 허벅 그 저 수바이깁에 거 질어 놓민 웨여. 무거운 거 낱 지들봐. 그레도 엇어도 웨여, 이제. 옛날은 그레 헛주마는.(응, 그것도 있고 또 이제는 물 한 동이 그 저 양동이에 그거 질어 놓으면 돼. 무거운 거 놓고 지질러. 멧돌도 없어도 돼, 이제. 옛날은 멧돌 했지마는.)
 103036 @ 옛날은 그레 헤낫수과?(옛날은 멧돌 했었습니까?)
 103036 # 응, 그레 지들황. 경허민 물 빠지민 영 케민 그 두부가 맛있어. 막 맛 좋아.(응, 멧돌 지질러. 그러면 물 빠지면 이렇게 괴면 그 두부가 맛있어. 아주 맛있어.)
 103036 @ 이제 두분 다 가짜라?(이제 두부는 다 가짜야?)
 103036 # 가짜. 먹구정 안해.(가짜. 먹고 싶지 않아.)
 103036 @ 먹구정 안해여.(먹고 싶지 않아.)
 103036 # 좋은 거엔 상 봐도 그런 맛이 엇고.(좋은 거라고 사서 봐도 그런 맛이 엇고.)
 103036 @ 응.(응.)
 103036 # 맛엇어.(맛없어.)
 103036 @ 옛날 두부가예?(옛날 두부가요?)
 103036 # 우리 정월멧질 그뎌 땀 두부 허주게.(우리 정월멧질 같은 땀 두부 하지.)
 103036 @ 이제도?(이제도?)
 103036 # 이제사 안햐주게.(이제야 안하고 있지.)
 103036 @ 옛날에 헤난예?(옛날에 했던 거요?)
 103036 # 이제도 허민 잘허주마는 안 허여.(이제도 하면 잘하지마는 안 해.)
 103036 @ 잘헐 거 님아.(잘할 거 같아.)
 103036 # 아니 잘헤난. 묵도 그루, 모물그루 헝 청묵도 짱 썬민 맛종고.(아니 잘했었어. 묵도 가루, 메밀가루 해서 청묵도 짜서 썬면 맛있고.)
 103036 @ 청묵은 어떻허여? 청묵.(청묵은 어떻게 해? 청묵.)
 103036 # 모물쌀에 주멧이로 짜 가지고 이제 썬어.(메밀쌀에 주머니로 짜 가지고 이제 썬어.)
 103036 @ 응.(응.)

103036 # ㄹ루로 곶앙도 쭈고.(가루로 갈아서도 쭈고.)

103036 @ 주맹기로 짜는 건 어떻게 허여?(주머니로 짜는 건 어떻게 해서 해?)

103036 # 저 모밀썰 물에 컷당.(저 메밀쌀 물에 담갔다가.)

103036 @ 예.(예.)

103036 # 그걸 이제 놀려 가지고 짜 가지고 솟되서 쭈면은 목 돼주게.(그걸 이제 움직여 가지고 짜 가지고 솟에서 쭈면 목 되지.)

103036 @ 응.(응.)

103036 # 목 돼여.(목 돼.)

103036 @ 계속 젓어야 돼던데?(계속 저어야 되던데?)

103036 # 응, 젓어.(응, 저어.)

103036 @ 그냥 내불민 놀어 가지고.(그냥 내버리면 놀어 가지고.)

103036 # 놀영 아이 돼여. 것도 또 목 아이 누는 솟이 이서. 이 아레미 솟엔 지금 목 놀어, 잘. 지금 솟에는.(놀어서 안 돼. 그것도 또 목 안 놓는 솟이 있어. 이 알루미눔 솟엔 지금 목 놀어, 잘. 지금 솟에는.)

103036 @ 게민 어떤 솟으로 해야 돼여?(그러면 어떤 솟으로 해야 돼?)

103036 # 우리 저디 목 쓰는 솟 잇저.(우리 저기 목 쓰는 솟 있어.)

103036 @ 뭐?(뭐?)

103036 # 빙철이라도이 큰 거. 빙철 닳은 거.(빙철이라도 큰 거. 빙철 같은 거.)

103036 @ 빙철 닳은 거?(빙철 같은 거?)

103036 # 응, 튀김도 허꼭 허는 것에 쭈민 좋아.(응, 튀김도 하고 하는 것에 쭈면 좋아.)

103036 @ 아.(아.)

103036 # 놀지 안헤 가지고. 이제 그런 거 사젠 허민 천지.(놀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런 거 사려고 하면 천지.)

103036 @ 프라이팬 같은 거, 튀김 프라이팬 같은 거.(프라이팬 같은 거, 튀김 프라이팬 같은 거.)

103036 # 응. 것에 허민이 목도 놀지 안허고 잘 쭈져. 이제도 쭈젠 허민. 경허는 디 늑어부난 날ㄹ라 목도 허지 맙서, 두부 사당 허쿠다, 경행.(응. 그것에 하면 목도 놀지 앓고 잘 쭈어져. 이제도 쭈려고 하면. 그러는데 늑어버려서 나보고 목도 하지 마세요, 두부 사다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03036 @ 게, 어려웁니께.(그러게, 어렵잖아요.)

103036 # 게도 요번인 쭈어.(그래도 요번엔 쭈었어.)

103036 @ 못허큘디다, 난, 그거.(못하겠던데요. 난, 그거.)

103036 # 무사 못헤, 그거?(왜 못헤, 그거?)

103036 @ 버쳐, 버쳐. 이거 이거 영 허는 것도 돼게 힘들드라고.(부쳐, 부쳐.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

103036 # 게, 하영 허지 말앙 흥폼만 허민 좋주게.(그렇지, 많이 하지 말고 조금

만 하면 좋지.)

103036 @ 주맹기에 허는 게 힘들어.(주머니에 하는 게 힘들어.)

103036 # 건디 시장에 푸는 건 기계로 짬주게. 이 가정에 우리 제스 때 허는 건 이녁만 조금 허주마는 그거 다 기계로 짬 나왔주, 누게가 거 손으로 해당 푸느니?(그런데 시장에 파는 건 기계로 짜지. 이 가정에 우리 제사 때 하는 건 자기만 조금 하지마는 그거 다 기계로 짜서 나오고 있지, 누가 그거 손으로 하다가 파니?)

103036 @ 계난예. 그 손으로 행 허는 건 무신 목?(그러니까요. 그 손으로 해서 하는 건 무슨 목?)

103036 # 청목도 허고.(‘청목’도 하고.)

103036 @ 그계 청목. 그민 ㄹ루 낱 허는 건?(그계 청목. 그러면 가루 낱서 하는 건?)

103036 # ㄹ루는 그냥 목이고.(가루는 그냥 목이고.)

103036 @ 그냥 목이고.(그냥 목이고.)

103036 # 이 또 십일월들 ㄹ장은 ㄹ룰로 써도 괜찮아이.(이 또 십일월까지는 가루로 썬어도 괜찮아.)

103036 @ 아.(아.)

103036 # 것도 계절에 따라 가지고 이 여름에는 ㄹ룰 목이 좋지 안헤여, 것도 모뎀.(그것도 계절에 따라 가지고 이 여름에는 가루 목이 좋지 않아, 것도 메밀.)

103036 @ 무사 잘 쉬어 불어? 아니면.(왜 잘 쉬어 버려? 아니면.)

103036 # 응, 그 청목은 괜찮아.(응. 그 ‘청목’은 괜찮아.)

103036 @ 청목은 괜찮은데 ㄹ루목은 여름에 썬면 안 좋아예.(‘청목’은 괜찮은데 가루목은 여름에 썬면 안 좋아요.)

103036 # 아이, 좋지 안헤여. 맛이 엇어 베여.(아니, 좋지 않아. 맛이 없어 보여.)

103036 @ 맛이 엇어.(맛이 없어.)

103036 # 우리가 생각허는 거주게. 허긴 허는디.(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하긴 하는데.)

103037 @ 아까 콩 헤근에 콩 헤나민 콩짬은 어뎡?(아까 콩 해서 콩 하고 나면 콩짬은 어떻게?)

103037 # 비제기, 콩 저 콩낭?(비지, 콩 저 콩나무?)

103037 @ 예. 콩낭, 콩대.(예. 콩나무, 콩대.)

103037 # 콩대도 소 멕여.(콩대도 소 먹여.)

103037 @ 콩대도 소 멕여, 소는 무신거 좋아합니까? 조 좋아합니까, 콩대 좋아합니까?(콩대도 소 먹여, 소는 무엇 좋아합니까? 조 좋아합니까, 콩대 좋아합니까?)

103037 # 아무거라도 좋아허주, 아무거라도. 엇영 못 먹어.(아무거라도 좋아하지, 아무거라도. 없어서 못 먹어.)

103037 @ 엇영 못 먹어?(없어서 못 먹어?)

103037 # 콩짬도 잘 먹고 조칩도 잘 먹고. 또 둘 다. 이제 그런 것가 엇어부난 이, 그 드르에 가근에 출 비어근앵이게, 물리왕 놀엇당.(콩짬도 잘 먹고 조짬도 잘 먹고. 또 둘 다. 이제 그런 것이 없어 버려서, 그 들에 가서 꼴 베어다가, 말려서 가 렸다가.)

103037 @ 무사 콩은 허젠 허민 털어져불지 안허여? 고고리.(왜 콩은 하려고 하 면 떨어져 버리지 않아? 이삭.)

103037 # 꺼끌 때?(꺾을 때?)

103037 @ 꺼끌 때.(꺾을 때.)

103037 # 꺼끌 때 터러지게 허여게? 아이 털어지게 헤야주.(꺾을 때 떨어지게 해? 안 떨어지게 해야지.)

103037 @ 아이 털어지게 잘 해야 웨여.(안 떨어지게 잘 해야 돼.)

103037 # 게도 더러 털어져.(그래도 더러 떨어져.)

103037 @ 게민 요 콩 꺾데긴 무신거엔 곶아?(그러면 요 콩 꺾데기는 무엇이라 고 말해?)

103037 # 콩꼬메기.(‘콩꼬메기’.)

103037 @ 콩고메기?(‘콩고메기’?)

103037 # 응.(응.)

103037 @ 그 안에 콩 들어 잇고 요 밖에 잇는 게 콩꼬메기?(그 안에 들어 잇고 요 밖에 잇는 게 ‘콩꼬메기’?)

103037 # 응, 콩꼬질게.(응, ‘콩꼬질’.)

103037 @ 콩꼬질예?(‘콩꼬질’요?)

103037 # 콩각지.(콩각지.)

103037 @ 콩각지는 저 표준말이고, 제주도말로.(콩각지는 저 표준말이고, 제주 도말로.)

103037 # 제주도에도 콩각지엔 허여, 우리도. 콩 그 으물 영 드랑드랑헌 거 어 샤? 것가 콩각지주게.(제주도에도 콩각지라고 해, 우리도. 콩 그 으물 이렇게 달랑 달랑한 거 없니? 그것이 콩각지지.)

103037 @ 예, 게난.(예, 그러니까.)

103037 # 콩 까 먹으면 콩각지 까 먹는 거. 거ㄴ라, 제주도에서도, 표준말도 웨고.(콩 까 먹으면 콩각지 까 먹는 거. 그거보고, 제주도에서도, 표준말도 되고.)

103037 @ 콩고메기는 뭐?(콩고메기는 뭐?)

103037 # 그게 그거.(그게 그거.)

103037 @ 콩고질도 그거?(‘콩고질’도 그거?)

103037 # 응, 콩꼬질도.(응, ‘콩고질’도.)

밭벼 농사

103039 @ 산뒤는 어떻 허는 거파?(밭벼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03039 # 산뒤도 마찬가지로. 조나 마찬가지로 혜영 지영 먹단 이젠 기계에서 지영 먹고.(밭벼도 마찬가지로. 조나 마찬가지로 해서 찢어서 먹다가 이젠 기계에서 찢어서 먹고.)

103042 @ 산뒤 언제 씨 뿌립니까?(밭벼는 언제 씨 뿌립니까?)

103042 # 산뒤게 이제 스월들에 갈아.(밭벼 이제 사월에 갈아.)

103042 @ 스월들에.(사월에.)

103042 # 응.(응.)

103039 @ 산뒤 허는 밭은 흐뭇 좋은 밭이라야 되는가?(밭벼 하는 밭은 조금 좋은 밭이라야 되는가?)

103039 # 아무디라도 돼여.(아무데라도 돼.)

103039 @ 아무디라도 돼여.(아무데라도 돼.)

103039 # 조 허는 밭, 콩 가는 밭, 다 산뒤도 허고 콩도 갈곡 조도 허곡 그렇게. 겐디 밭이 좋면 밭뒤가 좋고.(조 하는 밭, 콩 가는 밭, 다 밭벼도 하고 콩도 갈고 조도 하고 그렇게. 그런데 밭이 좋으면 밭벼가 좋고.)

103039 @ 응.(응.)

103039 # 늦인 밭된 좋지 안 허주게.(낮은 밭은 좋지 않지.)

103039 @ 무신 밭?(무슨 밭?)

103039 # 밭이 낮앙 벼랑 흑이 엇은 밭은 산뒤가 좋지 안허여. 조도 거 마찬가지로, 보리도 마찬가지로.(밭이 낮아서 별로 흙이 없는 밭은 밭벼가 좋지 않아. 조도 그 거 마찬가지로, 보리도 마찬가지로.)

103039 @ 게도 안 좋은 밭에도 되는 게 잇고.(그래도 안 좋은 밭에도 되는 게 잇고.)

103039 # 응, 돼긴 다 돼는데 수확이 덜주게.(응, 되긴 다 되는데 수확이 적지.)

103039 @ 아.(아.)

103039 # 잘 안 돼면 수확이 덜어.(잘 안 되면 수확이 적어.)

103042 @ 산뒤도 그냥 막 빼여, 씨? 아니민 무신거에 서꺼근에 어떻 허여?(밭벼도 그냥 막 뿌려, 씨? 아니면 무엇에 섞어서 어떻게 해?)

103042 # 아니, 빼영 갈아.(아니, 뿌려서 갈아.)

103042 @ 그 영 이랑에 영 뿌려, 아니민 그냥 짹짹 뿌려?(그 이렇게 이랑에 이렇게 뿌려, 아니면 그냥 짹짹 뿌려?)

103042 # 짹짹 뿌렁 갈아.(짹짹 뿌려서 갈아.)

103042 @ 그냥 짹짹 뿌렁, 뿌린 다음에 갈아, 쉼로?(그냥 짹짹 뿌려서, 뿌린 다음에 갈아, 소로?)

103042 # 응, 갈아.(응, 갈아.)

103041 @ 산뒤 밭된 걸름은 어떻허여?(밭벼 밭엔 거름은 어떻게 해?)

103041 # 걸름이 셔게? 그냥 허주, 옛날은. 이젠 비료 낱 허주마는 그땐 그냥 허여.(거름이 있니? 그냥 하지, 옛날은. 이젠 비료 낱서 하지마는 그땐 그냥 해.)

103041 @ 아, 경해도 산된 햅쌀 걸름 낚사 될 거 아니?(아, 그래도 밭벼는 조금 거름 낚야 될 거 아니?)

103041 # 자연대로.(자연대로.)

103041 @ 산된 햅쌀 걸름 낚사 잘 돼지 안허여?(밭벼는 조금 거름 낚야 잘 되지 않아?)

103041 # 게메, 걸름 놓주마는 걸름이 어디 셔?(그러게. 거름 놓지만 거름이 어디 있어?)

103041 @ 쉼걸름, 돼지거름은?(쇠두엄, 돼지거름은?)

103041 # 그런 거 산뒤왓디 줄 거 어디셔? 보리나 갈주.(그런 거 밭벼밭에 줄 거 어디 있어? 보리나 갈지.)

103041 @ 아, 보리에나 놓고 다른 거엔 걸름 못 주는구나예?(아, 보리에나 놓고 다른 거엔 거름 못 주는군요?)

103041 # 응, 엇어부난게, 어디 셔? 걸름 낡 갈민 뭐 좋주 뭐.(응, 없어버리니까, 어디 있어? 거름 낚사 갈면 뭐 좋지 뭐.)

103041 @ 산뒤왓디도 검질도 메주예?(밭벼 밭에도 검도 매지요?)

103043 # 메고말고. 다 메여야주, 검질 안 멩 뭇이 돼여?(매고말고. 다 매야지, 검 안 매서 뭐가 돼?)

103043 @ 산뒤왓디 검질은 몇 번이나 메어?(밭벼밭의 검질은 몇 번이나 매?)

103043 # 것도 그거 마찬가지로. 세 불, 두 불 메민 좋고.(그것도 그거 마찬가지로. 세 불, 두 불 매면 좋고.)

103043 @ 예.(예.)

103043 # 그렇지 않으면 안 돼.(그렇지 않으면 안 돼.)

103044 @ 산뒤왓에 특별히 나는 검질이 신가?(밭벼밭에 특별히 나는 검이 있나?)

103044 # 그거 마찬가지로, 쉼비늬, 제완지.(그거 마찬가지로, 쇠비름, 바랭이.)

103044 @ 똑ㄴ타?(똑같아?)

103044 # 비늬 뭐 빈네 뭐 이름 하.(비름 뭐 아욱메풀 뭐 이름 많아.)

103044 @ 검질 중에 쉼 메기 굿인 건 뭇고?(검 중에 제일 매기 굿은 것은 뭇가?)

103044 # 메기 굿인 거게. 쉼비늬, 제완지.(매기 굿은 것. 쇠비름, 바랭이.)

103044 @ 그게 쉼 메기 굿어?(그게 제일 매기 굿어?)

103044 # 응, 메기도 굿고, 밧디 많이 나, 그게.(응, 매기도 굿고, 밭에 많이 나, 그게.)

103044 @ 많이 나는디 영 잘 안 뽑아져?(많이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뽑혀?)

103044 # 뽑아지주마는 어린 때 메지 안허민 그것이 막 너무 커. 메기 굿어.(뽑히지마는 어린 때 매지 않으면 그것이 막 너무 커. 매기 굿어.)

103044 @ 너무 커 불영. 빨리가 막 벌는 건가?(너무 커 버려서. 뿌리가 막 뻗는

건가?)

103044 # 응, 빨리가.(응, 뿌리가.)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옛날에 할머니네 소 키와났주예, 소 어떻 키웁니까?(옛날에 할머니네 소 키웠었지요, 소 어떻게 키웁니까?)

104001 # 어떻헿 키와게? 췌, 암췌 질루민 송아지 낭 풀곡 헿주게.(어떻게 해서 키워? 소, 암소 기르면 송아지 나무 팔고 헿지.)

104001 @ 예(예.)

104001 # 우리도 소 열 마리궀장 질루단에.(우리도 소 열 마리까지 기르다가.)

104001 @ 집이서?(집에서?)

104001 # 집이서 질루단, 집이서 저을은 매고 봄 이제 입춘 넘어가민 드르에 강 농곡 경허멍 질람주게, 경허멍 질와.(집에서 기르다가, 집에서 겨울은 매고 봄 이제 입춘 넘어가면 들에 가서 놓고 그렇게 하면서 기르지, 그렇게 하면서 길러.)

104001 @ 집이 놀 때 출도 헿 맥이고 해야 될 거 아니?(집에 놓을 때 꼴도 해서 먹이고 해야 될 거 아니?)

104001 # 응, 팔뿔 나민 출 허영 늘어사, 저을 맥일 거.(응, 팔뿔 나면 꼴 해서 가려야, 겨울에 먹일 거.)

104001 @ 응.(응.)

104001 # 출 빔으로 난리주게. 경헿 막 그냥 놀 스뭇, 출놀이 스뭇 영 데경 올리도 못허게 막 크게 늘어.(꼴 베는 것으로 난리지. 그렇게 해서 막 그냥 가리 사뭇, 가리 사뭇 이렇게 던져서 올리지도 못하게 막 크게 가려.)

104001 @ 응.(응.)

104001 # 크게 늘어뭇서 빠멍 맥여. 낮인 물 맥이고.(크게 가려 두고 빼면서 먹여. 낮에는 물 먹이고.)

104002 @ 소 종류는 털 색에 따라 빨 모양에 따라 다르게 부르지요?(소 종류는 털 색에 따라 빨 모양에 따라 다르게 부르지요?)

104002 # 노린췌, 검은췌 또 얼룩빼기가 이서.(노란소, 검은소 또 얼룩빼기가 있어.)

104002 @ 응.(응.)

104002 # 얼룩췌엔 허고 얼룩소. 요런 디 헿뚜룩허게 박아진 건 태성백이³⁹⁾.(얼룩소라고 하고 얼룩소. 요런 데 히뽇하게 박혀 있는 건 ‘태성백이’.)

104002 @ 빨 영 현 건 뭐라?(빨 이렇게 한 건 뭐야?)

104002 # 빨 저 초담 나올 땐 빨이 췌그만 헿당 늻어가민 췌 빨이 영 오그라져.(빨 저 처음 나올 땐 빨이 췌그만 헿다가 늻어가면 소 빨이 이렇게 오그라져.)

104002 @ 오그라진 것도 잇고 영 사는 것도 이신디 이름을 다르게 안 불러?(오그라진 것도 잇고 이렇게 서는 것도 있는데 이름 다르게 안 불러?)

39) ‘태성백이’는 이마에 흰털이 별모양으로 박힌 동물을 말한다.

104002 # 안 불러, 다르게 안 불러.(안 불러, 다르게 안 불러.)

104002 @ 어럭어럭헌 췌는?(얼룩얼룩한 소는?)

104002 # 얼룩췌.(얼룩소.)

104002 @ 얼룩췌 말고 식췌도 잇지 안해?(얼룩소 말고 칙소도 잇지 않아?)

104002 # 식췌이 스뭇 어럭도 아니고 노린 것도 아니고 노린 것에 또 흰 걸 박으멍 식췌가 이서.(칙소는 사뭇 얼룩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고 노란 것에 또 흰 걸 박으면서 칙소가 있어.)

104002 @ 응.(응.)

104002 # 노루스룽, 거무스룽헌 거. 것7라 식췌엔 허고.(노르스름, 거무스름한 거. 그것보고 칙소라고 하고.)

104002 @ 응.(응.)

104002 # 식송아지. 얼럭송아지, 태성백이, 또 노린췌, 검은췌 그거주게.(칙송아지, 얼룩송아지, ‘태성백이’, 또 노란소, 검은소 그거지.)

104002 @ 응.(응.)

104002 # 한우는 노린 거라, 한우. 한우 요새 알아주는 한우는 노린 거라.(한우는 노란 거야, 한우. 한우 요새 알아주는 한우는 노란 거야.)

104002 @ 검은 게 아니고예.(검은 게 아니고요.)

104002 # 응, 노린 거. 노린췌가 한우라.(응, 노란 거. 노란소가 한우야.)

104002 @ 응.(응.)

104002 # 거난 이젠 한우가 고기가 맛췌던 헨 그 검은췌나 얼룩소, 식췌를 다 치와두고 이제 한우만 질뺌주게, 노린췌, 지금, 지금은.(그러니까 이젠 한우가 고기가 맛췌다고 해서 그 검은소나 얼룩소, 칙소를 다 치와두고 이제 한우만 기르고 잇지. 노란소. 지금, 지금은.)

104002 @ 옛날 할머니넨 어떤 색 췌 키와수과?(옛날 할머니네는 어떤 색 소 키웠습니까?)

104002 # 그건 뭇 그냥이 잡췌 뭇 가지고 뭇 뺌 게 다 나.(그건 뭇 그냥 잡췌 뭇 가지고 뭇 뺌 게 다 나와.)

104002 @ 예.(예.)

104002 # 얼럭소도 나고 잇당 식송아지도 나고 또 부랭이도 나민 노랑게 이제 문작허게 고면은 값도 더 받아져, 그때도.(얼룩소도 나고 잇다가 칙송아지도 나고 또 부록소도 나면 노랑게 이제 반드럽게 고우면 값도 더 받을 수 잇어, 그때도.)

104002 @ 아.(아.)

104002 # 췌도 색깔로도 돈 받아. 경 헤났져. 또 까맣게시리 까만 송애기도 나고.(소도 색깔로도 돈 받아. 그렇게 했었어. 또 까맣게 까만 송아지도 나고.)

104002 @ 뽕이, 이렇게 자뺌뽕도 잇지 안해?(뽕이, 이렇게 자뺌뽕도 잇지 않아?)

104002 # 자뺌도리⁴⁰엔 헌 건이 뽕이 족아, 크지 안헤여.(‘자뺌도리’라고 한 건

뿔이 작아, 크지 않아.)

104002 @ 응.(응.)

104002 # 몽쿨락해둬서 것ㄴ라 자뿔도리.(몽푹해서 그것보고 ‘자뿔도리’.)

104002 @ 건 자뿔도리.(그건 ‘자뿔도리’.)

104002 # 부랭이, 저 부랭이도 꾸작허게시리 뿔이 켕.(부룩소, 저 부룩소도 곧게 뿔이 커.)

104002 @ 응.(응.)

104002 # 영 허여근앵이 막 커 갈수록 뿔이 현 건. 또 쉐뿔이 현 해에 현 ㄴ작 썩 셔.(이렇게 해서 막 커 갈수록 뿔이 한 건. 또 소뿔이 한 해에 한 마디씩 있어.)

104002 @ 그게 무신 말?(그게 무슨 말?)

104002 # 쉐뿔 현 해 크면은 그 뿔이 켕 ㄴ작이 잇다고, 현 ㄴ작썩.(소뿔 한 해 크면 그 뿔이 커서 마디가 잇다고, 한 마디씩.)

104002 @ 표시가 나 잇어? 나이테추룩.(표시가 나 잇어? 나이테처럼.)

104002 # 응, 늙어갈수록 쉐뿔에.(응, 늙어갈수록 소뿔에.)

104002 @ 응.(응.)

104002 # 영 우리가 쉐 영 걸렁 메곡 헐 때 보민 그 현 해, 현 해, 저.(이렇게 우리가 소 이렇게 걸려서 매고 할 때 보면 그 한 해, 한 해, 저.)

104002 @ 선이 굿어져?(선이 그어져?)

104002 # 선이 굿어져.(선이 그어져.)

104002 @ 그걸 뉘엔 허는 말은 엇수과?(그러 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까?)

104002 # 엇어. 멧 해 뉘엇구나, 뿔 뿡 알아.(없어. 멧 해 뉘엇구나, 뿔 봐서 알아.)

104002 @ 응.(응.)

104002 # 장시덜 오민 속이지 못허여. 그 뿔 뿡. 사릅 다음엔 세 슬.(장수들 오면 속이지 못해. 그 뿔 봐서. 사릅 다음엔 세 살.)

104005 @ 차례대로 곱아봅서, 쉐 나이.(차례대로 말해 보세요, 소 나이.)

104005 # 쉐 나민 초담 나민 금싱, 두 해 뉘민 다간.(소 낳으면 처음 나면 금승, 두해 되면 다간.)

104005 @ 응.(응.)

104005 # 세 해 뉘민 사릅, 네 해 뉘민 나릅. 다섯 살 나민 다습, ㄹ섯 살 나민 ㄹ습.(세 해 되면 사릅, 네 해 되면 나릅. 다섯 살 나면 다습, 여섯 살 나면 여습.)

104005 @ 그다음은?(그다음은?)

104005 # 그다음은 뉘 늙어가민 뉘, 쉐는 오래 살질 안허여.(그다음은 뉘 늙어가면 뉘, 소는 오래 살지 않아.)

104005 @ 보통 멧 년 살아?(보통 몇 년 살아?)

104005 # 열 해, 말은 뉘 쉐 스물, 돌 서른 영 산뉘 허주게, 옛날 말이.(열 해,

40) ‘자뿔도리’는 뉘로 기울어지고 끝이 뉘틀린 자뿔뿔을 갖고 잇는 소를 말하는 것이다.

말은 뭐 소 스물, 말 서른 이렇게 산다고 하지, 옛날 말이.)

104005 @ 응.(응.)

104005 # 경허주마는 경 열다섯⁷장 잘 운용을 못해, 췌도. 우리도 열 술 넘도록은 질타났어.(그렇지마는 그렇게 열다섯까지 잘 운신을 못해, 소도. 우리도 열 살 넘을 때까지는 길렀었어.)

104005 @ 응.(응.)

104005 # 늙어, 늙어. 열두 술 넘어가면 췌가.(늙어, 늙어. 열두 살 넘어가면 소가.)

104005 @ 그다음은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똑같아?(그다음은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똑같아?)

104005 # 응, 똑⁷따. 다습, 으습.(응, 똑같아, 다습, 여습.)

104005 @ 요습까지만 허고예.(여습까지만 하고요.)

104005 @ 보통 소는 뭐 헐 때 쓰는 거파?(보통 소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104005 # 뭐 헐 때 써? 옛날엔게 밧 ⁷리청 밧 같고.(뭐 할 때 써? 옛날엔 밧 가르쳐서 밧 같고.)

104005 @ 응.(응.)

104005 # 그냥 노누에기⁴¹⁾덜은 그냥 키우멍 풀꼭게.(그냥 ‘노누에기’들은 그냥 키우면서 팔고.)

104005 @ 아, 그냥 풀고.(아, 그냥 팔고.)

104003 # 응, 췌덜. 질 이제 좋은 암췌 이제 밧 갈앙 행실 좋은 건 ⁷리청 밧 같고.(응, 소들. 질 이제 좋은 암손 이제 밧 갈아서 행실 좋은 건 가르쳐서 밧 같고.)

104003 @ 응.(응.)

104003 # 또 짐도 시끄고. 질메 지왕 췌질메 엇어게, 췌질메.(또 짐도 싣고. 길마 지워서 소 길마 없니, 소 길마.)

104003 @ 옛날은 소가 엇이민 농사를 못 지어예?(옛날은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지요.)

104003 # 못 지어. 또 구루마 엇인 팬이 췌로 몰로 그 짐을 시꺼 들어.(못 지어. 또 달구지 없을 팬 소로 말로 그 짐을 싣어 들어.)

104003 @ 응.(응.)

104003 # 췌질메 지와근에 이제 출도 영 서 못씩 낱 툃툃하게 짐을 시끄는, 짐 잘 시끄는 사름 베 딱딱 췌우멍 시끄꼭 못 시끄는 사름 것도 못 시꺼. 췌질메덜.(소 길마 지워서 이제 풀도 이렇게 세 못씩 놓고 툃툃하게 짐을 싣는, 짐을 잘 싣는 사람 바 딱딱 조이면서 싣고 못 싣는 사람 그것도 못 싣어. 소 길마들.)

104003 @ 응.(응.)

104003 # 우리 췌짐⁷장 안 시꺼봤어. 여즈덜도 잘 시끄는 사름덜은 시꺼, 노동

41) ‘노누에기’는 일을 부리거나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어린 소를 말한다.

잘하는 사람덜은.(우리 소짐까지 안 실어봤어. 여자들도 잘 실는 사람들은 실어, 노동 잘하는 사람덜은.)

104003 @ 그건 안 해봤다고.(그건 안 해봤다고.)

104003 # 우리도 더러 헛단에 설러붙엇주. 이제 우리 세대 나가난에게 그 소도 막 키웁단 경 이제 구루마 나고 허난게.(우리도 더러 하다가 그만두엇지. 이제 우리 세대 나가니까 그 소도 막 키우다가 그렇게 이제 달구지 나고 하니까.)

104003 @ 응.(응.)

104003 # 췌짐도 경 안 시꺼. 옛날 우리 어머님네 시절엔 그자 췌짐으로 옛날 어른덜 다 헤여.(소짐도 그렇게 안 실어. 옛날 우리 어머님네 시절에 그냥 소짐으로 옛날 어른들 다 해.)

104004 @ 췌 ㄹ리치는 건 어떻 ㄹ리쳐?(소 가르치는 건 어떻게 가르쳐?)

104004 # 어떻 ㄹ리쳐? 밧 가는 디 강 사름이 이젠 췌 이꺼.(어떻게 가르쳐? 밧 가는 데 가서 사름이 이젠 소를 이끌어.)

104004 @ 응.(응.)

104004 # 췌 이끄곡 조름에서 밧 갈양 영 사름이 강 영 돌아오민 또 돌아가곡 허멍.(소 이끌고 뒤에서 밧 갈아서 이렇게 사름이 가서 이렇게 돌아오면 또 돌아가고 하면서.)

104004 @ 아니, 처음에 질메 지우기 전이 ㄹ리치는 거 이수게.(아니, 처음에 길마 지우기 전에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104004 # 아, 췌 ㄹ리치는 것도 초담 새송애기에 질메 지우민 막 들러키어.(아, 소 가르치는 것도 처음 새송아지에 길마 지우면 막 날뛰어.)

104004 @ 응.(응.)

104004 # 경허당 그것도 알아 먹영 츄츄츄츄 헤 가민 안허여.(그러다가 그것도 알아 먹어서 차차차차 해 가면 안 해.)

104004 @ 돌 ㄹ스는 것도 이수게?(돌 ㄹ는 것도 있잖아요?)

104004 # 돌 ㄹ는 거, 거 췌 ㄹ리칠 때이 밧디 강 다 못허민 초담 돌 ㄹ영 질에서 질에서 막 이제 ㄹ영 땡겨. 거 ㄹ리침으로.(돌 ㄹ는 거, 그거 소 가르칠 때 밧에 가서 다 못하면 처음 돌 ㄹ고 다녀. 그거 가르침으로.)

104004 @ 그 ㄹ리침으로예, 췌 ㄹ리치는돌이엔 ㄹ읍니까?(그 가르침으로요. 소 가르치는돌이라고 말합니까?)

104004 # 아니, 그냥 뭐 아무 돌이라도 뭐 ㄹ영 베 ㄹ러근앵에.(아니, 그냥 뭐 아무 돌이라도 뭐 ㄹ어서 바 ㄹ러서.)

104004 @ 응.(응.)

104004 # 돌도 ㄹ젠허민게 코 멩글곡 헤야주게. 췌 멩에 메왕, 밧가는 멩에. 멩에에 한줄 메왕 그 돌 ㄹ어와. 경허당 이제 밧디 강 ㄹ리쳐.(돌도 ㄹ려고 하면 코 만들고 해야지. 소 멩에에 메워서, 밧가는 멩에. 멩에에 ㄹ줄 메워서 그 돌 ㄹ어와. 그러다가 이제 밧에 가서 가르쳐.)

104004 @ 돌 끄어나도 밧디 강 허민 잘 안될 거 아니?(돌 끌어 나도 밧에 가서 하면 잘 안될 거 아니?)

104004 # 밧디 가근에 또 그리쳐야지, 잠대허여근에.(밧에 가서 또 가르쳐야지, 쟁기해서.)

104004 @ 응.(응.)

104004 # 돌만 끄슬 땀 돌만 지릉지릉 끄주마는 잠대허영 밧을 갈아살 거난 잠대 메왕 도로 밧디 강 그리치곡 경허영 옛날 어른덜은 쉼로 밧을 갈명 용스를 참만여 평도 다 허엿주, 쉼로 갈명.(돌만 끌 땀 돌만 '지릉즈릉' 끌지만 쟁기해서 밧을 갈아야할 거니까 쟁기 메워서 또 밧에 가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옛날 어른들은 소로 밧을 갈면서 농사를 참만여 평도 다 했지, 소로 갈면서.)

104004 @ 계난예.(그러니까요.)

104004 # 어떤 밧디 쉼 돌도 갈곡 너른 밧은 세 사름씩 갈러 가, 너른 사름덜은.(어떤 밧에 소 돌도 갈고 너른 밧은 세 사름씩 갈러 가, 너른 사름들은.)

104004 @ 응.(응.)

104004 # 그냥 영 천 썩 정도 뭐 그런 밧덜은 혼자만도 갈고 경헌디 너른 밧 이제 가는 사름덜은 하루 두 쉼 뒤텔저, 세 쉼 뒤텔저 그추록 허멍 갈아.(그냥 이렇게 천 썩 정도 뭐 그런 밧들은 혼자만도 갈고 그런데 너른 밧 이제 가는 사름들은 하루 두 소 되었다, 세 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갈아.)

104004 @ 세 쉼 되는 건 뭐?(세 소 되는 건 뭐?)

104004 # 세 사름, 쉼 시 개. 경헌 간 건.(세 사름, 소 세 개. 그렇게 간 건.)

104004 @ 세 쉼 뒤텔?(세 소 돼?)

104004 # 응, 두 쉼 뒤텔저, 세 쉼, 시 개 뒤텔저 경 곤는 말이주.(응, 두 소 되었다, 세 소, 세 개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지.)

104004 @ 세 쉼 뒤텔저, 두 쉼 뒤텔저. 이렇게.(세 소 되었다, 두 소 되었다. 이렇게.)

104004 # 두 쉼로 가서, 올린.(두 소로 가서, 올리는.)

104004 @ 아, 밧을 쉼 두 개로 갈앗덴 말을.(아, 밧을 소 두 개로 갈았다는 말을.)

104004 # 응, 경헤여. 오늘 그 집인 밧 두 쉼 뒤텔 갈암서 경허고.(응, 그렇게 해. 오늘 그 집은 밧 두 소 되어서 갈고 있어 그렇게 하고.)

104004 @ 소 두 개에 잠대 허나 메왕도 험니까?(소 두 개에 쟁기 하나 메워서도 험니까?)

104004 # 응, 게 제주도엔 잘 안허여. 육진 경헤라마는.(응, 그렇게 제주도에는 잘 안 해. 육지는 그렇게 하더라마는.)

104004 @ 육지, 육지 경헌덴 험게마는 이딘 안 해?(육지, 육지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안 해?)

104004 # 제주도 경 안 해. 육진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난 두 개 메완 헤라게.

제주도는 경 안 해.(제주도 그렇게 안 해. 육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두 개 메워서 하더라. 제주도는 그렇게 안 해.)

104004 @ 응.(응.)

104004 # 흥나 허여. 장남 흥나 허영. 쉼 명에 메와근에.(하나 해. 머슴 하나 해서. 소 명에 메워서.)

104006 @ 잠대도 이름이 다 이수계.(쟁기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104006 # 잠대에? 잠대 성에.(쟁기에? 쟁기 성에.)

104006 @ 사진 가정왓수다.(사진 가져왔습니다.)

104006 # 요건 긴 건 잠대 성에. 요건 잠땃몽쿨, 요건 양짓머리.(요건 긴 건 쟁기 성에, 요건 쟁깃술, 요건 양지머리.)

104006 @ 응.(응.)

104004 # 이거 지퍼근에 영 밧 가는 거라, 이디 상. 이거 양짓머리, 요건 몽쿨, 요건 성에. 요건 딱로 그냥 영 박아근에 허는 거 이건 이름 엇고.(이거 짚어서 이렇게 밧 가는 거야, 여기 서서. 이거 양지머리, 요건 쟁깃술, 요건 성에. 요건 또 그냥 이렇게 박아서 하는 거 이건 이름 없고.)

104006 @ 응.(응.)

104004 # 경행 이걸 이제 메와야 돼여, 성에 이레 허고, 이 몽쿨도 어려와이.(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메워야 돼, 성에 이리 하고, 이 쟁깃술도 어려워.)

104006 @ 응.(응.)

104004 # 이 지세 쉼 걸로 낭을 그차오젠 허민 잘도 어려와, 이 잠땃몽쿨도.(아 모양으로 된 걸로 나무를 잘라오려고 하면 아주 어려워, 이 쟁깃술도.)

104006 @ 아.(아.)

104006 # 고지 가근에 이젠 잠땃몽쿨 제대로 쉼 걸 해오젠 허민 막 어려와이. 거민 잠땃몽쿨도 잘 해근앵이 단장을 헤영 낭, 낭 그차당.(숲 가서 이젠 쟁깃술 제대로 된 걸 해오려고 하면 아주 어려워. 그러면 쟁깃술도 잘 해서 단장을 해서 나무, 나무 잘라다가.)

104008 @ 응.(응.)

104006 # 이 성에는 구썩헌 것만 해오민 돼고 이 잠땃몽쿨도 이디 이젠 영허영 양짓머리 요디 고망 뜰라근에 성에 영 디물젠 허민 낭이 좋아야 돼여, 이것도.(이 성에는 곤은 것만 해오면 되고 이 쟁깃술도 여기 이젠 이렇게 해서 양지머리 요기 구멍 뚫어서 성에 이렇게 디밀려고 하면 나무가 좋아야 돼, 이것도.)

104008 @ 응.(응.)

104008 # 그추룩 허고 이건 벳허고 보섭. 경행 허는 거주. 경허고 또로 쉼 명에 는.(그렇게 하고 이건 벳하고 보섭.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소 명에는.)

104008 @ 이거 명에.(이거 명에.)

104008 # 이거 명에엔 이거 한줄 영 진진헌 거 한줄. 요건 또 가린석⁴²⁾, 가린

42) '가린석'은 밧을 갈 때 소뿔에 줄을 묶어서 밧같이 하는 사람이 쟁기의 뒤에서 소를 부리게 된 줄

코.(이거 멩에라고 이거 붓줄 이렇게 긴긴한 거 붓줄. 요건 또 ‘가린석’, ‘가린코’.)

104008 @ 가린코?(‘가린코’?)

104008 # 이디 영 동, 공글레기 허영이 잠대에 허여 가지고 이레 췌 멩에 헤영 밧, 췌 영 세울 땐 이레 가린콜 이레 찢러다근앵이 췌 무끄곡 허여.(여기 이렇게 동, 동그랗게 해서 쟁기에 해 가지고 이리로 소 멩에 해서 밧, 소 이렇게 세울 땐 이리로 ‘가린코’를 이리 찢러다가 소 묶고 해.)

104008 @ 아.(아.)

104008 # 경헤여. 요디도이 한줄에 또로 요디 그 한줄에 그저 또꼬냥에 허는 거, 건 잊어불언게 한줄에 췌 조름에 허는 거 잊어게? 한줄 꼬땡이에.(그렇게 해. 여기도 붓줄에 또 요기 그 붓줄에 그저 엉덩이에 하는 거, 그건 잊어버렸어, 붓줄에 소 뒤에 하는 거 없니? 붓줄 끝에.)

104008 @ 오리목43)?(‘오리목’?)

104008 # 오리목, 오리목. 오리목은 또 한줄 꼬땡이에 조그만허게 또로 한줄 꺾 맨들양 한줄에 끼와야 돼어 것도, 오리목.(‘오리목, 오리목’. ‘오리목’은 또 붓줄 끝에 조그맣게 또 붓줄같이 만들어서 붓줄에 끼와야 돼 그것도, ‘오리목’)

104008 @ 그건 췌 엉덩이에?(그건 소 엉덩이에?)

104008 # 응. 엉덩이에 가는 거. 엉덩이에 가는 거고. 또 멩에에 또로 그 췌 야 게에 허는 건 또 좁작게, 좁작게44).(응. 엉덩이에 가는 거. 엉덩이에 가는 거고. 또 멩에에 또 그 소 목에 하는 건 또 목대, 목대.)

104008 @ 좁작게?(목대?)

104008 # 응, 요거 좁작게. 이걸 이제 췌 고개에 이걸 끼왕 한줄을 씨우는 거 라.(응, 요거 ‘좁작게’. 이걸 이제 소 고개에 이걸 끼워서 붓줄을 씨우는 거야.)

104008 @ 좁게 아니고 좁작게?(‘좁게’ 아니고 ‘좁작게’?)

104008 # 응, 이거 몽콜, 요건 성에, 요건 양짓머리. 겨난 이제 췌 멩에 이건 췌 고개에 가는 거라이.(응, 이거 쟁깃술, 이건 성에, 요건 양지머리. 그러니까 이제 소 멩에 이건 소 고개에 가는 거야.)

104008 @ 응.(응.)

104008 # 요걸로 요디 고망 딸랑 요거 끼왕 췌 고개에 이렇게 줄라 무꺼야 췌 가.(요걸로 요기 구멍 뚫어서 요거 끼워서 소 고개에 이렇게 줄라 묶어야 소가.)

104008 @ 뭘로 무꺼?(뭘로 묶어?)

104008 # 아니, 여기 끈이 이서. 좁작기끈.(아니, 여기 끈이 있어. 목대끈.)

104008 @ 무신 끈, 좁작기끈?(무슨 끈, 목대끈.)

104008 # 응, 끈 이제 노로 허여근에 팽팽 감양, 그 든든허게 감아사 췌가 이제 멩에로 영행 등길 거 아니가게?(응, 끈 이제 노로 해서 팽팽 감아서, 그 단단하게

이다.

43) ‘오리목’은 붓줄 끝에 매어진 나무와 쟁기의 성에 사이에 잇대어 붙잡아 매는 줄이다.

44) ‘좁작게’는 ‘목대’의 제주어로, 멩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로 ‘좁게’라고도 한다.

감야야 소가 이제 멩에로 이렇게 해서 당길 거 아니냐?)

104008 @ 예.(예.)

104008 # 이디 멩에 씨왕 이 한줄에 멩에 메와 가지고, 쉼 멩에.(여기 멩에 씨워서 이 붓줄에 멩에 메워 가지고, 소 멩에.)

104008 @ 응.(응.)

104008 # 야게에, 이 저 한줄 이 저 쉼 멩에에 낭으로 해서 한줄 양 끝에 이디 낭 허여 가지고 요 좁제기 양 펜으로 고망 딸랑 이디 허는 거주.(목에, 이 저 붓줄 이 저 소 멩에에 나무로 해서 붓줄 양 끝에 여기 나무 해 가지고 요 목대 양편으로 구멍 뚫어서 여기 하는 거지.)

104008 @ 응.(응.)

104008 # 경헌디 이 좁제기도이 이제 어류와.(그런데 이 목대도 이제 어려워.)

104008 @ 응.(응.)

104008 # 윤누리나 무신 낭, 춤낭을 해 가지고 요디 이제 또로 그 동글락허게시리 그 멩에, 그 좁제기도 이 멩에에 고망 딸랑 허젠 허민 요디 도께어시 ㄹ추록 그 게 서사 허지 안허여게.(윤노리나 무슨 나무, 참나무를 해 가지고 요기 이제 또 그 동그랗게 그 멩에, 그 목대도 이 멩에에 구멍 뚫어서 하려고 하면 여기 도리깃장부 처럼 그게 있어야 하지 않니.)

104008 @ 응.(응.)

104008 # 그것도 어류와. 굵기 딸랑 멩에레 이젠 찢렁, 두 개 양쪽에 허여근에 허민 요 쉼 멩에 이젠 낭 끝은 거 허여당 이디 두 개 고망 딸라근앵이 좁작겔 이렇게 서로 영 엮어근에 즐라 무끄는 거라.(그것도 어려워. 구멍 뚫어서 멩에에 이젠 찢러서, 두 개 양쪽에 해서 하면 요 소 멩에 이젠 나무 끝은 거 해다가 여기 두 개 구멍 뚫어서 목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어서 즐라 묶는 거야.)

104008 @ 좁제기, 좁작게?('좁제기', '좁작게'?)

104008 # 이거 좁제기앵도 허고 좁작게앵도 허여.(이거 '좁제기'라고도 하고 '좁작게'라고도 해.)

104008 @ 아.(아.)

104008 # 계난 이 좁제기도 허젠 허민이 낭이 이제 그 이 끝뎡이가 몽꼴락허게 들은 거.(그러니까 이 목대도 하려고 하면 나무가 이제 그 이 끝이 몽푹하게 달린 거.)

104008 @ 응.(응.)

104008 # 제대로 쉼 거 허여다근에 이제 데와 가지고 이걸 좁제길 멩글젠 허민 이 이디 고망 딸랑 이제 이렇게 두 깎 허영 영 어우리는 거.(제대로 된 거 해다가 이제 틀어 가지고 이걸 목대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 구멍 뚫어서 이제 이렇게 두 개 를 해서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는 거.)

104008 @ 응.(응.)

104008 # 어우리는 거라. 이것도 어려와, 이 쉼멍에 멩금도.(어우러지게 하는 거

야. 이것도 어려워. 이 소 멩에 만듬도.)

104008 @ 응.(응.)

104008 # 경헝 이제 한줄 사령 놀 땐 영 이제 두 곱 잡아근에 팽헝게 멩에헝고
좁작게허곡 허영 무경, 무꺼근에 공장⁴⁵⁾에 잘 걸엇당 밧을 갈아야 돼여.(그렇게 해
서 이제 붓줄 사려 놓을 땐 이렇게 이제 두 곱 잡아서 팽헝게 멩에헝고 목대하고
해서 묶어서, 묶어서 ‘공장’에 잘 걸엇다가 밧을 갈아야 돼.)

104006 @ 밧 안 갈 땐 공장에 걸어?(밧 안 갈 땐 ‘공장’에 걸어?)

104006 # 응, 걸어사. 이 멩에도이 잘 아이 놔두면 베염이나 무신거 땡겨나민
밧 갈 때 그거 메왕허민 쉼 고개턱 붓어. 독으로, 독으로.(응, 걸어야. 이 멩에도 잘
안 놔두면 뱀이나 무엇 다녀나면 밧 갈 때 그거 메워서 하면 소 목덜미 부어. 독으
로, 독으로.)

104006 @ 뱀 독?(뱀 독?)

104006 # 응, 베염 땡겨나민. 겨난 이제 쉼멍에를 공쳐허게⁴⁶⁾ 걸어 뒤사 돼어.
(응, 뱀 다녀나면. 그러니까 이제 소 멩에를 ‘공쳐’하게 걸어뒤야 돼.)

104006 @ 공쳐허게?(‘공쳐’하게?)

104006 # 깨끗허게, 공쳐허게. 공쳐헌 말 몰라? 무시거라도 영 공쳐허게 놔
뒤.(깨끗하게, ‘공쳐’하게. ‘공쳐’한 말 몰라? 무엇이라도 이렇게 ‘공쳐’하게 놔뒤.)

104006 @ 아.(아.)

104006 # 우리도 저 옷을 공쳐허게 걸지 안헤샤게? 경허듯이 쉼멍에도. 우리가
저 밧거리 잇지 안허냐?(우리도 저 옷을 ‘공쳐’하게 걸지 았았니? 그러듯이 소 멩에
도. 우리가 저 바깥채 잇지 았니?)

104006 @ 예.(예.)

104006 # 경허민 그런 디 이제 백브름에다가 잘 걸어뒤사. 그런 베염 아이 땡기
는 디. 베염 땡겨나민 독이 쉼 고개가 밧 갈당 보민 붓는 거라. 아, 베염 땡겨난 생
이여, 영허여.(그러면 그런 데 이제 바람벽에다가 잘 걸어뒤야. 그런 뱀 안 다니는
데. 뱀 다녀나면 독이 소 고개가 밧 갈다가 보면 붓는 거야. 아, 뱀이 다녀났던 모
양이야, 이렇게 해.)

104006 @ 아.(아.)

104006 # 경허당 풀어지긴 풀어져도 쉼가 고생허주게. 그 독으로 붓어놓민. 경
헤여. 쟁깃 몽클, 이긴 한줄.(그러다가 풀어지긴 풀어져도 소가 고생하지. 그 독으로
부어 놓으면. 그렇게 해. 쟁깃술, 이긴 붓줄.)

104006 @ 벧칼⁴⁷⁾, 벧틀레⁴⁸⁾도 잇지 안헝니까?(벧칼, ‘벧틀레’도 잇지 았습니
까?)

45) ‘공장’은 나뭇가지나 대 등으로 가늘고 끝이 뽀족하게 만들어서 벽에 박아 옷이나 물건을 거는 용
도로 쓰인다.

46) ‘공쳐하다’는 오염이 되지 았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47) ‘벧칼’은 쟁기의 벧에 묻은 흙을 긁어 내리우는 나뭇조각이다.

48) ‘벧틀레’는 쟁기에 벧을 단단히 틀어주는 나무 막대다.

104006 # 벧틀렌 또 이디 낭 두 개 해 가지고 까까근에 요추룩헌 거 까까 가지고 벧틀레도 또 요것ㄴ치 영 양쪽으로 허여이.(‘벧틀레’는 또 여기 나무 두 개 해 가지고 깎아서 요처럼 한 거 깎아 가지고 ‘벧틀레’도 또 요것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해.)

104006 @ 응.(응.)

104006 # 양쪽으로. 두 개 허영 영 헤여사 벧이 든든허여.(양쪽으로. 두 개 해서 이렇게 해야 벧이 단단해.)

104006 @ 벧칼은?(벧칼은?)

104006 # 벧칼은 엇고게. 벧도 다끄는 것ㄴ라 벧칼이엔 험실 거여.(벧칼은 없고. 벧도 닦는 것보고 벧칼이라고 하고 있을 거야.)

104006 @ 응.(응.)

104006 # 이걸로 영 즈제기 헤낭 그거 이제 클르면 이 받을 갈아나면 흑이 막 부떠. 벧에고 보섭에고 허면은 그거 뜯어 가지고 그 벧칼로 다끄는 거라. 그것이 그 거.(이걸로 이렇게 집게 해놓고 그거 이제 끄르면 이 받을 갈아나면 흑이 막 붙어. 벧이고 보습이고 하면은 그거 뜯어 가지고 그 벧칼로 닦는 거야. 그것이 그거.)

104006 @ 아.(아.)

104006 # 이 즈제기 모양으로 요만씩헌 거, 요만씩헌 이제 저 낭 까끈 거 두 개 헤영 이렇게 서로 영 어우러지게 행 딱 즈저.(이 집게 모양으로 요만큼한 거, 요만큼한 이제 저 나무 깎은 거 두 개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게 해서 딱 집어.)

104006 @ 예.(예.)

104006 # 즈저근에 허여. 그것이 이제 벧틀레라. 벧틀레엔도 허고 벧칼이엔도 허고. 우리 잠대 봐나난 아는 거주.(집어서 해. 그것이 ‘벧틀레’야. ‘벧틀레’라고도 하고 벧칼이라고도 하고. 우리 쟁기 봤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

104006 @ 응.(응.)

104006 # 이거 성에, 성에, 이것이 잠대 성에가 대목이주게.(이거 성에, 성에, 이것이 쟁기 성에가 대목이지.)

104006 @ 설치는 뭐봐?(한마루는 무엇입니까?)

104006 # 요거, 요거 설치이엔 헤신가? 이거 낭 까까근에 이것도 멘들양 이 몽쿨허고 성에를 어우러지게 박는 거, 설치.(요거, 요거 한마루라고 했나? 이거 나무 깎아서 이것도 만들어서 이 쟁기술하고 성에를 어우러지게 박는 거, 한마루.)

104006 @ 몽쿨은 아무 낭이나 못헌덴 헤수게? 보통 무신 낭으로 많이 해?(쟁기술은 아무 나무나 못한다고 했잖습니까? 보통 무슨 나무로 많이 해?)

104006 # 이거이 춤낭이라사 웨여. 선홀고지 뭐 가시낭이나 이제 즈베낭이나 그런 거 허고 윤누리는 어렵고.(이거 참나무라야 돼. 선홀 숲 뭐 가시나무나 이제 구슬잣밤나무나 그런 거 하고 윤노리는 어렵고.)

104006 @ 응.(응.)

104006 # 윤누리가 막 질긴 낭인디 어려와, 이거 허젠 허민. 경허난 이 제 지세로 웬 낭이 어려와이. 이렇게 고부룻허게 허고 영 허영 이디가 넓고 이렇게 해온 낭이 어려와.(윤노리가 아주 질긴 나무인데 어려워, 이거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모양으로 된 나무가 어려워. 이렇게 구부러지듯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넓고 이렇게 해온 나무가 어려워.)

104006 @ 응.(응.)

104006 # 경허민 잠땃몽콜 하나 봉그젠 허민 잘도 어렵거든. 이 성에는 곧은 나무만 허민 뉘고.(그러면 쟁깃술 하나 구하려고 하면 아주 어렵거든. 이 성에는 곧은 나무만 하면 되고.)

104006 @ 응.(응.)

104006 # 또 양짓머리 허는 낭도 좋아사 뉘어. 고망 뜰랑 이디 이거 매우젠 허면 질긴 낭이라사 허고 경허는 거.(또 양지머리 하는 나무도 좋아야 돼. 구멍 뚫어서 여기 이거 매우려고 하면 질긴 나무라야 하고 그러는 거.)

104001 @ 쉼 안 메 나민 안 메첸 들러키지 안헙니까?(소 안 매어 나면 안 매겠다고 날뛰지 않습니까?)

104001 # 쉼뿔에 메영 허민 저을에 들어오민 으레 뉘 걸로 알아, 나이 한 쉼덜. 오민 탁탁 지 메어난 디 들어사, 쉼가.(쇠뿔에 매어서 하면 겨울에 들어오면 으레 뉘 걸로 알아, 나이 많은 소들. 오면 탁탁 자기 매었던 데 들어서, 소가.)

104001 @ 응.(응.)

104001 # 경허영 물도 앓다다 주민 먹곡 또 통에 강 뉘여 오고, 클렁 강.(그렇게 해서 물도 가져다 주면 먹고 또 통에 가서 먹여 오고, 끌러서 가서.)

104001 @ 쉼 뉘이레?(소 먹이러?)

104001 # 물 뉘이레, 물 뉘이레 몰앙 가.(물 먹이러, 물 먹이러 몰아서 가.)

104001 @ 이딘 어디 강 뉘입니까?(여긴 어디 가서 먹입니까?)

104001 # 물통 잇주게, 먼 디 강. 이제 먼물깍이영 반뉘이영 헌 디 강. 어느 세 계라도 다 경헨 살안, 제주도 사름은.(물통 있지, 먼 데 가서. 이제 ‘먼물깍’이랑 ‘반뉘’이라고 한 데 가서. 어느 지역이라도 다 그렇게 해서 살았어, 제주도 사름은.)

104001 @ 응.(응.)

104001 # 견디 저 서춘에는 이 부룽일 주로 키운다.(그런데 저 서쪽 마을에는 이 부룽소를 주로 키운다.)

104001 @ 아.(아.)

104001 # 부룽이 키와 가지고 이제 고깃쉼로 풀아, 고기로. 막 이제 뉘영 솔치왕 이디 오랑 이제 다 사가. 부룽이 사레 와. 부룽이 나민 풀아 불어. 암쉼 새끼 내왕.(부룽소 키워 가지고 이제 고기소로 팔아, 고기로. 막 이제 먹여서 살찌워서 여기 와서 이제 다 사가. 부룽소 사레 와. 부룽소 나면 팔아 버려. 암소 새끼 내워서.)

104001 @ 이디션 보통 암쉼 키웁니까?(여기선 보통 암소를 키웁니까?)

104001 # 응, 부룽이 나민 이제 위가라⁴⁹) 사레 와. 금싱인 때.(응, 부룽소 나면

이제 곧 사라 와. 금승일 때.)

104001 @ 응.(응.)

104001 # 그 서촌 사름덜이 맥영 술치왕 풀젠.(그 서쪽 마을 사람들이 먹여서 살찌워서 팔려고.)

104005 @ 금싱은?(금승은?)

104005 # ㄹ 난 거게.(갓 난 거.)

104005 @ ㄹ 난 거.(갓 난 거.)

104005 # 금싱 또. 세월엇인 땀이 부룽이 못 풀앙 다간ㄱ장 키와.(금승 또. 세월 없을 땀 부룩소 못 팔아서 다간까지 키워.)

104005 @ 다간은 두 살?(다간은 두 살?)

104005 # 두 술.(두 살.)

104005 @ 응.(응.)

104005 # 경혜여근앵이 부룽이가 세월 존 땀 뭉 ㄹ 낭 금싱일 때 문 사가고.(그렇게 해서 부룩소가 세월 좋을 땀 뭉 갓 낳아서 금승일 때 모두 사가고.)

104005 @ 응.(응.)

104005 # 경행 그런 땀 쉼 질루민 흐뎡 돈 벌곡. 경 안행 부룽이 사름ㄱ장 키우젠 허민 막 힘들어. 부룽이 말 안 듣고.(그렇게 해서 그런 땀 소 기르면 조금 돈 벌고. 그렇지 않고 부룩소 사름까지 키우려고 하면 아주 힘들어. 부룩소 말 안 듣고.)

104005 @ 불도 간덴 험게마는.(불도 간다고 하던데마는.)

104005 # 그건이 그 송애기덜 막 풀아부난 그런 거 우린 안 헤나고.(그것은 그 송아지들 막 팔아버리니까 그런 거 우린 안 했었고.)

104005 @ 응.(응.)

104005 # 그건이 이제 옛날 그냥 바라⁵⁰⁾로 쉼 키울 때는 그런 것가 엇어났는데 부룽이 더러 풀아불곡 허민 엇어난다.(그것은 이제 옛날 그냥 ‘바라’로 소 키울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부룩소 더러 팔아버리고 하면 없었는데.)

104005 @ 응.(응.)

104005 # 이제 시대가 바뀐 가난 잡종을 이제 쉼 허지 말젠 헤연 수의사도 오랑 그 불 더러 이제 부룽이 못 폰 사름 거 더러 까불엇젠도 허어나고 해서. 경헌디 그자락 안 허고.(이제 시대가 바뀌져 가니까 잡종을 이제 소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수의사도 와서 그 불 더러 이제 부룩소 못 판 사름 거 더러 까버렸다고도 했었고 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104005 @ 응.(응.)

104005 # 수의사 오민 인공수정이라고 소부떠 험 거라. 경행 이제 수의사 오라근앵이 암췌가 이제 새끼 가지게 뵤면 수의사 오라근에 문딱 인공수정허고 경헤난. (수의사 오면 인공수정이라고 소부터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의사 와서 암소

49) ‘워가라’는 ‘어가라, 어ㄱ라’ 등으로도 나타나며 ‘미루지 않고 곧’의 의미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는 감탄사다.

50) ‘바라’는 일본어 ‘ばら’에서 온 말로 소를 ‘날개’로 키운다는 의미이다.

가 이제 새끼 가지게 되면 수의사 와서 모두 인공수정하고 그렇게 했었어.)

104005 @ 예.(예.)

104005 # 드르에 올라근에, 수의사를 불러사 돼어, 그런 때 인공수정허곡, 부룽이 다 풀아불었어.(들에 와서, 수의사를 불러야 돼, 그런 때 인공수정하고, 부룽소 다 팔아 버렸어.)

104005 @ ㄱ 난 게 부룽이예?(갓 난 게 부룽소요?)

104005 # ㄱ 난 거 암송애기도 나곡 부룽이도 나주마는 암송애기는 키와도 돼고.(갓 난 거 암송아지도 나고 부룽소도 나지마는 암송아지는 키워도 되고.)

104003 @ 보통 암송애기를 키우는구나예.(보통 암송아지를 키우는군요.)

104003 # 응.(응.)

104003 @ 부룽이가 더 힘 세지 안허여?(부룽소가 더 힘 세지 않아?)

104003 # 힘 세여도계 경 밧이나 아이 가는 건 썰목이 엇주게, 썰목이 엇어.(힘 세도 그렇게 밧이나 안 가는 것은 쓸모가 없지, 쓸모가 없어.)

104003 @ 밧도 암쇄가 같아?(밭도 암소가 같아?)

104003 # 응, 암쇄가 같아.(응, 암소가 같아.)

104003 @ 암쇄가 쓸모가 많구나예.(암소가 쓸모가 많군요.)

104003 # 썰모가 많주. 부룽인 이제 밧 많이 가는 사름은 부룽이도 질황 오래 밧 같아.(쓸모가 많지. 부룽소는 이제 밧 많이 가는 사름은 부룽소도 길러서 오래 밧 같아.)

104007 @ 질메도 이름이 다 이수게?(길마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104007 # 이견 쉼 질멧가지고 요건 도곰⁵¹). 이견 또 오랑코, 오랑⁵²).(이견 소 길맛가지고 요건 땀치. 이견 또 ‘오랑코’, 뱃대끈.)

104007 @ 응.(응.)

104007 # 이것도이 쉼질메가 고망을 네 꺾 내와 가지고 낭을 이제 ㄱ노롱헌 낭을 해당 질긴 낭이라사 돼여이.(이것도 소 길마가 구멍을 네 개를 내어 가지고 나무를 이제 가느다란 나무를 해다가 질긴 나무라야 돼.)

104007 @ 응.(응.)

104007 # 네 개를 꼽아 이디. 이 쉼질메를 어우러지게, 꺾곡 이걸 또로 조름에, 쉼 또꼬냥에 허는 거, 이거.(네 개를 꼽아 여기. 이 소 길마를 어우러지게, 꺾고 이걸 또 뒤에, 소 엉덩이에 하는 거, 이거.)

104007 @ 아.(아.)

104007 # 쉼질메에 부뜬 거라, 이것도. 이것도 이제 베도 이제 질긴 거. 낭도 이제 ㄱ작, 베 매는 ㄱ작이 셔이, 낭에도. ㄱ작을 잘 행 벨 끼와사 벗어지지 안허여. 경행 멘들아사 돼여, 이것도.(소 길마에 붙은 거야, 이것도. 이것도 이제 바도 이제 질긴 거. 나무도 이제 매듭, 바 매는 매듭이 있어, 나무에도. 매듭을 잘 해서 바를

51) ‘도곰’은 소의 안장 밑에 까는 질방석 같은 물건으로 길마가 소의 등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준다.

52) ‘오랑’은 ‘뱃대끈’의 제주어로 마소의 안장이나 길마를 엮을 때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이다.

끼워야 벗겨지지 않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 이것도.)

104007 @ 응.(응.)

104007 # 이 도곰은 이제 산뒤집으로나 예껴사 돼여, 이 도곰. 도곰도 아무나 못 예껴. 하르방덜 옛날 예껴근에 도곰착이라고.(이 뽕치는 이제 발벗짚으로 엮어야 돼, 이 뽕치. 뽕치도 아무나 못 엮어. 할아버지들 옛날 엮어서 ‘도곰착’이라고.)

104007 @ 응.(응.)

104007 # 흐쫄허민 도곰착 만인 허다, 도곰착 담다, 경. 이거 도곰. 이견 쉼 질 뻬가지, 요건 오랑코.(조금만 하면 ‘도곰착’ 만큼은 하다, ‘도곰착’ 닳았다, 그렇게. 이거 뽕치. 이견 소 길맛가지, 요건 ‘오랑코’.)

104007 @ 어느 게 오랑코?(어느 게 ‘오랑코’?)

104007 # 이거, 이디 베 시네. 영행 이디 이 낭에다가 이제 ㄹ노롱헌 베 허여 가지고 오랑.(이거, 여기 바 있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나무에다가 이제 가느다란 바 해 가지고 뺏대끈.)

104007 @ 아.(아.)

104007 # 오랑 이디 뺏따지로 해당 이레 매여야 이 쉼질메가 부뜨주게, 등에, 쉼 등에.(뺏대끈 여기 배로 해다가 이리로 매어야 이 소 길마가 붙지, 등에, 소 등에.)

104007 @ 이게 고들개⁵³?(이게 쟁거리막대?)

104007 # 응, 이거 고들개. 쉼 질뻬가지에 이거 고들개.(응, 이거 쟁거리막대. 소 길맛가지에 이거 쟁거리막대.)

104007 @ 요거는?(요거는?)

104007 # 줄게, 고들개에 줄.(줄, 쟁거리막대에 줄.)

104007 @ 요건?(요건?)

104007 # 도곰착.(뽕치.)

104007 @ 질뻬가지도 앞가지, 뒷가지 험니까?(길맛가지도 앞가지, 뒷가지 합니까?)

104007 # ㄹ뽕 거, ㄹ뽕 거. 꼭 ㄹ따.(같은 거, 같은 거, 똑같아.)

104007 @ 모양 똑같아?(모양 똑같아?)

104007 # 다 ㄹ따. 이거 두 개.(다 같아. 이거 두 개.)

104007 @ 아.(아.)

104007 # 두 개 헌디 요것만 오랑코 이제 네 개라, 네 개. 이 낭도 네 개. 흐 쫄에 두 개씩. 이거 오랑코, 오랑코.(두 개 했는데 이것만 ‘오랑코’ 이제 네 개야, 네 개. 이 나무도 네 개. 한 쫄에 두 개씩. 이거 ‘오랑코’, ‘오랑코’.)

104007 @ 오랑코? 질메 고망은?(‘오랑코’?, 길마 구멍은?)

104007 # 질뻬고망은 이거게, 이디 고망 낫주게.(길마 구멍은 이거, 여기 구멍 낫지.)

53) ‘고들개’는 쟁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이다.

104007 @ 아.(아.)

104007 # 일로 걸려당 요 배야지더레 이젠 허영 이제 무끄는 거라, 이걸 양쪽에. 일로 영 오랑을 잘 췌와사 부떠. 겨난 그 한만이 행 뉘카부덴? 췌 등어리에 부짱 짐 시끌 거.(이리로 걸려다가 요 배에 이젠 해서 이제 묶는 거야, 이걸 양쪽에. 이리로 이렇게 뱃대끈을 잘 조여야 붙어. 그러니까 그 여유롭게 해서 될 것 같아? 소 등에 붙여서 짐 실을 거.)

104007 @ 아.(아.)

104007 # 겨고 또 이디 이제 허젠 허민 췌앗베⁵⁴가 이서, 췌앗베. 짐 시끄는 베. 이 췌질메에 베도 양쪽에, 흔 펜이 흐나씩. 멧 발 이서, 그것도, 짐 시끄는 베가.(그리고 또 여기 이제 하려고 하면 참바가 있어, 참바. 짐 싣는 바. 이 소 길마에 바도 양쪽에, 한 편에 하나씩. 멧 발 있어, 그것도, 짐 싣는 바가.)

104007 @ 응.(응.)

104007 # 경행 사려근엥이 이제 췌질메에 톡 시경 강 풀어근에 짐 시끌 때민 풀어놔 양쪽으로 둘이 시끌 땐 양쪽으로 시끄민 막 좋아이.(그렇게 해서 사려서 이제 소 길마에 톡 실어 가서 풀어서 짐 실을 때면 풀어놔서 양쪽으로 둘이 실을 땐 양쪽으로 실으면 아주 좋아.)

104007 @ 응.(응.)

104007 # 겐디 혼자만 시끌 땐 흔 쪽에 이제 흔 도름 시꺼뉘 또 저쪽에 강 시꺼뉘 끄끄지 안 행은 토라정 췌 들러켜 붙어.(그런데 혼자만 실을 땐 한 쪽에 이제 한 ‘도름’ 실어두고 저쪽에 가서 실어두고 마치지 안 해서는 비뚤어져서 소가 날뛰어버려.)

104007 @ 흔 도름은 뭐?(한 ‘도름’은 뭐?)

104007 # 게 이디 초담 시끌 때 흔 도름, 두 도름. 이제 세 도름 시꺼놔 가운데 허민 네 도름을 시꺼.(그러게, 여기 처음 실을 때 한 ‘도름’, 두 ‘도름’. 이제 세 ‘도름’ 실어놓고 가운데 하면 네 ‘도름’을 실어.)

104007 @ 흔 도름은 멧 못이나 뉘는 거?(한 ‘도름’은 멧 못이나 되는 거?)

104007 # 세 못도 시끄고 큰 건 서 못.(세 못도 싣고 큰 건 서 못.)

104007 @ 서 못이 한 도름?(서 못이 한 ‘도름’?)

104007 # 또 너 못도 작은 건.(또 네 못도 작은 건.)

104007 @ 작은 건 너 못도 허고?(작은 건 네 못도 하고.)

104007 # 응, 경행 톡톡 허영 서로노다, 영 꺼꾸로 노다ㄴ라 서로노다엔 허주. (응, 그렇게 해서 톡톡 해서 ‘서로노다’, 이렇게 꺼꾸로 바로 보고 ‘서로노다’라고 하지.)

104007 @ 아.(아.)

104007 # 서로노다 놔 톡톡허게 시경 둘이 시끌 땐 양쪽으로 두 사름이 톡톡 시꺼 붙면 일이 없는데 혼자만 시끌 땐 요디 흔 도름 시꺼뉘 이쪽에 강 시꺼뉘 또

54) ‘췌앗베’는 ‘참바’의 제주어로 삼이나 칩으로 세가닥을 지어 굽다랗게 드린 줄이다.

이쪽에 오랑 시경 마주막엔 다 못까.('서로노다' 놓고 툭툭하게 실어서 둘이 실을 땐 양쪽으로 두 사람이 툭툭 실어 버리면 일이 없는데 혼자만 실을 땐 요기 한 '도름' 실어두고 이쪽에 가서 실어두고 또 이쪽에 와서 실어서 마지막엔 다 마쳐.)

104007 @ 아.(아.)

104007 # 경혜영 허여. 경 시끄는 거라, 짐도.(그렇게 해. 그렇게 실는 거야, 짐도.)

104007 @ 한 쪽에만 시끄민 토라져 부난.(한 쪽에만 실으면 비뚤어져 버리니까.)

104007 # 토라지민 들러경 안 돼어. 쉼질메 벗어져 불어. 토라져 가민. 베로 무끈 게 혼엇이 가?(비뚤어지면 날뛰어서 안 돼. 소 길마 벗겨져 버려. 비뚤어져 가면. 바로 묶은 게 한없이 가?)

104007 @ 계난.(그러니까.)

104007 # 겨난 이제 쉼 짐 시끄레 갈 때도 둘이 고른 사름이 가면 막 쉼안허여. 둘이 양쪽으로 ㄴ찌 시꺼.(그러니까 이제 소 짐 실으러 갈 때도 둘이 비슷한 사람이 가면 아주 편안해. 둘이 양쪽으로 같이 실어.)

104007 @ 응.(응.)

104007 # 쉼 흥나 시경 이젠 들어나카부맹 어디 강 메어똥 또 흥나 시끄곡, 경허여.(소 하나 실어서 이젠 달아날까봐 어디 가서 매어두고 또 하나 싣고, 그렇게 해.)

104007 @ 하하하.(하하하.)

104007 # 문여 시경 내불민 쉼 앞이 가가민 조름에 짐 아니 시끈 쉼아올라 ㄴ찌 가젠 허주게. 난 거 봐나난.(먼저 실어서 내버리면 소 앞에 가가면 뒤에 짐 안 실은 소마져 같이 가려고 하지. 난 그거 봤었으니까.)

104007 @ 무사 웃으멘마찌?(왜 웃으세요?)

104007 # 짐 시끌 때게, 짐 시끌 때 쉼 문져 시끈 건 메지 안허면 가가면 조름에 짐 안 시끈 쉼도 가젠 허주게, 가젠, 따라 가불젠.(짐 실을 때, 짐 실을 때 소 먼저 실은 건 매지 았으면 가가면 뒤에 짐 안 실은 소도 가려고 하지, 가려고, 따라 가버리려고.)

104007 @ 응.(응.)

104007 # 계니까 문여 시끈 쉼 메어똥 또 조름에 거 시경 경행 이제 앞이 거 클러근앵이 ㄴ찌 몰양 갓젠 말 아니가게.(그러니까 먼저 실은 소는 매어두고 또 뒤에 거 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앞의 거 끌러서 같이 몰아갔다는 말 아니냐.)

104007 @ 아.(아.)

104007 # 난 옛날 험난 거 생각허멍 우스완 웃엄저마는. 옛날 어른덜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난 걸 참 알아사 돼여. 밧가는 따빈 어시냐?(난 옛날 했던 거 생각하면서 웃겨서 웃고 있다마는.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난 걸 참 알아야 돼. 밧 가는 따비는 없니?)

104010 @ 따비도 잇수다.(따비도 있어요.)

104010 # 이건 따빗가레, 이건 잠뎃몽쿨ㄴ치 따빗몽쿨.(이건 따비 가레, 이건 쟁
깃술처럼 ‘따빗몽쿨’.)

104010 @ 이건 따빗몽쿨?(이건 ‘따빗몽쿨’?)

104010 # 응. 따비가 이젠 두 가달 해 가지고 이디 쉐 박아이. 잠대에 보섭ㄴ치.
따빗가레.(응. 따비가 이젠 두 가달 해 가지고 여기 쇠 박아. 쟁기의 보섭처럼. 따비
가레.)

104010 @ 아.(아.)

104010 # 따비왓은이 밧이 잘 엇은 사름이나, 밧이 존 밧 엇인 사름.(따비밭은
밭이 잘 엇는 사름이나, 밧이 좋은 밧 엇는 사름.)

104010 @ 응.(응.)

104010 # 이제 늬의 밧 흐뎡 이제 뉘헌 밧 빌영 따비로 이경 해 먹으렌 허민.
경허곡 또 밧이 존 밧 이서도 여전⁵⁵덜 신 사름.(이제 남의 밧 조금 이제 뉘헌 밧
빌어서 따비로 일귀서 해 먹으라고 하면. 그리고 또 밧이 좋은 밧 있어도 ‘여전’들
잇는 사름.)

104010 @ 여전은 뉘? (‘여전’은 뉘?)

104010 # 이 밧 예엇덜게. 쉐로 못 가는 디. 그런 디는 따비로 갈아. 갈아난, 갈
아났어.(이 밧 옆에들. 소로 못 가는 데. 그런 데는 따비로 갈아. 갈았었어, 갈았었
어.)

104010 @ 아.(아.)

104010 # 겨곡 옛날은이 따비가 필요허여, 무신 일 때도 이 따빌 가사 테도 일
고.(그리고 옛날은 따비가 필요해, 무슨 일 때도 이 따비가 가야 잔디도 일구고.)

104010 @ 어떤 일 때?(어떤 일 때?)

104010 # 장스 때에. 그런 때도이 이 따빌 가야 그 테역을 일러. 따비도 필요허
여. 흐쉴허민 따비왓 갈앙 배고프곡.(장사 때에, 그런 때도 이 따비가 가야 그 잔디
를 일귀. 따비도 필요해. 조금하면 ‘따비밭 갈아서 배고프고’.)

104010 @ 따비왓 갈앙 배고프곡?(따비밭 갈아서 배고프고?)

104010 # 따비왓 갈민 배고프주게.(따비밭 갈면 배고프지.)

104010 @ 힘들영?(힘들어서?)

104010 # 힘들영.(힘들어서.)

104009 @ 목장은 어떻 관리해마씨?(목장은 어떻게 관리해요?)

104009 # 스뉘 옛날에는이 우리 어린 때는 도적놈도 엇고 그냥 이제 농서 지어
냥 저을만 멕이당 목장에 올리면 쉐덜이 지대로 먹곡 물 먹곡 헤영 살았어.(사뉘 옛
날에는 우리 어린 때는 도적놈도 없고 그냥 이제 농사 지어놓고 겨을만 먹이다가
목장에 올리면 소들이 자기대로 먹고 물 먹고 해서 살았어.)

104009 @ 응.(응.)

55) ‘여전’은 ‘예전이’라고도 하는데 한 밧 안에서 경작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104009 # 경허단 이 제국 시절을 나가니까 쉼을 이제 간술 안 허민 안 웨여이.
(그러다가 이 제국 시절이 나니까 소를 이제 간수를 안 하면 안 돼.)

104009 @ 응.(응.)

104009 # 도적놈도 하고 해가난. 그때는 이제 쉼 허는 사름이 다 돌아가명, 번
쉼⁵⁶⁾ 해 가지고 이 집이, 오늘 누게네 맥어나민 누게네 허명 그 돌아가명 이제 쉼
를 간수허여났저게.(도적놈도 많고 해가니까. 그때는 이제 소 하는 사람이 다 돌아
가면서, ‘번쉼’을 해 가지고 이 집이, 오늘 누구네 먹어나면 누구네 하면서 그 돌아
가면서 이제 소를 간수했었어.)

104009 @ 아.(아.)

104009 # 번쉼라고 해 가지고 허당 이제 쉼이 이제 상강일이 되면 쉼 들여와야
웨여. 상강일 웨민 다 허제허여.(‘번쉼’라고 해 가지고 하다가 이제 소가 이제 상강
이 되면 소를 들여와야돼. 상강이 되면 다 해지해.)

104009 @ 허제?(‘허제’?)

104009 # 그 다 갈라, 쉼, 이녁 쉼만씩. 경허민 이젠 드신 뎨 이제 어디 강 이녁
만 맥이당 몰아오고. 출을 못 맥이난.(그 다 갈라, 소, 자기 소만씩. 그러면 이제 따
뜻할 뎨 이제 어디 가서 자기만 먹이다가 몰아오고. 풀을 못 먹이니까.)

104009 @ 응.(응.)

104009 # 제기 들여놓민 출을 당허지 못허난. 경혜영 허당 막 얼민 이제 집이
다 들여와.(빨리 들여 놓으면 풀을 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가 아주 추우
면 이제 집에 다 들여와.)

104009 @ 마을 목장도 헤낫수과?(마을 목장도 했었습니까?)

104009 # 응, 마을 목장 이서난디게. 선홀도 이제 옷마장, 알마장 경혜영. 경혜
연 해난. 드르에 목장보고 마장, 마장도 싯고 또로 더 우터레 가민 지경이 다 셔
또. 고므루 지경이여 뭐 뱅뒤 무신 이젠 그 뱅뒤도 다 이름도 바꾸고 우리 두린 때
거 었어.(응. 마을 목장 있었는데. 선홀도 이제 ‘옷마장’, ‘알마장’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했었어. 들에 목장 보고 마장, 마장도 있고 또 더 위로 가면 지경이 다 있어
또. ‘고므루 지경’이다 뭐 별판 무슨 이제 그 별판도 다 이름도 바꾸고 우리 어린
때 그거 없어.)

104009 @ 아.(아.)

104009 # 못뱅뒤⁵⁷⁾여 무신 시릿뱅뒤⁵⁸⁾여 그런 너른 목장도 다 이젠 다 이녁만
씩 관리허연 다 팔아먹어 불고 외국사름싯디 다 팔아 불고.(‘못뱅뒤’다 무슨 ‘시릿뱅
뒤’다 그런 너른 목장도 다 이젠 다 자기만큼씩 관리해서 다 팔아먹어 버리고 외국
사람에게 다 팔아 버리고.)

104009 @ 응.(응.)

104009 # 녹산장⁵⁹⁾도 제동목장⁶⁰⁾이라난 거 무신 뭐 그건 조천읍 관할일 거라.

56) ‘번쉼’은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돌보는 소를 이른다.

57) ‘못뱅뒤’는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 근처의 지명이다.

58) ‘시릿뱅뒤’는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 근처의 지명이다.

조천읍 지경이 잇고 또 구좌읍 지경이 잇어이.(녹산장도 제동목장이었던 거 무슨 뭐 그건 조천읍 관할일 거야.)

104009 @ 응.(응.)

104009 # 다 지경도 딱나. 경행 다 갈라. 췌가 어디 달아나면 구좌읍 목장에 들어갓저, 이 조천읍 췌가.(다 지경도 달라. 그렇게 해서 다 갈라. 소가 어디 달아나면 구좌읍 목장에 들어갓다, 이 조천읍 소가.)

104009 @ 응.(응.)

104009 # 경허곡 또 못벙뒤 가 불어서라, 영허명 소문 들으명 췌도 좇아.(그리고 또 ‘못벙뒤’ 가버렸더라, 이렇게 하면서 소문 들으면서 소도 좇아.)

104009 @ 췌 일러불민예, 표시도 해야 돼여?(소 잃어버리면요, 표시도 해야 돼?)

104009 # 표시허고말고. 표시는이 이 선흘은 우리집이 그 녀인 이제도 어디 실 거여.(표시허고말고. 표시는 이 선흘은 우리집에 그 녀인 이제도 어디 있을 거야.)

104009 @ 응.(응.)

104009 # 녀인 췌로 멘들아 가지고, 췌 아프주마는 그 녀인 안허민 췌 못 좇아.(녀인 쇠로 만들어 가지고, 소 아프지마는 그 녀인 안하면 소를 못 좇아.)

104009 @ 응.(응.)

104009 # 이제 봄 나민 그 송애기 나근에 풀지 못헌 맨 그 녀인을 불에 귀근에 잠지에 탁허게 헤영. ‘한가지 동’제 헤영 허민 우리집이 셔났어.(이제 봄 나면 그 송애기 나서 팔지 못한 맨 그 녀인을 불에 구어서 잠지에 탁허게 해서. ‘한가지 동’자 해서 하면 우리집에 있었어.)

104009 @ 응.(응.)

104009 # ‘한가지 동’제 녀인 어디 실 거라, 이제도.(‘한가지 동’자 녀인 어디 있을 거야, 이제도.)

104009 @ 아.(아.)

104009 # 우리 시하르버님네 췌물 많이 헤나난, 옛날은. 그 ‘한가지 동’제, 이 선흘 알동넛 건 거로 ‘한가지 동’제 녀인 우리집이 거 자꾸 빌려줘났주게.(우리 시할 아버님네 마소 많이 했었어, 옛날은. 그 ‘한가지 동’자, 이 선흘 아랫동네 것은 그거로 ‘한가지 동’자 녀인 우리집의 거 자꾸 빌려줬었어.)

104009 @ 예.(예.)

104009 # 경허단 뭐 이젠 뭐 그런 거, 저런 거.(그러다가 뭐 이젠 뭐 그런 거, 저런 거.)

104009 @ 산에 불 부껴야 좋아?(산에 불 붙여야 좋아?)

59) ‘녹산장’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대륙산과 성읍리 따라비 오름 일대의 평원에서 조선 후기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대규모 말 목장이다.

60) ‘제동목장’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목장으로 조선 후기에 설치되었던 산마장 중 녹산장 터를 개척하여 만든 것이다.

104009 # 응, 좋아났저게, 옛날은. 이젠게 불 금지헐 아이 부쩍노난 막 낭허고 가시만 막 성허염주게.(응, 좋았었어, 옛날은. 이제는 불 금지해서 안 붙여놓으니까 아주 나무하고 가시만 아주 성하고 있지.)

104009 @ 아.(아.)

104009 # 이제 소덜도 경 난장에 낱 아이 질루고 허난. 옛날은 이디도 알산전⁶¹⁾도 불 부쩍 쉼 키우고 또로 저디 가민 옷산전⁶²⁾이엔 행 그디도 방에 부쩍 소 키우고 경했주.(이제 소들도 그렇게 난장에 놓고 안 기르고 하니까. 옛날은 여기도 ‘알산전’도 불 붙여서 소 키우고 또 저기 가면 ‘옷산전’이라고 해서 거기도 방화 붙여서 소 키우고 그렇게 했었지.)

104009 @ 응.(응.)

104009 # 저을에는 집이 메당, 물은 주로 드르에 살곡.(겨울에는 집에 매다가, 말은 주로 들에 살고.)

104009 @ 소는 언제쯤 올려 보내는 거마씨?(소는 언제쯤 올려 보내는 거예요?)

104009 # 소는 이월, 삼월 초상 돼민 올려 보내어. 청명 넘어가민.(소는 이월, 삼월 초상 되면 올려 보내. 청명 넘어가면.)

104009 @ 그디 소 보는 사름이 셔?(거기 소 보는 사름도 있어?)

104009 # 그 옛날은 이제 옛날은 도둑놈도 엇고, 소를 이제 그추록 헤영 드르에 올령 내불민 혼 번이나 가끔 이녁 소들 보러 가단 이제 시대가 험악해 가니까 번췌를 허여, 동네에서 돌아가명, 번췌.(그 옛날은 이제 옛날은 도둑놈도 없고, 소를 이제 그렇게 해서 들에 올려서 내버리면 한 번이나 가끔 자기 소들 보러 가다가 이제 시대가 험악해 가니까 ‘번췌’를 해,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번췌’)

104009 @ 돌아가명 보는 거?(돌아가면서 보는 거?)

104009 # 응, 돌아가명 오닐은 누게 볼 사름 허영 다 마탕덜이 동네에 췌덜을 모왕. 경허명 이제 맥이곡 집이 또 들어올 땐 다 그찌 들여 놓곡.(응, 돌아가면서 오늘은 누가 볼 사름 해서 다 말아서 동네에 소들 모아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먹고 집에 또 들어올 땐 다 같이 들여 놓고.)

104009 @ 아.(아.)

104009 # 경허당 이제 청명이 넘으면은 또 우터레 드르에 낱 번췌허영 허곡 경했주.(그러다가 이제 청명이 넘으면 또 위로 들에 놓고 ‘번췌’하면서 하고 그렇게 했지.)

104009 @ 응.(응.)

104009 # 겨단 그 제국 시절이 돼 가니까이 막 험악해 가지고 시대가 도둑놈도 싯고.(그러다가 그 제국 시절이 돼 가니까 아주 험악해 가지고 시대가 도둑놈도 싯고.)

104009 @ 응.(응.)

61) ‘알산전’은 아래를 의미하는 ‘알’과 들판을 의미하는 ‘산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62) ‘옷산전’은 위를 의미하는 ‘옷’과 들판을 의미하는 ‘산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104009 # 쇠도 일러 먹어이. 경혜 가난 이제 번쇄허여, 옛날도.(소도 잃어 버려. 그렇게 해가니까 이제 ‘번쇄’해, 옛날도.)

104010 @ 출 날를 때 쇠에 얼마나 실렁 읍니까?(꿀 나를 때 소에 얼마나 실어서 읍니까?)

104010 # 출은 혼 바리 거의 시꺼, 서른 못.(꿀은 한 바리 거의 실어, 서른 못.)

104010 # 양쪽에 이젠 멧 못씩 헤영 무꺼근에 베로 딱딱 췌우멍 췌질메 지왕. 아이고 그 시절 거 살아져샤?(양쪽에 이젠 멧 못씩 해서 묶어서 바로 딱딱 조이면서 소 길마 지워서. 아이고 그 시절 그거 살 수 있었냐?)

104010 @ 계난예.(그러니까요.)

104010 # 아니 우리만 봐났주, 이제 두린 사름덜 봐나지도 안허고.(아니 우리만 봤었지, 이제 어린 사람들 봤었지도 않고.)

104010 @ 소 기르면서 기억나는 일이나 재미난 일이나 힘든 일은?(소 기르면서 기억나는 일이나 재미있는 일이나 힘든 일은?)

104010 # 재미난 건게 송아지 나근에 이제 허민. 송아지 날 땐 무서와.(재미있는 건 송아지 낳아서 이제 하면. 송아지 날 땐 무서워.)

104010 @ 무서와?(무서워?)

104010 # 송아지 재기 아이 난 때.(송아지 빨리 안 날 때.)

104010 @ 아, 재기 안 난 때 죽어불카부덴?(아, 빨리 안 날 때 죽어버릴까봐?)

104010 # 게 위험허주게, 것도. 게고 췌 클러 봐야 돼여, 석.(그러게, 위험하지, 그것도. 그리고 소 끌러 봐야 돼, 고삐)

104010 @ 석을 클러봐야 돼여?(고삐를 끌러봐야 돼?)

104010 # 응, 쇠도게 영 몸을 움직여사 새끼 날 거 아니가게? 경허난 영 뽕 송애기, 쇠가 새끼 낳직 허민 췌 클러 봐야.(응, 소도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새끼를 낳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송아지, 소가 새끼를 낳을 것 같으면 소 끌러 봐야.)

104010 @ 아.(아.)

104010 # 나 혼 번 쇠 클르단 이디 다천 나도 막 병원에 땡겨났저.(나 한 번 소 끌르다가 여기 다쳐서 나도 막 병원에 다녔었어.)

104010 @ 어떻 발로 차불언?(어떻게 발로 차버렸어?)

104010 # 아니, 쇠가 영 보난 밤이 뉘뚱서 들으난. 저 하르방 간세로 아이 나가. 경허난이 막 췌 장식⁶³⁾ 소리 나난 가보난 송애기 나젠 허는다.(아니, 소가 이렇게 보니까 밤에 누어서 들으니까. 저 할아버지 게으름으로 안 나가. 그러니까 난 막 소 ‘장식’ 소리 나니까 가 보니까 송아지 낳으려고 하는데.)

104010 @ 응.(응.)

104010 # 쇠가 그냥 이 뽕에 이제 베 걸리고 쇠가 오몽을 못험시난이 석 클러 노난 췌 확 일언사난 난 저 사료통에 탁 받안. 경행 가심 폐불엇세.(소가 그냥 이

63) ‘장식’은 몸이 편안하지 못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끙끙 내는 소리를 말한다.

뿔에 이제 바 걸리고 소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고삐 끌러놓으니까 소는 확
일어서니까 난 저 사료통에 탁 부딪쳤어. 그렇게 해서 가슴 패버렸어.)

104010 @ 뿔에?(뿔에?)

104010 # 아니, 아니, 그 사료통. 물 주는 통에.(아니, 아니, 그 사료통. 물 주는
통에.)

104010 @ 그디 부딪친 거?(거기 부딪친 거?)

104010 # 부딪친. 게 이디 폐부난 병원에 오래 텅겨난. 가심 아팠. 겨고 그 쉼
많이 허는 사름덜은 밤이 줌 못 자, 것도.(부딪쳤어. 그러게 여기 패버리니까 병원
오래 다녔었어. 가슴 아파서. 그리고 그 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밤에 잠 못 자, 그
것도.)

104010 @ 무사?(왜?)

104010 # 송애기 나카부덴, 기다려야 돼. 날 시가 돼민.(송아지 낳을까봐, 기
다려야 돼. 날 시간이 되면.)

104010 @ 뭘 해 줘야 돼?(무얼 해 주어야 돼?)

104010 # 아니, 그냥 나도 봐야주게. 짐승이 혼엇이 헤지느냐게? 잘못돼민 애미
조끗더래 송애기 앓아놔주고 계사 할라사 돼. 쉼가 곧 나민 할라. 애미가 할라
줘.(아니, 그냥 낳아도 봐야지. 짐승이 한없이 할 수 있니? 잘못되면 어미 옆에 송
아지도 가져다 놔주고 그래야 활아야 돼. 소가 곧 낳으면 활아. 어미가 활아줘.)

104010 @ 아.(아.)

104010 # 요새는 발전해 가지고 곧 낳 어디레 아져가도 송애기가 어떻 안 헌덴
허주마는 사름덜이 관릴 해 가지고. 사름 손으로도 다까주고.(요새는 발전해 가지고
곧 낳아서 어디로 가져가도 송아지가 어떻게 안 한다고 하지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사름 손을 닦아주고.)

104010 @ 응.(응.)

104010 # 건디 옛날은 경 안헤여. 쉼가 이제 다까줘. 게민 다끄민 쉼가 오들랭
이 일어나. 경허주게. 경 우리도 쉼 저디 맨 때게 그추록 허영. 암쉼 세 개도 메고
두 개도 메영 송애기 나민 풀양 씨고, 그겨주게.(그런데 옛날은 그렇게 안 해. 소가
이제 닦아줘. 그러면 닦으면 소가 '오들랭이' 일어나. 그러지. 그렇게 우리도 소 저
기 맨 때 그렇게 해. 암소도 세 개 매고 두 개도 매어서 송아지 않으면 팔아서도
쓰고, 그거지.)

104010 @ 응.(응.)

104010 # 저디 살 땐 쉼 혼 일고으답ㄱ장 허단 것도 귀찮연 설러불고 아이덜
욕아가고 허난 시에 매날 학교 허는 디 텅기고 저르 엇영 못허여.(저기 살 땐 소 한
일고여덱까지 하다가 그것도 귀찮아서 그만두고 아이들 성장해 가고 하니까 제주시
에 매날 학교 하는 데 다니고 겨를 없어서 못해.)

말 기르기

104011 @ 말도 키워났수가?(말도 키웠었습니까?)

104011 # 들은 저 하르방⁶⁴)은 두린 때 막 하영 킵단 스삼사건에 문딱 일러떡언 그루후젠 안 키우고.(말은 저 할아버지는 어릴 때 아주 많이 키우다가 사삼사건에 모두 잃어 버리고 그 후엔 안 키우고.)

104012 @ 말도 색깔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까?(말도 색깔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까?)

104012 # 들도 그거.(말도 그거.)

104012 @ 무신 가라말 이런 거 이수계?(무슨 가라말 이런 거 있잖아요?)

104012 # 가라말⁶⁵)은이 건 거무룽, 스룽 검도 안허고 회도 안 현 거.(가라말은 건 거무스름, 사룽 검지도 았고 회지도 안 한 거.)

104012 @ 응.(응.)

104012 # 가라말이엔 현 거 굿사 식송애기⁶⁶)추룩 들도 그런 색이 이서.(가라말이라고 한 거 아까 칩송아지처럼 말도 그런 색이 있어.)

104012 @ 아.(아.)

104012 # 경허고 또 노린 건 적다말⁶⁶)이고, 또로 이제 흰 건 백매, 또로 저 회도 아녀곡 검도 아년 건 누룩총이⁶⁷)엔 허영.(그리고 또 노란 건 절따말이고, 또 이제 흰 건 백매, 또 저 회지도 았고 검지도 았은 건 ‘누룩총’이라고 해.)

104012 @ 누룩총?(‘누룩총’?)

104012 # 누룩총이엔도 현 건 좋은 물이라. 색깔 좋은 거.(‘누룩총’이라고 한 것은 좋은 말이야. 색깔 좋은 거.)

104012 @ 아.(아.)

104012 # 또로이 얼룩빠기⁶⁸)란 율라말⁶⁸). 노린 건 적다말.(또 얼룩빠기보고는 율라마. 노란 건 절따말.)

104012 @ 청총마⁶⁹)는?(청총마는?)

104012 # 청총이가 그거라 굿사 나 곁은 거. 청총이.(청총마가 그거야 아까 나 말한 거. 청총마.)

104012 @ 청총이가 뭐라고?(청총마가 뭐라고?)

104012 # 청총이가 일등일 거라. 일청총, 이가라. 일청총, 이가라. 게도 가라말이 이등에 가나실걸.(청총마가 일등일 거야. 일청총, 이가라. 일청총, 이가라. 그래도 가라말이 이등에 갔었을걸.)

104012 @ 검은말은, 검은말이 가라말 아니?(검은말은, 검은말이 가라말 아니?)

104012 # 가라말이 스룽 검도 안년 거. 들은 막 거멍헌 물이 엇어. 가라말이 그 걸 걸.(가라말이 사룽 검지도 았은 거. 말은 아주 검은 말이 없어. 가라말이 그것일

64) ‘하르방’은 제주어로 ‘할아버지’를 뜻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남편을 가리킨다.

65) ‘가라말’은 털빛이 온통 검은 말이다.

66) ‘적다말’은 몸 전체의 털색이 밤색이거나 불그스름한 말인데 제보자는 노랑다고 표현하고 있다.

67) ‘누룩총’은 털 색깔이 누르스름하며 점박이가 있는 말이다.

68) ‘율라말’은 털빛이 얼룩얼룩한 말이다.

69) ‘청총마’는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한 백마다.

결.)

104012 @ 가라말도 있고, ㄹ라말⁷⁰도 있는 거 아니?(가라말도 있고 ㄹ라말도 있는 거 아니?)

104012 # ㄹ라말은 엇고.(고라말은 없고.)

104012 @ ㄹ라말은 엇고?(고라말은 없고?)

104012 # 하엇튼 일청총 이가라 삼 미시것고, 것도 잊어불언.(하여튼 일청총 이가라 삼 무엇이니, 그것도 잊어 버렸어.)

104012 @ 응.(응.)

104012 # 적다물은 노린 거. 적다물이 쨌 색이 좋아, 물에서. 흰 건 백매. ㄹ사 그 일청총은 아주 좋은 거라이, 희도 안허고 회색, 회색. 회색이 일청총, 것이.(절따말은 노란 거. 절따말이 제일 색이 좋아, 말에서. 흰 건 백매. 아까 그 일청총은 아주 좋은 거야, 희지도 앓고 회색, 회색. 회색이 일청총, 그것이.)

104012 @ 예.(예.)

104012 # 경혜근엥이 네 가지. 율라말 ㄹ장 허민 다섯 가진가? 경 쨌 거여. 율라말은 얼룩베기게. 또 물도 태성백이⁷¹ 잇주.(그렇게 해서 네 가지. 율라말까지 하면 다섯 가진가? 그렇게 될 거야. 율라말은 얼룩베기. 또 말도 ‘태성백이’ 있지.)

104012 @ 아, 물도 이수과?(아, 말도 있습니까?)

104012 # 응, 물도 태성백이.(응, 말도 ‘태성백이’.)

104012 @ 간전인⁷² 뭐파?(간자말은 무엇입니까?)

104012 # 간전인 스뭇 율라도 아니고 이 얼굴만 흰 거 ㄹ라 간전이엔 험실거라. 이디만 흰 건 태성백이고. 물에도 이름이 하.(간자말은 사뭇 율라도 아니고 이 얼굴만 흰 거보고 간전이라고 하고 있을 거야.)

104012 @ 천상부리 이런 것도 이수과?(천상부리 이런 것도 있습니까?)

104012 # 안 들어난디.(안 들었었는데.)

104012 @ 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이신가? 색깔 말고. 등이 굽은 말 이런 거.(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가? 색깔 말고. 등이 굽은 말 이런 거.)

104012 # 아, 등 굽은 거, 물 흐쨌 고부랭이⁷³엔 헤나실 거라. 물도 흐뭍 등어리 튀어나고 고부룻현 말이 있어.(아, 등 굽은 거, 말 조금 ‘고부랭이’라고 했었을 거야. 말도 조금 등이 튀어나고 굽은 말이 있어.)

104013 @ 말은 뭐할 때 사용합니까?(말은 뭐할 때 사용합니까?)

104013 # 물은 스용허는 게 벨로 엇어. 이 구루마나 끄꼭 헛주, 밧도 아니 갈고. 키와근엥이 푸는 거.(말은 사용하는 게 별로 없어. 이 달구지나 끌고 헛지, 밧도 안 갈고. 키워서 파는 거.)

104013 @ 누계가 사?(누가 사?)

70) ‘ㄹ라말’은 등마루를 따라 검은 털이 난 누런 말이다.

71) ‘태성백이’는 이마에 흰털이 별모양으로 박힌 동물을 말한다.

72) ‘간전이’는 ‘간자말’의 제주어로 이마와 뺨이 흰 말이다.

73) ‘고부랭이’는 꼬부라진 동물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곰배말을 이르는 것이다.

104013 # 말 사가는 사람이 이서, 것도. 그때도이 말이 좋아근앵이 이제 말 타 근앵이 막 허민 막 좋은 말로 나가.(말 사가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그때도 말이 좋아서 이제 말 타서 막 하면 아주 좋은 말로 나가.)

104013 @ 사람이 타려고?(사람이 타려고?)

104013 # 응, 타는 말이 얼마나 째 가나시게?(응, 타는 말이 얼마나 값 나갔었 니?)

104013 @ 경마장에 쓰는 거 아니고?(경마장에 쓰는 거 아니고?)

104013 # 아니, 옛날은 가정마다 타는 말도 하나씩 있나. 우리 아버지네도 타는 말 이서났서.(아니, 옛날은 가정마다 타는 말도 하나씩 있어. 우리 아버지도 타는 말 있었었어.)

104013 @ 아, 차 옛이난.(아, 차 없으니까.)

104013 # 어디 갈 때는 탕 땡겨. 안장 탁 지우꼭 허영 자갈행 물렁 그 방울 이서. 동골동골 허는 그 말소굴레에. 경허민 말방울 달랑달랑.(어디 갈 때는 타서 다녀. 안장 탁 엇고 해서 재갈해서 물려서 그 방울 있어. ‘동골동골’ 하는 그 말굴레에. 그러면 말방울 달랑달랑.)

104013 @ 무신 굴레?(무슨 굴레?)

104013 # 말소굴레. 영 물려근앵 이젠 영 말 타둬서 영 이경 이제도 선계. 말소 굴레, 소굴레 물렁 겨꼭 방울 들렁 달랑달랑 헤가민.(말굴레. 이렇게 물려서 이젠 이렇게 말 타서 이렇게 이끌어서 이제도 있던데. 말굴레, 말굴레 물려서 그리고 방울 달려서 달랑달랑 해 가면.)

104013 @ 응.(응.)

104013 # 말 안장 지왕 탁허게 타근에. 새서방 새각시 갈 때도 새서방도 탕 가 꼭 우시도 탕 가꼭. 타는 말 이녀 거 옛이민 늬의 거 빌어당 탕 가. 먼 디나 갈 때 말이 셔야 웨여. 우시 가는 사람도 다 탕 가고.(말 안장 엇어서 탁하고 타서. 새신 랑 새색시 갈 때도 새신랑도 타서 가고 위요도 타서 가고. 타는 말 자기 거 없으면 남의 거 빌려다가 타서 가. 먼 데나 갈 때 말이 있어야 돼. 위요 가는 사람도 다 타서 가고.)

104013 @ 말은 주로 이동할 때 차 대신 쓰는 거구나예. 쉼은 밧디 일허는 거고.(말은 주로 이동할 때 차 대신 쓰는 거군요. 소는 밧에 일하는 거고.)

104013 # 밧디 일허는 거고. 말도 또 타는 말도 아무 집이나 엇어. 말 태우는 집이도 하나 마리청 타는 말. 밧 불릴 때도 그 말 타근앵이 소리허명 말 탕 불려. (밭에 일하는 거고. 말도 또 타는 말도 아무 집이나 엇어. 말 태우는 집도 하나 가르쳐서 타는 말. 밧 밟을 때도 그 말 타서 소리하면서 말 타서 밟아.)

104013 @ 아, 밧 불릴 때도 말로?(아, 밧 밟을 때도 말로?)

104013 # 말 탕 흔 사람 몰아.(말 타서 한 사람 몰아.)

104013 @ 밧 불리는 건 쉼은 안허고 말이 허여?(밭 밟는 건 소는 안하고 말이 해?)

104013 # 물만 헤여. 아명도 못헿 췌도 불리주마는 물로. 물테 막 하영 헤연게 스몯. 우리 하르방넨 어린 때 물테우리 헤난. 스삼사건 때문에 물테도 다 일러먹고.(말만 해. 아무렇게도 못 해서 소도 밟지만 말로. 말때 아주 많이 해서 사몯. 우리 할아버지네는 어릴 때 ‘말테우리’ 했었어. 사삼사건 때문에 말때도 다 잃어 먹고.)

104014 @ 말도 나이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까?(말도 나이에 따라 이름이 다르잖아요?)

104014 # 아, 둘은 뭐 삼수, 스수허지 안허여. 몽생이.(아, 말은 무 삼수, 사수하지 않아. 망아지.)

104014 @ 한살은 금승?(한살은 금승?)

104014 # 응, 금싱, 이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 영 허지. 췌영 그따.(응, 금승, 이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 이렇게 하지. 소와 같아.)

104014 @ 구수엔도 헵니까?(구수라고도 헵니까?)

104014 # 막 늙은 물. 물은 이제 게도 물이 오래 산텐 허여. 물 서른, 췌 스물. 옛날 말이 경 곶아. 그까장 산텐 헤도 그까장 살지 아녀.(아주 늙은 말. 말은 이제 그래도 말이 오래 산다고 해. 말 서른, 소 스물. 옛날 말이 그렇게 말해. 그까지 산다고 해도 그까지 살지 않아.)

104015 @ 말 키우면서 기억나는 일 엿수과?(말 키우면서 기억나는 일 없습니까?)

104015 # 기억나는 거 엿어.(기억나는 거 없어.)

104015 @ 물 탕당 털어져 나진 안헤넛수과?(말 탕다가 떨어지진 않았었습니까?)

104015 # 물 탕당 털어지민 허리 상허영 들러키민 그냥 털어정 큰일 나주게.(말 탕다가 떨어지면 허리 상해서 날뛰면 그냥 떨어져서 큰일 나지.)

104015 @ 할머니가 경헤 본 적은 엿고?(할머니가 그렇게 해 본 적은 없고?)

104015 # 엿고. 우리 하르방 물 잘 타. 물 심기도 일등으로 허단에 물 엿어부난 안허여. 경헤도 췌도 잘 걸리고 헤난.(없고. 우리 할아버지 말 잘 타. 말 잡기도 일등으로 하다가 말 없어버리니까 안 해. 그래도 소도 잘 잡고 했었어.)

104015 @ 물이 비싸? 췌가 비싸?(말이 비싸? 소가 비싸?)

104015 # 췌가 비싸. 밧도 갈곡 췌는 고기용으로 사름덜이 췌고기 이제 제숙⁷⁴⁾도 씨고 경허니까 비싸고 물고기는 제숙을 안 쓰주게.(소가 비싸. 밧도 갈고 소는 고기용으로 사람들이 소고기 이제 제육도 쓰고 그러니까 비싸고 말고기는 제육 안 쓰지.)

104015 @ 응.(응.)

104015 # 요새에는 이 물고기도 주로 먹엄신디 먹어서 그 하영 소비를 시키는디 옛날은 물코기 경 먹지 안허여. 안 먹어. 요새엔 게고 콜리지도 안헿 허는디 유

74) ‘제숙’은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를 말하는 것으로 ‘제육’의 제주어다.

월절 들고 칠월에는 몰코기 안 먹어.(요새에는 이 말고기도 주로 먹고 있는데 먹어서 그 많이 소비를 시키는데 옛날은 말고기 그렇게 먹지 않아. 안 먹어. 요새는 그 리고 가리지도 않아서 하는데 유월절 들고 칠월에는 말고기 안 먹어.)

104015 @ 아, 여름에는 말고기 안 먹어?(아, 여름에는 말고기 안 먹어?)

104015 # 안 먹어, 옛날은.(안 먹어, 옛날은.)

104015 @ 무사 안 먹어?(왜 안 먹어?)

104015 # 좋지 안헌덴. 유월절이 들면은 이제 칠월절 들면은이 몰코기 안 먹어. 옛날 경 골아난. 요새 골리지 아녀. 구시월은 나면은 먹어도 켜찬여덴. 구시월에 몰케기는 맛도 좋덴, 경 구시월 몰케기 이렇게 골아나고. 건디 칠월 이제 칩이 쫓 피여이. 꼭 알아져?(좋지 않다고. 유월절 들면 이제 칠월절 들면은 말고기 안 먹어. 옛날 그렇게 말했었어. 요새 가리지 않아. 구시월은 나면은 먹어도 괜찮다고. 구시월에 말고기는 맛도 좋다고, 그렇게 구시월 말고기 이렇게 말했었고. 그런데 칠월 이제 칩이 쫓 피어. 칩 알아?)

104015 @ 예, 꼭.(예 칩.)

104015 # 칩고장 피민 몰케기 안 먹넨 해낫어.(칩쫓 피면 말고기 안 먹는다고 했었어.)

104015 @ 칩고장 피민 몰케기 안 먹는 거라.(칩쫓 피면 말고기 안 먹는 거야.)

104015 # 옛날은.(옛날은.)

104015 @ 예.(예.)

104015 # 요새엔 뭐 원료덜 좋니까 먹어도 어떻 안 햄실테주마는.(요새는 뭐 원료들 좋으니까 먹어도 어떻게 안 하고 있겠지마는.)

104015 @ 꼭고장?(칩쫓?)

104015 # 꼭고장. 피주게 막 벌겁게, 칠월 나민.(칩쫓. 피지 아주 벌겁게, 칠월 나면.)

떡이

104017 @ 출 장만 해난 거 골아줍서.(꿀 장만 했던 거 말해주세요.)

104017 # 출 장만허는 거? 출 비엥게 몰류양 무경근에 비오민 막 즈들아. 몰류지 못허니까. 과랑게시리 몰류아사 소도 잘 먹고 찜 기분 좋게 해당 눌엇당, 비오민 안돼. 비 왕 젓이민 안돼.(꿀 장만하는 거? 꿀 베어서 말려서 묶어서 비오면 아주 걱정돼. 말리지 못하니까. 과랑게 말려야 소도 잘 먹고 찜 기분 좋게 해다가 가렸다가, 비 오면 안 돼. 비 와서 젓으면 안 돼.)

104017 @ 비엥 와야 될 거 아니?(베어서 와야 될 거 아니?)

104017 # 비어낱 물리왕 무경 구루마로 시꺼들영 우리 산 후제는 구루마로 하여 영 시껏주게. 옛날은 질메로 시껏주마는. 경허단 경운기.(베어놓고 말려서 묶어서 달구지로 실어서 우리 산 후에는 달구지로 많이 실었지. 옛날은 길마로 실었지마는. 그러다가 경운기.)

104018 @ 출은 비젠 허민 놉도 빌어살 거 아니?(꿀은 베려고 하면 놉도 빌어야 할 거 아니?)

104018 # 사름덜 빌영 강. 그거는 구좌면, 이 손당⁷⁵⁾ 그 낫질을 잘허는디 선홀은 낫질허는 이도 벨로 옅어.(사람들 빌어서 가서. 그거는 구좌면, 이 송당 그 낫질 잘하는데 선홀은 낫질하는 이도 벨로 없어.)

104018 @ 그디 사름덜 빌어당 허여?(거기 사람들 빌어다가 해?)

104018 # 그디 사름도 빌어당 허고. 호미로 비어, 호미로.(거기 사람도 빌어다가 하고. 낫으로 베어, 낫으로.)

104018 @ 큰 낫도 잇던데.(큰 낫도 잇던데.)

104018 # 돌멩이 셔부난게, 돌멩이 하불민 못허여. 건 돌 옅인 디라사. 걸려 가지고 못 허여. 호미로가 하영 비어.(돌멩이 있어버리니까. 돌멩이 많아 버리면 못해. 그건 돌 없는 데라야. 걸려 가지고 못 해. 낫으로가 많이 베어.)

104018 @ 호미로가 하영 비어.(낫으로가 많이 베어.)

104018 # 놉 빌어근에 출 비레 가민이 옛날은 아침 인칙 이젠 조반허영 왕 조반덜 먹읍서 헤영 이젠 가. 이제 점심 이젠 지영 강 저녁도 오랑 먹어사 돼여. 저녁 낫장 맥여.(놉 빌어서 꿀 베러 가면 옛날은 아침 일찍 이젠 조반해서 와서 조반들 드십시오 해서 이젠 가. 이제 점심 이젠 지어서 가서 저녁도 와서 먹어야 돼. 저녁 까지 먹여.)

104018 @ 밥헝 맥이는 게 힘들켜예.(밥해서 먹이는 게 힘들겠네요.)

104018 # 중간은 웨가난 저녁은 아이 먹어고. 저녁은 집이 간 먹언. 우리도 저녁 낫장도 맥여난. 인칙 느려오랑 저녁해사 웨어. 아침이 조반 세백이 밤이 허영 조반 먹영 강 점심 허영 지영 강.(중간은 되어가니까 저녁은 안 먹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었어. 우리도 저녁까지도 먹었었어. 일찍 내려와서 저녁 해야 돼. 아침에 조반 새벽에 밤에 해서 조반 먹어서 가서 점심 해서 지어서 가서.)

104018 @ 아이고, 참.(아이고, 참.)

104018 # 경헌디 어른덜이 불쌍허주게. 요새 ㄴ치 무신 간식 먹을 게 시냐게? 간식도 옅고. 경허민 막 멍심헌 사름은이 집에서 떡허여, 상웨떡.(그런데 어른들이 불쌍하지. 요새처럼 무슨 간식 먹을 게 있니? 간식도 없고. 그러면 아주 명심한 사람은 집에서 떡해, 상화떡.)

104018 @ 응.(응.)

104018 # 쉰다리⁷⁶⁾ 헤 낫당 떡 퀘왕 행 가민 막 고맙덴 잘 먹어. 나도 멧 번 경해난. 보리밥 먹으면 배고프주게, 배고파.(‘쉰다리’ 해 놓았다가 떡 괴어서 해서 가면 아주 고맙다고 잘 먹어. 나도 멧 번 그렇게 했었어. 보리밥 먹으면 배고프지, 배고파.)

104018 @ 반찬은 무신 거 행 가?(반찬은 뭐 해서 가?)

75) ‘손당’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를 이르는 말이다.

76) ‘쉰다리’는 밥과 누룩으로 담가 만든 발효 음료다.

104018 # 반찬은 웬장에 마놓지시. 미신 꿩기 해봤자 무신 멧 번 꿩 먹어져게? 고등어나 자리나 상 소금헛당 아정 강 구웁 먹긴 먹주마는 그걸로 대질 못허여.(반찬은 된장에 마늘장아찌. 무슨 고기 해봐야 무슨 멧 번 구어서 먹을 수 있어? 고등어나 자리나 사서 소금헛다가 가져가서 구워서 먹긴 먹지마는 그걸로 당하지 못해.)

104018 @ 응.(응.)

104018 # 요새 ㄹ찌 돼지고기? 그디 무판도 엇고 옛날은 흙치 엇어. 이 동네에 잇다근엥이 비나 오민 누게네 집이 도새기가 크면은 잡앙 갈라 먹게 헤영 그런 때 이제 흙뽀 갈랑덜 먹고 제숙 씨고 그렇게 헛지.(요새같이 돼지고기? 거기 식육점도 없고 옛날은 전혀 없어. 이 동네에 잇다가 비나 오면 누구네 집에 돼지가 크면은 잡아서 갈라 먹자 해서 그런 때 이제 조금 갈라서들 먹고 제숙 쓰고 그렇게 헛지.)

104018 @ 예.(예.)

104018 # 무판 엇어부난 꿩기도 못 갈랑 먹고, 쟁 기자.(식육점 없어버리니까 고기도 못 갈라서 먹고, 그래서 그냥.)

104018 @ 예.(예.)

104018 # 마놓지시가 이제도 좋주마는 좋아.(마늘장아찌가 이제도 좋지마는 좋아.)

104018 @ 응.(응.)

104018 # 건디 옛날은 장물에만 그 마놓지시를 해도 그렇게 맛이 좋앙이 난 벤허질 안허게 해났어.(그런데 옛날은 장물에만 그 마늘장아찌를 해도 그렇게 맛이 좋아서 난 변하지 않게 헛었어.)

104018 @ 응.(응.)

104018 # 그거 헛 아정 가민 그자 물에 즘앙 그 보리밥에 물재미엔 허멍덜 마놓지시에 그 물에 즘으멍 밥도 잘 먹어.(그거 해서 가져 가면 그냥 물에 말아서 그 보리밥에 물만다고 하면서들 마늘장아찌에 그 물에 말면서 밥도 잘 먹어.)

104018 @ 응.(응.)

104018 # 그득허게 오가리에 헤영 담앗당. 팔월들에도 꼬딱 안허여.(가득하게 그항아리에 해서 담앗다가. 팔월에도 썸썸 안해.)

104018 @ 응.(응.)

104018 # 새지시 나도록도 벤허지 안허여. 경헤난디 요새엔 하간 거 놓앙 헤 놓민 벤허여. 맛도 엇고.(새 장아찌 나도록 변하지 않아. 그랬었는데 요새는 온갖 거 놓아서 헤 놓으면 변해. 맛도 없고.)

104018 @ 예.(예.)

104018 # 우리집이 오민 마놓지시에 장 맛종텐 허여.(우리집에 오면 마늘장아찌에 장 맛있다고 해.)

104018 @ 출 무끄젠 허민 줄도.(꿀 묶으려고 하면 줄도.)

104018 # 께.(매끼.)

104018 @ 건 뵐로 만듭니까?(건 뵐로 만듭니까?)

104018 # 새로, 새로.(띠로, 띠로.)

104018 @ 새로.(띠로.)

104018 # 새 허영 출 무끄젠 허민 밤이 새 비영왕 밤이 깨 데와야 돼여.(띠 해서 풀 묶으려고 하면 밤에 띠 베어와서 밤에 매끼 틀어야 해.)

104018 @ 아.(아.)

104018 # 데왕 이제 혼 짐 지영 올라가. 가정 가민 빨리 헤지주게.(틀어서 이제 한 짐 저서 올라가. 가져 가면 빨리 할 수 있지.)

104018 @ 아.(아.)

104018 # 붓베기 데우멍 무끄젠 허민 오래고.(‘붓베기’ 틀면서 묶으려고 하면 오래고.)

104018 @ 무신거 데우멍?(무엇 틀면서?)

104018 # 깨 붓베기 데우멍 혼 못씩 허젠 허민 오래고.(매끼 ‘붓베기’ 틀면서 한 못씩 하려고 하면 오래고.)

104018 @ 붓베기가 뭐?(‘붓베기’가 뭐?)

104018 # 게 바로 그 깰 데왕 혼 못 무경 또 데왕 무꺼. 시간이 오래니까 깨를 미릇 데왕 지영 강 무껏주게. 일 출림으로.(그러게 바로 그 매깰 틀어서 한 못 묶어서 또 틀어서 묶어. 시간이 오래니까 매끼를 미리 틀어서 지어서 가서 묶었지. 일 차림으로.)

104018 @ 예.(예.)

104018 # 날이 막 좋아 가지고 출을 이제 멧 사름 빌영 강 이젠 오늘 비왕 날은 날 좋앗당 모리 무끄는 날 비가 와불지 아녀?(날이 막 좋아 가지고 풀을 이제 멧 사름 빌어 가서 이젠 오늘 비와서 내일은 날 좋았다가 모레 묶는 날 비가 와버리잖아?)

104018 @ 응.(응.)

104018 # 게민 출이 젓주게.(그러면 풀이 젓지.)

104018 @ 응.(응.)

104018 # 이 하르방은 비 온디 출 비엇다고 욱만. 역부로 경 비엇어?(이 할아버지는 비 오는데 풀 베었다고 욱만. 일부러 그렇게 베었어?)

104018 @ 게난 비 올 줄 알았어예?(그러니까 비 올 줄 알았어요?)

104018 # 경허민 동넛 사름덜은 저 집이 출 젓언 싸왓저, 싸왓저.(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저 집에 풀 젓어서 싸운다, 싸운다.)

104018 @ 비어근에 놔뒀당.(베어서 놔 두었다가.)

104018 # 삼일에 무꺼야 돼여.(삼일에 묶어야 돼.)

104018 @ 그 사이에 비 와불민 어떻허여?(그 사이에 비 와버리면 어떻게 해?)

104018 # 게난 게난 젓이민 싸왓주게. 이 하르방은 그자 막 못할 말 경 잘허주게, 난 더 답답행 허는다.(그러니까 그러니까 젓으면 싸우지. 이 할아버지 그냥 막 못할 말 그렇게 잘하지, 난 더 답답해서 하는데.)

104018 @ 계란.(그러니까.)

104018 # 하하하.(하하하.)

104018 @ 널영 말린 다음에 무끄는 거?(널어서 말린 다음에 묶는 거?)

104018 # 응, 비 개민 물류왕. 개민 색이 좋지 못하여.(응, 비 개면 말려서. 그러면 색이 좋지 못해.)

104018 @ 아.(아.)

104018 # 쉼도 잘 안 먹고. 비가 안 오랑 혼 열흘 날이 좋으면 출이 막 잘해져. (소도 잘 안 먹고. 비가 안 와서 한 열흘 날이 좋으면 풀을 아주 잘 할 수 있어.)

104018 @ 예.(예.)

104019 # 이디 놀도 막 그냥 오름만이 놀어.(여기 가리도 막 그냥 오름만큼 가려.)

104019 @ 집이?(집에?)

104019 # 응, 이디 시꺼당.(응, 여기 실어다가.)

104019 @ 쉼로 시꺼당?(소로 실어다가?)

104019 # 응, 우리 살 때 마차로 시꺼당. 쉼질멘 설러 붙어세. 옛날은 쉼질메로.(응, 우리 살 때 마차로 실어다가. 소 길마엔 그만뒤 버렸어. 옛날은 소 길마로.)

104020 @ 출 말고 다른 건 안 맥입니까?(풀 말고 다른 건 안 먹입니까?)

104020 # 다른 거가 어디 셔게? 조낭대기, 콩낭대기 다 맥여.(다른 것이 어디 있니? 조짚, 콩짚 다 먹여.)

104020 @ 조낭대기, 콩낭대기?(조짚, 콩짚?)

104020 # 콩대도 잘 먹고, 어디 셔게 그게게. 이 또 이 철 이젠 나가난 목초, 목초 갈안 맥염세게.(콩짚도 잘 먹고, 어디 있어 그게. 이 또 이 철 이젠 나가니까 목초, 목초 갈아서 먹이고 있잖아.)

104020 @ 이제야 경허주마는 옛날은.(이제야 그렇게 하지만 옛날은.)

104020 # 옛날엔 게 제대로 자연으로 난 거. 밧되 난 거 해마다 비어. 그런 출왔이 그런 밧이 이셔.(옛날엔 제대로 자연적으로 난 거. 밧에 난 거 해마다 베어. 그런 풀밭이 그런 밧이 있어.)

104020 @ 응.(응.)

104020 # 이젠 그런 밧도 깎만 잘 가고 뭘 햐주마는.(이젠 그런 밧도 깎만 잘 주고 뭘 하고 있지마는.)

104020 @ 응.(응.)

104020 # 옛날 그 출만 비어난 밧.(옛날 그 풀만 베었던 밧.)

104020 @ 응.(응.)

104020 # 막 이기명 용스도 비료 시절이난 잘 돼고 그뻐 돼도 안허고 출이나 비영 쉼나 질룸베피.(막 일구면서 농사도 비료 시절이니까 잘 되고 그뻐 되지도 않고 풀이나 베어서 소나 기르는 것밖에.)

104021 @ 출 헤나민 몸에 막 뭘 나고 굵히고.(풀 하고 나면 몸에 막 뭘 나고

굽히고.)

104021 # 허고말고게, 굽히꼭게. 요새 ㄴ찌 풀띠가 시냐, 장갑이 시냐?(하고말고, 굽히고. 요새처럼 토시가 있냐, 장갑이 있냐?)

104021 @ 계난.(그러니까.)

104021 # 우린 장갑도 아이 쨍 비어난, 그 시절에. 장갑도 나건 디 오래지 안혀서. 풀띠 나건 디도 오래지 안현.(우린 장갑도 안 끼고 베었었어, 그 시절에. 장갑도 나온 지가 오래지 않았어. 토시 나온 지도 오래지 않았어.)

104021 @ 예.(예.)

104021 # 이제사 뭐 풀띠여 뭐 장갑이여 뭐 또 양말도 겨울에나 신주. 어디 경출왔디 신영 땡길 양말은 셔? 아이고, 아이고.(이제야 뭐 토시다 뭐 장갑이다 뭐 또 양말도 겨울에나 신지. 어디 그렇게 꼴밭에 신어서 다닐 양말은 있어? 아이고, 아이고.)

104021 @ 하하하. 출은 언제 장만허는 거마씨?(하하하. 꼴은 언제 장만하는 거예요?)

104021 # 칠월 그물어 가민 팔월들.(칠월 저물어 가면 팔월.)

104021 @ 예.(예.)

104021 # 겐디 요새에는 목초논이 오월들에도 비꼭 겨꼭 기계로만 비엄주, 이젯 사름덜은. 쉼 허는 사람.(그런데 요새는 목초논 오월에도 비고 그리고 기계로만 베고 있지, 이제 사람들은. 소 하는 사람.)

104021 @ 응.(응.)

104021 # 기계로 허영 비니루로 튼튼 싸불민 걱정도 엇어, 비 맞을 걱정도. 목초도 비영 날이 좋아사허여, 목초도. 날우치면 안뵈.(기계로 해서 비닐로 단단하게 싸버리면 걱정도 없어, 비 맞을 걱정도. 목초도 베어서 날이 좋아야 해, 목초도. 날 안 좋으면 안 돼.)

104021 @ 응.(응.)

104021 # 목초도게 물리와사 무경 헐 거난 비어 낱 것도 무꺼.(목초도 말려야 묶어서 할 거니까 베어 놔서 그것도 묶어.)

104021 @ 것도 수눌영 출 비어?(그것도 품앗이해서 꼴 베어?)

104021 # 옛날엔 수눌영도 허주게. 출 허는 사름덜.(옛날엔 품앗이해서도 하지. 꼴 하는 사람들.)

104021 @ 눅 빌민 집이서 재우멍 허여?(눅 빌면 집에서 재우면서 해?)

104021 # 어디 외방 사름덜이나 빌어 오민게. 외방 사름덜 차 엇어부난 걸영 가 꼭 걸영 와져게? (어디 외방 사람들이나 빌어 오면. 외방 사람들 차 없어버리니까 걸어서 가고 걸어서 올 수 있어?)

104021 @ 아.(아.)

104021 # 버스 이 선흘 버스 놓건 디도 오래지 안해서. 옛날은 함덕서도 걸영 올라왕 일 해주꼭, 걸영.(버스 이 선흘 버스 놓은 지도 오래지 않았어. 옛날은 함덕

서도 걸어서 올라와서 일 해주고, 걸어서.)

104021 @ 걸영 오젠 허민 멧 시간 걸릴 건디.(걸어서 오려고 하면 몇 시간 걸릴 건데.)

104021 # 겨난 세백이 일어난 왁주게. 경 왕 조반 먹영 또 밧디 들앙 가고.(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왔었지. 그렇게 와서 조반 먹고 또 밧에 데리고 가고.)

104021 @ 예.(예.)

104021 # 우리도 경헤난. 우리 친정어머니 함덕 사난 놉 빌영 보내여.(우리도 그랬었어. 우리 친정어머니 함덕 사니까 놉 빌어서 보내.)

104021 @ 응.(응.)

104021 # 비왁직 현디 놉 오민 저 하르방은 또 비왁직 현디 놉 보넛젠 욱을 허기를 그냥.(비올 것 같은데 놉 오면 저 할아버지는 또 비 올 것 같은데 놉 보냈다고 욱을 하기를 그냥.)

104021 @ 날도 잘 봐근에 놉도 밧고 출도 비어사켜예?(날도 잘 봐서 놉도 밧고 풀도 베어야겠네요?)

104021 # 갱헤사주게. 겨주마는 경 맞춰져게?(그래야지. 그렇지만 그렇게 맞출 수 있어?)

104021 @ 하긴.(하기는.)

104021 # 당허는냥 비영 날 종민 좋은 거, 비 오민 오는 거, 그렇게 헤주, 경 날 보멍 못 현다게.(당하는 대로 베어서 날 좋으면 좋은 거, 비 오면 오는 거,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날 보면서 못 해.)

104021 @ 응.(응.)

104021 # 게 당허는냥 헛당 어떤 췌 스망 일민 날 종앙 출 잘 허곡 경 안허민 적저 놓민게 욱 들곡.(그러게 당하는 대로 했다가 어떤 때는 사망 일면 날이 좋아서 풀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저 놓으면 욱 듣고.)

104021 @ 할머니가 잘못해서?(할머니가 잘못했어?)

104021 # 게도 나 탓으로 현다.(그래도 내 탓으로 한다.)

뿔감

104022 @ 지들커도 옛날에 허젠 허민 힘들어 낫주예?(뿔감도 옛날에 하려고 하면 힘들었었지요?)

104022 # 응, 지들커도 출광 ㄴ치 비영 검질 혼 늘 늘엇당 이제 그 검질 헤사 확확 성냥 헤영 불쏘시개라고.(응, 뿔감도 풀과 같이 베어서 검불 한 가리 가렸다가 이제 그 검불 헤야 확확 성냥 헤사 불쏘시개라고.)

104022 @ 응.(응.)

104022 # 검질로만 주로 못 때주게, 낭 헤당 낫당.(검불로만 주로 못 때지, 나무 해다 놓았다가.)

104022 @ 낭 허레 가근에?(나무 하러 가서?)

104022 # 낭 허레 강 이 선홀고지 가근에 낭 헤여근에 지어 들영 낭 처 데며, 땀감을.(나무하러 가서 이 선홀숲 가서 나무 해서 지어 와서 나무를 많이 쌓아, 땀감을.)

104022 @ 응.(응.)

104022 # 경혜사 이제 밥을 행 먹주게. 굴묵⁷⁷⁾도 때고.(그래야 이제 밥을 해서 먹지. ‘굴묵’도 때고.)

104022 @ 지들커는 낭도 있고 또?(땀감은 나무도 있고 또?)

104022 # 검질도.(검불도.)

104022 @ 검질은 밧디 거?(검불은 밧에 거?)

104022 # 밧디 거게. 출 비듯 비영, 또 췌 아이 먹어 그 검질로 허는 거.(밧에 거. 풀 베듯 베어서. 또 소 안 먹어 그 검불로 하는 거.)

104022 @ 밧디 검질?(밧에 검불?)

104022 # 응, 드르에 검질.(응, 들에 검불.)

104022 @ 아.(아.)

104022 # 췌는 이 고사리 서꺼진 거 잘 아이 먹주게, 너무 뭉허영.(소는 이 고사리 섞인 거 잘 안 먹지, 너무 뭉해서.)

104022 @ 응.(응.)

104022 # 이 췌 맥이젠 비는 건 새도 즈지롱헌 것에 자굴 알아져?(이 소 먹이려고 베는 건 풀도 가느다란 것에 자귀풀 알아?)

104022 @ 예.(예.)

104022 # 거 서꺼진 거 비영 맥여. 췌 맥이는 거. 자굴출⁷⁸⁾이엔 허영.(그거 섞인 거 베어서 먹여. 소 먹이는 거. 자귀풀풀이라고 해서.)

104022 @ 아.(아.)

104022 # 또 즈지롱헿 복삭혜사 췌도 먹주게, 암만혜도. 파랑케 해서.(또 가느다랗고 폭신해야 소도 잘 먹지, 아무래도. 파랑케 해서.)

104023 @ 예, 췌똥, 말똥도.(예, 소똥, 말똥도.)

104023 # 굴묵 때어.(‘굴묵’ 때어.)

104023 @ 좃으레 땡겨낫지예?(주으러 다녔었지요?)

104023 # 좃으레 다니고말고. 가맹이 정 강 거 좃어당, 맥 정 강.(주으러 다니고 말고. 가마니 저서 가서 거 주워다가, 먹서리 지고 가서.)

104023 @ 응.(응.)

104023 # 좃어당 굴묵 즈끄디 데며두서 담아냥 굴묵 짓는 거.(주어다가 ‘굴묵’ 곁에 쌓아두고 담아 놓고 ‘굴묵’ 때는 거.)

104023 @ 췌똥, 말똥이 잘 불이 부떠?(소똥, 말똥이 잘 불이 붙어?)

104023 # 응, 잘 부트꼭 구들 더워, 거 지드민. ㄱ시락 데멧당 굴묵 때고.(응, 잘

77)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를 말한다.

78) ‘자굴출’은 자귀풀의 열매가 맺기 전에 소먹이용으로 베는 풀이다.

붙고 구들 더워, 거 때면. 까끄라기 쌓았다가 ‘굴목’ 때고.)

104022 @ ㄴ시락도 있고, 쉼뚱, 말뚱도 있고, 검질, 낭도 잇고예?(까끄라기도 있고, 소뚱, 말뚱도 있고, 검불, 나무도 잇고요?)

104022 # 그것이 제주인덜 살아가는 것이랏주 뭐, 어디라도.(그것이 제주인들 살아가는 것이었지 뭐, 어디라도.)

104022 @ 응.(응.)

104022 # 이 선홀은 게도 낭 허영 곳 ㅼ디난 현디 해변은 ㄴ시락막⁷⁹⁾이 주로 해둬서 허주.(이 선홀은 그래도 나무 해서 숲 가까우니까 한테 해변은 ‘ㄴ시락막’을 주로 해두고 하지.)

104022 @ 응.(응.)

104022 # ㄴ시락을 큰 거시기로 허여. 그디 데며듬서, 비 아이 맞게.(까끄라기를 큰 거시기로 해. 거기 쌓아두고, 비 안 맞게.)

104022 @ ㄴ시락막?(‘ㄴ시락막’?)

104022 # 응게, ㄴ시락, 집 소굽에 데며뒤사 굴목 뺄 거난.(응, 까끄라기, 집 속에 쌓아뒀야 ‘굴목’ 뺄 거니까.)

104022 @ 그게 ㄴ시락막이라?(그게 ‘ㄴ시락막’이야?)

104022 # 응. 어느 부제칩도 다 그렇게 살았어, 벨 집도.(응. 어느 부잣집도 다 그렇게 살았어, 벨 집도.)

104022 @ 응.(응.)

104022 # 초가집이라도 집은 참 청소허민 깨끗허여, 마리영. 우리도 옛날 집도 좋아났저마는, 초가집이라도.(초가집이라도 집은 참 청소하면 깨끗해, 마루랑. 우리도 옛날 집도 좋았었다마는, 초가집이라도.)

104022 @ 응.(응.)

104022 # 마리 낱. 마리 다끄민.(마루 놓고. 마루 닦으면.)

104025 @ 마루에 낱은 어떻 허여?(마루에 나무는 어떻게 해?)

104025 # 어떻허여? 낭 그차근에.(어떻게 해? 나무 잘라서.)

104025 @ 아무 낱이나 그차도 뒀여? 뒀엔 허지 안허여?(아무 나무나 잘라도 돼? 뭐라고 하지 않아?)

104025 # 뒀엔. 흔 ㄴ린 또 선홀곳 직허렌 허연 우리도 늘 낭 그치지 못허게.(뒀라고. 언젠가는 또 선홀숲 지키라고 해서 우리도 날 나무 자르지 못하게.)

104025 @ 아.(아.)

104025 # 경허민 삭은 낭만 봉가오지, 삭은 낭, 질로 죽어진 거.(그러면 삭은 나무는 주워오지, 삭은 나무, 저절로 죽은 거.)

104025 @ 응.(응.)

104025 # 그런 것만. 어떤 땐 방에 부떠불민 불 부뜨 디 강 헤어오고.(그런 것만. 어떤 땐 방화 붙여 버리면 불 붙은 데 가서 헤어오고.)

79) ‘ㄴ시락막’은 까끄라기를 보관하는 작은 막이다.

104025 @ 불 부튼 디 강?(불 붙은 데 가서?)
 104025 # 응, 옛날은 방이라고 불 부튼다게, 콧 바위에.(응, 옛날은 방화라고 불 붙인다, 숲 가장자리에.)
 104025 @ 불 부쳐 나민 그 냥.(불 붙이고 나면 그 나무.)
 104025 # 삭은 거 좃어오는 거.(삭은 거 주워오는 거.)
 104025 @ 도끼 같은 건 필요 엇어?(도끼 같은 건 필요 없어?)
 104025 # 장호미⁸⁰, 나대엔도 허고. 서촌선 것그라 나대엔 허더라.(‘장호미’, ‘나대’라고도 하고. 서촌에선 그것보고 ‘나대’라고 하더라.)
 104025 @ 이디선 뭐라?(여기서는 뭐야?)
 104025 # 장호미.(‘장호미’.)
 104025 @ 장호미는 어떤 거, 긴 호미?(‘장호미’는 어떤 거, 긴 호미?)
 104025 # 장호미 딱딱 찍는 거, 호미 말앙. 장호미가 잇어, 낭허는 장호미. 딱딱 찍엉.(‘장호미’ 딱딱 찍는 거, 호미 말고. ‘장호미’가 잇어, 나무하는 ‘장호미’. 딱딱 찍어서.)
 104025 @ 낭 허는 장호미.(나무하는 ‘장호미’)
 104025 # 장호미그라이 서촌 사름덜은 나대엔 허메.(‘장호미’보고 서촌 사람들은 ‘나대’라고 해.)
 104025 @ 응.(응.)
 104025 # 이디 완에 ‘나대 줍서, 나대 줍서’ 허난 몰란. 겨난 장호미그라 경 글 아고.(여기 와서 ‘나대 줍서, 나대 줍서’ 하니까 몰랐어. 그러니까 ‘장호미’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104025 @ 나대를 장호미엔 곤는구나예, 낭헐 때 쓰는 거.(‘나대’를 ‘장호미’라고 하는군요, 나무할 때 쓰는 거?)
 104025 # 낭 헐 때 쓰는 거. 과수원 밧디도 장호미 느랑 써.(나무 할 때 쓰는 거. 과수원 밧에도 ‘장호미’ 늘 써.)
 104025 @ 응.(응.)
 104025 # 삭은 것도 그창 데껴불고. 이젠 그 쥌쥌헐 톱, 기술이 좋안 톱덜 나고 허난이 허기 좋아, 이젠.(삭은 것도 잘라서 던져 버리고. 이젠 그 자잘한 톱, 기술이 좋아서 톱들 나고 하니까 하기 좋아, 이젠.)
 104025 @ 응.(응.)
 104025 # 옛날은 그 톱도 엇어. 그런 조그만 톱도.(옛날은 그 톱도 없어. 그런 조그만 톱도.)
 104025 @ 응.(응.)
 104025 # 그런 거 시민 지들커 허레 간 때도 속속 허영 좋주마는 그런 톱도 엇영 큰 톱덜, 남즈 어른덜은 큰 톱 아정 강 허메.(그런 거 있으면 빨감 하러 갈 때도

80) ‘장호미’는 ‘나대’라고도 하며 나무를 찍어서 자르는 낫과 비슷한 연장이다. ‘미호미, 메호미’라고도 한다.

‘속속’ 해서 좋지만 그런 톱도 없어서 큰 톱들, 남자 어른들은 큰 톱 가져가서 해.)

104025 @ 장호민 어떤 건고?(‘장호미’는 어떤 거?)

104025 # 나대게, 나댄 몽쿨락현 장호미주게. 녀작허영 장호미가.(‘나대’, ‘나대’는 몽툰한 ‘장호미’지. 녀적해서 ‘장호미’가.)

104025 @ 예.(예.)

104024 @ 솔잎도 어떻 죽영 와?(솔잎도 어떻게 주어 와?)

104024 # 솔잎은게 강 골갱이로 박박 걸영 지아전 왓주, 어떻 죽곡 대곡 혈 게 시냐게?(솔잎은 가서 호미로 박박 걸어서 지어서 왓지, 어떻 죽고 대고 할 게 있니?)

104024 @ 골갱이로 박박 굵으면 다 털어져 불지 안해?(호미로 박박 굵으면 다 떨어져 버리지 않아?)

104024 # 아니, 그냥 안아당 놓곡, 또 굵갱이가 셔.(아니, 그냥 안아다가 놓고, 또 갈퀴가 있어.)

104024 @ 응.(응.)

104024 # 굵갱이로 박박 굵어오곡. 우린 솔잎도 혼엇이 안 걸어난. 검질이영 낭이영 해당 때어.(갈퀴로 박박 굵어오고. 우린 솔잎도 별로 안 걸었었어. 검불이랑 나무랑 해다가 때어.)

104024 @ 솔잎은 잘 영영 가져오젠 허민.(솔잎은 잘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면.)

104024 # 보달청⁸¹⁾ 지영덜 땡겨. 무꺼.(‘보달’쳐서 쳐서 다녀. 묶어.)

104024 @ 보달치는 건 어떻 허는 거?(‘보달’치는 건 어떻게 하는 거?)

104024 # 그건이 이제 영 조금씩 허지 아니허영 크게, 크게 영허영 가맹이만이 무꺼근에 현 것²라 보달쳐젠 허고. 혼 짐 쳐와 그걸로 혼 못 무경.(그건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하지 않고 크게, 크게 이렇게 해서 가마니만큼 묶어서 한 것보고 ‘보달’쳤다고 하고. 한 짐 쳐와 그걸로 한 못 묶어서.)

104024 @ 보달치면 안 떨어져?(‘보달’치면 안 떨어져?)

104024 # 응, 이젠 영 이제 끈 양쪽에 놓고 또 이젠 낭이나 무시거 해당 영 세을지 안허게 툽툽 놔냥.(응, 이젠 이렇게 끈 양쪽으로 놓고 또 이젠 나무나 무엇 해다가 이렇게 새지 않게 툽툽 놓고.)

104024 @ 응.(응.)

104024 # 그레 이제 막 앓다당 쎄영 것도 무경 지영 땡겨. 혼 보달, 두 보달 허명.(거기에 이제 막 가져다가 쌓아서 그것도 묶어서 지어 다녀. 한 ‘보달’, 두 ‘보달’ 하면서.)

104024 @ 혼 짐이 혼 보달이파?(한 짐이 한 ‘보달’입니까?)

104024 # 거 크게 허민 혼 짐 지고, 죽게 허민 두 짐, 두 보달 헤영 두 못 지고.(거 크게 하면 한 짐 지고, 작게 하면 두 짐, 두 ‘보달’ 해서 두 못 지고.)

81) ‘보달’은 솔잎 등을 모아서 한 짐이 될 정도로 묶음을 말한다.

104024 @ 보달이 죽으면 두 보달행 흔 짐 지고. 크민 하나만 지고?('보달'이 작으면 두 '보달' 해서 한 짐 지고. 크면 하나만 지고?)

104024 # 하나만 지고 경해났어.(하나만 지고 그랬었어.)

104024 @ 아.(아.)

104024 # 것도 육지 사름덜이 오랑이 검질 빌 충 몰라부난 주로 해났어, 이 선홀은.(것도 육지 사람들 와서 검불 벨 줄 모르니까 주로 했었어, 이 선홀은.)

104024 @ 응.(응.)

104024 # 겐디 이 선홀 사름덜도 그루후젠 막 하영 허여.(그런데 이 선홀 사람들 그 후에 아주 많이 해.)

104024 @ 솔잎 줏으레?(솔잎 주으러?)

104024 # 땀감게. 불 숨기 좋아, 거. 불 숨기 막 좋주게.(땀감. 불 때기 좋아, 거. 불 때기 아주 좋지.)

104026 @ 옛날에 솟도 해났수과?(옛날에 솟도 했었습니까?)

104026 # 솟? 허주게. 솟 아이 물어난. 우리 아버지네 시절에 솟 물어 막 고생 해난.(솟? 하지. 솟 안 묻었었어. 우리 아버지네 시절에 솟 묻어서 아주 고생했었어.)

104026 @ 응.(응.)

104026 # 돈 날 게 엇어부난 고지 가근에 솟 묻엉 풀주게, 풀아, 것도.(돈 나오게 없어버리니까 숲에 가서 솟 묻어서 팔지, 팔아, 그것도.)

104026 @ 솟은 어떻 묻으는 거파?(솟은 어떻게 묻는 것입니까?)

104026 # 솟은이 늘낭을 이젠 막 그차.(솟은 날나무를 이젠 막 잘라.)

104026 @ 응.(응.)

104026 # 그차근앵이 요만씩 그창 거 이 솟 구덩이, 솟 묻을더레 다 옮겨다 놓고 이젠 땅 파근앵이 이만이 널르게 허여근에 이제 낭을 즈근즈근 이추룩 해낭 다 세와.(잘라서 요만큼씩 잘라서 그거 이 솟 구덩이, 솟 묻을 곳에 다 옮겨다 놓고 이젠 땅 파서 이만큼 넓게 해서 이제 나무를 차근차근 이렇게 해 놓고 다 세워.)

104026 @ 응.(응.)

104026 # 굴뚝 내왕 영 이제 초담 이추룩 영 삼각구로 영 낭 그딘 굴뚝 날 거 아이가?(굴뚝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처음 이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놓고 거긴 굴뚝 날 거 아니냐?)

104026 @ 응.(응.)

104026 # 거 돌아가명 뱅뱅 이제 낭을 췌여, 췌여, 낭을.(거 돌아가면서 뱅뱅 이제 나무를 췌아, 췌아, 나무를.)

104026 @ 응.(응.)

104026 # 췌여 낭 이젠 그 우터레 이젠 돌로 영 다우명 흙을 막 췌와. 이 짐 아 이 나게. 게 이제 굴뚝으로만 불 살르민 그.(췌아 놓고 이젠 그 위로 이젠 돌로 이렇게 췌아서 흙을 막 췌워. 이 짐 안 나게. 그러게 이제 굴뚝으로만 불 사르면 그.)

104026 @ 굴뚝?(굴뚝?)

104026 # 그 일로, 그 도 내운 딜로. 경행 불 때민 이젠 막 그 낭에 불이 돌아 정 와랑와랑 허민 그 돌 탁 막는 거라.(그 이리로, 그 입구 만든 데로. 그렇게 해서 불 때면 이젠 막 그 나무에 불이 달려서 ‘와랑와랑’ 하면 그 돌 탁 막는 거야.)

104026 @ 응.(응.)

104026 # 경허민 그 안에서 그 낭이 다 카.(그러면 그 안에서 그 나무가 다 타.)

104026 @ 불 꺼져 불지 안해?(불 꺼져 버리지 않아?)

104026 # 아이 꺼져. 코 흐뎀 냅겨.(안 꺼져. 구멍 조금 남겨.)

104026 @ 응.(응.)

104026 # 경허당 그 낭이 거자 삭아질만 허민 도 강 탁 막으면 숨 겨우쨍 그 안에서 불이 다 꺼져. 경허민 헤쌍 보민 솟 돼여.(그러다가 그 나무 거의 삭아질만 하면 입구 가서 탁 막으면 ‘숨 겨우쨍’ 그 안에서 불이 다 꺼져. 그러면 헤집어 보면 솟 돼여.)

104026 @ 숨 겨우쨍 건 뭐?(‘숨 겨우쨍’ 건 뭐?)

104026 # 숨 겨우쨍. 그 불이 꺼지젠 허민 통화가 못되면 숨 겨우쨍 불이 꺼져.(‘숨 겨우쨍’ 그 불이 꺼지려고 하면 통하지 못하면 ‘숨 겨우쨍’ 불이 꺼져.)

104026 @ 그다음엔?(그다음엔?)

104026 # 그다음엔 헤싸근에 솟을 이제 담주게, 답아.(그다음엔 헤집어서 솟을 이제 담지, 답아.)

104026 @ 안 뜨거워?(안 뜨거워?)

104026 # 게, 불이 다 꺼져사게, 꺼져. 이제 메칠 돼민 그게 다 꺼졌다 허민 갱 강 헤쓰민 어떤 땐 불 살민 솟이 아이 돼여.(그러게, 불이 다 꺼져야지, 꺼져. 이제 며칠 되면 그게 다 꺼졌다 하면 그러면 가서 헤집으면 어떤 땐 불이 살아있으면 솟이 안 돼.)

104026 @ 응.(응.)

104026 # 불 살민 그 속에서, 불이 다 꺼정 솟이 잘 돼면 이제 품도 허곡 솟이 만허곡 준다.(불 살아있으면 그 속에서, 불이 다 꺼져서 솟이 잘 되면 이제 팔기도 하고 솟이 많고 좋은데.)

104026 @ 응.(응.)

104026 # 그 불이 아이 꺼정 혼 꼬댕이에라도 불이 살면은 막 삭아져부는 거라, 막 캉.(그 불이 안 꺼져서 한 끝에라도 불이 살면 아주 삭아버리는 거야, 너무 타서.)

104026 @ 아.(아.)

104026 # 경허민 솟이 잘 안돼주게. 안돼민 다 보시레기 돼어 불어, 안 돼민.(그러면 솟이 잘 안 되지. 안 되면 다 부스러기 되어 버려, 안 되면.)

104027 @ 할머니넨 안 해 보고?(할머니네는 안 해 보고?)

104027 # 나가 안 현 겨주. 허는 거 봤주. 우리 어린 때가 주로 헛주.(내가 안

한 거지, 하는 거 봤지. 우리 어린 때 주로 했지.)

104027 @ 응.(응.)

104027 # 그 숲 해영 풀고. 우리 아버지네 시절에 그 숲 묻어근에 왕 숲 사례 또, 풀레 오는 사람도 있고 경해난.(그 숲 해서 팔고. 우리 아버지네 시절에 그 숲 묻어서 와서 숲 사례 또, 팔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

104027 @ 이디서 어디 조천⁸²⁾ 장에 강 폼니까?(여기서 어디 조천 장에 가서 폼니까?)

104027 # 지영 강도 풀고, 짐녕⁸³⁾ 지영 강 풀고. 또 막 하영 사례 오는 사람도 있고. 시에 강 풀젠. 하영 사.(저 가서도 팔고, 짐녕 저 가서 팔고. 또 아주 많이 사례 오는 사람도 있고. 제주시에 가서 팔려고, 많이 사.)

104027 @ 응.(응.)

104027 # 가메에도 상 강 풀아. 냉경 장스로. 경허는 사람도 있고, 경허는 거. (가마에도 사서 가서 팔아. 남겨서 장사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

104027 @ 숲은 흠뻐만 만져도 시켜멍 해봅니까?(숲은 조금만 만져도 시켜떻게 되잖아요?)

104027 # 경허주게, 경헌디 그 스삼사건 후에 저 산 고지 간에 이젠 숲을 묻었주. 묻으난 허가 잘 아이 마타젠.(그렇지, 그런데 그 사삼사건 후에 저 산 숲에 가서 이젠 숲을 묻었지. 묻으니까 허가 잘 안 받았다고.)

104027 @ 응.(응.)

104027 # 우리 친정아버지가 숲을 묻언. 헌디 그 나쁜 놈덜이 산림 간수노렌 허멍 이젠 심엇젠 허영 숲도 문 강제로 빼 가불언.(우리 친정아버지가 숲을 묻었어. 그런데 그 나쁜 놈들이 산림 간수라고 하면서 이젠 잡았다고 해서 숲도 모두 강제로 빼앗아 가 버렸어.)

104027 @ 아이고.(아이고.)

104027 # 겐 우리 아버지가 흠뻐 늪의 거 삼도 허고 영 흠뻐 장스도 허젠 숲 간 묻고 허연에 쉰 가멩이민 아메도 이제 ㄱ뜨민 인력이 거자 침 쉰 사람 들엇젠 해도 과언이 아니라이.(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조금 남의 것 사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장사도 하려고 숲 가서 묻고 해서 쉰 가마니면 아무래도 이제 같으면 인력이 거의 참 쉰 사람 들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104027 @ 응.(응.)

104027 # 경헌 걸 해단 놈두난 산림 간순가 어떤 놈이 잡혔젠 허연에 데며난 거 오꽃 밤이 실러 가불엇어. 그 도둑놈이, 거 도둑놈이주게. 이제 ㄱ치 법이 몹지 못헌 때주게.(그런 걸 해다가 놈두니까 산림 간순가 어떤 놈이 잡혔다고 해서 쌓았던 거 ‘오꽃’ 밤에 실어 가버렸어. 그 도둑놈이, 거 도둑놈이지. 이제같이 법이 맑지

82) ‘조천’은 제주시 조천면 조천리로 조사지역인 선흘과 가까운 마을이다.

83) ‘짐녕’은 ‘김녕’을 이르는 것으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이다.

못한 때지.)

104027 @ 예.(예.)

104027 # 허갈 아이 마타서 걸리게 되면 사람을 괴롭히고 경허지 말렌 허는 문답을 허주. 그 숫까장 차압허진 안허지게. 건디 그때는 무법천지 법이 었은 때라, 스삼사건 때.(허가를 안 받아서 걸리게 되면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문답을 하지. 그 숫까지 차압하진 않지. 그런데 그때는 무법천지 법이 었는 때야, 사삼사건 때.)

104027 @ 응.(응.)

104027 # 우리 친정아버지는 옛날 글만 허고 침 좋게 살아난 어른인디 이제 돈 날 것도 었고 허난 산 고지 간 숫을 묻은 거라.(우리 친정아버지는 옛날 글만 하고 참 좋게 살았던 어른인데 이제 돈 나올 것도 없고 하니까 산 숲에 가서 숫을 묻은 거야.)

104027 @ 응.(응.)

104027 # 묻고 늬의 거 사 놓고 헤연 이제 허난에 고발헌 늬이 허난 산림 간순가 어떤 늬이 쩍허고렌 흰 빼가불언.(묻고 남의 거 사 놓고 해서 이제 하니까 고발헌 늬이 하니까 산림 간순가 어떤 늬이 잡혔다고 해서 빼앗아 가버렸어.)

104027 @ 아이고.(아이고.)

104027 # 얼마나 억울헤시? 우리 아버지 돌아가 불엇주마는 헤난 일을 생각허민.(얼마나 억울했었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 버렸지만 했던 일을 생각하면.)

104027 @ 계난예.(그러니까요.)

104027 # 이제 그때 쫄이 었어나세, 곤쫄이 었어. 보리밥, 조팍 아버지네 먹어난 생각허민 막 억울허고.(이제 그때 쌀이 없었잖니, 흰쌀이 없어. 보리밥, 좁쌀밥 아버지네 먹었던 거 생각하면 막 억울하고.)

104027 @ 그때야 늬도 다 경헤낫주 무신.(그때야 남도 다 그랬지 뭐.)

104027 # 늬도 다 경헤낫주마는 침 우리 친정에 경 못살도 안허연 잘 살아낫젠 현다마는 막이 스삼사건, 제국 시절로 망헌 이상헌 시대를 살아낫주게.(남도 다 그랬지만 참 우리 친정에 그렇게 못살지도 않아서 잘 살았다고 한다마는 막 사삼사건, 제국 시절로 망해서 이상한 시대를 살았지.)

104027 @ 예.(예.)

104027 # 경헤부난 막 억울헤여. 오래도 아이 살안, 우리 아버지 쉰 아홉에 돌아가 불고.(그렇게 해 버리니까 막 억울해. 오래도 안 살았어, 우리 아버지 쉰 아홉에 돌아가 버리고.)

사냥

104028 @ 이디 사냥 같은 거 헤낫수과?(여기 사냥 같은 거 했었습니까?)

104028 # 우린 안헤여. 저 하르방⁸⁴도 헐 층 몰르고, 우린 득도 흥나 못 잡아.

84) '하르방'은 할아버지의 제주어인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우린 안 해. 저 할아버지도 할 줄 모르고, 우린 닭도 하나 못 잡아.)

104029 @ 아니 꿩코⁸⁵) 놓고 이런 것도 안 해봐?(아니 ‘꿩코’ 놓고 이런 것도 안 해 봤어?)

104029 # 그런 것도 안 해, 절대 안 해. 꿩 심도 못해, 하르방.(그런 것도 안 해, 절대 안 해. 꿩 잡지도 못해, 할아버지.)

104029 @ 동넷 사름덜 허는 건 봐났지예?(동네 사람들 하는 건 봤었지요?)

104029 # 저 옆집이 하르방 잘허여.(저 옆집 할아버지 잘해.)

104029 @ 무신 사냥 많이 해났수과?(무신 사냥 많이 했었습니까?)

104029 # 그 하르방 아방이 노리 사냥 잘 해났어. 개 들앙 텅기멍 노리 심어와. 경행 잡앙 떡곡.(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노루 사냥 잘 했었어. 개 데리고 다니면서 노루 잡아와. 그래서 잡아서 먹고.)

104029 @ 응.(응.)

104029 # 이 하르방⁷장도 꿩코 2쁜 건 일반대기로 잘 해난, 잘 해난 하르방이라.(이 할아버지까지도 ‘꿩코’ 같은 건 일반적으로 잘 했었어, 잘했던 할아버지야.)

104029 @ 꿩코는 많이 해났지예?(‘꿩코’는 많이 했었지요?)

104029 # 허는 사름은 허여. 그 코에 들민 해당 잡앙 떡엄젠 허고.(하는 사람은 해. 그 올가미에 들면 해다가 잡아서 먹는다고 하고.)

104029 @ 응.(응.)

104029 # 우리 밧되 가근에 꿩코 놔시민 우리 아이 먹어. 늑⁷라 아저가렌. 아이 먹어, 아이 먹어. 잡도 못허고 못 먹어.(우리 밧에 가서 ‘꿩코’ 놓았으면 우리 안 먹어. 남보고 가져가라고. 안 먹어, 안 먹어. 잡지도 못하고 못 먹어.)

104029 @ 아.(아.)

104029 # 우리 큰아덜이, 이젠 유월 스무날 득 잡앙 먹주게. 동네에 이젠 빙애 길 깨완에 득 흔 마리씩 다 사가렌 허난 그 집이서 잡아주켄 허민 허나 사오켄 허연 잡아주난 허나 사단 먹어난. 그디 득 임제가.(우리 큰아들이, 이젠 유월 스무날 닭 잡아서 먹지. 동네에서 이젠 병아리를 까서 닭 한 마리씩 다 사가라고 하니까 그 집에서 잡아주겠다고 하면 하나 사오겠다고 해서 잡아주니까 하나 사다가 먹었어. 거기 닭 임자가.)

104029 @ 응.(응.)

104029 # 우리 아이덜토 못 헤여, 아이덜토, 우리 아덜덜토 못 헤여.(우리 아이들도 못 해, 이이들도, 우리 아들들도 못 해.)

85) ‘꿩코’는 꿩을 잡기 위한 올가미이다.

5. 의생활

옷감

106001 @ 옛날 어떤 거 어떤 거 만들엉 입어났수과?(옛날 어떤 거 어떤 거 만들어서 입었었습니까?)

106001 # 그때게 요새 ㄴ치 옷이 널어지지 안허난게 감옷허영 밧디, 주로 감옷.(그때 요새처럼 옷이 많지 않으니까 감옷해서 밧에, 주로 감옷.)

106001 @ 감옷은 무신 천으로 허는 거파?(감옷은 무슨 천으로 하는 것입니까?)

106001 # 미녕.(무명.)

106001 @ 집이서 짜낫수과?(집에서 짚었습니까?)

106001 # 이딘 못 짜고이 저 육지서 들어오주게, 그 미녕도.(여긴 못 짜고 저 육지서 들어오지, 그 무명도.)

106001 @ 아.(아.)

106001 # 경헌디 남군에선 그 미녕 짜.(그런데 남군에선 그 무명 짜.)

106001 @ 예, 미녕 찻텐 헌 할망들 막 들어나신디.(예, 무명 짚다고 한 할머니들 막 들었었는데.)

106001 # 그 어디 저 안덕면⁸⁶은 저 목화 많이 같지 안허여?(그 어디 저 안덕면은 저 목화 많이 같지 않아?)

106001 @ 예, 멘네예.(예, 목화요.)

106001 # 그디서가.(거기서가.)

106001 @ 이딘 멘네 안 같아?(여긴 목화 안 같아?)

106001 # 이딘 잘 안 같고. 제국 때엔이.(여긴 잘 안 같고. 제국 때엔.)

106001 @ 예.(예)

106001 # 막 그 법에서가 멘네 갈렌 해부난 갈아난. 갈안 이제 바졌어.(막 그 법에서 목화 갈라고 해버리니까 갈았었어. 갈아서 이제 바쳤어.)

106001 @ 아, 바찌는 걸로, 공출.(아, 바치는 걸로, 공출.)

106001 # 공출.(공출.)

106001 @ 응.(응.)

106001 # 공출 바찌, 감저 썰영 공출 바찌.(공출 바쳐. 감자 썰어서 공출 바쳐.)

106001 @ 응.(응.)

106001 # 들루왕.(말려서.)

106001 @ 응.(응.)

106001 # 아니, 그 감저 뺏데기 허여근에.(아니, 그 절간감자 해서.)

106001 @ 아, 감저 뺏데기.(아 절간감자.)

106001 # 허여근에 막 바찌젠 허영 활당 맥여근앵이 막 얼떡어났어.(해서 막 바찌라고 해서 활당 먹여서 막 얼떡었었어.)

86) 조사자 고향이 안덕면이라고 했더니 제보자가 안덕면에 목화를 많이 같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다.

106001 @ 아.(아.)

106001 # 제국 때에, 그 일본 시상에 경 해났저.(제국 때에. 그 일본 세상에 그렇게 했었어.)

106012 @ 예, 아까 멘네는 어떻행 허는 거마씨?(예, 아까 목화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106012 # 멘네 씨로 갈앙.(목화 씨로 갈아서.)

106012 @ 씨로 갈앙.(씨로 갈아서.)

106012 # 갈아근에 그거 이제 꽃 피어근에 열매 열민 그것이 피어가민 타주게.(갈아서 그거 이제 꽃 피어서 열매 열리면 그것이 피어가면 따지.)

106012 @ 응.(응.)

106012 # 무사 안덕면도.(왜 안덕면도.)

106012 @ 실은 어떻 멘들어?(실은 어떻게 만들어?)

106012 # 실?(실?)

106012 @ 실, 실.(실, 실.)

106012 # 실은 저 선홀에선 실 아이 빠. 안덕면 근처에 미녕 짜는 디선 실도 빠. 거기선.(실은 저 선홀에서는 실 안 빠. 안덕면 근처에 무명 짜는 데선 실도 빠. 거기선.)

106012 @ 응, 이디선 그런 거 안 허는구나예.(응, 여기선 그런 거 안 하는군요.)

106012 # 이디선 아니허여.(여기선 안 해.)

106012 @ 그건 멍지고.(그건 명주고.)

106012 # 멍지 아니고 목화주. 미녕.(멍지 아니고 목화지, 무명.)

명주

106002 @ 미녕, 미녕이고. 멍지는 어떻 허는 거짜?(무명, 무명이고. 멍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06002 # 멍지는 우린 건 모르주마는 누에 질좌근에 그 누에로 이 멍지 올 뻔덴 허주게.(멍지는 우린 그것은 모르지만 누에 길러서 그 누에로 이 멍지 올 뻔다고 하지.)

106002 @ 아, 이디선 그런 것도 안헤난?(아, 여기서는 그런 것도 안 했었어?)

106002 # 이디선 아니 헤난.(여기선 안 했었어.)

106002 @ 아, 다 사다근에?(아, 다 사다가?)

106002 # 응, 멍지 바파당 허주.(응, 멍지 바뀌다가 하지.)

무명

106008 @ 그 여름 아닌 건 주로 아까.(그 여름 아닌 건 주로 아까.)

106008 # 미녕.(무명.)

106008 @ 미녕으로 한 갈중의?(무명으로 한 ‘갈중의’?)

106008 # 응, 맞디, 건 맞디.(응, 밭에, 그것은 밭에.)
 106008 @ 갈중인 맞디 갈 때만 입는 거.(‘갈중의’는 밭에 갈 때만 입는 거.)
 106008 # 집이선게 그때도 기지가 잇주게, 뭐 하간, 요라 거 기지.(집에선 그때도 옷감이 있지, 뭐 온갖, 여러 가지 옷감.)
 106008 @ 응.(응.)
 106008 # 기지 이름을 알아지크라? 그뎨 뭐.(옷감 이름을 알겠니? 그뎨 뭐.)
 106008 @ 응.(응.)
 106008 # 밭된 갈중일 주로 입어.(밭엔 ‘갈중의’를 주로 입어.)
 106008 @ 밭된 갈중의 주로 입어.(밭엔 ‘갈중의’ 주로 입어.)
 106008 # 미녕도 이제 또 광목이영 잘 다듬어 가지고.(무명도 이제 또 광목이랑 잘 다듬어 가지고.)
 106008 @ 예.(예.)
 106008 # 집이서 입는 옷은 헤영허게 행 입고 경헤낫주. 기지가 요새 ㄴ치 널어 지지 아니허난.(집에서 입는 옷은 하얗게 해서 입고 그랬었지. 옷감이 요새처럼 널리지 않으니까.)
 106008 @ 응, 그럼.(응, 그럼.)
 106008 # 멩지로 행 입고.(명주로 해서 입고.)

삼

106001 @ 그른 베로 옷 멘들앙 입습니까, 베?(그러면 베로 옷 만들어서 입습니까, 베?)
 106017 # 베옷이 주로 입주게, 여름에.(베옷이 주로 입지, 여름에.)
 106017 @ 아, 여름엔 주로 베옷.(아, 여름엔 주로 베옷.)
 106017 # 응.(응.)

바느질

106022 @ 예, 옷은 집에서 다 바느질 해근에 만들어수과?(예, 옷은 집에서 다 바느질 해서 만들었습니까?)
 106022 # 바느질 헤영 잘허는 인 집이서 헤영 입고, 이녀그로.(바느질 해서 잘하는 이는 집에서 해서 입고, 자기대로.)
 106022 @ 응.(응.)
 106022 # 경 안 현 사름은 바느질 허는 디 강 헤오고.(그렇지 않은 사름은 바느질 하는 데 가서 헤오고.)
 106022 @ 삼촌은 어떻헤납디가?(삼촌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106022 # 나도 더러 헤난.(나도 더러 했었어.)
 106022 @ 더러 허긴 헤난?(더러 하긴 했었어?)
 106022 # 응, 옛날에. 견디 우린 그때는 두린 때주게. 우리 어머니네, 우리 할머

니네는, 시대에는 그렇게 이녁그로 다 헤영만 입고.(응, 옛날에. 그런데 우린 그때는 어린 때지. 우리 어머니네, 우리 할머니네는, 시대에는 그렇게 자기대로 다 해서만 입고.)

106022 @ 응.(응.)

106022 # 참 우리 시대에는 그 제국 시절 넘어가고 허난 경헌 옷을 아니 했어.
(참 우리 시대에는 그 제국 시절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 옷을 안 했어.)

106022 @ 아.(아.)

106022 # 미싱허엿주. 이제도 나 미싱도 이서도 요새 돌리지도 안허고.(재봉틀 했지. 이제도 나 재봉틀 있어도 요새 돌리지도 았고.)

106022 @ 바느질 허젠 허민 뭘로 영헙니까?(바느질 하려고 하면 뭘로 이렇게 합니까?)

106022 # 실허고 바농베끼 무신.(실허고 바늘밖에 무슨.)

106022 @ 실허고 바농예.(실허고 바늘요.)

106022 @ 그런 거 모아두는 건? 어디다 모양 영 소쿠리에라도 영 담양 놔둬니
께.(그런 거 모아 두는 건? 어디다 모아서 이렇게 소쿠리에라도 이렇게 담아서 놔두
잖아요?)

106022 # 바농상지.(바늘쌘지.)

106022 @ 바농.(바늘.)

106022 # 상지.(쌘지.)

106022 @ 상지.(쌘지.)

106022 # 바농상지, 이제도 이불침이 풀암네.(바늘쌘지, 이제도 이불집에 팔고
있네.)

106022 @ 응. 영 찢르는 거 가위는?(응. 이렇게 자르는 거 가위는?)

106022 # 가위, ㄹ새.(가위, ‘ㄹ새’.)

106022 @ ㄹ새.(‘ㄹ새’.)

106022 @ 옷 만들려면 본을 땡 영 찢릅니까? 그건 뭐렌 곶아.(옷 만들려면 본
을 떠서 이렇게 찢르잖아요? 그건 뭐라고 말해?)

106022 # 아, 옷 재는 거, 미시거.(아, 옷 재는 거, 무엇.)

106022 @ 옷 만들젠 허민 옷 모양대로 자를 거 아니짜?(옷 만들려고 하면 옷
모양대로 자를 거 아닙니까?)

106022 # 아, 옷, 그것도 셔. 저 옷 멘드는데, 볼.(아, 옷, 그것도 있어. 저 옷 만
드는데, 본.)

106022 @ 그때 그걸 뭐엔 곶아? 옷처럼 만드는 거.(그때 그걸 뭐라고 말해? 옷
처럼 만드는 거.)

106022 # 옷처럼 멘드는데 옷볼.(옷처럼 만드는 거 옷본.)

106022 @ 옷본.(옷본.)

106022 # 응. 볼, 볼.(응, ‘볼, 볼’.)

106022 @ 불.('불'.)

106022 # 보선볼도 짓고 옷볼도 이서.(버선본도 있고. 옷본도 있어.)

106022 @ 아, 불.(아, 불.)

106022 # 서툰 사람은. 이젠 그것도 안 난 헤라마는 옛날은 그 저고리도 허젠 허민 그 저고리 모양헌 게 이서.(서툰 사람은. 이젠 그것도 안 놓고 하더라마는 옛날은 그 저고리도 하려고 하면 그 저고리 모양으로 한 게 있어.)

106022 @ 응. 걸 낱.(응. 그것을 놓고.)

106022 # 놔근에 들좌.(놔서 말라.)

106022 @ 들좌.(말라.)

106022 # 기지 놓고 들좌.(옷감 놓고 말라.)

106022 @ 기지 놓고 들좌.(옷감 놓고 말라.)

106022 # 보선볼도 영 모양 낱 몰르고.(버선본도 이렇게 모양 놓고 마르고.)

106022 @ 응. 손가락에 막 바놓 찢러부난 요기 영 끼와근에 허는 거 이수게?
(응. 손가락에 막 바늘 찢러 버리니까 요기 이렇게 끼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106022 # 그런 것도 손깍데기엔 허영.(그런 것도 '손깍데기'라고 해서.)

106022 @ 손깍데기. 골미 뭐 이런 거.(손깍데기. 골무 뭐 이런 거.)

106022 # 골미, 골미 찌영 허곡.(골무, 골무 끼어서 하고.)

106022 @ 골미엔 글아?(골무라고 말해?)

106022 # 응.(응.)

106022 @ 골미허고 손깍데기 낱가 다른 거?(골무하고 '손깍데기'는 낱가 다른 거?)

106022 # 그거 ㄴ쁜 거.(그거 같은 거.)

106022 @ 아, ㄴ쁜 거.(아, 같은 거.)

106022 # ㄴ쁜 거. 이디 손가락 영 허영 바놓질 하영 허는 사람은 요기 아파이. 경허민 골미 끼영 허여.(같은 거. 여기 손가락 이렇게 해서 바느질 많이 하는 사람은 요기 아파. 그러면 골무 끼어서 해.)

106022 @ 골미엔도 곤곡,(골무라고도 말하고.)

106022 # 손깍데기.(손깍데기.)

106022 @ 손깍데기엔도 곤곡.(손깍데기'라고도 말하고.)

106022 # 응. 경허여.(응. 그렇게 해.)

106022 @ 실 영 영 감아논 걸 뭐엔 글읍니까?(실 이렇게 이렇게 감아놓은 걸 뭐라고 말합니까?)

106022 # 실패.(실패.)

106022 @ 실패에 논 거 말고 그냥 동글랑허레.(실패에 놓은 거 말고 그냥 동그렇게.)

106022 # 아, 도레기, 실도레기.(아, 바퀴, 실패.)

106022 @ 도레기?(바퀴?)

106022 # 실도레기, 미싱허는 디 실도레기 문.(실패, 재봉틀하는 데 실패 모두.)

106022 @ 그거 말고. 그냥 옷이라도 영 짜젠허민 영 동글랑허게 감양 놔둬니 께?(그거 말고. 그냥 옷이라도 이렇게 짜려고 하면 이렇게 동그랑게 감아서 놔두잖 아요?)

106022 # 그거 이제 옷 짜는 사름?(그거 이제 옷 짜는 사람?)

106022 @ 응, 옷 짜는 사름 실 영 동글랑허게 만들어진 거 뉘엔 곺아?(응, 옷 짜는 사람 실 이렇게 동그랑게 만들어진 거 뉘라고 말해?)

106022 # 거 무시거라, 그거 실패주 뉘.(거 무엇이야, 그거 실패지 뉘.)

106022 @ 실패 여기 뉘 잇어야 되는 거 아니? 가운데 영행 감는 거 아니?(실패 는 여기 뉘 잇어야 되는 거 아니? 가운데 이렇게 해서 감는 거 아니?)

106022 # 가운데 실패가 잇어. 실패덜 풀암실겉, 이제.(가운데 실패가 잇어. 실패 팔고 잇을겉. 이제.)

106022 @ 응.(응.)

106022 # 우린 옛날 허연 실패도 좋은 거도 셔낫저마는 다 엇어불언. 아무것에 나 감양 써.(우린 옛날 해서 실패도 좋은 것도 잇었지마는 다 없어져 버렸어. 아무 것에나 감아서 써.)

106022 @ 영 동글랑 허영 솜 담은 거 행은에 바농 여기 막 끼와 놔두는 건 뉘 라?(이렇게 동그랑게 해서 솜 담은 거 해서 바늘 여기 막 끼워 놔두는 건 뉘야?)

106022 # 아, 그거 바농쌘.(아, 그거 바늘겨래.)

106022 @ 바농쌘, 바농솜?(바농쌘, 바농솜?)

106022 # 바농쌘이엔 허여.(‘바늘쌘’이라고 해.)

106022 @ 쌘이엔 허여. 바농쌘.(‘쌘’이라고 해. ‘바늘쌘’.)

106022 # 바농상지에 그거 이젠 달아매 가지고 옛날 바농질을 두루 헐 때는 바 농 찢러, 그것드레.(바늘쌘지에 그거 이젠 달아매 가지고 옛날 바늘질을 덜 할 때는 바늘 찢러, 그것에.)

106022 @ 그레 찢렁 놔뉘.(거기에 찢러서 놔뉘.)

106022 # 응, 바농쌘드레.(응, 바늘겨래에.)

106022 @ 바농쌘드레. 바농에 이디 실 영 끼우는 디 이수게, 바농귀?(바늘겨래 에. 바늘에 여기 실 이렇게 끼우는 데 잇잖아요, 바늘귀?)

106023 @ 천을 반으로 접어서 합치는 거. 천을 두 개를 영 반 접어 가지고 영 꼬매는 건 뉘엔 해?(천을 반으로 접어서 합치는 거. 천을 두 개를 이렇게 반 접어 가지고 이렇게 꿰매는 건 뉘라고 해?)

106023 # 합치는 거? 포 부찌근에, 폭 부찌다.(합치는 거? 폭 붙여서, 폭 붙이 다.)

106023 @ 포 부찌다?(포 붙이다?)

106023 # 폭, 폭.(폭, 폭.)

106023 @ 폭?(폭?)

106023 # 폭 부찌레.(폭 붙이러.)
 106023 @ 폭 부찌다.(폭 붙이다.)
 106023 # 응. 이것이 저 천이 이젠 영 요만씩 현 건디 이젠 으라 폭을 해사 너
 블 거 아니라게? 게민 폭을 부찌야지.(응. 이것이 저 천이 이젠 이렇게 요만큼씩 한
 것인데 이젠 여러 폭을 해야 넓을 거 아니냐? 그러면 폭을 붙여야지.)
 106023 @ 응. 폭 부찌다.(응. 폭 붙이다.)
 106023 # 미녕도 요 너비베끼 안 돼여이. 경허민 이제 두 폭을 헤사 뭐 바지나
 뭐 헐 거 아니라게?(무명도 요 너비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두 폭을 해야 뭐 바지
 나 뭐 할 거 아니냐?)
 106023 @ 응. 그믄 한 폭을 반으로 접영 영 허는 걸 뭐렌 글읍니까?(응. 그러면
 한 폭을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106023 # 반으로 줍양?(반으로 접어서?)
 106023 @ 응.(응.)
 106023 # 무시거 허여. 그건 옷에 따라랑 허주게.(무엇 해. 그건 옷에 따라서 하
 지.)
 106023 @ 옷에 따라. 바느질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이신가? 우린 홈질, 박음
 질 영 헤나신디?(옷에 따라. 바느질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가? 우린 홈질, 박
 음질 이렇게 했었는데?)
 106023 # 박음질은 뒷바농질⁸⁷⁾ 허는 거.(박음질은 ‘뒷바농질’ 하는 거.)
 106023 @ 뒷바농질?(‘뒷바농질’?)
 106023 # 이제 우리가 호와 갈 땐 앞으로만 호와 가거든.(이제 우리가 호아 갈
 땐 앞으로만 가거든.)
 106023 @ 호와 갈 땐?(호아갈 땐?)
 106023 # 그런데 이제 뒷바농질 박쟁 허민 또로 호와 낱 혼 번 또로 허여가민.
 (그런데 이제 ‘뒷바농질’ 박으려고 하면 또 호아 놓고 한 번 또 해가면.)
 106023 @ 뒷박음질 헤사?(뒷박음질 해야?)
 106023 # 응, 경허민 쭈루루허게 박아지주게.(응, 그렇게 하면 주르륵하게 박을
 수 있지.)
 106023 @ 쭈루루허게 박아져.(주르륵하게 박을 수 있어.)
 106023 # 경허민 든든행 좋주게.(그러면 단단해서 좋지.)
 106023 @ 영 천 이런 디 영영영 허는 건 뭐엔 글아?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천
 이런 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뭐라고 말해? 이렇게, 이렇게.)
 106023 # 무신거 그렇게 허는 거?(무엇 그렇게 하는 거?)
 106023 @ 휘갑치기.(휘갑치기.)
 106023 # 폭 부찌는 거 말양 무신거?(폭 붙이는 거 말고 무엇?)
 106023 @ 폭 부찌는 건 천을 늘리는 거.(폭 붙이는 것은 천을 늘리는 거.)

87) ‘뒷바농질’은 바느질의 한 방법으로 바느질 한 곳을 다시 돌아가서 박음질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6023 # 응.(응.)

106023 @ 이렇게 바느질 허는 거를 이런 모양으로 허는 거는 무슨 바느질? 끝에 풀리지 말게 허는 거?(요렇게 바느질 하는 거를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거는 무슨 바느질? 끝에 풀리지 않게 하는 거?)

106023 # 막작지우는 거?(매듭짓는 거?)

106023 @ 막작지우는 거.(매듭짓는 거.)

106023 # 응, 일로 헤여 갈 때 빠지지 안허게 막작을 지왕 쪽 허여 가당 막끄민 또로 막작을 영 지와사게 헐 거 아니가게?(응, 이리로 해서 갈 때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서 쪽 해 가다가 마치면 따로 매듭을 이렇게 지어야 할 거 아니냐?)

106023 @ 천 요기가 풀리지 말렌 영 감아 주는 건 뭐라?(천 요기가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감아 주는 건 뭐야?)

106023 # 감아주는 건 무시거. 홉곡 영 저 무시거베끼.(감아주는 건 무엇. 호고 이렇게 저 무엇밖에.)

옷 종류

106024 # 이건 저고리.(이건 저고리.)

106024 @ 이건 저고리. 이건?(이건 저고리. 이건?)

106024 # 바지.(바지.)

106024 @ 이건 바지. 그 갈중의는 밑에 바지는 뭐엔 곶아?(이건 바지. 그 ‘갈중의’ 밑에 바지는 뭐라고 말해?)

106024 # 것도 갈중의 그냥 바지.(그것도 ‘갈중의’ 그냥 바지.)

106024 @ 바지. 우엿 건?(바지. 위의 것은?)

106024 # 우엿 것도 저고리. 갈적삼.(위의 것도 저고리. ‘갈적삼.’)

106024 @ 중의, 중원 뭐?(중의, 중의는 뭐?)

106024 # 중의가 이거.(중의가 이거.)

106024 @ 중의가 바지?(중의가 바지?)

106024 # 응, 갈중의.(응, 갈중의.)

106024 @ 갈중의가 바지. 우엿 건 적삼?(갈중의가 바지. 위의 것은 적삼?)

106024 # 우엿 거 적삼.(위의 거 적삼.)

106024 @ 그럼 우엿 건 갈적삼, 밑에 건 갈중의.(그럼 위의 것은 갈적삼, 밑에 것은 갈중의.)

106024 # 응.(응.)

106024 @ 그냥 이런 한복 바지도 밑엿 건 중의엔 곶는가?(그냥 이런 한복 바지도 밑의 것은 중이라고 말하는가?)

106024 # 응, 경도 곶아.(응, 그렇게도 말해.)

106024 @ 중의, 적삼 이렇게 곶옵니까?(중의, 적삼 이렇게 말합니까?)

106024 # 중의, 적삼, 후루메⁸⁸⁾, 두루마기.(중의, 적삼, ‘후루메’, 두루마기.)

106024 @ 무신거 두루마기?(무엇 두루마기?)
 106024 # 후루메ㄹ라.(‘후루메’ 보고.)
 106024 @ 후루멘 뭐?(‘후루메’는 뭐?)
 106024 # 그거 두루마기 몰라? 짓ㄹ라 후루메.(그거 두루마기 몰라? 그것보고 ‘후루메’.)
 106024 @ 두루마기를 후루메엔 낄는구나.(두루마기를 ‘후루메’라고 말하는구나.)
 106024 # 응.(응.)
 106028 @ 응. 이렇게 바지 사이를 뭐라고 해? 이런 바지 사이에.(응. 이렇게 바지 사이를 뭐라고해? 이런 바지 사이에.)
 106028 # 밋.(밋.)
 106028 @ 밋.(밋.)
 106028 # 바짓밋.(바지밋.)
 106028 @ 바짓밋. 그다음에 치마.(바지밋. 그다음에 치마.)
 106028 # 치마주 것사.(치마지 그것이야.)
 106028 @ 치메?(‘치메’?)
 106028 # 치메엔도 허고 치마엔도 허고.(‘치메’라고도 하고 치마라고도 하고.)
 106028 @ 치메엔 글아?(‘치메’라고 말해?)
 106028 # 응.(응.)
 106028 @ 치마도 요기 이름이 요기 따로 잇고 끈이나 이런 거 따로 부르는.(치마도 여기 이름이 여기 따로 잇고 끈이나 이런 거 따로 부르는.)
 106028 # 건 허리게. 치멧허리.(그건 허리. 치마 허리.)
 106028 @ 치멧허리.(치마 허리.)
 106028 # 곱.(고름.)
 106028 @ 곱은 이거?(고름 이거?)
 106028 # 응.(응.)
 106028 @ 이게 곱. 곱이 곱.(이게 곱. 곱이 ‘곱’.)
 106028 # 이젧 사름덜은 곱, 곱해도 우린 곱이엔 허주.(이제 사람들은 곱, 곱해도 우린 곱이라고 하지.)
 106028 @ 기지예, 옛날엔 곱이렌 글앗어예. 요기 치마 밑에 안에 영 접어근에 바느질 험니께.(그렇지요, 옛날에는 ‘곱’이라고 말했지요. 여기 치마 밑에 안에 이렇게 접어서 바느질 하잖아요?)
 106028 # 단, 치멧단.(단, 치맛단.)
 106028 @ 치멧단. 요기 어깨. 한복은 여기 어깨에 끈 이수께?(치맛단. 요기 어깨. 한복은 여기 어깨에 끈 있잖아요?)
 106028 # 끈?(끈?)
 106028 @ 예 이렇게 끈, 내려오지 말렌.(예 이렇게 끈, 내려오지 말라고.)

88) ‘후루메’는 ‘후리메’라고도 하며 두루마기의 중세국어형인 ‘쿠루메, 쿠리메’에서 온 말이다.

106028 # 그건 게 어깨마리.(그건 어깨끈.)
106028 @ 어깨마리.(어깨끈.)
106028 # 이디 어깨에게, 이 지금 치마는 다 어깨마리주게.(여기 어깨에, 이 지금 치마는 다 어깨끈이지.)
106028 @ 어깨마리?(어깨끈?)
106028 # 옛날은 허리만 메었주마는 이젠 다 어깨마리.(옛날은 허리에만 매었지만 이젠 다 어깨끈.)
106028 @ 옛날에 한복은 이렇게 입어근에 끼웁니까?(옛날에 한복은 이렇게 입어서 끼우잖아요?)
106028 # 경허난 그땐. 이 허리 치메라고 허리만 허단.(그러니까 그땐. 이 허리 치마라고 허리만 하다가.)
106028 @ 아, 허리 치메라난.(아, 허리 치마였었어.)
106028 # 이제 어깨마리는 중간에 난 거라.(이제 어깨끈은 중간에 난 거야.)
106028 @ 아, 중간에 난 거.(아, 중간에 난 거.)
106028 # 입기 좋주게, 어깨에.(입지 좋지, 어깨에.)
106028 @ 맞아마씨. 내려오지도 않고.(맞아요. 내려오지도 않고.)
106028 # 내리지 않고, 거 좋아.(내리지 않고, 그거 좋아.)
106028 @ 이런 한복도 밑에 이름 따로 잇고 요기.(이런 한복도 밑에 이름 따로 잇고 여기.)
106028 # 요건 끈동.(요건 끝동.)
106028 @ 요긴 끈동.(요긴 끝동.)
106028 # 요건 짓.(요건 깃.)
106028 @ 어느 거 짓?(어느 거 깃?)
106028 # 이거 너븐 건 짓이고 요건 동전.(이거 넓은 건 깃이고 요건 동정.)
106028 @ 아 너븐 건 짓이고 요 하양헌 건 동정.(아 넓은 건 깃이고 요 하얀 건 동정.)
106028 # 동전.(동정.)
106028 @ 그다음에 요 밋에는?(그다음에 요 밑에는?)
106028 # 이건 끈동.(그건 끝동.)
106028 @ 여긴 끈동. 소맷부리는 요기 요 밋에는?(여긴 끝동. 소맷부리는 요기 밑에는?)
106028 # 이건 이몸⁸⁹⁾이고 이건 저 거시기 소미고게.(이건 ‘이몸’이고 이건 저 거시기 소매고.)
106028 @ 몸이고 이건 소미?(몸이고 이건 소매?)
106028 # 이몸, 이것 ㄹ라 저고리 이몸이엔 말허고.(‘이몸’, 이것보고 저고리 길이라고 말하고.)

89) ‘이몸’은 저고리 몸통 부분으로 ‘길’을 말하는 것이다.

106028 @ 아 이몸.(아, 길.)
106028 # 저고리에도 이름이 하. 요건 앞섰.(저고리에도 이름이 많아. 요건 앞
섰.)
106028 @ 예.(예.)
106028 # 요건 이몸.(요건 길.)
106028 @ 잠깐만 흥품만 천천히.(잠깐만 조금만 천천히.)
106028 # 것도 몰라근에.(그것도 몰라서.)
106028 @ 몰란에.(몰라서.)
106028 # 겨난에 저. 짓.(그러니까 저. 짓.)
106028 @ 짓.(짓.)
106028 # 동전.(동정.)
106028 @ 동전.(동정.)
106028 # 앞섰.(앞섰.)
106028 @ 앞섰.(앞섰.)
106028 # 요건 소미.(요건 소매.)
106028 @ 소미.(소매.)
106028 # 끝동.(끝동.)
106028 @ 끝동.(끝동.)
106028 # 곱, 그다음.(고름, 그다음.)
106028 @ 그다음에 고름은 곱.(그다음에 고름은 '곱'.)
106028 # 그거 다 땀주.(그거 다 땀지.)
106028 @ 다 땀 철?(다 땀 셈?)
106028 # 응, 이 저고리에도 이름이 많거든.(응, 이 저고리에도 이름이 많거든.)
106028 @ 계난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부르는 이름도 이신 거 다향게.(그러니까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부르는 이름도 있는 거 같던데.)
106028 # 계 이거 동전.(그래 이거 동정.)
106028 @ 아니 여기 팔 이렇게.(아니 여기 팔 이렇게.)
106028 # 소미계, 소미.(소매, 소매.)
106028 @ 그냥 소미. 응. 이런데 풀러지지 말라고 단추 같은 거 뭇니께?(그냥
소매. 응. 이런데 풀어지지 말라고 단추 같은 거 매잖아요?)
106029 # 단추 그거.(단추 그거.)
106029 @ 옛날 단추엔 안 굳고 다른 거엔 굳지 안헐?(옛날 단추라고 말 안하고
다른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
106029 # 단추, 거. 단추엔 허여 거.(단추, 그거. 단추라고 해 그거.)
106029 @ 믱작?(매듭?)
106028 # 믱작단추 잇주게. 믱작으로 꿩, 끈으로 춘 거 믱작단추라고.(매듭단추
있지. 매듭으로 이렇게 마쳐서, 끈으로 마친 거 매듭단추라고.)

106029 @ 건 막작단추.(그것은 매듭단추.)
106029 # 이 지금도 한복 그 저 관광객들신된 폴쟁허민 막작단추 취근앵이 들
주게.(이 지금도 한복 그 저 관광객들에겐 팔려고 하면 매듭단추 맞춰서 달지.)
106029 @ 계난예.(그러니까요.)
106029 # 건 막작단추.(그건 매듭단추.)
106029 @ 그건 막작단추.(그건 매듭단추.)
106029 # 응. 막작단추.(응. 매듭단추.)
106024 @ 아까 두루메기는 후루메예?(아까 두루마기는 ‘후루메’요?)
106024 # 후루메.(‘후루메’.)
106024 @ 도포는? 포제 같은 거 할 때 입는.(도복은? 포제 같은 거 할 때 입
는.)
106024 # 아, 도폭.(아 도복.)
106024 @ 건 도폭, 그냥 도포?(그건 ‘도폭’, 그냥 ‘도포’?)
106024 # 도폭이엔 허주. 큰옷이엔도 허고.(‘도폭’이라고 하지. 큰옷이라고도 하
고.)
106024 @ 큰옷이엔도 허고?(큰옷이라고도 하고?)
106024 # 도폭이엔도 허고.(도복이라고도 하고.)
106024 @ 도폭이엔도 허고.(도복이라고도 하고.)
106024 # 또 이 이 호상도 도폭도 허는 이도 잇꼭 후루메만 허는 이도 잇꼭 경
허여.(또 이 이 수의도 도복도 하는 이도 있고 두루마기만 하는 이도 있고 그렇게
해.)
106024 @ 아, 뭐부터 입어? 후루메 입어 도폭 입는 거, 우에?(아, 뭐부터 입어?
두루마기 입고 도복 입는 거, 위에?)
106024 # 도폭 입어. 우리도 이제 호상도 장옷.(도복 입어. 우리도 이제 수의도
장옷.)
106025 @ 계난 장옷은 어떤 거파?(그러니까 장옷은 어떤 겁니까?)
106025 # 장옷은 여자 거.(장옷은 여자 거.)
106025 @ 어떤 때 입으는 거?(어떤 때 입는 거?)
106025 # 그거 여자 건디 호상에 들어가는 거.(그거 여자 것인데 수의에 들어가
는 거.)
106025 @ 호상이 뭐?(‘호상’이 뭐?)
106025 # 갈 때게 호상 어샤게?(갈 때, 수의 없니?)
106025 @ 수의. 돌아가셨을 때.(수의. 돌아가셨을 때.)
106025 # 수의, 수의. 참 수의엔 헤라, 요새에.(수의, 수의. 참 수의라고 하더라,
요새에.)
106025 @ 응. 계문 그 장옷은 호상으로도 입꼭 옛날에는 어디 나갈 때 썩 나가
지 안했수과?(응. 그러면 그 장옷은 수의로도 입고 옛날에는 어디 나갈 때 썩서 나

가지 않았습니까?)

106025 # 그건이 조선 왕조 때.(그건 조선 왕조 때.)

106025 @ 우리 법은 엇어?(우리 법은 없어?)

106025 # 우리 법은 엇어. 이 민간엔 없어.(우리 법은 없어. 이 민간엔 없어.)

106025 @ 결혼할 땐?(결혼할 땐?)

106025 # 결혼할 때 거 입어. 우리 세대까지 입어.(결혼할 때 그거 입어. 우리 세대까지 입었어.)

106025 @ 결혼할 때는 옷을 저.(결혼할 때는 옷을 저.)

106025 # 한복 입어 우이 장옷 입어.(한복 입어서 위에 장옷 입어.)

106025 @ 한복 입어 우에 장옷 입고 위에 영 허지 안해? 쓰는 거.(한복 입고 위에 장옷 입고 위에 이렇게 하지 않아? 쓰는 거.)

106025 # 족두리 써난, 난.(족두리 썼어, 난.)

106025 @ 우에 족두리 쓴 거 말양 치메도 뒤집어 쓰지 안해?(위에 족두리 쓴 거 말고 치마도 뒤집어 쓰지 않아?)

106025 # 아니.(아니.)

106025 @ 아. 그럼 그냥 한복 치메 저고리 위에 장옷 입어 족두리 썩.(아. 그럼 그냥 한복 치마 저고리 위에 장옷 입고 족두리 써서.)

106025 # 경혜낫주게.(그랬었지.)

106025 @ 소꿉에도 뭐 입어야 될 거 아니파? 소꿉엔 뭐 입어?(속에도 뭐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속엔 뭐 입어?)

106025 # 소꿉에 옷 갖추지. 뭐.(속에 옷 갖추지. 뭐.)

106025 @ 뭐뭐 입어?(뭐뭐 입어?)

106025 # 속에는이 저고리 속에 속적삼.(속에는 저고리 속에 속적삼.)

106025 @ 속적삼.(속적삼.)

106025 # 응, 다 입어.(응, 다 입어.)

106025 @ 밑에는?(밑에는?)

106025 # 밑에도 속바지가 두 개지.(밑에도 속바지가 두 개지.)

106025 @ 속바지보다 더 안엔 뭐 입어?(속바지보다 더 안에 뭐 입어?)

106025 # 안에 속곳.(안에 속곳.)

106025 @ 속곳.(속곳.)

106025 # 속곳이엔 허영이 이제 그 이젠 뽀스덜 나오난 험주이, 속곳이 좋아. 거 입으면. 우리 입어.(속곳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제 팬티들 나오니까 하고 있지. 속곳이 좋아. 그거 입으면. 우리 입었었어.)

106025 @ 고쟁이, 그 속곳이 고쟁인가?(고쟁이, 그 속곳이 고쟁인가?)

106025 # 속곳이라고 해서 미녕으로 이제 해서 그 영.(속곳이라고 해서 무명으로 이제 해서 그 이렇게.)

106025 @ 뽀스 대신?(팬티 대신?)

106025 # 응, 뺨스 대신 그거 주로 입었주.(응, 팬티 대신 주로 그거 주로 입었지.)

106025 @ 팔에 요즘에도 허주마는 고무줄 영, 일할 때 토시같은 거?(팔에 요즘에도 하지마는 고무줄 이렇게, 일할 때 토시 같은 거?)

106025 # 아 거 풀띠.(아 거 팔띠.)

106025 @ 무신거?(무엇?)

106025 # 풀띠.(팔띠.)

106025 @ 풀띠. 검질벨 때 영허는 거? 이젠 막 토시, 토시허는다.(팔띠. 김멜 때 이렇게 하는 거? 이젠 막 토시, 토시하는데.)

106025 # 풀띠게 풀띠. 것도 이제사 낫져. 옛날 우리 시절엔 것도 벗어난.(팔띠, 팔띠. 그것도 이제야 나왔어. 옛날 우리 시절에는 그것도 없었어.)

106025 @ 벗어난.(없었어.)

106025 # 이제사 풀띠, 장갑 낫주, 아이고. 벗어난 온말로.(이제야 팔띠, 장갑 나왔지, 아이고. 없었어 정말로.)

106025 @ 어떻게근에 헤납디가?(어떻게 해서 했었습니까?)

106025 # 우리 그냥 맨손에 맨손에 검질도 메고, 검질도 비고. 경혜난, 옛날은.(우리 그냥 맨손에 맨손에 검도 매고, 검도 베고. 그렇게 했었어, 옛날은.)

106025 @ 옛날은 어려우난 지금사 새옷 한다.(옛날은 어려우니까 지금이야 새옷 많은데.)

106025 # 그런 기지가 셔시냐게?(그런 옷감 있었니?)

106025 @ 어려우난 막 꼬맹.(어려우니까 막 꿰매서.)

106025 # 주영.(꿰매서.)

106025 @ 주영 입을 거 아니파? 막 여러 번 주민 옷이 어떻 돼 불어?(꿰매서 입을 거 아닙니까? 막 여러 번 꿰매면 옷이 어떻게 되어 버려?)

106025 # 어떻 돼여게, 보기 싫주게.(어떻게 돼, 보기 싫지.)

106025 @ 하하하.(하하하.)

106025 # 경해도 혈 수 엇이 입주게. 어떻허여게?(그래도 할 수 없이 입지. 어떻게 하니?)

106024 @ 옛날 남자들 입던 바진데 바지가 요기까지밖에 안 오는 짧은 바지.(옛날 남자들 입던 바진데 바지가 요기까지밖에 안 오는 짧은 바지.)

106024 # 그거이 점벙이주마는.(그것 잠방이지마는.)

106024 @ 무신거?(무엇?)

106024 # 점벙이엔 곧주마는 이제사 그런 것도 낫주. 옛날엔 긴 바지만 하영 입어.(잠방이라고 말하지마는 이제야 그런 것도 나왔지. 옛날에는 긴 바지만 많이 입어.)

106024 @ 여자들은 안 입고 남자만 입어, 점벙이는?(여자들은 안 입고 남자만 입어, 잠방이는?)

106024 # 응.(응.)

106024 @ 바지 영 잘잘 내리지 않게 영 매는 건 뭐엔 골옵니까?(바지 이렇게 잘잘 내리지 않게 이렇게 매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106024 # 허리띠.(허리띠.)

106024 @ 허리띠. 다른 말론 없고?(허리띠. 다른 말로는 없고?)

106024 # 엇어. 허리띠.(없어. 허리띠.)

106024 @ 주머니는?(주머니는?)

106024 # 주머니주.(‘주머니’지.)

106024 @ 주머니?(‘주머니’?)

106024 # 응, 아 이거 보곰지, 보곰지.(응, 아 이거 주머니, 주머니.)

106024 @ 보곰지. 한복 입을 때는 보곰지가 엇이든 따로 영.(주머니. 한복 입을 때는 주머니가 없으면 따로 이렇게.)

106024 # 한복 입을 때 보곰지 엇이난이 이젠이 그 종난에게 소곰에 입는 바자 마 엇샤게? 그디 보곰지 들지.(한복 입을 때 주머니 없으니까 이제는 그 좋으니까 속에 입는 파자마 없니? 거기 주머니 달지.)

106024 @ 아.(아.)

106024 # 우리 이제 나도 저.(우리 이제 나도 저.)

106024 @ 허리에 영 차게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엇어? 복주머니 처럼.(허리에 이렇게 차게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엇어? 복주머니처럼.)

106024 # 엇어, 엇어. 그런 거 한복 입을 때 출러졌어?(없어, 없어. 그런 거 한복 입을 때 차렸니?)

106028 @ 한복 입을 때 신는 건?(한복 입을 때 신는 건?)

106028 # 보선, 보선.(버선, 버선.)

106028 @ 보선. 보선도 이름이 잇주예? 요기 이름이영 요기 이름이영 이런 거 잇지예?(버선. 버선도 이름이 잇지요? 요기 이름이랑 요기 이름이랑 이런 거 잇지요?)

106028 # 엇어.(없어.)

106028 @ 요거는 보선코.(요거는 버선코.)

106028 # 응, 보선코.(응, 버선코.)

106028 @ 예.(예.)

106028 # 보선코. 보선 이거 혈민 보선볼 받았 신어났어. 옛날.(버선코. 버선 이거 혈면 버선볼 받아서 신었었어, 옛날.)

106028 @ 볼 받았 신는 건 어떻게 하는 거?(볼 받아서 신는 건 어떻게 하는 거?)

106028 # 주영.(꽤매서.)

106028 @ 주영. 볼 받았.(꽤매서. 볼 받아서.)

106028 # 여기가 혈민게 볼 받았 신었주게.(여기가 혈면 볼 받아서 신었지.)

106028 @ 응. 그럼 이디가 보선불이네.(응. 그럼 여기가 버선불이네.)
 106028 # 응.(응.)
 106028 @ 여기는?(여기는?)
 106028 # 거 무신거라, 것사 보선.(거 무엇이야, 그거야 버선.)
 106028 @ 보선목?(버선목?)
 106028 # 응, 보선목.(응, 버선목.)
 106028 @ 목이엔 곱습니까?(목이라고 말합니까?)
 106028 # 응.(응.)
 106028 @ 아, 보선등.(아, 버선등.)
 106028 # 보선목, 그디.(버선목, 거기.)
 106028 @ 이디 보선목. 보선 꿈치 뭐 이런 말 엇어마씨, 보선등?(여긴 버선목. 버선 꿈치 뭐 이런 말 없어요, 버선등?)
 106028 # 그런 거 엇다게. 이디 마라 뒷척이엔 허곡.(그런 거 없다. 여기보고 뒷축이라고 하고.)
 106028 @ 뒤척이. 앞인?(뒤축. 앞엔?)
 106028 # 앞이게 불 받곡게, 앞이. 보선코, 뒷척이게 그거주게.(앞에 불 받고, 앞에. 버선코, 뒤축 그거지.)
 106028 @ 그거, 그거.(그거, 그거.)
 106028 # 허허, 그것도 몰라.(허허, 그것도 몰라.)
 106028 @ 그것도 몰란에. 혹시 그냥 평상시에 신는 거 말고. 헐어 가지고 헌 버선을 다르게 부르는 말 이서마씨?(그것도 몰라서. 혹시 그냥 평상시에 신는 거 말고. 헐어 가지고 헌 버선을 다르게 부르는 말 있어요?)
 106028 # 질목.(길목.)
 106028 @ 질목.(길목.)
 106028 # 밧디 갈 땐 질목 신영 가주게.(밭에 갈 땐 길목 신어서 가지.)
 106028 @ 계난 밧디 갈 땐.(그러니까 밧에 갈 땐.)
 106028 # 조천⁹⁰광 이디사 뜨나느냐?(조천과 여기야 다르느냐?)
 106028 @ 아니 할머니가 물어보민 잘 모르는 할머니가 많아. 표준어밖에 몰랑에 옛날 말 다 잊어불엇덴 뭐렌 곱아나신지 몰르켜, 몰르켜 허는디 할머니 완전 딱딱 곱아줘.(아니 할머니가 물어보면 잘 모르는 할머니가 많아. 표준어밖에 몰라서 옛날말 다 잊어버렸다고 뭐라고 말했었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데 할머니는 완전 딱딱 말해줘.)
 106028 # 좋켜, 게민.(좋겠다, 그러면.)
 106024 @ 남자들은 한복 요기 밧 영행 무릅니께?(남자들은 한복 요기 밧 이렇게 해서 뭉잖아요?)

90) 제주도 조천읍 조천리를 말하는 것으로 조사자의 시택이 조천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조천과 선흥은 비슷한 언어권이라는 말이다.

106024 # 다림, 다림.(대님, 대님.)
106024 @ 다림.(대님.)
106024 # 다림 치어.(대님 차.)
106028 @ 그른 신발 신 안 신고 보선만.(그러면 신발 신 안 신고 버전만.)
106028 # 맨발, 맨발.(맨발, 맨발.)
106028 @ 버전만 신영 나가는 거.(버전만 신고 나가는 거.)
106028 # 맨발에 보선창에 감젠 허주게.(맨발에 '보선창'에 간다고 하지.)
106028 @ 보선창.(보선창.)
106028 # 보선창에 가민 안 돼지.(보선창'에 가면 안 되지.)
106028 @ 반가운 사람이 오면 신발도 안 신영 화닥탁 나갑니까?(반가운 사람이 오면 신발도 안 신어서 화닥탁 나가잖아요?)
106028 # 경허민 보선창에 나갔덴 허주게.(그러면 '보선창'에 나갔다고 하지.)
106028 @ 보선창에.(보선창'에.)
106028 # 경허주 어떻허여게. 게 반가운 사름 왕 신 못 신영 보선창에 나감베끼 혈 수 셔?(그렇게 하지 어떻게 해. 그러게 반가운 사람 와서 신 못 신고 버전발에 나감밖에 할 수 있어?)
106028 @ 버전이나 양말 안 신고 천으로 발 영 감아근에.(버전이나 양말 안 신고 천으로 발 이렇게 감아서.)
106028 # 천으로 감진 안허주. 맨발에 가주, 맨발에.(천으로 감지는 않지. 맨발에 가지, 맨발에.)
106028 @ 아니 그냥 일혈 때.(아니 그냥 일할 때.)
106028 # 일혈 때도 그런 건 안 해난.(일할 때도 그런 건 안 했었어.)
106028 @ 그건 안 해반예.(그건 안 했봤다고요.)
106028 # 양말이라도 질목 현 거라도 신어사주게.(양말이라도 질목 현 거라도 신어야지.)
106028 @ 질목 현 거라도예 질목이 양말, 보선?(질목 현 거라도요. 질목이 양말, 버전?)
106028 # 응, 양말도 허고 보선도 기고게.(응, 양말도 하고 버전도 맞고.)
106028 @ 보선도 기고, 양말도 기고, 다 질목?(버전도 맞고, 양말도 맞고 다 질목?)
106028 # 응, 현 거.(응, 현 거.)
106028 @ 발에 신는 건 다. 현 거는 다 질목.(발에 신는 건 다. 현 거는 다 질목.)
106028 # 현 거, 밧디 가는 거.(현 거, 발에 가는 거.)
106028 @ 허름한 거.(허름한 거.)
106028 # 새 건 아깝지 안허여게?(새 건 아깝지 않느냐?)
106028 @ 계난예.(그러니까요.)

106028 # 경허난 길목 신영 밧디 가사주.(그러니까 길목 신어서 밧에 가야지.)
 106028 @ 할머니 너무 잘 알아줘부난.(할머니 너무 잘 말해주니까.)
 106028 # 이거 옛날 말이여, 옛날 말.(이거 옛날 말이야, 옛날 말.)
 106028 @ 계난 옛날 말.(그러니까 옛날 말.)
 106028 # 우린 두린 때 해난 말.(우리 어릴 때 했던 말.)
 106028 @ 그거 물어보젠예 우리가 막 돌아다녔.(그거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막 돌아다녔어.)
 106028 # 이거 양말도 흔허 건디가 십 년도 안 뵤다고, 나가 알건이.(이거 양말도 흔해진 지가 십 년도 안 뵤다고, 내가 알건데.)
 106028 @ 응.(응.)

재단과 염색

106030 @ 옛날에 빨래는 어디 강 해납디가?(옛날에 빨래는 어디 가서 했었습니까?)
 106030 # 아이고 빨래. 이 선홀엔 물이 어려와.(아이고 빨래. 이 선홀엔 물이 어려워.)
 106030 @ 거난.(그러니까.)
 106030 # 반못이엔 현 물 잇고, 요디 먼물깍. 이제도 그 부근에 잇어. 그 물은.(‘반못’이라고 한 물이 있고, 요기 ‘먼물깍’. 이제도 그 부근에 잇어. 그 물은.)
 106030 @ 먼물깍?(‘먼물깍’?)
 106030 # 먼물깍허고 저 반못.(‘먼물깍’하고 저 ‘반못’.)
 106030 @ 먼물깍은 어디 신 거?(‘먼물깍’은 어디 있는 거?)
 106030 # 요 믱을 베꿧디.(요 마을 밖에.)
 106030 @ 아.(아.)
 106030 # 선홀곳.(‘선홀곳’.)
 106030 @ 선홀곳?(‘선홀곳’?)
 106030 # 응. 이디덜 윈 안 뎡겨났구나.(응. 여기들 윈 안 다녔었구나.)
 106030 @ 동백동산?(‘동백동산’?)
 106030 # 응. 동백동산더레 들어가는 목제기에.(응. ‘동백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106030 @ 어디 봐난 거 닙아, 먼물깍이엔 써진 거를.(어디 봤던거 같아, ‘먼물깍’이라고 쓰인 것을.)
 106030 # 응, 먼물깍. 게고 또 반못, 반못은 큰 물이라.(응, ‘먼물깍’. 그리고 또 ‘반못, 반못’은 큰 물이야.)
 106030 @ 건 어디 신 거꽈?(그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106030 # 저 선홀곳드레 들어가는 디.(저 ‘선홀곳’으로 들어가는 데.)
 106030 @ 것도?(그것도?)

106030 # 응. 그거 허여근앵이.(응. 그거 해서.)

106030 @ 빨래 어떻?(빨래 어떻게?)

106030 # 그디 강 빨래 허곡.(거기 가서 빨래 하고.)

106030 @ 뭘로, 빨래 옛날엔 비누도 벗어나실 거 아니짜?(무엇으로, 빨래 옛날엔 비누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106030 # 비누도 그 제국 때 해방되기 전이는 넘어졌단 그 고리에는 비누도 벗어나져났저게.(비누도 그 제국 때 해방되기 전에는 널렀다가 그 즈음에는 비누도 없어졌었어.)

106030 @ 그 전엔 이어나고?(그 전에는 있었고?)

106030 # 응, 그 전엔 이어나고.(응, 그 전에는 있었고.)

106030 @ 뭘로 만든 비누고, 그때는?(무엇으로 만든 비누이고, 그때는?)

106030 # 몰라, 뭘로사 만들앗는디 비누가 이어나는데 그 제국 시절로 스삼사건엔 통화가 막아져 가지고 것도 막 어려와 나고.(몰라, 무엇으로야 만들었는지 비누가 있었는데 그 제국 시절로 사삼사건엔 통화가 막혀 가지고 그것도 아주 어려웠었고.)

106030 @ 응.(응.)

106030 # 경헛저, 우리 두릴 때 헤여난 거 굳는 거주, 이거.(그랬었어, 우리 어릴 때 했던 거 말하는 거지, 이거.)

106030 @ 응.(응.)

106030 # 우리가 혼 열 멧 설 돼어 가난에 그 학교도 못허연 경 막 군인덜 와 근앵이 학교에 주둔해 불고 허민 못헤연, 공부도 못허였저게, 우리.(우리가 한 열 멧 살 되어 가니까 그 학교도 못해서 그렇게 막 군인들 와서 학교에 주둔해 버리고 하면 못했어, 공부도 못했어, 우리.)

106030 @ 빨래 영허민 거품도 일어나잖아예, 거품은 제주도 말로 뭐 굳는 말 이수과?(빨래 이렇게 하면 거품도 일어나잖아요, 거품은 제주도 말로 뭐 말하는 말 있습니까?)

106030 # 엇어, 그냥 게끔이엔 허여, 것ㄴ라.(없어, 그냥 ‘게끔’이라고 해, 그것보고.)

106030 @ 게끔, 응.(‘게끔’, 응.)

106030 # 것ㄴ란 게끔이엔 허고, 거품.(그것보고는 ‘게끔’이라고 하고, 거품.)

106030 @ 빨래, 이런 디서 부각부각허는 것도 게끔이고 빨래에 나오는 것도 게끔이고 다 게끔이구나예?(빨래, 이런 데서 ‘부각부각’하는 것도 ‘게끔’이고 빨래에 나오는 것도 ‘게끔’이고 다 ‘게끔’이군요?)

106030 # 응.(응.)

106030 @ 빨랜 영 두드리는 거.(빨랜 이렇게 두드리는 거.)

106030 # 방멩이게, 그 마께, 마께.(방망이, 그 ‘마께, 마께’.)

106030 @ 마께. 빨래허는 마께는 빨래마께, 이렇게 따로 불러신가마씨?(‘마께’.

빨래하는 방망이는 ‘빨래마깨’, 이렇게 따로 불렀나요?)

106030 # 서답마깨.(‘서답마깨’.)

106030 @ 아, 서답마깨. 빨래를 바구니에다가 아니면 무슨 구덕에라도 낵 가정 가야될 거 아니파예?(아, ‘서답마깨’. 빨래를 바구니에다가 아니면 무슨 구덕에라도 낵고 가져서 가야될 거 아닙니까?)

106030 # 응.(응.)

106030 @ 그 큰 그 구덕은 또 서답구덕이나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까?(그러면 그 바구니는 또 ‘서답구덕’이나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까?)

106030 # 아니, 그냥 서답구덕.(아니, 그냥 ‘서답구덕’.)

106030 @ 그냥 서답구덕이엔도 곶아?(그냥 ‘서답구덕’이라고도 말해?)

106030 # 응.(응.)

106030 @ 빨래는 허젠 허민 비누 무청 영현 다음에 물에 영 어떻 허여?(빨래는 하려고 하면 비누 묻혀서 이렇게 한 다음에 물에 이렇게 어떻게 해?)

106030 # 물에 그냥 헤왕.(물에 그냥 행귀서.)

106030 @ 헤왕.(행귀서.)

106030 # 물에 강 그디 뭐 돌팡에덜게 막.(물에 가서 거기 뭐 ‘돌팡’에들 막.)

106030 @ 돌팡에다가.(‘돌팡’에다가.)

106030 # 물긱되 팡에게, 헛주게.(물가에 ‘팡’에, 헛지.)

106030 @ 계민 그거 다 현 다음에 들렁 집이 왕 널어?(그러면 그거 다 한 다음에 들고 집에 와서 널어?)

106030 # 응.(응.)

106030 @ 어디 강 널어?(어디 가서 널어?)

106030 # 집이 오랑 널엄주, 지어 아저오랑.(집에 와서 널고 있지, 져서 가져와서.)

106030 @ 뭐 빨래줄에다 널어?(뭐 빨래줄에다 널어?)

106030 # 응.(응.)

106030 @ 그 빨래줄은 제주도말로 무신거엔 곶아.(그 빨래줄은 제주도말로 뭐라고 말해?)

106030 # 무시거, 서답베.(무엇, ‘서답베’.)

106030 @ 아, 서답베.(아, ‘서답베’.)

106030 # 호호호.(호호호.)

106030 @ 그 서답베를 영 늘어지니까 가운데 영 낭데기라도 하나 영 세우민.(그 빨랫줄을 이렇게 늘어지니까 가운데 이렇게 나무라도 하나 이렇게 세우면.)

106030 # 그거 작데기로 바탕.(그거 막대기로 받쳐서.)

106030 @ 거난 그거 작데긴 무신거엔 곶아?(그러니까 그거 막대긴 무엇이라고 말해?)

106030 # 그거 ㄹ라 무시거 서답바드랭이주.(그것보고 무엇 ‘서답바드랭이’지.)

106030 @ 서답바드랭이. 아, 우리 이런 거 궁금한 거마씨.(‘서답바드랭이’. 아, 우리 이런 거 궁금한 거예요.)

106030 # 하하하.(하하하.)

106030 @ 계란 빨래를 영 서답베에다가 빨래를 영 걸치는 거, 빨래 너는 거는. (그러니까 빨래를 이렇게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이렇게 걸치는 거, 빨래 너는 것은.)

106030 # 서답베.(‘서답베’.)

106030 @ 거기다가 빨래 넣고. 빨래 마르민 어떻 해? 다 말르민.(거기다가 빨래 넣고. 빨래 마르면 어떻게 해? 다 마르면.)

106030 # 들르민 들여당 입주, 어떻허여?(마르면 들여다가 입지, 어떻게 해?)

106030 @ 들이는 거예.(들이는 거요.)

106030 # 그 옛날 광목 입을 땐 이제 빨앙 풀헤여근에 방멩이, 그 저 서답마께 가 있어. 두드리는 거, 안반에.(그 옛날 광목 입을 땐 이제 빨아서 풀해서 방망이에, 그 저 빨랫방망이가 있어. 두드리는 거, 안반에.)

106030 @ 거 말고 다듬이 이수게, 그건 무신거엔 곶아?(그거 말고 다듬이 있잖 아요, 그건 무엇이라고 말해?)

106030 # 다듬이마께.(다듬잇방망이.)

106030 @ 다듬이마께. 밑에 잇는 건?(다듬잇방망이. 밑에 잇는 건?)

106030 # 안반.(안반.)

106030 @ 안반. 영 두드리는 건 다듬이 마께.(안반. 이렇게 두드리는 것은 다듬 잇방망이.)

106030 # 응, 그때도 다듬이엔은 곶아.(응, 그때도 다듬이라고 말해.)

106030 @ 아, 쟁 그걸로 영 두드려?(아,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두드려?)

106030 # 쪼끌락헌 마께 두 개로.(조그만 방망이 두 개로.)

106030 @ 응, 마께 두 개로.(응, 방망이 두 개로.)

106030 # 막 ㄱ을 들민 저을에 입을 거 다듬이 허는 딴 많이 허여. 멩지웃 입는 사람이 주로 더 허고.(막 가을 들면 겨울에 입을 거 다듬이 하는 데는 많이 해. 멩 주웃 입는 사람이 주로 더 하고.)

106030 @ 응.(응.)

106030 # 멩지웃은이 빨아근에 다듬으민 새것 닳아.(멩주웃은 빨아서 다듬으면 새것 같아.)

106030 @ 아.(아.)

106030 # 옛날 비단도 경허고.(옛날 비단도 그렇게 하고.)

106030 @ 응.(응.)

106030 # 비단.(비단.)

106030 @ 다듬인 혼자만 험니까? 아니민 누게영 ㄱ찌 험니까?(다듬이는 혼자만 험니까? 아니면 누구랑 같이 험니까?)

106030 # 으라이, 둘이 앓앙 험 때 재미나주게.(여럿이, 둘이 앓아서 할 때 재미

있지.)

106030 @ 둘이 ㄴ찌 허여?(둘이 같이 해?)

106030 # 마께 네 개 허영.(방망이 네 개 해서.)

106030 @ 마께 네 개 허영. 잘못허민 영 못아져 불지 안허여?(방망이 네 개 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무쉬 버리지 않아?)

106030 # 경허기도 허꼭게.(그렇게 하기도 하고.)

106030 @ 하하하.(하하하.)

106030 # 경 허는 거 우리 두린 때 잘 봐낫주.(그렇게 하는 거 우리 어릴 때 잘 봤었지.)

106030 @ 아.(아.)

106030 # 광목도 풀 헤여근에 다듬곡 막 해야 새것 닳아.(광목도 풀 해서 다듬고 막 해야 새것 같아.)

106031 @ 감옷은 감물 들이민 어떻허여?(감옷은 감물 들이면 어떻게 해?)

106031 # 감옷 들여근에 널었다근에 발강허민 입주게.(감옷 들어서 널었다가 빨갱게 되면 입지.)

106031 @ 색깔이.(색깔이.)

106031 # 이제 색깔.(이제 색깔.)

106031 @ 이제 색깔. 처음에 별정헛당 나중에 어떻 됩니까?(이제 색깔. 처음에 빨갱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6031 # 그자 헤영헌 거 플라가민 그대로 웨여.(그냥 하얀 거 말라가면 그대로 되어.)

106031 @ 그래도 오래 입어 가민 변허잖아.(그래도 오래 입어 가면 변하잖아.)

106031 # 오래 입어가민 거멍허주게. 색깔 막 벤허여.(오래 입어가면 거멍게 되지. 색깔 막 변해.)

106031 @ 햇별에 많이 맞이민 색깔이 바래는 거 있잖아예, 그건 제주도 말로 뭐엔 곤는고?(햇별에 많이 맞으면 색깔이 바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제주도 말로 뭐라고 말하는고?)

106031 # 무시거 발레엇젠 허주.(무엇 바래었다고 하지.)

106031 @ 발렛저. 발레엇저.(바래었다, 바래었다.)

106031 # 이제도 감 들영 발레주게.(이제도 감 들어서 바래지.)

106031 @ 예 발레주예?(예 바래지요.)

106031 # 벳디 발레여.(별에 바래.)

106030 @ 응. 저 옷 같은 거 만들다가 천 흐끔씩 남는 거 이수게. 형곶들예, 그런 건 뭐엔 곶아?(응. 저 옷 같은 거 만들다가 천 조금씩 남는 거 있잖아요. 형곶들요, 그런 건 뭐라고 말해?)

106030 # 조각.(조각.)

106030 @ 그냥 조각, 다른 말로는 엇어?(그냥 조각, 다른 말로 엇어?)

106030 # 엇어.(없어.)

106030 @ 응.(응.)

106030 # 조각 남은 걸로 옷도 또 허고.(조각 남은 걸로 옷도 또 하고.)

106030 @ 아, 조각 남은 걸로.(아, 조각 남은 걸로.)

106030 # 경계.(그렇게.)

106030 @ 영 잡아근에 영 허민 복끼 찢어져 뽀니께. 찢는덴 곶아, 치진덴 곶아?(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복끼’ 찢어져 버리잖아요. 찢는다고 말해, ‘치진’다고 말해?)

106030 # 브러젯젠 허주게.(‘브러젯젠’ 하지.)

106030 @ 브러젯저.(‘브러젯저.’)

106030 # 제줏말로게.(제줏말로요.)

106030 @ 계난 제줏말로 그거 몰란에.(그러니까 제줏말로 그거 몰라서.)

106030 # 옷도 입영 땡기다근에 이제 이디가 터지민 아이고 옷 브러젯저 영 아녀?(옷도 입어서 다니다가 이제 여기가 터지면 아이고 옷 찢어졌네 이렇게 안 해?)

106030 @ 아, 옷 브러젯저.(아, 옷 찢어졌네.)

106030 # 그것도 몰라, 무사?(그것도 몰라, 왜?)

106030 @ 거난 난 치져젯젠만 곤단 보난.(그러니까 난 찢어졌다고만 말하다 보니.)

106030 # 브러젯주게.(‘브러’졌지.)

106030 @ 이불에 솜이불헐 때 그 솜도 그냥 솜이렌 곶아?(이불에 솜이불헐 때 그 솜도 그냥 솜이라고 말해?)

106030 # 응. 소게.(응. ‘소게’.)

106030 @ 소게.(‘소게.’)

106030 # 소게도이 그 목화솜 소게가 좋아.(솜도 그 목화솜이 좋아.)

106030 @ 목화솜 소게가 좋아.(목화솜이 좋아.)

106030 # 이제 소게덜은 좋지 아녀주게.(이제 솜들은 좋지 않지.)

106030 @ 예.(예.)

106030 # 계난 목화솜. 어디 가근앵이 막 그 솜 사와낫주. 저 안덕면이나 어디.(그러니까 목화솜. 어디 가서 막 그 솜 사왔었지. 저 안덕면이나 어디.)

106030 @ 어.(어.)

106030 # 한경면 ㄱ뜨든 디 가 가지고. 이 중간에 이불덜 허젠 허민.(한경면 같은 데 가 가지고. 이 중간에 이불들 하려고 하면.)

106030 @ 옷 영 꾸겨지면 요즘엔 무신걸로 영 다립니께, 다리미, 다리민 다른 말로?(옷 이렇게 구겨지면 요즘엔 무엇으로 이렇게 다리잖아요, 다리미, 다리미는 다른 말로?)

106030 # 다리웨베끼 엇어.(다리미밖에 없어.)

106030 @ 다리웨.(다리미.)

106030 # 그거 일본말 아닌가 몰라. 다리웨. 우리 다리웨 다리웨 해난디.(그거 일본말 아닌가 몰라, 다리미. 우리 ‘다리웨, 다리웨’ 했었는데.)

106030 @ 예. 다리웨로 옷을 다리는 거?(예. 다리미로 옷 다리는 거?)

106030 # 응. 다려. 옷을 다려.(응. 다려. 옷을 다려.)

106030 @ 옛날에는 다리미가 엇이난 무신 걸로 해놔수과?(옛날에는 다리미가 없으니까 무슨 걸로 했었습니까?)

106030 # 엇어.(없어.)

106030 @ 췌 님은 거에 불 놔근예.(쇠 같은 거에 불 놔서.)

106030 # 게 그것이 다리웨주게.(그러게 그것이 다리미지.)

106030 @ 그게 다리웨라?(그게 다리미라?)

106030 # 응.(응.)

106030 @ 흥끔 죽은 거 이수게? 이런 짓이라도 영 동정이라도 영.(조금 작은 거 있잖아요? 이런 짓이라도 이렇게 동정이라도 이렇게.)

106030 # 윤디, 윤디.(인두, 인두.)

106030 @ 윤디.(인두.)

106030 # 아이고, 찜. 나 몰라시민 이거.(아이고, 찜. 나 몰랐으면 이거.)

106030 @ 하하하. 게민 윤디 쓸 때 밋에 뭐 깔앙 해야될 거 아니파?(하하하. 그러면 인두 쓸 때 밑에 뭐 깔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6030 # 깔앙 허주게.(깔아서 하지.)

106030 @ 깎는 건 뭐엔 허여?(까는 건 뭐라고 해?)

106030 # 윤디판.(인두판.)

106030 @ 윤디판. 윤디로 영.(인두판. 인두로 이렇게.)

106030 # 옷 저고리ㄴ튼 거이 짓 들 때이.(옷 저고리같은 거 짓 달 때.)

106030 @ 응.(응.)

106030 # 그 윤디를 화릿불에 구워 가지고 요렇게 윤디 찢러근예 쪽허게 돌아와야 윤디가, 짓이 특 잘 부떠.(그 인두를 화릿불에 구워 가지고 요렇게 인두 찢러서 쪽하게 돌아와야 인두가, 짓이 특 잘 붙어.)

106030 @ 응.(응.)

106030 # 게난 윤디를 느랑 써낫어.(그러니까 인두를 늘 썼었어.)

106030 @ 윤디로 영 누르떠?(인두로 이렇게 눌러.)

106030 # 영헤근예 이제 부찌 놔 가지고 또 곱게 이제 우로 다리지. 윤디로 영 짹.(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 놔 가지고 또 곱게 이제 위로 다리지. 인두로 이렇게 짹.)

106030 @ 다려?(다려?)

106030 # 응. 이제는 찜 개발돼연 그 이제 찌는 것ㄴ라 뵈고? 나 잊어불어졌져.(응. 이제는 찜 개발되어서 그 이제 찌는 것보고 무엇인고? 나 잊어버렸어.)

106030 @ 다리미?(다리미?)

106030 # 다리미 말양 잇잖아게, 옷 다리는 거. 아고 곧 곧젠해 될. 이제 옷 다리는 거 잇잖여게.(다리미 말고 잇잖아, 옷 다리는 거. 아고 곧 말하려고 해두고. 이제 옷 다리는 거 잇잖아.)

106030 @ 다리미 말고?(다리미 말고?)

106030 # 다리미 말고 시방 옷 다리는 거, 천덜 다리는 거. 아이고 잇어붙어졌 저게.(다리미 말고 이제 옷 다리는 거, 천들 다리는 거. 아이고 잇어버렸어.)

106030 @ 다리미 말고 몰르크라?(다리미 말고 모르겠어?)

106030 # 안 찜싸, 느네?(안 쓰니, 너희?)

106030 @ 우리 다리미. 스팀 다리미?(우리 다리미. 스팀 다리미?)

106030 # 것도 다리미지. 맞아. 천도 짝 다려근에 옷 허곡게. 게난 옛날은이 전기가 잇어부난 숯불 살랑 거 다리위에 담양.(그것도 다리미지. 맞아. 천도 짝 다려서 옷 하고. 그러니까 옛날은 전기가 없어 버리니까 숯불 살라서 그거 다리미에 담아서.)

신발

106035 @ 이거 잘 안 보염수다마는.(이거 잘 안 보입니다마는.)

106035 # 찜신.(짚신.)

106035 @ 무신 신?(무슨 신?)

106035 # 찜신게, 이거 초신으로 삼은 거게.(짚신, 이거 초신으로 삼은 거.)

106035 @ 초신이라 찜신이라?(초신이야, 짚신이야?)

106035 # 초신이엔도 허고 찜신이엔도 허주게.(초신이라고도 하고 짚신이라고도 하지.)

106035 @ 아. 초신도 무사.(아, 초신도 왜.)

106035 # 이것ㄴ라 초신이엔도 허고 찜신이엔도 허여.(이것보고 초신이라고도 하고 짚신이라고도 해.)

106035 @ 종류가 여러 갠가?(종류가 여러 갠가?)

106035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6035 @ 찜신을 할 때 총을 내지 않고 꼬아서.(짚신을 할 때 총을 내지 않고 꼬아서.)

106035 # 응?(응?)

106035 @ 찜신 총, 깍 뒤 이런 거 이수과?(짚신 총, ‘깍’ 뒤 이런 거 있습니까?)

106035 # 깍 내영.(총 내어서.)

106035 @ 어느 게 깍이라?(어느 것이 총이야?)

106035 # 이것은 깍이고.(이것은 총이고.)

106035 @ 응.(응.)

106035 # 이걸 이제 저 창, 영 짜는 것ㄴ란 찍으로 짜. 산뒤찌게 어샤?(이건 이제 저 창, 이렇게 짜는 것 보고는 짚으로 짜. 발벼짚 없니?)

106035 @ 산뒤집 계란. 이게 총?(발벼짚 그러니까. 이게 총?)

106035 # 이건 깍.(이건 ‘깍’.)

106035 @ 이게 깍. 이거는 요 우에는? 바우?(이게 총. 이거는 요 위에는? 가장 자리?)

106035 # 바위.(가장자리.)

106035 @ 이건 바위?(이건 가장자리?)

106035 # 응.(응.)

106035 @ 요 우엔 바위, 요거는 깍. 영 세로로 영 췌 건 깍.(요 위엔 가장자리, 요거는 총.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된 것은 총.)

106035 # 응.(응.)

106035 @ 거든 이게 총?(그러면 이게 총?)

106035 # 이것이 깍인디 이것도이 이 산뒤집으로 다 이것을 노 꼬아 가지고 신 날이엔 허영 이젠 허영 요건 깍은 트로 내어.(이것이 총인데 이것도 이 발벼짚으로 다 이것을 노 꼬아 가지고 신날이라고 해서 이젠 해서 요건 총은 따로 내어.)

106035 @ 응. 깍은 트로 내어.(응 총은 따로 내어.)

106035 # 응, 트로 내영 이젠 하나씩 하나씩 듣지명 이제 짜 가.(응, 따로 내어서 이젠 하나씩 하나씩 달면서 이제 짜 가.)

106035 @ 아.(아.)

106035 # 삼을 때.(삼을 때.)

106035 @ 이런 깍을 따로 안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거.(이런 총을 따로 안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거.)

106035 # 못해.(못해.)

106035 @ 그런 거 엇어. 못허여.(그런 거 없어. 못해.)

106035 # 그냥 붓베기깍⁹¹⁾은이.(그냥 ‘붓베기깍’은이.)

106035 @ 응, 붓베기깍?(응, ‘붓베기깍’?)

106035 # 붓베기깍은 허면 훑어근에 신이 곱지 안허여.(‘붓베기깍’은 하면 곱어서 신이 예쁘지 않아.)

106035 @ 붓베기깍은 어떻게 한 거?(‘붓베기깍’은 어떻게 한 거?)

106035 # 그냥 노로 이젠 영 짜 가명 영 깍을 내지게.(그냥 노로 이젠 이렇게 짜 가면서 이렇게 총을 내지.)

106035 @ 응, 한꺼번에. 붓베기깍.(응, 한꺼번에. ‘붓베기깍’.)

106035 # 그처럼 허영 짜는 사람도 이서났어.(그렇게 해서 짜는 사람도 있었어.)

106035 @ 응.(응.)

106035 # 건디 이처럼 허여사 제대로 잘 되는 거.(그런데 이렇게 해야 제대로 잘 되는 거.)

106035 @ 응. 그든 따로 붓베기깍 말고 따로 깍 낸 건 뭤엔 곱아? 붓베기깍 말

91) ‘붓베기깍’은 짚신을 만들 때 바닥을 걷는 짚에서 새로 비벼 만드는 총을 말한다.

고.(응. 그러면 따로 ‘붓베기깍’ 말로 따로 총 낸 건 뭐라고 말해? ‘붓베기깍’ 말고.)

106035 # 이거 깍 내어신게.(이거 총 내었네.)

106035 @ 그냥 깍 내는 거.(그냥 총 내는 거.)

106035 # 응. 깍 내영 저레 삼아야주.(응. 총 내어서 저리로 삼아야지.)

106036 @ 깍 내영 그냥 삼는 거예.(총 내어서 그냥 삼는 거요.)

106036 @ 미투리는, 삼?(미투리는, 삼?)

106036 # 아, 삼으로 험다고.(아, 삼으로 한다고.)

106036 @ 응, 삼으로 험 신발도 이수과?(응, 삼으로 한 신발도 있습니까?)

106036 # 삼은이 것도 이 오래지 안헛어. 삼으로 신 삼건 디가.(삼은 그것도 이 오래지 았았어. 삼으로 신 삼은 지가.)

106036 @ 그건 이름이 따로 잇수과?(그건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106036 # 아니 삼으로 해도 째신이라. ㄹ똥 거라.(아니 삼으로 해도 째신이야. 같은 거야.)

106036 @ 째신으로 그냥.(째신으로 그냥.)

106036 # 삼으로 삼은 건 고와.(삼으로 삼은 것은 고와.)

106036 @ 고와.(고와.)

106036 # 응. 삼이 어렵주게. 삼이 옛날도 장만허기가 어루와.(응. 삼이 어렵지. 삼이 옛날도 장만허기가 어려워.)

106036 @ 응.(응.)

106035 # 거난에 저 미뻬쟁이⁹²⁾ 엇어? 미뻬쟁이.(그러니까 저 ‘미뻬쟁이’ 없어? ‘미뻬쟁이’.)

106035 @ 미뻬쟁이.(‘미뻬쟁이’.)

106035 # 새어갈 때 빠다근엥에 신늘 ㄱ곡.(새어갈 때 뿍아다가 신날 꼬고.)

106035 @ 신늘?(신날?)

106035 # 신 이제 노 꼬아 가지고 이제 흐는 거주게.(신 이제 노 꼬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106035 @ 신늘이 뭐? 어느 거?(신날이 뭐? 어느 거?)

106035 # 이 소곱에 늘이 잇주게, 베 저.(이 속에 날이 있지, 베 저.)

106035 @ 아, 이 안에?(아, 이 안에?)

106035 # 응.(응.)

106035 @ 이 바우 안에?(이 가장자리 안에?)

106035 # 응, 창에.(응 창에.)

106035 @ 아, 창에.(아, 창에.)

106035 # 응.(응.)

106035 @ 신늘.(신날.)

106035 # 늘, 신늘.(신날.)

92) ‘미뻬쟁이’는 참여세의 줄기 끝에 이삭 모양으로 핀 기다란 꽃이다.

106035 @ 신들은 아까 미뽀쟁이로 만드는 거라?(신날은 아까 ‘미뽀쟁이’로 만드는 거야?)

106035 # 미뽀쟁이로 꼬양.(‘미뽀쟁이’로 꼬아서.)

106035 @ 미뽀쟁이로 꼬아근에.(‘미뽀쟁이’로 꼬아서.)

106035 # 산뒤집으로도 꼬고.(발벼짚으로도 꼬고.)

106035 @ 아.(아.)

106035 # 경헌디 미뽀쟁이로 꼬아야 이제 막 질겨.(그런데 ‘미뽀쟁이’로 꼬아야 이제 막 질겨.)

106035 @ 질겨. 응. 미뽀쟁인 저 역사?(질겨. 응. ‘미뽀쟁이’는 저 역사?)

106035 # 역사. 역사 흐뭇 두루 편 때.(역사. 역사 조금 덜 편 때.)

106035 @ 두루 편 때.(덜 편 때.)

106035 # 해당 물리왕. 경해난.(해다가 말리워서, 그러니까.)

106035 @ 그 미뽀쟁인 찻신혈 때 말고 다른 때도 씹니까?(그 ‘미뽀쟁이’는 짚신 할 때 말고 다른 때도 씹니까?)

106035 # 다른 때도 베 쓰젠.(다른 때도 바 쓰려고?)

106035 @ 베 혈 때.(바 할 때.)

106035 # 미⁹³ 허여근에 미엔 허주, 것ㄴ라.(‘미’ 해서 ‘미’라고 하지, 그것보고.)

106035 @ 예, 미.(예, ‘미’.)

106035 # 베 드리젠 허민 거 많이 들엉 안 뒤여.(바 들이려고 하면 그거 많이 들어서 안 돼.)

106035 @ 아까 미뽀쟁이허고 미는 뭐가 다른 거?(아까 ‘미뽀쟁이’하고 ‘미’는 뭐가 다른 거?)

106035 # ㄴ쁜 거.(같은 거.)

106035 @ ㄴ쁜 거. 그냥 저 뒤에다 붙인 거 미뽀쟁이엔?(같은 거. 그냥 저 뒤에다 붙인 거, 미뽀쟁이라고?)

106035 # 응.(응.)

106035 @ 할머니 찻신 만드는 거는 무신거엔 곱아?(할머니 짚신 만드는 거는 무엇이라고 말해?)

106035 # 초신 삼암젠.(짚신 삼는다고.)

106035 @ 삼암젠? 그냥.(삼는다고? 그냥.)

106035 # 응. 초신 삼으민 삼는 거.(응. 짚신 삼으면 삼는 거.)

106035 @ 초신 삼는 거 맞아?(짚신 삼는 거 맞아?)

106035 # 응. 초신 삼양 신어.(응. 짚신 삼아서 신어.)

106035 @ 응, 초신 삼양 신어예.(응, 짚신 삼아서 신어요.)

106034 @ 비 올 때 신는 거, 나무로 된 거?(비 올 때 신는 거, 나무로 된 거?)

106034 # 남신 잘 안 신어.(나막신 잘 안 신어.)

93) ‘미’는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을 말한다.

106034 @ 남신. 가족으로 된 건?(나막신. 가족으로 된 건?)

106033 # 가족신이 어디 서계. 가족으로 멘들주마는게.(가족신 어디 있어. 가족으로 만들지마는.)

106033 @ 창신은 무신거?(창신은 무엇?)

106033 # 창신은이 이제 무시결로사 멘들아신디 것도 높은 사름덜만 신어.(창신은 이제 무엇 무시결로야 만들었는지 그것도 높은 사름들만 신어.)

106033 @ 응.(응.)

106033 # 가막창신에 코젍이보선에 막 그건이 호서허는 사름.(‘가막창신’에 ‘코젍이보선’에 막 그것은 호사하는 사름.)

106033 @ 가막창신이 뭐파?(‘가막창신’이 무엇입니까?)

106033 # 그것이 창신이주.(그것이 가족신이지.)

106033 @ 가막창신은 필로 만든 거?(‘가막창신’은 필로 만든 거?)

106033 # 몰라.(몰라.)

106033 @ 나무?(나무?)

106033 # 아니, 아니. 무신 기지.(아니, 아니. 무슨 옷감.)

106033 @ 가족?(가족?)

106033 # 가족사 헤신디 어떻사 헤신디 흐뎡 허민 뽀내는 사름ㄴ라 가막창신에 코젍이보선.(가족이야 했는지 어떻게야 했는지 조금 하면 모양내는 사름보고 ‘가막창신’에 ‘코젍이보선’.)

106033 @ 코젍이보선.(‘코젍이보선’.)

106033 # 이 보선 헤영헌 거 신은 사름ㄴ라 경 곶아난.(이 버전 하얀 거 신은 사름보고 그렇게 말했었어.)

106033 @ 아, 헤영헌 보선 보고 코젍이보선이엔 곶아?(아, 하얀 버전 보고 ‘코젍이보선’이라고 말해?)

106033 # 막 뽀내는 사름.(막 모양내는 사름.)

106033 @ 응.(응.)

106033 # 거난 그건 왕실에나베피 안 신어. 잘, 기생덜.(그러니까 그건 왕실이나 밖에 안 신어.(그러니까 그건 왕실에나밖에 안 신어. 잘, 기생들.)

106033 @ 응.(응.)

106033 # 겨단 우리 옥은 후에는 초신도 고무신 나난 아이 허고.(그러다가 우리 성장한 후에는 짚신도 고무신 나난 안 하고.)

106033 @ 안 신고예. 옛날은예.(안 신고요. 옛날은요.)

106033 @ 새 신발 신으면 여기 발 뒤척이가 어떻 돼어?(새 신발 신으면 여기 발 뒤축이 어떻게 돼?)

106033 # 뒤척이 아파.(뒤축이 아파.)

106033 @ 뒤척이 아파. 어떻 아파?(뒤축이 아파. 어떻게 아파?)

106033 # 뒤척이 신으로 밀어붙민 아프주게.(뒤축 신으로 밀어버리면 아프지.)

106033 @ 응.(응.)

106033 # 경허민 신척이 초신 신을 땀, 이 뒤척이가 야프꼭 높으꼭 헤여이. 경허민이 신척이 높은 거 사돈 높은 거 굿텐⁹⁴) 경도 허고.(그러면 신 뒤축이 짚신 신을 땀. 이 뒤축이 낮고 높고 해. 그러면 신 뒤축이 높은 거 사돈 높은 거 굿다고 그렇게도 하고.)

106033 @ 무신 거 높은 거?(무엇 높은 거?)

106033 # 아이고, 하하하.(아이고, 하하하.)

106033 @ 신척이 높은 거 사 무신거? 뭐 높은 거 잘 알아봅서. 사돈 높은 거? 사돈어른.(신 뒤축이 높은 거 사 무엇? 뭐 높은 거 잘 말해보세요. 사돈 높은 거? 사돈어른.)

106033 # 경도 곱양 막 웃어난.(그렇게도 말해서 막 웃었었어.)

106033 @ 아.(아.)

106033 # 이디 발 아프민 오죽 못 전디느냐게.(여기 발 아프면 오죽 못 견디니?)

106033 @ 예. 그거허고 사돈이 돈 한 사름, 아니민 높은 사름?(예. 그거하고 사돈이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높은 사람?)

106033 # 높은 사름 허민게 굿지게.(높은 사람 하면 굿지.)

106033 @ 불편하다고.(불편하다고.)

106033 # 아이고 신척이 높은 거, 사돈 높은 거 우리가 이 사투리로 경 곱양 웃어났저, 웃어난. 아이고 우습다. 히어득헌⁹⁵) 말 곱아졌저.(아이고, 신 뒤축 높은 거, 사돈 높은 거 우리가 이 사투리로 그렇게 말해서 웃었었지, 웃었었어. 아이고 우습다. 허튼 말했네.)

106033 @ 하하하.(하하하.)

106033 # 경허민게 뒤척이 아파근에 이제 어떤 사름은 아이고, 신척이 높아부난저 뒤척이 아프다.(그러면 뒤축 아파서 이제 어떤 사름은 아이고, 신 뒤축 높아버리니까 저 뒤축이 아프다.)

106033 @ 신척이 높아부난. 응.(신 뒤축이 높아버리니까. 응.)

106033 # 이것도 맞이민 허꼭. 아이 맞으민.(이것도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106033 @ 아이 맞이민 요기가 부르텡 아프니까?(안 맞으면 요기가 부르터서 아프잖아요?)

106033 # 아파.(아파.)

106034 @ 눈 올 때 눈에 빠지지 말렌 신발 위에.(눈 올 때 눈에 빠지지 말라고 신발 위에.)

106034 # 거 남신이주.(그거 나막신이지.)

106034 @ 아니, 눈 올 때.(아니, 눈 올 때.)

94) 신발 뒤축이 높으면 발뒤꿈치가 부르트고 물집이 생기는 것처럼 사돈이 수준이 맞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말이다.

95) '히어뜩허다'는 머리가 어질어질하거나 허무맹랑하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허튼'의 의미로 쓰였다.

106034 # 아까 이디 남신 선계.(아까 여기 나막신 있던데.)

106034 @ 남신 말고. 이렇게 웬 거. 눈 올 때 이렇게.(나막신 말고. 이렇게 된 거. 눈 올 때 이렇게.)

106034 # 이거 무신거라, 이거?(이거 무엇이야, 이거?)

106034 @ 눈 올 때 나무로 영 행 허는 거 엇수과?(눈 올 때 나무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없습니까?)

106034 # 이것도 남신일 거여.(이것도 나막신일 거야.)

106034 @ 그냥 남신 이런 것도?(그냥 나막신 이런 것도?)

106034 # 이것도 남신베끼 엇어. 이런 거. 나무로 만든.(이것도 나막신밖에 없어. 이런 거. 나무로 만든.)

106034 @ 눈 올 때 눈에 빠지지 말라고.(눈 올 때 눈에 빠지지 말라고.)

106034 # 남신 신어난.(나막신 신었었어.)

106034 @ 아, 남신 신어난.(아, 나막신 신었었어.)

106034 # 지금은이 이 거리에도 세멘을 해부니까.(지금은 이 거리에도 시멘트를 해버리니까.)

106034 @ 예.(예)

106034 # 눈이 와도 곧 사름 다니주. 그냥 흑질에.(눈이 와도 곧 사람 다니지. 그냥 흑질에.)

106034 @ 아까 그 남신이영은 다른 거네.(아까 그 나막신이랑은 다른 거네.)

106034 # 응. 다른 건계. 궂사 남신 선계.(응. 다른 거네. 아까 나막신 있던데.)

106034 @ 남신 아까 신 거영 이런 거 신었다고?(나막신 아까 있는 거랑 이런 거 신었다고?)

106034 # 남신, 남신.(나막신, 나막신.)

106034 @ 거난 초신 신고 그 우티 또 이거 신어?(그러니까 짚신 신고 그 위에 또 이거 신어?)

106034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6034 @ 아니잖아예.(아니잖아요.)

106034 # 이것만 신어.(이것만 신어.)

106034 @ 이것만 신지예. 초신 우티 신는 건 엇어? 눈 올 때.(이것만 신지요. 짚신 위에 신는 건 없어? 눈 올 때.)

106034 # 엇어. 우리도이 초신 신영 학교도 가난.(없어. 우리도 짚신 신고 학교도 갔었어.)

106034 @ 눈 올 땐 어떻게?(눈 올 땐 어떻게 해?)

106034 # 게, 눈이 오고, 비가 오고.(그러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106034 @ 발 다 젖어불지 안해?(발 다 젖어버리지 않아?)

106034 # 다 젖어, 다 젖어. 건디 흑교 마당에도 세멘 안 허니까이.(다 젖어, 다 젖어. 그런데 학교 마당에도 시멘트 안 하나까.)

106034 @ 응.(응.)
 106034 # 막 흙이 허영 양말도 다 젖어볼록 경혜난.(막 흙이 해서 양말도 다 젖어버리고 그랬어.)
 106034 @ 응.(응.)
 106034 # 겨난 저것도 발에 맞춰근에 남신 파는 사람이 왕 다 식구에.(그러니까 저것도 발에 맞춰서 나막신 파는 사람이 와서 다 식구에.)
 106034 @ 응.(응.)
 106034 # 흐는 사람이 어려와.(하는 사람이 어려워.)
 106034 @ 아.(아.)
 106034 # 나도 신어난, 저거. 남신.(나도 신었었어, 저거. 나막신.)
 106034 @ 응. 계민 신발은 이제 이백삼십 미리여, 이백오십 미리영 영 허는디 옛날엔 뭐엔 글아났수과?(응. 그러면 신발은 이제 이백삼십 밀리다, 이백오십 밀리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엔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6034 # 정도 안 허여. 그자 맞이민 신엇주.(그렇게도 안 하여. 그냥 맞으면 신었지.)
 106034 @ 문수 엇어?(문수 없어?)
 106034 # 문수 벨로 안 허여. 우리도 고무신 난 후제 난 십구 문 신주게.(문수 별려 안 해. 우리도 고무신 난 후에 난 십구 문 신지.)
 106034 @ 뻗 신어?(뻗 신어?)
 106034 # 십구 문.(십구 문.)
 106034 @ 십구 문. 아.(십구 문. 아.)
 106034 # 경행 곶양 가곡 맞이민 사곡 험주. 게 신침이서도 알안게, 이제도.(그렇게 말해서 가고 맞으면 사고 하고 있지. 그러게 신집에서도 알더라, 이제도.)
 106034 @ 아, 문수만 말해도 알아.(아, 문수만 말해도 알아.)
 106034 # 응, 알아.(응, 알아.)
 106036 @ 짹신도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짹신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106036 # 응.(응.)
 106036 @ 무신 짹신, 무신 짹신?(무신 짹신, 무신 짹신?)
 106036 # 짹신은 저 줌진 깝 내영 현 건 이제 막 고와이.(짹신은 저 가는 총 드려서 한 건 이제 아주 고와.)
 106036 @ 응.(응.)
 106036 # 경허고 또 훑은 깝 내영 그자. 애기덜이나 밧디 신는 신.(그리고 또 굵은 총 드려서 그냥. 애기들이나 밧에 신는 신.)
 106036 @ 응.(응.)
 106036 # 것도 곱닥허게 산뒤짹도 물들여근에 깝 내왕허민 곱닥헌 게 좋아. 줌진 깝 내영.(것도 곱게 밧벼짹도 물들어서 총 드려서 하면 고운 게 좋아. 가는 총 드려서.)

106036 @ 아, 물도 들영.(아, 물도 들여서.)

106036 # 응. 그냥은 그냥 훑게, 훑게시리 짝 내어근에 삼아.(응. 그냥은 그냥
 굵게, 굵게 총 드러서 삼아.)

106036 @ 이름이 딱나케 불르진 안허여?(이름이 다르게 부르진 않아?)

106036 # 아니.(아니.)

106036 @ 그냥 다 찹세기? 찹세기신, 찹신?(그냥 다 짚세기? 짚세기신, 짚신?)

106036 # 찹세기주게.(짚세기지.)

106036 @ 찹세기?(짚세기?)

106036 # 응, 찹신, 찹신.(응, 짚신, 짚신.)

106036 @ 무신 색으로 물들이는 거꽈?(무슨 색으로 물들이는 것입니까?)

106036 # 노린 물.(노란 물.)

106036 @ 노린 물. 뭐 놔근에 물들여?(노란 물. 무엇 놓고 물들여?)

106036 # 치지, 치지.(치자, 치자.)

106036 @ 아, 치지. 치자.(아, 치자. 치자.)

106036 # 저, 신늘은 미로 허여 미. 신늘 깎는 것ㄴ라 미. 어욱, 저 역새이.(저,
 신날은 ‘미’로 해, ‘미’. 신날 꼬는 것보고 ‘미’. 역새, 저 역새.)

106036 @ 응.(응.)

106036 # 스몫 피지 안헌 때. 막 피어불지 안헌 때 그 역새를 뽑아다가 물리와
 근에이 이제 미를 이제 늘 꼬아 가지고 신늘.(사몫 피지 않을 때. 막 피어버리지 않
 은 때 그 역새를 뽑아다가 말려서 이제 ‘미’를 이제 날 꼬아 가지고 신날.)

106036 @ 예, 신늘 꼬아 가지고예.(예, 신날 꼬아 가지고요.)

106036 # 신늘 꼬양.(신날 꼬아서.)

106036 @ 이거 신늘은 미로 허는 거?(이거 신날은 ‘미’로 하는 거?)

106036 # 미는 역새꽃이라, 역새.(‘미’는 역새꽃이야, 역새.)

106036 @ 데쌍 신꼭 그거 무신 말?(뒤집어 신고 그거 무슨 말?)

106036 # 신을 이제 신창. 이제 이디가 신으민 다 다이민 뉘쌍 또 흘 번 신어.
 (신을 이제 신창. 이제 여기가 신으면 다 닳으면 뒤집어서 또 한 번 신어.)

106036 @ 데쌍 다시 꼬아 아니민.(뒤집어서 다시 꼬아 아니면.)

106036 # 그냥 신어.(그냥 신어.)

106036 @ 데쓰민 뉘어?(뒤집으면 돼?)

106036 # 응. 뒤집어근에 다 그차지민 데껴 불어.(응. 뒤집어서 다 끊어지면 던
 져 버려.)

106036 @ 응.(응.)

106036 # 겐디 얼마 못 신나게. 밧디나 아이 신영 집이서만 신으민 흘 메틀 신
 고 밧디 신영 가민 하루에 그차져 불어.(그런데 얼마 못 신어. 밧에나 안 신어서 집
 에서만 신으면 한 며칠 신고 밧에 신어서 가면 하루에 끊어져 버려.)

106036 @ 하루에 그차져 불어.(하루에 끊어져 버려.)

106036 # 어떤 하르방이 맨발에도 출 비레 와, 늬의 출 비레. 늬의 출 비는 사람이 일도 잘해주마는 신을 당허질 못허여이.(어떤 할아버지가 맨발에도 꼴 베러와, 남의 꼴 베러. 남의 꼴 베는 사람이 일도 잘하지마는 신을 당하질 못해.)

106036 @ 응.(응.)

106036 # 겨민 늬 빌영 왕 보민 어떤 하르방은 맨발에 오민 아이고 발 찢러 불영 어떻 허여, 어떻 허영 출 비쿠가 허민 발을 무사 찢러 경허는 하르방이 이서났어.(그러면 늬 빌어서 와 보면 어떤 할아버지는 맨발에 오면 아이고 발 찢러 버려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 꼴 베겠습니까 하면 발을 왜 찢러 그렇게 하는 할아버지 있었어.)

106036 @ 아이고.(아이고.)

106036 # 장갑이 시냐? 그때. 우리 옥도록 장갑 아이 썩 검질 비엇저, 검질도 그냥 매고. 아이고 장갑이 어디 셔? (장갑이 있니? 그때. 우리 자라도록 장갑 안 꺼서 김 베었어, 김도 그냥 매고. 아이고 장갑이 어디 있어?)

106036 @ 맞아.(맞아.)

106036 # 우리 노인당에 할망덜이나 거 알주, 젊은 사름덜 몰라. 일본 강 온 사름 장갑 흔 빗 앓앙 왕 데부끄로⁹⁶⁾엔 허주게. 아이고 데부끄로 아정 완 흐나씩 쫓어 영 허고 일본서가 거 아정과, 간 온 사름.(우리 노인당에 할머니들이나 거 알지, 젊은 사름들 몰라. 일본 가서 온 사름 장갑 한 묶음 가져 와서 ‘데부끄로’라고 하지. 아이고 ‘데부끄로’ 가져와서 하나씩 쫓어 이렇게 하고 일본서 거 가져와, 갔다 온 사름.)

모자 등

106038 @ 이 사름 뉘 쫓수과?(이 사름 뉘 쫓습니까?)

106038 # 샷갓인게.(샷갓이네.)

106038 @ 샷갓, 다른 말은 엇고?(샷갓, 다른 말은 없고?)

106038 # 엇어, 샷갓, 대로 줄은 거 샷갓.(없어, 샷갓, 대로 결은 거 샷갓.)

106038 @ 보통 샷갓 말고 여기 어디 나갈 때 쓰는 건 뉘과, 제주도에서?(보통 샷갓 말고 여기 어디 나갈 때 쓰는 건 무엇입니까, 제주도에서?)

106038 # 응?(응?)

106038 @ 패랭이?(패랭이?)

106038 # 패랭이, 밀집모저.(패랭이, 밀짚모자.)

106038 @ 밀집모저 뉘엔 곶야? 밀집모저 표준어고.(밀짚모자를 뉘라고 말해? 밀짚모자는 표준어고.)

106038 # 패랭이, 밀집패랭이.(패랭이, 밀짚패랭이.)

106038 @ 밀짚모자는?(밀짚모자는?)

106038 # 밀집패랭이주, 그것가.(밀짚패랭이지, 그것이.)

96) ‘데부끄로(てぶくろ)’는 일본어로 장갑이라는 뜻이다.

106038 @ 밀집패랭이. 응. 요런 하르방 영 쓴 거멍헌 건 뭐라?(밀집패랭이. 응. 요런 할아버지 이렇게 쓴 까만 건 뭐야?)

106037 # 이건 탕건인가?(이건 탕건인가?)

106037 @ 탕건.(탕건.)

106037 # 고만 셔봐. 이건 탕건.(가만히 있어봐. 이건 탕건.)

106037 @ 탕건 말고 유건은 무신거봐?(탕건 말고 유건은 무엇입니까?)

106037 # 아, 이것이 유건이라.(아, 이것이 유건이야.)

106037 @ 이것이 유건이라.(이것이 유건이야.)

106037 # 유건은 이런 디 높은 제 지낼 때 쓰는 거.(유건은 이런 데 높은 제 지낼 때 쓰는 거.)

106037 @ 아 그게 유건. 탕건은 어떤 거라? 게민.(아 그게 유건. 탕건은 어떤 거야? 그러면.)

106037 # 탕건은이 옛날 선비들이 대가리에 써 가지고 갓 엇어, 갓?(탕건은 옛날 선비들이 머리에 써 가지고 갓 없어, 갓?)

106037 @ 예.(예.)

106037 # 그 탕건 우이 갓 쓰고.(그 탕건 위에 갓 쓰고.)

106037 @ 아 탕건 우이 갓 쓰고.(아 탕건 위에 갓 쓰고.)

106037 # 또로 멩진이엔 허영 또 뱅동글락헌 거.(또 망건이라고 해서 또 동그란 거.)

106037 @ 뤼엔 허영?(뤼라고 해서?)

106037 # 멩진.(망건.)

106037 @ 아, 망건.(아, 망건.)

106037 # 멩진 우이도 갓 씌고.(망건 위에도 갓 씌고.)

106037 @ 멩진 우이도 갓 씌고.(망건 위에도 갓 씌고.)

106037 # 또 양태는이 저 갓 둘레.(또 양태는 저 갓 둘레.)

106037 @ 응. 그런 것도 만들어 낚디가?(응. 그런 것도 만들었었습니까?)

106037 # 난 탕건은 해난.(난 탕건은 했었어.)

106037 @ 탕건은 만들어난 옛날에.(탕건은 만들었었어 옛날에.)

106037 # 총으로 헤여근에게.(총으로 해서.)

106037 @ 계난 총으로 행예.(그러니까 총으로 해서요.)

106037 # 탕건. 멩진도 허는 사름은 해나고.(탕건. 망건도 하는 사름은 했었고.)

106037 @ 응.(응.)

106037 # 양태는 대로 줄아이.(양태는 대로 걸어.)

106037 @ 아, 대로 줄아.(아, 대로 걸어.)

106037 # 양태, 양태는 이제 갓 둘레라이.(양태, 양태는 이제 갓 둘레야.)

106037 @ 응.(응.)

106037 # 갓 둘레가 이제 양태고, 갓 저 우이 것ㄴ란이 모저엔 헤여. 모저를 즐

아 가지고.(갓 둘레가 이제 양태고, 갓 저 위에 그것보고는 모자라고 해. 모자를 걸어 가지고.)

106037 @ 모저 딱로 양태 딱로.(모자 따로 양태 따로.)

106037 # 양태 딱로 망건 트로. 멩긴.(양태 따로, 망건 따로. 망건.)

106037 @ 탕건하고 아까 멩진은 어떻 틀린 거라고?(탕건하고 아까 망건은 어떻게 다른 거라고?)

106037 # 멩긴하고 그 저 멩진은 하고 그건 ㄴ찌 갓 써어.(망건하고 그 저 망건은 하고 그건 같이 갓 써.)

106037 @ 두 개 비슷한 거라?(두 개 비슷한 거야?)

106037 # 응, 비슷한 안 해도 탕건 우이 갓 쓰는 사람, 멩진 우이 쓰는 사람 경허여라. 옛날에 우리 거 봐난 거주.(응, 비슷한 안 해도 탕건 위에 갓 쓰는 사람, 망건 위에 쓰는 사람 그렇게 하더라.)

106039 @ 병거지, 털로 된 털모자도 이서낫수과?(병거지, 털로 된 털모자도 있었습니까?)

106039 # 털모전 어떤 건고?(털모자는 어떤 건고?)

106039 @ 털로 꿰어있는 우리 영 쓰는 모자. 저런 모자.(털로 되어 있는 우리 이렇게 쓰는 모자. 저런 모자.)

106039 # 저런 건, 나 모저가 아니주마는 저 모저?(저런 건, 나 모자가 아니지마는 저 모자?)

106039 @ 병거지 뭐 이런 말 안 씩니까?(병거지 뭐 이런 말 안 씩니까?)

106039 # 그냥 저 미시거 그 병것이엔 허주. 이제 요새 그 저 조선 왕조 오백년 때, 인척이도 테레비에 나완게. 그 막 검영헌 것에 그 띠 둘루곡 해영 그 무신 뿔들 어사게, 관덕정 ㄴ뜬 디.(그냥 저 무엇 그 병것이라고 하지. 이제 요새 그 저 조선 왕조 오백년 때, 먼저도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그 막 검은 것에 그 띠 두르고 해서 그 무엇 무엇들 없니, 관덕정같은 데.)

106039 @ 아, 그런 거 말고.(아, 그런 거 말고.)

106039 # 그런 거 ㄴ라 병것이지.(그런 거보고 병거지이지.)

106039 @ 그게 병거지.(그게 병거지.)

106039 # 응. 그 거명헌 것에 이제 띠 둘링 씨는 거 수역병것이라고 그런 사람.(응. 그 까만 것에 이제 띠 둘리서 쓰는 거 ‘수역병것’이라고 그런 사람.)

106039 @ 수역병것?(‘수역병것’?)

106039 # 보통으로 안 써. 거 병것이엔 행.(보통으로 안 써. 그거 병거지이라고 해서.)

106039 @ 아, 그거 병것이엔 해.(아, 그거 병거지이라고 해.)

106039 # 모저 우이다가 또 두 개 쓰면 병것 우이 둘림헛저 경 곱아났어.(모자 위에다가 또 두 개 쓰면 병거지 위에 두름헛어 그렇게 말했었어.)

106039 @ 병것 우이 둘림?(병거지 위에 두름?)

106039 # 응, 두 개 씨민 옷는 말로 경해난. 것ㄴ라 병것이엔 헛주게. 그 저 왕실에게 것ㄴ라 무신 사름덜이엔 헛다마는.(응, 두 개 쓰면 옷는 말로 그렇게 했었어. 그것 보고 병거지이라고 했지. 그 저 왕실에게 그것보고 무슨 사람들이라고 한 다마는.)

106038 @ 아까 이런 샷갓에 요런 테두리는 다른 말로 곤는 거 이수과?(아까 이런 샷갓에 요런 테두리는 다른 말로 말하는 거 있습니까?)

106038 #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6038 @ 엇어?(없어?)

106038 # 샷갓 바우베끼 무신.(샷갓 ‘바우’밖에 무슨.)

106038 @ 샷갓 바우.(샷갓 ‘바우’.)

106038 # 응. 바우 들르는 거.(응. 가장자리 두르는 거.)

106042 @ 이게 탕건이지예?(이게 탕건이지요?)

106042 # 응, 이거 탕건.(응, 이거 탕건.)

106042 @ 탕건인디 요거영 요거영 틀리드라고.(탕건인데 요거랑 요거랑 다르더라고.)

106042 # ㄴ쁜 거.(같은 거.)

106042 @ 아니 이름이 틀리던데. 야이는 바둑탕건이엔 씨지고 야인 접탕건. 여기 모양이 흐뎡 틀려, 뜨나.(아니 이름이 다르던데. 얘는 바둑탕건이라고 쓰여 있고 얘는 접탕건. 여기 모양이 조금 달라. 달라.)

106042 # 바둑, 접탕근?(바둑, 접탕건?)

106042 @ 응, 그런 말 엇어?(응, 그런 말 없어?)

106042 # 이거 영 씨운 거 베끼 무신 접탕근이 이서?(이거 이렇게 씨운 거 밖에 무슨 접탕건이 있어?)

106042 @ 탕건 이름이 또 엇어마씨?(탕건 이름이 또 없어요?)

106042 # 엇어. 탕근허고 멩진이 잇주. 멩진.(없어. 탕건하고 망진이 있지. 망건.)

106043 @ 멩진도 좃양 완.(망건도 좃아 왔어.)

106043 # 멩진은 이거.(망건은 이거.)

106043 @ 이거, 이거. 이게 멩진?(이거, 이거. 이게 망건?)

106043 # 요거 멩진. 갓은 또.(요거 망건. 갓은 또.)

106042 @ 갓도 가정 왔어.(갓도 가져 왔어.)

106042 # 갓은 이거 갓. 모저 위이. 이거 쳇대기⁹⁷⁾. 이 탕건 낱 허는 거ㄴ라 쳇대기.(갓은 이거 갓. 모자 위에. 이거 골걸이. 이 탕건 놓고 하는 것보고 골걸이.)

106042 @ 무신거엔 꼴아?(무엇이라고 말해?)

106042 # 쳇대기.(골걸이.)

106042 @ 쳇대기. 밋에 잇는 거?(골걸이. 밑에 잇는 거?)

97) ‘쳇대기’는 탕건을 결는 연장의 하나로, 탕건을 결을 때 탕건꼴을 받치는 데 쓰인다.

106042 # 응.(응.)

106042 @ 차례차례 돌아보게예.(차례차례 말해봅시다.)

106042 # 이 탕건을, 탕근골⁹⁸이 잇다고 낭으로 멘든 거. 이디 놔근에.(이 탕건을, ‘탕건골’이 잇다고 나무로 만든 거. 여기 놔서.)

106042 @ 이게 탕건골 아니고?(이게 ‘탕건골’ 아니고?)

106042 # 이거 탕근골 아닌게.(이거 ‘탕건골’ 아닌데.)

106042 @ 일변이 탕건골이라고 웨어 있는데 탕건골 아니구나.(일변이 ‘탕건골’ 이라고 되어 있는데 ‘탕건골’ 아니구나.)

106042 # 똑 무신 모저ㄴ짜. 아, 이거 탕건골인디 이디가 움막해야 웨는디.(꼭 무슨 모자같이. 아, 이거 ‘탕건골’인데 여기가 움푹해야 되는데.)

106042 @ 움막해야 웨는데 그게 잘 안 나왔네.(움푹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왔네.)

106042 # 응.(응.)

106042 @ 계난.(그러니까.)

106042 # 챗대기.(골걸이.)

106042 @ 애가 챗대기?(애가 골걸이?)

106042 # 응.(응.)

106042 @ 챗대기.(골걸이)

106042 # 탕건골.(탕건골.)

106042 @ 탕건골.(탕건골.)

106042 # 요건 탕건.(요건 탕건.)

106042 @ 그냥 탕건은 다 탕건이엔 돌아?(그냥 탕건은 다 탕건이라고 말해?)

106042 # 탕근이엔만.(탕건이라고만.)

106042 @ 어떤 탕건, 어떤 탕건 엇어마씨?(어떤 탕건, 어떤 탕건 없어요?)

106042 # 엇어. 멩긴허고 탕건허고 양태. 거나베끼.(없어. 망건하고 탕건하고 양태. 그거나밖에.)

106042 @ 이게 자 일변 탕건골. 이번 마흐레⁹⁹, 요건 마흐레엔 웨어신디 그런 말은 안 들어판?(이게 자 일변 탕건골. 이번 ‘마흐레’, 요건 ‘마흐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말은 안 들어봤어?)

106042 # 마흐렌 저 무시거 현 것가 마흐레주게. 하르방 모저, 저을에 씨는 거게. 그거 이제 떠 엇인 것ㄴ라 마흐레주.(마흐렌 저 무엇 현 것이 ‘마흐레’지. 할아버지 모자, 겨울에 쓰는 거. 그것 이제 떠 없는 것보고 마흐레지.)

106042 @ 아, 이런 건 마흐레엔 안 돌아?(아, 이런 건 ‘마흐레’라고 안 말해?)

106042 # 아니, 아니 이것도 이거 헐어가민 이 띠가 엇어져. 엇어지민 기냥 쓰

98) ‘탕건골’은 탕건을 걸을 때 쓰는 연장의 하나로 탕건 모양의 테두리를 잡는 나무로 만들어진 틀이다.

99) ‘마흐레’는 탕건을 걸을 때 탕건골을 고정시키는 연장으로 현 중절모자를 거꾸로 ‘챗대기’위에 얹히기도 한다.

민 마흐레엔 허여. 그 모저가. 하르방신디 그 모자 잇주게.(아니, 아니 이것도 이거
헐어가면 이 띠가 없어져. 없어지면 그냥 쓰면 ‘마흐레’라고 해. 그 모자가. 할아버
지에게 그 모자 있지.)

106042 @ 요건 연발이엔 돼신디 요렇게 돼 잇는 걸 연발이렌 헤신디 연발은?
(요건 연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돼 잇는 걸 연발이라고 했는데 연발은?)

106042 # 아, 이연발¹⁰⁰, 이연발.(아, 연발, 연발.)

106042 @ 연발 이서?(연발 있어?)

106042 # 탕근 허는 거. 이 모저가 판나 가지고 이것이 이제 띠도 엇고 영허민
마흐레라고 허여. 이 모저가 판나, 판나 막 써어가민.(탕건 하는 거. 이 모자가 망가
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띠도 없고 이렇게 하면 ‘마흐레’라고 해. 이 모자가 망가져,
망가져 막 써가면.)

106042 @ 응.(응.)

106042 # 판나민 띠도 없어지고 경허민게 이게 훌락허주게.(망가지면 띠도 없어
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헐렁하지.)

106042 @ 예.(예.)

106042 # 게민 것ㄴ라 마흐레.(그러면 그것보고 ‘마흐레’.)

106042 @ 아, 그것ㄴ라 마흐레엔 곴아. 이런 거 아니고.(아, 그것보고 마흐레라
고 말해. 이런 거 아니고.)

106042 # 이것ㄴ라 나까오리¹⁰¹라.(이것보고 ‘나까오리’라.)

106042 @ 앵, 나까오리? 일본말이지?(앵, ‘나까오리’? 일본말이지?)

106042 # 이것ㄴ라 나까오리, 나까오리 헤여.(이것보고 ‘나까오리’, ‘나까오리’
해.)

106042 @ 응.(응.)

106042 # 모저ㄴ라 이거. 모전디 이거 일본 때에 나긴 나서. 나까오리 써언 막
이거 신사가 써낫어, 옛날에. 이제도 신사가 쓰지마는 이걸 막 신사덜이 양복 우아
래 입영.(모자보고 이거. 모잔데 이거 일본 때에 나오기 나왔어. ‘나까오리’ 써서 막
이거 신사가 썼었어, 옛날에. 이제도 신사가 쓰지마는 이걸 막 신사들이 양복 위아
래 입어서.)

106042 @ 게난 이런 모자만 헐 게 마흐레? 다른 모잔 아니고?(그러니까 이런
모자만 헐 것이 ‘마흐레’? 다른 모자는 아니고?)

106042 # 아니, 아니. 이거 허영 띠 벗겨 불영 허민 마흐레라.(아니, 아니. 이거
해서 띠 벗겨 버려서 하면 ‘마흐레’야.)

106042 @ 띠가 어느 거라? 띠?(띠가 어느 거야? 띠?)

106042 # 이거 띠.(이거 띠.)

106042 @ 아, 그거 베껴 불민.(아, 그거 벗겨 버리면.)

100) ‘이연발’은 ‘연발’이라고도 하며 탕건을 걸을 때 쓰는 연장으로 탕건을 걸다가 잡아 당기기 편하
도록 탕건과 탕건골 사이에 넣은 것이다.

101) ‘나까오리’는 일본어 ‘なかおれ’에서 온 말로 중절모를 말한다.

106042 # 응. 이거 벗경 이것이 움막허영 막 혈어, 이것이 겨민 마흐레. 아이고 저 ‘마흐레’ 씨엇구나. 경헤난.(응, 이거 벗겨서 이것이 움푹해서 막 혈어, 이것이 그러면 ‘마흐레’. 아이고, 저 ‘마흐레’ 썼구나. 그렇게 했었어.)

106042 @ 아까 연발은 무신거라?(아까 연발은 무엇이야?)

106042 # 이연발이라고 해 가지고 이 탕건을 혈 때 저 그것도이 낭, 저 쉼빨로 멘든 거라. 것도 보통 게 아니라.(연발이라고 해 가지고 이 탕건을 할 때 저 그것도 나무, 저 소빨로 만든 거야. 그것도 보통 것이 아니야.)

106042 @ 뭐허는 거봐, 그건?(뭐하는 것입니까, 그건?)

106042 # 그 낭, 이제 탕근을 즐아 가당.(그 나무, 이제 탕건을 곁어 가다가.)

106042 @ 예.(예.)

106042 # 영 바농으로 즐아냥 이걸 이제 이연발로 밀어. 영 질게 늘랴.(이렇게 바늘로 곁어놓고 이걸 이제 연발로 밀어. 이렇게 길게 늘려.)

106042 @ 아.(아.)

106042 # 그 탕근을 탕근골에 영 낱 이제 이연발로. 이젠 막 늘랴. 겨민이 요만이 즐아냥 늘루민 요만이 올라와, 이게.(그 탕건을 탕근골에 이렇게 놓고 이제 연발로. 이젠 막 늘려. 그러면 요만큼 곁어놓고 늘리면 요만큼 올라와, 이게.)

106042 @ 아, 영 늘려?(아, 이렇게 늘려?)

106042 # 응. 밀어, 영 밀어.(응. 밀어, 이렇게 밀어.)

106042 @ 영 밀어.(이렇게 밀어.)

106042 # 이연발 영 대어 가지고 물 적지멍.(연발 이렇게 대어 가지고 물 적시면서.)

106042 @ 예.(예.)

106042 # 경허민 이제 이거 탕건 코가 요만이 즐아냥 밀민 요만이 올라와.(그러면 이제 이거 탕건 코가 요만큼 곁어놓고 밀면 요만큼 올라와.)

106042 @ 응.(응.)

106042 # 그 다음 허여냥 이젠 이디ㄴ란 이젠 저 우통¹⁰²)이라고 허여이.(그 다음 해 놓고 이젠 여기보고는 이젠 저 ‘우통’이라고 해.)

106042 @ 응.(응.)

106042 # 이디 이제 우통 줍아.(이디 이제 ‘우통’ 접어.)

106042 @ 이딘 우통.(여긴 ‘우통’.)

106042 # 허여 낱 줍아. 경 이디 줍아냥근앵이 이젠 이걸 또 서이여¹⁰³), 서이여. 혼 불 허여 낱.(해 놓고 접어. 그렇게 여기 접어놓고 이젠 이걸 또 ‘서이여, 서이여’. 한 벌 해 놔서.)

106042 @ 서이는 게 어떻 허는 거?(서이는 게 어떻게 하는 거?)

106042 # 영허영 바농으로 이젠 요렇게 해 낱 뒷바농질¹⁰⁴)허는 게 서이는 거.

102) ‘우통’은 위 통을 말하는 것으로 탕건을 곁을 때

103) ‘서이다’는 탕건을 곁을 때 날줄마다 말총 서너 가닥 씩 지르면서 감치는 것이다.

104) ‘뒷바농질’은 탕건을 곁는 방법의 하나로 앞으로 바느질하다가 뒤로 돌아가서 바느질하는 박음질

흔 번 영 허여냥 또로 일로 가근에 영 뒷바농질, 이 바농질 ㄹ뜨민 영 박는 거 엇
샤게? 뒷바농질.(이렇게 바늘로 이젠 요렇게 해 놓고 박음질하는 게 ‘서이는’ 거. 한
번 이렇게 해 놓고 또 이리로 가서 이렇게 박음질, 이 바느질 같으면 이렇게 박는
거 없니? 박음질.)

106042 @ 박음질?(박음질?)

106042 # 경허영 이제 서이여 가지고 이 우 좁아 낱 이젠 서일 땐 다 요ㄱ장
허여이.(그렇게 해서 이제 ‘서이여’ 가지고 이 위 접어 놓고 이젠 ‘서일’ 땐 다 요까
지 해.)

106042 @ 응.(응.)

106042 # 요ㄱ장 허여냥 또로 이젠 요디 총을 요렇게 낱 서이여. 이디ㄹ치.(요까
지 해 놓고 또 이젠 요기 총을 이렇게 놓고 ‘서이여’. 여기처럼.)

106042 @ 응.(응.)

106042 # 게민 멘작허여. 경헤난. 탕건 헤난 거.(그러면 평평해. 그렇게 했었어.
탕건 했던 거.)

106042 @ 게민 요기서부터 영 영 해 가는 거? 해 갈 때는?(그러면 요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 가는거? 해 갈 때는?)

106042 # 이거 해 갈 땐 초담은 탕근골에서 이렇게 헤여근에 이젠 막 돌아가멍
허여이.(이거 해 갈 땐 처음은 탕건골에서 이렇게 해서 이젠 막 돌아가면서 해.)

106042 @ 응.(응.)

106042 # 영 영 돌려, 탕건 돌려 놓멍 돌아냥 요만이 허민 이젠 이연발로 이제
밀어.(이렇게 이렇게 돌려, 탕건 돌려 놓으면서 걸어놓고 요만큼 하면 이젠 연발로
이제 밀어.)

106042 @ 연발로.(연발로.)

106042 # 밀어. 밀멍 등겨.(밀어. 밀어서 당겨.)

106042 @ 이연발, 연발?(이연발, 연발?)

106042 # 이연발이렌 헤난디.(이연발이라고 했었는데.)

106042 @ 아, 이연발.(아, ‘이연발.’)

106042 # 응, 이연발이라고 곶아낫저마는.(응, ‘이연발’이라고 말했었다마는.)

106042 @ 응. 곶아난 게 맞는 거.(응. 말했던 게 맞는 거.)

106042 # 밀어나근에 이젠 요만이 반 거지 다 헤여 왕 허민 이 우통더레 밀멍
이제 우좁아.(밀어나서 이젠 요만큼 반 거즘 다 헤 와서 하면 이 ‘우통’에 밀어서
이제 ‘우좁아’.)

106042 @ 응.(응.)

106042 # 우좁앙 이젠 서이여. 이젠 이걸.(‘우좁아서’ 이젠 ‘서이여’. 이젠 이걸.)

106042 @ 예.(예.)

106042 # 우좁아 놓고 서이는 거라. 영 서이는 거.(‘우좁아’ 놓고 ‘서이는’거야.

과 비슷하다.

이렇게 서이는 거.)

106042 @ 응.(응.)

106042 # 초담은 영 못아냥 서이여근에 이젠 다 서이여지민 요디 또로 이디 총 혼 방울 놔 가지고 이 우통도 서이여.(처음은 이렇게 매듭지어 놓고 ‘서이여서’ 이젠 다 ‘서이여’지면 요기 또 여기 총 한 방울 놔 가지고 이 ‘우통’도 ‘서이여’.)

106042 @ 응.(응.)

106042 # 영 이 아래ㄴ짜. ㄴ뜨게 다 ㄴ따 겨민.(이렇게 이 아래처럼. 같게 다 같아 그러면.)

106042 @ 이 탕건은 허젠 허민 뭐 뭐 이서사여?(이 탕건은 하려고 하면 뭐 뭐 있어야해?)

106042 # 이 탕건은 바농허고.(이 탕건은 바늘하고.)

106042 @ 바농허고.(바늘하고.)

106042 # 또이 박죽¹⁰⁵이엔 현 게 이서. 요디 요디 툇허게 맞게시리 꼭박으로 멘들양 박죽.(또 ‘박죽’이라고 한 게 있어. 요기 요기 툇허게 맞게 박으로 만들어서 ‘박죽’.)

106042 @ 박죽?(‘박죽’?)

106042 # 응, 요디 툇에 이젠 그걸 툇허게 놔 가지고 이젠 요ㄴ장 밀영 요디 툇 내와근에 이렇게 올려 오는 거라.(응, 요기 툇에 이젠 이렇게 툇허게 놔 가지고 이젠 요기까지 밀어서 요기 툇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 오는 거야.)

106042 @ 아.(아.)

106042 # 탕근에도 물건이 으라 개 들어가. 이연발, 박죽.(탕근에도 물건이 여러 개 들어가. 연발, ‘박죽’.)

106042 @ 이연발, 박죽 또?(연발, ‘박죽’ 또?)

106042 # 거 뿐이주, 바농허고.(거 뿐이지, 바늘하고.)

106042 @ 바농.(바늘.)

106042 # 응. 이연발, 박죽.(응. 연발, ‘박죽’.)

106042 @ 요거는 무신거라, 뭘로 헤? 뭇총으로 허는 거짜, 아니민 뭘로 허는 거?(요거는 뭐야, 뭘로 헤? 뭇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뭘로 하는 거?)

106042 # 뭇총, 뭇총.(뭇총, 뭇총.)

106042 @ 뭇총으로 허는 거. 뭇총은 누가 만들영 가져다 줘? 것도 할머니가 만들어?(뭇총으로 하는 거. 뭇총은 누가 만들어서 가져다 줘? 그것도 할머니가 만들어?)

106042 # 것도이 육지서 불르면 총이 막 길죽헌 게 좋아이.(그것도 육지서 부르면 총이 막 길죽한 게 좋아.)

106042 @ 아.(아.)

106042 # 견디 이디 뭇총은 좋지 안허여, 제긋뭇은.(그런데 여기 뭇총은 좋지 않

105) ‘박죽’은 탕건을 걸을 때 탕건 골의 윗부분을 고정시키는 연장으로 박을 잘라서 만든다.

아, 제주말은.)

106042 @ 응.(응.)

106042 # 옛날은 이제 ㄴ치 몰도 크지 안허고 허난이.(옛날은 이제처럼 말도 크지 않고 하니까.)

106042 @ 거난 몰총은 다 그거 행 납품허는 디가 잇구나예?(그러니까 말총은다 그거 해서 납품하는 데가 있군요?)

106042 # 풀주게.(팔지.)

106042 @ 풀아.(팔아.)

106042 # 응, 풀아. 거민 이제 몰 허는 사름덜은 그거 이제 비어근앵이 존 걸로 이제 뽑아 가지고 이젠 몰 커둬서 헌다게, 몰 커둬서. 총사발이 이서. 사발에 몰 놔 가지고 총 이제 요만이 혈만이 몰 켕.(응, 팔아. 그러면 이제 말 키우는 사람들은 그거 이제 베어서 좋은 걸로 이제 뽑아서 이젠 몰 담갔다가 한다, 몰 담갔다가. 총사발이 있어. 사발에 몰 놔 가지고 총 이제 요만큼 할 만큼 몰 담가서.)

106042 @ 응.(응.)

106042 # 영 뽑아근에 바눔에 꿩 허여.(이렇게 뽑아서 바늘에 꿩어서 해.)

106042 @ 아, 게난 바로 쓰는 게 아니고.(아, 그러니까 바로 쓰는 게 아니고.)

106042 # 응.(응.)

106042 @ 아까 무신 사발?(아까 무슨 사발?)

106042 # 아니게, 총사발이엔 허영 그자 사발인디 몰 낱 아무 사발이라도.(아니게, 총사발이라고 해서 그냥 사발인디 몰 놓고 아무 사발이라도.)

106042 @ 총사발에 몰 낱, 몰 놓고.(총사발에 몰 놔서, 몰 놓고.)

106042 # 몰 놓고 총 커 가지고.(몰 놓고 총 담가 가지고.)

106042 @ 총 컷다근에 허나씩 영 빠?(총 담갔다가 하나씩 이렇게 빠?)

106042 # 바눔귀에 꿩.(바늘귀에 꿩.)

106042 @ 바눔귀에 꿩. 그 탕건골에.(바늘귀에 꿩어서. 그 탕건골에.)

106042 # 응, 탕건골에 이제 초담은 총으로 이제 영 저 멩글주게.(응, 탕건골에 이제 처음은 총으로 이제 이렇게 저 만들지.)

106042 @ 예.(예.)

106042 # 영 뵤동글락허게 이것에 맞게. ㄴ작 지와 가지고 이젠 영 초담부터 영 줄아가는 거라.(이렇게 동그랗게 이것에 맞게. 매듭 지어 가지고 이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106042 @ 즐 땡 즈는 건 어떻 허는 거마씨?(걸 땡 걷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6042 # 어떻 행 즐아? 이디서 혼 코, 두 코 영 즈는 거주게.(어떻게 해서 걸어? 여기서 한 코, 두 코 이렇게 걷는 거지.)

106042 @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거라 아니면?(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거야 아니면?)

106042 # 바놓으로.(바늘로.)

106042 @ 뜨개질 허는 것처럼 허는 거라?(뜨개질 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106042 # 뜨개질 허는 거추룩.(뜨개질 하는 것처럼.)

106042 @ 아.(아.)

106042 # 그것도 또 골이 이서이.(그것도 또 골이 있어.)

106042 @ 응.(응.)

106042 # 이런 디 그 혼 골, 두 골 허면 요디 오면은 영 바놓으로 밋밋 영허여 가민은 풀어져 불거든.(이런 데 그 한 골, 두 골 하면 요기 오면은 이렇게 바늘로 모두 이렇게 해 가면은 풀어져 버리거든.)

106042 @ 예.(예.)

106042 # 경허니까 요 골, 골이 또 이서. 멧 바놓 허민 혼 골, 두 골 경허영 이젠.(그러니까 요 골, 골이 또 있어. 멧 바늘 하면 한 골, 두 골 그렇게 해서 이젠.)

106042 @ 멧 바놓 허민 혼 골이라?(멧 바늘 하님 한 골이야?)

106042 # 혼 바놓인가? 혼 바놓허영 못취 또. 흐끔 영 뒷바놓질 해 가지고.(한 바늘인가? 한 바늘 해서 마쳐 또. 조금 이렇게 박음질 해 가지고.)

106042 @ 응.(응.)

106042 # 골마다. 경혜사 골이 나거든.(골마다. 그래야 골이 나거든.)

106042 @ 응.(응.)

106042 # 경허면은 쪽쪽 이거 골덜 엇사게?(그러면 쪽쪽 이거 골들 없니?)

106042 @ 예, 예.(예, 예.)

106042 # 경허민 이젠 밀어냥 또 서일 때도 그 골마다 서이고, 골마다 서이여. 서이는 거, 초담 못이는 거.(그러면 이제 밀어 놓고 또 ‘서일’ 때도 그 골마다 ‘서이고’, 골마다 ‘서이여’. ‘서이는’ 거. 처음 매듭짓는 거.)

106042 @ 예.(예.)

106042 # 못아냥 서이는 거.(매듭지어 놓고 ‘서이는’ 거.)

106042 @ 응.(응.)

106042 # 또 우줍는 거.(또 ‘우줍는’ 거.)

106042 @ 응.(응.)

106042 # 우줍양, 다 허민 이제 우이 마무리 허는 거.(‘우줍양, 다 하면 이제 위에 마무리 하는 거.)

106042 @ 응. 여기 미녕실도 필요허덴 허는디 미녕실도 필요해?(응. 여기 무명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무명실도 필요해?)

106042 # 미녕실은 탕근 허는 디 필요 엇는다.(무명실은 탕건 하는 데 필요 없는데.)

106042 @ 필요 엇어. 뜸.(필요 없어.)

106042 @ 총칼, 먹술.(총칼, 먹술.)

106042 # 총칼¹⁰⁶은이.(총칼은.)

106042 @ 총칼도 필요해?(총칼도 필요해?)

106042 # 총칼은 또 요추룩 이제 네귀난 거, 영. 뽀쪽허영 이추룩 민짜 안 해 가지고 요 지레미 현 거 해 가지고. 총을 이제 꼬차지나 어떻 마칠 때는 특하게 총칼로 그차.(총칼은 또 이렇게 이제 네모난 거, 이렇게. 뽀족해서 이렇게 평평하지 않아 가지고 요 길이 한 거 해 가지고. 총을 이제 잘라지거나 어떻게 마칠 때는 특하게 총칼로 끊어.)

106042 @ 아, 바느질할 때 칼이나 가위가 필요하니까.(아, 바느질할 때 칼이나 가위가 필요하니까.)

106042 # 응. 바느질할 때 그새로도 잘 못해. 총칼이 좋아.(응. 바느질할 때 가위로도 잘 못해. 총칼이 좋아.)

106042 @ 총칼이 좋아. 질기니까.(총칼이 좋아. 질기니까.)

106042 # 총칼, 이제 이것이 낭이거든.(총칼, 이제 이것이 나무거든.)

106042 @ 예.(예.)

106042 # 저 탕건골이. 겨난 이제 총칼로 특하게 그차, 총을.(저 탕건골이. 그러니까 이제 총칼로 특하게 끊어, 총을.)

106042 @ 응. 총을 그치는 겨난 총칼.(응, 총을 끊는 겨니까 총칼.)

106042 # 식칼 닳은 건디 영 세모나게 요렇게 된 거라.(식칼 같은 건데 이렇게 세모나게 요렇게 된 거야.)

106042 @ 어느 정도 큰 거파?(어느 정도 큰 것입니까?)

106042 # 이만인 허는디 이디가 영계.(이만큼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106042 @ 아, 대각선으로.(아, 대각선으로.)

106042 # 영 반듯하게 안 해 가지고 토라지게. 그런 총칼 이서난. 우린 봐나난 눈에 훑허디.(이렇게 반듯하게 안 해 가지고 비뚤어지게. 그런 총칼 있었어. 우린 봤었으니까 눈에 선한데.)

106042 @ 계난. 요기에 날이 이신 거파?(그러니까. 요기에 날이 있는 것입니까?)

106042 # 응.(응.)

106042 @ 영 행 그치는 거.(이렇게 해서 끊는 거.)

106042 # 응.(응.)

106042 @ 요기 날 잇는 거.(요기 날 잇는 거.)

106042 # 응. 아래게. 이것이 총칼 아니가? 영 이 손으로 심어지고.(응. 아래. 이것이 총칼 아니니? 이렇게 이 손으로 잡아지고.)

106042 @ 딱 누르면 딱 당기면 끈어지는 거.(딱 누르면 딱 당기면 끊어지는 거.)

106042 # 겨난 탕근도 허젠 허민이 총칼, 박죽, 꺾사 이연발, 그 세 가지 갖춰야 웨고.(그러니까 탕건도 하려고 하면 총칼, 박죽, 아까 연발, 그 세 가지 갖춰야 되

106) '총칼'은 탕건을 걷는 말총을 자르기 위한 작은 칼이다.

고.)

106042 @ 총사발.(‘총사발’.)

106042 # 총사발.(‘총사발’.)

106042 @ 총사발도 이서야 돼고 아까.(총사발도 있어야 되고 아까.)

106042 # 찻대기.(총걸이.)

106042 @ 이게 찻대기. 먹술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데 그런 건 필요 없어?(이게 총걸이. 먹술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데 그런 건 필요 없어?)

106042 # 먹술은 저 낭 헐 때 목시덜 씨는 건디.(먹술은 저 나무 할 때 목수들 쓰는 건데.)

106042 @ 거난. 이거 헐 땐 필요 없어예?(그러니까. 이거 할 땐 필요 없어요?)

106042 # 응.(응.)

106042 @ 그 다음에 정술?(그다음에 ‘정술’?)

106042 # 정술이나 먹술이나 ㄹ쁜 건디.(‘정술’이나 ‘먹술’이나 같은 건데.)

106042 @ 응, 필요 엇인 거예?(응, 필요 없는 거요?)

106042 @ 골무, 골미 안 해? 손에 골미 이런 거.(골무, 골무 안 해? 손에 골무 이런 거.)

106042 # 골미 찢 사람 찢고 안 찢는 사람 안 찢.(골무 낀 사람 끼고 안 끼는 사람 안 끼.)

106042 @ 아.(아.)

106042 # 것도 손이 아프면 골미 찢.(것도 손이 아프면 골무 찢.)

106042 @ 거난.(그러니까.)

106042 # 골미도 풀지, 옛날. 탕건 허는 디.(골무도 팔지, 옛날. 탕건 하는 데.)

106042 @ 탕건 허는 디.(탕건 하는 데.)

106042 # 바늘을 하도 사용허니까 손굽이 아파.(바늘을 하도 사용하니까 손뚝 사이가 아파.)

106042 @ 골미는 뭘로 만들어마씨?(골무는 뭘로 만들어요?)

106042 # 골미, 가죽으로.(골무, 가죽으로.)

106042 @ 가죽으로.(가죽으로.)

106042 # 가죽으로 요렇게 띠 멘들아 가지고 툇허게시리 찢 가지고 이렇게 썩 허는 거, 골미.(가죽으로 요렇게 띠 만들어 가지고 툇하게 꺾 가지고 이렇게 꺾 가지고 하는 거, 골무.)

106042 @ 할머니 골미도 안 썩 그냥 헤낫구나예.(할머니는 골무도 안 꺾서 그냥 했었군요.)

106042 # 그냥 허단 뭘 우린 탕건 얼마 안 헤난. 초담 허단에이 하도 집이 바쁜 사람은 탕근도 못헌다게.(그냥 하다가 뭘 우린 탕건 얼마 안 했었어. 처음 하다가 하도 집이 바쁜 사람은 탕건도 못한다.)

106042 @ 밧디 일허젠 허민예.(밭에 일하려고 하면요.)

106042 # 그냥 아무것도 탕근만 허는 사름은 돈 많이 벌어 것도. 혼 장 도막에
흐나 어떤 사름은 흐나 더 허여, 경행 풀아. 경행 돈 벌어.(그냥 아무것도 탕건만
하는 사름은 돈 많이 벌어 그것도. 한 장 토막에 하나 어떤 사름은 하나 더 해, 그
렇게 해서 팔아. 그렇게 해서 돈 벌어.)

106042 @ 혼 장 도막은 오일 근는 거지예?(한 장 토막은 오일 말하는 거지요?)

106042 # 오일, 오일.(오일, 오일.)

106043 @ 게른 이거는 망건. 할머니, 망건.(그러면 이거는 망건. 할머니, 망건.)

106043 # 멩긴은이 멩긴 좃는 사름은 또 탕건보단 이것이 어려와이, 멩진이.(망
건은 망건은 결는 사름은 또 탕건보다는 이것이 어려워, 망건이.)

106043 @ 아, 이게 더 어려와.(아, 이게 더 어려워.)

106043 # 응, 이 우알 이거 잘 허영 마무리 허곡.(응, 이 위아래 이거 잘 해서
마무리하고.)

106043 @ 응.(응.)

106043 # 이 멩긴은 또 총도 줌진 결로 헤여.(이 망건은 또 총도 가는 결로 해.)

106043 @ 아.(아.)

106043 # 잘헤여 이거. 멩긴도, 멩진 짜는 사름.(잘 해 이거. 망건도, 망건 짜는
사름.)

106043 @ 이 동네도 하낫수과?(이 동네도 많았었습니까?)

106043 # 멩진골이, 멩진골이 이서.(망건골이, 망건골이 있어.)

106043 @ 이거 아니? 이거 가정와신디.(이거 아니? 이거 가져왔는데.)

106043 # 이 쳇대기는 ㄴ따. 멩진.(이 골걸이는 같아. 망건.)

106043 @ 응. 쳇대기는 ㄴ뜨고.(응, 골걸이는 같고.)

106043 # ㄴ뜨고 이 멩진골은.(같고 이 망건골은.)

106043 @ 이거 멩진골 아니?(이거 망건골 아니?)

106043 # 멩진골 닳은게.(망건골 같은데.)

106043 @ 이거 기엔 행 가져와신디.(이거 맞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106043 # 이거 멩진골헤근에 동글락 현 거. 것에 메왕 총으로 헤여. 총으로 멩
진 짜. 탕근 모양으로.(이거 망건골 해서 동그란 거. 그것에 메워서 총으로 해. 총으
로 망건 짜. 탕건 모양으로.)

106043 @ 이게 더 힘든 거?(이게 더 힘든 거?)

106043 # 힘들어, 이 멩진이. 탕건이 쥘 쉬와.(힘들어, 이 망건이. 탕건이 쥘 쉬
위.)

106043 @ 아, 탕건이 쥘 쉬와?(아, 탕건이 쥘 쉬위?)

106043 # 응, 총으로 허는 거. 멩진 어렵고, 양태도 또 재량¹⁰⁷⁾이 잇고 통량¹⁰⁸⁾
이 이서.(응, 총으로 하는 거. 망건 어렵고, 양태도 또 '재량'이 잇고 '통량'이 있어.)

107) '재량'은 양태 중에서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국상이 낮을 때 일반 사람들도 모두 썼다고 한다.

108) '통량'은 양태 중에서 질이 좋은 것으로 양반들이 주로 썼다.

106040 @ 양태를 가정 와신디 이게 양태 아니?(양태를 가져 왔는데 이게 양태 아니?)

106040 # 양태 이거, 양태파니.(양태 이거, '양태파니')

106040 @ 응, 양태판, 양태판?(응, 양태판, 양태판?)

106040 # 응, 양태파니. 양태판.(응, '양태파니'. 양태판.)

106040 @ 양태파니? ('양태파니?')

106040 # 응, 파니엔 허고 판이엔도 허고 판이 맞지. 양태파니. 양태판 맞아. 이 건이 이 건 또 쌀이지 양태쌀.(응, 파나라고도 하고 판이라고도 하고 판이 맞지. '양태파니'. 양태판 맞아. 이 건 이 건 또 살이지 양태살.)

106040 @ 응.(응.)

106040 # 쌀인디 양태허는 바농대가 이서이. 췌로 멘들앙 코쟁이 빼쪽헌 거. 영 오그라진 거. 게민 그걸로 총을 이제 이것에 쌀 메왕 초담은 이제 쌀을 예끼는 거 라이. 예껴냥 이젠 그 츠츠츠츠 영 돌명 혈 땀 그 바농대로 속속속속 혜영 짜 가. (쌀인디 양태하는 바늘이 있어. 쇠로 만들어서 코가 뽀족한 거. 이렇게 오그라진 거. 그러면 그걸로 총을 이제 이것에 살 메워서 처음은 이제 살을 엮는 거라. 엮어 놓고 이젠 차차차차 이렇게 돌면서 할 땀 그 바늘로 속속속속 해서 짜 가.)

106040 @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허는 거?(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

106040 # 응, 들어갔다 나왔다.(응, 들어갔다 나왔다.)

106040 @ 응.(응.)

106040 # 경행 또 이디도 탕근 모양으로 이 양태도 바우 들라.(그렇게 해서 또 여기도 탕건처럼 이 양태도 가장자리 들러.)

106040 @ 바우 들라야예, 안 풀어지게 허젠 허민예.(가장자리 들러야, 안 풀어지게 하려고 하면요.)

106040 # 응, 바우 들라근에 이젠 허곡 여기는 양태는 뭘 허느냐 허민, 또 갓이 저 탕근은이 툇허게시리 씨고.(응, 가장자리 들러서 이젠 하고 여기는 양태는 뭘 하느냐 하면, 또 갓이 저 탕건은 툇하게 씨고.)

106040 @ 응.(응.)

106040 # 양태에 또 모즈가 이서.(양태에 또 모자가 있어.)

106040 @ 이거 아니? 이거.(이거 아니? 이거.)

106040 # 모즈 이것에 영 부찌는 거.(모자 이것에 이렇게 붙이는 거.)

106040 @ 갱 이서?(그렇게 해서 이어?)

106040 # 응, 총으로 즐아, 총으로. 침 대로 대로.(응, 총으로 걸어, 총으로. 참 대로, 대로.)

106040 @ 대로 즐아?(대로 걸어?)

106040 # 대로 즐아.(대로 걸어.)

106040 @ 우에 모자를?(위에 모자를?)

106040 # 대로, 대로. 다 대로 행 씨. 양태는.(대로, 대로. 다대로 해서 씨. 양태

는.)

106040 @ 밀에 양태는 총으로 허고?(밀에 양태는 총으로 하고?)

106040 # 아니, 아니. 탕근허고 탕근에 또 갓이 잇고. 이 양태에 또 이 들러근에 쓰는 게 잇고 경허여. 이 탕근은 또로 갓이 또 이서.(아니, 아니. 탕건하고 탕건에 또 갓이 잇고. 이 양태에 또 이 달려서 쓰는 게 잇고 그렇게 해. 이 탕건은 또 갓이 또 있어.)

106040 @ 탕건에 쓰는 갓이 또로 잇어? 건 어떤 거지?(탕건에 쓰는 갓이 따로 잇어? 그건 어떤 거지?)

106040 # 그거는 양태라도 존 건가? 거 우리 하라바님 느랑 써낫저마는 그거 몰르크라.(그거는 양태라도 좋은 건가? 거 우리 할아버민 늘 썼었다마는 그거 모르겠다.)

106040 @ 케민 이 양태는 어떻 헐 때 쓰는 거라? 양태 소곱에 아무 것도 안헐 그냥 씩니까?(그러면 이 양태는 어떻게 할 때 쓰는 거야? 양태 속에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씩니까?)

106040 # 이디 모저, 모저 허영.(여기 모자, 모자 해서.)

106040 @ 그게 이 모자 아니?(그게 이 모자 아니?)

106040 # 이 총으로 안 헤여, 이거.(이 총으로 안 해, 이거.)

106040 @ 총으로 안 헤여. 양태 모자는?(총을 안 해, 양태 모자는?)

106040 # 양태는 이거 대로 즐압실 거여. 대로 즐질게. 모저 들러 가지고 특허게.(양태는 이거 대로 결고 있을 거야. 대로 가늘게. 모자 달려 가지고 특하게.)

106040 @ 케민 여기 이거는 염색해, 거멍허게?(그러면 여기 이거는 염색해, 거멍게?)

106040 # 노랑허게. 그냥 대 색으로.(노랑게. 그냥 대 색으로.)

106040 @ 노랑허게?(노랑게?)

106040 # 양태가 노랑허영 곱주게.(양태가 노래서 곱지.)

106040 @ 노랑헤영.(노래서.)

106040 # 땃살 막 달랑 허민 노랑허영 고와.(땃살 막 다루어서 하면 노래서 고와.)

106040 @ 응.(응.)

106040 # 경허고 또로 저 이 재량은 어떤 때 쓰느냐면 침 인척이.(그리고 또 저 이 '재량'은 어떤 때 쓰느냐면 참 먼저.)

106040 @ 아까 무신거허고 무신거 이서? 재량허고 통량?(아까 무엇하고 무엇 잇어? '재량'하고 '통량'?)

106040 # 통량.('통량'.)

106040 @ 재량은 뭉고 통량 무신 거짜?('재량'은 뭉고 '통량'은 무엇입니까?)

106040 # 통량은 양반들이 뿐 내영 쓰는 거고, 높은 사름덜.('통량'은 양반들이 뭉 부려서 쓰는 거고, 높은 사름들.)

106040 @ 응.(응.)

106040 # 또 재량은 국상이나 나라가 죽으나, 나라에 국상이라고 해서.(또 ‘재량’은 국상이나 나라가 죽거나, 나라에 국상이라고 해서.)

106040 @ 임금님이 죽으나.(임금님이 죽으나.)

106040 # 응, 그렇게 하면 국상 낫다고 해서 일반 사름이 다 쓰게 댜 거라.(응, 그렇게 하면 국상 낫다고 해서 일반 사름이 다 쓰게 댜 거야.)

106040 @ 아.(아.)

106040 # 어디 갈 때도. 그 재량이라고 해 가지고. 대로 이 모자도 즐고 그 도리도 즐꼭 허영 다 이제 일반 사름도 쓰났어. 재량이엔 허영. 경허민 육지레 이 제 주사름이 이걸 다 즐아근에 내치민 막 비싸났젠 현다.(어디 갈 때도. 그 재량이라고 해 가지고. 대로 이 모자도 즐고 그 도리도 즐고 해서 다 이제 일반 사름도 썼었어. ‘재량이라고 해서. 그러면 육지로 이 제주 사름이 이걸 다 걸어서 내놓으면 막 비쌌었다고 한다.)

106040 @ 응, 이게 무신거엔 곱아. 그믐 재량허고 통량 합청.(응, 이게 무엇이라고 말해. 그러면 ‘재량’하고 ‘통량’ 합쳐서.)

106040 # 재량, 통량.(‘재량’, ‘통량’.)

106040 @ 그거 합쳐근에 무신거엔 곱는 거 엇어?(그거 합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엇어?)

106040 # 양태.(양태.)

106040 @ 그거 합쳐근에 양태.(그거 합쳐서 양태.)

106040 # 양텐디 이제 좋은 건 통량.(양태인데 이제 좋은 건 ‘통량’.)

106040 @ 좋은 거.(좋은 거.)

106040 # 나쁜 건 재량. 우리 어머니넨 재량을 세 개씩 즐아나고렌 현다.(나쁜 건 ‘재량’. 우리 어머니는 ‘재량’을 세 개씩 즐었었다고 한다.)

106040 @ 언제, 하루에?(언제, 하루에?)

106040 # 하루에. 우리 어머니 막 손 빨라.(하루에. 우리 어머니 막 손 빨라.)

106040 @ 아, 하루에 세 개씩이나?(아, 하루에 세 개씩이나?)

106040 # 응, 우리 어머니네가 혼 이십세 뵐똥말똥헐 때 그 양태를 막 잘 즐아. 늑은 하나도 서툰 사름 힘든디 우리 외할머니가 이 양태를 대를 잘 멘들아 주니까.(응, 우리 어머니네가 한 이십 세 뵐까말까할 때 그 양태를 막 잘 즐어. 늑은 하나도 서툰 사름 힘든데 우리 외할머니가 이 양태를 대를 잘 만들어 주니까.)

106040 @ 양태는 아까 대나무로 허는 거렌 헛지예?(양태는 아까 대나무로 하는 거라고 헛지예?)

106040 # 응. 경헝 양태 즐아근에 써, 양태. 이제 갓 트로 이 저 모저 트로 즐양 부져. 경헝 쓰는 거 아니가게. 경헝 통량은 좋게 쓰는 사름은 일반도 막 모저로 쓰는 사름은 통량을 해당 써.(응. 그렇게 해서 양태 달아서 써, 양태. 이제 갓 따로 이 저 모저 따로 걸어서 붙여. 그렇게 해서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통량’은 좋게

쓰는 사람은 일반도 막 모자로 쓰는 사람은 '통량'을 해다가 써.)

106040 @ 응.(응.)

106040 # 썩도 탱기꼭 어디. 이 재량은 그냥 그때 쓰다근에 말고.(써서도 다니고 어디. 이 '재량'은 그냥 그때 쓰다가 말고.)

106040 @ 응.(응.)

106040 # 게난 국상 나면은 이 재량이 막 비싸. 국상 나면 양태 막 비싸.(그러니까 국상 나면은 이 재량이 막 비싸. 국상 나면 양태 막 비싸.)

106040 @ 이 양태 헐 때 요건 양태파니, 그 다음에 다른 이름 엇어?(이 양태 할 때 요건 양태파니, 그 다음에 다른 이름 엇어?)

106040 # 양태 바농.(양태 바늘.)

106040 @ 요건 양태 바농 또.(요건 양태 바늘 또.)

106040 # 양태파니 아래 놓는 건 또 대로 줄은 거 이서.(양태판 아래 놓는 건 또 대로 결은 거 있어.)

106040 @ 그건 뭐라?(그거 뭐야?)

106040 # 거 양태판 아래 놓는 거. 바구리, 바구리.(거 양태판 아래 놓는 거. 바구니, 바구니.)

106040 @ 그냥 바구리?(그냥 바구니?)

106040 # 이 쳇대기광 뜨나. 건 널러야 돼. 대로 즈는 거.(골걸이랑 달라. 그 건 넓어야 돼. 대로 결는 거.)

106040 @ 아. 파니 밑에예?(아, 판 밑에요?)

106040 # 양태파니 아래. 대로 구덕ㄴ찌 이렇게 즐아 가지고 저 요기 영 터지게 허꼭 또 양태 그디 또로 무시겨 놓젠 허민 그 굽은 그냥 해영 구덕ㄴ치룩 허면 그 소굽에 무시겨 담음도 허꼭. 양태 바농도 놓고 그 이 대도 놓꼭 그렇게 멘든 거라. (양태판 아래 대로 바구니처럼 이렇게 결어 가지고 저 요기 이렇게 터지게 하고 또 양태 거기 또 무엇 놓으려고 하면 그 굽은 그냥 해서 바구니처럼 하면 그 속에 무엇 담기도 하고. 양태 바늘도 놓고 그 이 대도 놓고 그렇게 만든 거야.)

106040 @ 응. 이렇게 모자만 따로 만들어?(응, 이렇게 모자만 따로 만들어?)

106040 # 모저도 이실 거라. 모저가 이것이 모저 좇는 사름은.(모자도 있을 거야. 모자가 이것이 모자 결는 사름은.)

106040 @ 총으론 안 만들고?(총으로는 안 만들고?)

106040 # 이거 총으로 헐 걸.(이거 총으로 할 걸.)

106040 @ 이건 총으로 헷는데, 총모자 이건.(이건 총으로 헷는데. 총모자 이건.)

106040 # 모자는 요작ㄱ장 즐암, 서문통서 즐암선게. 거 나 즈세히 안 봤어. 이거 저 엇어지 건디 오래지 안해서 이 모저는.(모자는 요전까지 결어, 서문통에서 결던데. 거 나 자세히 안 봤어. 이거 저 엇어진 지 오래지 않았어 이 모저는.)

106040 @ 예.(예.)

106040 # 경헌디 이것도 제주 사름은 사름 안허고 육지 무신 도에선가 하영 오

는 디가 이서. 이 탕건도 막 하영 사용허는 디가 잇고 거 어디 경상돈가 어딘가 나 것도 알아났저마는.(그런데 이것도 제주 사람은 사용 않고 육지 무슨 도에선가 많이 오는 데가 있어. 이 탕건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잇고 거 어디 경상돈가 어딘가 나 것도 알았었다마는.)

106040 @ 아까부터 궁금했언. 제주도에서 총으로 된 갓모자를 쓴 사람이 하신 가 말이주.(아까부터 궁금했었어. 제주도에서 총으로 된 갓모자를 쓴 사람이 많았었나 말이지.)

106040 # 하르방덜, 하르방덜.(할아버지들, 할아버지들.)

106040 @ 쓰긴 썬마씨?(쓰긴 썼어요?)

106040 # 응, 우리 하르바님. 이제도 사진 찍은 거 잇저. 우리 하르바님.(응, 우리 할아버님. 이제도 사진 찍은 거 있어. 우리 할아버님.)

106040 @ 맨날? 평상시에?(맨날? 평상시에?)

106040 # 어디 갈 때. 도복도 입고.(어디 갈 때 도복도 입고.)

106040 @ 우에 갓 쓰는 거? 아니면 아까 양태.(위에 갓 쓰는 거? 아니면 아까 양태.)

106040 # 갓 써. 탕건 써 낭 갓 써.(갓 써. 탕건 쓰고 나서 갓 써.)

106040 @ 탕건 먼저 쥘 먼저 탕건 쓰고 그 우에 갓 써?(탕건 먼저 제일 먼저 탕건 쓰고 그 위에 갓 써?)

106040 # 응. 이제 사진 이서. 제스때 내놔. 우리 외가에. 우리 성하르바님. 우리 하르바님 그럴듯한 하르방이라났어. 한문 선생.(응. 이제 사진 있어. 제사때 내어 놔. 우리 외가에서. 우리 성할아버님. 우리 할아버님 그럴듯한 할아버지였었어. 한문 선생.)

106041 @ 응, 이런 총모자는 이디서 안헤난?(응, 이런 총모자는 여기서 안 했었어?)

106041 # 이디서 모즈는 안 좋아났어.(여깃 모자는 안 걸었었어.)

106041 @ 아, 모전 안 좋아난예.(아, 모자는 안 걸었었어요.)

106041 # 탕근 양태만 즐고 이 모즈도 즈는 디가 이서, 또. 이건 총으로 즐아. (탕건 양태만 즐고 이 모자도 즐는 데가 있어, 또. 이건 총으로 즐어.)

106041 @ 저것도 총으로예?(저것도 총으로요?)

106041 # 응. 모즈도 저것도 갓에 부뻬실 거여. 저 총도.(응, 모자도 저것도 갓에 부고 있을 거야. 저 총도.)

106041 @ 이거 갓에 부찌는 거.(이거 갓에 붙이는 거.)

106041 # 탕근도 갓에 부찌고 저 모즈도 갓에 부찌. 또 양태는 그 전부 대로.(탕건도 갓에 붙이고 저 모자도 갓에 붙여. 또 양태는 그 전부 대로.)

106041 @ 아.(아.)

106041 # 멩긴은 또로 옛날 상통이 찬 사름덜이.(망건은 또 옛날 상투 찬 사름들이.)

106041 @ 응.(응.)

106041 # 갓 아이 썩 멩긴만 써. 멩긴만 동글락헌 거 이젠 딱 써근에 이제 상통이가 이서. 사름덜 하르방덜 상통이.(갓 안 쓰고 망건만 써. 망건만 동그란 거 이젠 딱 써서 이제 상투가 있어. 사람들 할아버지들 상투.)

106041 @ 상투.(상투.)

106041 # 머리 올려근에 경허면은 멩긴은 써면이 이 귀를 내쳐야 뉘덴이.(머리 올려서 하면 망건은 쓰면 이 귀를 내놔야 된대.)

106041 @ 응.(응.)

106043 # 경허민 요새 흐뎡 두린 사름 장스허는 사름덜, 멩긴 썩 귀 아이 뺄 사름을 들러사 건 멩청허덴 말이라이.(그러면 요새 조금 어리석은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망건 쓰고 귀 안 뺄 사람을 만나면 건 멩청하다는 말이야.)

106043 @ 응.(응.)

106043 # 경헝 흐뎡 허민 아이고, 멩긴 썩 귀 아이 뺄 사름 어디 서?(그렇게 조금 하면 아이고, 망건 쓰고 귀 안 뺄 사람 어디 있어?)

106043 @ 하하하.(하하하.)

106043 # 경 곤는 게 침, 전통이라, 그게. 이제 나 요새에도 그 무시거 허난 아이고, 약장사, 약장사 구경 막 가가민 난 아이고 저 멩긴 썩 귀 안 뺄 것덜, 나 경 굴아.(그렇게 말하는 게 침, 전통이야, 그게. 이제 나 요새에도 그 무엇 하니까 아이고, 약장사, 약장사 구경 막 가면 난 아이고 저 망건 쓰고 귀 안 뺄 것들, 나 그렇게 말해.)

106043 @ 아, 멩청하다고 하는 말을?(아, 멩청하다고 하는 말을?)

106043 # 아이고 저 두령 저, 멩긴 썩 귀 안 뺄 것덜. 겨난이 멩긴을 쓰민 이 귀를 톱 내쳐사뉘여. 딱 써영, 상통이 내치고.(아이고 저 어리석은 저, 망건 쓰고 귀 안 뺄 것들. 그러니까 망건을 쓰면 이 귀를 꼭 내놔야 돼. 딱 써서, 상투 내보내고.)

106043 @ 헝 충 물론 사름덜.(할 줄 모른 사람들.)

106043 # 헝 충 물론 사름이 귀깍장 탁 써어불면 멩청헌 것들 경. 멩긴 썩 귀 아이 뺄 사름 멩청헌 거. 겨난 요새 난 약장사 구경 안 간다.(할 줄 모른 사람 귀까지 딱 써 버리면 멩청한 것들 그렇게. 망건 써서 귀 안 뺄 사람 멩청한 거. 그러니까 요새 난 약장사 구경 안 간다.)

106043 @ 하하하. 재미로게. 가민 사저.(하하하. 재미로. 가면 사게 돼.)

106043 # 사고 것이 두리는 거 아니냐. 말에 속양 약을 사봤자 거 필요허냐게?(사고 그것이 어리석은 거 아니냐. 말에 속아서 약을 사봐야 거 필요허냐?)

106043 @ 너무 톱톱해, 우리 할머니.(너무 톱톱해, 우리 할머니.)

106043 # 납품이 어느 회사에서 납품허는 것덜 그레 이제 게민 싸게 파는 거라. 거민 그 회사에서도 것덜 밀어 줘야 뉘지 안허느냐게. 경헌 것도 모르고 이건 막 싸다, 약도 좋다 허명 막.(납품이 어느 회사에서 납품하는 것들 그리로 이제 그러면 싸게 파는 거야.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그것들 밀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모르고 이걸 아주 싸다, 약도 좋다 하면서 막.)

106043 @ 응.(응.)

106043 # 아이고, 이제도 멍긴 썩 귀 안 뻐 것덜 한 쟁이여. 약장시덜 땡기는 거 보민, 나 가 경 글아불민 알아듣는 사름은 알아듣고. 이제 젊은 사름덜은 모르지.(아이고, 이제도 망건 쓰고 귀 안 뻐 것들 많은 모양이야. 약장사들 다니는 거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106043 @ 못 알아들엉예.(못 알아들어서요.)

106038 @ 모자는 여름에 쓰는 거영 겨울에 쓰는 거 틀립니까?(모자는 여름에 쓰는 거랑 겨울에 쓰는 거 다릅니까?)

106038 # 모즈는이 철이 없어, 옛날. 저런 모즈도 이제사 나고 저 나까오리도 해방 이 일본 때에 나서 저 나까오리도.(모자는 철이 없어, 옛날. 저런 모자도 이제야 나오고 저 '나까오리'도 해방 이 일본 때에 나서 저 '나까오리'도.)

106038 @ 응.(응.)

106038 # 게니까 옛날 한국 사름은 어디 갈 때도 멍긴 씨영 저 갓 씨영 가고 경해난.(그러니까 옛날 한국 사름은 어디 갈 때도 망건 써서 저 갓 써서 가고 그렇게 했었어.)

106038 @ 그냥 밧디 갈 때 무신 거 써? 어디 외방 갈 때 말고.(그냥 밧에 갈 때 무엇 써? 어디 외방 갈 때 말고.)

106038 # 그때도 밀짚모자 이서난게.(그때도 밀짚모자 있었어.)

106038 @ 패랭이?(패랭이?)

106038 # 패랭이.(패랭이.)

106038 @ 밀낭패랭이?(밀짚모자.)

106038 # 응. 밀낭으로 줄아, 줄아, 거.(응. 밀짚으로 걸어, 걸어, 거.)

106038 @ 밀낭으로 줄앙예?(밀짚으로 걸어요?)

106038 # 밀낭이 어떻게 허느냐면 밀을 갈면 그 소독¹⁰⁹이 있어. 그 밀낭도 소독, 소독 푹푹푹푹 이제 것이 질겨. 그 모즈 줄아.(밀짚이 어떻게 허느냐면 밀을 갈면 그 '소독'이 있어. 그 밀짚도 '소독', '소독' 푹푹푹푹 이제 그것이 질겨. 그 모자 걸어.)

106038 @ 걸로?(걸로?)

106038 # 우리 줄아낫저.(우리 걸었었어.)

106038 @ 것도 줄아납디가?(것도 걸었었습니까?)

106038 # 줄앙 이제 패랭이 뱅뱅 실로 주영게 망부떠 문여 멘들아 가명 이제 갓 멘들앙 패랭이.(걸어서 이제 패랭이 뱅뱅 실로 주워서 망부터 먼저 만들어 가면서 이제 갓 만들어서 패랭이.)

106038 @ 우에 거 먼저 만들고 밧에 거 나중에 만드는 거?(위에 거 먼저 만들

109) '소독'은 짚이나 억새 따위의 속줄기를 말한다.

고 밑에 거 나중에 만드는 거?)

106038 # 응, 경행 패랭이 멘들주게.(응, 그렇게 해서 패랭이 만들지.)

106038 @ 응. 거 영영영영 돌려가명예.(응,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요.)

106038 # 응. 망 멩글 때 또로 영 대가리에 맞좌근에. 게 패랭이 허단 이젠 일당도 비싸고, 그런 밑도 안 같고 허난 돈 푸는 거 사단 썸세게.(응. 망 만들 때 또 이렇게 머리 맞춰서. 그러게 패랭이 하다가 이젠 일당도 비싸고, 그런 밑도 안 같고 하니까 모두 파는 거 사다가 쓰잖아.)

106038 @ 맞아예.(맞아요.)

106038 # 낭거죽 패랭이 야려. 밑짚패랭이가 질기주.(나무 껍질 패랭이 야려, 밑짚패랭이가 질기지.)

106038 @ 무신게 야려?(무엇이 야려?)

106038 # 낭거죽으로도 즐주.(나무껍질로도 곁지.)

106038 @ 낭거죽.(나무껍질.)

106038 # 낭거죽은 기계로 베피 못 즐주게, 그건 야령. 낭거죽 패랭인 야리고 밑짚 패랭인 질겨. 궤양 씨는 사름 곱게 즐아노민 혼 멧 해 씨주게.(나무껍질은 기계로 밖에 못 곁어, 그건 야려서. 나무껍질 패랭이는 야리고 밑짚패랭이는 질겨. 고 이 쓰는 사람 곱게 곁어놓으면 한 멧 해 쓰지.)

106038 @ 패랭인 주로 여름에 쓰는 거주예?(패랭인 주로 여름에 쓰는 거지요?)

106038 # 응, 여름에 밧디 갈 때. 밧디 또 대로 즐은 샷갓.(응, 여름에 밧에 갈 때. 밧에 또 대로 곁은 샷갓.)

106038 @ 아, 샷갓도예.(아, 샷갓도요.)

106038 # 샷갓도 밧디 씨는 거.(샷갓도 밧에 쓰는 거.)

106038 @ 밧디 갈 때 샷갓, 대로 즈는 거구나.(밧에 갈 때 샷갓, 대로 곁는 거구나.)

106038 # 대로 즐주게.(대려 곁지.)

106038 @ 종이도 밧르기도 허고?(종이도 밧르기도 하고?)

106038 # 종인 덩지 말렌 그 양태, 찜 양태엔 헤점저.(종인 덩지 말라고 그 양태, 찜 양태라고 헤지네.)

106038 @ 샷갓에.(샷갓에.)

106038 # 샷갓도이 영 헨다게. 샷갓 우이 멩글양 씨와, 덩지 안허게 벳 아이 들어가게.(샷갓도 이렇게 한다. 샷갓 우에 만들어서 씨워, 덩지 양게 별 안 들어가게.)

106038 @ 덩지 안허게.(덩지 양게.)

106038 # 경허는 거. 샷갓, 밑짚모자, 낭거죽 패랭이 것도 이젠 막 외국 거 들어와노난. 것도 두 불이라. 제주 건 엇어.(그렇게 하는 거. 샷갓, 밑짚모자. 나무껍질 패랭이 그것도 이젠 막 외국 거 들어와 버리니까. 그것도 두 벌이야. 제주 건 엇어.)

106039 @ 겨울에는 그른 뭐 써? 병것? (겨울에는 그러면 뭐 써? 병것?)
 106039 # 하르방덜이나 모즈 씨주 여즈덜은 무신 경 모자 경 씨나시냐?(할아버지들이나 모자 쓰주, 여자들은 무슨 그렇게 모자 그렇게 썼었니?)
 106039 @ 털로 멘든 건 무신 거엔 곶아?(털로 만든 건 무엇이라고 말해?)
 106039 # 가죽감티¹¹⁰⁾.('가죽감티')
 106039 @ 가죽감티.('가죽감티')
 106039 # 가죽감티 씨낫저.('가죽감티' 썼었어.)
 106039 @ 건 겨울에 쓰는 거예.(그건 겨울에 쓰는 거요.)
 106039 # 응, 겨울에.(응, 겨울에.)
 106039 @ 건 가죽으로 만든 거?(그건 가죽으로 만든 거?)
 106039 # 가죽으로.(가죽으로.)
 106039 @ 동물 가죽으로.(동물 가죽으로.)
 106039 # 응, 동물 가죽으로. 것도 가죽도이 그런 모즈 멘들젠 허민이 막 달루와 가지고 혈렁혈렁하게 멩그는 기술이 신 생이라라, 옛날도.(응, 동물 가죽으로. 그것도 가죽도 그런 모자 만들려고 하면 막 다루어 가지고 혈렁혈렁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 모양이더라, 옛날도.)
 106039 @ 아.(아.)
 106039 # 또 신도 가죽신 잇네.(또 신도 가죽신 잇네.)
 106039 @ 예.(예.)
 106039 # 가죽으로 멘들앙. 경행 신으민 이제 장화 모양으로 신영 밧디도 다니고 그냥 비올 때도 신고.(가죽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신으면 이제 장화 모양으로 신어서 밧에도 다니고 그냥 비올 때도 신고.)
 106039 @ 가죽신은 무신 거엔 곶옵니까?(가죽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106039 # 가죽신.(가죽신)
 106039 @ 그냥 가죽신. 창신은 무신거?(그냥 가죽신. 창신은 무엇?)
 106039 # 창신은 또 멩근 거. 창신은 또로 가죽으로 이 창 허고.(창신은 또 만든 거. 창신은 또 가죽으로 이 창 하고.)
 106039 @ 창만 가죽으로 허는 거?(창만 가죽으로 하는 거?)
 106039 # 또 이디 도련 멘드는 게 있어. 무신 기지 닳은 거.(또 여기 도련 만드는 게 있어. 무슨 옷감 같은 거.)
 106039 @ 아.(아.)
 106039 # 또 막 높은 사름 여즈도 가막창신 엇사게? 그 창신 멩그는 게 이서. 건이 민간에 경 널어지지 안허여.(또 막 높은 사람 여자도 '가막창신' 없니? 그 창신 만드는 게 있어. 그것은 민간에 그렇게 널리지 않아.)
 106039 @ 응.(응.)
 106039 # 막 이제 이 관덕정에 만약에 이제 ㄱ뜨민 국회의원이주이.(막 이제 이

110) '감티'는 짐승의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방한모이다.

관덕정에 만약에 이제 같으면 국회의원이지.)

106039 @ 예.(예.)

106039 # 이 마을에도 이, 저 남군ㄴ란 정의, 이디는 모관. 경허면은 그디는 의원이엔 허여, 정의원, 여기는 모관은 판관이라고 해, 판관.(이 마을에도 이, 저 남군 보곤 정의, 여기는 모관. 그러면은 거기는 의원이라고 해, '정의원', 여기는 모관은 판관이라고 해, 판관.)

106039 @ 예.(예.)

106039 # 경행 혈 때도 판관 딸이나 판관 각신 관덕정에 모셔갈 때 가마에 가막창신에 코젍이보선에 신곡 곱게 출렁 하인덜이 모상 갖다왔다.(그렇게 할 때도 판관 딸이나 판관 각신 관덕정에 모셔갈 때 가마에 '가막창신'에 '코젍이보선'에 신고 곱게 차려서 하인들이 모셔서 갔다 왔다.)

106039 @ 응.(응.)

106039 # 선홀도 판관 헛당 망헛.(선홀도 판관했다가 망했어.)

106039 @ 예? 판관 헛난 사름 이수과?(예? 판관 했던 사람 있습니까?)

106039 # 안 판관 헛난디 판관이 그만 뒀에 걸려난 모양이지.(안 판관 했었는데 판관이 그만 무엇에 걸렸던 모양이지.)

106039 @ 아.(아.)

106039 # 경해부난 판관헛난 역사가 었어졌서. 그땐 안침이 막 선홀에 막 소문나게 안 판관, 안 판관 허단이 그 판관에 강 끄끝내 살질 못헌 생이라. 우리가 들은 헛어. 경혈 때 가막창신에 그, 판관 각시, 판관 딸, 판관 메누리네 관덕정에 모상 갖다 왔다.(그렇게 해버려서 판관했던 역사가 었어졌어. 그땐 안침이 막 선홀에 막 소문나게 안 판관, 안 판관 하다가 그 판관에 가서 끝끝내 살질 못한 모양이야. 우리가 듣기는 헛어. 그렇게 할 때 '가막창신'에 그, 판관 각시, 판관 딸, 판관 며느리네 관덕정에 모셔서 갔다 왔다.)

106039 @ 응, 경혈 때나 신는 거주예?(응, 그렇게 할 때나 신는 거지요?)

106039 # 응, 가막창신이라고 해 가지고 경허는 거라. 또로 그 판관 신는 것도 가족신 님은 건디 신 이서. 이제 그 저 어디 었샤게? 결혼헛 때 그 한복 입고 그 신 선게. 새서방 신는 신, 그런 신.(응, '가막창신'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또 그 판관 신는 것도 가족신 같은 건데 신 있어. 이제 그 저 어디 없니? 결혼할 때 그 한복 입고 그 신 있던데. 새신랑 신는 신, 그런 신.)

106039 @ 그런 신.(그런 신.)

106039 # 것ㄴ라 관복이라고 헛낫어, 관복. 그 관에 땡기는 그런 판관이나 그런 사람들만 입는 거. 게 가지고 관복이라고 헛어, 관복.(그것보고 관복이라고 헛었어, 관복. 그 관에 다니는 그런 판관이나 그런 사람들만 입는 거. 그래 가지고 관복이라고 헛어, 관복.)

106039 @ 가족감티 말고 겨울에 쓰는 모잔 었인가?('가족감티' 말고 겨울에 쓰는 모자는 없나?)

106039 # 그냥 그건 뭐 시지부지헌 모자덜.(그냥 그건 뭐 흐지부지한 모자들.)
 106039 @ 우리 털실로라도 짱 씩니께?(우리 털실로라도 짜서 쓰잖아요?)
 106039 # 그런 건.(그런 건.)
 106039 @ 이름 따로 엇어? 계실.(이름 따로 없어? 털실.)
 106039 # 계실로도 짱 씨주게. 그런 감티¹¹¹.(털실로도 짜서 쓰지. 그런 ‘감티’)
 106039 @ 그런 건 감티엔 허여?(그런 건 ‘감티’라고 해?)
 106039 # 응, 감티.(응, ‘감티’.)
 106039 @ 계실로 짱 거?(털실로 짱 거?)
 106039 # 응.(응.)
 106039 @ 옛날 빵모자.(옛날 빵모자.)
 106039 # 빵모자 나건 디도 오래지 안허연.(빵모자 나온 지도 오래지 않았어.)
 106039 @ 오래지 안허연.(오래지 않았어.)
 106039 # 감티엔 해난디.(‘감티’ 했었는데.)
 106044 @ 도롱이는?(도롱이는?)
 106044 # 거 무신거라?(거 무엇이니?)
 106044 @ 우장.(우장.)
 106044 # 우장은 비에 씨는 거. 새로 줄은 거.(우장은 비에 쓰는 거. 새로 결은 거.)
 106044 @ 아, 건 새로 줄은 거예.(아, 건 새로 결은 거요.)
 106044 # 우장 저 비옷이라고. 우장 그 어디 한라문화제에 나완게.(우장 저 비옷이라고. 우장 그 어디 한라문화제에 나오던데.)
 106044 @ 것도 집이서 다 즐앙 입엇수과?(그것도 집에서 다 곁어서 입엇습니까?)
 106044 # 응, 즈는디 것도 보통으로 못 즐아.(응, 곁는데 것도 보통으로 못 곁어.)
 106044 @ 게문. 잘 즈는 사람이 이서?(그러면 잘 곁는 사람이 있어?)
 106044 # 노 꼬고 새도 그 가온디 그, 곁 빠 가지고 새 섯만 해 가지고 요만씩 무꺼 가지고 노도 ㄴ느롱허게 헤영 그곁 즐라 무꺼.(노 꼬고 띠도 그 가운데 그, 곁 빠 가지고 띠 잇만 해 가지고 요만큼씩 묶어 가지고 노도 가느다랗게 해서 그곁 즐라 묶어.)
 106044 @ 예.(예.)
 106044 # 즐라 무껍 이제 즐아, 즐아. 노 허여 가지고 새 깨영 낱 복삭허게 헤영근에 이제 즐앙 이젠 영 웃도리 영 멘들아근영에 탁 씨게시리.(즐라 묶어서 이젠 곁어, 곁어. 노 해 가지고 띠 으깨어 놓고 ‘복삭’하게 해서 이제 곁어서 이젠 이렇게 윷도리 이렇게 만들어서 탁 쓰게.)
 106044 @ 우에 모잔 어떻?(위에 모잔 어떻게?)

111) ‘감티’는 짐승의 가죽이나 천 따위로 만든 방한모를 말하는 것이다.

106044 # 모잔 안 쓰고, 모잔 엇어.(모잔 안 쓰고, 모잔 없어.)

106044 @ 얼굴 다 맞잖아.(얼굴 다 맞잖아.)

106044 # 우장만 써.(우장만 써.)

106044 @ 샷갓 안 써?(샷갓 안 써?)

106044 # 그런 건 씨꼭게. 그런 건 우장 쓰고 그런 건 비온 땀 쓰고. 건디 우장도 아무나 못 좋아.(그런 건 쓰고. 그런 건 우장 쓰고 그런 건 비올 땀 쓰고. 그런데 우장도 아무나 못 걸어.)

106044 @ 잘 즈는 사름이.(잘 걷는 사람이.)

106044 # 것도 기술자라사 연구허멍 줄주, 아무나 못 좋아. 또 저 정당으로 이제 정당 모즈가 이서.(것도 기술자라야 연구하면서 걸지, 아무나 못 걸어. 또 저 땡땡이덩굴로 이제 땡땡이덩굴 모자가 있어.)

106044 @ 응.(응.)

106044 # 것ㄴ라 졸, 졸이라고 허나? 그런 모저 즈는 사름도이 막 잘 즈는 사름.(그것보고 ‘졸’, ‘졸’이라고 하나? 그런 모자 걷는 사람도 막 잘 걷는 사람.)

106044 @ 그건 무신 모자엔 곶아?(그건 무슨 모자라고 말해?)

106044 # 병것, 병것.(병거지, 병거지.)

106044 @ 그건 병것.(그건 병거지.)

106044 # 병것이엔 해근앵에 허는디 정당 모즈라 그건.(병거지라고 해서 하는데 땡땡이덩굴 모자야 그건.)

106044 @ 정당 모자. 정당을 졸이엔 곶아?(땡땡이덩굴 모자. 땡땡이덩굴을 ‘졸’이라고 말해?)

106044 # 졸이 그.(‘졸’이 그.)

106044 @ 정당허고 졸허고 틀린 거?(‘정당’하고 ‘졸’하고 다른 거?)

106044 # 그 정당은 그게 드르에 그냥 나는 거고 졸은 또 모즈 즈는 게 셔.(그 ‘정당’은 그게 들에 그냥 나는 거고 ‘졸’은 또 모자 걷는 게 있어.)

106044 @ 또로 이서마씨? 그믄 정당 따로 졸 따로.(또 있어요? 그러면 ‘정당’ 따로 ‘졸’ 따로.)

106044 # 그 모즈는 막 오래가.(그 모자는 막 오래 가.)

106044 @ 정당 모자가?(‘정당’ 모자가?)

106044 # 응, 그 모즌이 조끄만허게시리 뿐 좋게 즐꼭 허민 막 오래 가. 그 모자 졸은 거. 이런 밀짚패랭이ㄴ치 매일 썩 땡겨도.(응, 그 모자는 조그맣게 보기 좋게 걸고 하면 아주 오래 가. 그 모자 걸은 거. 이런 밀짚패랭이같이 매일 썩서 다녀도.)

106044 @ 예.(예)

106044 # 그 모즈도이 다 못 썩 땡겨. 거 잘 즐꼭 허는 사름이라사 썩. 이디 우넉집이 하르방 곱게 즐아났저, 거.(그 모자도 다 못 썩서 다녀. 거 잘 걸고 하는 사름이라야 썩서. 여기 윗집 할아버지 곱게 걸었었어, 거.)

106044 @ 시원해, 무거와?(시원해, 무거워?)

106044 # 무겁고 빼작하게 좋아. 정당모즌엔 행.(무겁고 촘촘히 걸어. ‘정당’모자라고 해서.)

106044 @ 응. 신발은 째신허고, 나막신허고, 아까 창신허고예?(응. 신발은 째신하고, 나막신하고, 아까 가죽신하고요?)

106044 # 창신은 경 민간이 다 안 신어.(가죽신은 그렇게 민간이 다 안 신어.)

106044 @ 응, 주로 신는 게 째신 아니민?(응, 주로 신는 게 째신 아니면?)

106044 # 응, 째신 주로 신는 게 옛날 셔샤? 우리도 흑교 텡길 때도 그 째신 신 영 운동장에 흑이 막 허민 그자 바탕바탕 그냥 경행 양말도 신는 등 마는 등 행 벗고. 복도에도 멘 흑이주게, 막 흑. 경허당 우리도 흑교도 얼마 안 텡것저게.(응, 째신밖에 주로 신는 게 옛날 있었니? 우리도 학교 다닐 때도 그 째신 신어서 운동장에 흑이 막 하면 그냥 텡병텡병 그냥 그렇게 해서 양말도 신는 등 마는 등 해서 벗고. 복도에도 모두 흑이지, 막 흑. 그러다가 우리도 학교도 얼마 안 다녔어.)

106044 @ 예.(예.)

106043 # 이건 멩긴 갓, 멩긴 갓. 탕건 우에 톡 바되지게시리. 이 우통¹¹²⁾에 바되, 우통에 그 갓을 톡 낵.(이건 망건 갓, 망건 갓. 탕건 위에 톡 받치게. 이 ‘우통’에 받쳐, ‘우통’에 그 갓을 톡 놔서.)

106043 @ 우통 이시민 알통도 이신 거라?(윗통 있으면 아랫통도 있는 거야?)

106043 # 아니, 아니. 탕건 꼭대기¹¹³⁾라 우통.(아니, 아니. 탕건 꼭대기보고 ‘우통’.)

106043 @ 아, 이 꼭대기보고 우통.(아, 이 꼭대기보고 ‘우통’.)

106043 # 우통 ㅁ감저, 우통 ㅁ감저, 경, 탕건헐 때.(‘우통’ 마친다, 우통 마친다, 그렇게, 탕건헐 때.)

106043 @ 흑시 요 바우는 또 곧는 말이 이수과?(흑시 요 가장자리는 또 하는 말이 있습니까?)

106043 # 무시겨 바우주.(무엇 가장자리지.)

106043 @ 그건 엇어? 그냥, 그냥 바우?(그것 없어? 그냥, 그냥 가장자리?)

106043 # 응.(응.)

106043 @ 그냥 바우.(그냥 가장자리.)

106043 # 응, 탕건 바우.(응, 탕건 가장자리.)

106043 @ 요기 요기 톡은?(요기 요기 톡은?)

106043 # 이것¹¹³⁾란 뤼엔 헤신고, 이거. 박죽¹¹³⁾ 놔근에 허는 거.(이것보곤 뤼라고 했나, 이거. ‘박죽’ 놓고 하는 거.)

106043 @ 무신 톡, 톡이엔 안 곶아?(무슨 톡, 톡이라고 안 말해?)

106043 # 톡이엔 안 곶아.(톡이라고 안 말해.)

112) ‘우통’은 상반신에 입는 옷을 이르기도 하나 여기서는 탕건 꼭대기를 말한다.

113) ‘박죽’은 탕건을 걸을 때 탕건 골의 윗부분을 고정시키는 연장으로 박을 잘라서 만든다.

106043 @ 선비안티 팔아?(선비에게 팔아?)

106043 # 조천 장에 받으러 오주, 받으러 와. 탕건 장사가 이서, 육지레.(조천 장에 받으러 오지, 받으러 와. 탕건 장사가 있어, 육지로.)

106043 @ 육지레 파는 거예.(육지로 파는 거요.)

106043 # 응.(응.)

6.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옛날에 먹어낸 밥이영 뭐 이런 거 조금만 더 곁아줍서, 할머니.(옛날에 먹었던 밥이랑 뭐 이런 거 조금만 더 말해주십시오, 할머니.)

107001 # 거 곁아줍은 뭐. 보리쌀, 좁쌀이 전공이주게, 이 제주도애사게.(거 말해줍은 뭐. 보리쌀, 좁쌀이 주지, 이 제주도애야.)

107001 @ 응.(응.)

107001 # 그거 또 콩 또 숨메 낱 먹는 거.(그거 또 콩 또 ‘숨메’ 놔서 먹는거.)

107001 @ 무신거 낱?(무엇 놔서?)

107001 # 풋이나 콩이나 숨메.(팥이나 콩이나 ‘숨메’.)

107001 @ 숨메가 무신거?(‘숨메’가 뭐?)

107001 # 콩 놓는 것ㄴ라 숨메엔 허주. 밥 숨메.(콩 놓는 것보고 ‘숨메’라고 하지. 밥 ‘숨메’.)

107001 @ 밥에 숨메, 풋 놓는 걸 풋 숨메?(밥에 ‘숨메’, 팥 놓는 걸 팥 ‘숨메’?)

107001 # 막 이것덜은 잘사는 것들이로고, 숨메도 모르는 거 보난.(막 이것들은 잘사는 것들이로군, ‘숨메’도 모르는 거 보니까.)

107001 @ 아니. 풋은 낱 먹주마씨.(아니. 팥은 놔서 먹지요.)

107001 # 게 숨메주게, 것ㄴ라.(그게 ‘숨메’지, 그것보고.)

107001 @ 그걸 숨메엔 곤는 걸 몰라.(그걸 ‘숨메’라고 말하는 걸 몰라.)

107001 # 하하하.(하하하.)

107001 @ 풋 숨메로 논 밥은 풋밥?(팥 ‘숨메’로 놓은 밥은 팥밥?)

107001 # 응. 풋 숨메 놓앗저, 콩 놓앗저.(응. 팥 ‘숨메’ 놓았다, 콩 놓았다.)

107001 @ 보리는 그냥 보리밥?(보리는 그냥 보리밥?)

107001 # 보리밥.(보리밥.)

107001 @ 좁쌀로 헨 건?(좁쌀로 한 건?)

107001 # 조팥.(조밥.)

107001 @ 쌀은 어디다가 영 놔뒤마씨, 보통?(쌀은 어디다가 이렇게 놔뒤요, 보통?)

107001 # 보통 그땐 이젠 고팡.(보통 그땐 이젠 고팡.)

107001 @ 쌀, 향? 쌀향?(쌀, 독? 쌀독?)
107001 # 응, 쌀향. 향에 쌀.(응, 쌀독. 독에 쌀.)
107001 @ 향에다가 담양예.(독에다가 담아서요.)
107001 # 쌀도 쟁 저을 먹을 거 쌀을 향에 막 하영 헤다 놔 지민 므음 농곡.(쌀도 그렇게 겨울 먹을 거 쌀을 독에 아주 많이 해 놓으면 마음 놓고.)
107001 @ 응.(응.)
107001 # 이제ㄴ짜 어디 강 사와지느냐?(이제같이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느냐?)
107001 @ 계난예.(그러니까요.)
107001 # 이녁 거 헤사. 이녁 거 헤사.(자기 거 해야. 자기 거 해야.)
107001 @ 응.(응.)
107001 # 쌀 경 못한 사름은 막.(쌀 그렇게 못한 사람은 막.)
107001 @ 쌀 향에 담아? 놔?(쌀독에 담아? 놔?)
107001 # 방에 쳐다근에 향에 놔.(방아 찻어다가 독에 놔.)
107001 @ 향에 놔.(독에 놔.)
107001 # 보리쌀도 좁쌀도 놓아근앵에.(보리쌀도 좁쌀도 놓아서.)
107001 @ 밥헐 때 물이 영 끌어 가지고 넘칠려고 하는 걸?(밥할 때 물을 이렇게 끌어 가지고 넘치려고 하는 걸?)
107001 # 부끄는 거.(넘치는 거.)
107001 @ 밥 물이 잣아 들어서 줄어 드는 거?(밥 물이 잣아 들어서 줄어 드는 거?)
107001 # 건, 물 뿔뿔젠 허주, 물 죽안.(건 물 말랐다고 하지, 물 적어서.)
107001 @ 물 죽안에 물 뿔단예. 물이 너무 하, 계민 흐끔 영.(물 적어서 물 말랐다고요. 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조금 이렇게.)
107001 # 거러 불어사주.(떠 버려야지.)
107001 @ 덜어?(덜어?)
107001 # 물 덜어 불어사.(물 덜어 버려야.)
107005 @ 아무 것도 안 낡 하양현 밥은 곤밥?(아무 것도 안 놓고 하얀 밥은 ‘곤밥’?)
107005 # 곤밥, 참 이젠 저영 쌀만 먹엄주마는 우리 시대엔이.(‘곤밥’, 참 이젠 저렇게 쌀만 먹고 있지만 우리 시대엔.)
107005 @ 응.(응.)
107006 # 보리쌀에 좁쌀 서경 먹음도 어려와.(보리쌀에 좁쌀 섞어서 먹음도 어려워.)
107006 @ 응.(응.)
107006 # 좁쌀 나민 좁쌀만. 보리쌀 나민 보리쌀.(좁쌀 나면 좁쌀만. 보리쌀 나면 보리쌀.)
107006 @ 조팝, 보리밥.(조밥, 보리밥.)

107006 # 경만 먹는 사름이 많아. 보리쌀에 좁쌀 서경 먹는 사름도 신 사름.(그렇게만 먹는 사람이 많아. 보리쌀에 좁쌀 섞어서 먹는 사람도 있는 사람.)

107004 @ 반지기긴 어떤 거?(반지기는 어떤 거?)

107004 # 그거 곤쌀 햅쌀 서끈 건 반지기밥.(그거 흰쌀 조금 섞은 건 반지기밥.)

107004 @ 뒤에 곤쌀을 햅쌀 서껴?(뒤에 흰쌀 조금 섞어?)

107004 # 보리쌀에 좁쌀에 서경 곤쌀을 햅쌀 놓민 반지기밥.(보리쌀에 좁쌀에 섞어서 흰쌀을 조금 놓으면 반지기밥.)

107004 @ 아, 반반 서끄는 게 아니고?(아, 반반 섞는 게 아니고?)

107004 # 응.(응.)

107004 @ 보리쌀 반, 쌀 반 이렇게 서끄는 게 아니고?(보리쌀 반, 쌀 반 이렇게 섞는 게 아니고?)

107004 # 경 허꺼도 반지기밥이고.(그렇게 섞어도 반지기밥이고.)

107004 @ 것도 반지기고, 조 영 서껴 놓고 쌀 햅쌀 영 논 것도 반지기.(그것도 반지기고, 조 이렇게 섞어 놓고 쌀 조금 이렇게 놓은 것도 반지기.)

107004 # 응, 반지기.(응, 반지기.)

107004 @ 응, 기구나.(응, 그렇구나.)

107004 # 또 콩이나 팥이나 논 건 솜메 낱 밥헌 거.(또 콩이나 팥이나 놓은 건 ‘솜메’ 놓고 밥한 거.)

107001 @ 물 햅쌀 적게 놔근에 꼬들꼬들헌 밥을 뭐렌 곱습니까?(물 조금 적게 놔서 꼬들꼬들한 밥을 뭐라고 말합니까?)

107001 # 밥 설엇젠.(밥 설었다고.)

107001 @ 설엇젠. 그냥 부르는 밥은 엇고. 무슨 밥, 무슨 밥.(설었다고. 그냥 부르는 밥은 없고. 무슨 밥, 무슨 밥.)

107001 # 엇어, 밥 설엇저.(없어, 밥 설었다.)

107001 @ 고두밥 이런 말은 엇어?(고두밥 이런 말은 없어?)

107001 # 엇어.(없어.)

107001 @ 엇어.(없어.)

107001 # 밥 설언. 물 죽아부난 밥 설엇저 영허고. 또 물 하민 밥 익다 영허고.(밥 설엇어. 물 적어 버리니까 밥 설었다 이렇게 하고. 또 물 많으면 밥 익다 이렇게 하고.)

107001 @ 밥 익언예.(밥 익었어요.)

107001 # 그거주 뭐.(그거지 뭐.)

107001 @ 다 먹은 다음에 밀에. 아까 우리 먹엇잖아마씨?(다 먹은 다음에 밀에. 아까 우리 먹엇잖아요?)

107001 # 누렁이.(누룽지.)

107001 @ 누렁이.(누룽지.)

107001 # 누렁이 해영게 밥 승능허영게 먹곡게.(누룽지해서 밥 승능해서 먹고.)

107001 @ 밥 송농행 먹고예. 밥 누렁인 어떻 행 만드는 거라?(밥 송농해서 먹고요. 밥 누렁지는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야?)

107001 # 그건이 나도 오늘 봤저.(그건 나도 오늘 봤어.)

107001 @ 하하하. 아니 그냥 밥할 때 만들어지는 거는.(하하하. 아니 그냥 밥할 때 만들어지는 거는.)

107001 # 밥할 때 멘들아진 건 누렁이엔 허는디.(밥할 때 만들어진 건 누렁지라고 하는데.)

107001 @ 누렁이가 밥 넣어, 솟디 넣어.(누렁지가 밥 넣어, 솥에 넣어.)

107001 # 솟디게 물이나 죽게 되면 밥이 눌주게.(솥에 물이 작게 되면 밥이 눌지.)

107001 @ 응. 아까 그건 후라이팬에 영 현 건가?(응. 아까 그건 프라이팬에 이렇게 한 건가?)

107001 # 그건이 어제 밥을 허단 나도 어제 간 보낸 식은 밥이 남아서라게. 남으난 어제 식은 밥을 먹켄흐곤데 그지게 밥을 줄바로 잘 안 쥬 거.(그건 어제 밥을 하다가 나도 어제 가서 보니까 식은 밥이 남았더라. 남으니까 어제 식은 밥을 먹졌다고 하길래 그제 밥을 제대로 잘 안 된 거.)

107001 @ 응.(응.)

107001 # 경허난 줄바로 안쥬 거. 경허난 이제 에~ 이 밥을 먹지 말앙 더운밥을 헤영 먹젠 허연 더운밥 행 먹고 그 밥은 놔뒀서이.(그러니까 제대로 안된 거. 그러니까 이제 에~ 이 밥을 먹지 말고 더운밥을 해서 먹자고 해서 더운밥 해서 먹고 그 밥은 놔뒀어.)

107001 @ 응.(응.)

107001 # 경헛단 오늘은 이젠 이걸로 이제랑 누렁이 멘들앙 물덜 허영 먹으렌 경 곤단. 그디 우리 스춘 아주망이라, 그거 멘든 사름.(그랬다가 오늘은 이젠 이걸로 이제랑 누렁지 만들어서 물들 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거기 우리 사춘 아주머니야, 그거 만든 사람.)

107001 @ 응.(응.)

107001 # 경허난 그 지네 집 이제 그 누렁이밥 헤영 밥 헤영 누르땡 경 멘드는 게 잇젠.(그러니까 그 자기네 집 이제 누렁지밥 해서 밥 해서 눌러서 그렇게 만드는 게 있대.)

107001 @ 응.(응.)

107001 # 쥬 그거 앓다단에 거 멘든 거, 멘들앗어.(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거 만든 거, 만들었어.)

107001 @ 아, 기계가 잇구나게. 어쩐지.(아, 기계가 있구나. 어쩐지.)

107001 # 오게, 짓도 기계 이서라게.(응, 그것도 기계가 있더라.)

107001 @ 너무 맛있더라.(너무 맛있더라.)

107001 # 밥, 식은밥을 헤 가지고 거기 놔 가지고이 이제 누르뜨난 경 뒀헛젠.

(밥, 찬밥을 해 가지고 거기 놔 가지고 이제 누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107001 @ 거난 난 후라이팬에 해신가 해신디 어쩐지.(그러니까 난 프라이팬에 했나 했는데 어쩐지.)

107001 # 후라이팬 닳은 거.(프라이팬 같은 거.)

107001 @ 응.(응.)

107001 # 경허단 이젠 먼저 해단 혼 판 우리 갈란 먹언. 맛종덴 허민 허켄헨 간 거, 또 헌 거라.(그러다가 이젠 먼저 해다가 한 판 우리 갈라서 먹었어. 맛있다고 하면 하겠다고 해서 간 거, 또 한 거야.)

107001 @ 막 밥 하영 먹는 아이보고 뭐렌 험니까?(막 밥 많이 먹는 아이보고 뭐라고 합니까?)

107001 # 무신거엔 허여, 처먹엄젠 허주.(뭐라고 해, 처먹는다고 하지.)

107001 @ 밥푸대기, 밥보.(밥푸대, 밥보.)

107001 # 아니, 경 안 곺아.(아니, 그렇게 안 말해.)

107001 @ 경 안 곺아.(그렇게 안 말해.)

107001 # 몰라, 늑덜은 경 곺암신디 것도 나쁜 말이지.(몰라, 남들은 그렇게 말 하는지 것도 나쁜 말이지.)

107001 @ 거니까 나쁜 말 놀리는 걸로.(그러니까 나쁜 말로 놀리는 걸로.)

107001 # 경 안 근다게, 우린.(그렇게 안 말한다, 우린.)

107001 @ 밥예 저 식은밥, 찬밥?(밥요 저 ‘식은밥’, 찬밥?)

107001 # 식은밥이엔만 허여 이디서. 찬밥은 육지 사람이 많이 허지.(‘식은밥’이라고만 해 여기서. 찬밥은 육지 사람이 많이 하지.)

107001 @ 곧 헌 밥은 뭐엔 곺아?(곧 한 밥은 뭐라고 말해?)

107001 # 더운밥.(더운밥.)

107001 @ 더운밥.(더운밥.)

107001 # 또 밥 식은 거라 식은밥. 그거여.(또 밥 식은 것보고 식은밥. 그거야.)

107001 @ 식은밥.(식은밥.)

107001 # 그 찬밥이엔 허는 것도 육지 사름덜이 많이 씨주.(그 찬밥이라고 하는 것도 육지 사람들이 많이 쓰지.)

107011 @ 옛날 해벤드레는 밥에 툇이나 뭐 꽤나 이런 거 낱근에도 먹어났젠 헨 게마는?(옛날 해변에는 밥에 툇이나 뭐 꽤나 이런 거 놔서 먹었다고 하던데마는?)

107011 # 아이고, 그건이 옛날에 그것이 멧 년도산디 헛순 몰르켜마는.(아이고, 그건 옛날 그것도 몇 년도인지 헛수는 모르겠다마는.)

107011 @ 응.(응.)

107011 # 이 제주도예 승년이 저서이.(제주도에 흥년이 졌어.)

107011 @ 응.(응.)

107011 # 비가 그냥 이 조 비어갈 때 많이 오라 가지고.(비가 그냥 이 조 베어

갈 때 많이 와 가지고.)

107011 @ 응.(응.)

107011 # 조고 이 모든 곡식이 안 돼어서게.(조고 이 모든 곡식이 안 되었어.)

107011 @ 응.(응.)

107011 # 안 돼니까 이젠 해변가에서는 그 바다에 가 가지고 패가 이서.(안 되니까 이제 해변가에서는 그 바다에 가 가지고 패가 있어.)

107011 @ 응.(응.)

107011 # 허고 또 툄.(하고 또 툄.)

107011 @ 툄.(툄.)

107011 # 툄 요새엔 비싸지 안허느냐게?(툄 요새엔 비싸지 않냐?)

107011 @ 완전 비싸.(완전 비싸.)

107011 # 허영 먹도 못허게 허고.(해서 먹지도 못하게 하고.)

107011 @ 응.(응.)

107011 # 건디 그때는 툄은 이녁 자유라, 바당에만 갖다허면. 겨니까 그걸 비어 단에 삶아 가지고 쫄이 죽으난이 서꺼서 밥을 해서게.(그런데 그때는 툄은 자기 자유야, 바다에만 갖다 하면. 그러니까 그걸 베어다가 삶아 가지고 쫄이 적으니까 섞어서 밥을 했어.)

107011 @ 아.(아.)

107011 # 경험 이제 툄밥이여 패밥이여 경험난 거.(그래서 이제 툄밥이다 패밥이다 그렇게 했던 거.)

107011 @ 툄밥이여, 패밥이여 험 게 이서난 거?(툄밥이다, 패밥이다 한 게 있었던 거?)

107011 # 그 해베끼 안 먹언. 그 승년 진 때.(그 해밖에 안 먹었어. 그 흥년 진 때.)

107011 @ 아, 파래도 낵 먹는가?(아, 파래도 놓고 먹나?)

107011 # 파래도 낵 먹엇젠 해.(파래도 놔서 먹었다고 해.)

107011 @ 프래, 파래?('프래', 파래?)

107011 # 응, 프래밥.(응, '프래'밥.)

107011 @ 할머니 먹어보진 안허고, 그런 말은 들어보고?(할머니는 먹어보진 안고, 그런 말은 들어보고?)

107011 # 들어보고 우리도 툄 조금 낵 먹어난.(들어보고 우리도 툄 조금 놓고 먹었었어.)

107011 @ 아, 툄밥은 먹어보고.(아, 툄밥은 먹어보고.)

107011 # 그해에, 그해에.(그해에, 그해에.)

107011 @ 그해에만.(그해에만.)

107011 # 우리 하르방¹¹⁴⁾은 안 먹어. 건디 우리 하르방 먹지도 안 해낵젠 어제

114) 여기서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가리키는 것이다.

도 그 말 골안.(우리 할아버지는 안 먹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먹지도 안 했었다고 어제 그 말 했어.)

107011 @ 하하하.(하하하.)

107011 # 이 날새가 우쳐 가면, 비 많이 온 때.(이 날씨가 나빠져 가면, 비 많이 온 때.)

107011 @ 응.(응.)

107011 # 올리 지금 미짱이 막 못 탐세계. 경혜부난 아이고 흔해도 송년에 그 비가 많이 완 경혜난디 경덜 골으멍 할망덜 앓안.(올해 지금 끝이 막 못 따고 있어. 그렇게 해 버리니까 아이고 한해도 흥년에 그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들 말하면서 할머니들 앓아서.)

107011 @ 아.(아.)

107011 # 경 골안 우리. 경헨 그때 조가 안 뒤연에 이제 툄밥 먹엄저, 뉘 밀주 시 먹엄저 경혜난.(그렇게 말했어 우리. 그렇게 해서 그때 조가 안 되어서 이제 툄밥 먹었다, 뉘 밀기울 먹었다 그렇게 했었어.)

107001 @ 응. 얻어먹는 밥은 뉘엔 골읍니까?(응. 얻어먹는 밥은 뉘라고 말합니까?)

107001 # 얻어먹는 것사게.(얻어먹는 거야.)

107001 @ 공밥?(공밥?)

107001 # 곤밥?(‘곤밥’?)

107001 @ 공, 공, 공짜로 먹는 밥.(공, 공, 공짜로 먹는 밥.)

107001 # 아, 그것사 얻어먹는 거엔 곤주 무신거엔 골아. 제줏말이사.(아, 그거야 얻어먹는 거라고 말하지 뉘라고 말해. 제줏말이야.)

107001 @ 밥방울은 뉘엔 골아?(밥알은 뉘라고 말해?)

107001 # 밥티?(‘밥티’?)

107001 @ 밥티.(‘밥티’.)

107001 # 밥티 좇어볼라 영 허주.(‘밥티’ 주워버려라 이렇게 하지.)

107001 @ 수가락. 밥 떠먹는 밥수가락, 밥술?(손가락. 밥 떠먹는 밥술가락, 밥술?)

107001 # 밥술이엔도 허고 밥수가락이엔도 허고.(밥술이라고도 하고 밥술가락이라고도 하고.)

107001 @ 할머니가 뉘엔 골아납디가?(할머니는 뉘라고 말했었습니까?)

107001 # 우리 밥수가락이엔만.(우리 밥 술가락이라고만.)

107001 @ 그냥 밥수가락이엔 허지예, 할머니 골아난 말만.(그냥 밥술가락이라고 하지요, 할머니 말했던 말만.)

107001 # 응. 밥수가락게.(응. 밥술가락.)

107001 @ 그냥 밥수가락. 옛날에 골아난 말예.(그냥 밥술가락. 옛날에 말했던 말요.)

107001 # 밥수가락, 밥허는 일, 밥티 좇어볼라 경.(밥숟가락, 밥하는 일, 밥알 주워버려라 그렇게.)

107001 @ 음식, 밥허단 케우민 막 냄새납니께. 거 무슨 내렌 곶아?(음식, 밥하다가 타면 막 냄새나잖아요. 거 무슨 냄새라고 말해?)

107001 # 응, 칸에게 막 그큰내.(응, 타서 막 ‘그큰내’.)

107001 @ 그큰내.(‘그큰내’.)

107001 # 그큰내 납저, 영.(탄내 난다, 이렇게.)

107001 @ 늦다, 이르다 이런 말 이수게. 밥 먹젠 허민 아직 일럿저, 영 현다거나, 저녁 먹기엔 아직.(늦다, 이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밥 먹으려고 하면 아직 일렀다, 이렇게 한다거나, 저녁 먹기엔 아직.)

107001 # 응. 일럿젠 허주게. 건 그 말.(응. 일렀다고 하지. 건 그 말.)

107001 @ 그냥 그 말예. 늦다도 그냥 늦엇저.(그냥 그 말요. 늦다도 그냥 늦었다.)

107001 # 응, 늦엇저. 저녁 늦엇저, 조반 늦엇저. 이제 일럿저 그거. 그건 그쁜 말.(응, 늦었다. 저녁 늦었다, 조반 늦었다. 이제 일렀다 그거. 그건 같은 말.)

107013 @ 국은 어떤 국, 어떤 국 행 먹어납디가?(국은 어떤 국, 어떤 국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13 # 어떤 국, 장국이 주로주게.(어떤 국, 된장국이 주로지.)

107013 @ 장국, 장국은 어떻 끌려?(된장국, 된장국은 어떻게 끓여?)

107013 # 어떻 끌려? 장 낱 저 물 꿩와, 장 낱 께와가당 누물 낱 끌리민.(어떻게 끓여? 된장 놔서 저 물 끓여, 된장 놔서 끓여가다가 나물 놓고 끓이면.)

107013 @ 아, 그냥 맹물에 장부떠 놔?(아, 그냥 맹물에 된장부터 놔?)

107013 # 응. 장부떠 낱.(응. 장부터 놔서.)

107013 @ 끌렁 놓는 게 아니고?(끓여서 놓는 게 아니고?)

107013 # 끌렁 놔도 돼고 현디 미릿 낱 끌려야 국이 맛있어.(끓여서 놔도 되고 한데 미리 놓고 끓여야 국이 맛있어.)

107013 @ 아, 미릿 낱, 장을 미릿 낱 풀영.(아, 미리 놔서, 된장을 미리 놓고 풀어서.)

107013 # 응. 꿩와사.(응, 끓여야.)

107013 @ 꿩와.(끓여서.)

107013 # 꿩와 송길 놔야.(끓여서 푸성귀를 놔야.)

107017 @ 송길 놔야. 여기 그때 겨울에 콩국 많이 먹어넛텐 헛잖아예 콩꼭, 콩국?(푸성귀를 놔야. 여기 그때 겨울에 콩국 많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콩꼭, 콩국?)

107017 # 응, 콩국.(응, 콩국.)

107017 @ 콩국은 어떻 끌려?(콩국은 어떻게 끓여?)

107017 # 콩국도 저 것도.(콩국도 저 그것도.)

107017 @ 난 거 맛 좋게 못 끌렁예, 맨날예. 부꺼불영.(난 거 맛 좋게 못 끓여서

요, 맨날요. 넘쳐버려서.)

107017 # 거난이 두께 열앙 끌려.(그러니까 뚜껑 열어서 끓여.)

107017 @ 두께 열앙 끌려.(뚜껑 열어서 끓여.)

107017 # 흐쉴 더갓당은 부꺼 불주게.(조금 덮었다가 넘쳐버리지.)

107017 @ 부꺼 불어. 것도 순서대로 돌아줍서. 집이 강 맛종게.(넘쳐 버려. 그것도 순서대로 말해주세요. 집에 가서 맛있게.)

107017 # 겨난이 우린 또 콩국이 누물 놔서 콩ㄱ를 허트면은 잘 안 익영.(그러니까 우린 또 콩국이 나물 놔서 콩가를 섞으면 잘 안 익어서.)

107017 @ 응.(응.)

107017 # 콩이 기름기 한 거라부난에 맛종지 안허주게.(콩이 기름기 많은 거라서 맛있지 않지.)

107017 @ 응.(응.)

107017 # 경허난 난 콩국 끌리는 거 물 췌와 가지고 콩ㄱ를 놔서 것영.(그러니까 난 콩국 끓이는 거 물 끓여 가지고 콩가루 놔서 저어서.)

107017 @ 응.(응.)

107017 # 저서근에 이젠 흐 불 췌 다음에 누물을 놔.(저어서 이젠 한 벌 끓은 다음에 나물을 놔.)

107017 @ 응.(응.)

107017 # 경헙 끌려도 두부ㄱ찌 두박두박 잘뒤영이.(그렇게 해서 끓여도 두부처럼 '두박두박' 잘 되어.)

107017 @ 응.(응.)

107017 # 경허는디 어떤 사람은 누물이영 다 논 다음에 콩ㄱ를 허꺼.(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나물이랑 다 놓은 다음에 콩가를 섞어.)

107017 @ 췌 나중예?(제일 나중예?)

107017 # 응. 콩ㄱ를 췌 내중예 헨 놔도 뒤어렌.(응. 콩가를 제일 나중예 해서 놔도 되더래.)

107017 @ 아.(아.)

107017 # 경 곶아라.(그렇게 말하더라.)

107017 @ 콩ㄱ루는 물에 강 놓는 거라? 아니면 콩ㄱ루.(콩가루는 물에 타서 놓는 거야? 아니면 콩가루.)

107017 # 우린 그냥 ㄱ루차 놔.(우린 그냥 가루째 놔.)

107017 @ ㄱ루차 놔. 응.(가루째 놔. 응.)

107017 # 경허는디 서툰 사람은 콩ㄱ를 물 카.(그러는데 서툰 사람은 콩가루 물 타.)

107017 @ 아.(아.)

107017 # 물을 카 가지고 그냥 놓당은 병뎡이가 지어이.(물에 타 가지고 그냥 놓다가는 덩어리 저.)

107017 @ 응.(응.)

107017 # 우리ㄴ치 낳은 서툰 사람은. 경허는디 사발이나 무신 흐쫄 큰 그릇에 다다.(우리처럼 놔서는 서툰 사람은. 그러는데 사발이나 무슨 조금 큰 그릇에다다.)

107017 @ 예.(예.)

107017 # 콩ㄴ를 이제 수저로 물을 카. 경행 물 꿰여가건 이제 그걸 놔.(콩가를 이제 수저로 물을 타. 그래서 물 꿰어가면 이제 그걸 놔.)

107017 @ 응.(응.)

107017 # 놓아서 꿰우면은 좋아.(놓아서 꿰이면 좋아.)

107017 @ 근데 원래는 가루채 놓는 거구나예.(근데 원래는 가루째 놓는 거군요.)

107017 # 응, 우린 ㄴ루차 낳 끌려.(응, 우린 가루째 놔서 꿰여.)

107017 @ 아. 그거를 못허크라마씨.(아, 그거를 못하겠어요.)

107017 # 못 헤여?(못 해?)

107017 @ 응. 맨날 물에 카근에, 그릇에 카근에 놓당 보민 병뎡이가 안 정 다 헤싸져 불어.(응. 맨날 물에 타서, 그릇에 타서 놓다 보민 덩어리가 안 지고 다 흩어져 버려.)

107017 # 아니 경해도 병뎡이 지주게.(아니 그래도 덩어리지지.)

107017 @ 맛있게 안 돼. 옛날에 어머니가 해줘난 그거를 못허크라.(맛있게 안 돼. 옛날에 어머니가 해줬던 그거를 못하겠어.)

107017 # 아, 경허난이. 경허건. 뭐라, 아 저 널 건강검진.(아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아 저 널 건강검진.)

107017 @ 널 아홉시 삼십분부터 건강검진.(널 아홉 시 삼십 분부터 건강검진.)

107017 # 견디 나는 해당 안 돼여.(그런데 나는 해당 안 돼.)

107017 @ 어떤 사람만 해당돼?(어떤 사람만 해당돼?)

107017 # 짝수만, 저 홀수만 허렌.(짝수만, 저 홀수만 하래.)

107017 @ 홀수만.(홀수만.)

107017 # 나는 이제 새해는 짝수주게.(나는 이제 새해는 짝수지.)

107022 @ 옛날엔 냉국도 하영 헤 먹엇주예, 냉국은 어떻게 한 거야?(옛날엔 냉국도 많이 해서 먹엇었지요, 냉국은 어떻게 한 거야?)

107022 # 냉국도 그거 마찬가지로. 장 놓양 메역 놓양 허는 사람, 이제 오이 썰어 근앵이 장에 이제 허는 사람.(냉국도 그거 마찬가지로. 된장 놓고 미역 놓고 하는 사람, 이제 오이 썰어서 된장에 이제 하는 사람.)

107022 @ 옛날엔 무신거 낳 하영 행 먹어났수과?(옛날엔 무엇 놓고 많이 해서 먹엇었습니까?)

107022 # 초 쫄끔 농곡.(식초 조금 놓고.)

107022 @ 초 쫄끔 농곡 행.(식초 조금 놓고 해서.)

107022 # 냉국.(냉국.)

107022 @ 초 쪼끔 논 국은 좃국이렌 따로 안 불르고?(식초 조금 놓은 국은 좃국이라고 따로 안 부르고?)

107022 # 아니, 안 불려.(아니, 안 불려.)

107022 @ 그냥 냉국.(그냥 냉국.)

107022 # 냉국. 냉국에 초 이제 쪼끔 놓민 좋아. 많이 놓지 말앙.(냉국. 냉국에 식초 이제 조금 놓으면 좋아. 많이 놓지 말고.)

107022 @ 응.(응.)

107022 # 메역 빨앙 냉국도 허곡 오이 썰영 냉국도 허고.(미역 빨아서 냉국도 하고 오이 썰어서 냉국도 하고.)

107022 @ 이디션 무신거 하영 해납디가?(여기서는 무엇 많이 했었습니까?)

107022 #우리도 경행 먹지게. 냉국 먹구정 허민, 막 더운 땀 냉국 먹고 싶으면은 이제 그추룩 해영 오이 썰어 놓곡.(우리도 그렇게 먹지. 냉국도 먹고 싶으면, 막 더운 땀 냉국 먹고 싶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오이 썰어 놓고.)

107022 @ 아, 느물도 삶앙 놓는 사름도.(아, 나물도 삶아서 놓는 사름도.)

107022 # 느물도 좋주게. 느물 좋아.(나물도 좋지. 나물 좋아.)

107022 @ 예, 느물도 삶앙 냉국 행 먹고.(예, 나물도 삶아서 냉국 해서 먹고.)

107022 # 느물냉국 해영 먹는 사름은 느물냉국. 느물 삶아 가지고.(나물냉국 해서 먹는 사름은 나물냉국. 나물 삶아 가지고.)

107022 @ 예 거난. 그 느물이여, 오이여 미역은 그냥 건더기, 건더기?(예 그러니까. 그 나물이다, 오이다 미역은 그냥 건더기, 건더기?)

107022 # 응, 건더기게. 건지.(응. 건더기. 건지.)

107022 @ 건지.(건지.)

107022 # 응, 건지 죽다, 건지 하다.(응. 건지 적다, 건지 많다.)

107022 @ 건지 말고 그냥 국물은, 물은?(건지 말고 그냥 국물은, 물은?)

107022 # 국물이엔 허주.(국물이라고 하지.)

죽류

107024 @ 밥 말고 죽도 이수게.(밥 말고 죽도 있잖아요?)

107024 # 응.(응.)

107024 @ 죽은 옛날에 무신 죽, 무신 죽 먹어났수과?(죽은 옛날에 무슨 죽, 무슨 죽 먹었었습니까?)

107028 # 죽은게, 옛날은 주로 이 웃드르선 콩죽.(죽은, 옛날은 주로 이 '웃드르' 서는 콩죽.)

107028 @ 콩죽.(콩죽.)

107028 # 경허고 또 이제 첨 죽도 게 먹구정 허민 꿩죽도 썰 먹고.(그리고 또 이제참 죽도 게 먹고 싶으면 깨죽도 쭈어서 먹고.)

107028 @ 꿩죽, 또.(깨죽, 또.)

107028 # 콩죽도 썰 먹고.(콩죽도 썰어서 먹고.)
107028 @ 콩죽도 썰 먹고.(콩죽도 썰어서 먹고.)
107027 # 팥죽도 썰 먹고.(팥죽도 썰어서 먹고.)
107027 @ 팥죽도 썰 먹고.(팥죽도 썰어서 먹고.)
107027 # 경허주게.(그렇게 하지.)
107025 @ 그냥 아무것도 안 논 건?(그냥 아무것도 안 놓은 건?)
107025 # 흰죽.(흰죽.)
107025 @ 흰죽.(흰죽.)
107025 # 쌀만 낱 쏘 거.(쌀만 놓고 쏘 거.)
107025 @ 쌀만 낱 헨 거예.(쌀만 놓고 한 거요.)
107025 # 흰죽.(흰죽.)
107025 @ 감기 걸리젠 허믄 무사 파 뿌리 놔근에 그건 무신 거파?(감기 걸리려
고 하면 왜 파 뿌리 놓고 그건 무엇입니까?)
107025 # 거 그냥 흰죽에 저 파 낱. 짓도 소금 낱 먹어사 맛좋아.(그거 그냥 흰
죽에 저 파 놔서. 그것도 소금 놔서 먹어야 맛있어.)
107025 @ 무신 죽이엔 곤는 건 엇어?(무슨 죽이라고 말하는 건 엇어?)
107025 # 흰죽, 흰죽.(흰죽, 흰죽.)
107025 @ 그냥 흰죽.(그냥 흰죽.)
107025 # 응.(응.)
107032 @ 저 뭐파? 승키들 낱 끓이는 죽은 엇수과?(저 뭇니까? 푸성귀들 놓고
끓이는 죽은 없습니까?)
107032 # 무사게? 콩죽에도 승키 놓곡.(왜? 콩죽에도 푸성귀 놓고.)
107032 @ 콩죽에도 승키 놓고.(콩죽에도 푸성귀 놓고.)
107032 # 팥죽에 아이 놔.(팥죽에 안 놔.)
107032 @ 팥죽에 안 놓고.(팥죽에 안 놓고.)
107032 # 꿩죽에도 안 놓곡.(깨죽에도 안 놓고.)
107032 @ 깨죽에도 안 놓고.(깨죽에도 안 놓고.)
107032 # 콩죽에만 이제 승키 놓고.(콩죽에만 이제 푸성귀 놓고.)
107032 @ 승키만 막 하영 낱 끓인 죽은 엇어?(푸성귀만 아주 많이 놓고 끓인
죽은 엇어?)
107032 # 엇어, 국베끼.(없어, 국밥에.)
107030 @ 녹두 논 건?(녹두 놓은 건?)
107030 # 녹두죽도 썰.(녹두죽도 썰.)
107030 @ 녹두죽도 썰예.(녹두죽도 썰요.)
107030 # 녹두죽도 세여.(녹두죽도 '세여'.)
107030 @ 녹두죽도 뭇 허여? 세여?(녹두죽도 뭇해? '세여?')
107030 # 셤다고, 녹두죽은 쑤젠허민 녹두가 잘, 어롭주게.(셤다고, 녹두죽은 쑤

려고 하면 녹두가 잘, 어렵지.)

107030 @ 예.(예.)

107030 # 녹두도 가는 세계는 것도 주로 가는데 벨로 안 갈아.(녹두도 가는 세계는 그것도 주로 가는데 벨로 안 갈아.)

107030 @ 응.(응.)

107031 # 그거 득죽에 놓민 종넨 헤라.(그거 닭죽에 놓으면 좋다고 하더라.)

107031 @ 예, 뭐 먹으러 가면 닭집에서 그렇게 놔줘.(예, 뭐 먹으러 가면 닭집에서 그렇게 놔줘.)

107031 # 녹디?(녹두?)

107031 @ 응, 녹디 놔근에.(응, 녹두 놔서.)

107031 # 경허영 먹넨.(그렇게 해서 먹는데.)

범벅과 수제비

107035 @ 밥 말고 국수나 칼국수나 이런 거.(밥 말고 국수나 칼국수나 이런 거.)

107035 # 칼국수.(칼국수.)

107035 @ 수제비나.(수제비나.)

107035 # 수제비, 즈베기, 즈베기.(수제비, ‘즈베기, 즈베기’.)

107035 @ 여긴 즈베기.(여긴 ‘즈베기’.)

107035 # 즈베기 헤영 먹곡. 범벅도 행 먹고.(수제비 해서 먹고. 범벅도 해서 먹고.)

김치

107037 @ 김치는 지금도 담감수과?(김치는 지금도 담굽니까?)

107037 # 아니, 저 아이덜이 담아당 주주마는 나 먹구정 허민게 집이서.(아니, 저 아이들이 담아다가 주지마는 나 먹고 싶으면 집에서.)

107037 @ 뭘로 담아?(뭘로 담가?)

107037 # 녹물게, 녹물 갈양.(나물, 나물 갈아서.)

107037 @ 무신 짐치 이수과?(무슨 김치 있습니까?)

107037 # 늣뻬짐치도 싣고, 베치 짐치도 싣고.(무 김치 있고, 배추 김치 있고.)

107037 @ 또?(또?)

107037 # 뭐 그거주 무시거. 거 짐치.(뭐 그거지 무엇. 그것 김치.)

107039 @ 열무는?(열무는?)

107039 # 열무 ㄱ뜰 건이.(열무 같은 건.)

107039 @ 츠마기?(‘츠마기’?)

107039 # 츠마기 짐치, 여름에. 츠마기 짐치도 지금 총각짐치엔 헤영 먹으민 맛 좋주마는.(‘츠마기’ 김치, 여름에. ‘츠마기’ 김치도 지금 총각김치라고 해서 먹으면

맛있지마는.)

107039 @ 츠마기 김치하고 열무김치, 아니 총각김치가 똑ㄴ쁜 거?('츠마기' 김치하고 열무김치, 아니 총각김치가 똑같은 거?)

107039 # 응, ㄴ쁜 거, ㄴ쁜 거.(응, 같은 거, 같은 거.)

107039 @ 열무김치는?(열무김치는?)

107039 # ㄴ쁜 거라.(같은 거야.)

107039 @ 흐뎡 무수가 더 익어?(조금 무가 더 익어?)

107039 # 응, 무수 이제 열무김치는 열무엔 현 무수가 잇고.(응, 무 이제 열무김치는 열무라고 한 무가 잇고.)

107039 @ 아.(아.)

107039 # 그냥 총각김치 이제 무수 준 때 허는 것ㄴ라 총각김치엔 허고. 경험주게.(그냥 총각김치 이제 무 작은 때 하는 것 보고 총각김치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107039 @ 품종이 ㄲ난 거?(품종이 다른 거?)

107039 # 그 열무가 잇주게, 열무. 여름에, 열무.(그 열무가 있지, 열무. 여름에, 열무.)

107039 @ 응. 위에 거 승키만 먹고, 이파리만 먹고.(응. 위에 거 푸성귀만 먹고, 이파리만 먹고.)

107039 # 응, 아니 열무는 무수 먹는 건디 건 여름에, 봄 무수, 그건.(응, 아니 열무는 무 먹는 건데 그건 여름에, 봄 무, 그건.)

107039 @ 봄 무수.(봄 무.)

107039 # 열무.(열무.)

107039 @ 열무.(열무.)

107039 # 여름에 안 ㄲ여, 그거.(여름에 안 돼, 그거.)

107039 @ 응.(응.)

107039 # 경허고 이제 총각김치는 무수가 막 크지 안 현 때 뽑아 가지고 허는 건 총각김치.(그리고 이제 총각김치는 무가 막 크지 않을 때 뽑아 가지고 하는 건 총각김치.)

107039 @ 다 안 여물 때 허난 총각이구나.(다 안 여물 때 하니까 총각이구나.)

107039 # 응, 겨고게 썬 흐뎡 부썬근험에 허민 막 맛있지게, 그것도.(응, 그리고 앞 조금 붙여서 하면 막 맛있지, 그것도.)

107039 @ 거난 츠마기김치 어떤 거라?(그러니까 '츠마기' 김치 어떤 거야?)

107039 # 그게 그거게. 츠마기 김치가 총각김치.(그게 그거. '츠마기' 김치가 총각김치.)

107039 @ 열무김치를 총각?(열무김치를 총각?)

107039 # 아니, 열무김치는 ㄲ난 거.(아니, 열무김치는 다른 거.)

107039 @ 총각김치를 츠마기김치?(총각김치를 '츠마기'김치?)

107039 # 응.(응.)

107039 @ 거꾸로 알고 잇었네. 열무는 그른 다른 말이 엇구나.(거꾸로 알고 잇었네. 열무는 그러면 다른 말이 없구나.)

107039 # 으, 열무김치 저 여름에 허는 거여게, 여름에.(으, 열무김치 저 여름에 하는 거야, 여름에.)

107040 @ 여름에. 물 하영 놔근에 허는 물김치?(여름에. 물 많이 놔서 하는 물김치?)

107040 # 물김치.(물김치.)

107040 @ 것도 헤 낫수과, 옛날에?(그것도 했었습니까, 옛날에?)

107040 # 허주게. 이제도 헝 먹주게. 무수 썰영.(하지. 이제도 해서 먹지. 무 썰어서.)

107040 @ 거난 거 이제사 난 거 아니고 옛날도 헤난?(그러니까 그거 이제야 난 거 아니고 옛날에도 했었어?)

107040 # 옛날도 셔, 물김치.(옛날도 있어, 물김치.)

107042 @ 늣뻘 무수 그냥 다 쓰지예?('늣뻘', '무수' 그냥 다 쓰지요?)

107042 # 응.(응.)

107042 @ 늣뻘렌도 허고 무수렌도 허고.(‘늣뻘’라고도 하고 ‘무수’라고도 하고.)

107042 # 늣뻘엔도 허고 무수엔도 허고. 겐디 늣뻘엔 허난 잘 몰르더라고.(‘늣뻘’라고도 하고 ‘무수’라고도 하고. 그런데 ‘늣뻘’라고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

107042 @ 하하하.(하하하.)

107042 # 무수엔 헤사 통일이라.(‘무수’라고 해야 통일이야.)

107042 @ 거난 우리는 깍두기 이렇게 허는디 옛날에는?(그러니까 우리는 깍두기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107042 # 깍두기도 무수 썰어근영에 허는 거.(깍두기도 무 썰어서 하는 거.)

107042 @ 거난 그거 이젠 깍두기엔 곤는디 옛날은 다른 거.(그러니까 그거 이젠 깍두기라고 말하는데 옛날은 다른 거.)

107042 # 옛날도 깍두기. 건 즘질게 썰영 헛 것ㄴ라 깍두기라.(옛날도 깍두기. 그건 가늘게 썰어서 한 것보고 깍두기라.)

107042 @ 게민 크게 헛 건?(그러면 크게 한 건?)

107042 # 크게 헛 건 무수김치.(크게 한 건 무김치.)

107042 @ 건 무수김치고.(그건 무김치고.)

107042 # 응, 깍두기 즘지롱허게 썰어근에 무수 깍두기 허민 맛좋아.(응, 깍두기는 가느다랗게 썰어서 무 깍두기 하면 맛있어.)

107042 @ 나박김치는 어떤 거?(나박김치는 어떤 거?)

107042 # 그것도 그거. 무수김치영 ㄴ쁜 거 나박김치.(그것도 그거. 무김치랑 같은 거 나박김치.)

107042 @ 모양이 흐뵂 틀려?(모양이 조금 달라?)

107042 # 틀리멍 말멍. 너불너불 썰어 가지고 나박김치.(다르면서 말면서. ‘너불너불’ 썰어 가지고 나박김치.)

107045 @ 갓김치는?(갓김치는?)

107045 # 갓김치가 갓늬물로 흰 거.(갓김치는 ‘갓늬물’로 한 거.)

107045 @ 갓늬물김치.(갓김치.)

107045 # 갓늬물김치. 저 시지 안 해서민 앓다당 배우켜마는 갓늬물김치. 막 오랜 거 이서.(갓김치. 저 시지 앓았으면 가져다가 보이겠다마는 갓김치. 아주 오랜 거 있어.)

107045 @ 건 오래 돼도 맛좋드라예.(그건 오래 돼도 맛있던데요.)

107045 # 경해도 이제 시영.(그래도 이제 시어서.)

107045 @ 제주도도 갓늬물 하영 해낫수과?(제주도도 갓 많이 했었습니까?)

107045 # 잘 안해여.(잘 안해.)

107045 @ 이제사 허는 거지예?(이제야 하는 거지요?)

107045 # 저것도 아이덜 먹으렐 아저와도 나 안 먹영 이서. 갓늬물, 갓김치.(저것도 아이들 먹으라고 가져와도 나 안 먹어서 있어. 갓, 갓김치.)

107045 @ 옛날엔 많이 엇어낫어예?(옛날엔 많이 없었어요?)

107045 # 응, 안 같아, 이디 잘.(응, 안 같아. 여기 잘.)

107043 @ 파김치, 마농김치?(파김치, 마늘김치?)

107043 # 응. 파김치 허여. 쪽파, 쪽파.(응. 파김치 해. 쪽파, 쪽파.)

107043 @ 건 제춧말로.(그건 제춧말로.)

107043 # 쪽파, 패마농.(쪽파, ‘패마농’.)

107043 @ 패마농김치.(파김치.)

107043 # 쪽파ㄹ라 패마농. 패마농김치 헤영 먹고. 지시도 콥대사니, 콥대사니 헝 먹고.(쪽파보고 ‘패마농’. 파김치 해서 먹고. 장아찌도 마늘, 마늘 해서 먹고.)

장아찌와 회

107055 @ 콥대산이 지시 말고 또 무신 지시 험니까?(마늘 장아찌 말고 또 무슨 장아찌 합니까?)

107055 # 무신 지시 엇어. 그냥 생기리나 서경.(무슨 장아찌 없어. 그냥 무말랭이나 섞어서.)

107056 @ 마농지신?(마늘장아찌는?)

107056 # 게 그게 그거. 콥대산이.(게 그게 그거. 마늘.)

107056 @ 그게 콥대산이. 아니 무사 마농 우에 대도 허고 밋에 마농도 험니까?(그게 마늘. 아니 왜 마늘 위에 대도 하고 밑에 마늘도 하잖아요?)

107056 # 게난 마농은 건 뿌리.(그러니까 마늘은 그건 뿌리.)

107056 @ 뿌리 허는 건 이름 뭐라?(뿌리 하는 건 이름이 뭐야?)

107056 # 거 뿌리주, 마농 뿌리.(거 뿌리지, 마늘 뿌리.)

107056 @ 거난 그건 무신 지시?(그러니까 그건 무슨 장아찌?)
107056 # 그것도 지시, 깡 허영 먹구정 현 사름은 빨리 지시 행 먹고.(그것도 장아찌, 까서 해서 먹고 싶은 사람은 뿌리 장아찌 해서 먹고.)
107056 @ 응. 우에 거 대는?(응. 위에 거 대는?)
107056 # 우이 거 대영, 빨리영 어린 때 허는 건 마농지시라.(위에 거 대랑, 뿌리랑 어린 때 하는 건 마늘장아찌야.)
107056 @ 그건 마농지시렌 허고.(그건 마늘장아찌라고 하고.)
107056 # 짱아찌 엇샤게, 짱아찌.(장아찌 없니, 장아찌.)
107056 @ 콥대산이지신 어느 거라?('콥대산이' 장아찌는 어느 거야?)
107056 # 그거 그거. 마농지시가 그거.(그거 그거. '마농지시'가 그거.)
107056 @ 대로 허는 거?(대로 하는 거?)
107056 # 응.(응.)
107056 @ 빨리로 안 허고?(뿌리로 안 하고?)
107056 # 빨리영 서경계.(뿌리랑 섞어서.)
107056 @ 마농.(마늘.)
107056 # 어린 때.(어린 때.)
107056 @ 거난 어린 때 말고 큰 다음엔?(그러니까 어린 때 말고 큰 다음엔?)
107056 # 큰 다음엔 빨리만도 썰영 허여.(큰 다음엔 뿌리만도 썰어서 해.)
107056 @ 콥대산이.(마늘.)
107056 # 콥대산이 지신 마농 어린 때 빨리영 서경 현 것ㄴ라 마농지시고.(마늘 장아찌는 마늘 어릴 때 뿌리랑 섞어서 한 것보고 '마농지시'고.)
107056 @ 응.(응.)
107056 # 또 마농 빨리 깡 행 먹구정현 사름은 깡 행 먹고.(또 마늘 뿌리 까서 해서 먹고 싶은 사람은 까서 해서 먹고.)
107056 @ 그건 마농지시렌 안 해? 다 콥대사닌데 콥대사니 중에 빨리 지시 영 허는 거구나.(그건 '마농지시'라고 안 해? 다 '콥대사니'인데 '콥대사니' 중에 뿌리 장아찌 이렇게 하는 거구나.)
107056 # 경허는 거. 또로 짱아찌엔 허여근에 또 짱아찌 허는 마농 잇지 안허냐 게? 요새엔. 그 빨리만 허영.(그렇게 하는 거. 또 장아찌라고 해서 또 장아찌 하는 마늘 잇지 않니? 요새엔 그 뿌리만 해서.)
107056 @ 거난 그거.(그러니까 그거.)
107056 # 그거 맛있주게. 것도 옛날은 거 잘 안 해난디 요새엔 짱아찌 잘 먹어.(그거 맛있지. 그것도 옛날은 그거 잘 안 했었는데 요새엔 장아찌 잘 먹어.)
107056 @ 응. 옛날엔 그냥 콥대사니 마농만 그것만 헛지예?(응. 옛날엔 그냥 '콥대사니' 마늘만 그것만 헛지요?)
107056 # 그것만 해연.(그것만 했어.)
107056 @ 어린 때예?(어린 때요?)

107056 # 우리 두린 땀 그것만 해도이 원 변허도 안허고 맛이 좋아라.(우리 어
린 땀 그것만 해도 원 변하지도 않고 맛이 좋더라.)

107056 @ 건 뉘 뉘 뉘근에 허민 맛좋읍니까?(그건 뉘 뉘 뉘서 하면 맛있습니
까?)

107056 # 우린 그때 경 집이서 그냥 조선, 집이서 담은 간장만 난 헛주게. 경헤
도이 봄이 이제 허여서 팔월에 밧디 앳앙 가도 원 벤허질 안허여.(우린 그때 그렇게
집에서 그냥 조선, 집에서 담근 간장만 놓고 했지. 그래도 봄에 이제 해서 팔월에
밭에 가져 가도 원 변하지 않아.)

107056 @ 거난예.(그러니까요.)

107056 # 그것에 물 즙양 밥덜 잘 먹어. 경헤난.(그것에 물 말아서 밥들 잘 먹
어. 그렇게 했었어.)

107056 @ 맞아, 맛좋아.(맞아, 맛있어.)

107056 # 경헤난.(그렇게 했었어.)

장 담그기

107060 @ 간장이렌 험니까, 장물이렌 험니까?(간장이라고 함니까, ‘장물’이라고
함니까?)

107060 # 장물이엔도 허고 간장이엔도 허고.(‘장물’이라고도 하고 간장이라고도
하고.)

107061 @ 간장은 어떻 담가?(간장은 어떻게 담가?)

107061 # 간장은 콩 슻앙게 메주 허여근에게.(간장은 콩 삶아서 메주 해서.)

107061 @ 어떻 만들야?(어떻게 만들어?)

107061 # 메께라.(‘메께라’)

107061 @ 아니 콩 슻앙 어떻 헤야 텔 거 아니파?(아니 콩 삶아서 어떻게 헤야
될 거 아닙니까?)

107061 # 콩 슻앙 췌앙게.(콩 삶아서 빵아서.)

107061 @ 뭇로 췌아?(뭇로 빵아?)

107061 # 기계에 강 췌아.(기계에 가서 빵아.)

107061 @ 기계 말고 옛날에.(기계 말고 옛날에.)

107061 # 블라, 블루아.(밧아, 밧아.)

107061 @ 아 발로 블라.(발로 밧아?)

107061 # 블르나 마께, 마께 엇샤?(밧거나 방망이, 방망이 없니?)

107061 @ 뉘에 담앙, 찰리.(뉘에 담아서, 자루?)

107061 # 마께에 도고리에서도 췌고 경허단 이젠 또 못허민 찰리에 담앙 블루
아이.(방망이에 함지박에서도 빵고 그렇게 하다가 이젠 또 못하면 자루에 담아서 밧
아.)

107061 @ 찰리에 담앙 블라.(자루에 담아서 밧아.)

107061 # 불량 저영 메주 만들어 가지고 이젠 저디 낱 띄와.(뽀아서 저렇게 메주 만들어 가지고 이젠 저기 놓고 띄워.)

107061 @ 띄와. 어디 낱 띄와?(띄워, 어디 놓고 띄워?)

107061 # 그자 저디 돌아매여.(그냥 저기 달아매어.)

107061 @ 돌아매는 끈은 무신거엔 곱아?(달아매는 끈은 뭐라고 말해?)

107061 # 끈은이 무신 산뒤집으로 멘들양 돌아매사 맛있넨 해도 그때는이 끈이 엇다게.(끈은 무슨 발벼짚으로 만들어서 달아매어야 맛있다고 해도 그때는 끈이 없어.)

107061 @ 응.(응.)

107061 # 옛날 우린 두린 때는 끈이 엇어 가지고 산뒤집으로 헛거든.(옛날 우리 어린 때는 끈이 없어 가지고 발벼짚으로 했거든.)

107061 @ 짚으로.(짚으로.)

107061 # 응, 경헌디 이제 끈이 만헌디 뭇허레 그 산뒤집 티나게 허냐?(응, 그런데 이제 끈이 많은데 뭐하러 그 발벼짚 티나게 하니?)

107061 @ 하하하.(하하하.)

107061 # 산뒤집으로 헤사 맛있넨 그 말 그거 헛말.(발벼짚으로 해야 맛있다고 그 말 그거 헛말.)

107061 @ 헛말.(헛말.)

107061 # 나가 이때도록 친정어머니네 할머니네부터 장을 돛아이.(내가 이때까지 친정어머니네 할머니네부터 장을 담가.)

107061 @ 응.(응.)

107061 # 이제도 나 장 돛아.(이제도 내가 장 담가.)

107061 @ 응.(응.)

107061 # 그거 아이덜 오랑 이디 장 앓당 먹나게. 이제 메주도 돌아매엇저게.(그거 아이들 와서 여기 장 가져다가 먹어. 이제 메주도 달아매엇지.)

107061 @ 어디?(어디?)

107061 # 저디 헛간에.(저기 헛간에.)

107061 @ 돌아멧당?(달아맸다가?)

107061 # 돌아멧당 몰르민 이제 장 돛을 거여, 이제.(달아 맸다가 마르면 이제 장 담글 거야, 이제.)

107059 @ 언제쯤에 담급니까?(언제쯤에 담급니까?)

107059 # 이제 혼 열흘 싯당 장 돛글 거.(이제 한 열흘 있다가 장 담글 거.)

107059 @ 이때 해야 됩니까?(이때 해야 됩니까?)

107059 # 응.(응.)

107061 @ 담글 땐 어떻 험니까? 메주를 시쳐?(담글 땐 어떻게 합니까?)

107061 # 메주 ㄱ쿨이 시쳐두고 벳 날 때 물루와.(메주 깨끗이 씻어두고 벳 날 때 말려.)

107061 @ 어떻 시쳐, 뭘로?(어떻게 씻어, 뭘로?)
107061 # 수세미로 시쳐야주게.(수세미로 씻어야지.)
107061 @ 수세미로 막 시쳐, 그다음에 다시 또 물리와?(수세미로 막 씻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말려?)
107061 # 아니 물류나 그냥 물 빠주왕.(아니 말리거나 그냥 물 빼서.)
107061 @ 물 빠주왕.(물 빼서.)
107061 @ 경행?(그렇게 해서?)
107061 # 경행 이제 소금물 갈아.(그렇게 해서 이제 소금물 갈아.)
107061 @ 소금물 어떻게 갈아?(소금물 어떻게 갈아?)
107061 # 소금물이 저 흔 허벅에 관뒤편 세 개 놓민 뒤편.(소금물이 저 한 동이에 관뒤편 세 개 놓으면 돼.)
107061 @ 물 한 허벅에 관뒤편 세 개를 낵예.(물 한 동이에 관뒤편 세 개를 낵서요.)
107061 # 녹여 가지고 이젠.(녹여 가지고 이젠.)
107061 @ 녹여 가지고.(녹여 가지고.)
107061 # 소금물을 드끈 골라 앓저. 게도 이젠 소금이 고와부난 티가 엇어, 벨로.(소금물을 '드끈' 가라 앓혀. 그래도 이젠 소금이 고와서 티가 없어, 벨로.)
107061 @ 티 엇어.(티 없어.)
107061 # 옛날은 소금도 구져부난 티가 많아. 골라 앓인 아쟁이가 잇어.(옛날은 소금도 굵어서 티가 많아. 가라앓은 앙금이 잇어.)
107061 @ 응.(응.)
107061 # 젠디 이젠 겨 안 허여, 고와 소금이. 그거 헛다근앵이 이제 옥상에 담 앓주게.(그런데 이젠 그렇게 안 해, 고와 소금이. 그거 헛다가 이제 옥상에 담그지.)
107061 @ 항에? 장항이엔 골옵니까?(독에, 장독이라고 말합니까?)
107061 # 응, 항에.(응, 독에.)
107061 @ 장항에 메주 놓고, 뭘부터 낵?(장독에 메주 놓고, 뭘부터 낵?)
107061 # 소금물 골양 이젠 낵낵, 메주.(소금물 갈아서 이젠 낵두고, 메주.)
107061 @ 소금물 낵.(소금물 낵서.)
107061 # 메주 들이쳐.(메주 들여낵.)
107061 @ 메주를 들이쳐. 얼마만이 들이쳐?(메주를 들여낵. 얼마만큼 들여낵?)
107061 # 얼마 들이쳐? 그냥 소금물 골양 골라앓지만 들이치주게.(얼마 들여낵? 그냥 소금물 갈아서 가라앓으면 들여놓지.)
107061 @ 멧 개나 들이칩니까?(멧 개나 들여놓습니까?)
107061 # 이젠 하영 안허여. 전인이 콩을 너닷 말 허지. 막 아으덜이영 먹을 뎌.(이젠 많이 안해. 전에는 콩을 너닷 말 하지. 막 아이들이랑 먹을 뎌.)
107061 @ 너닷 말 행.(너닷 말 해서.)
107061 # 경허단 이젠 흔 흔 말 반 안 해서. 서 말 숲안에 이제 뜰네도 더러 아

져가고.(그러다가 이젠 한 한 말 반 안 했어. 서 말 삶아서 이제 딸네도 더러 가져가고.)

107061 @ 경혜근에 뱃 날 땀 열었당?(그렇게 해서 뱃 날 땀 열었다가?)

107061 # 장항 흐뭇 열아줘야.(장독 조금 열아줘야.)

107061 @ 이거 장항 뚜껑은 무신거엔 곱아?(이거 장독 뚜껑은 뭐라고 말해?)

107061 # 장항 뚜껑이주.(장독 뚜껑이지.)

107061 @ 그냥 장항 뚜껑.(그냥 장독 뚜껑.)

107061 # 응.(응.)

107061 @ 뚜껑을 열아근에 햇빛 마춧당 더갓당. 언제쯤에 간장을?(뚜껑을 열어서 햇빛 맞혔다가 덮었다가. 언제쯤에 간장을?)

107061 # 간장 흐 흐두 덜쭈 이시민 장물을 거러, 떠.(간장 한 한두 달쭈 있으면 간장을 떠, 떠.)

107061 @ 두 덜쭈 이시민 장물을 떠.(두 달쭈 있으면 간장을 떠.)

107061 # 응.(응.)

107061 @ 그게 간장, 장물이고.(그게 간장, 간장이고.)

107061 # 장물이고.(간장이고.)

107061 @ 그다음에.(그다음에.)

107061 # 된장은 이제 잘 허영 오가리, 다른 족은 오가리레 담양 소금 탁 더경 놔둬서 먹었지게.(된장은 이제 잘 해서 '오가리', 다른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소금 탁 덮어서 놔두면서 먹고 있지.)

107061 @ 오가리는 흐뭇 족은 항?(‘오가리’는 조금 작은 항아리?)

107061 # 족은 거, 족은 항.(작은 거, 작은 항아리.)

107061 @ 오가리레 메주를 다 영 낵.(‘오가리’에 메주를 다 이렇게 놔서.)

107061 # 응.(응.)

107061 @ 우에다 소금 덮어?(위에다 소금 덮어?)

107061 # 미시거 비니루나 영 깔아 가지고 소금 툯 더꺼 가지고 더경 놔둬.(무엇 비닐이나 이렇게 깔아 가지고 소금 툯 덮어 가지고 덮어서 놔둬.)

107061 @ 메주 우에다가 비니루를 놓고.(메주 위에다가 비닐을 놓고.)

107061 # 응.(응.)

107061 @ 그 우에 소금을 놔?(그 위에 소금을 놔?)

107061 # 소금 영 낵 흐뭇 낵.(소금 이렇게 놔서 조금 놔서.)

107061 @ 소금은 무사 놓는 거라?(소금은 왜 놓는 거야?)

107061 # 게 영 티라도 범접허카부덴게 흐뭇 더꺼도 탁 싸불면, 나 이때도록 해도 장에 티 흐나 엇이 먹었지게. 장텅이 탁 더경.(게 이렇게 티라도 범접할까봐서 조금 덮어도 탁 싸버리면, 나 이때까지 해도 장에 티 하나 없이 먹었어. 장태 탁 덮어서.)

107062 @ 메주 담그는 건 철이 언제쯤, 멩질 전이, 입춘 전이 영허는 게 이수

과?(메주 담그는 건 철이 언제쯤, 명절 전에, 입춘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107062 # 지금 저 동짓달에 삶아 가지고 십일월달에 삶아 가지고 이제 담아. 나 이제 한 열흘 씩담 담을 거여.(지금 저 동짓달에 삶아 가지고 십일월에 삶아 가지고 이제 담가. 나 이제 한 열흘 있다가 담글 거야.)

107062 @ 명절 전이 해야 되는 거예?(명절 전에 해야 되는 거요?)

107062 # 응.(응.)

107062 @ 경행 봄 나쁜.(그렇게 해서 봄 나면.)

107062 # 먹어.(먹어.)

107062 @ 거른 장항 뚜껑 열엇당 닫앗당 허는 건 겨울에 허는 거?(그러면 장독 뚜껑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건 겨울에 하는 거?)

107062 # 이제 더꺼도 어떻 안허고 봄이나 낭 벳이 더워갈 때 흐뎀 열고.(이제 덮어도 어떻게 안하고 봄이나 나서 별이 더워갈 때 조금 열고.)

107062 @ 응.(응.)

107062 # 경허고 벤함이 없어.(그리고 변함이 없어.)

107061 @ 소금물을 잘 허난 뭐가 곳인게 안 생겨나신게마씨.(소금물을 잘 하니 까 뭐가 곳은 게 안 생겼었나봐요.)

107061 # 응.(응.)

107061 @ 옛날에 소금도 풀레 탕기는 사름 이서 나신가?(옛날에 소금도 팔러 다니는 사람 있었었나?)

107061 # 잇고말고. 옛날 제주에서 종달이¹¹⁵⁾ 엿샤? 종달이.(잇고말고. 옛날 제주에서 종달리 없냐? 종달리.)

107061 @ 예. 종달리.(예 종달리.)

107061 # 그디 소금 풀레 와난.(거기 소금 팔러 왔었어.)

107061 @ 소금장시, 소금장수?(소금‘장시’, 소금장사.)

107061 # 응, 소금장시.(응, 소금‘장시’.)

107061 @ 소금장시덜이.(소금장사들이.)

107061 # 종달이서 소금해낫주게. 제주도에게. 겨단 이제 설러 불엇주마는.(종달리에서 소금했었지. 제주도예. 그러다가 이제 그만뒤 버렸지마는.)

107061 @ 맞수다. 구루마에 시경 막예.(맞습니다. 달구지에 실어서 막요.)

107061 # 췌에도 시경 오고.(소에도 실어서 오고.)

107061 @ 췌에도 시경 오고. 소금이 영 놆두당 보민 영예.(소에도 실어오고. 소금 이렇게 놆두다가 보면 이렇게요.)

107061 # 녹아.(녹아.)

107061 @ 아니 부떠 가지고예 영켜 가지고 허는 그렇게 됩니까?(아니 붙어 가지고요 영켜 가지고 하는 그렇게 됩니까?)

107061 # 녹주게, 녹아.(녹지, 녹아.)

115) ‘종달이’는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를 말하는 것으로 옛날에 종달리에 염전이 있었다.

107061 @ 녹앗젠만?(녹았다고만?)

107061 # 소금 녹아붙었저, 소금 병뎡이젓저 영허주.(소금 녹아버렸다, 소금 뎡 어리졌다 이렇게 하지.)

107061 @ 병뎡이젓저.(뎡어리졌다.)

107061 # 나 저디 이딘이 농협에서 소금을 팔, 신청허느네게. 농협으로.(나 저기 여긴 농협에서 소금을 팔, 신청한다. 농협으로.)

107061 @ 소금을 신청해?(소금을 신청해?)

107061 # 응.(응.)

107061 @ 어디 소금 불릅니까?(어디 소금 부릅니까?)

107061 # 농협에 거.(농협의 거.)

107061 @ 농협에 거 그냥?(농협의 것 그냥?)

107061 # 농협으로 시꺼오민 나가 이제 시엿 아이덜토 사 주주게. 좋주게 농협으로 불르민.(농협으로 실어오면 내가 이제 제주시에 아이들도 사 주지. 좋지 농협으로 부르면.)

107061 @ 아, 농협으로 불르는 게 좋아.(아, 농협으로 부르는 게 좋아.)

107061 # 좋주게. 혼 푸대에 얼마행. 부녀회에서 이깁장 시꺼다 줘.(좋지. 한 부대에 얼마해서. 부녀회에서 여기까지 실어다 줘.)

107061 @ 아.(아.)

107061 # 이제도 저디 서너 푸대 산 데며서.(이제도 저기 서너 부대 사서 쟁여 뒀어.)

107061 @ 소금은 경 오래 놔뒤도 괜찮아?(소금은 그렇게 오래 놔뒤도 괜찮아?)

107061 # 어떻 안 헤여, 잘 싸민. 비니루 푸대 좋난 요샌 비니루에 탁 썩.(어떻게 안 해, 잘 싸면. 비닐 부대 좋으니까 요샌 비닐에 탁 썩서.)

107061 @ 비니루에 싸 붙어도 괜찮아?(비닐에 싸 버려도 괜찮아?)

107061 # 어떻 안 헤여.(어떻게 안 해.)

107061 @ 가마니나 이런 거에.(가마니나 이런 거에.)

107061 # 그런 거 안 돼여.(그런 거 안 돼.)

107061 @ 안 돼여?(안 돼?)

107061 # 녹양.(녹아서.)

107061 @ 아.(아.)

107061 # 경 안허민 향아리 쪼그만헌 것에 놓던지.(그렇지 않으면 향아리 쪼그마한 것에 놓든지.)

107061 @ 응.(응.)

107061 # 향아리에 건 녹아도 먹어지니까. 헌디 가멩인 옛날이주.(향아리에 건 녹107061 아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마닌 옛날이지.)

107061 @ 응.(응.)

107061 # 이제 비니루 포에 잘 썩 놔두민 녹도 안허여, 짐 안 나가민.(이제 비닐

포에 잘 싸서 놔두면 녹지도 않아, 김 안 나가면.)

107058 @ 봄 나민 고사리도 꺼끄레 다넘수과?(봄 나면 고사리도 꺾으러 다닙니까?)

107058 # 이때도록 고사리 꺼졌주마는 이젠 안 가키여.(이때까지 고사리 꺾었지마는 이젠 안 갈래.)

107058 @ 이젠 안 가젠? 옛날엔 막 하영 꺼낫지예? 얼마나 하영 꺼낫디가?(이젠 안 가려고? 옛날엔 아주 많이 꺾었었지요? 얼마나 많이 꺾었었습니까?)

107058 # 아이고 말도 못허지.(아이고 말도 못하지.)

107058 @ 얼마만이 뒤에 푸대에 담아 아니민.(얼마만큼 머에 부대에 담아 아니면?)

107058 # 구덕으로 막 이제 흔 짐씩 꺼경 오주게, 옛날은.(바구니로 막 이제 한 짐씩 꺾어서 오지, 옛날은.)

107058 @ 응. 경행.(응. 그렇게 해서.)

107058 # 경행 숲양 풀곡 조천 장에 강.(그렇게 해서 삶아서 팔고 조천 장에 가서.)

107058 @ 아, 저 고사리 손도 막 옛날에 장만힐 때 고사리손은 보벼근에 하지예?(아, 저 고사리 손도 막 옛날에 장만할 때 고사리밥은 비벼서 하지요?)

107058 # 보벼.(비벼.)

107058 @ 어떻 어떻 혜근에 허여.(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

107058 # 보비영 꺼꺼.(비벼서 꺾어.)

107058 @ 꺼끌 때부터 보벼 불어?(꺾을 때부터 비벼 버려?)

107058 # 지금도 손차 먹는 사름은 건 육지 사름이지, 제주 사름은 안 먹어.(지금도 밥째 먹는 사람은 건 육지 사람이지, 제주 사람은 안 먹어.)

107058 @ 제주 사름은 손차 안 먹어예. 그믄 거끌 때 다 영 보벼 불어?(제주 사람은 밥째 안 먹어요. 그러면 꺾을 때 다 이렇게 비벼 버려?)

107058 # 응, 흔 줌 꺼경 영 보병 농곡.(응, 한 줌 꺾어서 이렇게 비벼서 농고.)

107058 @ 아, 흔 줌 꺼경 영 보병 이레 농곡.(아, 한 줌 꺾어서 이렇게 비벼서 이리 농고.)

107058 # 응, 경혜. 계단 이제 이거 몇 년은 경 하영 꺼끄지 안허여. 제사에 쓸 거나 꺼경.(응, 그렇게 해. 그러다가 이제 이거 몇 년은 그렇게 많이 꺾지 않아. 제사에 쓸 거나 꺾어서.)

107058 @ 제사에 쓸 거나 꺼경. 제사에 쓸 때 그 올리는 건 그냥 고사리렌 곶아, 고사리나물이엔 곶아?(제사에 쓸 거나 꺾어서. 제사에 쓸 때 그 올리는 건 그냥 고사리라고 말해, 고사리 나물이라고 말해?)

107058 # 그냥 고사리엔 곶아.(그냥 고사리라고 말해.)

107058 @ 제사 때 고사리 말고 또 뭐 험니까?(제사 때 고사리 말고 또 뭐 합니까?)

107058 # 뭐 허여? 콩나물 허고.(뭐 해? 콩나물하고.)
 107058 @ 콩나물 허고.(콩나물 하고.)
 107058 # 뭐 허여지는양 허주, 뭐. 잡채 허고.(뭐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잡채 하고.)
 107058 @ 콩나물 비슷한 거. 뭐 숙주나물?(콩나물 비슷한 거. 뭐 숙주나물?)
 107058 # 그런 거 잘 안 허여.(그런 거 잘 안 해.)
 107058 @ 녹디나물?(녹두나물?)
 107058 # 응, 녹디나물.(응, 녹두나물.)
 107058 @ 무채도 해근에?(무채도 해서?)
 107058 # 무채도 행 올려.(무채도 해서 올려.)
 107058 @ 무채도 행 올려.(무채도 해서 올려.)
 107058 # 무채, 미네기채, 뭐 헤지는 사람은 으라 가지.(무채, 미나리채,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107058 @ 고사린 어디 강 꺼꺼마씨, 이딘?(고사리는 어디 가서 꺾어요, 여긴?)
 107058 # 드르에.(들에.)
 107058 @ 드르에.(들에.)
 107058 # 응.(응.)
 107058 @ 고지에?(숲에?)
 107058 # 곳 저곳디.(숲 곁에.)
 107058 @ 곳 저곳디.(숲 곁에.)
 107058 # 응. 멀어, 이디서도 고사리 꺼끄는 디.(응. 멀어, 여기서도 고사리 꺾으는 데.)
 107058 @ 보통 어느 짝드레 갑니까?(보통 어느 쪽으로 갑니까?)
 107058 # 저 반뫓 안트레도 가고, 이디 먼물깍 저끄되도 가고.(저 ‘반뫓’ 안으로도 가고, 여기 ‘먼물깍’ 곁에도 가고.)
 107058 @ 응.(응.)
 107058 # 선홀이라고 고사리꽃 보디지도 안허고.(선홀이라고 고사리숲 가깝지도 않고.)
 107058 @ 고사리꽃이 따로 이수과?(고사리숲이 따로 있습니까?)
 107058 # 요새엔 시에 사람이 빨리 와. 차로 오랑 막 시에서 오랑 꺼꺼불민 선홀 사람 하영 거끄지도 못허여.(요새엔 제주도 사람이 빨리 와. 차로 와서 막 제주도에서 와서 꺾어버리면 선홀 사람 많이 꺾지도 못해.)

젓갈

107049 @ 옛날에 자리젓도 하영 담가났지예?(옛날에 자리젓도 많이 담갔었지요?)
 107049 # 응.(응.)

107049 @ 자리젓은 어떻 담그는 거봐?(자리젓은 어떻게 담그는 것입니까?)
 107049 # 소금에, 소금에 맞춰 것도.(소금에, 소금에 맞춰서 그것도.)
 107049 @ 얼마나 얼마나 봐야 돼여?(얼마나 얼마나 봐야 돼?)
 107049 # 소금 흔 웨민 것도 자리 흔 말이민 소금 흔 웨썸 봐 가지고.(소금 한 되면 그것도 자리 한 말이면 소금 한 되썸 봐 가지고.)
 107049 @ 응.(응.)
 107049 # 허여서이 맛있어, 것도 잘 이녀으로 허면.(해서 맛있어, 그것도 잘 자기대로 하면.)
 107049 @ 향아리에?(향아리에?)
 107049 # 응, 쪼그만헌 향아리에.(응, 조그마한 향아리에.)
 107049 @ 무신거에 아까,(무엇에 아까?)
 107049 # 쪼그만헌 향아리에.(조그마한 향아리에.)
 107049 @ 이름이 무신거라? 쪼끄만헌 향아리 이름이.(이름이 뭐야? 조그마한 향아리 이름이.)
 107049 # 오가리게.(‘오가리’지.)
 107049 @ 오가리.(‘오가리’.)
 107049 # 단지.(단지.)
 107049 @ 단지. 단지허고 오가린 틀린 거?(단지. 단지하고 ‘오가리’는 다른 거?)
 107049 # ㄱ튼 거주.(같은 거지.)
 107049 @ 같은 거.(같은 거.)
 107049 # 더 작은 것ㄱ란 단지.(더 작은 것보고는 단지.)
 107049 @ 쥬 작은 거 단지.(쥬 작은 거 단지.)
 107049 # 응.(응.)
 107049 @ 그다음 오가리?(그다음 오가리?)
 107049 # 오가리.(오가리.)
 107049 @ 그다음은?(그다음은?)
 107049 # 큰 건 향.(큰 건 독.)
 107049 @ 큰 건 향. 쥬 큰 게 향. 그 사이엔 엇어? 향, 오가리, 단지 세 개뿐?
 (큰 건 독. 쥬 큰 게 독. 그 사이엔 없어? 독, ‘오가리’, 단지 세 개뿐?)
 107049 # 세 개뿐.(세 개뿐.)
 107050 @ 자리젓 말고 또 무신 것 담굽니까?(자리젓 말고 또 무슨 것 담굽니까?)
 107050 # 멜젓도 허고 것도 으라 가지주마는 여기는 주로 멜젓허고 자리젓 안 허여.(멜젓도 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지마는 여기는 주로 멜젓하고 자리젓밖에 안 해.)
 107050 @ 멜젓허고 자리젓허고예.(멜젓하고 자리젓하고요.)
 107050 # 다른 이제 해각더렌 뭐 으라, 젓도 으라 가지 허주마는.(다른 이제 해

변엔 뭐 여러, 짓갈도 여러 가지 하지마는.)

107051 @ 아가미.(아가미.)

107051 # 경 안 해난.(그렇게 안 했었어.)

107051 @ 그런 거 행 짓도 됩니까?(그런 거 해서 짓갈도 합니까?)

107051 # 케메, 그것은.(글세, 그것은.)

107051 @ 해변더레만.(해변으로만.)

107051 # 해변더레만, 해각에 그 배 허영 고기 허여 오는 사름 허주, 여기 안허여.(해변으로만, 해변에 그 배해서 고기 해 오는 사람 하지. 여기 안 해.)

107051 @ 응.(응.)

떡류

107069 @ 옛날에 할머니네 식겅날 떡은 어떤 떡, 어떤 떡 해난마씨?(옛날에 할머니네 제삿날 떡은 어떤 떡, 어떤 떡 했었어요?)

107069 # 떡은게 그때 쉿헐하고, 쉿헐이엔 허주게.(떡은 그때 송편하고, 송편이라고 하지.)

107069 @ 응, 쉿헐하고.(응, 송편하고.)

107069 # 곤떡허고.(흰떡하고.)

107069 @ 또.(또.)

107069 # 친떡.(시루떡.)

107069 @ 친떡.(시루떡.)

107069 # 새미떡도 해낫주마는 이제 새미떡 안허여.(‘새미떡’도 했었지마는 이제 ‘새미떡’ 안해.)

107069 @ 옛날에 해난 거, 옛날에.(옛날에 했던 거, 옛날에.)

107069 # 옛날에 새미떡허고, 곤떡허고.(옛날에 ‘새미떡’하고, 흰떡하고.)

107069 @ 곤떡은 어떤 거라?(흰떡은 어떤 거야?)

107069 # 쉿헐게, 쉿헐.(송편, 송편.)

107069 @ 아, 쉿헐.(아, 송편.)

107069 # 응, 친떡허고 세 가지.(응 시루떡하고 세 가지.)

107069 @ 친떡허고 세 가지. 옛날도 영 해낫수과?(시루떡하고 세 가지. 옛날도 이렇게 했었습니까?)

107069 # 응.(응.)

107069 @ 옛날 솔벤, 절벤 이런 거 안 해난?(옛날 솔편, 절편 이런 거 안 했었어?)

107069 # 그건이 이딘 안 허여.(그건 여긴 안 해.)

107069 @ 아, 이딘 안 허여?(아, 여긴 안 해?)

107069 # 응.(응.)

107069 @ 이딘 무신거 허여?(여긴 무엇 해?)

107069 # 이딘 곤떡 허고, 주로 제스 때 허는 거는 그 생뽕허고 새미허고 친떡 허고 지름떡허고.(여긴 흰떡 하고, 주로 제사 때 하는 거는 그 송편하고 ‘새미’하고 시루떡하고 기름떡하고.)

107069 @ 지름떡 허고.(기름떡 하고.)

107069 # 그것을 허는디 이디도 구좌멘드레 가면은 솔벤 뉘 절벤 그런 것가 주로 허여이.(그것을 하는데 여기도 구좌면으로 가면 솔편 뉘 절편 그런 것을 주로 해.)

107069 @ 응.(응.)

107069 # 지방마다 것도 뜰려.(지방마다 그것도 달라.)

107069 @ 아, 이 동네는 안 허여?(아, 이 동네는 안 해?)

107069 # 이 동네는 그 막이 제혈 때 그런 때는 더러 허여. 존새미.(이 동네는 그 막 제 지낼 때 그런 때는 더러 해. ‘존새미’.)

107069 @ 존새미는 어떤 거?(‘존새미’는 어떤 거?)

107069 # 쪼끌락헌 거. 새미떡 쪼끌락허게 멘든 거.(조그마한 거. ‘새미떡’ 조그맣게 만든 거.)

107069 @ 응.(응.)

107069 # 그거 허고 또 그런 지름떡 님은 것도 솔벤이엔 허영이 것도 헤여와.(그거 하고 또 그런 기름떡 같은 것도 솔편이라고 해서 그것도 해와.)

107069 @ 응.(응.)

107069 # 이제 떡집이 맞좌도 그런 거 해줘. 그런 제에 씨는 거.(이제 떡집에 맞춰도 그런 거 해줘. 그런 제에 쓰는 거.)

107069 @ 제에 쓰는 거.(제에 쓰는 거.)

107069 # 경헌디 보통 제스에는 그 지름떡허고 그 저 곤떡, 새미떡. 이젠 새미떡도 안 허여. 곤떡허고 친떡만.(그런데 보통 제사에는 그 기름떡하고 그 저 흰떡, ‘새미떡’. 이젠 ‘새미떡’도 안 해. 흰떡하고 시루떡만.)

107065 @ 거난 친떡은 그냥 하얗헌 걸로?(그러니까 시루떡은 그냥 하얀 걸로?)

107065 # 건 이녁 믹음.(그건 자기 마음.)

107065 @ 풋 논 것도 있고?(팔 놓은 것도 있고?)

107065 # 풋 논 것도 있고 무수 놔근에 풋에 치면 맛이서이.(팔 놓은 것도 있고 무 놔서 팔에 찌면 맛있어.)

107065 @ 그냥 하얀 거는 무신 거엔 곱읍니까?(그냥 하얀 거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7065 # 곤친떡게.(백설기.)

107065 @ 건 곤친떡. 풋 논 거?(건 백설기. 팔 놓은 거?)

107065 # 풋 논 건 풋 논 친떡이엔 허주게.(팔 놓은 건 팔 놓은 시루떡이라고 하지.)

107065 @ 풋 논 친떡. 무수 논 건?(팔 놓은 시루떡. 무 놓은 건?)

107065 # 무수, 그건 무수 논 친떡이엔 허주.(무, 그건 무 놓은 시루떡이라고 하지.)

107065 @ 하하하. 호박도 넣고?(하하하. 호박도 넣고?)

107065 # 호박도 넣고 건 이녁 먹음. 먹고 싶은 대로.(호박도 넣고 그건 자기 마음. 먹고 싶은 대로.)

107065 @ 응.(응.)

107065 # 먹고 싶은 대로 그건. 그냥 일반 제에 씨는 거는 곤친떡.(먹고 싶은 대로 그건. 그냥 일반 제에 쓰는 거는 백설기.)

107065 @ 응.(응.)

107065 # 쌀만 해서 치는 거. 것이 좋아.(쌀만 해서 찌는 거. 그것이 좋아.)

107066 @ 송편 안에는 무신거 놓니까?(송편 안에 무엇 놓습니까?)

107066 # 송편 안에 그전인 우린 풋 숨메 해영 잘 이녁으로 햇나주마는 이제 떡 맞창 다 기계에서.(송편 안에 그전엔 우린 팔 소 해서 잘 자기대로 했었지만 이제 떡 맞춰서 다 기계에서.)

107066 @ 아 옛날에. 숨메?(아, 옛날에. ‘숨메’?)

107066 # 숨메게.(‘숨메’.)

107066 @ 아까 밥할 때도 숨메, 떡할 때도 숨메?(아까 밥할 때도 ‘숨메’, 떡할 때도 ‘숨메’?)

107066 # 응.(응.)

107066 @ 떡 안에 놓는 것도 숨메?(떡 안에 놓는 것도 ‘숨메’?)

107066 # 숨메, 숨메 낱 해염저. 숨메.(‘숨메’, ‘숨메’ 놔서 하고 있어. ‘숨메’.)

107066 @ 응.(응.)

107066 @ 아까 그 풋친떡 할 때 우에 놓는 풋은 뭐엔 골야?(아까 그 팔시루떡 할 때 위에 놓는 팔은 뭐라고 말해?)

107066 # 것도 숨메주게.(그것도 ‘숨메’지.)

107066 @ 것도 숨메?(그것도 ‘숨메’?)

107066 # 숨메를 많이 이제 풋을 많이 허꺼야 돼여. 그 떡 징을 허젠 허민.(‘숨메’를 많이 이제 팔을 많이 섞어야 돼. 그 떡 쪼를 하려고 하면.)

107066 @ 속에 놓는 것도 숨메, 우에 놓는 것도 숨메?(속에 놓는 것도 ‘숨메’, 위에 놓는 것도 ‘숨메’?)

107066 # 응, 숨메. 숨메 삶아근에 풋 골양.(응, ‘숨메’. ‘숨메’ 삶아서 팔 갈아서.)

107066 @ 그른 새미떡도 속에 뭐 넣는 건가?(그러면 ‘새미떡’도 속에 뭐 넣는 건가?)

107066 # 응. 숨메 놔 것도.(응. ‘숨메’ 놔 그것도.)

107066@ 것도 숨메?(그것도 ‘숨메’?)

107066# 마뜨게, 마뜨게.(갈게, 갈게.)

107066@ 소도 숨메, 고물도 숨메.(소도 ‘숨메’, 고물도 ‘숨메’.)
 107066# 응.(응.)
 107070 @ 그런 떡 말고 영장 난 때 갈 땀 무신 떡 행 가냘수과?(그런 떡 말고 상 냈을 때 갈 땀 무슨 떡 해서 갓았습니까?)
 107070 # 옛날 아주 옛날은 물떡이엔 행 새미떡 닳은 건디 훑게 해났어.(옛날 아주 옛날은 ‘물떡’이라고 해서 ‘새미떡’ 같은 건데 굵게 했었어.)
 107070 @ 물떡예?(‘물떡’요?)
 107070 # 응, 그런 거 었어, 이제.(응, 그런 거 없어, 이제.)
 107076 @ 옛날 해난 거. 도래떡도 이신가? 돌래떡?(옛날 했던 거. 도래떡도 있나? 도래떡.)
 107076 # 아, 돌래떡은 그냥 뱅둥글락허게 멘든 것ㄴ라.(아, 도래떡은 그냥 둥그랗게 만든 것 보고.)
 107076 @ 무신걸로 멘든 거라, 그건?(무엇으로 만든 거야, 그건?)
 107076 # 곤쌀로도 멘들고.(흰쌀로도 만들고.)
 107076 @ 응.(응.)
 107076 # 모물쌀로도 멩글야.(메밀쌀로도 만들어.)
 107076 @ 둥글락허게 멘드는 거?(둥그랗게 만드는 거?)
 107076 # 응, 돌래떡.(응. 도래떡.)
 107070 @ 아까 물떡은 무신 걸로 멘드는 거라?(아까 ‘물떡’은 무엇을 만드는 거야?)
 107070 # 물떡은 밀 곶앙, 밀로도 멘들곡, 옛날 모물 한 땀 모물떡도 멘들곡 경해난. 경헌디 이젠 었어.(‘물떡’은 밀 같아서, 밀로도 만들고, 옛날 메밀 닳을 땀 메밀떡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어. 그런데 이젠 없어.)
 107070 @ 이젠 었주게. 옛날에.(이젠 없지. 옛날에.)
 107070 # 옛날엔 경해난.(옛날엔 그렇게 했었어.)
 107070 @ 물떡 해났구나예. 상웨떡도 해납디가?(‘물떡’ 했었군요. 상화떡도 했었습니까?)
 107068 # 상웨떡은 이제도 허주 뭐.(상화떡은 이제도 하지 뭐.)
 107068 @ 옛날에도 해난? 이 동네도 해냘수과?(옛날에도 했었어? 이 동네도 했었습니까?)
 107068 # 해난, 우린 주로 해난.(했었어, 우린 주로 했었어.)
 107068 @ 그건 언제 쓰는 거라? 물떡허고 상웨떡은 어떻 틀려? 언제 가져가?(그건 언제 쓰는 거야? ‘물떡’하고 상화떡은 어떻게 달라? 언제 가져가?)
 107068 # 물떡은 허여 나건 디가, 설럿주마는 상웨떡은 이제도 허여.(‘물떡’은 해 본 지가, 그만뒀지마는 상화떡은 이제도 해.)
 107068 @ 아.(아.)
 107068 # 제스때도 우리 허여.(제사 때 우리 해.)

107068 @ 아, 제스 때도.(아, 제사 때도.)

107068 # 이젠 떡집이 맞창 해당 먹엄주마는 그전엔이 상웨떡 허젠 허민 이제, 기주엔 허영 허여냐.(이젠 떡집에 맞춰서 해다가 먹고 있지만 그전에는 상화떡 하려고 하면 이제, 기주라고 해서 해 냐.)

107068 @ 응.(응.)

107068 # 이녁냥으로 밥허여 가지고 누룩 낱 부글부글 퀘여가면 ㄱ를러레 밀 ㄱ를러레 그거 걸러 낱.(자기대로 밥해 가지고 누룩 놓고 부글부글 꺾어가면 가루에 밀가루에 그거 걸러 냐서.)

107068 @ 응.(응.)

107068 # 경행 이제 몰양 놔두면 그것이 부그락허게 퀘면은.(그렇게 이제 반죽 해서 놔두면 그것이 ‘부그락허게’ 꺾면은.)

107068 @ 응.(응.)

107068 # 숨메 농곡 헤영 멘들양 치민 상웨떡이 참 맛있어, 맛있어.(‘숨메’ 놓고 해서 만들어서 찌면 상화떡이 참 맛있어, 맛있어.)

107068 @ 응, 건 어디 갈 때 부주로 가져가는 건가?(응, 그건 어디 갈 때 부조로 가져가는 건가?)

107068 # 부주로도 가져가고 집이서 제스 때도 행 먹고.(부조로도 가져가고 집에서 제사 때도 해서 먹고.)

107068 @ 지금도 집이서 만듭니까? 그냥 떡집이 강 해오지예?(지금도 집에서 만듭니까? 그냥 떡집에 가서 해오지요?)

107068 # 떡집이 강 해와.(떡집에 가서 해와.)

107068 @ 응.(응.)

107068 # 나가 잘 해났저, 그거, 상웨떡은.(내가 잘 했었어, 그거, 상화떡은.)

107068 @ 아. 부글부글.(아. 부글부글.)

107068 # 퀘민 저 큰 솟되서 치여.(꺾면 저 큰 솥에서 찌.)

107068 @ 응.(응.)

107068 # 치영 ㄱ 낸 땀 막 맛좋양 먹어덜. 어디 동넛집이도 서너 개씩 낱 아저가민 막 상웨떡 잘 돼엇젠 헤영.(찌서 ㄱ 낸 땀 막 맛있어서 먹어덜. 어디 동넛집에도 서너 개씩 냐서 가져가면 막 상화떡 잘 되었다고 해서.)

107068 @ 그 물떡은 부끄는 건 아니고 그냥 만드는 거파?(그 ‘물떡’은 부풀어 오르는 건 아니고 그냥 만드는 것입니까?)

107068 # 그것도 밀로 허민 부짱 허여.(그것도 밀로 하면 부풀려서 해.)

107068 @ 부파?(부풀려?)

107068 # 응.(응.)

107068 @ 뭐 냐야 돼여, 이건 숨메 엇이?(뭐 냐야 돼, 이건 ‘숨메’ 없이?)

107068 # 숨메 냐.(‘숨메’ 냐.)

107068 @ 이것도. 무신걸로 숨메 냐?(이것도. 무엇으로 ‘숨메’ 냐?)

107068 # 것도 마침반.(것도 마찬가지로.)

107068 @ 그 큰 상웨떡, 물떡 어떻게 다른지 몰르켜, 크기가 틀린 건가?(그러면 상화떡, ‘물떡’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크기가 다른 건가?)

107068 # 크기가 틀려. 새미떡 닳은 건디 큰 거, 물떡은.(크기가 달라. ‘새미떡’ 같은 건데 큰 거, 물떡은.)

107068 @ 큰 거, 물떡은.(큰 거, ‘물떡’은.)

107068 @ 상웨떡도 긴 상웨떡이 잇고 동글락현 게 이수게?(상화떡도 긴 상화떡도 잇고 동그란 게 잇잖아요?)

107068 # 긴 건 상웨떡이엔 안허여.(긴 건 상화떡이라고 안 해.)

107068 @ 뭐엔 글아?(뭐라고 말해?)

107068 # 그건 구좌멘¹¹⁶⁾ 허여. 긴 거 허여서 썰어 가지고 찢 거.(그건 구좌면 해. 긴 거 해서 썰어 가지고 찢 거.)

107068 @ 이딘 안 허여?(여긴 안 해?)

107068 # 이디 안허여.(여긴 안 해.)

107068 @ 이딘 그냥 동글락허게?(여긴 그냥 동그랴게?)

107068 # 응.(응.)

107068 @ 속에 아무 것도 안 놔?(속에 아무 것도 안 놔?)

107068 # 아니, 속에 숨메 낳. 쫓 숨메.(아니, 속에 ‘숨메’ 놔서. 팔소.)

107068 @ 쫓 숨메 낳.(팔소 놔서.)

107068 # 겨고 이제 짐녕으로 저레 가면 구좌멘 가면은 이제 퀘와 가지고 영 허여서 썰어. 썰어근엿에 치어.(그리고 이제 짐녕으로 저리 가면 구좌면 가면 이제 괴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썰어. 썰어서 찌.)

107068 @ 썰어근에 쳐?(썰어서 찌?)

107068 # 납작납작허게 치어. 경허영.(납작납작하게 찌. 그렇게 해서.)

107068 @ 이렇게 길게 되어 잇는 빗상웨 같은 건 엿어, 안 해낫수과?(이렇게 길게 되어 잇는 ‘빗상웨’ 같은 건 없어, 안 했었습니까?)

107068 # 엿어. 그건 저 거시기 기증펜.(엿어. 그건 저 거시기 기증펜.)

107078 @ 아, 기증펜은, 기증펜은 또 딱난 거 아니?(아, 기증펜은, 기증펜은 또 다른거 아니?)

107078 # 딱난 거.(다른 거.)

107078 @ 기증펜은 쌀로 허는 거지예?(기증펜은 쌀로 하는 거지요?)

107078 # 쌀로.(쌀로.)

107078 # 건 퀘왕 허는 거. 기주 낳.(그건 괴어서 하는 거. 기주 놓고.)

107078 @ 응, 건 퀘왕 허는 거고.(응, 그건 괴어서 하는 거고.)

107078 # 응.(응.)

107078 @ 아까 상웨떡은 밀로 허는 건가?(아까 상화떡은 밀로 하는 건가?)

116) ‘구좌멘’은 조천읍과 이웃한 구좌읍을 말하는 것이다.

107078 # 밀콧룰로.(밀가루로.)

107078 @ 밀콧루로 허는 거예.(밀가루로 하는 거요.)

107078 # 겐디 떡도 지방마다 틀려. 이 짐녕더레 손당더렌 가민 그 밀어 가지고 케영 멩글지 안허영.(그런데 떡도 지방마다 달라. 이 짐녕으로 송당으로 가면 그 밀어 가지고 꺾어서 만들지 않고.)

107078 @ 응.(응.)

107078 # 똑똑 썰어근엿에 니귀반득허게 치영 먹주게.(똑똑 썰어서 네모나게 찌서 먹지.)

107078 @ 아, 그건 이름이 따로 이신가?(아, 그건 이름이 따로 있나?)

107078 # 그것 ㄹ란 낭웨¹¹⁷⁾라고 허여, 낭웨.(그것보고는 ‘낭웨’라고 해, ‘낭웨’.)

107078 @ 낭웨, 아.(‘낭웨’, 아.)

107078 # 그디서 낭웨엔 곤는 거 닻안게.(거기서 ‘낭웨’라고 말하는 거 같더라.)

107078 @ 응.(응.)

107078 # 이딘 안 허고.(여긴 안 하고.)

107078 @ 이디선 안 허고예.(여기선 안 하고요.)

107078 @ 만뒤¹¹⁸⁾도 헤나신가?(‘만뒤’도 했었나?)

107078 # 만뒤가 새미떡게.(‘만뒤’가 ‘새미떡’)

107078 @ 아, 만뒤영 새미영 똑 ㄹ튼 거?(아, ‘만뒤’랑 새미랑 똑같은 거?)

107078 # 응. 만두가 새미떡이라, 이제. 이제 만두 그거 새미떡.(응. ‘만두’가 ‘새미떡’이야, 이제. 이제 ‘만두’ 그거 ‘새미떡’.)

107078 @ 응. 만뒤도, 만뒤는 속에 슴메를 놓는 거짜, 밖에.(응, ‘만뒤’도, ‘만뒤’는 속에 ‘스메’를 놓는 겁니까, 밖에.)

107078 # 슴메 놔, 놔.(‘스메’놔, 놔.)

107078 @ 밖에도 무치는 거짜?(밖에도 묻히는 겁니까?)

107078 # 베끗디 무치는 건 모몰 새미 헤 가지, 옛날에 집이서 먹젠 풋 미쳐.(밖에 묻히는 건 메밀 ‘새미’ 해서 가지, 옛날에 집에서 먹으려고 팔 묻혀.)

107078 @ 아, 풋 미치는 것도 있고.(아, 팔 묻히는 것도 있고.)

107078 # 응.(응.)

107078 @ 일름이 딱난 건 아니고?(이름이 다른 건 아니고?)

107078 # 아니, 딱난 거 아니.(아니, 다른 거 아니.)

107078 @ 그냥 만된다.(그냥 ‘만뒤’인데.)

107078 # 응. 만된다 풋 미청도 먹고 그냥도 먹고.(응. ‘만뒤’인데 팔 묻혀서도 먹고 그냥도 먹고.)

107078 @ 속에다가 담양도 먹고?(속에다가 담아서도 먹고?)

117) ‘낭웨’는 ‘빳상웨’라고도 하는데 밀가루나 보릿가루를 기주에 부풀려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 찌낸 상화떡이다.

118) ‘만뒤’는 ‘만두’라고도 하며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팔소를 넣고 가운데로 접어서 만들어 삶거나 찌낸 후 팔고물을 묻힌 떡이다.

107078 # 응. 경혜난. 옛날에 해낫주마는 지금 물떡이엔 해도 아무도 몰르고.
(응. 그렇게 했었어. 옛날에 했었지만 지금 ‘물떡’이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고.)

107078 @ 예, 몰르주게.(예, 모르지.)

107078 # 또 만뒤도.(또 ‘만뒤’도.)

107078 @ 만뒤도 몰라. 만둔 줄 알아. 저 만두 가게에서 파는 만둔 줄 알아.(‘만뒤’도 몰라. 만둔 줄 알아. 저 만두 가게에서 파는 만둔 줄 알아.)

107078 # 새미떡, 그 새미떡이 똑 닮아, 그거 만뒤허고.(새미떡, 그 새미떡 똑같아, 그거 ‘만뒤’하고.)

107078 @ 새미떡 똑 닮은 거예?(‘새미떡’ 꼭 같은 거요?)

107078 # 응, 그 소름소름하게 허여근에 이제.(응, 길쭉하게 해서 이제.)

107078 @ 응.(응.)

107078 # 저 영 좁아근엥에 허여. 이제도 무슨 큰 저 어디 제에는 그런 것도 써.(저 이렇게 접어서 해. 이제도 무슨 큰 저 어디 제에는 그런 것도 써.)

107078 @ 응. 만두는 따로 곤는 말이 엇고?(응. ‘만두’는 따로 하는 말 없고?)

107078 # 엇어, 새미떡.(없어, ‘새미떡’밖에.)

107078 @ 만두는 안 해먹어났수과?(‘만두’는 안 해먹었습니까?)

107078 # 아니, 옛날에는 헤어나도 이젠 안 허여.(아니, 옛날에는 했어도 이젠 안 해.)

107066 @ 송편을 만들면 물 꿩왕 그레 들이쳐?(송편을 만들면 물 끓여서 그리 집어 넣어.)

107066 # 삶아.(삶아.)

107066 @ 삶아.(삶아.)

107066 # 삶으나 또 징허영 치어.(삶거나 또 경그레 해서 찌.)

107066 @ 아, 치기도 됩니까?(아, 찌기도 됩니까?)

107066 # 치어 가지고 내어 가지고 언물러레 놔서 시쳐.(찌 가지고 내어 가지고 찬물에 놔서 씻어.)

107066 @ 아, 송편도?(아, 송편도?)

107066 # 응.(응.)

107066 @ 아.(아.)

107066 # 경혜여.(그렇게 해.)

107066 @ 뒤에서 쳐?(뒤에서 찌?)

107066 # 징이 잇주게, 징, 치는 거.(경그레 있지, 경그레, 찌는 거.)

107066 @ 징이 이서. 시리 말고예?(경그레 있어. 시루 말고요?)

107066 # 시리 말고 그냥 떡 치는 징이 잇주게. 그냥 찜통에.(시루 말고 그냥 떡 찌는 경그레가 있지. 그냥 찜통에.)

107066 @ 포 안 깔앙?(포 안 깔아서?)

107066 # 응?(응?)

107066 @ 포 안 깔고?(포 안 깔고?)

107066 # 포 깔앙.(포 깔아서.)

107066 @ 포 깔앙.(포 깔아서.)

107066 # 그 포도 곱닥허게 행 잘 헛당 칠 때 깔아근앵이 치어 가지고 또 그 친 걸 물르레 낱 시쳐야헤여.(그 포도 곱게 해서 잘 했다가 찢 때 깔아서 찢 가지고 또 그 찢 걸 물에 놔서 씻어야 해.)

107066 @ 그다음에 기름도 불라?(그 다음에 기름도 발라?)

107066 # 지름도 불르는 사름 불라. 물 맞게 삶으면 안 불라도 아무통도 안허는 디.(기름도 바르는 사람 발라. 물 맞게 삶으면 안 발라도 아무렁지도 앓는데.)

107066 @ 응.(응.)

107066 # 것도이 반죽이 익으나 어떻게 허민 지름 불라야 웨여.(그것도 반죽이 익으나 하면 기름 발라야 돼.)

107066 @ 응.(응.)

107066 # 부떠 불어 가지고.(불어 버려 가지고.)

107066 @ 거니까.(그러니까.)

별식

107092 @ 범벅도 행 먹고. 미숫가루도 행 먹고. 미숫가루 뭐라고 허더라?(범벅도 해서 먹고. 미숫가루도 해서 먹고. 미숫가루 뭐라고 하더라?)

107092 # 개역. 하하하.('개역'. 하하하.)

107092 @ 보리 보깡예.(보리 볶아서요.)

107092 # 허기 어려우니까. 것도 어디 떡집 님은 디서 허영 나와났주.(하기 어려우니까. 그것도 어디 떡집 같은 데서 해서 나왔었지.)

107086 @ 개역 허젠 허민 보리를 영.(미숫가루 하려고 하면 보리를 이렇게.)

107086 # 보까.(볶아.)

107086 @ 보까.(볶아.)

107086 # 보리 시청 물령 보까.(보리 씻어서 말려서 볶아.)

107086 @ 보리 시청 물령 보까.(보리 씻어서 말려서 볶아.)

107086 # 보깡 강 곶아.(볶아서 가서 갈아.)

107086 @ 보리 시청 말령 보깡 그다음엔 ㄱ레에 갈아?(보리 씻어서 말려서 볶아서 그다음엔 맷돌에 갈아?)

107086 # 옛날엔 ㄱ레에 곶안 먹엇주게.(옛날엔 맷돌에 갈아서 먹었지.)

107086 @ 옛날엔 ㄱ레에 곶앙.(옛날엔 맷돌에 갈아서.)

107086 # 기계 엷인 때, 우리 두린 때 곶안 먹어난.(기계 없을 때, 우리 어린 때 갈아서 먹었었어.)

107086 @ 보리로만 헤마씨? 다른 건 안 서끄고?(보리로만 해요? 다른 건 안 섞고?)

107086 # 다른 거, 콩.(다른 거, 콩.)

107086 @ 요새는 콩 같이 서끄던데.(요새는 콩 같이 섞던데.)

107086 # 콩, 그때도 서꺼.(콩, 그때도 섞어.)

107086 @ 그때도 서꺼.(그때도 섞어.)

107086 # 콩만 또 험 것ㄱ란 콩개역이엔 허영 맛이 좋아.(콩만 또 한 것보고는 콩미숫가루라고 해서 맛이 좋아.)

107086 @ 응.(응.)

107086 # 이 어린 사름덜 즘을 막 자가면.(이 어린 사람들 잠 막 자면.)

107086 @ 응.(응.)

107086 # 저 잠자는디 깨우지 말렌 아이고, 콩개역 ㄱ쁜 즘.(저 잠자는데 깨우지 말라고 아이고, 콩미숫가루 같은 잠.)

107086 @ 아. 콩개역 ㄱ쁜 즘.(아. 콩미숫가루 같은 잠.)

107086 # 경 곺아난. 콩개역이 맛이 좋아. 경 곺아났저.(그렇게 말했었어. 콩미숫가루가 맛이 있어. 그렇게 말했었어.)

107086 @ 콩은 그냥 생으로 못 먹잖아마씨. 보깡헤야 돼는 거?(콩은 그냥 생으로 못 먹잖아요. 볶아서 해야 되는 거?)

107086 # 보깡.(볶아서.)

107086 @ 콩도 보끈 거?(콩도 볶은 거?)

107086 # 응. 콩 보끈 것도 우리 어린 때 잘 먹어났저, 우리.(응. 콩 볶은 것도 우리 어린 때 잘 먹었었어, 우리.)

107086 @ 아니 개역 아까 험 때 콩은 보까근에 해야 돼는 거?(아니 미숫가루 아까 할 때 콩은 볶아서 해야 되는 거?)

107086 # 응, 보까. 보깡 곺아. 보리개역에도 콩 서경 허곡.(응, 볶아. 볶아서 갈아. 보리미숫가루에도 콩 섞어서 하고.)

107086 @ 응.(응.)

107086 # 또 콩개역만 헤영 그 저 숨메도 허여이. 콩개역, 콩 보깡 곺앙. 숨메.(또 콩미숫가루만 해서 그 저 고물도 해. 콩미숫가루, 콩 볶아서 갈아서. 고물.)

107086 @ 뭐에 숨메?(뭐에 고물?)

107086 # 숨메 험 땐 그것이 이제 줍쌀 또 오메기가 이서.(고물 할 땐 그것이 이제 줍쌀 오메기가 있어.)

107086 @ 줍쌀 오메기.(줍쌀 오메기.)

107086 # 줍쌀 오메기, 흐린줍쌀 오메기, 것에 콩개역 미쳐.(줍쌀 오메기, 차조 오메기, 그것에 콩미숫가루 묻혀.)

107086 @ 콩개역 미쳐.(콩미숫가루 묻혀.)

107086 # 맛있어, 그거.(맛있어, 그거.)

107086 @ 미쳐 아니민 안에 집어 넣어?(무쳐 아니면 안에 집어 넣어?)

107086 # 아니, 미쳐.(아니, 묻혀.)

107086 @ 미쳐.(묻혀.)

107086 # 그냥 삶아 가지고 그 개역더레 탁탁 등그리멍 미쳐.(그냥 삶아 가지고 그 미숫가루에 탁탁 굴리면서 묻혀.)

107086 @ 은절미처럼?(인절미처럼?)

107086 # 응, 은절미.(응, 인절미.)

107086 @ 응.(응.)

107086 # 은절미도 허곡 오메기도 은절민 허젠 허민 그 오메긴 이제 영 동골동골 멘들앙 삶아내는데 은절미는 또 떡을 삶아 가지고 영 밀어.(인절미도 하고 오메기도 인절미 하려고 하면 그 오메긴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 만들어서 삶아내는데 인절미는 또 떡을 삶아 가지고 이렇게 밀어.)

107086 @ 밀어.(밀어.)

107086 # 밀어근에 숨숨 썰영 현 것이 은절미라.(밀어서 '숨숨' 썰어서 한 것이 인절미야.)

107086 @ 응. 요새 인절미 말고 옛날 인절민 다른 거 아니? 은절미.(응. 요새 인절미 말고 옛날 인절미는 다른 거 아니? 인절미.)

107086 # 그거 ㄹ따.(그거 같아.)

107086 @ ㄹ따. 네모방장허영 영.(같아. 네모나게 해서 이렇게.)

107086 # 응, 썰어, 그거.(응, 썰어, 그거.)

107086 @ 크게 요렇게 만든 것도 은절미렌 허던데, 옛날에.(크게 요렇게 만든 것도 '은절미'라고 하던데, 옛날에.)

107086 # 게메 거 은절미주게. 그것은 그 오메기떡을 해 가지고 솟되 삶아어.(그러게 그거 '은절미'지. 그것은 그 오메기떡을 해 가지고 솥에 삶아.)

107086 @ 응.(응.)

107086 # 떡을 크게 멘들앙 삶아 가지고 안반에서 이제 마께로 밀어 그 미는 게 이서 또. 떡 미는 거.(떡을 크게 만들어서 삶아 가지고 안반에서 이제 방망이로 밀어 그 미는 게 있어 또. 떡 미는 거.)

107086 @ 미는 건 뭐렌 굴아?(미는 건 뭐라고 말해?)

107086 # 그것 ㄹ라 저 흥짓대라고.(그것보고 저 흥두깨라고.)

107086 @ 흥짓대.(흥두깨.)

107086 # 서답도 두드리는 거 ㄹ라 흥짓대엔 허주게. 감양.(빨래도 두드리는 것보고 흥두깨라고 하지. 감아서.)

107086 @ 이거 이것도 흥짓대.(이거 이것도 흥두깨.)

107086 # 응. 감양 허고.(응, 감아서 하고.)

107086 @ 빨래할 때 영 두들기는 거?(빨래할 때 이렇게 두드리는 거?(빨래 할 때 이렇게 두드리는 거?)

107086 # 응. 흥짓대엔 헤영 이제 또 낭으로 만든 길쭉한 게 이서어.(응. 흥두깨라고 해서 이제 또 나무로 만든 길쭉한 게 있어.)

107086 @ 안반?(안반?)

107086 # 안반 낱 서답도 감양 다듬는 게 있고 떡도 미는 게 이서, 마께 닳은 거, 영 소르무랑행 쪼끌락헌 거. 겨민 이제 은절미나, 또 이제 우리도 지름떡 할 때 밀영 헌다게.(안반 놔서 빨래도 감아서 다듬는 게 있고 떡도 미는 게 있어, 방망이 같은 거, 이렇게 길쭉해서 조그마한 거. 그러면 이제 ‘은절미’나, 또 이제 우리도 지름떡 할 때 밀어서 해.)

107086 @ 응.(응.)

107086 # 지름떡 할 때 트는 거. 경행 허는디 그 낭으로 멘든 그게 이서. 은절미 미는 거. 그걸로 밀어 가지고 이제 썰어.(기름떡 할 때 짙는 거. 그렇게 해서 하는 데 그 나무로 만든 그게 있어. ‘은절미’ 미는 거. 그걸로 밀어 가지고 이제 썰어.)

107086 @ 응.(응.)

107086 # 영 니귀반득, 니귀반득허게 경혜영 것도 풋을 미치던지.(이렇게 네모나게, 네모나게 해서 그것도 팔을 묻히든지.)

107086 @ 아.(아.)

107086 # 콩개역을 미치던지 그렇게 허면 맛있어. 경혜난. 거 옛날 막 옛날 옛적 혜난 거여, 우리 어린 때 혜난 거. 우리 옥은 후에는.(콩미숫가루를 묻히든지 그렇게 하면 맛있어. 그렇게 했어. 그거 옛날 아주 옛날 옛적 했던 거야, 우리 어릴 때 했던 거. 우리 큰 후에는.)

107086 @ 응.(응.)

107086 # 그닥지 그런 떡도게 경 힘들게 안 헤엿주게.(그다지 그런 떡도 그렇게 힘들게 안했었지.)

107086 @ 계난예.(그러니까요.)

107086 # 못 헤여, 못 헤여 옛날 어른덜ㄴ짜. 그 좁쌀 뽕아당 이제 은절미도 허젠 허민 떡 멘들앙 삶아 가지고 거 밀영 은절미 트곡.(못 해, 못 해. 옛날 어른들같이. 그 좁쌀 뽕아다가 이제 ‘은절미’도 하려고 하면 떡 만들어서 삶아 가지고 그거 밀어서 인절미 뜨고.)

107086 @ 응.(응.)

107088 # 오메기떡 허영 이제 풋 미치나.(오메기떡 해서 이제 팔 묻히나.)

107088 @ 응.(응.)

107088 # 콩개역 미치나 그렇게 허영 떡곡.(콩미숫가루 묻히거나 그렇게 해서 먹고.)

@ 아 콩개역을 미치거나 팔을 미치거나.(아 콩미숫가루를 묻히거나 팔을 무치거나.)

107088 # 응, 경 혜영 먹어.(응, 그렇게 해서 먹어.)

107088 @ 술도 옛날은 집이서 담가냏지예? 어떻행 담급니까?(술도 옛날은 집에서 담갔었지요? 어떻게 해서 담급니까?)

107088 # 아이고 말도 못 한다게.(아이고 말도 못 한다.)

107088 @ 어려왕?(어려워서?)

107088 # 굿사 그 텔레비에 옛날 그 미신 종가집 그거 나완에.(아까 그 텔레비전에 옛날 그 무슨 종가집 그거 나와서.)

107088 @ 예.(예.)

107088 # 술 다끄는 거 나오더라게, 소주 다끄는 거.(술 고는 거 나오더라, 소주 고는 거.)

107088 @ 응.(응.)

107088 # 우리도 해낫저게.(우리도 했었어.)

107088 @ 어떻행 허여?(어떻게 해?)

107088 # 그것도이 누룩이라고 이제 보리 검퍼 가지고 이제 그 ㄱ루 이제도 동문시장에 풀지 안햐시냐게? 누룩게.(그것도 누룩이라고 이제 보리 거피해 가지고 이제 그 가루 이제도 동문시장에 팔지 않니? 누룩.)

107088 @ 예, 팔아마씨.(예, 팔아요.)

107088 # 들레떡 멘들양 그거 누룩을 허는 디 그때는이 이 저 소주허는 건 크게 이제 찻망이나 무신 차롱에나 담양 그걸 막 티와. ㄱ루 들양 물에 서껍 보릿ㄱ루.(도래떡 만들어서 그거 누룩을 하는 데 그때는이 저 소주하는 건 크게 이제 찻바퀴나 무슨 채롱에나 담아서 그걸 막 띄워. 가루 반죽해서 물에 섞어서 보릿가루.)

107088 @ 보릿ㄱ루 서껍.(보릿가루 섞어서.)

107088 # 그렇게 해서 이제 누룩 되면은 소주 다끌 거 허젠 허민이 밥도 허여 낵 그 누룩에 서껍 놔두민 막 퀘여. 그것이 막 퀘면 이제 솟디 낵 고소리가 잇저게.(그렇게 해서 이제 누룩 되면 소주 골 거 하려고 하면 밥도 해 놓고 그 누룩에 섞어서 놔두면 막 피어. 그것이 막 피면 이제 술에 놔서 소줏고리가 있어.)

107088 @ 응.(응.)

107088 # 술 다끄는 거.(술 고는 거.)

107088 @ 응.(응.)

107088 # 거 솟디 퍼낵 이제 술을 다까.(그거 술에 퍼 놓고 이제 술을 고아.)

107088 @ 응.(응.)

107088 # 경 이제 쎡 바되근에 줄줄줄줄 누리우민 그것이 소주라이.(경 이제 병 받쳐서 줄줄줄줄 내리면 그것이 소주야.)

107088 @ 고소리는 우에 영 더꺼야 텔 거 아니?(소줏고리는 위에 이렇게 덮어야 될 거 아니?)

107088 # 고소리에 이제 장탱이 올려낵 영 코 돋은 것에 올려낵 솟에 맞은 게 이서. 고소리엔 허영. 그게 이신디.(소줏고리에 이제 장탱 올려놓고 이렇게 코 돋은 것에 올려 놔서 술에 맞는 게 있어. 소줏고리라고 해서. 그게 있는데.)

107088 @ 짐 나가민 안 돼난 뭐 부쳐야 돼지 안헤?(짐 나가면 안 되니까 뭐 붙여야 되지 않아?)

107088 # 우이 또 장탱이 뇌근에. 응 시리 떡 치듯 부찌, 영 돌아가명.(위에 또 장태 뇌서. 응 시리 떡 치듯 붙여, 이렇게 돌아가면서.)

107088 @ 응.(응.)

107088 # 떡 멘글양 부짱 허는디.(떡 만들어서 붙여서 하는데.)

107088 @ 장탱이?(장태?)

107088 # 장탱이 우이 뇌 그 물이.(장태 위에 뇌서 그 물이.)

107088 @ 응.(응.)

107088 # 막 뜨거와.(막 뜨거워.)

107088 @ 응.(응.)

107088 # 뜨거우민 두 번 곁아놓민 그 술이 혼 솟이 다 다까지는 거라.(뜨거우면 두 번 곁아 놓으면 그 술이 한 술이 다 곁아지는 거야.)

107088 @ 응.(응.)

107088 # 경허민 물 장탱이에 곁아뇌 다까.(그러면 물 장태에 곁아뇌서 곁아.)

107088 @ 장탱인 어떤 거마씨?(장태는 어떤 거예요?)

107088 # 이제게 장탱이 어샤, 항 뚜께게.(이제 장태 없니. 장독 뚜껑.)

107088 @ 항 뚜께.(장독 뚜껑.)

107088 # 응, 항 뚜께 ㄹ라 장탱이엔 허주게.(응, 장독 뚜껑보고 장태라고 하지.)

107088 @ 응.(응.)

107088 # 경혜영 그거 물을 두 번 곁아뇌. 우이 논 게 두 번을 더워야 술이 다 다까지는 거라.(그래서 그거 물 두 번 곁아 뇌. 위에 놓은 게 두 번은 더워져야 술이 다 곁아지는 거야.)

107088 @ 이 췁은 무신 췁?(이 병은 무슨 병?)

107088 # 췁이 잇어.(병이 잇어?)

107088 @ 받이췁?(받이병?)

107088 # 등덜췁¹¹⁹⁾이엔 혜영.(‘등덜췁’이라고 해서.)

107088 @ 등덜췁?(‘등덜췁’?)

107088 # 그것도 항 닳은 거, 항 닳은 거.(그것도 항아리 같은 거, 항아리 같은 거.)

107088 @ 항 닳은 거.(항아리 같은 거.)

107088 # 응, 항으로 그 항 멩그는 걸로 멘든 췁이라사 뒤여.(응, 항아리로 그 항아리 만드는 걸로 만든 병이라야 돼.)

107088 @ 아, 무신 췁 아까?(아, 무슨 병 아까?)

107088 # 불에 가도.(불에 가도.)

107088 @ 등덜췁?(‘등덜췁’?)

107088 # 응, 등덜췁이엔이 불에 가도 아니 벌러지꼭 아니 카는 거.(응, ‘등덜췁’

119) ‘등덜췁’은 진흙으로 만든 두 되들이로 소줏고리에서 술을 받는 병으로 ‘드들췁, 등들췁’이라고도 한다.

이라고 불에 가도 안 깨지고 안 타는 거.)

107088 @ 응.(응.)

107088 # 이런 보통 팽, 나이롱 팽 안 돼여.(이런 보통 병, 나일론 병 안 돼.)

107088 @ 항 닦은 거예?(항아리 같은 거요?)

107088 # 안 돼여, 항 닦은 거.(안 돼, 항 같은 거.)

107088 @ 그걸로 술 받는 거라?(그걸로 술 받는 거야?)

107088 # 응. 그런 팽이라사. 그런 걸로 행 받아근앵이 허민 술 두 돼도 나오고 잘 나민 두 돼 흐뎡 더 나오고 술이 잘 돼면.(응. 그런 병이라야. 그런 걸로 해서 받아서 하면 술 두 되도 나오고 잘 나면 두 되 조금 더 나오고 술이 잘 되면.)

107088 @ 응.(응.)

107088 # 또 경 아니민 흐 돼 반 나오고.(또 그렇지 않으면 한 되 반 나오고.)

107088 @ 아까 얼마만이 놓면 흐 돼 반 나온다고마씨?(아까 얼마만큼 놓으면 한 되 반 나온다고요?)

107088 # 술을 흐 솟, 솟이 이서.(술을 한 술, 솟이 있어.)

107088 @ 흐 솟 허민.(한 술 하면.)

107088 # 응, 갱 거 풀아나세계.(응, 그렇게 해서 그거 팔았었어.)

107088 @ 도고리로 흐, 아까 무신거엔.(함지박으로 한, 아까 무엇이라고.)

107088 # 장탱이.(장태.)

107088 @ 장탱이.(장태.)

107088 # 그 솟디 이제 술을 흐 솟 퍼 놔 가지고 고소리 우이 장탱이 이서이. 그 물을 두 번을 뜨거와야 그 술이 다 다까져.(그 술에 이제 술을 한 솟 퍼 놔 가지고 소줏고리 위에 장태가 있어. 그 물이 두 번 뜨거워야 그 술이 다 고아져.)

107088 @ 그 장탱이로 두 개 허민 두 돼?(그 장태로 두 개 하면 두 되?)

107088 # 데와지면 따시 낱 다까.(덥혀지면 다시 놔서 고아.)

107088 @ 응.(응.)

107088 # 고소리 다 헤영 또 다까. 솟 다 청소헤팅.(소줏고리 다 해서 또 고아. 술 다 청소 해두고.)

107088 @ 응. 아, 다시.(응, 아, 다시.)

107088 # 응, 경행 그 잘도 어렵게 헤연. 옛날 어른덜.(응, 그렇게 해서 그 잘도 어렵게 했어. 옛날 어른덜.)

107088 @ 응.(응.)

107088 # 또로 저 막걸리.(또 저 막걸리.)

107088 @ 막걸리는.(막걸리는.)

107088 # 막걸리는 이제 흐린좁쌀 꺾아 가지고 꺾사 오메기떡 흐듯.(막걸리는 이제 차조 빵아 가지고 아까 오메기떡 하듯.)

107088 @ 예, 예.(예, 예.)

107088 # 그거 이제 누룩에 꺾어 가지고 누룩에 서경 낫당 막걸리가 돼면.(그거

이제 누룩 반죽해서 누룩에 섞어 놓았다가 막걸리가 되면.)

107088 @ 응.(응.)

107088 # 그 항아리에 낫당 거리멍 먹어.(그 항아리에 낫다가 뜨면서 먹어.)

107088 @ 응.(응.)

107088 # 우리 그건 잘 해난. 우리 두린 때.(우리 그건 잘 했었어. 우리 어릴 때.)

107089 @ 막걸리는, 막걸리하고 쉰다린¹²⁰ 틀리잖아예?(막걸리는, 막걸리는 ‘쉰다리’하고 다르잖아요?)

107089 # 쉰다린 거썬 헤영 먹는 거고.(‘쉰다리’는 얼른 해서 먹는 거고.)

107089 @ 금방 행 먹고.(금방 해서 먹고.)

107089 # 응. 막걸린 흐뎡 오래 헤영 익어야.(응. 막걸린 조금 오래 해서 익혀야.)

107089 @ 오래영, 얼마나? 한 달?(오래, 얼마나? 한 달?)

107089 # 아니.(아니.)

107089 @ 일주일?(일주일?)

107089 # 지금 허민 흐 보름 서사 퀘지.(지금하면 한 보름 있어야 괴지.)

107089 @ 보름, 추워 부난 보름?(보름, 추워 버리니까 보름?)

107089 # 응.(응.)

107089 @ 더울 땀 한 일주일?(더울 땀 한 일주일?)

107089 # 일주일 흐뎡 더 서야 돼여.(일주일 조금 더 있어야 돼.)

107089 @ 만드는 방법은 똑같애마씨?(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107089 # 응, ㄱ따. 쉰다린 이제.(응, 같아. ‘쉰다리’ 이제.)

107089 @ 근데 쉰다린 누룩에 밥으로 허잖애마씨?(근데 ‘쉰다리’는 누룩에 밥으로 하잖아요?)

107089 # 밥 농곡 누룩 흐뎡 낱게 ㄱ 트민 여름에 썬은 흐루에 먹주게.(밥 놓고 누룩 조금 놔서 곧 뜨면 여름에 썬은 하루에 먹지.)

107089 @ 그냥 먹는 거예.(그냥 먹는 거요.)

107089 # 쉰다리.(‘쉰다리’.)

107089 @ 아까 그문 막걸린?(아까 그러면 막걸린?)

107089 # 막걸린 흐뎡 오래 서사게.(막걸린 조금 오래 있어야.)

107089 @ 밥으로 하는데?(밥으로 하는데?)

107089 # 응.(응.)

107089 @ 밥으로 해?(밥으로 해?)

107089 # 밥으로도 허고 떡도 멘들앙 허고.(밥으로도 하고 떡도 만들어서 하고.)

107089 @ 떡 멘들앙 줍쌀로 떡 멘들앙?(떡 만들어서 줍쌀로 떡 만들어서?)

107089 # 떡 멘들앙.(떡 만들어서.)

120) ‘쉰다리’는 찬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이다.

107089 @ 응.(응.)

107089 # 그건 옳게 막걸리주. 갯 또 막걸리 오래민 드끈 골라앗아, 우이이.(그건 옳게 막걸리지. 그래서 또 막걸리 오래면 가득 가라앗아, 위에.)

107089 @ 응.(응.)

107089 # 건 청주엔 허여.(그건 청주라고 해.)

107089 @ 청주, 맑은 건.(청주, 맑은 건.)

107089 # 갯 굽에 건 이제 걸르멍 먹어, 탁배기엔 허영.(그래서 밑에 건 이제 거르면서 먹어, 탁배기라고 해서.)

107089 @ 탁배기.(탁배기.)

107089 # 하하하.(하하하.)

107088 @ 술 담는 그 향아린 무신거엔 골아?(술 담는 그 향아리는 뭐라고 말해?)

107088 # 향이주 무신거라?(독이지 뭐야?)

107088 @ 춘이?(춘이?)

107088 # 춘¹²¹은 이젠 엇어.(‘춘’은 이젠 없어.)

107088 @ 옛날에는?(옛날에는?)

107088 # 술 춘인이 제국 시절에, 술 춘도 어디덜 이실 거여.(술 ‘춘’은 제국 시절에, 술 ‘춘’도 어디 있을 거야.)

107088 @ 술 담는 건 술 춘이엔 허주예?(술 담는 건 술 ‘춘’이라고 하지요?)

107088 # 응.(응.)

107088 @ 그냥 추니, 춘이, 춘?(그냥 ‘추니’, ‘춘이’, ‘춘’?)

107088 # 술 춘.(술 ‘춘’.)

107088 @ 술 춘.(술 ‘춘’.)

107088 # 술 춘인디 그제 제국 때에이.(술 ‘춘’인데 그제 제국 때에.)

107088 @ 응.(응.)

107088 # 술 공장에 막 하낫저. 계단 이제 엇어져서 그거 못 봐.(술 공장에 아주 많았었어. 그러다가 이제 없어져서 그거 못 봐.)

107088 @ 응.(응.)

107088 # 술 춘이 저 그저 술 벅듯 나오게시리 혜영 모개기 영 쫄르게 혜영 버구기 딱 막앙.(술 ‘춘’이 저 그저 술 조금 나오게 해서 모가지 이렇게 짧게 해서 ‘버구기’ 딱 막아서.)

107088 @ 무신거 막앙?(무엇 막아서?)

107088 # 버구기 마개라고.(‘버구기’ 마개라고.)

107088 @ 버구기 마개.(‘버기기’ 마개.)

107088 # 낭으로 멘든 거.(나무로 만든 거.)

107088 @ 낭으로?(나무로?)

121) ‘춘’은 술을 담는 준을 말하는데 ‘추니’라고도 한다.

107088 # 딱 멘들앙이 딱 맞앙 그거 저 빠야 그 술을 비워. 술 춘.(딱 만들어서 딱 맞아서 그거 빠야 그 술을 비워, 술 '춘'.)

107088 @ 아.(아.)

107088 # 그런 거 이서난.(그런 거 있었어.)

기타

107092 @ 감주도 해낫수과?(감주도 했었습니까?)

107092 # 감주 허고말고.(감주 하고말고.)

107092 @ 좁쌀 감주?(좁쌀 감주?)

107092 # 응.(응.)

107092 @ 그건 그냥 감주?(그건 그냥 감주?)

107092 # 감주엔 현 건이 골을, 골을 이제.(감주라고 한 건 골을, 골을 이제.)

107092 @ 무신걸로 골 놔?(무엇으로 골 놔?)

107092 # 밀을 이제 놔 가지고.(밀을 이제 놔 가지고.)

107092 @ 밀, 밀로?(밀, 밀로?)

107092 # 보리나 밀이나 해영 이제 걸이 콩나물 허듯 나와. 그 밀이나 보리 해 가지고.(보리나 밀이나 해서 이제 그것을 콩나물 하듯 내워. 그 밀이나 보리 해 가지고.)

107092 @ 띄와.(띄워.)

107092 # 물에 쟁 낫당 건정 이제 나와 그거. 그것도 잘 돼어야 골이 돌아야. 것마라 골이엔 허주게.(물에 담가 놔다가 건져서 이제 내워 그거. 그것도 잘 돼야 골이 돌아. 그것보고 골이라고 하지.)

107092 @ 응.(응.)

107092 # 쟁 물리왕 낫당 이젠 걸 골아 가지고 골마루 골아 가지고 밥해영 이제 찹쌀허민 더 좋아.(그렇게 말려서 놔다가 이젠 그걸 갈아 가지고 골고루 갈아 가지고 밥해서 이제 찹쌀하면 더 좋아.)

107092 @ 응.(응.)

107092 # 흐린좁쌀베끼 안 돼여 그거. 모의좁쌀은 안 돼여.(차좁쌀밖에 안 돼 그거. 메조는 안 돼.)

107092 @ 응.(응.)

107092 # 흐린좁쌀로 감줄 이제 오가리로 흥나 허여 가지고 이젠 걸렁 채 바청 걸러근에 삶아 가지고 그때 무신 커피가 시냐?(차조로 감주를 이제 향아리로 하나 해 가지고 이젠 걸러서 채 받쳐서 걸러서 삶아 가지고 그때 무슨 커피가 있니?)

107092 @ 하하하.(하하하.)

107092 # 방상덜 이제 다 제스 먹으러 오면 다 흥 고뿌씩 다 디려.(일가붙이들 이제 다 제사 먹으러 오면 다 한 잔씩 다 드려.)

107092 @ 응.(응.)

107092 # 또 콩늬물 채허영 다 디리곡 경해난.(또 콩나물 채해서 다 드리고 그렇게 했었어.)

107092 @ 콩늬물 채?(콩나물 채?)

107092 # 콩늬물도 집이서 키웠주게. 콩늬물을.(콩나물도 집엿 키웠지. 콩나물을.)

107092 @ 무신거에 낵 키워?(무엇에 낵서 키워?)

107092 # 오가리.(항아리.)

107092 @ 오가리에.(항아리에.)

107092 # 콩늬물 키우민 잘 돼민 이만이 커 올라.(콩나물 키우면 잘 되면 이만큼 커 올라.)

107092 @ 물 빠지지 안허는 오가리도 괜찮아?(물 빠지지 않는 항아리도 괜찮아?)

107092 # 응, 물 빠지지 안허는 것도 허고 물 빠지는 것에도 놓아.(응, 물 빠지지 않는 것도 물 빠지는 것에도 놓아.)

107092 @ 아.(아.)

107092 # 경허민 물 빠지지 안 허는 것엔 영 들렁 비와불영 물이 없어야 잘 커. 경허민이 콩늬물을 주로 낵낵저. 이제사 삼주.(그러면 물 빠지게 안 하는 것엔 이렇게 들어서 비워버려서 물이 없어야 잘 커. 그러면 콩나물을 주로 낵었어. 이제야 사지.)

107092 @ 응, 어디레 낵듭니까, 그건?(응, 어디에 낵듭니까, 그건?)

107092 # 그건이 저울에 콩늬물이 잘 아이 크거든.(그건 저울에 콩나물이 잘 안 크거든.)

107092 @ 응.(응.)

107092 # 경허민 불 솥양 밥헐 땀 솥뚜껑에 낵.(그러면 불 때서 밥할 땀 솥뚜껑에 낵.)

107092 @ 솥뚜껑에?(솥뚜껑에?)

107092 # 경허당 오가리도. 하하하.(그러다가 항아리도. 하하하.)

107092 @ 삶아 불어?(삶아 버려?)

107092 # 우리 큰 딸 두린 때게 불 너미 와랑지게¹²²⁾ 솥아부난 오가리 깨어낵저게.(우리 큰 딸 어린 때 불 너무 ‘와랑지게’ 때버리니까 항아리 깨었었지.)

107092 @ 아이고.(아이고.)

107092 # 경도 허곡 헤어나고 또 저울엔 곱게 싸 가지고 이 이불도 곤 거.(그렇게도 하고 했었고 또 저울엔 곱게 싸서 이 이불도 고운 거.)

107092 @ 아랫목에.(아랫목에.)

107092 # 이디 이 불, 구들 지든 디 낵. 드시게, 드시게. 콩늬물 오가리 이제 곱

122) ‘와랑지게’는 불이 성하게 타오르는 모양을 ‘와랑와랑’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와랑’과 ‘-지게’가 결합한 형태로 불을 너무 세게 때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닥헌 포 헛당 싸 가지고 이디 낡 키워.(여기 이 불, 구들 댐 데 낡. 따뜻하게, 따뜻하게. 콩나물 향아리 이제 고운 포 했다가 싸 가지고 여기 와서 키워.)

107092 @ 응. 콩나물 오가리가 따로 이신 거?(응. 콩나물 향아리가 따로 있는 거?)

107092 # 아니, 그냥 오가리게.(아니, 그냥 향아리.)

107092 @ 그냥 오가리로.(그냥 향아리로.)

107092 # 응, 여름철엔 구덕에 놔도 커, 그것이.(응, 여름철엔 바구니에 놔도 커, 그것이.)

107092 @ 아.(아.)

107092 # 낡 하꼬¹²³)에도 낡 키우고.(나무 상자에도 놔서 키우고.)

107092 @ 아.(아.)

107092 # 경행 주로 이제 제스 때에 내리 콩나물을 키웠주게.(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제사 때 늘 콩나물을 키웠지.)

107092 @ 응.(응.)

107092 # 경허단 이제 콩나물 안 키우난 막 한글허여. 물 잇겠다.(그러다가 이제 콩나물 안 키우니까 아주 한가해. 물 잇겠다.)

107092 @ 예.(예.)

107092 # 콩나물 아이 키우겠다, 뭐 제스험도 무슨 일이라게, 이젠게.(콩나물 안 키우겠다, 뭐 제사함도 무슨 일이야, 이젠.)

107092 @ 과줄도 해놔수과?(과줄도 했었습니까?)

107092 # 과질, 선홀은 안 해.(과줄, 선홀은 안 해.)

107092 @ 선홀은 안 해. 그냥 이름은 뜨나게 부르는 건 엇고?(선홀은 안 해. 그냥 이름은 다르게 부르는 건 엇고?)

107092 # 엇고. 과질을 허면이 막 그것이 큰 거던ㄴ라이 흐쓸허민 과질잘상¹²⁴) 헛젠 경글아낫저.(엇고. 과줄을 하면 막 그것이 큰 거였던 것으로 조금하면 ‘과질잘상’했다고 그렇게 말했었어.)

107092 @ 과질 잘 상헛젠?(과줄 잘 상했다고?)

107092 # 그 상에다가 과질도 올렸다고.(그 상에다가 과줄도 올렸다고.)

107092 @ 아, 그믐 잘 출린 거라?(아, 그러면 잘 차린 거야?)

107092 # 응, 잘 출린 거. 과질잘상이라고 경 글아난.(응, 잘 차린 거. ‘과질잘상’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어.)

107092 @ 과질잘상?(‘과질잘상’.)

107092 # 응. 막 잘 출런게 상을 잘 출려놔젠.(응. 아주 잘 차려서 상을 잘 차려 놓았다고.)

107092 @ 응.(응.)

123) ‘하꼬’는 일본어 ‘하코’에서 온 말로 상자라는 뜻이다.

124) ‘과질잘상’은 아주 잘 차려놓은 상을 이르는 말로 옛날 과줄을 만들어 올리면 아주 잘 차리는 것이라고 여겼던 듯하다.

107092 # 과질이 어루와난 생이라라. 그것도.(과줄이 어려웠던 모양이야.)
 107092 @ 응.(응.)
 107092 # 허여근에 쓸 띄운 거 툃툃 부찐 거.(해서 쌀 튀긴 거 툃툃 붙인 거.)
 107092 @ 예, 예.(예, 예.)
 107092 # 과질 먹어난? 이제 안 풀암신가?(과줄 먹었었어? 이제 안 팔고 있나?)
 107092 @ 풀아마씨.(팔아요.)
 107092 # 이제 거 맛엇지, 옛날만이.(이제 그거 맛없지, 옛날만큼.)
 107092 @ 옛날만이 맛엇지.(옛날만큼 맛없지.)
 107092 # 우리 두린 때 하도 맛중앙.(우리 어린 때 하도 맛있어서.)
 107092 @ 그 가운데는 무신 걸로 행은에 만든 거파?(그 가운데는 무엇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107092 # 그것도 밀꺾루 띄와 가지고 것도 저 그건 기름에 띄운 거.(그것도 밀가루 튀겨 가지고 그것도 저 그건 기름에 튀긴 거.)
 107092 @ 띄왕?(튀겨서?)
 107092 # 얹게 해 가지고 띄왔어. 띄와 가지고 이제 그 쓸 띄운 거 어샤게? 딱딱 뎨 거. 거 부찌, 부찌.(얹게 해 가지고 튀겼어. 튀겨 가지고 이제 그 쌀 튀긴 거 없니? 딱딱 떼는 거. 그거 붙여, 붙여.)
 107092 @ 뭇로 부찌?(뭇로 붙여?)
 107092 # 그 이제 칭에다가 그걸 칭물에다가 이제 그 과질을 익혀 가지고 등가서 그 쓸을 부찌.(그 이제 꿀에다다 그걸 꿀물에다가 이제 그 과줄을 익혀 가지고 담가서 그 쌀을 붙여.)
 107092 @ 부찌.(붙여.)
 107092 # 그렇게 헨 뎨들앗젠 해라게.(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
 107092 @ 응.(응.)
 107092 # 경혜연 그거이 어디 사둔칩이나 어디 가민 그것도 특별히 지름떡 놓듯 것도 하나씩 놔.(그래서 그거 어디 사둔집이나 어디 가면 그것도 특별히 기름떡 놓듯 그것도 하나씩 놔.)
 107092 @ 응.(응.)
 107092 # 경혜영 오민 우리 두린 때 그 과질도 막 득투멍 먹어난.(그래서 오면 우리 어린 때 그 과줄도 막 다투면서 먹었었어.)
 107092 @ 이디서 해나진 안허고?(여기서 하지는 앓고?)
 107092 # 안 해난.(안 했었어.)
 107092 @ 응.(응.)

7. 주생활

구조

108001 @ 이 집은 대대로 살던 집이파?(이 집은 대대로 살던 집입니까?)

108001 # 아니, 저 학교 저곳디 살단 학교레 땅 막 내노렌 해부난 내놔 두고 이레 왔저게. 학교 저곳디 오래 살안. 이 집도 기와집이라난 거. 그루후제 짓어세.(아니, 저 학교 곁에 살다가 학교에 땅 막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아 두고 이리로 왔어. 학교 곁에 오래 살았어. 이 집도 기와집이었던 거. 그 후에 지었어.)

108001 @ 기와집 그냥 내불지.(기와집 그냥 놔두지.)

108001 # 비 새을란. 이거 짓곤디도 삼십년 돼실 거여. 거난이 그때도 옛날이여게. 이젠 짓는 사름덜 막 잘 꾸며. 우린 이거 그냥 스대 세완게 그때도 막.(비 새서. 이거 짓은 지도 삼십년 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옛날이지. 이젠 짓는 사람들 막 잘 꾸며. 우리는 이거 그냥 ‘스대’ 세워서 그때도 막.)

108001 @ 우풍 잇지예?(외풍 잇지요?)

108001 # 우풍 하. 높아, 노프게 짓어부난. 켜디 뭐 이제 아덜덜 아이 살아부난 어떻. 다 시에 강 살아부난.(위풍 많아. 높아, 높게 지어버리니까. 그런데 뭐 이제 아들들 안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다 제주시에 가서 살아버리니까.)

108001 @ 옛날에 집 짓는 것도 해낫지예?(옛날에 집 짓는 것도 했었지요?)

108001 # 목시게, 목시. 목시가 허지게.(목수, 목수. 목수가 하지.)

108001 @ 목시가 허기 전이.(목수가 하기 전에.)

108001 # 목시가 허주, 뭐. 낭 해다근에.(목수가 하지, 뭐. 나무 해다가.)

108005 @ 평고대는 무신거, 평고대?(평고대는 뭐, 평고대?)

108005 # 평고대가 뭐라? 고대¹²⁵사 흑 꾸언 올린 것¹²⁶라 고대주마는.(평고대가 뭐야? 산자야 흑 이겨서 올린 것보고 산자지마는.)

108005 @ 대나무 흑은 철사로 만들어서.(대나무 흑은 철사로 만들어서.)

108005 # 거왕¹²⁶?(‘거왕’?)

108005 @ 거왕인가?(‘거왕’인가?)

108005 # 줄 매는 거 거왕.(줄 매는 거 평고대.)

108005 @ 거왕은 어떻 행 매는 거?(평고대는 어떻게 해서 매는 거?)

108005 # 집 영 어염 돌아가명이 그 줄 매는 디 또 거왕 행 돌아가명 매어냥.(집 이렇게 옆에 돌아가면서 그 줄 매는 데 또 평고대 해서 돌아가면서 매어 놔서.)

108005 @ 응.(응.)

108005 # 그레 줄 매어. 거왕, 거왕.(그리 줄 매어. 평고대, 평고대.)

108005 @ 아, 그레 줄 매어?(아, 그리 줄 매어?)

125) ‘고대’는 지붕 서까래 위에 흙을 받쳐 기와를 이기 위하여 가는 나무오리나 싸리나무 따위로 엮은 것으로 표준어는 ‘산자’다.

126) ‘거왕’은 처마 끝에 가로로 놓은 오리목으로 표준어로 ‘평고대’이다.

108005 # 응. 거왕.(응. 평고대.)
 108005 @ 거왕은 이 저기.(평고대는 이 저기.)
 108005 # 집가지에.(처마에.)
 108005 @ 집가지에, 집가지에.(처마에, 처마에.)
 108005 # 돌아가명.(돌아가면서.)
 108005 @ 영 켜 거. 대나무로 만들어 보통?(이렇게 된 거. 대나무로 만들어 보통?)
 108005 # 대낭 그 왕대로 허여사.(대나무 그 왕대로 해야.)
 108005 @ 왕대로 허여사.(왕대로 해야.)
 108005 # 응.(응.)
 108005 @ 거왕더레 집줄¹²⁷을 무끄는 거?(평고대에 ‘집줄’을 묶는 거?)
 108005 # 응. 왕대 못허민 낭 또 ㄴ노롱헌 거, 진 거 허여당 매고. 거왕이주, 것 ㄴ라 거왕.(응. 왕대 못하면 나무 또 가느다란 거, 긴 거 해다가 매고. 평고대지, 그것보고 평고대.)
 108005 @ 거왕, 응. 대 엇이민예?(평고대, 응. 대 없으면요.)
 108005 # 응, 오까리¹²⁸, 오까리주게. 저 고대 올리는 디 허는 오까리.(응, ‘오까리’, ‘오까리’지. 저 산자 올리는 데 하는 ‘오까리’지)
 108005 @ 오까리?(‘오까리’?)
 108005 # 응, 거 이제 거왕 그걸로 허고 오까리로.(응, 거 이제 평고대 그걸로 하고 ‘오까리’로.)
 108005 @ 오까리가 뭐?(‘오까리’가 뭐?)
 108005 # 낭 즘진 거.(나무 자잘한 거.)
 108005 @ 아.(아.)
 108005 # 이 서리 말앙 ㄴ느롱헌 거 ㄴ라 오까리라고 허여. 오까리 비어다근에, 낭.(이 서까래 말고 가느다란 거보고 ‘오까리’라고 해. ‘오까리’ 베어다가, 나무.)
 108005 @ 오까리 비어다근에.(‘오까리’ 베어다가.)
 108005 # 거왕도 허곡 오까리 허영 이디 예김도 허곡계, 축브름도 예끼고 거왕 거시기 오까리 비어당. 댜 어디 경 하서?(평고대도 하고 ‘오까리’ 해서 여기 엮기도 하고, 벽도 바르고 평고대 거시기 ‘오까리’ 베어다가. 대는 어디 그렇게 많아?)
 108005 @ 계난.(그러니까.)
 108005 # 제국 시대, 스삼사건에 불 부떠 부난 대도 윈 엇어났저. 저 이제사 왕상¹²⁹ 헛주.(제국 시대, 사삼사건에 불 붙어 버리니까 대도 윈 없었었어. 저 이제야 ‘왕상’ 헛지.)
 108005 @ 아.(아.)

127) ‘집줄’은 초가지붕을 인 다음 바둑판처럼 엮어매는 줄이다.

128) ‘오까리’는 흙벽을 바르기 위해 외를 엮을 때 사용하는 자잘한 나뭇가지나 댓가지 등을 말한다.

129) ‘왕상’하다는 풀, 마른 가지, 가시 따위가 거칠게 널려져 있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대나무가 많이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108005 # 문밖 불 부껴부난 대왓도. 대왓도 다 불 부껴 불언, 사름 곱으카부덴.
(모두 불 붙여 버리니까 대밭도. 대밭도 다 불 붙여 버렸어, 사름 숨을까봐.)

108002 @ 옛날에 집은 초가집이엔 곱아, 초집이엔 곱아?(옛날에 집은 초가집이라고 말해, 초집이라고 말해?)

108002 # 초가집이엔도 허고 초집이엔도 허고.(초가집이라고도 하고 ‘초집’이라고도 하고.)

108002 @ 옛날에 할머니 곱아난 말.(옛날에 할머니 말했던 말.)

108002 # 게메, 우린 초집이엔 헛주게.(글쎄, 우린 초가집이라고 했지.)

108002 @ 게난 그게 중요헌 거, 초집.(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 초가집.)

108002 # 응, 초집, 초집.(응, 초가집, 초가집.)

108002 @ 초집 말고 또 무신 집, 무신 집 이서?(초가집 말고 또 무슨 집, 무슨 집 있어?)

108002 # 무신 집이 서?(무슨 집이 있어?)

108002 @ 기와집?(기와집?)

108002 # 기와집은 드망드망 막 부제나 기와집 허고.(기와집은 듣성듣성 아주 부자나 기와집 하고.)

108002 @ 부제나 기와집 허고.(부자나 기와집 하고.)

108002 # 이 선홀은 기와집이 엇엇단.(이 선홀은 기와집이 없었다가.)

108002 @ 응.(응.)

108002 # 스삼사건에 쓰레뜨 올리구정헌 사름은 쓰레뜨.(사삼사건에 슬레이트 올리고 싶은 사름은 슬레이트.)

108002 @ 쓰레뜨도 허고.(슬레이트도 하고.)

108002 # 기와 올리구정헌 사름은 기와 해도. 기와집이 좋지 안 해. 우리도 기와 헛단 트더 불엿세.(기와 올리고 싶은 사름은 기와 해도. 기와집이 좋지 않아. 우리도 기와 헛다가 뜯어 버렸어.)

108002 @ 응.(응.)

108002 # 비 새으라. 쓰레뜨도 막 오랜 후제, 초가집 짓언 막 살단.(비 새. 슬레이트도 막 오랜 후에, 초가집 지어서 막 살다가.)

108002 @ 응.(응.)

108003 @ 이견 안거리고 저견 밧거리고, 그다음에 모커린 뭐?(이견 안채고 저견 바깥채고, 그다음에 결채는 뭐?)

108003 # 모커린이 밧거리 다음 이제 그건 이 옆이. 이문도 들고 모커리로, 정 짓거리도 허꼭.(결채는 바깥채 다음 이제 그건 이 옆이. 대문도 달고 결채로, 부엌채도 하고.)

108003 @ 정짓거리도 따로 해?(부엌채도 따로 해?)

108003 # 따로 허는 집은 허고 안 허는 집은 안 허여. 것ㄴ라 그런 거보고 모커리엔 허주게.(따로 하는 집은 하고 안 하는 집은 안 해. 그것보고 그런 거 보고 결

채라고 하지.)

108003 @ 정짓거리를 모커리라고? 정짓거리를 모커리로 쓰는 디도 이서?(부엌채를 곁채라고? 부엌채를 곁채로 쓰는 데도 있어?)

108003 # 응, 모커리 짓엉 정지도 허곡게.(응, 곁채 지어서 부엌도 하고.)

108003 @ 아, 모커리 짓엉 거기를 정지로 쓰는 거라.(아, 곁채 지어서 거기를 부엌으로 쓰는 거야.)

108003 # 응. 이문간 허는 사름은 이문간 올레에 짓어근에 이문 드는 것도 모커리.(응. 대문 하는 사람은 대문 ‘올레’에 지어서 대문 다는 것도 곁채.)

108002 @ 문 옆이, 대문 옆이 짓은 거 모커리?(문 옆에, 대문 옆에 지은 거 곁채?)

108002 # 응.(응.)

108002 @ 대문, 이문간은 무신거라? 게문.(대문, 대문은 무엇이야? 그러면.)

108003 # 게메, 곁 모커리 짓어낱게 이문도 들고.(글쎄, 그곁 곁채 지어놓고 대문도 달고.)

108002 @ 응.(응.)

108002 # 또 정짓거리 딱로 짓은 것도 모커리. 건이 밧거리, 안거린 후에 그것보다 허나 더 짓으민 모커리주게, 아무거라도.(또 부엌채 따로 지은 것도 곁채. 그건 바깥채, 안채는 후에 그것보다 하나 더 지으면 곁채지, 아무거라도.)

108002 @ 응.(응.)

108002 # 것ㄴ라 모커리라고 허여.(그것보고 곁채라고 해.)

108003 @ 게문 문 들어오는 입구에, 대문 이신디예, 이 집이 들어오젠 허민 저디 올레에 문 이시민 그 문은 이문간이엔 허여?(그러면 문 들어오는 입구에, 대문 있는데요,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저기 ‘올레’에 문 있으면 그 문은 대문이라고 해?)

108003 # 응, 이문간. 올레, 올렛문이엔도 허고 이문간이엔도 허고.(응, 대문. ‘올레’, ‘올렛문’이라고도 하고 대문이라고도 하고.)

108002 @ 올렛문이엔도 허고 이문간이엔도 허고?(‘올렛문’이라고도 하고 ‘이문간’이라고도 하고?)

108002 # 응, 정살도 놓고.(응, 정낭도 놓고.)

108003 @ 무신거 놔?(무엇 놔?)

108003 # 정살은이 이문 엇인 집이.(정낭은 대문 없는 집이.)

108003 @ 정살이 정낭?(‘정살’이 정낭?)

108003 # 낭, 낭으로 영 놔.(나무, 나무로 이렇게 놔.)

108003 @ 정낭을 정살이엔 허는구나예?(정낭을 ‘정살’이라고 하는군요?)

108003 # 옛날 이문 엇인 집인 정살 놔.(옛날 대문 없는 집에는 정낭 놔.)

108003 @ 정살 놔.(장낭 놔.)

108003 # 응.(응.)

108003 @ 정살도 이 옆이 이신 거영 낭이영 이름 트나?(정낭도 이 옆에 있는 거랑 나무랑 이름 달라?)

108003 # 아니.(아니.)

108003 @ 이 옆에 세워진 돌은 무신거엔 글아?(이 옆에 세워진 돌은 무엇이라고 말해?)

108003 # 건 어긔담¹³⁰이주, 무시거라, 어긔담.(건 ‘어긔담’이지, 무엇이야, ‘어긔담’.)

108003 @ 어긔담?(‘어긔담’?)

108003 # 올레에, 올레ㄴ라 어귀, 올레 어귀, 어긔담. 어긔담에 정살 낭 영 걸치주게.(올레에, 올레보고 ‘어귀’, ‘올레 어귀’, ‘어긔담’. ‘어긔담’에 정낭 놔서 이렇게 걸치지.)

108003 @ 정주목은 무신거라?(정주목은 뭐야?)

108003 # 정주목이 뭐라?(정주목이 뭐야?)

108003 @ 어긔담은 그냥 담이주예, 돌로 헛 거예?(‘어긔담’은 그냥 담이지요, 돌로 한 거요?)

108003 # 응.(응.)

108003 @ 게민 어긔담 이신 디 그 정살 놔근에 사름 못 들어오게 허는 거라?(그러면 ‘어긔담’ 있는 데 그 정낭 놔서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108003 # 응, 겨꼭 이문 신 사름은 정살 낭 안허고게.(응, 그리고 대문 있는 사름은 ‘정살’ 나무 안하고.)

108003 @ 응.(응.)

108003 # 이문 탁 더꺼불민. 우리가 문 허젠 허단 그뻐 안 허난 그자 안 허연.(대문 탁 덮어 버리면. 우리가 문 하려고 하다가 그뻐 안 하니까 그냥 안 했어.)

108003 @ 응. 엇어도 좋수다.(응. 엇어도 좋습니다.)

108003 # 문, 철문 들젠 허단.(문, 철문 달려고 하다가.)

108003 @ 무사 저 혼 칸 집, 두 칸 집, 뭐 세 칸 집은 이런 거?(왜 저 한 칸 집, 두 칸 집, 뭐 세 칸 집은 이런 거?)

108003 # 아, 그건 이 집이면 우리가 이거 삼 칸 집 아이고 스 칸이주. 이거 거자 스 칸. 이거 혼 칸, 마리허민 두 칸, 저 구들 허민 세 칸, 삼 칸.(아, 이건 이 집이면 우리가 이거 삼 칸 집 아이고 사 칸이지. 이거 거의 사 칸. 이거 한 칸, 마루 하면 두 칸, 저 구들 하면 세 칸, 삼 칸.)

108003 @ 경행 삼 칸 집.(그렇게 해서 삼 칸 집.)

108003 # 응.(응.)

108003 @ 요 뒤에는 상관엇고?(요 뒤에는 상관없고?)

108003 # 상관엇어.(상관없어.)

108003 @ 요렇게 가로로. 옛날에는 영 큰 집 엇어낫수게예?(요렇게 가로로. 옛

130) ‘어긔담’은 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올레’를 따라 어귀 두 쪽에 쌓은 담장이다.

날에는 이렇게 큰 집 없었잖아요?)

108003 # 무사 우리 초가집도 삼 칸 집은 다 헛어.(왜 우리 초가집도 삼 칸 집은 다 헛어.)

108003 @ 초가집도 삼 칸 집이라?(초가집도 삼 칸 집이야?)

108003 # 응, 삼 칸.(응, 삼 칸.)

108003 @ 건디 구들이 좀 족아났잖아. 지금만이 영.(그런데 구들이 좀 작았었잖아, 지금만큼 이렇게.)

108003 # 구들은 흐뭇 족아도 구들 두 개허고 고평허곡 해가민 거의 비슷해.(구들은 조금 작아도 구들 두 개하고 고평하고 해가면 거의 비슷해.)

108003 @ 거의 삼 칸 집이라.(거의 삼 칸 집이야.)

108003 # 이 칸 집은 또 부엌허고 삼방만 침 구들허곡 삼방만 헛 것ㄴ라 이 칸.(이 칸 집은 또 부엌하고 마루만 침 구들하고 마루만 헛 것보고 이 칸.)

108003 @ 응. 방 하나에 저쪽편이 엇인 거예?(응. 방 하나에 저쪽편에 엇는 거요?)

108003 # 응. 제라허게 짓는 건 삼 칸. 우리 집은 이거 거자 스 칸이주.(응. 온전하게 짓는 건 삼 칸. 우리 집은 이거 거의 사 칸이지.)

108008 @ 마리는 상방이엔 곱읍니까?(마루는 상방이라고 말합니까?)

108008 @ 응.(응.)

108008 # 상방은 이거 바닥은 무신걸로 놔?(마루는 이거 바닥은 무엇으로 놔?)

108008 # 바닥 그때는 낭, 낭널로 헤영 마릿널.(바닥 그때는 나무, 나무널로 해서 마루청.)

108008 @ 마릿널?(마루청?)

108008 # 응, 마릿널도이 니귀반득허영 요만씩헌 거 영 이제 귀클 걸어근앵이 마리가 좋아. 찌각허게. 마릿널 판자라도이 옛날 오려근앵이 막 다끄곡 허민 막 곱나.(응, 마루청도 네모나서 요만큼씩헌 거 이렇게 이제 귀틀 걸어서 마루가 좋아. 뽁뽁하게. 마루청 판자라도 옛날 오려 가지고 막 닦고 하면 막 곱와.)

108008 @ 응.(응.)

108008 # 이제 이 모노롭보단 더 좋아, 시원헌 게. 난간도 그걸로 놓고.(이제 이 모노롭보다 더 좋아, 시원한 게. 난간도 그걸로 놓고.)

108008 @ 상방에 우에 부섭¹³¹?(마루에 위에 ‘부섭’?)

108008 # 장방?(장방?)

108008 @ 아니 상방에 우쪽에 화리나 부섭 이런 거 만듭니까?(아니 마루에 위쪽에 화로나 ‘부섭’ 이런 거 만듭니까?)

108008 # 부엌엔 그거 불살르는 것ㄴ라 봉덕불¹³²이엔 허주마는 선홀은 봉덕불 엇어, 선홀은.(부엌엔 그거 불살르는 것보고 ‘봉덕불’이라고 하지마는 선홀은 ‘봉덕

131) ‘부섭’은 초가 마루 뒤편에 마루청 밑으로 묻어 불을 때는 화로다.

132) ‘봉덕불’은 마루 바닥에 설치된 돌화로를 말하는 것으로 겨울에 난로 역할을 한다.

불' 없어, 선흠은.)

108008 @ 응.(응.)

108008 # 그 송당은 가민 봉덕 잊져. 화리 저 부엌에 막 불 살르는 거.(그 송당은 가민 '봉덕' 있어. 화로 저 부엌에 막 불 사르는 거.)

108008 @ 응, 응.(응, 응.)

108008 # 것ㄴ라 봉덕불이엔 허여.(그것복 '봉덕불'이라고 해.)

108008 @ 마리엔 그런 거 엇어?(마루엔 그런 거 없어?)

108008 # 마리에 엇어.(마루에 없어.)

108008 @ 응.(응.)

108008 # 것도 이 칸 집이나 헌 사름은 부엌이영 부뜨난에 그디 불살란게 살았주.(그것도 이 칸 집이나 한 사람은 부엌이랑 붙으니까 거기 불사르고 살았지.)

108008 @ 아니 저, 화리 님은 거.(아니 저, 화로 같은 거.)

108008 # 건 엇고, 구들에 막 화리 놔근에 숯불 살좌근에 추왓주.(건 엇고, 구들에 막 화로 놓고 숯불 살라서 쪼엿지.)

108008 @ 응.(응.)

108008 # 이젠 침 이추룩 전기여 뭐 허난 허주. 그뎨 화리, 화리.(이젠 참 이렇게 전기여 뭐 하니까 하지. 그뎨 화로, 화로.)

108008 @ 화리.(화로.)

108008 # 화리에 숯불 살좌.(화로에 숯불 살라.)

108008 @ 정동화리?(청동화로?)

108008 # 응, 구들마다 불살좌. 소님 오라도 불이 대접이엔 허영 겨울에.(응, 구들마다 불살라. 손님 와도 불이 대접이라고 해서 겨울에.)

108008 @ 무신거엔 행?(무엇이라고 해서?)

108008 # 불이 대접게. 소님 오민 불 추렌.(불이 대접. 손님오면 불 쪼라고.)

108008 @ 불이 대접?(불이 대접?)

108008 # 파썩 추운디 와 보라게, 불 추와살 거 아니?(파썩 추운디 와 봐라, 불 쪼야할 거 아니?)

108008 @ 예.(예.)

108008 # 게민 숯불 살좌근에 이젠 불 오래 가렌 불수까락 낱 막 재로 묻어, 불을.(그러면 숯불 살라서 이젠 불 오래 가라고 '불수까락' 놔서 막 재로 묻어, 불을.)

108008 @ 응.(응.)

108008 # 재기 피어불지 못허게.(빨리 피어버리지 못하게.)

108009 @ 아, 고팡엔 무신거 놓는 거파?(아, 고팡에는 무엇 놓는 것입니까?)

108009 # 고팡에?(고팡에?)

108009 @ 응.(응.)

108009 # 양식덜 낱주, 뭘 놔?(양식들 놓고 있지, 뭘 놔?)

108009 @ 어디 담양 놔?(어디 담아서 놔?)

108009 # 항에, 항에.(항아리에, 항아리에.)
 108009 @ 항에 담양?(항아리에 담아서?)
 108009 # 켈 부젓칩인 두지엔 현 퀘가 이서, 두지.(제일 부젓칩인 뒤주라고 한 퀘가 있어, 뒤주.)
 108009 @ 아, 두지에 놔.(아, 뒤주에 놔.)
 108009 # 그 막 부젓칩이 곡석 한 사름.(그 막 부젓칩이 곡식 많은 사람.)
 108009 @ 곡석 한 사름.(곡식 많은 사람.)
 108009 # 응.(응.)
 108009 @ 보통은 항에 담아?(보통은 항아리에 담아?)
 108009 # 항에 담았주.
 108009 @ 창곰?(항에 담았지. ‘창곰’?)
 108009 # 창고?(창고?)
 108009 @ 아니, 창곰.(아니, ‘창곰’.)
 108009 # 창곰이 무신거라, 아, 창꿈¹³³은이.(‘창곰’이 뭐야, 아, ‘창꿈’은.)
 108009 @ 응.(응.)
 108009 # 고팡에 그 저 영 이제 들로 다운 집이라도 창꿈을 내어 쪼끌락허게 창꿈.(고팡에 그 저 이렇게 이제 들로 쌓은 집이라도 창구멍을 내어 조그맣게 창구멍.)
 108009 @ 아, 창문처럼. 창꿈.(아, 창문처럼. 창구멍.)
 108009 # 응, 이젠 저 문덜 내지 안혜샤게? 그뎨 문을 못 내니까 돌 몇 개 영 빼어근에 축브름 블르멍 그디 창꿈 내어. 답답허여.(응, 이젠 저 문덜 내지 않니? 그뎨 문을 못 내니까 돌 몇 개 이렇게 빼어서 벽 바르면서 거기 창구멍 내어. 답답해.)
 108009 @ 창꿈 내어. 답답허난 바람 통허렌.(창구멍 내어. 답답하니까 바람 통하라고.)
 108009 # 응, 통허렌. 경헌디 그디도 잘헌 사름은 이제 중이나 고양이 못 들어가게, 그딜 낭 뤄 얼거근에 톡 놔.(응, 통하라고. 그런데 거기도 잘헌 사름은 이제 쥐나 고양이 못 들어가게, 거길 나무 뤄 얹어서 톡 놔.)
 108009 @ 응.(응.)
 108009 # 경 안행 텅 내불민 고냉이 들어갓닥 나왔닥 허여.(그렇게 안하고 터서 놔두면 고양이 들어갓다가 나왔다가 해.)
 108009 @ 맞아.(맞아.)
 108009 # 거 안 돼지, 창꿈 창꿈.(거 안 되지, 창구멍, 창구멍.)
 108009 @ 창꿈, 창꿈?(창구멍, 창구멍?)
 108009 # 응, 창꿈 내영. 초가집 혈 때 고팡에 창꿈 이서. 정지에도 창꿈 잇고.

133) ‘창꿈’은 ‘창곰, 창균, 창꿈’이라고도 하며 고팡 등에 바람을 통하게 하려고 벽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은 것이다.

(응, 창구멍 내어서. 초가집 할 때 고방에 창구멍 있어. 부엌에도 창구멍 있고.)

108009 @ 아, 정지에도 창꿈 잇고.(아, 부엌에도 창구멍 잇고.)

108009 # 내도 나가게.(연기도 나가게.)

108009 @ 내도 나가게.(연기도 나가게.)

108009 # 경혜난 거 창꿈.(그랬던 거 창구멍)

108009 @ 혹시 고팡에 칠성 이런 것도 해? 안칠성?(혹시 고팡에 칠성 이런 것도 해? ‘안칠성’.)

108009 # 아, 그런 건 이 제스 때에나.(아, 그런 건 이 제사 때에나.)

108009 @ 건 어떻 허는 거마씨?(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8009 # 그거는 집안에 이제 침 잘 뒹게, 곡석이영 잘 뒹게 해 줘센 혜영 칠성이엔 허영 헌텐 헌다게.(그거는 집안에 이제 침 잘 되게, 곡석이랑 잘 되게 해 주라고 해서 칠성이라고 해서 한다고 한다.)

108009 @ 아, 고팡에?(아, 고팡에?)

108009 # 응, 겨난 그디는 고팡을 차지헌텐 허여 가지고 고팡에도 올리곡 허단 이젠 구들에 그냥 올려.(응, 그러니까 거기는 고팡을 차지한다고 해 가지고 고팡에도 올리고 하다가 이젠 구들에 그냥 올려.)

108009 @ 아.(아.)

108009 # 고팡이 서게? 구들에 안네¹³⁴엔 허여 가지고.(고방이 있어? 구들에 ‘안네’라고 해 가지고.)

108009 @ 아.(아.)

108009 # 경허영 그 안넛상 이제도 논다게.(그렇게 해서 그 ‘안넛상’ 이제도 놓는다.)

108009 @ 우리도 안넛상 해.(우리도 ‘안넛상’ 해.)

108009 # 응.(응.)

108009 @ 본상, 큰상 옆이 허는 바닥에 하는 그 안넛상이 이거구나예?(본상, 큰상 옆에 하는 바닥에 하는 그 ‘안넛상’이 이거군요?)

108009 # 응, 바닥에 허여? 막 상 출렁 막.(응, 바닥에 해? 막 상 차려서 막.)

108009 @ 문전처럼 흐나씩 다 낵예?(문전처럼 하나씩 다 낵서요?)

108009 # 응, 문전상, 안넛상.(응, 문전상, ‘안넛상’)

108009 @ 이 동드레가 경허는구나.(이 동쪽에가 그렇게 하는구나.)

108009 # 서에도.(서쪽에도.)

108009 @ 친정에도 한번도 본 적이 엇언, 그런 거.(친정에도 한번도 본 적이 없었어, 그런 거.)

108009 # 어디고?(어디니?)

108009 @ 서귀포.(서귀포.)

134) ‘안네’는 고팡에 모시는 칠성신으로 ‘안칠성’, 또는 ‘고팡할망’이라고도 한다. 이 신들을 위한 제는 풍농과 고팡 안의 곡식을 잘 지켜 부를 이루게 해달라는 의미이다. 명절이나 제사 때 주부가 메·채소 등을 차린 제물을 안칠성의 거처인 고팡의 쌀독 뚜껑 위에 차려 놓는다.

108009 # 서귀포 혈 건디.(서귀포 할 건데.)

108009 @ 우리 동네 그런 거 안 허는데예, 이디 시집, 조천이 시집왔주마씨, 나도.(우리 동네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여기 시집, 조천에 시집왔어요, 나도.)

108009 # 조천이 덜허주.(조천이 덜하지.)

108009 @ 조천, 우리 시어머닌 함덕, 조천, 함덕이난 안넷상 허드라고마씨.(조천, 우리 시어머닌 함덕, 조천, 함덕이니까 ‘안넷상’ 하더라고요.)

108009 # 아. 무신 집고? 성이 뭐?(아. 무슨 집이냐? 성이 뭐?)

108009 @ 우리 조천 한씨.(우리 조천 한씨.)

108009 # 한씨.(한씨.)

108009 @ 시내는 안 허드라고. 고팡이 엇어부난인가?(시내는 안 하더라고. 고팡이 없어서인가?)

108009 # 고팡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린 제삿방에 ㄱ치 해분다, 이제.(고팡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린 제삿방에 같이 해버린다, 이제.)

108009 # 견디 대부분 보면은 서귀포가 신이 많아. 정의 메누리 허여오민 막 무섭게 생각헌다.(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서귀포가 신이 많아. 정의 며느리 해오면 아주 무섭게 생각한다.)

108009 @ 나 정의 아니, 대정.(나 정의 아니, 대정.)

108009 # 게 대정도 마찬가지로.(그러게 대정도 마찬가지로.)

108009 @ 하하하. 정의는 요쪽이고 요쪽. 대정골. 모슬포. 중문이.(하하하. 정의는 요쪽이고 요쪽. 대정골. 모슬포. 중문.)

108009 # 중문이 부제 세계로구나.(중문이 부자 세계로구나.)

108009 @ 아이고 참. 하하하.(아이고 참. 하하하.)

108010 @ 계민 정지 살림을 흐뭇 돌아봅서.(그러면 부엌 살림을 조금 말해보세요.)

108010 # 정지?(부엌.)

108010 @ 정지에 가민 무신거 이십니까?(부엌에 가면 무엇 있습니까?)

108010 # 조왕할마님.(조왕할머님.)

108010 @ 조왕할마님도 있고, 솟도 잇고.(조왕할머니도 있고, 솟도 있고.)

108010 # 응.(응.)

108010 # 솟 앓지는 딴 무신거라?(솟 안치는 데는 뭐야?)

108010 # 솟덕.(붓돌.)

108010 @ 솟덕.(붓돌.)

108010 # 것베끼, 살레허고.(그것밖에, 살강하고.)

108010 @ 살레도 잇고. 살레엔 무신거 뉘?(살강도 있고. 살강엔 무엇 뉘?)

108010 # 그릇덜 어프주게. 이젠 찻장이주마는 그땐 살레라고 해 가지고 붓살렛장이.(그릇들 엇지. 이젠 찬장이지마는 그땐 ‘살레’라고 해 가지고 ‘붓살렛장’이.)

108010 @ 응.(응.)

108010 # 못 아이 들영 짜, 그때도, 옛날.(못 안 들여서 짜, 그때도, 옛날.)
 108010 @ 아, 못 안 들영.(아, 못 안 들여서.)
 108010 # 냥으로만 그 목시가.(나무로만 그 목수가.)
 108010 @ 아.(아.)
 108010 # 우리 살레 짜 준 하르방도 죽어불엇저마는 우리 친정엔 살레가 좋아.
 (우리 살강 짜 준 할아버지도 죽어버렸지마는 우리 친정엔 살강이 좋아.)
 108010 @ 응.(응.)
 108010 # 또 마리에도 장방¹³⁵이 잇거든, 장방.(또 마루에도 ‘장방’이 잇거든,
 ‘장방’.)
 108010 @ 장방은 무신거?('장방'은 뭐?)
 108010 # 그 살레ㄱ추룩 문 네 개, 문 두 개 돌아근에 영 자치곡 허영 찻장 모
 냥으로.(그 살강처럼 문 네 개, 문 두 개 달아서 이렇게 짓히고 해서 찻장 모양으
 로.)
 108010 @ 무신거 답아?(무엇 답아?)
 108010 # 그디 하간 그릇 놓주게.(거기 온갖 그릇 놓지.)
 108010 @ 아, 그디도 그릇 놓는 거.(아, 거기도 그릇 놓는 거.)
 108010 # 젓그릇도 놓고, 장방.(제기도 놓고, ‘장방’.)
 108010 @ 장방.('장방'.)
 108010 # 이제 이 집 불 아이 칸 딴 그 장방 잇주게, 지금.(이제 이집 불 안 탄
 덴 그 ‘장방’ 있지, 지금.)
 108010 @ 응.(응.)
 108010 # 우린 스타에 불 카부난 장방도 엇어지고 영 새집을 짓엇주마는.(우린
 사타에 불 타버리니까 ‘장방’도 없어지고 이렇게 새집을 지엇지마는.)
 108010 @ 응.(응.)
 108010 # 그 옛날 초가집엔 우린 마리에 장방.(그 옛날 초가집엔 우리 마루에
 ‘장방’.)
 108010 @ 마리에 장방.(마루에 ‘장방’.)
 108010 # 또 부엌에는 살레.(또 부엌에는 살강.)
 108010 @ 살레.(살강.)
 108010 # 붓살레엔 허여근앵에.('붓살레'라고 해서.)
 108010 @ 무신 살레?(무슨 ‘살레’?)
 108010 # 붓살레게, 막 그냥 짜근앵이.('붓살레', 막 그냥 짜서.)
 108010 @ 붓살레, 불박이장.('붓살레', 불박이장.)
 108010 # 응, 짜근앵이 장방, 장방ㄱ추룩 헌 디 문이 세 칸 허민이.(응, 짜서 ‘장
 방’, ‘장방’처럼 한 데 문이 세 칸 하면.)
 108010 @ 응.(응.)

135) ‘장방’은 마루 구석에 찻장처럼 만들어서 제기나 그릇을 놓아 두는 곳이다.

108010 # 세 칸에 다 그릇 어프곡 허여. 옷살레, 옷칸ᄇ란 옷살레.(세 칸에 다 그릇 옳고 해. ‘옷살레’, 옷칸보고는 ‘옷살레’.)

108010 @ 응.(응.)

108010 # 셋살레 영 알장 경허멍 불러났저.(‘셋살레’ 이렇게 아랫장 그렇게 하면서 불렀었어.)

108010 @ 옷살레, 셋살레, 알장.(‘옷살레’, ‘셋살레’, ‘알장’.)

108010 # 알칸.(아랫칸.)

108010 @ 알칸?(아랫칸?)

108010 # 응, 갱 무시거 어디 놔시? 허민, 저 셋살레에 보라 경허고.(응, 그래서 무엇 어디 놔니? 하면, 저 셋살레에 보라그렇게 하고.)

108010 @ 아.(아.)

108010 # 옷살레 놔저 허고.(옷살레 놔어 하고.)

108010 @ 세 칸이라, 이게?(세 칸이야, 이게?)

108010 # 응.(응.)

108010 @ 오, 삼 단, 오, 이게 살레가.(오, 삼 단, 오, 이게 살강이.)

108010 # 경 살레가 좋아났어.(그렇게 살강이 좋았었어.)

108010 @ 응.(응.)

108010 # 첩 우리 어린 때 살아난 거 곱아가민 그짓말 님주마는 우린 초가집이라도 이문도이 널이문.(참 우리 어린 때 살았던 거 말해가면 거짓말 님지마는 우린 초가집이라도 대문도 널대문.)

108010 @ 널로 현 거?(널로 한 거?)

108010 # 안으로 낭으로 짜근앵이 그 올앗닥 더껏닥.(안으로 나무로 짜서 그 열었다가 닫았다가.)

108010 @ 응, 그 낭 다 어디 가 불엇수가? 다 타불언?(응, 그 나무 다 어디 가 버렸습니까? 다 타버렸어?)

108010 # 스삼스건에 문딱 케와불엇세계.(사삼사건에 모두 태워버렸어.)

108010 @ 응.(응.)

108010 # 죽헌 거, 마릿널. 이제 셔시민 그 널 비싸.(아까운 거, 마루청. 이제 있으면 그 널 비싸.)

108010 @ 응.(응.)

108010 # 굴무기, 굴무기나 무신 낭 막 크지. 첩 문이 탁 더깁, 탁 더깁 안으로 종그고 밤인. 우리 어린 때 이디 살 때 대도방 거리라났저. 올로 이 노인당 저편 집. 집도 좋아나고.(느티나무, 느티나무나 무슨 나무 아주 크지. 참 문이 탁 닫아서, 탁 닫아서 안으로 잠그고 밤엔. 우리 어린 때 여기 살 때도 ‘대도방’ 거리였어. 이리로 이 노인당 저편 집. 집도 좋았었고.)

108010 @ 향도 막 물항이나 이런 것도.(향아리도 막 물독이나 이런 것도.)

108010 # 향도이 지세독이 또 이서이.(향아리도 질향아리가 또 있어.)

108010 @ 응.(응.)

108010 # 지세독에 이제 물은 산두룩허여.(질항아리에 이제 물은 시원해.)

108010 @ 응.(응.)

108010 # 우리 어머니넨 부엌에 지세독을 놓면이 저 동넛 사름덜이 지세독엿 물 먹켄 허멍 물 먹으레 온다.(우리 어머니네 부엌에 질항아리를 놓으면 저 동네 사람들이 질항아리의 물 먹겠다고 하면서 물 먹으러 온다.)

108010 @ 응.(응.)

108010 # 여름에 실렵넨.(여름엔 차갑다고.)

108010 @ 아, 시원하고.(아, 시원하고.)

108010 # 밧디 갈 때도 지세독에 물 혼 췌만 쥐 경허멍 질영 가고 경헤났어.(밭에 갈 때도 질항아리에 물 한 병만 쥐 그렇게 하면서 걸어 가고 그랬었어.)

108010 @ 지세독은 그냥 향이영 틀러?(질항아리는 그냥 향아리랑 달라?)

108010 # 틀러.(달라.)

108010 @ 응.(응.)

108010 # 건이 저 지세허벅이엔 현 허벅이 이서. 흑으로 군 거.(그것은 저 질동이라고 한 동이가 있어. 흑으로 구운 거.)

108010 @ 예.(예.)

108010 # 그런 허벅은 장단 치민 소리가 잘 나.(그런 동이는 장단 치면 소리가 잘 나.)

108010 @ 아.(아.)

108010 # 이제 그런 허벅 엿어.(이제 그런 동이 없어.)

108010 @ 계난예.(그러니까요.)

108010 # 지세허벅. 그 지세허벅 장단 청 우리가, 우리 성님네 스삼사건 전이 들밤이 막 놀아났저.(질동이. 그 질동이 장단 쳐서 우리가, 우리 형님네 사삼사건 전에 달밤에 막 놀았었어.)

108010 @ 아.(아.)

108010 # 장단 치멍, 잡타령 불르멍, 열씨구나 노래.(장단 치면서, 잡타령 부르면서, 열씨구나 노래.)

108010 @ 응.(응.)

108010 # 거 불르멍이 막 놀레덜 오민 마당에 보리낭 짚꼭 멍석 폐와.(거 부르면서 막 놀러 오면 마당에 보릿짚 깔고 멍석 펴서.)

108010 @ 아.(아.)

108010 # 경헝 놀아난.(그렇게 해서 놀았었어.)

108010 @ 밤이. 무신 날 노는 거짜? 아니민.(밤에. 무슨 날 노는 겁니까? 아니면.)

108010 # 아니, 밤이 들이 팔월들 ㄱ쁜 때 으름에 칠월, 유월에는 너미 덥고.(아니, 밤에 달이 팔월 같은 때 여름에 칠월, 유월에는 너무 덥고.)

108010 @ 응.(응.)

108010 # 칠월 보름 넘어가민은 들밤이 그렇게 열도 안 허고, 춤도 안 허니까 놀기가 좋아.(칠월 보름 넘어가면 달밤에 그렇게 춤지도 않고, 춤지도 않으니까 놀기가 좋아.)

108010 @ 응.(응.)

108010 # 경허민 막 모영 놀아.(그러면 막 모여서 놀아.)

108010 @ 보름날?(보름날?)

108010 # 아니, 보름날이 아니고.(아니, 보름날이 아니고.)

108010 @ 보름날은 아니?(보름날은 아니?)

108010 # 그냥 그냥 어스름 때에 이제게 테레비가 시냐 허민게 모영 놀지. 낮이 강 검질메당덜.(그냥 그냥 어스름한 때에 이제 텔레비전이 있냐 하면 모여서 놀지. 낮에 가서 김매다가들.)

108010 @ 노래 불르멍?(노래 부르면서?)

108010 # 응. 노래도 막 좋고.(응, 노래도 아주 좋고.)

108010 @ 술도 먹고?(술도 먹고?)

108010 # 술은 안 먹어.(술은 안 먹어.)

108010 @ 술은 안 먹고, 막걸리.(술은 안 먹고, 막걸리.)

108010 # 막걸리도 안 먹고, 여즈덜.(막걸리도 안 먹고, 여자들.)

108010 @ 여자들은 그냥 허벅 치멍 노래 불르멍, 노래방이네.(여자들은 그냥 허벅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노래방이네.)

108010 # 우리 큰 성님 일본 간 이제 살았저. 이제 아흔 하나.(우리 큰 형님 일본 가서 이제 살았어. 이제 아흔 하나.)

108010 @ 응.(응.)

108010 # 그 우잇 어른덜이 막 놀고, 우리 성네ㄱ진 경 놀단.(그 위 어른들이 막 놀고, 우리 형네까진 그렇게 놀다가.)

108010 @ 춤도 영 추고?(춤도 이렇게 추고?)

108010 # 춤 추고 말 마.(춤 추고 말 마.)

108010 @ 하하하.(하하하.)

108010 # 그때 춤 잘 추주.(그때 춤 잘 추지.)

108010 @ 아.(아.)

108010 # 우린 어린 때라.(우린 어린 때야.)

108010 @ 응.(응.)

108010 # 겨난 성네 허는 거 들음만 헤났어. 장단 치는 거, 허벅 장단.(그러니까 형 하는 거 듣기만 했었어. 장단 치는 거, 허벅 장단.)

108010 @ 허벅 장단.(허벅 장단.)

108010 # 경허단 이제 츠츠 살장귀가 나난에 놀레 감도 살장귀 때리멍.(그러다가 이제 차차 설장구가 나니까 놀러 가는 것도 설장구 때리면서.)

108010 @ 살장귀가 장구?(‘살장귀’가 장구?)
 108010 # 장구. 모실포 갈 때도 장구 이 노인당에서도 아정간에.(장구. 모실포 갈 때도 장구 이 노인당에서도 가지고 가서.)
 108010 @ 응.(응.)
 108010 # 장구 치명 놀단 왔저. 수월봉.(장구 치면서 놀다가 왔어. 수월봉.)
 108010 @ 예, 수월봉.(예, 수월봉.)
 108010 # 수월봉 그디 간에 놀고. 제주도 일주 가면.(수월봉 거기 가서 놀고. 제주도 일주 가면.)
 108010 @ 응.(응.)
 108010 # 노래 불르멍 놀아.(노래 부르면서 놀아.)
 108010 @ 계난 물항도 안에, 정지 안에다 놓니까?(그러니까 물둥이도 안에, 부엌 안에다 놓니까?)
 108010 # 응.(응.)
 108010 @ 정지 바꿨디.(부엌 밖에.)
 108010 # 정지 베꿨디도 물항을 이제 물 하영 질어 놓젠 허민 베꿨디도 낡 향, 또 부엌엔 매일 질멍 다 낡 먹고 경헛주게.(부엌 밖에도 물둥이를 이제 물 많이 질어 놓으려고 하면 밖에도 놔서 한 동이, 또 부엌엔 매일 길면서 다 놔서 먹고 그랬었지.)
 108010 @ 그다음 불 솜아나민 불치?(그다음 불 때고나면 재?)
 108010 # 불치.(재.)
 108010 @ 불치도 모양 놔뵈당?(재도 모아 놔두었다가?)
 108010 # 밧디 뿌리고.(밭에 뿌리고.)
 108010 @ 불치 어디 모양 놔 뵈?(재 어디 모아 놔 뵈?)
 108010 # 불칫막¹³⁶⁾ 허는 사름은 허곡계, 그냥 밧디 저다 부는 사름 저가곡.(젓간 하는 사름은 하고, 그냥 밧에 저다 버리는 사름 저 가고.)
 108010 @ 아, 그냥. 계민 무신거양 거리는 부지깽이 무신거 이서?(아, 그냥. 그러면 무엇 뜨는 부지깽이 뭐 있어?)
 108010 # 불 솜는 거 썩썩 디무는 거 부지땡이.(불 때는 거 썩썩 들이미는 거 부지깽이.)
 108010 @ 부지땡이? 근데는 엇어?(부지깽이? 고무래는 없어?)
 108010 # 무사 엇어? 굴묵에 이제 불치 내영 근곡 허는 거. 구는데¹³⁷⁾.(왜 없어? ‘굴묵’에 이제 재 내어서 굽어내고 하는 거. ‘구는데’.)
 108010 @ 근데?(‘근데’?)
 108010 # 응, 구는데.(응, ‘구는데’.)

136) ‘불칫막’은 타고 남은 재나 퇴비 등을 모아두는 ‘젓간’의 제주어다.

137) ‘구는데’는 ‘근데’라고도 하는데 고무래의 제주어로 곡식을 그러모으고 퍼거나, 밧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굽어모으는 데에 쓰는 기구이다. 이 제보자는 곡식을 그러모으는 것은 ‘설레’, 재를 굽어모으는 것은 ‘구는데’라고 했다.

108010 @ 구는데.(‘구는데’.)
 108010 # 또 날레¹³⁸ 넣어근에 짓는 건 설레.(또 ‘날레’ 넣어서 짓는 건 ‘설레’.)
 108010 @ 아. 구는데, 설레.(아. ‘구는데’, ‘설레’.)
 108010 # 날레 넣엉 하간 곡식 넣엉 명석에 넣어근에 짓는 건 설레.(‘날레’ 넣어서 여러 곡식 넣어서 명석에 넣어서 짓는 건 ‘설레’.)
 108010 @ 응.(응.)
 108010 # 또 불치 내근는 건 구는데.(또 재 굽어모으는 것은 ‘구는데’)
 108010 @ 불치 허는 딴 구는데. 그럼 불치 허든 아까 구는데로 영 영.(재 하는 데는 ‘구는데’. 그럼 재 하면 아까 ‘구는데’로 이렇게 이렇게.)
 108010 # 응, 내긋어.(응, 굽어모아.)
 108010 @ 허곡 부지깁이?(하고 부지깁이?)
 108010 # 부지땡이론 불 디물고.(부지깁이로는 불 들이밀고.)
 108010 @ 부지땡이론 불 디물고.(부지깁이로는 불 들이밀고.)
 108010 # 경행 불 슴아낫주게.(그렇게 해서 불 때었었지.)
 108010 @ 불 슴양예.(불 때어서요.)
 108010 # 덕석, 명석은 알았신가?(덕석, 명석은 알고 있나?)
 108010 @ 덕석이영 명석이영 뭐가 달라, 근디?(덕석이랑 명석이랑 뭐가 달라, 그런데?)
 108010 # ㄹ따, 덕석이 명석.(같아, 덕석이 명석.)
 108010 @ 똑ㄹ튼 거 맞아? 근디 무사 이름은 트난고?(똑같은 거 맞아? 근데 왜 이름이 다른고?)
 108010 # 경허영 또 무시거 영 ㄹ뜨덴 말은이.(그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같다는 말은.)
 108010 @ 응.(응.)
 108010 # 덕석이 명석이주게.(덕석이 명석이지.)
 108010 @ 덕석이 명석이주게, 영 곤는 말은 들어난 거 다향.(덕석이 명석이지, 이렇게 하는 말은 들었던 거 같아.)
 108010 # 경 곤나게.(그렇게 말해.)
 108010 @ 그다음에 솟은, 솟도 여러 종류가 이실 거 아니꽈? 무신 솟, 무신 솔 이수과?(그다음에 솔은, 솔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솔, 무슨 솔 있습니까?)
 108010 # 솟은 크고 족은 거?(솔은 크고 작은 거?)
 108010 @ 응, 큰 솟, 족은 솟, 그냐?(응, 큰 솔, 작은 솔, 그냐?)
 108010 # 큰 솟, 족은 건게 웨말치¹³⁹여, 뉘 서말치¹⁴⁰여.(큰 솔, 작은 건 ‘웨말치’다, 뉘 ‘서말치’다.)

138) ‘날레’는 별을 찌기 위해 명석에 넣어 놓은 곡식이다.

139) ‘웨말치’는 솔 중에서 한 말이 드는 것으로 보통 밥을 해 먹는다.

140) ‘서말치’는 솔 중에서 서 말이 드는 것으로 보통 큰일이 있을 때 사용한다.

108010 @ 아, 웨말치, 서말치.(아, ‘웨말치’, ‘서말치’.)

108010 # 웨말치 보통으로 밥해 먹는 거고 서말치는 막 큰일 때에 이제 밥 하영 허는 거.(‘웨말치’는 보통으로 밥해 먹는 거고 ‘서말치’는 아주 큰일 때에 이제 밥 이렇게 하는 거.)

108010 @ 큰일 때 허는 거.(큰일 때 하는 거.)

108010 # 서말치.(‘서말치’.)

108010 @ 응, 솥예. 무쇠솥도 있고?(응, 솥요. 무쇠솥도 있고?)

108010 # 무쇠솥은 막 좋아난디 이젠 그 솥이 없어. 제주솥.(무쇠솥은 아주 좋았는데 이젠 그 솥이 없어. 제주솥.)

108010 @ 흐끔 쪼그만 솥은 뭐엔 곶아?(조금 쪼그만 솥은 뭐라고 말해?)

108010 # 동솥.(옹달솥.)

108010 @ 동솥, 죽은 거?(옹달솥, 작은 거?)

108010 # 응, 동솥 앓지는 또 덕도 쪼글락하게 허영 그디도 낭불 습아. 동솥 앓정.(응, 옹달솥 안치는 또 붓돌도 쪼그맣게 해서 거기도 나무불 때. 옹달솥 안쳐서.)

108010 @ 응, 동솥 아찌는 디.(응, 옹달솥 안치는 데.)

108010 # 이제 ㄹ치 냄비가 시냐? 그뎨이 쉼솥으로 동솥 쪼글락헌 거 이서. 시발췌¹⁴¹⁾도 나건 디가 오래지 안허고.(이제같이 냄비가 있니? 그뎨 쇠솥으로 옹달솥 쪼그만 거 있어. 삼발이도 나온 지가 오래지 않고.)

108010 @ 응.(응.)

108010 # 것도 오래지 안해서. 그냥 덕만 앓정 돌로. 저 큰 솥 앓지는 건 널르게 앓지고 죽은 솥 앓지는 거허고 동솥 앓지는 건 쪼글락하게 앓정 쭈쭈런히 앓정 무시거 반찬이나 헐 뎨 동솥디 지정 먹고.(그것도 오래지 않아서. 그냥 붓돌만 안쳐서 돌로. 저 큰 솥 안치는 건 넓게 안치고 작은 솥 안치는 거하고 옹달솥 안치는 건 쪼그맣게 안쳐서 나란히 안쳐서 무엇 반찬이나 할 때 옹달솥에 지쳐서 먹고.)

108010 @ 시발췌 무사 필요헌 거, 게문?(삼발이는 왜 필요한 거, 그러면?)

108010 # 시발췌이 말제에 그 동솥 앓정 불 습으민 좋아. 낭 때영 시발췌. 그것에 냄비도 앓정 해먹고.(삼발이는 나중에 그 옹달솥 안쳐서 불 때면 좋아. 나무 때어서 삼발이. 그것에 냄비도 안쳐서 해먹고.)

108010 @ 아, 솥덕에 앓지지 말고.(아, 붓돌에 안치지 않고.)

108010 # 응.(응.)

108010 @ 솥덕드레 앓지지 말앙 시발췌에 앓정 그디 불 습는 거라?(붓돌에 안치지 않고 삼발이에 안쳐서 거기 불 때는 거야?)

108010 # 응, 시발췌 그 솥 앞이 그냥 낡 부엌에, 부엌에서. 낭으로 때어져, 시발췌. 세발췌 이제도 이실 거여.(응, 삼발이는 그 솥 앞에 그냥 놔서 그냥 놔서 부엌에, 부엌에서. 나무로 뺄 수 있어, 삼발이. 삼발이는 이제도 있을 거야.)

141) ‘시발췌’는 둥근 쇠 데두리에 발이 세 개 달린 기구로 작은 솥, 냄비 등을 올려놓고 음식물을 끓이는 데 쓴다.

108010 @ 응. 그다음에 솟뚜껍은?(응, 그다음에 솟뚜껍은?)

108010 # 솟뚜껍이주 뭐.(솟뚜껍이지 뭐.)

108010 @ 그 솟 이시민 솟이 이렇게 있으면?(그 솟 있으면 솟이 이렇게 있으면?)

108010 # 솟전?(솟전?)

108010 @ 솟전은 무신거?(솟전은 뭐?)

108010 # 게 그 솟 그, 솟 영 바우ㄱ라 솟전이엔 허주게.(게 그 솟 그, 솟 이렇게 가장자리보고 솟전이라고 하지.)

108010 @ 솟 영, 솟 바우?(솟 이렇게, 솟 가장자리?)

108010 # 응.(응.)

108010 @ 솟 영 잡는 디? 솟 튀어난 디?(솟 이렇게 잡는 데? 솟 튀어난 데?)

108010 # 응.(응.)

108010 @ 거기 말고 위에 영 솟 윗부분 튀어난 디는?(거기 말고 위에 이렇게 솟 윗부분 튀어난 데는?)

108010 # 솟뚜껍이 꼭지?(솟뚜껍 꼭지?)

108010 @ 아니, 뚜껍에 잇는 거 말고. 솟귀는 무신거라?(아니, 뚜껍에 잇는 거 말고. 솟귀는 뭐야?)

108010 # 솟귀가 뭐라?(솟귀가 뭐야?)

108010 @ 솟전은 옆이 뱅 둘러진 거고예?(솟전은 옆에 뱅 둘러진 거고요?)

108010 # 응, 솟전 둘러꼭게 막 다끄젠 허민. 게난 옛날 제주인덜 살아난 게 그 거주게.(응, 솟전 둘러고 막 닦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옛날 제주인들 살았던 게 그 거지.)

108010 @ 응.(응.)

108011 @ 그다음에 문. 문설주, 문얼굴, 돌쩌귀, 문지방.(그다음에 문. 문설주, 문얼굴, 돌쩌귀, 문지방.)

108011 # 아, 돌쩌귀.(아, 돌쩌귀.)

108011 @ 응.(응.)

108011 # 돌쩌귀는 이제 쇠로 멩근 것ㄱ라 돌쩌귀라.(돌쩌귀는 이제 쇠로 만든 것보고 돌쩌귀야.)

108011 @ 쇠로 어떻 멘들아?(쇠로 어떻게 만들어?)

108011 # 돌쩌귀 멘드는 거 잇주게, 이제도.(돌쩌귀 만드는 거 있지, 이제도.)

108011 @ 응.(응.)

108011 # 그 쇠로 고망 딸랑 이젠 영 우이 거 들어가게시리 멘들앙.(그 쇠로 구멍 뚫어서 이젠 이렇게 위에 그거 들어가게 만들어서.)

108011 @ 응.(응.)

108011 # 그레 문 돌아근에 돌쩌귀가 암커, 수커가 잇주게.(거기에 문 달아서 돌쩌귀가 암컷, 수컷이 있지.)

108011 @ 아, 암켜, 수커가 잇어.(아, 암컷, 수컷이 있어.)

108011 # 계민 특허게 문 하나에 두 개 달아이. 우에 하나, 아래 하나.(그러면 특허게 문 하나에 두 개 달아. 위에 하나, 아래 하나.)

108011 @ 우에 하나, 아래 하나.(위에 하나, 아래 하나.)

108011 # 이거 문이면 요만이 돌쳐귀 하나 들고.(이거 문이면 요만큼 돌쳐귀 하나 달고.)

108011 @ 응.(응.)

108011 # 요기 하나 돌아근에 톡 돌아.(여기 하나 달아서 톡 달아.)

108011 @ 아.(아.)

108011 # 그것도이 중간에 난 거라. 옛날은 그 낭으로만, 낭으로만 이제 그 이 흠베기 멘들아 가지고.(그것도 중간에 난 거야. 옛날은 그 나무로만, 나무로만 이제 그 흠 만들어 가지고.)

108011 @ 응.(응.)

108011 # 문을 올앗다 헛닥 허단.(문을 열었다가 헛다가 하다가.)

108011 @ 응.(응.)

108011 # 그것도 발전해 가지고 돌쳐귀를 멘들아 가지고.(그것도 발전해 가지고 돌쳐귀를 만들어 가지고.)

108011 @ 응.(응.)

108011 # 이젠 우알에 돌아 가지고 문을 든 거라이.(이젠 위아래 달아 가지고 문을 단 거야.)

108011 @ 응.(응.)

108011 # 돌쳐귀 판나민 또 돌쳐귀 해당 박앙 문 허고, 고찌고.(돌쳐귀 판나면 또 돌쳐귀 해다가 박아서 문 하고, 고치고.)

108011 @ 응.(응.)

108011 # 경헝 돌쳐귀 그건. 문 드는 거. 경허고 옛날은 또이 구들에도 쌀문허 영이.(그렇게 해서 돌쳐귀 그건. 문 다는 거. 그리고 옛날은 또 구들에도 살문해서.)

108011 @ 응.(응.)

108011 # 그 돌쳐귀로 들고, 쌀문허영 지게문 이제 허고 창문도 쌀문이라.(그 돌쳐귀로 달고, 살문해서 지게문 이제 하고 창문도 살문이야.)

108011 @ 응.(응.)

108011 # 경허단 이 밀창¹⁴²도 츠츠츠츠 발전해 가지고 밀창을 든 거라.(그러다가 이 ‘밀창’도 차츠차츠 발전해 가지고 ‘밀창’을 단 거야.)

108012 @ 밀창은 뭐?(‘밀창’은 뭐?)

108012 # 미는 창. 미달이.(미는 창. 미달이.)

108012 @ 미는 창은 밀창이민 미는 문은 뭐엔 곶아?(미는 창은 ‘밀창’이면 미는 문은 뭐라고 말해?)

142) ‘밀창’은 미달이 창문이나 문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108012 # 거 ㄹ똥 거주게.(그거 같은 거지.)
 108012 @ 이런 문은?(이런 문은?)
 108012 # 이건 창문이고.(이건 창문이고.)
 108012 @ 이건.(이건.)
 108012 # 이건 지게문¹⁴³.(이건 지게문.)
 108012 @ 이게 지게문?(이게 지게문?)
 108012 # 응.(응.)
 108012 @ 지게문은 낭으로 똥 거 아니?(지게문은 나무로 된 거 아니?)
 108012 # 아니, 문을 낭으로 똥었던 돌쩌귀로 달았던 이것이 삼방더레 든 건 지게문이고.(아니, 문을 나무로 똥었던 돌쩌귀로 달았던 이것이 마루쪽으로 단 건 지게문이고.)
 108012 @ 삼방드레 든 건 지게문이고.(마루쪽으로 단 건 지게문이고.)
 108012 # 이건 또 창문이고 경현 거라.(이건 또 창문이고 그런 거야.)
 108011 @ 문에서 이 틀은 무신겨엔 곶아, 이런 틀?(문에서 이 틀은 무엇이라고 말해, 이런 틀?)
 108011 # 무시거 지방이주 뭐.(뭐 문지방이지 뭐.)
 108011 @ 밑에 거가 지방 아니?(밑에 것이 문지방 아니?)
 108011 # 이거 지방이고.(이거 문지방이고.)
 108011 @ 우에 거는?(위에 거는?)
 108011 # 웃지방.(‘웃지방’.)
 108011 @ 아, 웃지방.(아, ‘웃지방’.)
 108011 # 응, 웃지방, 알지방. 거 지방이주.(응, ‘웃지방’, ‘알지방’. 거 문지방이지.)
 108011 @ 문 담젠 허민 문틀이 이실 거 아니짜, 크게? 무시겨엔 곶아?(문 담으려고 하면 문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크게? 뭐라고 말해?)
 108011 # 무시겨엔 허여, 무똥¹⁴⁴, 무시겨엔 곶을 게 이서?(뭐라고 해, ‘무똥’밖에, 뭐라고 말할 게 있어?)
 108011 @ 뭐?(뭐?)
 108011 # 무똥, 무똥.(‘무똥’, ‘무똥’.)
 108011 @ 무똥.(‘무똥’.)
 108011 # 지게 무똥게, 창 무똥 그거주게.(‘지게무똥’, ‘창무똥’ 그거지.)
 108011 @ 어디가?(어디가?)
 108011 # 아, 이것도 영 올민 이거 무똥 아니가? 지게무똥.(아, 이것도 이렇게

143) ‘지게문’은 옛날식 가옥에서, 마루와 방 사이의 문이나 부엌의 바깥문으로 흔히 돌쩌귀를 달아 여닫는 문이다.

144) ‘무똥’은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라고 『제주어사전』(2009)에 설명되어 있으나 ‘문 앞’이나 ‘문밖’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지게무똥’은 지게문 앞, ‘창무똥’은 창문 앞의 의미가 된다.

열면 이거 ‘무똥’ 아니냐? ‘지계무똥’.)

108011 @ 응.(응.)

108011 # 대무똥, 창무똥 그거주게.(‘대무똥’, ‘창무똥’ 그거지.)

108011 @ 그냥 무똥.(그냥 ‘무똥’.)

108011 @ 응.(응.)

108011 # 그건 도에 산 걸 무똥이엔 허는 거 아니?(그건 입구에 선 걸 ‘무똥’이라고 하는 거 아니?)

108011 # 아니, 이거 올양계, 이것이 무똥이주게, 무똥으로 들어가꼭 나오꼭계.(아니, 이거 열어서, 이것이 ‘무똥’이지, ‘무똥’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108011 @ 무똥은 지계무똥 이렇게 얘기 한다고예?(‘무똥’은 ‘지계무똥’ 이렇게 얘기 한다고요?)

108011 # 응.(응.)

108012 @ 옆으로 영 미는 거는 지계문?(옆으로 이렇게 미는 거는 지계문?)

108012 # 영 올라, 영. 지계문. 이추록 미단을 안허고서 영 양쪽에 두 개 달아 이 지계문도. 두 개 돌아근에 영 마주 더꺼, 쌀창으로. 경행 돌쳐귀 돌아난, 그거.(이렇게 열어, 이렇게. 지계문. 이렇게 미단을 안하고 이렇게 양쪽에 두 개 달아 지계문도. 두 개 달아서 이렇게 마주 달아, 쌀창으로. 그렇게 돌쳐귀 달았었어, 그거.)

108012 @ 종이 바르는 건 창호지? 뭐 불릅니까, 문에.(종이 바르는 건 창호지? 뭐 바릅니까, 문에.)

108012 # 창호지로도 불르고.(창호지로도 바르고.)

108012 @ 옛날에.(옛날에.)

108012 # 옛날 창호지도. 하영 창호지로 불랐주.(옛날 창호지도. 많이 창호지로 발랐지.)

108012 @ 응, 이런 창문에 쪼그만한 유리 부쩌근에, 누게 왓신고 보는 거 그건 무신거엔 글아?(응, 이런 창문에 쪼그마한 유리 붙여서, 누구 오나 보는 거 그건 뭐라고 말해?)

108012 # 가라스 흐뎡 불른 거, 부쩍 거엔 헤낫어.(글라스 조금 바른 거, 붙인 거라고 했었어.)

108012 @ 응, 가라스 부쩍 거.(응, 글라스 붙인 거.)

108012 # 밀창이 밀창은 이제 창호지 불라노민 답답허거든.(밀창이 밀창은 이제 창호지 발라놓으면 답답하거든.)

108012 @ 응.(응.)

108012 # 거민 칸 흐뎡 냉경 그디 가라스 박아낫어. 유리 박아, 유리.(그러면 칸 조금 남겨서 거기 글라스 박았었어. 유리 박아, 유리.)

108012 @ 그니까 거 무신거엔 글아?(그러니까 그거 무엇이라고 말해?)

108012 # 창꿈, 창꿈.(창구멍, 창구멍.)

108012 @ 창꿈.(창구멍.)
108012 # 창꿈 헉꿈 내영.(창구멍 조금 내어서.)
108012 @ 응.(응.)
108012 # 가라스 불량. 것도 중간에.(글라스 발라서. 그것도 중간에.)
108012 @ 중간에.(중간에.)
108012 # 가라스 나온 때. 영 허영 가라스 하나 부찌근에 무똥으로 누게 들어와 가민 그레 바래여, 창꿈 내영.(글라스 나온 때. 이렇게 해서 글라스 하나 붙여서 ‘무똥’으로 누가 들어와 가면 그리로 봐, 창구멍 내어서.)
108012 @ 그른 구멍 이렇게 고망 뜰라진 건 구멍, 고망 무신거엔 콜아?(그러면 구멍 이렇게 구멍 뚫린 건 구멍, 구멍 무엇이라고 말해?)
108012 # 무신거 고망 뜰라진 게 셔. 창꿈이주.(뭘 구멍 뚫린 거 있어. 창구멍이지.)
108012 @ 고망 뜰라진 거엔예?(구멍 뚫린 거라고요?)
108012 # 창꿈이주게.(창구멍이지.)
108012 @ 그른 아까 영 미는 문은 밀문.(그러면 아까 이렇게 미는 문은 밀문.)
108012 # 응.(응.)
108012 @ 영 열었다 닫았다 허는 문은 무신거?(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문은 뭐?)
108012 # 지게문, 지게문.(지게문, 지게문.)
108012 @ 건 다 지게문.(건 다 지게문.)
108012 # 계난 이 그 지게문을 다 테두고 이 밀문을 헛다고.(그러니까 이 그 지게문을 다 떼어두고 이 밀문을 헛다고.)
108012 @ 아, 지게문을 테두고 밀문을 헛다고.(아, 지게문을 떼어두고 밀문을 헛다고.)
108012 # 말제라 가난.(나중예라 가니까.)
108012 @ 이 안에 이렇게 살 박아진 문은 무신 문이라?(이 안에 이렇게 살이 박힌 문은 무슨 문이야?)
108012 # 쌀문.(살문.)
108012 @ 건 그냥 쌀문.(건 그냥 살문.)
108012 # 응, 쌀문 헤연 다 양쪽으로 더끄고 올고 두 겔 들앗단, 지게문을 들앗단이 츠츠츠 발전해 가난 그 지게문 다 테어뵤 밀문 허는 사람이 셔났저.(응, 살문 해서 다 양쪽으로 덮고 열고 두 겔 달았다가, 지게문을 달았다가 차차차차 발전해 가니까 그 지게문 다 떼어두고 밀문 하는 사람이 있었어.)
108012 @ 응.(응.)
108012 # 창문도 쌀문 헛단에. 또 창문도 두 개라이.(창문도 살문 헛다가. 또 창문도 두 개야.)
108012 @ 응.(응.)

108012 # 안넛문, 것창.(안문, 곁창.)
108012 @ 안넛문은 것창?(안문은 곁창?)
108012 # 아니, 속엿문은 그냥 문이고.(아니, 속의 문은 그냥 문이고.)
108012 @ 응, 속엿문은 문이고, 베꿏디 이신 건.(응, 속의 문은 문이고, 밖에 있는 건.)
108012 # 것창, 것창.(곁창. 곁창.)
108012 @ 것창.(곁창.)
108012 # 것창 드는 것도 출린 집, 것도. 두 개 문 것창 들앙.(곁창 다는 것도 차린 집, 그것도. 두 개 문 곁창 달아서.)
108012 @ 응, 건 출린 집. 계난 잠깐 널로 만든 문은?(응, 그건 차린 집. 그러니까 잠깐 널로 만든 문은?)
108012 # 널로 만든 문은 이 안엔 엇고게.(널로 만든 문은 이 안에는 없고.)
108012 @ 응.(응.)
108012 # 안엔 엇고.(안에는 없고.)
108012 @ 밖에 대문이나 허젠 허민 널문이엔 곁아?(밖에 대문이나 하려고 하면 널문이라고 말해?)
108012 # 응, 널문. 이문 드는 디 널문 들고.(응, 널문. 대문 다는 데 널문 달고.)
108012 @ 게문 요렇게 문 흐꿈예, 사이에 곁망이영 난 문틈, 트멍?(그러면 요렇게 문 조금요, 사이에 구멍이랑 난 문틈, 틈?)
108012 # 응, 문틈, 문트멍.(응, 문틈, 문틈.)
108012 @ 문트멍?(문틈?)
108012 # 응.(응.)
108012 @ 아까 돌쳐귀가.(아까 돌쩌귀가.)
108012 # 지계문 돌아난 거.(지계문 달았던 거.)
108012 @ 암커, 수커.(암컷, 수컷.)
108012 # 암커, 수커 잇주게.(암컷, 수컷 있지.)
108012 @ 암커, 수커를.(암컷, 수컷을.)
108012 # 흐난이 그 지계문에 어떻 돌아시냐면 여기는 암커 이제 돌쳐귀 박아 이.(그러니까 그 지계문에 어떻게 달았었냐면 여기는 암컷 이제 돌쩌귀 박아.)
108012 @ 응.(응.)
108012 # 여기 박아 낱 요 문에는 수커 영 찢르는 거.(여기 박아 놓고 요 문에는 수컷 이렇게 찢르는 거.)
108012 @ 응.(응.)
108012 # 영행 요렇게 문에 이렇게 헤영 암커, 수커.(이렇게 해서 요렇게 문에 이렇게 해서 암컷, 수컷.)
108012 @ 암틀쳐귀, 수틀쳐귀 영 곁옵니까?(암틀쩌귀, 수틀쳐귀 이렇게 말합니

까?)

108012 # 경헝게 돌쳐귀 사레 가면.(그렇게 해서 돌쳐귀 사리 가면.)

108012 @ 응.(응.)

108012 # 이제 그 암커 판나면 요 구멍난 거 판나면 암돌쳐귀 풀렌허고, 수커 풀렌허고 경헝주게.(이제 그 암컷 판나면 요 구멍난 거 판나면 암톨쳐귀 팔라고 하고, 수컷 팔라고 하고 그렇게 했지.)

108012 @ 응.(응.)

108012 # 경혜난. 우리 거 막 어느 옛날 거, 아주 옛날.(그렇게 했었어. 우리 거 막 어느 옛날 거, 아주 옛날.)

108012 @ 계난예.(그러니까요.)

108012 # 아주 옛날 이제 쌀창으로 창문도 들고 지계문도 든 때 혜난 거라, 그 거.(아주 옛날 이제 살창으로 창문도 달고 지계문도 단 때 했던 거라, 그거.)

108012 @ 응. 문을.(응. 문을.)

108012 # 목시덜토 속앗주게, 쌀창을 허젠 허민.(목수들도 고생했지, 살창을 하려고 하면.)

108012 @ 하하하.(하하하.)

108012 # 그 낭을 막 즈질이 오려 가지고. 또 그 문 사이가이 요만씩 허여, 요만씩.(그 나무를 아주 가늘게 오려 가지고. 또 그 문 사이가 요만큼씩 헤, 요만큼씩.)

108012 @ 응.(응.)

108012 # 고망이 요만씩헌 거. 니귀반득 니귀반득허게 허영 쌀창 찍각허게 들양.(구멍이 요만큼씩한 거. 네모반듯 네모반듯하게 해서 살창 뽁뽁하게 달아서.)

108012 @ 응.(응.)

108012 # 겹 창호지도 불량 탁 들고.(그렇게 해서 창호지도 발라서 탁 달고.)

108012 @ 종이 불량.(종이 발라서.)

108012 # 응, 탁 돌아.(응, 탁 달아서.)

108012 @ 응.(응.)

108012 # 게 옛날 그 새각시 보레도 가민 그 창고망 영 손 행 터지왕 창고망으로 바레고. 새각시 탐정 들영덜 막.(그렇게 옛날 그 새색시 보러도 가면 그 창구멍 이렇게 손 해서 터뜨려서 창구멍으로 보고. 새색시 탐정해서들 막.)

108012 @ 하하하.(하하하.)

108012 # 어떻 웃겨난 중 알압디? 결혼허민 새각시 새서방 말 곤는 거 보젠.(어떻게 웃졌던 줄 아니? 결혼하면 새색시 새신랑 말하는 거 보려고.)

108012 @ 난예 그거 종이 영 탁 터치른 소리가 퍽 나잖아. 거 재미난 옆에 것도 옆 칸에 강 퍽.(난요 그거 종이 이렇게 탁 뚫으면 소리가 퍽 나잖아. 그거 재미 있어서 옆에 것도 옆 칸에 가서 퍽.)

108012 # 거 어린 때 방대헝엿구나게.(거 어릴 때 장난했구나.)

108012 @ 막 얘기 때.(아주 얘기 때.)

108012 # 또 그 새각시 보는 사름덜은이 춤 특 불랑 강.(또 그 새색시 보는 사 람들은 춤 특 발라서 가서.)

108012 @ 소리 안 나게.(소리 안 나게.)

108012 # 창호지계 오죽 물만 가민 터지는 거 아니가게? 계난 춤 불라근에. 애 기덜 놀렌 허민이 창고냥 문딱 터지와 불어.(창호지 오죽 물만 가면 터지는 거 아니 냐? 그러니까 침 발라서. 애기들 놀라고 하면 창구멍 모두 뚫어 버려.)

108012 @ 하하하.(하하하.)

108012 # 영행 콧코 터지와 불어. 우리도 어린 아이덜 경 터지우는 거 봐난. 아 이고계 창고망 터주지 말라, 터주지 말라. 거 재미로게 터지와 불어.(이렇게 해서 콧코 뚫어 버려. 우리도 어린 아이들 그렇게 뚫는 거 봤었어. 아이고계 창구멍 뚫지 말라, 뚫지 말라. 거 재미로 뚫어 버려.)

108012 @ 재미로, 소리 나니까.(재미로, 소리 나니까.)

108012 @ 문 손잡이.(문 손잡이.)

108012 # 문 걸쇄, 문걸장?(문고리, 문빗장.)

108012 @ 아, 잠깐만. 문고리.(아, 잠깐만. 문고리.)

108012 # 문고리.(문고리.)

108012 @ 잠그려고 하는 거. 아까 무신거라? 문걸상?(잠그려고 하는 거. 아까 뭐야? '문 걸상'?)

108012 # 문걸장, 걸장.(문빗장, 빗장.)

108012 @ 문걸장.(문빗장.)

108012 # 응, 문고리엔도 허고게.(응, 문고리라고도 하고.)

108012 @ 문고리엔도 허고.(문고리라고도 하고.)

108012 # 걸장이엔도 허고.(빗장이라고도 하고.)

108012 @ 문걸장이엔도.(문빗장이라고도.)

108012 # 걸쇄 걸라, 영허영.(걸쇠 걸어라, 이렇게 해서.)

108012 @ 걸쇄 걸라, 영예.(걸쇠 걸어라, 이렇게요.)

108012 # 걸쇄.(걸쇠.)

108012 @ 자물쇄?(자물쇠?)

108012 # 걸쇄라고 허여 걸쇄. 문에 그 종그곡 여는 그 걸쇄가 이서, 걸쇄. 것도 이 돌쳐귀 흐나 박아근앵이 걸쇄 병동글락헌 거 멘들앙 것도 돌쳐귀 들어야 돼어. (걸쇠라고 해서 걸쇠. 문에 그 잠그고 여는 그 걸쇠가 있어, 걸쇠. 그것도 돌쳐귀 하나 박아서 걸쇠 동그란 거 만들어서 그것도 돌쳐귀 들어가야 돼.)

108012 @ 영행 영 찢르는 거예?(이렇게 해서 이렇게 찢르는 거요?)

108012 # 응, 돌쳐귀에 이제 그 열쇄 영 허영 또로 통쇄로 종그곡.(응, 돌쳐귀에 이제 그 열쇠 이렇게 해서 또 자물쇠로 잠그고.)

108012 @ 돌쳐귀?(돌쳐귀?)

108012 # 응, 돌쳐귀게.(응, 돌쳐귀.)
108012 @ 돌쳐귀 맞아.(돌쳐귀 맞아.)
108012 # 그 문에 열쇠 걸젠 해도 돌쳐귀가 들어야 돼어.(그 문에 열쇠 걸려고 해도 돌쳐귀가 들어야 돼.)
108012 @ 응.(응.)
108012 # 양펜이, 양펜이 이제 돌쳐귀 이펜 문에 하나 박고 열쇠 돌아맡 거 하나 박곡 허영. 열쇠로 툇허게 걸영 종가야지.(양쪽에, 양쪽에 이제 돌쳐귀 이쪽 문에 하나 박고 열쇠 달아맡 거 하나 박고 해. 열쇠로 툇허게 걸어서 잠가야지.)
108012 @ 응.(응.)
108012 # 열쇠, 걸쇠.(열쇠, 자물쇠.)
108012 @ 걸쇠.(자물쇠)
108012 # 걸쇠 돌아. 경허영 통쇠에 열쇠 헛다근에.(자물쇠 달아. 그렇게 자물쇠에 열쇠 헛다가.)
108012 @ 통쇠여, 열쇠여 헛지예?(자물쇠다, 열쇠다 헛지요?)
108012 #이제도 통쇠, 열쇠사 허주마는 그때도 그 걸쇠 걸어사.(이제도 자물쇠, 열쇠야 하지마는 그때도 그 자물쇠 걸어야.)
108012 @ 통쇠, 열쇠.(자물쇠, 열쇠.)
108012 # 응.(응.)
108012 @ 쟁 열어사.(그래서 열어야.)
108012 # 응. 열어근앵이 어디 갈 때민 문 종강 걸쇠 걸영.(응. 열어서 어디 갈 때면 문 잠가서 자물쇠 걸어서.)
108012 @ 그른 열쇠 일러불민 어떻 허여?(그러면 열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108012 # 일러불민 또 통쇠 멩글아야지.(잃어버리면 또 자물쇠 만들어야지.)
108012 @ 부시지 앗고?(부수지 앗고?)
108012 # 부시지 안허여, 그 열쇠 장시신디 강 사야돼주, 또로게. 이젠 전화만 허민 허주마는 참 판나 노민 큰 곤란이주. 부술 수 앗어.(부수지 앗아, 그 열쇠 장사에게 가서 사야 되지, 또. 이젠 전화만 하면 하지마는 참 판나 놓으면 큰 곤란이지. 부술 수밖에 앗어.)
108012 @ 계난.(그러니까.)
108012 # 이젠 우리가 저런 도아문 방에 우리도, 우리냥으로 못허민 불르민 왕 허여준다게. 열쇠 그 허는 디가 잇주. 옛날은 그런 디가 앗주게, 전화가 시냐, 무신 거.(이젠 우리가 저런 도어문 방에 우리도, 우리대로 못하면 부르면 와서 해줘. 열쇠 그 하는 데가 있지. 옛날은 그런 데가 앗지, 전화가 있니, 뭐.)
108012 @ 맞아예.(맞아요.)
108012 # 흐 번 판나민 어류와, 어류와.(한 번 판나면 어려워, 어려워.)
108012 @ 할머니네 집이 췌 앗어, 췌?(할머니네 집에 췌는 앗어, 췌?)
108012 # 췌 앗다, 옛날 다 데껴 불언.(췌 앗다, 옛날 다 던져 버렸어.)

108012 @ 다 데껴 붙었?(다 던져 버렸어.)

108012 # কে 놔두게 해서냐? 흐뭇 준 건 다.(케 놔두게 했니? 조금 좋은 건 다.)

108012 @ 딸이 가정 가붙었주.(딸이 가져 가버렸지.)

108012 # 아니.(아니.)

108012 @ 사삼에 다 타부언.(사삼에 다 타버렸어.)

108012 # 사삼에 타분디 그루후제 사다 논 것도 케 장시 오란 멘막 앓아가 붙었세, 고물로, 고물로.(사삼에 타버렸는데 그 후에 사다 놓은 것도 케 장사 와서 모두 가져가 버렸어, 고물로, 고물로.)

108012 @ 아. 케에 무사 영 쉼로 박아진 거 이수게?(아. 케에 왜 이렇게 쇠로 박은 거 있잖아요?)

108012 # 응, 장식, 장식.(응, 장식, 장식.)

108012 @ 그냥 장식?(그냥 장식?)

108012 # 장식 박은 거.(장식 박은 거.)

108012 @ 응.(응.)

108012 # 우리 막 옛날 거 요작사 풀아 비었저. 저 헛간에 나둔 거. 하간 기물 덜 뇌난. 하도 플렌헤도 안 풀앗단.(우리 아주 옛날 거 요전에야 팔아버렸어. 저 헛간에 놔둔 거. 온갖 기물들 놔뒀었어. 하도 팔라고 해도 안 팔다가.)

108012 @ 풀지 말아야 돼여.(팔지 말아야 돼.)

108012 # 요 어느젠 풀아 붙었저.(요 언젠 팔아 버렸어.)

108006 @ 흑질허는 거?(흙질하는 거?)

108006 # 흑질허는 거? 이젠 이 축브름도 낭 뇌근에 이제 예끼는 거라. 노로 예껴. 이 낭 축브름을 흑질헝 블라.(흙질하는 거? 이젠 이 벽도 나무 뇌서 이제 엮는 거야. 노로 엮어. 이 나무 벽에 흑질해서 발라.)

108006 @ 흑질헝 블르는 건 어떻 허는 거?(흙질해서 바르는 건 어떻게 하는 거?)

108006 # 흑 꾸영 막 마당에서 흑.(흙 이겨서 막 마당에서 흙.)

108006 @ 어디 강 흑 가정와?(어디 가서 흑 가져와?)

108006 # 흑덜 어디 강 과당.(흙들 어디 가서 과다가.)

108006 @ 흑 꾸어? 물 낵?(흙 이겨? 물 뇌서?)

108006 # 물 낵 흑 췌 땀 보리낭이나 산뒹낭이나 이젠 꾸어가멍 막 담아낵 ㄱ 시락이나. 게민 이제 축브름에 블르는 거라.(물 뇌서 흙 이길 땀 보리짚이나 밭벼짚이나 이젠 이겨가면서 막 담아뇌서 까끄라기나. 그러면 이제 벽에 바르는 거야.)

108006 @ 마당에서 췌 땀 어떻 사름이 허여?(마당에서 이길 땀 어떻게 사름이 해?)

108006 # 사름으로 막 블르당 췌로 블라, 췌로. 흑 꾸는 노래도 나왔주게. 흑 꾸는 노래. 제주인덜 해난 거.(사람이 막 밟다가 소로 밟아, 소로. 흙 이기는 노래도 나왔지. 흙 이기는 노래. 제주인들 했던 거.)

108006 @ 불량 그다음은?(뵈아서 그다음은?)

108006 # 소리허멍. 경헌 다음 불량. 경허고 집도 허젠 허민이 이 지방우이 이 제는 스라브 허는디 그뻐이 지방우이도 이젠 낭으로 헤낭 그 줌진 낭 헤다근에 서 리라고 해서 든 예껴이.(소리하면서. 그런 다음 뵈아. 그리고 집도 하려고 하면 이 지방 위에 이젠 슬레이트 하는데 그뻐 지방 위에도 이젠 나무로 헤놓고 그 자잘한 나무 헤다가 서까래라고 해서 모두 엮어.)

108006 @ 응.(응.)

108006 # 초가집 지슬 때 경행 이제 우이 흑 끼엿 지방 우터레 막 올려덜. 이디 서 쾨거 흑흑 앓앙 잡아 데껴.(초가집 짓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 흑 이겨서 지방 위에 막 올려. 여기서 이긴 거 흑흑 가져다가 잡아 던져.)

108006 @ 어떻 올려?(어떻게 올려?)

108006 # 들렁도 올리고게 그냥 손으로도 흑흑 데끼고 경행 이제 즈근즈근 지방 우이 다 깔아낭 그 다음 새 더껴, 그다음 새 더껴. 새로 올릴 때.(들어서도 올리고 그냥 손으로 흑흑 던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지방 위에 다 깔아놔서 그 다음 띠 덮어, 그다음 띠 덮어. 띠로 올릴 때.)

108006 @ 아.(아.)

108006 @ 손으로 다 헤수과?(손으로 다 했습니까?)

108006 # 어, 손으로, 손으로 영 불량, 다. 축벼름도 불르고 천장 우이도 불르고.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허민.(응,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발라, 다. 벽도 바르고 천장 위에도 바르고.)

108006 @ 응.(응.)

108006 # 흑 끼는 노래도 이디 나와, 제주인덜 헤난 거. 그거 헐 뻐 막 소리허멍. 흑끼는 노래가 나올 뻐 나오고 그냥 노래 사대소리 많이 나오지.(흑 이기는 노래도 여기 나와. 제주인들 헤던 거. 그거 할 뻐 막 소리하면서. 흑 이기는 노래 나올 뻐 나오고 그냥 노래 사대소리 많이 나오지.)

108006 @ 아까 흑에 여껏잖아, 보리 낭때기랑 뭉랑 째세기 거 뭉렌 곶아?(아까 흑 이겼잖아, 보릿대랑 뭉랑 째 거 뭉라고 말해?)

108006 # 흑 끼는 거?(흑 이기는 거?)

108006 @ 응.(응.)

108006 # 수세¹⁴⁵.(‘수세’.)

108006 @ 수세? 수세렌 헤, 그거?(‘수세’? ‘수세’라고 해, 그거?)

108006 # 수셀 놔야 흑 끼어근엿이 저 고지도 올리곡 축벼름도 불르고.(‘수세’ 놔야 흑 이겨서 그 지방도 올리고 벽도 바르고.)

108006 @ 수세 말앙 다른 말은 엿고?(‘수세’ 말고 다른 말은 없고?)

#108006 엿어. 그 산뽕째이나 하간 거 답아 놓는 것ㄴ라 수세 많이 노라.(없어.)

145) ‘수세’는 흑을 이길 때 뽕째이나 띠 등을 말하고 이것을 섞어야 벽이나 지방에 바른 흑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발벼짚이나 여러 가지 담아 놓는 것보고 ‘수세’ 많이 뇌라.)

108006 @ 아, 수세렌 해 그것도?(아, ‘수세’라고 해 그것도?)

108006 # 응, 수세 족다, 경허엿주. 수세 노렌.(응, ‘수세’ 적다, 그렇게 했지, ‘수세’ 놓으라고.)

108006 @ 마리 허젠 허믄 마리 판을 놀 거 아니꽈?(마루 하려고 하면 마루 판을 놓을 거 아닙니까?)

108006 # 응. 귀클.(응. 귀틀.)

108006 @ 귀클.(귀틀.)

108006 # 마리널 영 박을 때 이제 가운데 영 놀 때 귀클 그건 귀클. 마릿널 박을 때. 귀클을 잘 뇌사, 귀클이 돈돈해사 마릿널을 툽툽 박아 가, 옛날.(마루청 이렇게 박을 때 이제 가운데 이렇게 놓을 때 귀틀 그건 귀틀. 마루청 박을 때. 귀틀을 잘 뇌야. 귀틀이 단단해야 마루청을 툽툽 박아 가, 옛날.)

108006 @ 흑 바를 때 가로 여기 영 낭으로 가로로 세로로 영 놓는 거 아까 무신거엔 골앗수과?(흑 바를 때 가로 여기 이렇게 나무로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놓는 거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06 # 이거 축브름 엷는 거. 그거 저.(이거 벽 엷는 거. 그거 저.)

108006 @ 낭으로.(나무로.)

108006 # 낭으로 멩글 때. 꺾사 골아된.(나무로 만들 때. 아까 말해두고.)

108006 @ 응, 꺾사 골으신디.(응, 아까 말했는데.)

108006 # 아이고. 거왕, 거왕. 거왕 매는 거 오까리, 오까리.(아이고. 평고대, 평고대. 평고대 매는 거 ‘오까리’, ‘오까리’.)

108006 @ 오까리?(‘오까리’?)

108006 # 응, 오까리 낭 존존헌 거허곡 대막대기로도 억곡, 대로도 억고.(응, ‘오까리’ 나무 자잘한 거하고 대막대기로도 엷고, 대로도 엷고.)

108006 @ 오까리로 무얼 만든 거지?(‘오까리’로 무얼 만든 거지?)

108006 # 저게 고지 가근에 줌지롱헌 낭을 그차 온 거마라 오까리엔 허여.(저게 숲에 가서 자잘한 나무를 잘라 온 거보고 ‘오까리’라고 해.)

108006 @ 거난 그 오까리로.(거난 그 ‘오까리’로.)

108006 # 이제 축브름을 엷어.(이제 벽을 엷어.)

108006 @ 응.(응.)

108006 # 스끼 꼬양.(새끼 꼬아서.)

108006 @ 스끼 꼬양.(새끼 꼬아서.)

108006 # 엷어근엷이 저 흑 블라. 축브름에. 흐쓸허민 축 뜯엷.(엷어서 저 흑 블라. 벽에 조금 하면 벽 뜯어서.)

108006 @ 축바람이 벽.(‘축바람’이 벽?)

108006 # 벽, 벽.(벽, 벽.)

108006 @ 튀기¹⁴⁶.(외.)

108006 # 튀기도 ㄴ쁜 거.(외도 같은 거.)
108006 @ 튀기 부출.(외 부출.)
108006 # 튀기ㄴ라 축브름.(외보고 벽.)
108006 @ 튀기ㄴ라 축브름이엔 글아?(외보고 벽이라고 말해?)
108006 # 응. 튀기, 튀기 블라시냐 축브름ㄴ라. 튀긴 다 블란 그디 경허고.(응. 외, 외 발랐니 벽 보고. 외 다 발랐어 거기 그렇게 하고.)
108006 @ 아.(아.)
108006 # 축브름덜 돌아가명.(벽들 돌아가면서.)
108006 @ 튀기가 축브름?(외가 벽?)
108006 # 응. 게메, 축브름이 튀기라. 튀기덜은 다 블란 영 허고.(응. 글쎄, 벽이 외야. 외들은 다 발랐어 이렇게 하고.)
108006 @ 응.(응.)
108006 # 고디 올린 거. 지방 우이 올린 건 고디.(산자 올린 거. 지방 위에 올린 건 산자.)
108006 @ 응.(응.)
108006 # 경허고 오까리 그차당 이젠 그 낭으로 이렇게 축브름에 세와 가지고 저 노로 얹어.(그리고 ‘오까리’ 잘라다가 이젠 그 나무로 이렇게 벽에 세워 가지고 저 노로 얹어.)
108006 @ 노로 얹어예.(노로 얹어요.)
108006 # 얹어낱 흑 블라.(얹어놓고 흑 발라.)
108006 @ 응.(응.)
108006 @ 대들보?(대들보?)
108006 # 대들포?(대들보?)
108006 @ 집 만들 때.(집 만들 때.)
108006 # 대들포는 이 저 질 지방 우이 질 큰 지등. 것ㄴ라 대들포.(대들보는 이 저 제일 지방 위에 제일 큰 기등. 그것보고 대들보.)
108006 @ 대들포.(대들보.)
108006 # 응. 막 이제 큰 거ㄴ라 대들포. 이 사름도 큰집이ㄴ라 대들포. 아이고 그 큰아덜ㄴ라도 아이고 그 집이 대들포.(응. 아주 이제 큰 거보고 대들보. 이 사람도 장손집보고 대들보. 아이고 그 큰아덜보고도 아이고 그 집이 대들보.)
108006 @ 그 집이 대들포엔예.(그 집의 대들보라고요.)
108006 # 경 곤는디 집안에도 마찬가지로. 대들포가 든든혜사. 대들포라고 헤여.(그렇게 말하는데 집안에도 마찬가지로. 대들보가 단단해야. 대들보라고 해.)
108006 @ 응.(응.)
108006 # 창호지로 허연 블르당 능와¹⁴⁷)가 나온 거라이.(창호지로 해서 바르다

146) ‘튀기’는 ‘외’의 제주어로 흙벽을 바르기 위하여 벽 속에 나뭇가지, 댓가지 잡목 따위를 가로세로로 얹는 것을 말한다.

147) ‘능와’는 ‘능화’를 말하는 것으로 마름모 무늬 능화문이 그려진 벽지, 즉 좋은 벽지를 이렇게 말

가 ‘능와’가 나온 거야.)

108007 @ 뭐가 나와?(뭐가 나와?)

108007 # 능와, 이제 ㄴ트민 벽지가 능와라고 하여.(능화, 이제 같으면 벽지가 능화라고 해.)

108007 @ 응.(응.)

108007 # 경허민 이제 소리할 때민 어떤 날에 난 사름은 팔자가 좋아서 각장장판¹⁴⁸에 능와도비¹⁴⁹에.(그러면 이제 소리할 때면 어떤 날에 난 사름은 팔자가 좋아서 각장장판에 능화도벽에.)

108007 @ 응?(응?)

108007 # 집 좋게 행 사는 사름을 부러와 가지고. 옛날에.(집 좋게 해서 사는 사름을 부러워 가지고. 옛날에.)

108007 @ 팔자 좋든 헛 말이지요?(팔자 좋다는 말이지요?)

108007 # 응, 능와가 어루왕계. 경허난 아이고 팔자 스주가 어떤 날에 난 사름은 능와도비에 각장장판에 경허영 사는고? 이렇게 노래가 이서. 이디도 이거 모노름 대신 장판 들이젠 허민 것도 어려와이. 경허난.(응, 능화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아이고 팔자 사주가 어떤 날에 난 사름은 능화도벽에 각장장판에 그렇게 사는가? 이렇게 노래가 있어. 여기도 이거 모노름 대신 장판 드리려고 하면 그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108007 @ 응.(응.)

108007 # 이젠 집도 참 옛날은 초가집이 살았주만 이젠 이추룩헛 짓언 살암주마는, 옛날이사게 문 초가집 밋밋 초가집이주.(이젠 집도 참 옛날은 초가집에 살았지만 이젠 이렇게 해서 지어서 살고 있지만, 옛날이야 모두 초가집 모두모두 초가집이지.)

108007 @ 기지에, 옛날은예.(그렇지요, 옛날은요.)

108007 # 초가집도이, 초가집도 마리, 마리널헤영 반질반질 다끄곡 허민 좋아. 초가집도.(초가집도, 초가집도 마루, 마루청해서 반질반질 닦고 하면 좋아. 초가집도.)

108007 @ 예.(예.)

108007 # 말 이서, 능와도비에 각장장판.(말이 있어, 능화도벽에 각장장판.)

108007 @ 능와도비에 각장장판.(능화도벽에 각장장판.)

108007 # 이 천장 이제 능와가 이서, 불르는 거, 백지.(이 천장 이제 능화가 있어, 바르는 거, 벽지.)

108007 @ 예.(예)

108007 # 백지ㄴ라 능와라고 허고. 또 여기는 이제 장판 들여. 이런 장판이 없

하고 있다.

148) ‘각장장판(角壯壯版)’은 폭이 넓고 두꺼운 각장으로 바른 장판으로 잘사는 집의 장판을 말이다.

149) ‘능와도비’는 ‘능화도벽(菱花塗壁)’에서 온 말로 능화가 그려진 벽지를 발랐다는 뜻으로 잘사는 집의 벽지를 뜻한다.

어 가지고.(벽지보고 능화라고 하고. 또 여기는 이제 장판 드러. 이런 장판 없어 가지고.)

108007 @ 예.(예.)

108007 # 옛날은. 창호지허영.(옛날은. 창호지 해서.)

108007 @ 창호지 허영.(창호지 해서.)

108007 # 장판 들어. 장판 들일 때도 이디 이젠 멧 불 불랑 창호지 두 불 불랑 막 절좌, 유지름 불랑 절좌. 각장장판.(장판 드러. 장판 드릴 때도 여기 이젠 멧 벌 발라서 창호지 두 벌 발라서 막 걸어, 들깨기름 발라서 걸어. 각장장판.)

108007 @ 절루는게 뭐 마씨?(결는 게 뭐예요?)

108007 # 그 저 콩가루에 이제 유지름 허민 잘 절어.(그 저 콩가루에 이제 들깨기름 하면 잘 걸어.)

108007 @ 응.(응.)

108007 # 경허민 이 색깔로.(그러면 이 색깔로.)

108007 @ 아.(아.)

108007 # 장판이 막 좋아. 각장 장판.(장판이 아주 좋아. 각장장판.)

108007 @ 그걸 발라마씨?(그걸 발라요?)

108007 # 응, 각장이 또 말자에라 가난 각장이 나왔어이, 절룬 거, 종이가.(각장이 또 나중에 되어가니까 각장이 나왔어, 걸은 거, 종이가.)

108007 @ 응.(응.)

108007 # 경행 이제 각장 사당 이디 블르민 각장 장판.(그렇게 이제 각장 사다가 여기 바르면 각장장판.)

108007 @ 절룬 게 얇은 거, 두꺼운 거?(결은 게 얇은 거, 두꺼운 거?)

108007 # 두꺼운 거.(두꺼운 거.)

108007 @ 두꺼운 거.(두꺼운 거.)

108007 # 응. 창호지 막 불랑 그 콩에 유지름 서경 블라도 막 장판이 좋아. 경헤낫주게, 초가집에 옛날은.(응, 창호지 막 발라서 그 콩에 들깨기름 섞어서 발라도 아주 장판이 좋아. 그랬었지, 초가집에 옛날은.)

108007 @ 옛날은예, 초가집에예. 유지름은 무신 지름?(옛날은요, 초가집에요. 들깨기름은 무슨 기름?)

108007 # 들깨.(들깨.)

108007 @ 아, 들깨.(아, 들깨.)

108007 # 들깨지름이 잘 절어.(들깨기름이 잘 걸어.)

108007 @ 잘 저는 건 잘 흡수되는 건가?(잘 결는 건 잘 흡수되는 건가?)

108007 # 응, 흡수돼영 부떠.(응, 흡수되어서 붙어.)

108007 @ 아.(아.)

108007 # 경행 민질민질허게. 것덜은 대게덜 알아, 젊은 사름덜토.(그렇게 해서 반질반질허게. 그것들은 대개 알아, 젊은 사람들도.)

108007 @ 유예.(깻잎요.)

108007 # 유예 이제 콩가루에 해 가지고 이제 짜 가지고.(깻잎에 이제 콩가루에 해 가지고 짜 가지고.)

108007 @ 응.(응.)

108007 # 불르민 이제 장관 돼여. 민짜허게. 경행 이추륙 해낫주.(바르면 이제 장관 돼. 미끈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지.)

108007 @ 예.(예.)

108007 # 이 색깔 돼여.(이 색깔 돼.)

108007 @ 예, 맞아. 이 색깔 돼여. 모르는 게 엇어.(예, 맞아. 이 색깔 돼. 모르는 게 없어.)

108007 # 모르는 게 엇어. 노래로 나와난 거게. 우리도 이 스삼사건 때문에 나가 노래를 잘 안 불르고 세월을 냉겼주. 불르레 나가시민 이제 뭐 민요나 ㄴ뜨주게.(모르는 게 없어. 노래로 나왔던 거. 우리도 이 사삼사건 때문에 내가 노래를 안 부르고 세월을 넘겼지. 부르러 나갔으면 이제 뭐 민요나 같지.)

108007 @ 일등햄실 건디.(일등하고 있을 텐데.)

108007 # 참말로 아이고. 그런 노래도 썩어불고. 존 세월 다 가불엇저.(참말로 아이고. 그런 노래도 썩어버리고. 좋은 세월 다 가버렸지.)

108007 @ 집 짓젠 허민 영 지등을 세와야 텔 거 아니파?(집 지으려면 이렇게 기등을 세와야 할 거 아닙니까?)

108007 # 응.(응.)

108007 @ 그민 이 지등 세운 걸 영 만들어야 지붕 올릴 거 아니?(그러면 이 기등 세운 걸 이렇게 만들어야 지붕 올릴 거 아니?)

108007 # 아, 그것이 축브름이주게, 무신거라게.(아, 그것이 벽이지, 뭐야.)

108007 @ 축브름은 벽이고, 우에 우에.(‘축브름’은 벽이고. 위에 위에.)

108007 # 서리, 서리.(서까래, 서까래.)

108007 @ 서리.(서까래.)

108007 # 그 저 무시거 허기 전이 고디 올리기 전이.(그 저 무엇 하기 전에 산자 올리기 전에.)

108007 @ 예.(예.)

108007 # 초담 집 지슬 때 저 서리.(처음 집 지을 때 저 서까래.)

108007 @ 서리.(서까래.)

108007 # 서리 걸어놔 이젠 고디 올링.(서까래 걸어 놓고 이젠 산자 올려서.)

108007 @ 고디를 올링.(산자를 올려서.)

108007 # 겹 새 더껏주게. 지등 세와.(그렇게 해서 띠 덮었지. 기등 세워서.)

108007 @ 응.(응.)

108007 # 지등 세와 서리 걸청.(기등 세워서 서까래 걸쳐서.)

108007 @ 고디 올리고.(산자 올리고.)

108007 # 초가집 짓젠 허민 초가집이나 이제도 마찬가지로.(초가집 지으려면 초가 집이나 이제도 마찬가지로.)

108007 @ 응.(응.)

108007 # 서리 걸어야.(서까래 걸어야.)

108007 @ 서리 걸어야 돼여예.(서까래 걸어야 돼요.)

108002 @ 집이 있거나 집이 있었던 자리는?(집이 있거나 집이 있었던 자리는?)

108002 # 집터주게.(집터지.)

108002 @ 그냥 집터. 새로 더큰 집은? 초가집, 초집?(그냥 집터. 따로 덮은 집은? 초가집, 초집?)

108002 # 초집, 그다음 기와집.(초집, 그다음 기와집.)

108002 @ 그다음엔 기와집.(그다음엔 기와집.)

108002 # 이젠 스라브.(이젠 슬레이트.)

108002 @ 스라브.(슬레이트.)

108002 @ 큰 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은?(큰 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은?)

108002 # 골목.(골목.)

108002 @ 제주도 말도 골목, 옛날도?(제주도 말도 골목, 옛날도?)

108002 # 응, 골목게. 우리 골목에 살아났저. 저 알동네 골목에.(응, 골목. 우리 골목에 살았었어, 저 아랫동네 골목에.)

108002 @ 올레 아니고?(올레 아니고?)

108002 # 올레 아니 골목. 영 이제 큰길에서 영 소릿길로 쑥 들어가는 건 골목이주게. 골목길.(올레 아니 골목. 이렇게 이제 큰길에서 이렇게 작은길로 쑥 들어가는 건 골목이지. 골목길.)

108002 @ 흙으로 만든 집은?(흙으로 만든 집은?)

108002 # 흙으로 멘든 집이 어디 셔? 초가집이게 먼 흙으로 불랏주게.(흙으로 만든 집이 어디 있니? 초가집이 모두 흙으로 발랐지.)

108002 @ 거난 흙집?(그러니까 흙집?)

108002 # 응.(응.)

108002 @ 옛날에 흙집 지서났주예?(옛날에 흙집 지었었지요?)

108002 # 응, 흙 꾸여근에 불르명 축벼름에.(응, 흙 이겨서 바르면서 벽에.)

108002 @ 무슨 벼름에?(무슨 바람에?)

108002 # 축벼름에 먼 흙으로 불라.(벽에 모두 흙으로 발라.)

108002 @ 돌로 멘든 건 돌집?(돌로 만든 건 돌집?)

108002 # 돌로 집이 어디 시니? 다 흙을 꾸여 불라야 돌집도 웨는 거.(돌로 집이 어디 있니? 다 흙을 이겨서 발라야 돌집도 되는 거.)

108002 @ 아.(아.)

108002 # 돌집에 석회만 불른 것사 돌집이주마는 석회가 경 셔서? 석회 나건

디도 오래지 안허고계.(돌집에 석회만 바른 것이야 돌집이지마는 석회가 그렇게 있었어? 석회 난 지도 오래지 않았고.)

108002 @ 오두막처럼 작고 초라한 집?(오두막처럼 작고 초라한 집?)

108002 # 건 측은 집이주 무신거라.(그건 작은 집이지 뭐야.)

108002 @ 오막살이 이런 거.(오막살이 이런 거.)

108002 # 오막살이 것ㄴ라.(오막살이 그것보고.)

108002 @ 막살이?(막살이?)

108002 # 응.(응.)

108002 @ 무신거엔 곱아낫수과?(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8002 # 막살이게. 아이구 저 쪼끌락헌 막살이.(막살이. 아이구 저 조그만 막살이.)

108003 @ 막살이. 집이 혼 거리만 이시민 한 채만 있는 집은 뭐엔 곱아마씨? 웨채.(막살이. 집이 한 채만 있으면 한 채만 있는 집은 뭐라고 말해요? 외채?)

108003 # 웨채.(외채.)

108003 @ 웨채엔 곱습니까?(외채라고 말합니까?)

108003 # 웨채엔 곱주게. 집 웨채게, 영.(외채라고 말하지. 집 외채네, 이렇게.)

108003 @ 아, 집이 두 채 이서. 하나 앞에 거 있고 저 밖에 거 이시민 이거 무신거?(집이 두 채 있어. 하나 앞에 것 있고 저 밖에 거 있으면 이거 뭐?)

108003 # 이 안거리, 밧거리.(이 안채, 바깥채.)

108003 @ 이건 안거리, 저기 건 밧거리.(이건 안채, 저기 것은 바깥채.)

108003 # 밧거리, 이문거리도 잇고 세거리 신 건.(바깥채, 대문채도 잇고 세 채 있는 건.)

108003 @ 이문거리, 이문거리된 뭐?(대문채, 대문채는 뭐?)

108003 # 올레, 올렛거리.(‘올레’, ‘올렛거리’.)

108003 @ 아, 올레 대문 잇는 거?(아, ‘올레’ 대문 잇는 거?)

108003 # 응. 세 거리가 해주, 옛날은.(응. 세 채가 많지, 옛날은.)

108003 @ 이문거리. 그믐 혹시 안거리, 밧거리 합쳐근에 곱는 말은?(대문채. 그러면 혹시 안채, 바깥채 합쳐서 하는 말은?)

108003 # 안팎거리.(안팎채.)

108003 @ 안팎거리.(안팎채.)

108003 # 합청 곱으민 안팎거리주.(합쳐서 말하면 안팎채지.)

108003 @ 모커린 무신거마씨?(결채는 뭐예요?)

108003 # 모커리가 그게 그거주 무신.(결채가 그게 그거지 무슨.)

108003 @ 모커리엔 헌 말도 써 낫주예?(결채라고 하는 말도 썼었지요?)

108003 # 써낫주.(썼었지.)

108003 @ 모커린 안거리, 밧거리 말고 또 하나 이신 거?(결채는 안채, 바깥채 말고 또 하나 잇는 거?)

108003 # 안거리, 밧거리 말고 요 옆이 신 것ㄴ란 모커리.(안채, 바깥채 말고 요 옆에 있는 것보고 곁채.)

108003 @ 아, 옆이 신 것ㄴ란 모커리.(아, 옆에 있는 것보고 곁채.)

108024 @ 간장, 웬장을 담아 두는 독은?(간장, 된장을 담아두는 독은?)

108024 # 장항.(장독.)

108024 @ 장항.(장독.)

108024 # 하하하.(하하하.)

108024 @ 비가 오면.(비가 오면.)

108024 # 더끄는 거 장탱이.(덜는 거 장독뚜껑.)

108024 @ 장탱이, 장독 놔 두는 곳은? 장독대를 제주도 말로.(장독뚜껑, 장독 놔두는 곳은? 장독대를 제주도 말로.)

108024 # 미시거 장항뒤¹⁵⁰주.(뭘, ‘장항뒤’지.)

108024 @ 장항뒤?(‘장항뒤’?)

108024 # 장항뒤가 뒤에 장 듬으난 장항뒤엔 헛주게.(‘장항뒤’가 뒤에 장 듬으니까 ‘장항뒤’라고 했지.)

108022 @ 막 쓰는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육짓말은 헛간.(막 쓰는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육짓말은 헛간.)

108022 # 이제도 헛간이주게.(이제도 헛간이지.)

108022 @ 제주도 말도 헛간?(제주도 말도 헛간?)

108022 # 우리 저디ㄴ라 밧거리도 헛간이엔 허주게.(우리 저기보고 바깥채도 헛간이라고 하지.)

108022 @ 뭘, 창고 아니?(뭘, 창고 아니?)

108022 # 창고엔도 허고.(창고라고도 하고.)

108022 @ 아니, 무신거 고팡은 아니지예?(아니 뭘 고팡은 아니지요?)

108022 # 고팡은 이 안거리 신 것가 고팡. 거 곳간, 곳간. 곳간이다.(고팡은 여기 안채 있는 것이 고팡. 거 곳간, 곳간. 곳간인데.)

108022 @ 응.(응.)

108022 # 저 이 안거리에 부튼 것ㄴ라 고팡인디 이젠 밧거리덜 다 짓엉 곳간헝 세계.(저 이 안채에 붙은 것보고 고팡인데 이젠 바깥채들 다 지어서 곳간하고 있지.)

108022 @ 응.(응.)

108022 # 우리도 저기 혼 칸 곳간이고 이펜인.(우리도 저기 한 칸 곳간이고 이 편에는.)

108023 @ 웨양간은?(외양간은?)

108023 # 웨양간은게, 웨양간은.(외양간은, 외양간은.)

108022 @ 제주도 말로 뭘엔 곴아?(제주도 말로 뭘라고 말해?)

150) ‘장항뒤’는 장독을 넣어 두는 곳으로 주로 부엌의 뒷문을 통해 나가는 곳에 있었다.

108022 # 쉼막.(‘쉼막’.)
108022 @ 쉼막예.(‘쉼막’요.)
108022 # 응.(응.)
108022 @ 혹시 불치막도 이수과? 건 뭐마씨?(혹시 잿간도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108022 # 불치막은이 옛날에 이 불치를 거름 엮어부니까 사용하시네.(잿간은 옛날에 이 재를 거름 없어버리니까 사용했었지.)
108022 @ 응.(응.)
108022 # 경허난 이 집이도 쪼그만허게 멘들아서 불치도 담아 낫당 밧디 거름 허여.(그러니까 이 집도 쪼그맣게 만들어서 재도 담아 놓았다가 밧에 거름해.)
108022 @ 아.(아.)
108022 # 불치막도 이서낫어.(잿간도 있었었어.)
108022 @ 불치막도 이서낫어예.(잿간도 있었어요.)
108022 # 응, 이제 엇고게.(응, 이제 없고.)
108022 @ 예.(예.)
108022 # 아니, 옛날도 보통으로 엮어.(아니, 옛날도 보통으로 없어.)
108022 @ 응.(응.)
108022 # 것도이 출린 사름은 쪼글락허게 멘들앙 그디 불치 담아놔. 경행 불치막.(그것도 차린 사름은 쪼그맣게 만들어서 거기 재 담아놔. 그렇게 해서 잿간.)
108022 @ 아.(아.)
108022 # 불치막 소굽에 무시겨 농곡. 경 곶아난.(잿간 속에 뭐 놓고. 그렇게 말했었어.)
108022 @ 불치 말고 다른 거 놔?(재 말고 다른 거 놔?)
108022 # 아니 아무거라도 놀 거 농주게. 불치 놓는 디 비가 아이 드니까.(아니 아무거라도 놓을 거 놓지. 재 놓는 데 비가 안 드니까.)
108022 @ 아.(아.)
108022 # ㄴ시락도 낫당 불 때곡 불치도 놓고.(까끄라기도 낫다가 불 때고 재도 놓고.)
108022 @ 건 어느 짝에 만드는 거라?(그건 어느 쪽에 만드는 거야?)
108022 # 아무디라도게 이녁 므음냥게, 집이 널르면 아무디라도 짓는 거주게.(아무 데라도 자기 마음대로, 집이 넓으면 아무 데라도 짓는 거지.)
108022 @ 정지 조끗디 멘들어야 돼나, 그런 건 아니?(부엌 곁에 만들어야 되나, 그런 건 아니?)
108022 # 굴묵 조끗디나.(‘굴묵’ 곁이나.)
108022 @ 굴묵 조끗디.(‘굴묵’ 곁.)
108022 # 응.(응.)
108023 @ 쉼 놓는 딴 쉼막, 툄 놓는 딴?(소 놓는 데는 외양간, 말 놓는 데는?)

108023 # ㄹ뜨주게. 물막이나 쉼막이나.(같지. 마구간이나 외양간이나.)

108023 @ 물막도 잇긴 해, 물막도 허긴 해, 물막이엔도?(마구간도 잇기는 해, 마구간도 하긴 해, 마구간이라고도?)

108023 # ㄹ따, ㄹ따. 물 메민 물막이고, 쉼 메민 쉼막이고. 다 ㄹ따.(같아, 같아. 말 매면 마구간이고, 소 매면 외양간이고. 다 같아.)

108021 @ 변소는 통시?(변소는 ‘통시’?)

108021 # 응, 통시 건.(응, ‘통시’ 그건.)

108020 @ 통시에 이신 돌?(변소에 있는 돌?)

108020 # 미시거 돛도고리¹⁵¹.(뭘 ‘돛도고리’.)

108021 @ 아니 돛도고리 말고 발 영 놓는.(아니 ‘돛도고리’ 말고 발 이렇게 놓는.)

108021 # 아, 드들팡.(아, 부출돌.)

108021 @ 디딜팡?(부출돌?)

108021 # 응. 드들팡, 드들팡.(응. 부출돌, 부출돌.)

108021 @ 아, 드들팡?(아, 부출돌.)

108021 # 디딜 거난게 디딜팡이주게. 디더사 그디 똥 싸지 안햐햐게?(디디는 거니까 ‘디딜팡’이지. 디더야 거기 똥 싸지 않니?)

108021 @ 디딜팡 말고 돌로 말고 낭으로도 멘들아난마씨?(부출돌 말고 돌로 말고 나무로도 만들었었어요?)

108021 # 낭으로도 멘들아난.(나무로도 만들었어.)

108021 @ 건 다른 거엔 곶아난?(그건 다른 거라고 말했었어요?)

108021 # 드들팡인디 드들낭이라고.(부출돌인데 ‘드들낭’이라고.)

108021 @ 아.(아.)

108021 # 경헌디 그 드들낭 허젠 허민 낭이 막 좋아야 돼. 소소한 낭은 안 돼.(그런데 그 ‘드들낭’ 하려고 하면 나무가 아주 좋아야 돼. 소소한 나무로는 안 돼.)

108021 @ 썩어 불어?(썩어 버려?)

108021 # 낭이 춤낭 막 질긴 낭이라사 드들낭을 허지, 저 대부분은 돌로.(나무가 참나무 아주 질긴 나무라야 ‘드들낭’을 하지, 저 대부분은 돌로.)

108021 @ 응.(응.)

108021 # 돌을 이렇게 멘들아 가지고 소랑허게 멘들아 가지고 양쪽에 놔 가지고 든든햐사 될 거 아니라게? 드들팡이라고 햐서, 통시에.(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길쭉햐게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놔 가지고 단단햐야 될 거 아니냐? 부출돌이라고 햐서, 변소에.)

108021 @ 통시에 누게 앓앙 이신디 누게 와가민 햐햐 햐는 거 무신거엔 곶아?(변소에 누가 앓아 있는데 누가 와가면 햐햐 햐는 거 뭤라고 말햐?)

151) ‘돛도고리’는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돌을 둥글넓적햐게 파서 만든 돌그릇이다.

108021 # 지침이주, 무시거라.(기침이주, 뭐야.)
108021 @ 지침말고 기적?(기침말고 기척?)
108021 # 기적, 기적 내엄주게.(기척, 기척 내지.)
108021 @ 기적이엔 글아?('기적'이라고 말해?)
108021 # 응, 어땡허여 게민?(응, 어떻게 해 그러면?)
108021 @ 하하하.(하하하)
108021 # 그적도 안 험저, 영 허고.(기척도 안 한다, 이렇게 하고.)
108021 @ 아, 그적, 그적이네.(아, 기척, 기적이네.)
108021 # 그적허여, 영, 경허주게. 어땡허여?(기척해, 이렇게,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해?)
108021 @ 하하하.(하하하.)
108019 @ 놀? 이렇게 쌓아 놓는 거.(가리? 이렇게 쌓아 놓는 거.)
108019 # 응, 놀.(응, 가리.)
108019 @ 놀. 보리 행 놓는 건 보릿놀?(가리. 보리 해서 놓는 건 보릿가리?)
108019 # 보릿놀, 조놀, 콩놀 뭐 출놀 뭐 놀이 곡식에 메주 뭐.(보릿가리, 조 가리, 콩 가리 뭐 풀 가리 뭐 가리가 곡식에 따라서지 뭐.)
108019 @ 보릿놀. 짬을 쌓아 놓 건?(보릿가리. 짬을 쌓아 놓은 건?)
108019 # 보리낭놀, 조칩놀.(보릿가리, 조 가리.)
108019 @ 출헌 건?(풀한 건?)
108019 # 출놀.(풀 가리.)
108019 @ 짬은 엇어, 짬. 짬을 쌓아 놓은 놀. 짬, 짬 엇어.(짬은 없어, 짬. 짬을 쌓아 놓은 가리. 짬, 짬 없어?)
108019 # 엇어.(없어.)
108019 @ 느람지는 새로 어땡 해야 돼?(이엥은 띠로 어떻게 해야 돼?)
108019 # 새로 여껴.(띠로 엮어.)
108019 @ 어땡해, 여껴?(어떻게 엮어?)
108019 # 응.(응.)
108019 @ 다시 혼 번 글아봅서. 새로.(다시 한 번 말해보세요. 띠로.)
108019 # 새 허여근에 여껴야 느람지. 나 느람지 잘 여껴진다.(띠 해서 엮어야 이엥. 나 이엥 잘 엮을 수 있어.)
108019 @ 여끼다. 응.(엮다. 응.)
108019 # 느람지 잘 여껴져. 이렇게 이거 새면.(이엥 잘 엮을 수 있어. 이렇게 이거 띠면.)
108019 @ 응.(응.)
108019 # 요렇게 해 놔 두고서 요거 새 아니가?(요렇게 해 놓아 두고서 요거 띠 아니냐?)
108019 @ 예.(예.)

108019 # 요렇게 영 찰르멍 요렇게 영 여껴가는 거라, 이렇게.(요렇게 이렇게 찰르면서 요렇게 이렇게 엮어 가는 거야, 이렇게.)

108019 @ 여껴 가는 거라, 아.(엮어 가는 거야, 아.)

108019 # 영 여껴. 이레 또로 놔 가멍 놔 가멍 밋밋허게.(이렇게 엮어. 이리로 또 놔 가면서 놔 가면서 쪽하게.)

108019 @ 거 남자들 만드는 거 아니?(그거 남자들 만드는 거 아니?)

108019 # 남즈도 허곡 여즈도 허곡게.(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108019 @ 응.(응.)

108019 # 남즈들은 막 재계재계 허고 여즈덜토 잘허여, 허는 사람은. 갱 비 와 가민 느람질 멧 개 행 놔뒤사 비 와가민 놀을 탁탁 더꺼.(남자들은 막 재계재계 하고 여자들도 잘해, 하는 사람은. 그래서 비 와가면 이영을 멧 개 해서 놔뒤야 비 와 가면 가리를 탁탁 덮어.)

108019 @ 응.(응.)

108019 # 주쟁이도 행 낮당 탁탁 씨와야 그 놀이 완고허여. 그렇지 안허면은 안 돼여. 느람지만 더꺼도 안 돼여.(주저리 해서 놓았다가 탁탁 씨워야 그 가리가 완고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영만 덮어도 안 돼.)

108019 @ 응.(응.)

108019 # 날라당 놀영 느람지 더경. 그 우이 주쟁이가 이서이. 느람지 더꺼낭 주쟁이. 벨 우리 이제 느람질 둘러도 주지가 으뜸이라고.(날라다가 가려서 이영 덮어서. 그 위에 주저리가 있어. 이영 덮어놓고 주저리. 벨 우리 이제 이영을 둘러도 주저리가 으뜸이라고.)

108019 @ 응?(응?)

108019 # 거난 주쟁이도 문 멘글야 낮당 놀마다 툽툽 더끄고. 느람지가 벨 거라도 주지가 으뜸이라고.(그러니까 주저리도 모두 만들어 놓았다가 가리마다 툽툽 덮고. 이영이 벨 거라도 주저리가 으뜸이라고.)

108019 @ 주지엔 곱아, 주쟁이엔 곱아?('주지'라고 말해, '주쟁이'라고 말해?)

108019 # 주쟁이엔도 곱고, 주지엔도 곱나게.(‘주쟁이’라고도 말하고, ‘주지’라고도 말한다.)

108019 @ 할머닌 젤 많이 곱는 말은 뭐라?(할머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야?)

108019 # 주쟁이.(‘주쟁이’.)

108019 @ 주쟁이를 더 하영 곱아?(‘주쟁이’를 더 많이 말해?)

108019 # 응.(응.)

108019 @ 주쟁인 어떻 만들어?(주저리는 어떻게 만들어?)

108019 # 건디 그 주쟁이 옛날은 짜메, 검질로, 새로 짜 가지고 느람지 빙허게 둘러 그 주쟁일 더꺼야 물이 바라서 이제 물이 펜안헤영 잘 성공웬텐.(그런데 그 주저리 옛날은 짜, 검불로, 새로 짜 가지고 이영 빙하게 둘러서 그 주저리를 덮어야 물이 안 들어서 이제 물이 편안해서 잘 성공된다고.)

108019 @ 응.(응.)

108019 # 말도 느람지가 벨 거시기라도 주지가 으뜸이라고 경혜여.(말도 이영이 벨 거시기라도 주저리가 으뜸이라고 그렇게 했어.)

108019 @ 응.(응.)

108019 # 사름도 이 아랫사름이 벨허게 해봐도 대통령이 으뜸,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사람도 이 아랫사람이 벨허게 해봐도 대통령이 으뜸, 그와 마찬가지로야.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108019 @ 응.(응.)

108019 # 배에도 벨 거리는 디 말이 이서, 소리에. 그물코이 천 코라도 베릿베가 주장이라.(배에도 멸치 뜨는 데 말이 있어, 노래에. 그물코가 천 코라도 버리가 최고라.)

108019 @ 베릿베가 주장이라고?(버리가 최고라고?)

108019 # 응, 베가 이서야 그 그물을 해 올 거 아니가게? 그런 노래가 있다고.(응, 바가 있어야 그 그물을 해 올 거 아니야? 그런 노래가 있다고.)

108019 @ 아.(아.)

108019 # 경헌다 엇이 놀도 아명 잘 싸여도 주쟁일 잘 더꺼야. 주지가 으뜸이라. 거 제춧말이라.(그도 그럴 것이 가리도 아무리 잘 싸도 주저리를 잘 덮어야. 주저리가 으뜸이야. 거 제춧말이야.)

108015 @ 옛날 초집에 앞에 영 비 안 들게 치는 거 잊지예?(옛날 초가집에 앞에 이렇게 비 안 들게 치는 거 잊지요?)

108015 # 치는 거?(치는 거?)

108015 @ 풍채¹⁵²?('풍채'?)

108015 # 풍채, 풍채.('풍채', '풍채'.)

108015 @ 풍채.('풍채'.)

108015 # 풍채허고 옛날은 뜸도 셔낫저마는 건 느네 몰르컬. 뜸도 처낫주마는.('풍채'하고 옛날은 뜸도 있었다마는 그건 너희 모를걸. 뜸도 쳤었지마는.)

108015 @ 뜸은 어뎡 헐 때 허는 거?(뜸은 어떻게 할 때 하는 거?)

108015 # 그런 비올 때나 치곡.(그런 비올 때나 치고.)

108015 @ 뜸도 비슷한 거짜, 풍채영?(뜸도 비슷한 겁니까, 풍채랑?)

108015 # 응, 비슷한 거.(응, 비슷한 거.)

108015 @ 그 풍채 낭대기로 영 떨어지지 안허게 바치는 거 잊지예?(그 차양 막대기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받치는 거 잊지요?)

108015 # 응.(응.)

108015 @ 건 무신거라?(그건 뭐야?)

108015 # 작대기.(작대기.)

108015 @ 그냥 작대기?(그냥 작대기?)

152) '풍채'는 초가집에 비나 눈이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차양이다.

108015 # 응. 작대기 행 양편이 바뵤사.(응. 작대기 해서 양편에 받쳐야.)
108015 @ 바뵤사에.(받쳐야.)
108015 # 것도 풍채도 바뵤사.(그것도, 차양도 받쳐야.)
108008 @ 그 옛날 초집 헐 때 디디고 마루레 영 올라가게 놓는?(그 옛날 초가 집 할 때 디디고 마루로 이렇게 올라가게 놓는?)
108008 # 난간, 난간.(난간, 난간.)
108008 @ 난간 밑에 돌은?(난간 밑에 돌은?)
108008 # 잇돌.(섬돌.)
108008 @ 잇돌?(섬돌?)
108008 # 응. 잇돌, 난간.(응. 섬돌, 난간.)
108008 @ 그다음엔 난간 지나면 그다음엔 마루?(그다음엔 난간 지나면 그다음엔 마루?)
108008 # 마루.(마루.)
108008 @ 마루는 제주도 말로?(마루는 제주도 말로?)
108008 # 마리주게, 무시거.(마루지, 뭐?)
108008 @ 마리, 상방은 뭐?(마루, '상방'은 뭐?)
108008 # 상방이엔도 곤고.('상방'이라고도 말하고.)
108008 @ 마리엔 곁아, 상방이엔 곁아?(마루라고 말해, '상방'이라고 말해?)
108008 # 상방, 상방이 하영 곁아.('상방', '상방'이 많이 말해.)
108008 @ 계민 상방.(그러면 '상방'.)
108008 # 상방에 강 보라, 마리에 강 보라.('상방'에 가서 보라, 마루에 가서 보라.)
108012 @ 상방에, 마리에 달린 문, 마리에 문 잇는 건 무신 문?(상방에, 마루에 달린 문, 마루에 문 잇는 건 무슨 문?)
108012 # 대문.(대문.)
108012 @ 그게 대문?(그게 대문?)
108012 # 응, 한가운데니까 대문.(응, 한가운데니까 대문.)
108012 @ 마루에 올라서는 문과 큰방 사이에 잇는 널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마루에 올라서는 문과 큰방 사이에 잇는 널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08012 # 널문 대문이주게. 지계문.(널문 대문이지, 지계문.)
108012 @ 지계문?(지계문?)
108012 # 구들문도 이것ㄴ라 지계문.(구들문도 이것보고 지계문.)
108012 @ 이게 지계문. 구들에 잇는 문?(이게 지계문. 구들에 잇는 문?)
108012 # 응. 옛날은 이추록 미닫이도 엇영이 살창 헤영 들아 영 박박 열게서 리.(응. 옛날은 이렇게 미닫이도 없어서 살창 해서 달아서 이렇게 박박 열게끔.)
108012 @ 응.(응.)
108012 # 경행 지계문, 지계문이라 거.(그렇게 해서 지계문, 지계문이라 그거.)

108012 @ 계민 마루에 옛날 지금도 이렇게 나무도 다 해놔주게, 옛날에.(그러면 마루도 옛날 지금도 이렇게 나무로 다 했었잖아요, 옛날에.)

108012 # 응.(응.)

108007 @ 거 무신 마루널이렌.(거 무슨 마루청이라고.)

108007 # 마릿널.(마루청.)

108007 @ 마릿널.(마루청.)

108007 # 응.(응.)

108007 @ 이런 데 방바닥에 얇고 넓은 돌?(이런 데 방바닥에 얇고 넓은 돌?)

108007 # 구들 놓는 거? 소곶에?(구들 놓는 거? 속에?)

108007 @ 응.(응.)

108007 # 구들돌 무신거?(구들장밖에 뭐?)

108007 @ 구들돌은 돌로 행 놔놔수과?(구들장은 돌로 해서 놔놔습니까?)

108007 # 돌로 행 놔놔주게, 옛날.(돌로 해서 놔놔지, 옛날.)

108007 @ 옛날에 그 위에 종이로 해근에 영.(옛날에 그 위에 종이로 해서 이렇게.)

108007 # 각장, 각장장판(각장, 각장장판.)

108007 @ 무신 장판?(무슨 장판?)

108007 # 각장. 저 이 마분지 초담 불르고.(각장. 저 이 마분지 처음 바르고.)

108007 @ 응.(응.)

108007 # 그다음은 저 창호지.(그다음은 저 창호지.)

108007 @ 응.(응.)

108007 # 창호지 불라 가지고 이제 유지름에 콩잎 해서 민짜 불르민 장판 뒬는 거라, 각장 장판이라.(창호지 발라 가지고 이제 들깨기름에 콩잎 해서 미끈하게 바르면 장판 되는 거야, 각장장판이야.)

108007 @ 부엌 쪽에 자리한 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부엌 쪽에 자리한 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08007 # 죽은 방.(작은 방.)

108007 @ 안방은 무신거라?(안방은 뭐야?)

108007 # 죽은 방. 안방이나 죽은 방이나 ㄱ뜨주게.(작은 방. 안방이나 작은 방이나 같지.)

108007 @ 안방이, 집에서 켈 큰 방이 안방 아니?(안방이, 집에서 제일 큰 방이 안방 아니?)

108007 # 아니, 이건 큰방이고게.(아니, 이건 큰방이고.)

108007 @ 큰방이고. 그다음에 안방은?(큰방이고. 그다음에 안방은?)

108007 # 안방 죽은 방이주.(안방 작은 방이지.)

108007 @ 안방이 죽은 방?(안방이 작은 방?)

108007 # 응, 요샌 큰방 ㄱ라 안방이엔 헤고나마는 우린 이것 ㄱ라 큰방이엔 허

여.(응, 요샌 큰방보고 안방이라고 하더라마는 우린 이것보고 큰방이라고 해.)

108007 @ 벽장은?(벽장은?)

108007 # 벽장도 셔난디 이젠 엇고.(벽장도 있었는데 이젠 없고.)

108007 @ 시렁은 뭐?(시렁은 뭐?)

108007 # 응, 시렁이 뒛고?(응, 시렁이 뒛야?)

108007 @ 이런데 영 낭 박아근에.(이런데 이렇게 나무 박아서.)

108007 # 벽장?(벽장?)

108007 @ 벽장 말고.(벽장 말고.)

108007 # 벽장 말고 다락?(벽장 말고 다락?)

108007 @ 물건을 얹어놓기 위해서.(물건은 얹어놓기 위해서.)

108007 # 다락, 다락.(다락, 다락.)

108007 @ 아니, 나무를 이런 데 영 박아근에 위에다 영 얹어놓게.(아니, 나무 이런 데 이렇게 박아서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게.)

108007 # 다락베끼 더 셔게?(다락밖에 더 있어?)

108007 @ 이런 디 그냥 부엌 같은 데 무사 나무 박아근에 나무 위에다 무신거 올려 놀 수 있게.(이런 데 그냥 부엌 같은 데 왜 나무 박아서 나무 위에다 뒛 올려 놓을 수 있게.)

108007 # 케메, 그게 다락, 멘들앗주게.(그러게, 그게 다락, 만들었지.)

108007 @ 그게 다락이라?(그게 다락이야?)

108007 # 응, 다락. 방도 싣고 그런 것도 올려 놓는 것ㄴ라.(응, 다락. 방도 있고 그런 것도 올려 놓는 것 보고.)

108007 @ 선반.(선반.)

108007 # 상방은 이것ㄴ라 상방이주게. 마리ㄴ라 상방.(‘상방’은 이것보고 ‘상방’이지. 마루보고 ‘상방’.)

108007 @ 응.(응.)

108024 @ 향아리도 크기 별로 이름 이수과?(향아리도 크기 별로 이름 있습니까?)

108024 # 게, 즈 것ㄴ란 단지, 오가리, 큰 향. 향, 오가리, 단지 거 세 개주게. 오가린 흥끔 죽은 것가 오가리, 막 죽은 건 단지. 큰 건 향.(그렇지, 작은 거보고는 단지, 오가리, 큰 향아리. 향아리, 오가리, 단지 그거 세 개지. 오가리는 조금 작은 것이 오가리, 아주 작은 건 단지. 큰 건 향아리.)

108024 @ 응.(응.)

108024 # 또 옛날 흙으로 멘든 지세독이 이셔났어. 건 흙으로 구워 검영헌 거. 거 물도 막 사노롱 헤영 좋아, 싣려와 그것에 놓면. 것ㄴ란 독이엔 허여, 지세독이라고.(또 옛날 흙으로 만든 질향아리가 있었었어. 그건 흙을 구워서 검은 거. 그거 물도 아주 시원하고 해서 좋아, 싣려워 그것에 놓으면. 그것보고는 독이라고 해, 질향아리라고.)

초가 지붕이기

108027 @ 지붕.(지붕.)

108027 # 지붕허는 거?(지붕하는 거?)

108027 @ 지붕, 지붕 아까 새 해당 지붕 허는 건 어떻 허영 허는 거?(지붕, 지붕 아까 새 해당 지붕 하는 건 어떻게 해서 하는 거?)

108027 # 지붕허는 거 이제 흙 올려근에 고대¹⁵³라고 해 가지고 고대 올려 가지고 새로 깎앙.(지붕하는 거 이제 흙 올려서 산자라고 해 가지고 산자 올려 가지고 띠로 깔아서.)

108027 @ 응.(응.)

108027 # 줄을 매는 거라, 또.(줄을 매는 거야, 또.)

108027 @ 줄은 어떻 행 허는 거라?(줄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야?)

108029 # 줄 낱게, 슝기¹⁵⁴추룩 현 거 호룽이¹⁵⁴로 비엥.(줄 낱서, 새끼처럼 한 거 ‘호룽이’로 꼬아서.)

108029 @ 호룽이로 영 비엥.(‘호룽이’로 이렇게 꼬아서.)

108029 # 어, 호룽이로 영 놔가민 이렇게 비어 가.(어, ‘호룽이’로 이렇게 놔 가면 이렇게 꼬아 가.)

108029 @ 응.(응.)

108029 # 갱 이제 두이레 초담 이젠 문 비명 영 낱 말젠 어울려. 어울리민 것이.(그래서 이제 뒤로 처음 이젠 모두 꼬면서 이렇게 놔서 나중엔 어울려. 어울리민 그것이.)

108029 @ 어울리는 건 뭐 이수과?(어우르는 건 뭐 있습니까?)

108029 # 뒤치기¹⁵⁵, 뒤치기.(‘뒤치기’, ‘뒤치기’.)

108029 @ 뒤치기. 뒤치기로 어울령.(‘뒤치기’. ‘뒤치기’로 어울러서.)

108029 # 호룽이, 뒤치기.(‘호룽이’, ‘뒤치기’)

108029 @ 호룽이로 감앙.(‘호룽이’로 감아서.)

108029 # 호룽이론 영 이제 치는 것가 호룽이. 저 호룽이로 비어 강.(‘호룽이’로 는 이렇게 이제 치는 것이 ‘호룽이’. 저 ‘호룽이’로 꼬아 가서.)

108029 @ 호룽이로 비어 강.(‘호룽이’로 꼬아 가서.)

108029 # 말자엔 이제 어울릴 때는 뒤치기로 쳐.(나중엔 이제 어우를 때는 ‘뒤치기’로 쳐.)

108029 @ 뒤치기로 청.(‘뒤치기’로 쳐서.)

108029 # 흔 사람은 쳐가명 둘이가 허여근엥이 어울려 가.(한 사람은 쳐가면서 둘이가 해서 어울러 가.)

153) ‘고대’는 지붕 서까래 위에 흙을 받쳐 기와를 이기 위하여 가는 나무오리나 싸리나무 따위로 엮은 것으로 표준어는 ‘산자’다.

154) ‘호룽이’는 줄, 참바를 뒤트는 도구로 집줄을 만들 때 사용한다.

155) ‘뒤치기’는 두 가닥의 집줄을 하나로 만들 때 돌리는 기구다.

108029 @ 응. 경행.(응, 그렇게 해서.)

108029 # 게민 너이 들어서 돼어.(그러면 넷이 들어서야 돼.)

108029 @ 집줄 허젠 허민 너이가 이서사 해?('집줄' 하려고 하면 넷이 있어야 해?)

108029 # 뒤치기 치는 사람.('뒤치기' 치는 사람.)

108029 @ 응.(응.)

108029 # 가운데 상 영 어울리는 사람, 들은 비곡, 들은 비어. 어울릴 때.(가운데 서서 이렇게 어우르는 사람, 들은 꼬고, 들은 꼬아. 어울릴 때.)

108029 @ 비는 건 어떻게 하는 거마씨?(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8029 # 비는 댐 흔 사람씩 비어.(꿀 댐 한 사람씩 꼬아.)

108029 @ 어떻 허는 게 비는 거라?(어떻게 하는 게 꼬는 거야?)

108029 # 줄을 놓주게, 영 새로.(줄을 놓지, 이렇게 띠로.)

108029 @ 아, 영 끼우는 거?(아, 이렇게 끼우는 거?)

108029 # 새가 이제 이거 실 거 아니가?(띠가 이제 이거 있을 거 아니냐?)

108029 @ 응.(응.)

108029 # 영허민 즈근즈근즈근 호롱이로 비어가민 츄츄츄츄 노가 늘어 가주게.(이렇게 하면 차근차근차근 '호롱이'로 꼬아가면 차츄차츄 노가 늘어 가지.)

108029 @ 응.(응.)

108029 # 늘어가면 그거 이제 두 개라. 두겔 허영 흔 줄로 허영 낫당.(늘어가면 그거 이제 두 개야. 두 개를 해서 한 줄로 해서 낫다가.)

108029 @ 예.(예.)

108029 # 비어낱 어울릴 때는 이젠 들이가 비고.(꼬아놓고 어우를 때는 이젠 들이서 꼬고.)

108029 @ 예.(예.)

108029 # 흔 사람은 가운데서 손으로 영 허여 가고 뒤치기 치고 경허여.(한 사람은 가운데서 손으로 이렇게 해 가고 '뒤치기' 치고 그렇게 해.)

108029 @ 응.(응.)

108029 # 줄은 게난 간단히 해지는 중 알아?(줄은 그러니까 간단히 해지는 줄 알아?)

108027 @ 게난. 그 줄 헐 새는 아무 새로나 돼여?(그러니까. 그 줄 할 띠는 아무 띠로나 돼?)

108027 # 아무 새로나 돼주마는 진 새가 경 어롭주게.(아무 띠로나 되지마는 긴 띠가 그렇게 어렵지.)

108027 @ 아.(아.)

108027 # 경허니까 각단¹⁵⁶이엔 허영 썩른 걸론 줄 놓고.(그러니까 '각단'이라고 해서 짧은 걸로는 줄 만들고.)

156) '각단'은 짧은 띠로 집 줄을 만드는 재료다.

108027 @ 응.(응.)

108027 # 진 걸론 집 일고.(긴 걸로는 집 이고.)

108027 @ 아, 진 건 집 일고.(아, 긴 건 집 이고.)

108027 # 응.(응.)

108027 @ 각단으로 줄 놓고.(‘각단’으로 줄 만들고.)

108027 # 각단으로 줄 놓고.(‘각단’으로 줄 만들고.)

108027 @ 각단은 어떤 거짜?(‘각단’은 어떤 것입니까?)

108027 # 각단은 쫄른 것이라 각단이라. 진 건 집 이는 거. 각단은 쫄라도 이제 줄 놓는 거. 쫄른 거. 각단은 쫄라도 씨니까.(‘각단’은 짧은 거보고 ‘각단’이야. 긴 건 집 이는 거. ‘각단’은 짧아도 이제 줄 놓는 거. 짧은 거. ‘각단’은 짧아도 쓰니까.)

108027 @ 응.(응.)

108027 # 진 건 이제 새가 훗척허영 막 헌 건 큰 새고 쫄른 건 뽕뽕하게 쫄른 건 비어당 그건 각단, 걸로 줄 놓아. 줄도 집 일젠 허민 진 줄, 쫄른 줄이 이서.(긴 건 이제 띠가 훗척해서 막 한 건 큰 띠고 짧은 건 바짝하게 짧은 건 베어다가 그건 ‘각단’, 그걸로 줄을 놓아. 줄도 집 이려고 하면 긴 줄, 짧은 줄이 있어.)

108027 @ 응.(응.)

108027 # 집 일젠 허민게 초가집, 초가집 일 때민 진 줄은 질게시리 ㄱ루 메영, 쫄른 줄은 또막또막 쫄르게 으라 개.(집 이려고 하면 초가집, 초가집 일 때면 긴 줄은 길게끔 가로 매어서, 짧은 줄은 도막도막 짧게 여러 개.)

108028 @ 줄도 집 헐 때 줄도 진 줄도 잇고 쫄른 줄도 이서사여?(줄도 집 할 때 줄도 긴 줄도 잇고 짧은 줄도 있어야 해?)

108028 # 응.(응.)

108028 @ 무사? 어떻?(무사? 어떻게?)

108028 # 진 줄은 이제 영 질게 스랑허게 매가는 거라이.(긴 줄은 이제 이렇게 길게 길쭉하게 매가는 거야.)

108028 @ 응.(응.)

108028 # 경허고 또 쫄른 줄은 집안 이레 보디지 안허여? 게민 쫄른 줄.(그리고 또 짧은 줄은 집안 이리로 가깝지 않니? 그러면 짧은 줄.)

108028 @ 아, 이렇게는 진 줄.(아, 이렇게는 긴 줄.)

108028 # 응.(응.)

108028 @ 요기는 쫄른 줄.(요기는 짧은 줄.)

108028 # 응, 경혜사 드망드망 삼각구 나게시리 줄 양 사이가 경행 매는 거주 게. 매어.(응, 그래야 듬성듬성 삼각형 나게 줄 양 사이가 그렇게 해서 매는 거지. 매어.)

108028 @ 어디가 삼각형 나게?(어디가 삼각형 나게?)

108028 # 그디 줄로 영허민 삼각구 나게 돼지 안허여게?(거기 줄로 이렇게 삼각

형 나게 되지 않니?)

108028 @ 삼각구를 나게?(‘삼각구’를 나게?)

108028 # 응.(응.)

108028 @ 삼각형?(삼각형?)

108028 # 삼각형 나도 건 안 골아도 돼고게.(삼각형 나도 그건 안 말해도 되고.)

108028 @ 사각형이 아니라 왜 삼각형?(사각형이 아니라 왜 삼각형?)

108028 # 사각형이고 삼각형이고. 이제도 성읍리¹⁵⁷ 험서. 전부 그거.(사각형이고 삼각형이고. 이제도 ‘성읍리’ 하고 있어. 전부 그거.)

108028 @ 응.(응.)

108026 # 거난 그것도 일 년에 혼 번 일어.(그러니까 그것도 일 년에 한 번 이어.)

108026 @ 응.(응.)

108026 # 일 년에 혼 번. 경허민 안거리 신 사름은 안거리 혼 해 일곡.(일 년에 한 번. 그러면 안채 있는 사름은 안채 한 해 이고.)

108026 @ 아.(아.)

108026 # 또 밧거리 혼 해 일곡 쉬들려사주. 것도 흠치 일젠 허민 버쳐, 버쳐.(또 바깥채 한 해 이고 번갈아야지. 그것도 한꺼번에 이려고 하면 부쳐, 부쳐.)

108026 @ 버쳐.(부쳐.)

108026 # 경허니까.(그러니까.)

108026 @ 혼 번씩예?(한 번씩요?)

108026 # 응. 밧거리 혼 해, 안거리 혼 해 경 일어.(응. 바깥채 한 해, 안채 한 해 그렇게 이어.)

108029 @ 집줄 영 험 때 영 돌리는 거 이수게?(집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108029 # 호롱이.(‘호롱이’.)

108029 @ 호롱이.(‘호롱이’.)

108029 # 호롱이, 줄 비는 건 호롱이.(‘호롱이’, 줄 꼬는 건 ‘호롱이’.)

108029 @ 응.(응.)

108029 # 뒤치기.(‘뒤치기’.)

108029 @ 호롱이, 뒤치기.(‘호롱이’, ‘뒤치기’.)

108029 # 어울릴 때 허는 건 뒤치기.(어우를 때 하는 건 ‘뒤치기’)

108029 @ 그다음?(그다음?)

108029 # 그거주게. 호롱이로 비어 가지고 어울릴 때는 뒤치기가 이서. 뒤치기 이렇게 헤영.(그거지. ‘호롱이’로 꼬아 가지고 어우를 때는 ‘뒤치기’가 있어. 뒤치기 이렇게 해서.)

108029 @ 응.(응.)

157) ‘성읍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말하는 것으로 성읍 민속마을을 가리킨다.

108029 # 고망 딸라근에 줄 영 찢렁 이제 일로 영 뱅뱅 돌려. 거 뒤치기라.(구멍 뚫어서 줄 이렇게 찢러서 이제 이리로 이렇게 뱅뱅 돌려. 그거 ‘뒤치기’야.)

108029 @ 저 베 같은 거 헐 때도, 베 짤 때도 그런 거, 베 영 만들 때도 경허는 건가? 줄, 집줄 말고 베.(저 바 같은 거 할 때도, 바 꼴 때도 그런 거, 바 이렇게 만들 때도 그렇게 하는 건가? 줄, ‘집줄’ 말고 바.)

108029 # 무신 베, 기지?(무슨 베, 옷감?)

108029 @ 아니, 아니. 저 췌석 님은 거.(아니, 아니. 저 참바 같은 거.)

108029 # 저 거시기 베 멘들 때 베?(저 거시기 바 만들 때 바?)

108029 @ 응.(응.)

108029 # 것도 줄이나 마찬가지로.(그것도 줄이나 마찬가지로.)

108029 @ 거난 그거 헐 때도 호롱이나 뒤치기로 허여.(그러니까 그거 할 때도 ‘호롱이’나 ‘뒤치기’로 해?)

108029 # 응. 그런 것도.(응. 그런 것도.)

108029 @ 똑ㄸ테?(똑같아?)

108029 # 응.(응.)

108029 @ 다른 거 엇어?(다른 거 없어?)

108029 # 다른 거 엇어.(다른 거 없어.)

108029 @ 그른 집 이런 초가집헐 때 집줄헐 때도 호롱이?(그러면 집 이런 초가 집할 때 집줄 할 때도 ‘호롱이’?)

108029 # 응, 호롱이.(응, ‘호롱이’.)

108029 @ 호롱이.(‘호롱이’.)

108029 # 응. 뒤치기.(응, ‘뒤치기’.)

108029 @ 뒤치기. 그거 두 개예?(‘뒤치기’. 그거 두 개요?)

108029 # 응.(응.)

108029 @ 그냥 게문 그냥 끈 멘들 때도.(그냥 그러면 그냥 끈 만들 때도.)

108029 # 끈 멘들 때도 많이 허젠 허민 그 호롱이로 막 비어근앵이 허고 경 안 허면 노 꼬양.(끈 만들 때도 많이 하려고 하면 그 ‘호롱이’로 막 꼬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 꼬아서.)

108029 @ 아, 노 꼬양.(아, 노 꼬아서.)

108029 # 노 꼬아근앵이 베 드리는 사람은 노 꼬아 가지고 이제 저디 영 줄 메 영.(노 꼬아서 바 만드는 사람은 노 꼬아 가지고 이제 저기 이렇게 줄 매어서.)

108029 @ 응.(응.)

108029 # 그레 차례차례 꼬아 가. 베 드릴 때게. 베 드리는 거.(그리로 차례차례 꼬아 가. 바 드릴 때, 바 드리는 거.)

108029 @ 응.(응.)

108029 # 베 드리젠 허민 삼갑¹⁵⁸으로게.(바 드리려고 하면 삼겹으로.)

158) ‘삼갑’은 세 가닥으로 드린 참바를 말하는 것이다. 새끼 꼬아놓고 또 한번 꼬는 것이므로 세가닥

108029 @ 응.(응.)

108029 # 스끼 꼬아냥 또로 혼 불 허는 건 삼갑이엔 허여근에.(새끼 꼬아놓고 또 한 벌 하는 건 삼겹이라고 해서.)

108029 @ 삼갑 드러?(삼겹 드러.)

108029 # 응, 경혜사 질겨.(응, 그렇게 해야 질겨.)

108029 @ 아, 삼갑은 세 번 허는 거?(아, 삼겹은 세번 하는 거?)

108029 # 응, 아니, 노 혼 번 꼬아냥 또 두 번 꼬는 것그라 삼갑 디럼젠.(응, 아 니.노 한 번 꼬아놓고 또 두 번 꼬는 것보고 삼겹 드린다고.)

108029 @ 아, 두 번 꼬는 것보고 삼갑 드럼텐.(아, 두 번 꼬는 것보고 삼겹 드 린다고.)

108029 # 질기게 삼갑 디렁.(질기게 삼겹 드러서.)

108029 @ 응.(응.)

108029 # 두 번은 허민 야리주게. 스끼 혼 번 꼬양은 베론 못 씨주. 이 쉼나 무 신 가린석을. 저 이 쉼나 메곡 하간 이제 오래 씨젠은 허민 삼갑을 디려야 돼여.(두 점은 하면 야리지. 새끼 한 번 꼬아서는 바로는 못 쓰지. 이 소나 무슨 고삐를. 저 이 소나 매고 온갖 이제 오래 쓰려고 하면 삼겹을 드러야 돼.)

108029 @ 응.(응.)

108031 @ 집줄은 어떻 매사 되는 거마씨?('집줄'은 어떻게 매야 되는 거예요?)

108031 # 어떻 매어게?(어떻게 매니?)

108031 @ 멧 번이나.(멧 번이나.)

108031 # 진 줄 매어냥 찌른 줄.(긴 줄 매어놓고 짧은 줄.)

108031 @ 아, 진 줄 먼저 매고 그다음 찌른 줄을 매?(아, 긴 줄 먼저 매고 그다 음 짧은 줄을 매?)

108031 # 응.(응.)

108031 @ 응.(응.)

108031 # 진 줄부터 다 매어냥.(긴줄부터 다 매어놔서.)

108031 @ 응.(응.)

108031 # 찌른 줄 매어.(짧은 줄 매어.)

108031 @ 아, 영 영 엇갈리게 안허고?(아, 이렇게 이렇게 엇갈리게 안 하고?)

108031 # 아니.(아니.)

108032 @ 진 줄 다 해냥 찌른 줄.(긴 줄 따 해놓고 짧은 줄.)

108032 # 응.(응.)

108032 @ 그든 그 허당 남은 집줄은 무시거 허여?(그러면 그 하다가 남은 '집 줄'은 뭐 해?)

108032 # 무시거 방식도 멘들주마는게. 무시걸 허여게? 부엌에 깔양 앓는 방식. (뭐 방식도 만들지마는. 무얼 해? 부엌에 깔아서 앓는 방식.)

이 된다.

108032 @ 방석 멘들아?(방석 만들어?)

108032 # 그 줄은 또 매당 남은 것도 씨주마는 줄 붓디와이. 또 매어낱 츠레츠레 이젠 그 줄을 하나씩 붓디와, 또.(그 줄은 또 매다 남은 것도 쓰지만 줄 죄어. 또 매어놓고 차례차례 이젠 그 줄을 하나씩 죄어, 또.)

108032 @ 붓디우는 게 어떻 허는 거?('붓디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거?)

108032 # 그 집을 일어노민 이제게 그냥 땀 땀 아멩이나 영 매지 안허느냐? 경허민 또 날 역버령 사다리 놔 가지고 뻥뻥하게 그걸 이제.(그 집을 이어 놓으면 이제 그냥 땀 땀 아무렇게나 이렇게 매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또 날을 잡아서 사다리 놔서 바싹하게 그걸 이제.)

108032 @ 아, 땀겨?(아, 당겨?)

108032 # 땀겨서 붓디와. 경허민 그 진 거 남은 거 그차.(당겨서 죄어. 그러면 그 긴 거 남은 거 끊어.)

108032 @ 응.(응.)

108032 # 지랑지랑 안 허게 툽툽 그치면 그런 걸로 봉강 방석도 멘들고, 그 줄로.(치렁치렁 안 하게 툽툽 끊으면 그런 걸로 주워서 방석도 만들고, 그 줄로.)

108032 @ 그 무신 방석이엔 곱아?(그 무슨 방석이라고 말해?)

108032 # 부엌 방석계, 정짓방석.(부엌 방석, '정짓방석'.)

108032 @ 정짓방석.('정짓방석'.)

108032 # 경허민 이제 정지에 또 식구 한 사람은 막 으라 개 든다게. 방석도 하나씩 곱아 앓젠 허민.(그러면 이제 부엌에 또 식구 많은 사람은 막 여러 개 들어. 방석도 하나씩 곱아 앓으려고 하면.)

108032 @ 응.(응.)

108032 # 우리도 방석 하낫저. 겨고 딱로 그 줄로 못허민 낭 딱로 쪼글락허게 오령 방석. 동글락 동글락허게 낭 오령.(우리도 방석 많았었어. 그리고 또 그 줄로 못하면 나무 또 작게 잘라서 방석. 동그랗게 동그랗게 나무 잘라서.)

108032 @ 낭 오령?(나무 잘라서?)

108032 # 응, 낭방석도 허고.(응, 나무방석도 하고.)

연장

108034 @ 낭 싸는 건 톱?(나무 켜는 건 톱?)

108034 # 톱.(톱.)

108034 @ 톱. 양쪽에 날이 양쪽으로 싸는 것도 이수과?(톱. 양쪽에 날이 양쪽으로 켜는 것도 있습니까?)

108034 # 양쪽으로 싸는 것도 이서.(양쪽으로 켜는 것도 있어.)

108034 @ 건 무신거엔 곱아?(그건 뭐라고 말해?)

108034 # 그거 큰 톱이라, 큰 톱.(거거 큰 톱이야, 큰 톱.)

108034 @ 그냥 큰 톱?(그냥 큰 톱?)

108034 # 아니, 양쪽을 싸는 건 작은 거주. 쌍툽이엔 현 거, 쌍툽.(아니, 양쪽을 켜는 건 작은 거지. 쌍툽이라고 한 거, 쌍툽.)

108034 @ 쌍툽?(쌍툽?)

108034 # 이쪽에도 허고 이쪽에도 허메. 그건 죽은 툽 아니? 죽은 툽이주. 큰 툽은 늘 두 개 허영 안 돼여.(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해. 그건 작은 툽 아니? 작은 툽이지. 큰 툽은 날 두 개 해서 안 돼.)

108034 @ 큰 툽은 늘 두 개허민 안 돼, 휘어져 불어?(큰 툽은 날 두 개하면 안 돼, 휘어져 버려?)

108034 # 아니게, 무섭주게. 이디 낭 쌀 때 헤여난 제주노래 허는디.(아니, 무섭지. 여기 나무 결 때 했던 제주노래 하는데.)

108034 @ 양날베기, 웨날베기 영도 곤는가?(양날베기, 외날베기 이렇게도 말하는가?)

108034 # 응, 양날베긴 양쪽에 이신 거 양날베기, 외날베긴 혼 쪽만 신 거.(응, 양날베긴 양쪽에 있는 거 양날베기. 외날베긴 한 쪽만 있는 거.)

108034 @ 양날베기엔 곱아.(양날베기라고 말해?)

108034 # 그것도이 그거 죽은 툽일 거여. 혼쪽 증가된 또 혼쪽 씨곡 험지. 것도 양쪽을 저.(그것도 그거 작은 툽일 거야. 한쪽 잠가두고 또 한쪽 쓰고 하지. 그것도 양쪽을 저.)

108034 @ 막 큰 툽은 무신거엔 곱아?(아주 큰 툽은 뭐라고 말해?)

108034 # 장툽. 장툽인디 건 막 커.(장툽. 장툽인데 그건 아주 커.)

108034 @ 장툽도 이서마씨?(장툽도 있어요?)

108034 # 큰 낭이 옛날은 둘이가 마주 상 허여.(큰 나무 옛날은 둘이가 마주 서서 해.)

108034 @ 둘이가 영 마주 상 영영허는 거? 그게 장툽?(둘이가 이렇게 마주 서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장툽?)

108034 # 응, 막 커. 막 커부니까 둘이가 해야지.(응, 아주 커. 아주 커버리니까 둘이서 해야지.)

108034 @ 둘이가 영 잡앙 허는 게 장툽.(둘이서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게 장툽.)

108034 # 널 오리는 거, 널. 널판 오려.(널 오리는 거, 널. 널판 오려.)

108034 @ 아, 걸로 널 오리는 거.(아, 그걸로 널 오리는 거.)

108034 # 옛날은 기계 엇어부난 사람 둘이 마주 상 어여싸 어여싸 허멍.(옛날은 기계 없어버리니까 사람 둘이 마주 서서 어여싸 어여싸 하면서.)

108034 @ 응, 게민 툽인디 혼자 허는 거 큰 툽은 곤는 말 이신가?(응, 그러면 툽인데 혼자 하는 거 큰 툽은 하는 말 있나?)

108034 # 아니, 그건 그냥 보통 툽.(아니, 그건 그냥 보통 툽.)

108034 @ 그냥 툽.(그냥 툽.)

108034 # 이 저 낭 싸는 거, 그 큰 툽은 장툽이여, 장툽. 막 큰 거.(이 저 나무

켜는 거, 그 큰 툇은 장툇이다, 장툇. 아주 큰 거.)

108034 @ 툇질허민 막 옆이 뭐 털어집니까?(툇질하면 막 옆에 뭐 떨어지잖아
요?)

108034 # 툇밥.(툇밥.)

108034 @ 건 그냥 툇밥?(그건 그냥 툇밥?)

108034 # 응, 툇밥 담아불명 헤염주게. 툇ㄴ루, 툇ㄴ루엔도 허곡 툇밥이엔도 허
곡.(응, 툇밥 담아 버리면서 하고 있지. 툇가루, 툇가루라고도 하고 툇밥이라고도 하
고.)

108034 @ 툇ㄴ루엔도 허여?(툇가루라고도 해?)

108034 # 응, 툇ㄴ루엔도 허곡 툇밥이엔도 허곡.(응, 툇가루라고도 하고 툇밥이
라고도 하고.)

108034 @ 툇ㄴ루?(툇가루?)

108034 # 툇밥, 요샌 툇밥을 하영 씨어라. 툇밥이엔.(툇밥, 요샌 툇밥을 많이 쓰
더라. 툇밥이라고.)

108034 @ 이제 쓰는 말 말고 옛날 써난 말로.(이제 쓰는 말 말고 옛날 썼던 말
로.)

108034 # 게난 툇ㄴ루.(그러니까 툇가루.)

108034 @ 툇ㄴ루예, 툇밥 아니고예?(툇가루요, 툇밥 아니고요?)

108034 # 툇ㄴ루.(툇가루.)

108033 @ 나무 까끄는 건.(나무 깎는 건?)

108033 # 자귀, 자귀도이.(자귀, 자귀도.)

108033 @ 응.(응.)

108033 # 큰 자귀가 잇고 작은 자귀 셔.(큰 자귀가 있고 작은 자귀 있어.)

108033 @ 건 일름 트나게 불러?(그건 이름 다르게 불러?)

108033 # 그건 그냥 큰 자귀걸.(그건 그냥 큰 자귀일걸.)

108033 @ 큰 자귀, 작은 자귀 그냥?(큰 자귀, 작은 자귀 그냥?)

108033 # 응, 자귀 영 하나 작은 건이 흔 손으로 헤영 툇툇 짓는 거고.(응, 자귀
는 이렇게 하나 작은 건 한 손으로 해서 툇툇 깎는 거고.)

108033 @ 응.(응.)

108033 # 큰 자귀는 영헤영 막 낭 찍는 거 이서.(큰 자귀는 이렇게 해서 막 나
무 깎는 거 이서.)

108033 @ 아, 혹시 안쪽을 영 호벼내는 자귀도 이수과?(아, 혹시 안쪽을 이렇게
호벼내는 자귀도 있습니까?)

108033 # 그건 저 무시거게, 아이고 확 곤젠 허난. 끝, 끝.(그건 저 무엇, 아이고
확 말하려고 하니까. 끝, 끝.)

108033 @ 끝.(끝.)

108033 # 끝 헤여근엿에 툇툇 찍음도 허고 파냄도 허여.(끝 해서 툇툇 찍기도

하고 파내기도 해.)

108033 @ 응.(응.)

108033 # 끝, 끝.(끝, 끝.)

108033 @ 혹시 옥자귀, 번자귀, 곱새자귀?(혹시 옥자귀, 번자귀, 곱새자귀?)

108033 # 곱새자귀 그런 건이, 이 저 낭혀는 딴 벨로 안 쓰고 하간 기술자덜이. 흙 파내는 거 영.(곱새자귀 그런 건, 이 저 나무하는 데는 별로 안 쓰고 온갖 기술자들이 흙 파내는 거 이렇게.)

108033 @ 흙 파내는 게 무신거?(흙 파내는 게 뭐?)

108033 # 그건 게 흙 파는 것ㄴ라게 곡췌베끼 더 셔. 곡췌, 곡췌.(그건 흙 파는 거보고 곡쇠밖에 더 있어. 곡쇠, 곡쇠.)

108033 @ 곡췌?(곡쇠?)

108033 # 응, 영 흙 파내는 거 곡췌주게, 굽어 내는 거.(응, 이렇게 흙 파내는 거 곡쇠지, 굽어 내는 거.)

108033 @ 곡췌 자귀? 곡췌?(곡쇠 자귀? 곡쇠?)

108033 # 곡췌 건 자귀가 아니.(곡쇠 그건 자귀가 아니.)

108033 @ 그냥 곡췌.(그냥 곡쇠.)

108033 # 그 저 이 기술자덜.(그 저 이 기술자들.)

108033 @ 예.(예.)

108033 # 하간 거 허레 뎅기는 디는 그런 게 막 많이 들어가.(온갖 거 하러 다니는 데는 그런 게 아주 많이 들어가.)

108033 @ 흙파내는 거 곡췌.(흙파내는 거 곡쇠.)

108033 # 응, 곡췌.(응, 곡쇠.)

108033 @ 곡췌.(곡쇠.)

108033 # 끝, 끝은 또 탁탁 찍어근앵이 저 거시기 망치로. 끝은이.(끝, 끝은 또 탁탁 찍어서 저 거시기 망치로. 끝은.)

108033 @ 예.(예.)

108033 # 낭 고망 딸를 때 탁탁 찍어근앵이 그차내는 거고. 끝, 끝.(나무 구멍 뚫을 때 탁탁 찍어서 잘라내는 거고. 끝, 끝.)

108035 @ 망친데 한 쪽은 영 못 박고 한 쪽은 못 빼게 뵈 거.(망치인데 한 쪽은 이렇게 못 박고 한 쪽은 못 빼게 된 거.)

108035 # 못빼기, 못빼기.(못빼기, 못빼기.)

108035 @ 못 빼는 거 못빼기?(못 빼는 거 못빼기?)

108035 # 혼 쪽으로는 망치질허고 혼 쪽으로는 못 빼고, 경혀는.(한 쪽으로는 망치질하고 한 쪽으로는 못 빼고, 그렇게 하는.)

108035 @ 경혀는 못빼기 망치?(그러면 못빼기 망치?)

108035 # 으, 못빼기 망치.(으, 못빼기 망치.)

108035 @ 아.(아.)

108035 # 그 못도 빼고. 잘못해서민 빼넣 새로 허는 거. 그리치민 또 밀어뒹 허는 거 마찬가지로.(그 못도 빼고. 잘못했으면 빼내서 새로 하는 거. 잘못하면 또 밀어두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108035 @ 응.(응.)

108035 # 못 이제 사용허는 사람은 그걸 주로 아정 땡겨야주게.(못 이제 사용하는 사람은 그걸 주로 가져 다녀야지.)

108035 @ 기지예?(그렇죠?)

108035 # 못빼기 아정 땡겨.(못빼기 가지고 다녀.)

108035 @ 한 쪽은 못빼기로 쓰고 한 쪽은.(한 쪽은 못빼기로 쓰고 한 쪽은.)

108035 # 망치.(망치.)

108035 @ 망치 아니고 지렛대처럼 뒹 것도 이수과?(망치 아니고 지렛대처럼 뒹 것도 있습니까?)

108035 # 무신 지레?(무슨 지레?)

108035 @ 이런 낭팽이처럼 이렇게 헤근에 영 눌러근에 무거운 거 들고 허는, 그런 건 엇어?(이런 막대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서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그런 건 엇어?)

108035 # 엇은디. 그건 저 거세기 것ㄴ라 뭐엔 허는디, 저 들르는 거. 그거 이름 모르크라. 들르는 것ㄴ라.(없는데. 그건 저 거시기 그것보고 뭐라고 하는데. 저 드는 거. 그거 이름 모르겠다. 드는 것보고.)

108035 @ 응.(응.)

108035 # 들르는 것도 이서. 영 이 아래. 그 옛날은.(드는 것도 있어. 이렇게 이 아래. 그 옛날은.)

108035 @ 이런 디 영 담양 영 눌러민.(이런 데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누르면.)

108035 # 지름, 지름클로 영 기계 데와가민 그것이 올렸당 느렸당 헤난디.(지름, 기름틀로 이렇게 기계 비틀어 가면 그것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했었는데.)

108035 @ 지름클?(기름틀?)

108035 # 지름 빼는 게 이서.(기름 빼는 게 있어.)

108035 @ 아.(아.)

108035 # 옛날 손으로 데왕. 이제 어디 지동이나 어디가 이제 내려앉일 거 아니? 경허면은 사람으로 못 들르지. 경허민 돌 바뵤 가지고 그 기계 앓다다근에.(옛날 손으로 비틀어서. 이제 어디 기둥이나 어디가 이제 내려앉을 거 아니? 그러면은 사람은 못 들지. 그러면 돌 받쳐 가지고 그 기계 가져다가.)

108035 @ 응.(응.)

108035 # 데와가민 측 올라가.(비틀어가면 측 올라가.)

108035 @ 기계 말고 쇠로만 뒹 건 엇수과?(기계말고 쇠로만 뒹 건 있습니까?)

108035 # 거 잘 몰르크라, 이름. 우리 그런 건 봐났저, 지름클 그 저 올리는 거.(거 잘 모르겠어, 이름. 우리 그런 건 봤었어, 기름틀 그 저 올리는 거.)

108036 @ 대패?(대패?)

108036 # 대패 저 냥 미는 거.(대패는 저 나무 미는 거.)

108036 @ 그건 제주도 말로.(그건 제주도 말로.)

108036 # 건 대패라.(그건 대패야.)

108036 @ 그냥 대패.(그냥 대패.)

108036 # 영 널 밀어가민 멘착허게 미는 거.(이렇게 널 밀어가면 미끈하게 미는 거.)

108036 @ 아까 곡쇄는 대패 비슷한 거봐?(아까 곡쇄는 대패 비슷한 것입니까?)

108036 # 아니. 끝인디 흐뭇 오그라진 거 이서.(아니. 끝인데 조금 오그라진 거 있어.)

108036 @ 아.(아.)

108036 # 끝허고 그거허고 ㄴ찌 들루는 거라, 그거.(끝하고 그거하고 같이 따르는 거야, 그거.)

108036 @ 응.(응.)

108036 # 게메. 끊어내는 게 잇주게. 끌로 독독허영 다 흠파내지 못허면 그 곡쇄해사 흠파내여. 우리 거 늣 허는 거 봤주. 무신 씨어봐서게?(그러게. 끊어내는 거 있지. 끌로 독독해서 다 흠파내지 못하면 그 곡쇄해야 흠파내. 우리 그거 남 하는 거 봤지. 무슨 씨 봤니?)

108037 @ 자, 기억 자로 생긴 자?(자, 기억 자로 생긴 자?)

108037 # 자?(자?)

108037 @ 곱은자?(곱은자?)

108037 # 곱은자, 곱은자.(곱은자, 곱은자.)

108037 @ 곱은자예.(곱은자요.)

108037 # 그건이 요런 디 구썩허게 구썩 재당 저디 강 썰 거 아니?(그건 요런 데 곧게 곧게 재다가 저기 가서 썰 거 아니?)

108037 @ 예.(예.)

108037 # 이렇게 기억 제로 요렇게 해서 영 일로도 재곡 허는 것ㄴ라 곱은자라.(이렇게 기억 자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리로도 재고 하는 것보고 곱은자야.)

108038 @ 떡통, 떡줄, 떡갈.(떡통, 떡줄, 떡갈.)

108038 # 떡통은 떡 갈아근예, 떡통허영 떡술도 놓곡. 그디 실 감는 것도 다 셔. 떡통 안네.(떡통은 떡 갈아서, 떡통해서 떡줄 놓고. 거기 실 감는 것도 다 있어.)

108038 @ 그 실은 무신거라, 떡술?(그 실은 뭐야, 떡줄?)

108038 # 떡술.(떡줄.)

108038 @ 떡술은?(떡줄은?)

108038 # 떡술은 이제 옛날에 이제ㄴ치 무시거 시냐게? 이제 연필 이시니까 짹 짹 기섬주마는 그땐 엇이니까 떡 갈아서 떡통이 이서, 목시덜 씨는 떡통.(떡술은 이제 옛날에 이제처럼 무엇 있니? 이제 연필 있으니까 짹짹 그리지만 그땐 없으니까

떡 같아서 떡통이 있어, 목수들 쓰는 떡통.)

108038 @ 응.(응.)

108038 # 그 떡통도 이젠 낭으로 멘들아 가지고 영 통 또 요만이 통허고 들렁 땡기는 거 이서. 그디 이젠 물 낱 떡 곱아 낫당.(그 떡통에 이젠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통 또 요만큼 통하고 들고 다니는 거 있어. 거기 이젠 물 놓고 떡 같아 놓았다가.)

108038 @ 응.(응.)

108038 # 실 또 그디 실 감아져이, 가운데 감아지면, 영 등겨 가민 실 풀어지게 그디 도로기 메와서이. 목시질 헐 때민 이제 그 반듯허게시리 헐 땡 떡술 낱 탁탁 따리민 그것이 번뜩허지게. 경허연 해난.(실 또 거기 실 감겨있어, 가운데 감겨 있으면, 이렇게 당겨 가면 실이 풀어지게 거기 바퀴 박아. 목수질 할 때면 이제 반듯하게 할 땡 떡줄 놔서 탁탁 때리면 그것이 반듯하지. 그렇게 했었어.)

108038 @ 아.(아.)

108038 # 경헤연 목시덜 낭 오릴 때, 널판 오릴 때, 널도이 이제는 못을 사용허지 안허느냐게.(그렇게 목수들 나무 오릴 때, 널판 오릴 때, 널도 이제는 못을 사용하지 않나?)

108038 @ 예.(예.)

108038 # 견디 못으로만, 도레기도 낭으로만 멘들앙 문도 들주게, 그때. 낭을 이제 조금 알로 까꺼내어, 가까내어 가지고 도레기 헐 만이 허영 그디 도레길 멘드는 거라, 우알에.(그런데 못으로만, 바퀴도 나무로 만들어서 문도 달지, 그때. 나무를 이제 조금 아래로 깎아내, 깎아내 가조고 바퀴 할 만큼 해서 거기 바퀴 만드는 거야, 위아래.

108038 @ 응.(응.)

108038 # 지방도 이젠 툽허게 고망 툽랑 그레 문 들고 열곡. 것도 막 질겨 게도. 겨난 널도 춤낭으로 헤여.(지방도 이젠 툽허게 구멍 뚫어서 거기 문 달고 열고. 그것도 아주 질겨 그래도. 그러니까 널도 참나무로 해.)

108038 @ 문 널도.(문 널도.)

108038 # 널문 허젠 허민.(널문 하려고 하면.)

108038 @ 널문 허젠 허민.(널문 하려고 하면.)

108038 # 경헤낫저, 떡통 헤영 떡술 놓고.(그렇게 했었어, 떡통 해서 떡줄 놓고.)

108038 @ 떡칼도 셔?(떡칼도 있어?)

108038 # 저 거시기 떡칼?(저 거시기 떡칼?)

108038 @ 응.(응.)

108038 # 칼도 이실테주. ㄱ치 들황, 떡통에.(칼도 있겠지. 같이 따라서, 떡통에.)

108038 @ 떡통에.(떡통에.)

108038 # 그 실토 그치곡 헐 거라부난. 거 목시덜 가정 땡겨, 다 곳황.(그 실토

자르고 할 거라서. 그거 목수들 가져 다녀. 다 갖춰서.)

108038 @ 목시덜.(목수들.)

108038 # 또이 목시도 연장께가 이서이.(또 목수도 연장상자가 있어.)

108038 @ 연장께?(연장상자?)

108038 # 낭으로 저 짜근에 박스 닳은 거. 연장께라고. 다 놔, 곳창. 톱이여 뭐 일친 거 다.(나무로 저 짜서 박스 같은 거. 연장상자라고. 다 놔, 갖춰서. 톱이다 뭐 모든 거 다.)

108038 @ 응.(응.)

108038 # 끌이여, 그런 거 연장께. 연장 놓는 거, 것ㄴ라 연장께라고 헤여.(끌이 다, 그런 거 연장상자. 연장 놓는 거, 그것보고 연장상자라고 해.)

108038 @ 연장께.(연장 상자.)

108038 # 저 연장께 아져오라, 연장께에 낫당 무시거 씨게 뉘민 경행 허주.(저 연장상자 가져와라, 연장상자에 뉘다가 무엇 쓰게 되면 그렇게 하지.)

108038 @ 그 집 혈 때 옛날은 엇어낫주마는 중간에 무사 낭으로 영 행은에 흑 손, 벽 칠허는 거 이수게?(그 집 할 때 옛날은 없었지만 중간에 왜 나무로 이렇게 해서 흑손, 벽 칠하는 거 있잖아요?)

108039 # 쉼손, 쉼손.(쇠손, 쇠손.)

108039 @ 낭으로 쉼 건?(나무로 된 건?)

108039 # 낭으로 쉼 거. 쉼손은 쉼로 멘들앗주.(나무로 된 거. 쇠손은 쇠로 만들었지.)

108039 @ 거난 낭으로 쉼 건 엇어?(그러니까 나무로 된 건 없어?)

108039 # 낭으로 쉼 것도 옛날 낭 쉼손 엇인 때 저.(나무로 된 것도 옛날 나무 쇠손 없을 때 저.)

108039 @ 그냥 흑손이엔 곶아? 그믄.(그냥 흑손이라고 말해?)

108039 # 아니, 그 널판으로 또 멩글앗지, 그런 것도.(아니, 그 널판으로 또 만들었지, 그런 것도.)

108039 @ 건 무신거엔 곶아?(그건 뭐라고 말해?)

108039 # 것도, 거시기 쉼손이엔 허여근에 그 저 흑 불리는 거.(그것도, 거시기 쇠손이라고 해서 저 흑 바르는 거.)

108039 @ 거난 흑 불리는 거보고 무신거?(그러니까 흑 바르는 거 보고 뭐?)

108039 # 쉼손이엔 허엿주게.(쇠손이라고 했지.)

108039 @ 낭손, 남손?('낭손', '남손?')

108039 # 낭손이엔 안 곶아.('낭손'이라고 안 말해.)

108039 @ 안 곶아봐.(안 말해봤어.)

108039 # 쉼손게, 쉼손, 우린 쉼손이엔만 곶아나난.(쇠손, 쇠손. 우린 쇠손이라고만 말했었어.)

108039 @ 쉼손이엔만 곶아난. 흑손, 남손 이런 말 안 써반예?(쇠손이라고만 말

했었어. 흠손, 나무손 이런 말 안 써봤어요?)

108039 # 응, 널판으로도 멘들양 쓰긴 허여. 영 조륙 듣정.(응, 널판으로도 만들어서 쓰긴 해. 이렇게 자루 달려서.)

108039 @ 예.(예.)

108039 # 쉼손ㄹ치륙, 옛날 엇인 땐.(쇠손처럼, 옛날 없을 땐.)

108039 @ 응.(응.)

8. 신앙

109002 @ 새집이 가문 제도 지냅니께예?(새집에 가면 제도 지내잖아요?)

109002 # 제도 지내구정 허민 지내주게.(제도 지내고 싶으면 지내지.)

109002 @ 보통 허지 안해?(보통 하지 않아?)

109002 # 보통 다 허여. 게도 요새 지냅샤? 아파트 가는 사름덜.(보통 다 해. 그래도 요새 지내니? 아파트 가는 사람들.)

109002 @ 무신 뭐 성주도 내리고 해야 뵤텐 허던데.(무슨 뭐 성주도 내리고 해야 된다고 하던데.)

109002 # 집 짓으면 성주 느리아사주게.(집 지으면 성주 내려야지.)

109002 @ 하하하.(하하하.)

109002 # 요새 아파트도 성주 느리우는 사름은 느리와.(요새 아파트도 성주 내리는 사름은 내려.)

109002 @ 집 짓으면.(집 지으면.)

109002 # 우리도 집 짓으면 성주 느리아사주게.(우리도 집 지으니까 성주 내렸어.)

109002 @ 응.(응.)

109002 # 것도 옛날 법이주게.(그것도 옛날 법이지.)

109002 @ 그건 어떻 행 허는 거마씨?(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109002 # 어떻 허여게, 찜. 심방 빌어당 해야주게.(어떻게 해, 찜. 무당 빌어다가 해야지.)

109002 @ 심방 빌어당.(무당 빌어다가.)

109002 # 시님도 빌어당 허는 사름은 허고.(스님 빌어다가 하는 사름은 하고.)

109002 @ 뭐 막 득도 잡곡 뭐, 사탕도 뿌리곡 막 해?(뭐 막 닭도 잡고 뭐, 사탕도 뿌리고 막 해?)

109002 # 아니, 사탕 무신 사탕.(아니, 사탕 무슨 사탕.)

109002 @ 그런 거 안 해마씨?(그런 거 안 해요?)

109002 # 그런 거 안 해. 득은 씨주, 득.(그런 거 안 해. 닭은 쓰지, 닭.)

109002 @ 득은 씨.(닭은 씨.)

109002 # 득은 흔 마리 씨. 장득 사탕.(닭은 한 마리 씨. 장닭 사다가.)

109002 @ 장득 사당.(장담 사다가.)

109005 @ 안택은 무신거마씨?(안택은 뭐예요?)

109005 # 그것이 그거주, 안택. 이제 우리가 해마다 정성 드리는 거.(그것이 그 거지, 안택. 이제 우리가 해마다 정성 드리는 거.)

109005 @ 칠성제?(칠성제?)

109005 # 응.(응.)

109005 @ 그게 안택마씨?(그게 안택이예요?)

109005 # 응, 그거엔 곧암실 거여. 안택헬젠.(응, 그거라고 말하고 있을 거야. 안택한다고.)

109005 @ 안택헬젠 곧습니까?(안택한다고 말합니까?)

109005 # 경 곧는 사람도 싯고.(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9005 @ 응. 이디선 그냥 칠성젠 지낸덴.(응. 여기선 그냥 칠성젠 지낸다고.)

109005 # 응, 칠성제. 집이 이제 문전님, 조왕할마님.(응, 칠성제. 집에 이제 문전님, 조왕할머님.)

109005 @ 응.(응.)

109005 # 그 나시를 이제 제를 지내는 거주게. 집이 살명.(그 짓을 이제 제를 지내는 거지. 집에 살면서.)

109005 @ 응.(응.)

109005 # 집이서는 옛날 법이 이제 문전님 이제 직허여 주고 조왕할마님이 직허여준데 이 집을.(집에서는 옛날 법이 이제 문전님 지켜주고, 조왕할머님이 지켜준다고 이 집을.)

109005 @ 응.(응.)

109005 # 경허영 제 지내는 거.(그렇게 해서 제 지내는 거.)

109005 @ 집이는 문전하고 조왕하고 또 다른 신은 엇어마씨?(집에는 문전하고 조왕하고 또 다른 신은 없어?)

109005 # 다른 신도 무사 잇주게. 저 칠성이엔 허영 또.(다른 신도 왜 있지. 저 칠성이라고 해서 있고.)

109005 @ 칠성.(칠성.)

109005 # 응, 잇고.(응, 잇고.)

109005 @ 할머니네도 이런 거 해난마씨?(할머니네도 이런 거 했었어요?)

109005 # 허고말고. 우리도 초상덜이 해나난 전통으로게. 옛날에.(하고말고. 우리도 조상들이 했었으니까 전통으로. 옛날에)

109005 @ 칠성제는 어떻 허는 거?(칠성제는 어떻게 하는 거?)

109005 # 응.(응.)

109005 @ 칠성제는 어떻 허는 거?(칠성제는 어떻게 하는 거?)

109005 # 칠성제는이 이제 침 복 엇인 사람 복도 빌어줍서, 멩 엇인 사람 멩도 빌어줍서 헤영 막 큰제라.(칠성제는 이제 침 복 없는 사람 복도 빌어주세요, 멩 없

는 사람 명도 빌어주세요, 해서 막 큰 제야.)

109005 @ 아.(아.)

109005 # 보통 제가 아니라. 불도 할머니이엔 허영 불도맞이라고 그 제에 부짱 칠성제도 허곡 경해여.(보통 제가 아니야. 불도 할머니이라고 해서 불도맞이라고 그 제에 붙여서 칠성제도 하고 그렇게 해.)

109005 @ 안칠성, 맞칠성허던데 그건 뭐마씨?(안칠성, 밖칠성 하던데 그건 뭐예요?)

109005 # 그것은 또 또로 집직허는 어른 나시.(그것은 또 또 집 지키는 어른 깃.)

109005 @ 아.(아.)

109005 # 뜨나, 뜨나.(달라, 달라.)

109006 @ 이 마을에 당 그런 거는 잇수가?(이 마을에 당 이런 거는 없습니까?)

109006 # 포제 허고 또로 저 정월 일뤼, 일뤼 할망신디 호당마다.(포제하고 또 저 정월 이레, ‘일뤼 할망’에게 집집마다.)

109006 @ 어디마다, 호당마다? (어디마다, ‘호당’마다?)

109006 # 이 저 이녁 집집마다, 집집마다 소원 빌레 가주게.(이 저 자기 집집마다, 집집마다 소원 빌러 가지.)

109006 @ 어디 가? 일뤼당¹⁵⁹에?(어디 가? ‘일뤼당’에?)

109006 # 으.(응.)

109006 @ 일뤼당은 어디 이수과?(‘일뤼당’은 어디 있습니까?)

109006 # 요레 가민 잇주.(요리로 가면 있지.)

109006 @ 흐뎡 잇당 ㄹ리쳐 줘서예.(조금 있다가 가르쳐 주세요.)

109006 # ㄹ리쳐 무신거 허젠?(가르쳐서 뭐 하려고?)

109006 @ 사진 찍젠. 이디 본향당도 잇주예?(사진 찍으려고. 여기 본향당도 잇지요?)

109006 # 알선홀, 알선홀. 알선홀은이 정월 십사일날 음력으로 그날에 큰 제로 해서 가고 여기는 이제 칠일날만 가고.(아랫선홀, 아랫선홀. 아랫선홀은 정월 십사일날 음력으로 그날에 큰 제로 해서 가고 여기는 이제 칠일날만 가고.)

109006 @ 칠일날만? 칠일, 십칠일?(칠일날만? 칠일, 십칠이?)

109006 # 으, 십칠일날도 가고 칠일날은 가. 이십칠일날도 가고. 이제 일뤼가 대목이라고 해 가지고.(응, 십칠일날도 가고 칠일날은 가. 이십칠일날도 가고. 이제 이레가 대목이라 해 가지고.)

109006 @ 혼 달에 세 번 가는 거파?(한 달에 세 번 가는 겁니까?)

109006 # 아니, 일년에 혼 번 가는데 이제 그런 일뤼날은 간다고. 이녁 가지는 날. 선홀 ㅁ을을 직허는 일뤼할마니. 경 이제 정월에도 가고 또 이제 ㄹ을에 십일월

159) ‘일뤼당’은 매달 음력 이렛날만 제의를 올리는 신당이다. 일뤼할망은 농경신이자 출산, 육아, 치병의 직능을 지니고 있는 여신이다

들에 이제 많은 곡식을 헤여 드렸수다 허영 또 제 지내러 가. 경 허는 거.(아니, 일년에 한 번 가는데 이제 그런 이레날은 간다고. 자기 갈 수 있는 날. 선흘 마을을 지키는 '일뒤향머니.' 그렇게 이제 정월에도 가고 또 이제 가을 십일월에 이제 많은 곡식을 해 들었습니다 해서 또 제 지내러 가. 그렇게 하는 거.)

109006 @ 할머니도 가났수과?(할머니도 갔었습니까?)

109006 # 가고말고. 대목 가지. 음력 정월들에.(가고말고. 대목 가지. 음력 정월에.)

109006 @ 정월 초일렛날 가는 거? 일월 칠일날?(정월 초이레날 가는 거? 일월 칠일날?)

109006 # 일월 칠일날 못 가면 십칠일날 가고. 이녁 못 가면. 또 몸이 이제 부정 타나 뭐허민 못 가지게. 경허민 또 십칠일날 가곡. 또 십일월들에도 가고.(일월 칠일날 못 가면 십칠일날 가고. 자기 못 가면. 또 몸이 이제 부정 타거나 뭐하면 못 가지. 그러면 또 십칠일날 가고. 또 십일월에도 가고.)

109006 @ 일 년에 두 번 가는 거짜?(일 년에 두 번 가는 겁니까?)

109006 # 응, 두 번.(응, 두 번.)

109006 @ 갈 때 무신거 행 가?(갈 때 뭐 해서 가?)

109006 # 무신거 행 가? 밥 행 메, 메렌 허주, 밥ㄴ라. 메 시 개 거리고, 갯것제숙 두 개 굽곡, 또 이제 떡도 신 가지 제물로 출려지는 냥. 떡도 허여지민 허고, 못 허여, 매번.(뭐 해서 가? 밥 해서 메, 메라고 하지, 밥보고. 메 세 개 뜨고, 바닷고기 두 개 굽고, 또 이제 떡도 여러 가지 제물로 차려지는 대로. 떡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해, 매번.)

109006 @ 돌레떡이라도 행 가지 안허여?(도래떡이라도 해서 가지 앓아?)

109006 # 헤영 가지민 좋주마는 요새엔이 못 현다게.(해서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요새는 못 한다.)

109006 @ 요새 못 해도 옛날엔?(요새는 못 해도 옛날에는?)

109006 # 옛날엔 허고말고.(옛날에는 하고말고.)

109006 @ 무신거 해났수과?(뭐 했었습니까?)

109006 # 돌레떡. 모뎀ㄴ룰로도 행 가고.(도래떡. 메밀가루로도 해서 가고.)

109006 @돌레떡 하나만 행 갑니까? 멧 개 해야 뒤여?(도래떡 하나만 해서 갑니까? 멧 개나 해야 돼?)

109006 # 혼 반에이 세 개씩 올려. 겨민 혼 열 개 더 아정 가야지. 올리구정 허민 더 올리고. 것도 뒤.(한 반기에 세 개씩 올려. 그러면 한 열 개 더 가져 가야지. 올리고 싶으면 더 올리고. 그것도 뒤.)

109006 @ 그다음에.(그다음에.)

109006 # 과일.(과일.)

109006 @ 과일은 멧 개?(과일은 몇 개?)

109006 # 삼중. 미깡, 사과, 배.(삼중. 귤, 사과, 배.)

109006 @ 삼중으로 세 개합니까? 밥이 세 개난.(삼중으로 세 개 합니까? 밥이 세 개니까?)

109006 # 건 과일은 삼중허는 거난, 혼 사라에 세 개씩. 세 사라.(그건 과일은 삼중하는 거니까, 한 접시에 세 개씩. 세 접시.)

109006 @ 독새긴 안허여?(달같은 안 해?)

109006 # 해여.(해.)

109006 @ 독새긴 멧 개 허여?(달같은 멧 개 해?)

109006 # 독새기 상 강 두 개도 올리고 하나씩도 올리고 그자. 이녁 출령 가지는 혼. 무신 누게 하영 출리라 무신건 엇어. 이녁 므음껏, 정성껏.(달같 사서 가서 두 개도 올리고 하나씩도 올리고 그냥. 자기 차려서 갈 수 있는 만큼. 무슨 누가 많이 차려라 무엇은 없어. 자기 마음껏, 정성껏.)

109006 @ 제 지내는 건 어떻 합니까?(제 지내는 건 어떻게 합니까?)

109006 # 이제 강 절도 허고, 또 신안 오면은 말뽕¹⁶⁰도 허영 신수도 보고.(이제 가서절도 하고, 또 무당 오면은 ‘말뽕’도 해서 신수도 보고.)

109006 @ 신안¹⁶¹?(‘신안’?)

109006 # 심방.(무당.)

109006 @ 심방이엔 안 행 신안이엔 합니까?(‘심방’이라고 안 하고 ‘신안’이라고 합니까?)

109006 # 신안이엔도 곤고 보살이엔도 곤곡 험다게. 요새엔 다 보살이라.(‘신안’이라고도 말하고 보살이라고도 말하고 한다. 요새는 다 보살이야.)

109006 @ 옛날은 신안이엔 곱아난?(옛날은 ‘신안’이라고 말했었어?)

109006 # 응. 신안이 시냐? 요새. 옛날은 신안이 참 많아신디.(응. ‘신안’이 있니? 요새. 옛날은 ‘신안’이 참 많았었는데.)

9. 세시풍속

정월

110001 @ 정월 초하루는 무신 멧질?(정월 초하루는 무슨 명절?)

110001 # 무신 멧질이라, 정월멧질이주.(무슨 명절이야, 정월 명절이지.)

110001 @ 그냥 정월멧질예.(그냥 정월명절요.)

110001 # 응. 우린 전이 오월멧질도 헤낫저.(응. 우린 전에 오월명절도 했었지.)

110001 @ 계난예.(그러니까요.)

110001 # 오월 단오예.(오월 단오예.)

160) ‘말뽕’은 ‘말뽕, 말미’라고도 하는데 무당이 전하거나 기원하는 말이다.

161) ‘신안’은 ‘신의 눈’이라는 뜻으로 주역이나 풍수, 지리에 능통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무당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10001 @ 오월 단오에예.(오월 단오에요.)
 110001 # 허단 이제 안 험시네.(하다가 이제 안 하고 있어.)
 110001 @ 오월 단오에 오월맹질 헤낫지예?(오월 단오에 오월명절 했었지요?)
 110001 # 응. 아이고, 오월맹질허젠 허민, 보리 비저, 오월맹질 허저, 아이고 바쁘기도 허여라.(응. 아이고, 오월명절하려고 하면, 보리 베야지, 오월명절 해야지, 아이고 바쁘기도 해라.)
 110001 @ 하하하.(하하하.)
 110001 # 물 길어 오저, 아이고.(물 길어 와야지, 아이고.)
 110001 @ 정월맹질날 하는 거?(정월명절날 하는 거?)
 110001 # 과세.(세배.)
 110001 @ 과세.(세배.)
 110001 # 과세덜토 막 오단에이 이젠 아니 와.(세배들도 막 오다가 이젠 안 와.)
 110001 @ 할머니 저 옛날에 정월맹질에 헤난 거.(할머니 저 옛날에 정월명절에 했던 거.)
 110001 # 정월맹질에 헤난 거?(정월명절에 했던 거?)
 110001 @ 응.(응.)
 110001 # 정월맹질을 어떻 어떻힐 거라?(정월명절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110001 @ 정월맹질에 무신거 행은에 출립니까?(정월명절에 무엇 해서 차립니까?)
 110001 # 아, 무시건이 옛날은 우린 저 아침이 밝기 전이 모밀국시 허영 이젠 누리왕 모밀국시 허영 올려.(아, 무었은 옛날은 우린 저 아침에 밝기 전에 메밀국수 해서 이젠 내려서 메밀국수 해서 올려.)
 110001 @ 아.(아.)
 110001 # 이제도 허는 딴 허여. 국맹질¹⁶²이엔 허영.(이제도 하는 데는 해. ‘국맹질’이라고 해서.)
 110001 @ 국맹질?(‘국명질’?)
 110001 # 응.(응.)
 110001 @ 그거 헤낭?(그거 하고 나서?)
 110001 # 그거 헤근에 이젠 다 떡국 허여근앵이 또 이젠 출령 또 제대로 맹질 허고. 경헤난.(그거 해서 이젠 다 먹고 해서 또 이젠 차려서 또 제대로 명절하고. 그렇게 했었어.)
 110001 @ 응, 제대로 맹질할 땐 무신거 올립니까?(응, 제대로 명절할 땐 뭐 올립니까?)
 110001 # 무시거 올려게? 이제 요새에 생편이주 옛날은 뭐 곤떡, 곤떡 허멍.(뭐 올려? 이제 요새에 송편이지 옛날은 뭐 ‘곤떡, 곤떡’ 하면서.)

162) ‘국맹질’은 정월명절날 새벽에 차례상을 차리기 전에 메밀칼국수를 올리는 것으로 제주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최근에는 메밀칼국수 대신에 떡국을 올리기도 한다.

110001 @ 응.(응.)

110001 # 글앗주마는 요새엔게 생편해영 올리고 침떡이영, 지름떡이영.(말했지만 요새엔 송편해서 올리고 시루떡이랑, 기름떡이랑.)

110001 @ 옛날에, 옛날에?(옛날에, 옛날에?)

110001 # 게메 그거라, 이제나 그제나 떡은 ㄱ따.(그러게 그거야, 이제나 그제나 떡은 같아.)

110001 @ 솔벤, 절벤 막 이런 것도 해나지 안헐?(솔편, 절편 막 이런 건도 했었 자잖아?)

110001 # 솔벤, 절벤은이 이제 대소상 때에.(솔편, 절편은 이제 대소상 때에.)

110001 @ 아.(아.)

110001 # 그 저 곳창 허는 게 이서. 식게 멩질 때는 그 솔벤, 절벤은 안해.(그 저 갖추어서 하는 게 있어. 제사 멩질 때는 그 솔편, 절편은 안 해.)

110001 @ 응. 송편만 해?(응. 송편만 해?)

110001 # 이제 그 송편허곡 새미떡.(이제 그 송편하고 '새미떡'.)

110001 @ 예.(예.)

110001 # 침떡, 상웨떡.(시루떡, 상화떡.)

110001 @ 상웨떡?(상화떡?)

110001 # 응, 상웨떡 허여.(응, 상화떡 해.)

110001 @ 정월멩질에도?(정월명절에도?)

110001 # 정월멩질에는 상웨떡은 아니허고. 허여지민 좋고 것도.(정월명절에는 상화떡은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것도.)

110001 @ 응.(응.)

110001 # 일반 허는 게 그거라. 그거주게.(일반 하는 게 그거야. 그거지.)

110001 @ 적갈은?(적은?)

110001 # 적갈은 소고기적허고 그자 돼지고기 적이 뭐 전통이고.(적은 소고기 적하고 그냥 돼지고기 적이 뭐 전통이고.)

110001 @ 응.(응.)

110001 # 또 그다음 또 할 건 이제 저 봄 때에는, 봄 때에는이 우린 저 패마농, 파 매어 가지고 그 적도 허연. 패마농 적도.(또 그다음 또 할 건 이제 저 봄에는, 봄에는 우린 저 쪽파, 파 매어 가지고 그 적도 했어. 쪽파 적도.)

110001 @ 아, 패마농 적도 해마씨?(아, 쪽파 적도 해요?)

110001 # 패마농을 데우쳐 가지고 요렇게 이제 허멍 이제 고지에 꿰영.(쪽파를 데쳐 가지고 요렇게 이제 해면서 이제 꼬지에 끼워서.)

110001 @ 예.(예.)

110001 # ㄱ를 이제 무쳐 가지고 굽도 허고 이제 티왕도 저 빙철에서도 허고.(가루를 이제 묻혀 가지고 굽기도 하고 이제 튀기는 것도 저 번철에서도 하고.)

110001 @ 아.(아.)

110001 # 마농적허영.(마늘 적해서.)

110001 @ 마농적.(마늘 적.)

110001 # 응, 것도 해나고 촌에서게 옛날 무신 헐 게 셔게? 겨니까. 지금은 뭐 하간 지지미가 멧 가지주게. 헐 게 엇어.(응, 그것도 했었고 촌에서 옛날 무슨 할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온갖 부침개가 멧 가지지. 할 게 없어.)

110001 @ 게도 옛날에는 특별히 뭐 이디 바당에는 문어적도 허고 허는데 이 동네 특별히 허는 게?(그래도 옛날에는 특별히 뭐 여기 바다에는 문어적도 하고 하는데 이 동네 특별히 하는 게?)

110001 # 이 동네도 특별이 경 사당 허는 사름은 허주마는 일반은 경 안 해여.(이 동네도 특별히 그렇게 사다가 하는 사람은 하지만 일반은 그렇게 안 해.)

110001 @ 응. 바닷고기는 무신거 험니까?(응. 바닷고기는 뭐 험니까?)

110001 # 바닷고긴 주로게 생성허고, 우럭.(바닷고기는 주로 옥돔하고, 우럭.)

110001 @ 아, 우럭을 주로 험니까?(아, 우럭을 주로 험니까?)

110001 # 응, 우럭. 갈치는 잘 안 허고.(응, 우럭. 갈치는 잘 안 하고.)

110001 @ 옥돔은 안 허고?(옥돔은 안 하고?)

110001 # 옥돔 허고.(옥돔 하고.)

110001 @ 옥돔보다 우럭을 더 하영 험니까? 이 동네.(옥돔보다 우럭을 더 많이 험니까? 이 동네.)

110001 # 응, 우럭이 옛날 하영 해여. 옥돔은이 옛날은 이 남군은 많이 나고.(응, 우럭이 옛날 많이 해. 옥돔은 옛날은 이 남군은 많이 나고.)

110001 @ 이 동넨 잘 안 나.(이 동네는 잘 안 나.)

110001 # 북군은 잘 엇어. 경허난 우럭이 많이 해여. 많이 해난.(북군은 잘 없어. 그러니까 우럭을 많이 해. 많이 했었어.)

110001 @ 계민 정월맹절날은 상 출령 제 지내 나민 어디 늬의 집이 먹으레 가곡 허지 안 허여?(그러면 정월명절날은 상 차려서 제 지내고 나면 어디 남의 집에 먹으러 가고 하지 않아?)

110001 # 게, 방상에.(그러게, 일가붙이에.)

110001 @ 방상에.(일가붙이에.)

110001 # 방상에 이제 멩질을 으라 밧디 먹을 땐 허단 이젠이 이 먼 가지덜은 아니 어우러.(일가붙이에 이제 명절을 여러 군데 먹을 땐 하다가 이젠 이 먼 가지들은 안 어울려.)

110001 @ 응.(응.)

110001 # 그냥 이녁 동싱침이 그자 친척, 가까운 친족만.(그냥 자기 동생집에 그냥 친척, 가까운 친척만.)

110001 @ 아, 할머니는 멧 곤데나 먹어났수과?(아, 할머니는 멧 곤데나 먹었었습니까?)

110001 # 우리도 그전이는 혼 서너니 밧, 밧 밧씩 허단.(우리도 그전에는 한 서

너네 군데, 다섯 군데씩 하다가.)

110001 @ 응.(응.)

110001 # 츠츠츠 이젠 주순네도 일본 가붙고 허난 우리집이도.(차츠차츠 이젠 주순네도 일본 가버리고 하니까 우리집에도.)

110001 @ 응.(응.)

110001 # 우리집이영, 저 셋동세네 집이 강 허고 죽은동세네 집이도 가고 경험 서.(우리집이랑, 저 둘째동서네 집에 가서 하고 작은동서네 집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110001 @ 세 개.(세 개.)

110001 # 응. 세 개.(응. 세 개.)

110001 @ 계민 그날은 세뱃돈도 주고 험니까?(그러면 그날은 세뱃돈도 주고 하잖아요?)

110001 # 세뱃돈 주고말고.(세뱃돈 주지 말고.)

110001 @ 옛날에는 세뱃돈 쥐낫수과?(옛날에는 세뱃돈 줬었습니까?)

110001 # 옛날도 주주마는 옛날은 경 세뱃돈 경.(옛날도 주지마는 옛날은 그렇게 세뱃돈 그렇게.)

110001 @ 세뱃돈 대신에 다른 거라도 쥐?(세뱃돈 대신에 다른 거라도 쥐?)

110001 # 다른 거 줄게 서? 떡 받아가주, 떡.(다른 거줄게 있어? 떡 받아가지, 떡.)

110001 @ 하하하. 아니 아기덜은 떡보단 뭐 다른 거?(하하하. 아니 아기들은 떡 보다는 뭐 다른 거?)

110001 # 계도 아기덜토 떡을 주로 아정 가, 옛날도.(그래도 아기들도 떡을 주로 가지고 가, 옛날도.)

110001 @ 아.(아.)

110001 # 멧질 먹으래 와도. 제스 때에사 원 주로 건 보낼 걸로 허주마는 멧질 때도 떡도 아정 강 먹주덜게.(멧질 먹으러 와도. 제사 때에야 원 주로 그건 보낼 걸로 하지마는 멧질 때도 떡도 가져 가서 먹지.)

110001 @ 응.(응.)

110001 # 식계, 멧질 안 허는 권당도 있고.(제사, 멧질 안 하는 권당도 있고.)

110001 @ 아.(아.)

110001 # 허는 집이도 이제 서로.(하는 집도 이제 서로.)

110001 @ 예.(예.)

110001 # 우리 것도 먹어보고 느네 것도 먹어보고 경허여근엿에 이제 아정 곡 아정 오곡 경허여.(우리 것도 먹어보고 너희 것도 먹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 가고 가져오고 그렇게 해.)

110001 @ 응, 계민 저 다른 데도 세배 드리레도 가주예? 멧질 먹으래 말고예 어른덜안티예.(응, 그러면 저 다른 데도 세배 드리러도 가지요? 멧질 먹으러 말고요

어른들에게요.)

110001 # 많이 다니단 이제 설런.(많이 다니다가 이제는 그만뒀어.)

110001 @ 옛날엔 하영 다녀났지예?(옛날 많이 다녔었지요?)

110001 # 아이고, 다니곡말곡 그냥 뒀 줘.(아이고, 다니고말고 그냥 무엇 같지.)

110001 @ 뒀 줘.(무엇 같아.)

110001 # 아이 뒀 줘게. 과세도 아이 가민 승봐이.(아니 무엇 같지. 세배도 안 가면 흥봐.)

110001 @ 아.(아.)

110001 # 갈 만헌 디 안 가민 안 돼여.(갈 만한 데 안 가면 안 돼.)

110001 @ 갈 만헌 디 안 가민.(갈 만한 데 안 가면.)

110001 # 응, 안 돼여.(응, 안 돼.)

110001 @ 갈 때 무신거 가정 가사 돼여?(갈 때 무엇 가져 가야 돼?)

110001 # 특별히 또 가정 가구정, 갈 디가 잇고 그냥 강 절만 허곡.(특별히 또 가져 가고 싶은, 갈 데가 잇고 그냥 가서 절만 하고.)

110001 @ 응, 그냥 절허멍 뒀엔 굴아?(응, 그냥 절하면서 뒀라고 말해?)

110001 # 뒀엔 허여 뒀.(뒀라고 해 뒀.)

110001 @ 오래 삽서, 건강헝서?(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110001 # 응. 경헝 거주 뒀.(응. 그렇게 할 거지 뒀.)

110001 @ 응, 그믐 그 집이선 무신거 줘? 과세허는, 받는 집이선.(응, 그러면 그 집에서 뒀 줘? 세배하는, 받는 집에선.)

110001 # 그디선게 술 먹는 사름은 술이나 혼 잔 영 주곡, 옛날은 찜 감주헝당 감주도 맥이곡 헝주.(거기서는 술 먹는 사름은 술이나 한 잔 이렇게 주고, 옛날은 찜 감주 헝다가 감주도 먹이고 헝지.)

110001 @ 아, 술 안 먹는 사름은?(아, 술 안 먹는 사름은?)

110001 # 술 안 먹는 사름 게메 감주도 혼 잔 먹고. 요새ㄴ치 무슨 커피가 셔? 요새엔 커피가 주룬디 옛날은이 커피가 엇어부난 감주, 감주.(술 안 먹는 사름 글썽 감주도 한 잔 먹고. 요새같이 무슨 커피가 있어? 요새엔 커피가 주로인데 옛날은 커피가 없어버리니까 감주, 감주.)

110001 @ 응, 감주. 감준 어떻게 만드는 거마씨.(응, 감주. 감주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110001 # 감주. 감준이 요센 찹쌀이 혼허주마는 옛날은 흐린찹쌀.(감주. 감주는 요새는 찹쌀이 혼하지마는 옛날은 차찹쌀.)

110001 @ 흐린찹쌀로.(차찹쌀로.)

110001 # 흐린찹쌀 해근에 이젠 그 감주도 허젠 허민이 밀로 골이엔 허영.(차찹쌀 해서 이젠 그 감주도 하려고 하면 밀로 옛기름이라고 해서.)

110001 @ 밀로.(밀로.)

110001 # 응, 내와.(응, 만들어.)
110001 @ 골을 내와?(엿기름을 만들어.)
110001 # 응.(응.)
110001 @ 골은 어떻 내우는 거파?(엿기름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10001 # 밀을 이제 물 킁 놔두면 뿌죽뿌죽 나주게, 그게.(밀을 이제 물 담가서 놔두면 빠죽빠죽 나지, 그게.)
110001 @ 예.(예.)
110001 # 오가리에 놔두면.(항아리에 놔두면.)
110001 @ 예.(예.)
110001 # 그걸 이제 또 물리와 가지고 곱아, ㄴ를로.(그걸 이제 또 말려 가지고 곱아, 가루로.)
110001 @ 아.(아.)
110001 # ㄴ를로 곱아. 경행 이제 흐린조팍 해 가지고 서터근에 오가리에 놔두면 부그레기, 이젠 그게 퀘민 먹어. 퀘민 이제 걸러 가지고 삶아.(가루로 곱아. 그렇게 해서 이제 차조밥 해 가지고 섞어서 항아리에 놔두면 거품, 이젠 그게 괴면 먹어. 괴면 이제 걸러 가지고 삶아.)
110001 @ 삶아?(삶아?)
110001 # 응, 삶아근앵에 이젠 오가리에 놔둬서로, 또 막 저울엔이 데왕도 드리고.(응, 삶아서 이젠 항아리에 놔두고, 또 막 저울엔 데워서도 드리고.)
110001 @ 아, 따뜻하게.(아, 따뜻하게.)
110001 # 응. 그냥도 먹꼭 경헤여 감주.(응. 그냥도 먹고 그렇게 해 감주.)
110001 @ 건 술 아니?(그건 술 아니?)
110001 # 술 아니.(술 아니.)
110001 @ 술 아니.(술 아니.)
110001 # 응, 막걸리도 해냥 먹는 사람 먹고.(응, 막걸리도 해놓고 먹는 사람 먹고.)
110001 @ 응.(응.)
110001 # 쥘 감주가 쉬운 건 그날 해영 그날 먹는 거라.(제일 감주가 쉬운 건 그날 해서 그날 먹는 거야.)
110001 @ 아, 그날 행 그날 먹어져마씨?(아, 그날 해서 그날 먹을 수 있어요?)
110001 # 응, 아침이 허여 낱 저녁이 제삿날도 저녁 때에 이제 삶아근앵이 경득뜻허게 혼 잔씩 먹고.(응, 아침에 해 놓고 저녁에 제삿날도 저녁 때에 이제 삶아서 그렇게 따뜻하게 한 잔씩 먹고.)
110001 @ 응.(응.)
110001 # 멩질 때에도 하영 허영 뒷날ㄱ장 뭐 메칠 먹주. 감주도 허영.(멩질 때에도 많이 해서 뒷날까지 뭐 며칠 먹지. 감주도 해서.)
110001 @ 응.(응.)

110001 @ 정월명절에 옷도 무사 옷도 아이덜 옷도 새옷 사주고 아니민 만들어 주고 하지예?(정월명절에 옷도 왜 옷도 아이들 옷도 새옷 사주고 아니면 만들어 주고 하지요?)

110001 # 새옷 멘들아 주고말고. 명절 돌아오젠 허민 옷 차림이 난리주.(새옷 만들어 주고말고. 명절 돌아오려고 하면 옷 차림이 난리지.)

110001 @ 옷은 주로 집에서 멘들어근에 혜수게?(옷은 주로 집에서 만들어서 했잖습니까?)

110001 # 옛날엔게 아이덜토 한복 허영 입젓주마는게 이거 한복 설르곤 디가 오죽 오래샤?(옛날엔 아이들도 한복 해서 입혔지마는 이거 한복 그만둔 지가 오죽 오래냐?)

110001 @ 하하하.(하하하.)

110001 # 어린애기덜게 벨미로 요새에 행 입점주게.(어린아기들 벨미로 요새에 해서 입히고 있지.)

110001 @ 예, 한복덜예.(예, 한복들요.)

110001 # 이제도 하르방넨 후르메 입느네.(이제도 할아버지들은 두루마기 입잖아.)

110001 @ 후루메 입어?(두루마기 입어?)

110001 # 하르방 두루마기 입어, 명절날. 옛날은 그것이 전공이주 뭐.(할아버지 두루마기 입어, 명절날. 옛날은 그것이 주로 하는 거지 뭐.)

110001 @ 응.(응.)

110001 # 경허난 이제 명절 돌아와 가민 두루마기도 이제 수축허영 입어야지. 우리도 저고리도 여즈 할망덜도 치메도 입어야지, 경헛주게.(그러니까 이제 명절 돌아와 가면 두루마기도 이제 '수축'해서 입어야지. 우리도 저고리도 여자 할머니들도 치마도 입어야지, 그랬었지.)

110001 @ 여자 할망덜은 어떤 옷 입어?(여자 할머니들은 어떤 옷 입어?)

110001 # 치마저고리.(치마저고리.)

110001 @ 치마저고리, 무신 색깔?(치마저고리, 무슨 색깔?)

110001 # 건 믱음이주 뭐, 믱음.(그건 마음이지 뭐, 마음.)

110001 @ 명절 때 특별허게 입는 옷은 엇고?(명절 때 특별허게 입는 옷은 없고?)

110001 # 그거주게. 명절날 한복 입영. 이제 메누리덜토 시집이 가젠 허민 한복 곱닥허게 출령 가고.(그거지. 명절날 한복 입어서. 이제 며느리들도 시집에 가려고 하면 한복 곱게 차려서 가고.)

110001 @ 할머니도 이디서 명절 출려 나민 친정에 가?(할머니도 여기서 명절 차리고 나면 친정에 가?)

110001 # 가고말고. 가낫주게.(가고말고. 갔었지.)

110001 @ 이디서 헤난 거 다 낫나민?(여기서 했던 거 다 끝나면?)

110001 # 응. 가나고.(응, 갔었고.)

110001 @ 친정도 선홀 아니?(친정도 선홀 아니?)

110001 # 친정도 선홀이여마는이 스삼사건에 다 함덕 간, 우리 친정.(친정도 선홀이다마는 사삼사건에 다 함덕 갔어, 우리 친정.)

110001 @ 아. 경행 함덕 살멘, 이젠?(아, 그래서 함덕 살아, 이젠?)

110001 # 함덕 살아. 스삼사건 덕분에 막 뒤엎어전게, 무신 옛날 무시게 셔?(함덕 살아. 사삼사건 덕분에 막 뒤엎어졌어, 무슨 옛날 무엇 있어?)

110001 @ 정월맹질날은 뭐 정월맹질 전날 떡허는 날?(정월명절날은 뭐 정월명절 전날 떡하는 날?)

110001 # 응. 선들그믐날.(응. 선달그믐날.)

110001 @ 선들그믐날은 떡허는 날?(선달그믐날은 떡하는 날?)

110001 # 응.(응.)

110001 @ 그날 뭐 무슨 잠자민 눈썹 흰다 뭐 이런 말 허는디 그런 말 골아낫수과? 옛날에도.(그날 뭐 무슨 잠자면 눈썹 흰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 했었습니까? 옛날에도.)

110001 # 골아난.(말했었어.)

110001 @ 선들그믐날 잠자지 말라고?(선달그믐날 잠자지 말라고?)

110001 # 겨난 선달그믐날은 하간 걸 출리는 날이주게, 출려. 출림으로 경허난 이제 그믐날 이제, 그믐날 줌도 못 자. ㄱ딱 이제 헤영 감주 습나, 채소 한다. 또 새백 국수게.(그러다가 선달그믐날은 온갖 걸 차리는 날이지, 차려. 차림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믐날 이제, 그믐날 잠도 못 자. 까딱 이제 해서 감주 삶나, 채소 한다. 또 새벽 국수.)

110001 @ 아, 새백이 국수예.(아, 새벽에 국수요.)

110001 # 응. 국수 헤여근엔예. 옛날 시계도 엇어부난 득 올민 국수허여. 득 올민.(응. 국수 해서. 옛날 시계도 엇어버리니까 닭 올면 국수해. 닭 올면.)

110001 @ 국순 어떻헤근에 허는 거과?(국수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10001 # 모물코루 허여근엔예 몰아근에게, 칼국수 엇어게?(메밀가루 해서 말아서, 칼국수 없어?)

110001 @ 어떻게 해? 반죽행?(어떻게 해? 반죽해서?)

110001 # 응, 반죽허영.(응, 반죽해서.)

110001 @ 무신거에 낱?(뭐에 놔서?)

110001 # 안반 헤영 밀영.(안반 해서 밀어서.)

110001 @ 안반에 낱 무신걸로 밀어?(안반에 놔서 무엇으로 밀어?)

110001 # 미는 것도 싯주마는 이제 간단허게 썩으로 민다게.(미는 것도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병을 밀어.)

110001 @ 썩으로 밀어.(병으로 밀어.)

110001 # 미는 흥깃대가 이서낫어.(미는 흥두께가 있었어.)

110001 @ 홍짓대?(홍두깨?)
 110001 # 응.(응.)
 110001 @ 아.(아.)
 110001 # 서답 두드리는 것도 홍짓대, 다듬이 허는 것도 홍짓대.(빨래 두드리는 것도 홍두깨, 다듬이 하는 것도 홍두깨.)
 110001 @ 이렇게 하는 것도 홍짓대고 이것도 홍짓대?(이렇게 하는 것도 홍두깨고 이것도 홍두깨?)
 110001 # 것도 잇주마는 떡 미는 것도 이서. 요만 지레기 해영 조그만이 멘들아가지고.(그것도 있지만 떡 미는 것도 있어. 요만한 길이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110001 @ 아.(아.)
 110001 # 갖추는 집이 다 거 해 놔. 다 해낭 해여.(갖추는 집에 다 그거 해 놔. 다 해놓고 해.)
 110001 @ 밀어근에 그다음엔 그냥 잘라마씨, 아니면 말아근에?(밀어서 그다음엔 그냥 잘라요, 아니면 말아서?)
 110001 # 밀아근에 이제 밀영 이제 썰어야주. 칼국수 엇어게? 요새.(말아서 이제 밀어서 이제 썰어야지. 칼국수 없어? 요새.)
 110001 @ 예, 똑같애?(예, 똑같아?)
 110001 # 똑ㄱ따. 요샌 기계로 햄주마는 옛날은 손으로.(똑같아. 요샌 기계로 하고 있지만 옛날은 손으로.)
 110001 @ 메밀로예? 모듈예?(메밀로요? 메밀요?)
 110001 # 메밀로. 이제도 우리 모듈국시 행 먹구정허민 뒤.(메밀로. 이제도 우리 메밀국수 해서 먹고 싶으면 뒤.)
 110001 @ 국에 뭐 다른 거 놓진 안허고 모듈칼국수만?(국에 뭐 다른 거 놓지 않고 메밀칼국수만?)
 110001 # 모듈국시에도이 집이서 옛날 두부허거든. 두부도 놓고, 이제 또 저 곤떡도이 생뽕허멍 이제 영 오막떡163)이엔 허영 동골동골 멘들앙 꼭꼭 영헌 거.(메밀국수에도 집에서 옛날 두부허거든. 두부도 놓고, 이제 또 저 흰떡도 송편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막떡’이라고 해서 동글동글 만들어서 꼭꼭 이렇게 한 거.)
 110001 @ 응.(응.)
 110001 # 거 모듈국시에 서경도 허여.(거 메밀국수에 섞어서도 해.)
 110001 @ 그게 오막떡?(그게 ‘오막떡’?)
 110001 # 응. 국명질이엔 허영, 국명질부터 먼저 해놔어. 두부도 놓민 맛좋아.(응. ‘국명질’이라고 해서, ‘국명질’부터 먼저 했었어. 두부도 놓으면 맛있어.)
 110001 @ 두부도 그레 놓고? 야채는 안 놔?(두부도 그리 놓고? 야채는 안 놔?)
 110001 # 안 놔. 두부도 집이서 현 두부 맛좋아놔저게, 옛날에.(안 놔. 두부도

163) ‘오막떡’은 흰쌀떡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메밀국수에 넣는 떡이라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집에서 한 두부 맛있었어, 옛날에.)

110001 @ 두부도 집에서 해놔주예, 어떻 멘들아마씨? 두부는.(두부도 집에서 했었지요, 어떻게 만들어요? 두부는.)

110001 # 콩 갈아근에게 그 두부, 주멩기에 짜 가지고.(콩 갈아서 그 두부, 주머니에 짜 가지고.)

110001 @ 콩 뒤에 갈아? 그레에?(콩 뒤에 갈아? 맷돌에?)

110001 # 이 옛날은 이제 그레 허여근엔에 도고리에서 영 갈았거든. 콩을 물에 커 가지고.(이 옛날은 이제 맷돌 해서 함지박에서 이렇게 갈았거든. 콩을 물에 담가 가지고.)

110001 @ 예.(예.)

110001 # 경헌디 요 중간 뉘가난 기계에 강 ㄱ를 갈아당, 갈아다근에 이제 그걸 막 몰아, 그걸. 경헛당 휘휘 젓엉 주멩기로 짜.(그런데 요 중간 되가니까 기계에 가서 가루 갈아다가, 갈아다가 이제 그걸 막 말아, 그걸. 그랬다가 휘휘 젓어서 주머니로 짜.)

110001 @ 주멩기로 짜.(주머니로 짜.)

110001 # 짜서 솟되서 삶으면, 삶아근엔이 또 이젠 포, 저 베 포 헤여근에 그걸 이제 솟되 걸 퍼놔.(짜서 솟에서 삶으면, 삶아서 또 이젠 포, 저 베 포 해서 그걸 이제 솥에 것을 퍼놔.)

110001 @ 응.(응.)

110001 # 퍼 놔근엔이 지들라근엔이 놔두민 두부 뉘여.(퍼 놔서 눌러서 놔두면 두부 돼.)

110001 @ 그 뭐 저 바닷물로 헌덴 헛게마는.(그 뭐 저 바닷물로 한다고 하더니 마는.)

110001 # 바닷물이 촌물, 바닷가에 강 질어당.(바닷물이 짠물, 바닷가에 가서 길어다가.)

110001 @ 촌물. 응.(짠물. 응.)

110001 # 그 촌물 낱 허는데. 이제 바당에도 추접허지 안허냐게?(그 짠물 놔서 하는데. 이제 바다에도 더럽지 않니?)

110001 @ 예.(예.)

110001 # 우리 중간에 소금물 행 곱닥허게 굴라앗정.(우리 중간에 소금물 해서 곱게 가라앗혀서.)

110001 @ 아, 미리 해 가지고 오랫동안 놔뉘.(아, 미리 해 가지고 오랫동안 놔뉘.)

110001 # 오랫동안 안 놔도게, 소금물 헤근에 오가리에 이제 놔뉘서루 그 두부 다 삶아져 가민 그 짠물을 이렇게 놓으면 두부가 트랑트랑 뉘어가.(오랫동안 안 놔도, 소금물 해서 항아리에 이제 놔두어서 그 두부 다 삶아져 가면 그 짠물을 이렇게 놓으면 두부가 '트랑트랑' 되어 가.)

110001 @ 아, 그문 그거를 물 빠지는 디 낡 물을 짜?(아, 그러면 그거를 물 빠지는 데 놔서 물을 짜?)

110001 # 겨난이 베 포.(그러니까 베 포.)

110001 @ 베 포.(베 포.)

110001 # 니귀반득헌 것에 헤다근엥이 영 퍼놔근에 싸.(네모반듯한 것에 헤다가 이렇게 퍼 놔서 싸.)

110001 @ 응.(응.)

110001 # 경헝 이제 도고리에나 무스것에 낡 딱 지들봐.(그렇게 해서 함지박에나 무엇에 놔서 딱 눌러봐.)

110001 @ 아, 지들봐.(아, 눌러봐.)

110001 # 요샌이 콘테나 셔부난 더 허기 좋아. 콘테나에 툇 놔근에.(요샌 콘테이 너 있어버리니까 더 하기 좋아. 콘테이너에 툇 놔서.)

110001 @ 경헝 놔두민 두부 뉘여?(그렇게 놔두면 두부 돼?)

110001 # 경허영 이제 칼로 베어내민 떡ㄴ치 그 두부 뉘는 거. 요새 다 경헝주 게.(그렇게 해서 이제 칼로 베어내면 떡처럼 그 두부 되는 거. 요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110001 @ 요새야 다 사당 험주마는.(요새야 다 사다가 하고 있지만.)

110001 # 아니, 지금 두부허는 디도 그렇게 두부공장에 강 봐.(아니, 지금 두부 하는 데도 그렇게 두부공장에 가서 봐.)

110001 @ 두붓공장에도.(두부공장에도.)

110001 # 짹 누루떠 것도.(짹 눌러 그것도.)

110001 @ 옛날에 할머니네 집이서 멩질허젠 허민 다 집이서 헤난 거 아니?(옛날에 할머니네 집에서 멩질하려고 하면 다 집에서 했던 거 아니?)

110001 # 응, 집이서 헤여, 집이서.(응, 집에서 해, 집에서.)

110001 @ 진짜 잠잘 시간이 엇이크라.(진짜 잠잘 시간이 없었겠어.)

110001 # 콩 갈아다근엥이 두부허지.(콩 갈아다가 두부하지.)

110001 @ 응.(응.)

110001 # 또 이젠 저 모믈국시허지.(또 이젠 저 메밀국수하지.)

110001 @ 떡도 다 집이서 허고.(떡도 다 집에서 하고.)

110001 # 응, ㄴ루 ㅼ얏앙. 기계에 강 ㅼ얏앙 오는 것도 이 근래주. 옛날 ㅼ벥이에.(응, 가루 ㅼ얏아서. 기계에 가서 ㅼ얏아 오는 것도 이 근래지. 옛날 연자매에.)

110001 @ ㅼ벥이에. 이 동네 ㅼ벥이 멩 개나 이서낫수과?(연자매. 이 동네 연자매 멩 개나 있었습니까?)

110001 # ㅼ벥이가 이 가름 안네도.(연자매가 이 동네 안에도.)

110001 @ 멩 개나 이서난마씨?(멩 개나 있었어요?)

110001 # 세 개나 이서난.(세 개나 있었었어.)

110001 @ 아, 세 개.(아, 세 개.)

110001 # 응, 세 개나 이서난.(응, 세 개나 있었어.)

110001 @ 가민 저 설날 같은 땐 다 가젠 허민 막 기다려야 돼켜예?(가면 저 설날 같은 땐 다 가려고 하면 막 기다려야 되겠네요?)

110001 # 기다려 막 그자 뿔이레 강. 겨난 츠레츠레 뿔아, 간 사름.(기다려 막 그냥 빵으러 가서. 그러니까 차례차례 빵아, 간 사름.)

110001 @ 간 사름 츠레츠레.(간 사름 차례차례.)

110001 # 응.(응.)

110001 @ 그거 그든 사름이 영 돌려? 아니민.(그거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돌려? 아니면.)

110001 # 그 뭇뻥이?(그 연자매?)

110001 @ 응.(응.)

110001 # 응, 사름으로 영.(응, 사름으로 이렇게.)

110001 @ 누게가 돌리는 거라?(누가 돌리는 거야?)

110001 # 사름덜이 다 ㄴ찌덜 영 허주게. 서너이씩, 너이씩.(사람들이 다 같이들 이렇게 하지. 세넛씩, 세넛씩.)

110001 @ 남자가 해줘?(남작 해줘?)

110001 # 남저도 허곡, 여저도 허곡. 막 무거운 땐 남저도 강 헤여.(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아주 무거운 땐 남자도 가서 해.)

110001 @ 소나 말이 영 끓진 안허고?(소나 말이 이렇게 끌진 앓고?)

110001 # 소 말 혈 땐 ㄴ루 뿔을 땐 안허고게 저 무시거 혈 때. 경허민 뿔아지는냥 체로 쳐.(소 말 할 땐 가루 빵을 땐 안하고 저 무엇 할 때. 그러면 빵아지는 대로 체로 쳐.)

110001 @ 예.(예.)

110001 # 그 ㄴ를 담아냥. 경헝 덜 뿔아진 건 또 냥 뿔고.(그 가루를 담아놓고. 그래서 덜 빵아진 건 또 놔서 빵고.)

110001 @ 아, 그디서?(아, 거기서?)

110001 # 응, ㄴ 아정 가야지. 칠 거영 체도 멧 개 아정가.(응, 모두 가져 가야지. 칠 거랑 체도 멧 개 가져가.)

110001 @ 아.(아.)

110001 # 갱 치명 무계기¹⁶⁴ 냥 또 이제 뿔곡. 경허멍 뿔아당 허여.(그래서 치면서 무거리 놔서 이제 빵고, 그러면서 빵아다가 해.)

110001 @ 그거 영 뭇뻥이 허는 비치락은 다르게.(그거 이렇게 연자매 하는 빗자루는 다르게.)

110001 # 비치락도 이서. 비치락 이 집안비 말앙게 곱닥헌 거 방에나 ㄴ레에 쓰는 비치락 헝 놔 뒤.(빗자루도 있어. 빗자루 이 집안비 말고 고운 거 방아나 멧돌에 쓰는 빗자루 해서 놔 뒤.)

164) '무계기'는 곡식 따위를 빵아 체에 쳐서 가루를 내고 남은 찌꺼기로 표준어는 '무거리'다.

110001 @ 아, 그믐 방에 비차락이엔 골읍니까, ㄹ레 비차락이엔 험니까?(아, 그러면 방에 빗자루라고 말합니까, 멧돌 빗자루라고 합니까?)

110001 # 방에에 씨는 비차락이주게.(방아에 쓰는 빗자루지.)

110001 @ 그냥 방에에 씨는 비차락.(그냥 방아에 쓰는 빗자루.)

110001 # ㄹ렛비.(멧돌 비)

110001 @ ㄹ렛비.(멧돌 비.)

110001 # 응.(응.)

110001 @ ㄹ렛비엔 ㄹ는구나예?(멧돌 비라고 말하는군요?)

110001 # 경혜여. 깨끗하게 행 놔둬야주. 이 방 씨는 거나 ㄹ따도.(그렇게 해. 깨끗하게 해서 놔둬야지. 이 방 쓰는 거나 같아도.)

110001 @ 응.(응.)

110001 # ㄹ로 놔둬서 혜여. 방에 지레도 가젠 허민 또 ㄹ레ㄹ레 허젠 허민 비차락이나 푸는체 문여 앓당 놔둬사 돼여. ㄹ레로 헐 거.(따로 놔두고서 해. 방아 쥘 으러도 가려고 하면 또 ㄹ레ㄹ레 하려고 하면 빗자루나 키 먼저 가져다 놔둬야 돼. ㄹ레로 할 거.)

110001 @ 아.(아.)

110001 # 경혜사 방에 이제 누게 질 거로구나 영혜영 ㄹ레ㄹ레 지곡.(그래야 방아 이제 누가 쥘 거로구나 이렇게 해서 ㄹ레ㄹ레 쥘고.)

110001 @ 아, 그믐 나가 헐 거는 나 비차락은 나가 가정 가사는 거?(아, 그러면 내가 할 거는 내 빗자루는 내가 가져 가야는 거?)

110001 # 아니 비차락 늬의 것도 쓰주마는 이녁 걸로 혜야주.(아니, 빗자루 남의 것도 쓰지마는 자기 걸로 해야지.)

110001 @ 아, 이녁 걸로.(아, 자기 걸로.)

110001 # 옛날 침 어떻 혜영 살아난 걸.(옛날 침 어떻게 해서 살아난 걸.)

110001 @ 하하하. 게난예.(하하하. 그러니까요.)

110001 # 경허단 정미소가 나난 막 살기가 좋앗주게.(그러다가 정미소가 나니까 아주 살기가 좋았지.)

110001 @ 응.(응.)

110001 # 보리도 정미소에서 지영 먹고 ㄹ를도 정미소에서 ㄹ아당, ㄹ아당 집에서 떡은 잘 혜나고 정미소 난 후혜도.(보리도 정미소에서 쥘어 먹고 가루도 정미소에서 빵아다가, 빵아다가 집에서 떡은 잘 했었고 정미소 나온 후에도.)

110001 @ 응.(응.)

110001 # 겨단 이젠 그자 기계에 강 멧경 그자 혜당.(그러다가 이젠 그냥 기계에 가서 맡겨서 그냥 혜다가.)

110001 @ 떡도 다.(떡도 다.)

110001 # 다.(다.)

110001 @ 기계가 다. 하하하.(기계가 다. 하하하.)

110001 # 거 멧경 흐뎡 헤다근에 올리고.(그거 말겨서 조금 헤다가 올리고.)

110001 @ 예.(예.)

110001 # 점점 물도 좋고 하간 게 그릇도 좋고 곳찾주마는 이제는 찜 떡도 집 이서 안 헤여.(점점 물도 좋고 온갓 게 그릇도 좋고 갖췄지만 이제는 찜 떡도 집에서 안 해.)

110001 @ 예.(예.)

110001 # 나도 집에서 헤영 옛날 식으로 허젠 허민 막, 허젠 험젠 허멍 기계 강 덜 헤와.(나도 집에서 헤서 옛날 식으로 하려고 하면 막,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기계 가서 헤와.)

110001 @ 하하하.(하하하.)

110001 # 또 모뎡 ㄹ루헝 빙떡도 지정 먹고.(또 메밀가루해서 빙떡도 지져서 먹고.)

110001 @ 응.(응.)

110002 @ 정월 대보름 때는 무신거 헤마씨?(정월 대보름 때는 뭐해요?)

110002 # 정월 대보름 때 이디 경 안 세여.(정월 대보름 때 여기 그렇게 안 쇠어.)

110002 @ 지금 막 들불 축제여 뭐여 험니께?(지금 막 들불 축제다 뭐다 하잖아요?)

110002 # 게메 들불축제는 그건 국가에서 막 크게 허는 거주마는 이 개인에는 그렇게 보름 안 세여. 법당에게 절간에 가는 사름덜은 정월보름에 가주게.(글쎄. 들불축제는 그건 국가에서 아주 크게 하는 거지만 이 개인은 그렇게 보름 안 쇠어. 법당에 절간에 가는 사름들은 정월보름에 가지.)

110002 @ 응.(응.)

110002 # 정월 보름에.(정월 보름에.)

110002 @ 뭐 헤먹고 이런 거 안 헤마씨?(뭐 헤먹고 이런 거 안 해요?)

110002 # 안 헤여.(안 해.)

110002 @ 오곡밥 헤먹고 이런 건 제주도에서 안 헤?(오곡밥 헤먹고 이런 건 제주도에서 안 해?)

110002 # 잘 안 헤여. 것도이 시내 육지 사름덜이 많이 오란 사난 그런 사름덜이 허주. 이 선흘 ㄹ뜬 딤 경 오곡밥 경 헝 먹는 사름 벨로 엇어.(잘 안 해. 그것도 시내 육지 사름들이 많이 와서 사니까 그런 사름들이 하지. 이 선흘 같은 덴 그렇게 오곡밥 그렇게 해서 먹는 사름 별로 없어.)

110002 @ 옛날에는 드르에 불 놔근에 다 케와난마씨?(옛날에는 들에 불 놔서 다 태웠었어요?)

110002 # 방에 부져, 이 철 나민.(방화 붙여, 이 철 나면.)

110002 @ 이 철 나민. 정월 대보름쯤에 원래 허는 거마씨?(이 철 나면. 정월 대보름쯤에 원래 하는 거예요?)

110002 # 정월 대보름 후에.(정월 대보름 후에.)

110002 @ 후에.(후에.)

110002 # 이월 초상에 막 방에 부찌민이 낭 흥나토 엇주, 문딱 카불영. 저 오름도 저거 이제사 이 스삼사건 후에 바메기 이디 선홀 오름이나 제주도 오름에.(이월 초상에 막 방화 붙이면 나무 하나도 없지, 모두 타버려서. 저 오름도 저거 이제사 이 사삼사건 후에 ‘바메기’ 여기 선홀 오름이나 제주도 오름에.)

110002 @ 예.(예.)

110002 # 낭 모종을 놔 가지고 소나무여 뭘 모종 문 오름마다 싱것주.(나무 모종을 놔 가지고 소나무다 뭘 모종 모든 오름마다 심었지.)

110002 @ 응.(응.)

110002 # 그전에는 테역밭, 테역.(그전에는 잔디밭, 잔디)

110002 @ 아, 테역밭. 텃밭?(아, 잔디밭, 잔디밭?)

110002 # 응, 테역, 테역. 멘짜허여. 오름이 멘짜.(응, 잔디, 잔디. 평평해. 오름이 평평.)

110002 @ 갱 해마다 그때 돼민 불 부찌는 거마씨?(그래서 해마다 그때 되면 불 붙이는 거예요?)

110002 # 불 부찌 붙어. 방에 부찌 붙어.(불 붙여 버려. 방화 붙여 버려.)

110002 @ 무사 불 부찌는 거?(왜 불 붙이는 거?)

110002 # 어떻산디 경 부찌면은 쉼 들이 살기가 좋아이.(어떻게인지 그렇게 붙이면 소 말이 살기가 좋아.)

110002 @ 아.(아.)

110002 # 진독도 엇고.(진드기도 없고.)

110002 @ 진독도 엇고.(진드기도 없고.)

110002 # 불 부찌 불민.(불 붙여 버리면.)

110002 @ 불 부찌 불민.(불 붙여 버리면.)

110002 # 경허고 또로 새풀 와라와랑 나민 쉼덜 먹기도 좋고. 경헤난.(그리고 또 새풀 ‘와랑와랑’ 나면 소들 먹기도 좋고. 그랬었어.)

110002 @ 고사리 하영 나십디가?(고사리 많이 났습니까?)

110002 # 고사리도 불 아이 부떠부난 고사리가 좋지 못허여.(고사리도 불 안 붙여 버리니까 고사리가 좋지 못해.)

110002 @ 아, 거 불 부찌야 고사리가 좋아?(아, 거 불 붙여야 고사리가 좋아?)

110002 # 옛날은 불 부뜨민 고사리가 가민 고실고실 잘 봐지주마는 이젠 불 아이 부떠노난 가시 소굽에, 테역 소굽에 거 하나씩 꺼꺼. 막 굿어, 불편허여.(옛날은 불 붙이면 고사리가 가면 ‘고실고실’ 잘 보이지만 이젠 불 안 붙여버리니까 가시 속에, 잔디 속에 것 하나씩 꺾어. 아주 굿어, 불편해.)

110002 @ 응, 불 부찌민 경 좋구나예.(응, 불 붙이면 그렇게 좋군요.)

110002 # 응, 좋아났주게 옛날엔게. 이젠 불 금지헤연 안 부찌 노난 막 낭허고

가시만 막 성험주게.(응, 좋았었어. 옛날엔. 이젠 불 금지해서 안 붙여 놓으니까 막 나무하고 가시만 막 성하고 있지.)

110002 @ 응.(응.)

110002 # 이제 소덜토 경 난장에 낳 안 질롭고 허난.(이제 소들도 그렇게 난장에 낳서 안 기르고 하니까.)

110002 @ 응.(응.)

110002 # 옛날은 이디도 알산전¹⁶⁵도 불 부쟁 소 키우고.(옛날은 여기도 ‘알산전’도 불 붙여서 소 키우고.)

110002 @ 응.(응.)

110002 # 또로 저디 가민 옷산전¹⁶⁶이엔 헝 그디도 방에 부쟁 소 키우고 경헝 주. 저을에는 저 집이 메당.(또 저기 가면 ‘옷산전’이라고 해서 거기도 방화 붙여서 소 키우고 그랬었지. 겨울에는 저 집에 매다가.)

110002 @ 아.(아.)

110002 # 물은 주로 드르에 살곡.(말은 주로 들에 살고.)

110002 @ 소는 언제쯤 올려 보내는 거마씨?(소는 언제쯤 올려 보내는 거요?)

110002 # 소는 이월, 혼 삼월 초싱 돼민 올려 보내어.(소는 이월, 한 삼월 초승 되면 올려 보내.)

110002 @ 아.(아.)

110002 # 멧당. 책명 넘어가민.(땀다가. 청명 넘어가면.)

110002 @ 그디 소 보는 사름이 셔?(거기 소 보는 사람이 있어?)

110002 # 그 옛날은 이제 옛날은 도둑놈도 엇고, 소를 이제 그추룩 헤영 드르에 올령 내불민 혼 번이나 가끔 이녁 소들 보레 가단.(그 옛날은 이제 옛날은 도둑놈도 없고, 소를 이제 그렇게 해서 들에 올려서 내버리면 한 번이나 가끔 자기 소들 보러 가다가.)

110002 @ 응.(응.)

110002 # 이제 시대가 험악해 가니까 번췌¹⁶⁷를 허여, 동네에서 돌아가명.(이제 시대가 험악해 가니까 ‘번췌’를 해,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110002 @ 아.(아.)

110002 # 번췌.(‘번췌’.)

110002 @ 돌아가명 보는 사름?(돌아가면서 보는 사름?)

110002 # 응, 돌아가명 오닐은 누게 볼 사름 허영 다 마탕덜이 동네에 췌덜을 모탕.(응, 돌아가면서 오늘은 누가 볼 사름 해서 다 말아서 동네에 소들 모아서.)

110002 @ 동네에 소가 열 개 있다 허민 열 집에서 혼 번씩 돌아가는 거마씨?(동네에 소가 열 개 있다 하면 열 집에서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165) ‘알산전’은 아래를 의미하는 ‘알’과 들판을 의미하는 ‘산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166) ‘옷산전’은 위를 의미하는 ‘옷’과 들판을 의미하는 ‘산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167) ‘번췌’는 소를 기르는 사람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들에 몰고 나가 먹이는 소다.

110002 # 응, 돌아가. 경허명 이제 맥이꼭 집이 또 들어올 땐 다 ㄱ찌 들여 놓곡.(응, 돌아가. 그러면 이제 먹이고 집에 들어올 땐 다 같이 들여 놓고.)

110002 @ 응.(응.)

110002 # 경허당 이제 책명이 넘으면은 또 우터레 또 강 드르에 낵 번쇄헤영 허곡 경헛주. 겨단 그 제국 시절이 돼 가니까이 막 험악해 가지고 시대가 도둑놈도 싣고. 쉼도 일러먹어이. 경혜 가난 이제 번쇄허여, 옛날도.(그러다가 이제 청명 넘으면 또 위에 또 가서 들에 놔서 ‘번쇄’해서 하고 그랬지. 그러다가 그 제국 시절이 돼 가니까 아주 험악해 가지고 시대가 도둑놈도 있고. 소도 잃어버려. 그렇게 해가니까 이제 ‘번쇄’해, 옛날도.)

110003 @ 혹시 이런 정월에 방사하는 거나 액막이하는 거 이수과?(혹시 이런 정월에 방사하는 거나 액막이하는 거 있습니까?)

110003 # 아, 그건, 건 므음, 이녁 므음.(아, 그건, 그건 마음, 자기 마음.)

110003 @ 이녁 므음.(자기 마음.)

110003 # 집마다 허는 것도 아니고 이녁 므음.(집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

110003 @ 허는 집도 있고 안 허는 집도 있고.(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고.)

110003 # 안 허는 집도 있고. 우리도 이제 옛날 법으로 정월이나 이월들에 이 칠성제엔 허여근앵이 제를 지내주게.(안 하는 집도 있고. 우리도 이제 옛날 법으로 정월이나 이월에 이 칠성제라고 해서 제를 지내지.)

110003 @ 아, 할머니네도 해난마씨?(아, 할머니네도 했었어요?)

110003 # 응, 우리도 해난.(응, 우리도 했었어.)

110003 @ 어떻허는 거마씨?(어떻게 하는 거예요?)

110003 # 어떻허여? 심방 빌어당.(어떻게 해? 무당 빌어다가.)

110003 @ 심방 빌어당, 정월에?(무당 빌어다가, 정월에?)

110003 # 정월에도 허고 못허민 삼월ㄱ장도 허고, 경혜.(정월에도 하고 못하면 삼월까지도 하고, 그렇게 해.)

110003 @ 그건 저 그냥 편안하게 건강하게 해도렌 허는 거?(그건 저 그냥 편안하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110003 # 응, 경행 기도 디리는 거.(응, 그렇게 기도 드리는 거.)

110003 @ 해마다?(해마다?)

110003 # 해마다도 헤지민 허고게 못 허민 두 해에 혼 번도 허고. 경혜.(해마다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두 해에 한 번도 하고. 그렇게 해.)

110003 @ 두 해 혼 번도 허고.(두 해 한 번도 하고.)

110003 # 이젠 안 헤여덜.(이젠 안 해.)

110003 @ 이젠 안 허여.(이젠 안 해.)

110003 # 옛날은이 대부분 집마다 허여낵주게. 경허단 이 선홀도, 겨단 이젠 안

현다. 설르곤 디 막 오래연.(옛날은 대부분 집마다 했었지. 그러다가 이 선흥도, 그러다가 이젠 안 해. 그만둔 지 아주 오래되었어.)

110004 @ 포제도 지내잖아예?(포제도 지내잖아요?)

110004 # 포제는 마을제로 똑 해마다 허고.(포제는 마을제로 꼭 해마다 하고.)

110004 @ 요번이 나 왓단예 줄 쳐져서라.(요번에 나 왔다가 줄 쳐졌더라.)

110004 # 포제.(포제.)

110004 @ 그 줄은 무신 줄이엔 헤마씨?(그 줄은 무슨 줄이라고 해요?)

110004 # 솟 메엇젠게.(금줄 매었다고.)

110004 @ 솟, 솟 메엇저.(금줄, 금줄 땀다.)

110004 # 그것은이 포제에 정성을 허는 거주게. 상가에나 가온 사름 오지 말렌 허곡.(그것은 포제에 정성을 하는 거지. 상가에나 갔다 온 사람 오지 말라고 하고.)

110004 @ 응, 여자들도 오지 말렌 헤라.(응, 여자들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

110004 # 여자도 안 들어가고 그디 책임자만덜 들어가. 옛날은 똑 남저만 가근에 여저는 범접을 안 허는디 이젠 여저덜 강 밥도 행 맥이고 허여.(여자도 안 들어가고 거기 책임자들만 들어가. 옛날은 꼭 남자만 가서 여자는 범접을 안 하는데 이젠 여자들 가서 밥도 해서 먹이고 해.)

110004 @ 아.(아.)

110004 # 겨곡 또 집도 허촐 깨끗헌 집으로 지원허영 헤난디 이젠 노인당 셔부난.(그리고 또 집도 조금 깨끗한 집으로 지원해서 했었는데 이젠 노인당 있어버리니까.)

110004 @ 거난 이젠 노인당에서 제 지냉.(그러니까 이젠 노인당에서 제 지내서.)

110004 # 노인당에서 출려.(노인당에서 차려.)

110004 @ 그때는 그냥 일반 제사 지내는 거하고 음식이 틀리지예?(그때는 그냥 일반 제사 지내는 거하고 음식이 다르지요?)

110004 # 틀리주게, 그딘 잘 해야 웨여.(다르지, 거긴 잘 해야 돼.)

110004 @ 그딘 무신 거 헤마씨?(거긴 뭐 해요?)

110004 # 그디는이 올리는 건 제주는 ㄹ뜨주마는 감주여, 술이여 영행 ㄹ뜨주마는 돼지, 돼지.(거기는 올리는 건 제주는 같지만 감주다, 술이다 이렇게 해서 같지마는 돼지, 돼지.)

110004 @ 돼지 머리?(돼지 머리?)

110004 # 돼지 혼 ㄹ리.(돼지 한 마리.)

110004 @ 돼지 혼 마리 다 올려, 통채로?(돼지 한 마리 다 올려, 통째로?)

110004 # 응, 경헤여. 경헤영 축 고허여. 축이 이서. 저 글 씨영.(응,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축 고해. 축이 있어. 저 글 써서.)

110004 @ 아.(아.)

110004 # 글로 읽어. 이제 이 마을을 다 무사히 헤줍센 현 축이 이서.(글로 읽

어. 이제 이 마을을 다 무사히 해달라고 한 축이 있어.)

110004 @ 돼지 머리만 올리는 게 아니고?(돼지 머리만 올리는 게 아니고?)

110004 # 응, 포제에는 그냥.(응, 포제에는 그냥.)

110004 @ 다 통채로?(다 통째로?)

110004 # 흔 마리 다.(한 마리 다.)

110004 @ 응, 그거 어떻게?(응, 그거 어떻게?)

110004 # 각곳¹⁶⁸⁾ 실과도 다 올리고.(각종 실과도 다 올리고.)

110004 @ 실과도 다 올리고?(실과도 다 올리고?)

110004 # 응, 경행 축이엔 허영 글 써근앵이 익주께.(응, 그렇게 해서 축이라고 해서 글 써서 읽지.)

110004 @ 이던 포제 며칠날 합니까?(여긴 포제 며칠날 합니까?)

110004 # 정월.(정월.)

110004 @ 정월.(정월.)

110004 # 처음으로 그 젤 넘어나사 집이 이디 제도 지내어. 포젤 넘어사.(처음으로 그 제를 넘겨나야 집에 여기 제도 지내. 포제를 넘겨야.)

110004 @ 포제 넘어사.(포제 넘겨야.)

110004 # 포제 지내기 전이는 집에서 제도 못 지내어. 포제가 젤 큰 제주께, 밑에. 건디 이제 시에도 동마다.(포제 지내기 전에는 집에서 제도 못 지내. 포제가 제일 큰 제지, 마을에. 그런데 이제 시에도 동마다.)

110004 @ 예, 마을제 해마씨.(예, 마을제 해요.)

110004 # 동마다 허데. 옛날 전통으로 해마다 허여.(동마다 하더라. 옛날 전통으로 해마다 해.)

110007 @ 걸궁은 무신거?(걸궁은 뭐?)

110007 # 걸궁은 모다, 이제 막 팽과리 치명 노는 게 걸궁이주.(걸궁은 모여, 이제 막 팽과리 치면서 노는 게 걸궁이지.)

110007 @ 아.(아.)

110007 # 걸궁은 밑에서 건 노나리. 건 걸궁.(걸궁은 마을에서 그건 노는 거. 그건 걸궁.)

110007 @ 아.(아.)

110007 # 건디 요새에는 걸궁도 안 해여.(그런데 요새는 걸궁도 안 해.)

110007 @ 옛날엔?(옛날엔?)

110007 # 하도 이젠 뭐 도일주도 가고 그런 구경거리가 만해부니까. 옛날은 그런 구경거리 엇이난 선홀도 몇 번 해났어, 걸궁. 모여근에 이젠 막 한라문화제 나가듯이.(하도 이젠 뭐 도일주도 가고 그런 구경거리가 많으니까. 옛날은 그런 구경거리 없으니까 선홀도 몇 번 했었어, 걸궁. 모여서 이젠 아주 한라문화제 나가듯이.)

110007 @ 예.(예.)

168) '각곳'은 온갖 것, 여러 가지 것, 각종의 의미로 사용된다.

110007 # 믱을 사름덜이 출려 가지고 춤도 추곡게 북 장귀 두드리멍 노는 게
결궁이주. 그건.(마을 사람들이 차려 가지고 춤도 추고 북 장구 두드리면서 노는 게
결궁이지.)

110007 @ 응.(응.)

110007 # 그건 아무것도 아니.(그건 아무것도 아니.)

110007 @ 잠깐 허긴 해난마씨? 선홀도.(잠깐 하긴 했었어요? 선홀도.)

110007 # 응, 해났어.(응, 했었어.)

110007 @ 결궁도 멩질날 아니 이런 때 해났수과?(결궁도 멩질날 아니 이런 때
했었습니까?)

110007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0007 @ 언제 해?(언제 해?)

110007 # 그건 이 선홀은 안 한다. 저 결궁허젠 해도 것도이 이제, 관덕정에 아
니 뵈다? 관덕정에 그 막 하간 온갖 하간 거 멘들곡 행 춤추는 것덜 그것이 결궁이
주게.(그건 이 선홀은 안 한다. 저 결궁하려고 해도 그것도 이제, 관덕정에 안 보고
있니? 관덕정에 그 막 온갖 온갖 온갖 거 만들고 해서 춤추는 것들 그것이 결궁이
지.)

110007 @ 응.(응.)

110007 # 것이 결궁이라. 관덕정에 입춘날 ㄴ튼 때 거 허연게. 나도 입춘날 구
경 잣단.(그것이 결궁이야. 관덕정에 입춘날 같은 때 그거 하더라. 나도 입춘날 구
경 잣다가.)

110007 @ 그런 결궁할 때 장구, 장귀?(그런 결궁할 때 장구, '장귀'?)

110007 # 장구, 북.(장구, 북.)

110007 @ 장구엔 곶아? 옛날도 장구엔 곶아난?(장구라고 말해? 옛날도 장구라
고 말했었어?)

110007 # 응, 장구, 살장귀.(응, 장구, 설장구.)

110007 @ 살장귀는 뭐?(설장구는 뭐?)

110007 # 살장귀, 그것이 장구주게.(설장구, 그것이 장구지.)

110007 @ 살장귀.(설장구.)

110007 # 살장귀, 북.(설장구, 북.)

110007 @ 살장귀 말고 그냥은 장귀, 장구?(설장구 말고 그냥은 '장귀', 장구?)

110007 # 응, 장귀엔도 허곡 살장귀엔도 허곡.(응, 장구라고도 하고 설장구라고
도 하고.)

110007 @ 뽕과리는?(뽕과리는?)

110007 # 뽕과리 치는 거 엇샤? 그, 저.(뽕과리 치는 거 없니? 그, 저.)

110007 @ 뽕과리 무신거엔 곶아? 뽕과리엔 그냥 곶아?(뽕과리 뭐라고 말해? 뽕
과리라고 그냥 말해?)

110007 # 응, 쟁, 쟁.(응, 쟁, 쟁.)

110007 @ 쟁?(쟁?)

110007 # 썰과리ㄹ라 쟁이라고. 흐썩 허민 쟁은 재기 재기 두드리주게. 아이고, 쟁년 와리듯¹⁶⁹). (썰과리보고 쟁이라고. 조금 하면 쟁는 재게 재게 두드리지. 아이고, ‘쟁년 와리듯’.)

110007 @ 쟁년 와리듯?(‘쟁년 와리듯’?)

110007 # 응, 그 썰과리 치젠 허민 닥닥닥 닥 닥 허젠 허민.(응, 그 썰과리 치려고 하면 닥닥닥 닥하려고 하면.)

110007 @ 예.(예.)

110007 # 막 재기 두드려야 돼니까. 아이고 쟁년 와리듯 경허멍.(아주 재게 두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쟁년 와리듯’ 그렇게 하면서.)

110007 @ 년은 뭐라 쟁년?(년은 뭐야 ‘쟁년’?)

110007 # 사름이 바쁘게 무시거 막 화닥화닥 허여 가민 아이고 ‘쟁년 와리듯’ 우리가 그렇게 험난.(사람이 바빠서 뭐 막 화락화락 해 가면 아이고 ‘쟁년 와리듯’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

110007 @ 응, 저 쟁년이엔 허민 쟁이 여자라?(응, 저 ‘쟁년’이라고 하면 쟁이 여자야?)

110007 # 쟁 두드리는 사름게. 쟁 두드리는 사름을 보고. 이제 빨리빨리 허니까.(쟁 두드리는 사람. 쟁 두드리는 사람을 보고. 이제 빨리빨리 하니까.)

110007 @ 아.(아.)

110007 # 흐썩 허민 아이고.(조금 하면 아이고.)

110007 @ 쟁 두드리는 사름이 쟁년?(썰과리 두드리는 사름이 ‘쟁년’?)

110007 # 응.(응.)

110007 @ 막 급허게 왔다갔다 헤가민.(아주 급하게 왔다갔다 헤가면.)

110007 # 급허게 왔다갔다, 아이고 쟁년 와리듯, 우리가 써는 말이 우스운 말, 것ㄹ라. 하하하. 재미나지 참.(급하게 왔다갔다, 아이고 ‘쟁년 와리듯’, 우리가 쓰는 말이 우스운 말, 그것보고. 하하하. 재미있지 참.)

110007 @ 예, 쟁년 와리듯. 아.(예, ‘쟁년 와리듯’. 아.)

110007 # 썰과리 치는 거. 걸궁허젠 허민 또 북도 두 개라이.(썰과리 치는 거. 걸궁하려고 하면 또 북도 두 개야.)

110007 @ 응.(응.)

110007 # 살장귀도 두 개.(설장구도 두 개.)

110007 @ 아.(아.)

110007 # 경허민 너이, 참 흐나 썰과리 치고. 썩 치고 썩.(그러면 넷. 참 하나 썰과리 치고. 썩 치고 썩.)

110007 @ 썩, 썩은 뭐?(썩, 썩은 뭐?)

169) ‘쟁년 와리듯’은 썰과리를 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여자를 낮잡아 부르는 ‘년’을 붙여서 ‘쟁년’이라고 했고 ‘와리다’는 ‘조바심하여 서두르다’는 뜻의 제주어인데 썰과리 소리처럼 조바심하여 서두르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다.

110007 # 쨩은 또 저 쨩과리영 ㄱ찌 허여근앵이 저 큰 이제 낭푼 님은 거 영 큰큰헌 거, 두드리는 거.(징은 또 저 쨩과리랑 같이 해서 저 큰 이제 낭푼 같은 거. 이렇게 큰 거, 두드리는 거.)

110007 @ 징. 응.(징. 응.)

110007 # 쨩, 쨩은 이제 당당 허게.(징, 징은 이제 ‘당당’하게.)

110007 @ 당 소리나는 거예.(‘당’ 소리나는 거요.)

110007 # 응.(응.)

110006 @ 정월에 보리밭도 불릅니까?(정월에 보리밭도 밟습니까?)

110006 # 보리밭은 보리 주로 갈 땐 땅이 부끄는 밟은 강 블라.(보리밭은 보리 주로 갈 땐 땅이 부풀어 오르는 밟은 가서 밟아.)

110006 @ 불르민 죽어 불지 안허여?(밟으면 죽어 버리지 않아?)

110006 # 죽지도 앓고. 것도이 막 제국 때에 보리밭도 불리렌 허난 블러난. 그 전인 뭐.(죽지도 앓고. 그것도 아주 제국 때에 보리밭도 밟으라고 하니까 밟았었어. 그전엔 뭐.)

110006 @ 사름이 다 불르는 거?(사람이 다 밟는 거?)

110006 # 사름이 다 블라. 모다 강덜 이 밟, 저 밟 땡기멍.(사람이 다 밟아. 모여 가서 이 밟, 저 밟 다니면서.)

110006 @ 경헤야 보리가 잘 살아?(그래야 보리가 잘 살아?)

110006 # 응, 보리밭은 튼튼해사 좋나고 해서 블러났저마는 것도 밟에 따라.(응, 보리밭은 튼튼해야 좋다고 해서 밟았었다마는 그것도 밟에 따라.)

110006 @ 밟에 따라? 어떤 밟은 블라야 뵤여?(밟에 따라? 어떤 밟은 밟아야 돼?)

110006 # 그 작지도 엇고 멘작허영 부끄는 밟이 이서게. 그런 밟이나 불르주, 다른 건 불릅도 안허고.(그 돌멩이도 없고 평평해서 부풀어 오르는 밟이 있어. 그런 밟이나 밟지. 다른 건 밟지 앓고.)

110006 @ 응.(응.)

110006 # 조는 기자 블러근앵에, 씨 뿌렁 블렁 헤 먹어났주. 옛날 걸름도 엇곡 허난.(조는 그냥 밟아서, 씨 뿌려서 밟아서 헤 먹었었지. 옛날 거름도 없고 하니까.)

110006 @ 예, 예.(예, 예.)

110006 # 비료 세상 난 후젠 조도 안 블러도 어땡 안 헤. 그냥 좋아. 거난 옛날 은 멍청하게 그런 자연으로만 이제 허연 먹언 살앗주게.(비료 세상 난 후엔 조도 안 밟아도 어떻게 안 헤. 그냥 좋아. 그러니까 옛날은 멍청하게 그런 자연적으로만 이제 해서 먹어서 살았지.)

110006 @ 옛날엔 뭐 엇어났수게. 기계가 셔났수과, 뭐 헛수과?(옛날엔 뭐 없었잖아요. 기계가 있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110006 # 기계도 엇고, 비료도 엇고 허니까. 거난 이 우영팻디만 이제 보리도 좋고, 조도 좋지.(기계도 없고, 비료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텃밭에만 이제 보

리도 좋고, 조도 좋지.)

110006 @ 예.(예.)

110006 # 저 난전 해먹는 사름덜은 쌀이 부족허여. 보리도 아이 뉘곡, 조도 아이 뉘곡 그렇게 허니까.(저 난전 해먹는 사름들은 쌀이 부족해. 보리도 안 되고, 조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110008 @ 입춘이나 이런 거 때 뭐 허는 거 이수과?(입춘이나 이런 때 뭐 하는 거 있습니까?)

110008 # 입춘 때 무슨거 허는 거 엇어.(입춘 때 뭐 하는 거 없어.)

110008 @ 이제 뭐 썩 붙입니께?(이제 뭐 써서 붙이잖아요?)

110008 # 아, 입춘대길게.(아, 입춘대길.)

110008 @ 계난, 옛날도 썩 붙여난?(그러니까, 옛날도 써서 붙였어?)

110008 # 옛날도 그런 거 썩 부쩍.(옛날도 그런 거 써서 붙였어.)

110008 @ 아, 옛날도. 이제사 허는 거 아니고?(아, 옛날도. 이제야 하는 거 아니고?)

110008 # 이제사 허는 거 아니, 건 옛날부떠.(이제야 하는 거 아니, 그건 옛날부터.)

110008 @ 응.(응.)

110008 # 그것도 거 입춘대길이엔 쓰는 사름은 막 썩덜 부쩍.(그것도 그거 입춘대길이라고 쓰는 사름은 막 써서 붙여.)

110008 @ 입춘 때는 늬의 집이 가민 안 돼는 거?(입춘 때는 남의 집에 가면 안 되는 거?)

110008 # 입춘 때 나 올리도 보건소에 가온디. 하하하.(입춘 때 나 올해도 보건소에 갔다 왔는데. 하하하.)

110008 @ 그런 말 허던데, 가지 말라고.(그런 말 하던데, 가지 말라고.)

110008 # 여자덜은 아이 가메, 잘.(여자들은 안 가, 잘.)

110008 @ 계난예.(그러니까요.)

110008 # 응.(응.)

110008 @ 입춘은 뭐엔, 새철드는날¹⁷⁰?(입춘은 뭐라고, ‘새철드는날’?)

110008 # 새철드는날.(‘새철드는날’.)

110008 @ 새철드는날?(‘새철드는날’?)

110008 # 새 철이 들었다고 해 가지고 늬의 집이 여즈덜 안 가.(새 철이 들었다고 해 가지고 남의 집에 여자들 안 가.)

110008 @ 아, 이젠 경 잘 안 해도 옛날은 텅기지 말렌 해난마씨?(아, 이젠 그렇게 잘 안 해도 옛날은 다니지 말라고 했었어요?)

110008 # 텅기지 말렌 허여.(다니지 말라고 해.)

170) ‘새철드는날’은 입춘을 말한다. 24절기 중 첫째 절기인 입춘을 새로운 절기가 들어오는 날로 보는 것이다.

110008 @ 무사 재수 엇인텐?(왜 재수 없다고?)

110008 # 몰라, 어떻게 헨디 경 곶아. 새철드는날 여즈 늬의 집이 가지 말렌.(몰라, 어떻게 인지 그렇게 말해. '새철드는날' 여자 남의 집에 가지 말라고.)

110008 @ 거난. 경 곶는 거 들어난 거 님아.(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던 거 같아.)

110008 # 올린 난 누워서 보단 예, 보건소에나 간 물리치료나 해보카 허멍 가난 나허고 또 누게 가서고. 보건소 조끗되난.(올헨 난 누워서 보다가 예, 보건소에나 가서 물리치료나 해볼까 하면서 가니까 나하고 또 누가 갔더라. 보건소 곶이니까.)

110008 @ 예, 가까우난예.(예, 가까우니까요.)

110008 # 가까우난. 새철드는날에 또 보건소 잘못 왓젠 안혜샤? 이디 뉘서 보단 예게. 경허멍 해나세. 안 가, 참말로.(가까우니까. '새철드는날'에 또 보건소 잘못 왓다고 안 했니? 여기 누워서 보다가. 그렇게 했었어. 안 가, 참말로.)

110008 @ 옛날은 가지 말렌 해났어예?(옛날은 가지 말라고 했었어요?)

110008 # 응, 가지 말렌.(응, 가지 말라고.)

2월

110009 @ 영등 댐 뉘허는 거마씨?(영등 댐 뉘하는 거예요?)

110009 # 영등 댐 이디 안 허고.(영등 댐 여기 안 하고.)

110009 @ 아, 이딘 안 허여?(아, 여긴 안 해?)

110009 # 안 허여. 일 넘길 댐 그 영등할머니 나시 메 올려.(안 해. 일 넘길 댐 그 영등할머니 깃 메 올려.)

110009 @ 언제 일 넘길 때?(언제 일 넘길 때?)

110009 # 집이 안택할 때.(집에 안택할 때.)

110009 @ 아.(아.)

110009 # 영등들에 허게 뉘면.(영등달에 하게 되면.)

110009 @ 아, 영등달에 허게 뉘민.(아, 영등달에 하게 되면.)

110009 # 응.(응.)

110009 @ 그때는 영등할머니 나시.(그때는 영등할머니 깃.)

110009 # 나시도 올려.(깃도 올려.)

110009 @ 올려. 따로 영등 때 뉘 허는 건 엇고예?(올려. 따로 영등 때 뉘 하는 건 없고요?)

110009 # 아니, 그 영등들에 허게 뉘민 영등 나가기 전이 허게 뉘민 이제 올령 허여.(아니, 그 영등달에 하게 되면 영등 나가기 전에 하게 되면 이제 올려서 해.)

110009 @ 무사 저 무슨 영등.(왜 저 무슨 영등.)

110009 # 겨난 이 저 이젠 한라문화제로 그 영등곳도 허지 안햐서게?(그러니까 이 저 이젠 한라문화제로 그 영등곳도 하지 않니?)

110009 @ 예, 예.(예, 예.)

110009 # 제주 전적으로.(제주 전적으로.)

110009 @ 예, 예.(예, 예.)

110009 # 경험 햅주게.(그렇게 해서 하고 있지.)

110009 @ 잣다왓주마씨, 구경허레, 나도.(잣다왓지요, 구경하러, 나도.)

110009 # 건디 집이도 무신 일 그런, 특별헌 일 녁길 때 그 영등들 이제, 영등 할마니 나가기 전이.(그런데 집에도 무슨 일 그런, 특별한 일 녁길 때 그 영등달 이제, 영등할머니 나가기 전에.)

110009 @ 응.(응.)

110009 # 이월 보름 전이 허게 뉘면 영등할마니 나시도 올려. 올리고 이제 잘 오랏당 편안허게 해줍센 헤영 기도허는 거라.(이월 보름 전에 하게 되면 영등할머니 것도 올려. 올리고 이제 잘 왔다가 편안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야.)

110009 @ 응.(응.)

110009 # 그 할마님 나시.(그 할머니 깃.)

110009 @ 영등에는 허지 말렌 허는 거, 빨래도 널지 말고 영 곧던데?(영등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빨래도 널지 말고 이렇게 말하던데?)

110009 # 옛날 빨래 이제 허면은 좋지 못 허텐 영등 보름 전이 빨래허지 말렌 델 헤난.(옛날 빨래 이제 하면은 좋지 못 하다고 영등 보름 전에 빨래하지 말라고 들 했었어.)

110009 @ 게른 어떻. 빨래허지 말아, 십오일 동안?(그러면 어떻게. 빨래하지 말아, 십오일 동안?)

110009 # 게메, 경해도게 요새 그거 세업샤? 또 빨래도 옛날은이.(글쎄, 그래도 요새 그거 세고 있나? 또 빨래도 옛날은.)

110009 @ 예.(예.)

110009 # 삶는 게 잇나게. 옷에 때가 안 지면 비누 벗어부난. 그런 거 허지 말렌 햅주게.(삶는 게 있어. 옷에 때가 안 지면 비누 없어버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110009 @ 아. 삶으는 걸 하지 말라고?(아. 삶는 걸 하지 말라고?)

110009 # 응. 영등 보름 전인 흐뎡 정성을 해야주게, 것도. 경험으로 그건 생이라.(응. 영등 보름 전에는 조금 정성을 해야지, 그것도. 그렇게 함으로 그건 모양이야.)

110009 @ 그른 이월에는 다른 거는 영등 말고 다른 거는 엇수과?(그러면 이월에는 다른 거는 영등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110009 # 엇어. 이월 보름 전이게 것도.(없어. 이월 보름 전에 그것도.)

110009 @ 것도 이월 보름 전이예.(그것도 이월 보름 전이요.)

110009 # 이제 영등들 돌아와 가민 영등할마님이 그믐날 소섬 들어왕 이제 초흐를 날은 막 들어온덴 경 곶아났어.(이제 영등달 돌아와 가면 영등할머니가 그믐날 우도 들어와서 이제 초하루에는 막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했었어.)

110009 @ 초하를 날은.(초하루는.)
 110009 # 저 그믐날은 소섬 엿샤게?(저 그믐날은 우도 없니?)
 110009 @ 소섬으로 들어왕 그다음 어디로 나가?(우도로 들어와서 그다음 어디로 나가?)
 110009 # 경헛당게 나갈 때도 경 나감주.(그랬다가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지.)
 110009 @ 소섬으로 나가?(우도로 나가?)
 110009 # 몰라, 나갈 땐.(몰라, 나갈 땐.)
 110009 @ 하하하.(하하하.)
 110009 # 소섬 들어왔젠 허영.(우도 들어왔다고 해서.)
 110009 @ 소섬으로 들어왔젠만 허고 나가는 건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우도로 들어왔다고 하고 나가는 건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
 110009 # 나갈 때도 아메도 경 감실테주게.(나갈 때도 아무래도 그렇게 가고 있겠지.)
 110009 @ 응.(응.)
 110009 # 그믐 돼가민 아이고 오늘 소섬 들어왔젠 허고 초하를날은 이제 영등 들어왔젠 경허고.(그믐 되어가면 아이고 오늘 우도 들어왔다고 하고 초하루에는 이제 영등 들어왔다고 그렇게 하고.)
 110009 @ 영등할망?(영등할머니?)
 110009 # 영등할망 들어올 때 영등굿도 허고. 전인이 개인별로 이제 일 넘길 때도 영등들에 일 넘기면은 집이 문전제나 헐 땐 영등할머니 나시 또 혼 상 차려놔이.(영등할머니 들어올 때 영등굿도 하고. 전에는 개인별로 이제 일 넘길 때도 영등달에 일 넘기면 집이 문전제나 할 땐 영등할머니 깃 또 한 상 차려놔.)
 110009 @ 예.(예.)
 110009 # 메도 따로 농곡 험다게. 경헌디 이젠 제주도적으로 이제 영등제도 잘 험세, 영등굿도 허고.(메도 따로 놓고 한다. 그런데 이젠 제주도적으로 이제 영등제도 잘 하고 있잖아, 영등굿도 하고.)
 110009 @ 맞아.(맞아.)
 110009 # 다. 이제 또 이 제주도는 이제 그 신이 이제 도와줘 산텐 허영 그저 서우제도 불르곡 다 제주도적으로 잘 헤드럼서. 개인은 잘 못 허주게, 것도. 정성껏 못해, 못해.(다. 이제 또 이 제주도는 이제 그 신이 이제 도와줘서 산다고 해서 그저 서우제도 부르고 다 제주도적으로 잘 헤드리고 있어. 개인은 잘 못 하지, 그것도. 정성껏 못해, 못해.)

3월

110011 @ 옛날에는 정월명절 말고 스멩질 해낫텐 헨게마는.(옛날에는 정월명절 말고 사명절 했었다고 하던데.)
 110011 # 스멩질이 무신 명절 말고?(사명절이 무슨 명절 말이니?)

110011 @ 한식, 뭐 단오 이런 거.(한식, 뭐 단오 이런 거.)
110011 # 아, 한식. 이 저 입춘에.(아, 한식. 이 저 입춘에.)
110011 @ 입춘에?(입춘에?)
110011 # 응. 입춘에 이제 멧질해난. 한식이엔 허영.(응. 입춘에 이제 멧질 했었어. 한식이라고 해서.)
110011 @ 아, 한식날은 특별하게 허는 건 엇어마씨?(아, 한식날은 특별하게 하는 건 없어요?)
110011 # ㄴ뜨주, ㄴ따.(같지, 같아.)
110011 @ 똑ㄴ치 해, 똑ㄴ치 출려?(똑같이 해, 똑같이 차려?)
110011 # 응, 똑ㄴ치 출려.(응, 똑같이 차려.)
110011 @ 멧질허는 거추룩?(멧질하는 거처럼?)
110011 # 멧질허는 거. 오월 단오.(멧질하는 거. 오월 단오.)
110011 @ 그다음 오월 단오예?(그다음 오월 단오요?)
110011 # 응.(응.)
110011 @ 그때만 특별히 하는 건 엇어마씨?(그때만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110011 # 엇어.(없어.)
110011 @ 그냥 멧질 출려냥 절해?(그냥 멧질 차려놓고 절해?)
110011 # 출려냥 다 ㄴ뜨게.(차려놔서 다 같게.)
110011 @ 늬의 집이 멧질 먹으레도 가?(남의 집에 멧질 먹으러도 가?)
110011 # 그때도 다 ㄴ뜨주게. 멧질허게 돼면.(그때도 다 같지, 멧질하게 되면.)
110011 @ 아, 하게 돼믄 똑ㄴ치?(아, 하게 되면 똑같이?)
110011 # 한식 멧질이고 오월 단오고 똑ㄴ따.(한식 멧질이고 오월 단오고 똑같아.)
110011 @ 응.(응.)
110011 # 하게 돼면. 견디 한식은 안 허는 집이 하.(하게 되면. 그런데 한식은 안 하는 집이 많아.)
110011 @ 응.(응.)
110011 # 안 허는 집 하, 허는 사람은 허고.(안 하는 집 많아, 하는 사람은 하고.)
110011 @ 허는 사람은 허고.(하는 사람은 하고.)
110012 @ 청명이나 뭐 이런 거는?(청명이나 뭐 이런 거는?)
110012 # 책명이 이제 한식이주게.(청명이 이제 한식이지.)
110011 @ 청명이영 한식이영 메칠 차이 나는 거?(청명이랑 한식이랑 며칠 차이 나는 거?)
110011 # 아니, 아니, ㄴ따.(아니, 아니, 같아.)
110011 @ ㄴ튼 거?(같은 거?)
110011 # 응, ㄴ따.(응, 같아.)

110012 @ 혹시 이때는 뭐 특별히 하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건 엇어마씨?(혹시 이때는 뭐 특별히 하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건 없어요?)

110012 # 엇어, 엇어. 아이 그 책명에 무슨 일이나 넘길 때. 뭐 이 드르에나 뭘.(없어, 없어. 아니 그 청명에 무슨 일이나 넘길 때. 뭐 이 들에나 뭘.)

110012 @ 뭘?(뭘?)

110012 # 허는 게 잇주게, 책명날도.(하는 게 있지, 청명날도.)

110012 @ 아, 책명날도 뭐 허는 게 이서마씨?(아, 청명날도 뭐 하는 게 있어요?)

110012 # 응, 이 집안에도 무슨 냥을 옮겨 싱그던지 뭐 허는 거, 그런 건 책명에도 헌덴 허여.(응, 이 집안에도 무슨 나무를 옮겨 심던지 뭐 하는 거, 그런 건 청명에도 한다고 해.)

110012 @ 아.(아.)

110012 # 경허주마는 다른 건 엇고. 책명날 허는 게 잇주.(그렇지만 다른 건 없고. 청명날 하는 거 있지.)

4월

110013 @ 사월에 사월들 뉘면 특별히 허는 건 엇어마씨?(사월에 사월 되면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110013 # 아무것도 엇고.(아무것도 없고.)

110013 @ 초과일날 절간에?(초과일날 절에?)

110013 # 응, 초과일날 절간에.(응, 초과일날 절에.)

110013 @ 절간에 가는 거는 뭐. 옛날, 지금은 안 허는디 옛날 해난 거나 이런 거는 엇수과?(절에 가는 거는 뭐. 옛날,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 했던 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110013 # 옛날도 초과일날은 초과일이엔 허영 흥뎌 세는 사름은 세고, 계도 아무것도 안 허고.(옛날도 초과일은 초과일이라고 해서 조금 쇠는 사름은 쇠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110013 @ 등 싸는 거?(등 켜는 거밖에.)

110013 # 응, 것도.(응, 그것도.)

110013 @ 옛날에도 등은 싸난?(옛날에도 등은 켜어?)

110013 # 아니, 집에서 아이 싸.(아니, 집에서 안 켜.)

110013 @ 아니, 절에 가근에.(아니, 절에 가서.)

110013 # 절에 강 싸주게.(절에 가서 켜지.)

110013 @ 옛날에도?(옛날에도?)

110013 # 옛날에도 절에 텅기는 사름은게.(옛날에도 절에 다니는 사름은.)

110013 @ 할머니 절에 안 텅겨?(할머니 절에 안 다녀?)

110013 # 나도 텅겨난.(나도 다녀왔어.)

110013 @ 땡겨나신디 이젠 안 땡겨?(다녔었는데 이젠 안 다녀.)
 110013 # 이제도 땡겨도 경 가점샤게?(이제도 다녀도 그렇게 갈 수 있니?)
 110013 @ 응.(응.)
 110013 # 등도 많이 싸보고 헌다는 거 다 해봤주 무신.(등도 많이 쳐보고 한다는 거 다 해봤지 무슨.)
 110013 @ 하하하.(하하하.)

5월

110015 @ 아까 단오에는 제주도에 특별히 허는 건 엇수과? 육지는 뭐 그네뛰기도 한다, 머리도 감은다 막 영허는디.(아까 단오에는 제주도에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까? 육지는 뭐 그네뛰기도 한다, 머리도 감는다 막 하는데.)
 110015 # 이딘 안 해여.(여긴 안 해.)
 110015 @ 이딘 그런 거 엇어예?(여긴 그런 거 없어요?)
 110015 # 응. 그네뛰기 팔월 추석 아니?(응. 그네뛰기 팔월 추석 아니?)
 110015 @ 단오에 해.(단오에 해.)
 110015 # 단오에 해여.(단오에 해.)
 110015 @ 응, 이디선 팔월에 해낫수과?(응, 여기서 팔월에 했었습니까?)
 110015 # 아니, 거 엇어 이디. 이딘 엇어.(아니, 그거 없어 여기. 여긴 없어.)
 110015 @ 그네는 표준말이고 제주도 말 혹시 곤는 거 이수과?(그네는 표준말이고 제주도 말 혹시 말하는 거 있습니까?)
 110015 # 궁글 트는 거주.(‘궁글 트는’ 거지.)
 110015 @ 궁글 트는 거?(‘궁글 트는’ 거?)
 110015 # 응, 영 밀려갓당 궁글 트는 거.(응, 이렇게 밀려갓다가 그네 타는 거.)
 110015 @ 궁글 트는 거.(그네 타는 거.)
 110015 # 응.(응.)
 110015 @ 그네도 영 잡아근에 밑에 영 발 허는 거 이수게? 밑에는 판은 무신거엔 곤고 줄 잡는 건 무신거엔 곶아?(그네도 이렇게 잡아서 밑에 이렇게 발 하는 거 있잖아요? 밑에는 판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줄 잡는 건 뭐라고 말해?)
 110015 # 베.(바.)
 110015 @ 이건 베. 밧에 판은?(이건 바. 밑에 판은?)
 110015 # 밧에 판은 놔지민 놓고 겨 안허민 그냥 베에 앓앙 그냥 궁글 텃주.(밑에 판은 놓을 수 있으면 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에 앓아서 그냥 그네 타지.)
 110015 @ 베에 그냥 앓아근에.(바에 그냥 앓아서.)
 110015 # 응. 궁글 터.(응. 그네 타.)
 110015 @ 궁글 트는 거엔 곤는구나예?(그네 타는 거라고 말하는군요?)
 110015 # 응.(응.)

6월

110019 @ 유월에는?(유월에는?)

110015 # 유월에는 유월절 들면은이 집이 무신거 안해. 제도 아이 지내고.(유월에는 유월절 들면 집이 무엇 안 해. 제도 안 지내고.)

110019 @ 무사, 무사?(왜, 왜?)

110019 # 몰라. 유월절 들민.(몰라. 유월절 들면.)

110019 @ 유월절은 유월 육일?(유월절은 유월 육일?)

110019 # 아니, 그냥 유월절도 드는 날이 이서.(아니, 그냥 유월절도 드는 날이 있어.)

110019 @ 아, 드는 날이 이서?(아, 드는 날이 있어?)

110019 # 응, 또 들이 이제 해가, 입춘도 올리가 켈 인척 들었저게.(응, 또 달이 이제 해가, 입춘도 올해가 제일 일찍 들었어.)

110019 @ 예.(예.)

110019 # 경허듯이 인척 드는 들이 잇고 늦영 드는 들이 잇고.(그러듯이 일찍 드는 달도 있고 늦어서 드는 달도 있고.)

110019 @ 아. 유월절이 메칠인지는 모르고마씨?(아. 유월절이 며칠인지는 모르고요?)

110019 # 유월절 드는 날이 이서, 유월 낭.(유월절 드는 날이 있어, 유월 나서.)

110019 @ 아.(아.)

110019 # 오월 단오는 그대로 단오고 유월절은 또 절 드는 날이 이서.(오월 단오는 그대로 단오고 유월절은 또 절기이 드는 날이 있어.)

110019 @ 응.(응.)

110019 # 입춘도 들락날락이라.(입춘도 들락날락이야.)

110019 @ 예.(예.)

110019 # 삼월에도 들곡 입춘이, 음력으로.(삼월에도 들고 입춘이, 음력으로.)

110019 @ 예.(예.)

110019 # 올리가 켈 인척 드는 해, 입춘.(올해가 제일 일찍 드는 해, 입춘.)

110019 @ 아.(아.)

110019 # 이월에 입춘 들민 고사리도 재기 나고 절이 일러.(이월에 입춘 들면 고사리도 재게 나고 절이 일러.)

110019 @ 아, 기구나게.(아, 그렇구나.)

110019 # 응, 경험세. 경허고 또 삼월에 입춘 들민 절이 늦어. 곡식이 이제 늦게 갈곡.(응,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또 삼월에 입춘 들면 절기가 늦어. 곡식이 이제 늦게 갈고.)

110019 @ 늦게.(늦게.)

110019 # 곡식을 이제 7월에도 늦게 해 들이고 경헤여.(곡식을 이제 가을에도 늦게 해 들이고 그렇게 해.)

110019 @ 예.(예.)
 110019 # 곡식덜이 어떻사 아는디 똑 절기에 따라. 찜.(곡식들이 어떻게야 아는지 꼭 절기에 따라. 찜.)
 110019 @ 하하하.(하하하.)
 110019 # 딱 따른덴허난, 허여보민. 경헌다게.(딱 따른다니까, 해보면. 그렇게 한다.)
 110019 @ 응.(응.)
 110019 # 거난 그건 제주도 전통이라. 그거.(그러니까 그건 제주도 전통이야. 그거.)
 110017 @ 유월 스무날은 독 잡아먹는 날?(유월 스무날은 닭 잡아먹는 날?)
 110017 # 독 경 먹넨 해도 먹는 사름 먹고 뭐 마는 사름 말주.(닭 그렇게 먹는다고 해도 먹는 사람 먹고 뭐 마는 사람 말지.)
 110017 @ 옛날에 무사 집이서 독 질좌근에 안 해납디가?(옛날에 왜 집에서 닭 길러서 안 했었습니까?)
 110017 # 허어나도, 우리 독 잡을 충 몰랑 못허여.(했어도, 우리 닭 잡을 줄 몰라서 못해.)
 110017 @ 하하하. 독 잡을 충 몰랑?(하하하. 닭 잡을 줄 몰라서?)
 110017 # 응.(응.)
 110017 @ 독죽 안 썩 먹읍디가?(닭죽 안 썩어 먹었습니까?)
 110017 # 아니, 아니. 하르방도 못 잡지 우리 아이덜도 독 못 잡아뵈.(아니, 아니. 할아버지도 못 잡지 우리 아이들도 닭 못 잡아뵈어.)
 110017 @ 아.(아.)
 110017 # 요새에는 푸는 독이 이시난 가끔 이따근앵이 아이덜도 사먹고 우리도 가끔 사먹주. 독이고 개고 우리 절대 안 먹어.(요새는 파는 닭도 있으니까 가끔 있다가 아이들도 사먹고 우리도 가끔 사먹지. 닭이고 개고 우리 절대 안 먹어.)
 110017 @ 아.(아.)
 110017 # 개고기도 절대 안 먹어 봤어. 물고기도 아이 먹어보고.(개고기도 절대 안 먹어봤어. 말고기도 안 먹어 보고.)
 110017 @ 무사 이디 뭇 하영 안 길릅니까?(왜 여기 말 많이 안 기릅니까?)
 110017 # 길좌도 우린 안 먹어, 안 먹어.(길러도 우린 안 먹어, 안 먹어.)
 110017 @ 일부러?(일부러?)
 110017 # 아이고, 떡구정 안 허여, 안 먹어.(아이고, 먹고 싶지 않아, 안 먹어.)
 110017 @ 하하하.(하하하.)
 110017 # 게도이 유월에 개나 독이나 먹넨 허지이.(그래도 유월에 개나 닭이나 먹는다고 하지.)
 110017 @ 예, 예.(예, 예.)
 110017 # 유월에는 큰 제를 안 허거든.(유월에는 큰 제를 안 하거든.)

110017 @ 아.(아.)

110017 # 큰 제를 안 허니까 죄가 안 받아. 개 똥 ㄹ쁜 것 먹어도.(큰 제를 안 하니까 죄를 안 받아. 개 똥 같은 것 먹어도.)

110017 @ 예.(예.)

110017 # 경허니까 유월들에 개도 먹고 독도 먹는 거라. 독은 아무 때나 먹어도 깨끗한 거니까 먹주마는 그래도 이 개 ㄹ쁜 건이 유월에 먹어, 유월에.(그러니까 유월에 개도 먹고 닭도 먹는 거야. 닭은 아무 때나 먹어도 깨끗한 거니까 먹지만 그래도 이 개 같은 건 유월에 먹어, 유월에.)

110017 @ 응, 유월에. 음력 유월이지예?(응, 유월에. 음력 유월이지요?)

110017 # 응, 음력 유월. 그런 때는 먹어도 죄가 엇거든.(응, 음력 유월. 그런 때는 먹어도 죄가 없거든.)

110017 @ 응.(응.)

110017 # 저 높은 제를 아이 지내니까, 유월절은 들면.(저 높은 제를 안 지내니까, 유월절은 들면.)

110017 @ 응.(응.)

110017 # 겨난 우리 생각에는 그 이제 유월에는 모든 벌레가 탄생허지 안 허느냐게?(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이제 유월에는 모든 벌레가 탄생하지 않니?)

110017 @ 아.(아.)

110017 # 겨난 그 아메도게 벌레가 많이 텅기민 추접허주게.(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벌레가 많이 다니면 더럽지.)

110017 @ 예.(예.)

110017 # 겨난 그 제를 안허는 모양이라. 이걸 나 생각이라.(그러니까 그 제를 안 하는 모양이야. 이걸 내 생각이야.)

110017 @ 아, 음식도 변허고게예.(아, 음식도 변하고요.)

110017 # 변허고.(변하고.)

110017 @ 예, 날씨가 더우난예.(예, 날씨가 더우니까요.)

110017 # 응. 유월은 안 행 이제 칠월절이 들면은 제도 지내고 그렇게 헤여.(응. 유월은 안 해서 이제 칠월절이 들면은 제도 지내고 그렇게 해.)

110018 @ 삼복, 이젠 복날 뭐 삼계탕 먹으러 가고 허는디 옛날에는 그런 거 엇어났수과?(삼복, 이젠 복날 뭐 삼계탕 먹으러 가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까?)

110018 # 엇어.(없어.)

110018 @ 엇어.(없어.)

110018 # 것도 몰라 먹는 사름 먹어신디사. 초복 말복 뭐 다 잇주 뭐.(그것도 몰라. 먹는 사람은 먹었는지. 초복 말복 뭐 다 있지 뭐.)

110018 @ 예.(예.)

110018 # 중복 그런 거 잇주마는. 그거이 절기주, 절기라.(중복 그런 거 있지마

는. 그거 절지지, 절기야.)

110018 @ 예, 예.(예, 예.)

110018 # 초복이 되면 모든 곡식이 늦어.(초복이 되면 모든 곡식이 늦어.)

110018 @ 응.(응.)

110018 # 초복 전이 콩도 갈아야지, 조도 불려야지. 초복 넘어도 콩도 이제
훈 홉 갈민 두 홉 난다 이 말은 이서.(초복 전에 콩도 갈아야지, 조도 밟아야지. 초
복 넘어서 해도 콩도 이제 한 홉 갈면 두 홉 난다 이 말은 있어.)

110018 @ 언제?(언제?)

110018 # 초복.(초복.)

110018 @ 초복 전이.(초복 전에.)

110018 # 초복 전이 다 현 곡식은 잘 자라고.(초복 전에 다 한 곡식은 잘 자라
고.)

110018 @ 아.(아.)

110018 # 초복 넘으면 잘 자라질 못허여, 추위 가지고.(초복 넘으면 잘 자라지
못해, 추위 가지고.)

110018 @ 아.(아.)

110018 # 경허니까 초복 전이 오만 곡식을 다 해야 돼여.(그러니까 초복 전에
온갖 곡식을 다 해야 돼.)

110018 @ 응.(응.)

110018 # 경혜영. 콩도 초복 넘어 갈아근에 훈 돼약에 두 돼약 난덴 말은 혜여
도 잘 크질 못허여. 인척 갈아야 돼여.(그렇게 해서. 콩도 초복 넘어서 갈아서 한
되에 두 되 난다고 말은 해도 잘 크지 못해. 일찍 갈아야 돼.)

110018 @ 인척 갈아야 돼여예?(일찍 갈아야 돼요?)

110018 # 초복 전이.(초복 전에.)

110018 @ 초복 전이.(초복 전에.)

7월

110020 @ 칠월 칠석날은 특별히 허는 거 잇수과?(칠월 칠석날은 특별히 하는
거 있습니까?)

110020 # 칠월 칠석에도게 특별히 허는 거 엇어. 절간에서나 허주.(칠월 칠석에
도 특별히 하는 거 없어. 절에서나 하지.)

110020 @ 절간에서나 허고예?(절에서나 하고요?)

110020 # 응.(응.)

110021 @ 백중 때는?(백중 때는?)

110021 # 백중 때는 소 질를 때는 우리 제 지내어난. 백중.(백중 때는 소 기를
때는 우리 제 지냈었어. 백중.)

110021 @ 백중 때 제 지내는 거는 집이서 허는 거 아니지예?(백중 때 제 지내

는 거는 집에서 하는 거 아니지요?)

110021 # 아니, 드르에 강.(아니, 들에 가서.)

110021 @ 드르에 강.(들에 가서.)

110021 # 소 잘 질봐줍센 행 산신님 나시.(소 잘 길러달라고 해서 산신님 깃.)

110021 @ 아.(아.)

110021 # 경헌텐 말로 들은 거주, 우린 무신 알아?(그런다고 말로 들은 거지, 우리 무슨 알아?)

110021 @ 할머니네도 해나지 안헐?(할머니네도 했었지 않아?)

110021 # 게메, 허엿주, 경혜연.(글쎄, 했지, 그렇게 했었어.)

110021 @ 어디, 아침 새벽이 갑니까?(어디, 아침 새벽에 갑니까?)

110021 # 저녁이.(저녁에.)

110021 @ 아, 저녁에.(아, 저녁에.)

110021 # 그때도 상웨떡허고 제주허고 막 메허고 허영 제숙 굽고 허영 가.(그때도 상화떡허고 제주하고 막 해서 제숙 굽고 해서 가.)

110021 @ 제숙은 우럭?(제육은 우럭?)

110021 # 우럭이나 돔이나.(우럭이나 돔이나.)

110021 @ 경혜근에 산에 강 초석 같은 거 들렁 가?(그렇게 해서 산에 가서 초석 같은 거 들고 가?)

110021 # 응, 갱 강 벌영 절허곡.(응, 그렇게 해서 가서 벌여서 절하고.)

110021 @ 상은 폐우지 안헤?(상은 퍼지 않아?)

110021 # 상은 아저가 점서게?(상은 가져갈 수 있니?)

110021 @ 상도. 아, 아정가지 못허난.(상도. 아, 가져가지 못하니까.)

110021 # 아저가지민 종주마는 그대로 그자.(가져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대로 그냥.)

110021 @ 바닥에 그냥예.(바닥에 그냥요.)

110021 # 응, 그대로.(응, 그대로.)

110021 @ 경혜근에 그디서 행, 영 무신거 영 툇아놔근에.(그렇게 해서 거기서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뜯어 놔서.)

110021 # 응.(응.)

110021 @ 그건 무신거엔 험니까? 영 툇아 놓는 거,(그건 뭐라고 험니까? 이렇게 뜯어 놓는 거.)

110021 # 걸멧.(고수레.)

110021 @ 걸멧?(고수레?)

110021 # 응.(응.)

110021 @ 아, 걸멧헤영.(아, 고수레해서.)

110021 # 응.(응.)

110021 @ 걸멧 헌텐 곱읍니까, 걸멧 툇은텐 험니까?(고수레 한다고 험니까, 고

수레 뜯는다고 합니까?)

110021 # 걸땡 허는 거 헤사주게.(고수레 하는 거 해야지.)

110021 @ 걸땡헤영.(고수레해서.)

110021 # 영영 거러 놓는 것이, 것이 걸땡허는 거라.(이렇게 이렇게 떠서 놓는 것이, 그것이 고수레하는 거야.)

110021 @ 걸땡허는 거라.(고수레하는 거야.)

110021 # 집이서 이제 제스나 멩질 때도 허는 거 걸땡.(집에서 이제 제사나 멩질 때도 하는 거 고수레.)

110021 @ 응. 쟁 이디 어디 영 뿌리지 안해?(응. 그래서 여기 어디 이렇게 뿌리지 않아?)

110021 # 그냥 도에 비웁주게. 올레에 강.(그냥 입구에 비우지. ‘올레’에 가서.)

110021 @ 아, 도에. 아니 지금 어디 가근에.(아, 입구에. 아니 지금 어디 가서.)

110021 # 올레에 가근에 비와.(‘올레’에 가서 비워.)

110021 @ 아니, 우리 지금 저 백중제?(아니, 우리 지금 저 백중제?)

110021 # 아, 백중제는 드르에서 또 비우곡게.(아, 백중제는 들에서 또 비우고.)

110021 @ 드르에서 그냥 비와?(들에서 그냥 비워?)

110021 # 응. 드르에서 비우고.(응. 들에서 비우고.)

110021 @ 케우리덴¹⁷¹⁾ 허는.(‘케우리덴’ 하는.)

110021 # 것도 케우리나 그거나 마찬가지로. 걸땡이 최고. 걸땡허는 거라 것도, 다. 케우리덴 말 거 제주도 말인데.(그것도 ‘케우리’나 그거나 마찬가지로. 고수레가 최고. 고수레 하는 거야 그것도, 다. ‘케우리덴’ 말 그거 제주도 말인데.)

110021 @ 계난.(그러니까.)

110021 # 제주도 말로 케우리덴 허는 거주마는 그 걸땡이렌 곶아사 다.(제주도 말로 ‘케우리덴’ 허는 거지마는 그 고수레라고 말해야 다.)

110021 @ 걸땡이엔 곶아.(고수레라고 말해.)

110021 # 응, 집이서 제스 때도 것이 다 걸땡허는 거.(응, 집에서 제사 때도 그것이 다 고수레 하는 거.)

110021 @ 아무 디나 강 허는 건 아닐 거 아니파예, 어디 허는 디가 이수과? 제지내는 디.(아무 데나 가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잖아요, 어디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지내는 데.)

110021 # 제지내는 디. 저 깨끗헌 디레 비울 때 엇이민 지방 우터레 올려, 지방 우터레.(제지내는 데. 저 깨끗한 데 비울 때 없으면 지방 위로 올려, 지방 위에.)

110021 @ 응.(응.)

110021 # 경허곡 올레에 강 해도 깨끗헌 디 강 낫당 치와불곡 경험저게.(그리고 ‘올레’에 가서도 해도 깨끗한 데 가서 놓았다가 치워버리고 그렇게 해.)

110021 @ 그믐 백중제할 때는 다 딱로딱로 갈 거 아니파예? 우리집이도 가고,

171) ‘케우리다’는 ‘고수레하다’의 제주어로 귀신에게 대접하느라 조금 뜯어서 던지는 것을 말한다.

옆집이도 가고.(그러면 백중제할 때는 다 따로따로 갈 거 아닙니까요? 우리집도 가고, 옆집도 가고.)

110021 # 많이 가. 그땐 쉼덜 질룰 땐.(많이 가. 그땐 소들 기를 땐.)

110021 @ 쉼덜 질루는 디 그민 다 여기저기서 다 제지내?(소들 기르는 데 그러면 다 여기저기서 다 제지내?)

110021 # 아니, ㄹ찌도 강 허곡.(아니, 같이도 가서 하고.)

110021 @ 아, ㄹ찌도 강 해?(아, 같이도 가서 해?)

110021 # 동네에서 ㄹ찌도 강 허곡, 재미나주, 그땐.(동네에서 같이도 가서 하고, 재미있지, 그땐.)

110021 @ 재미나? 산에 가근에.(재미있어? 산에 가서.)

110021 # 응, 쉼 신 사름덜 막 가근에 그디 강 올렛당 밥덜 먹곡 행 와, 걸멍헤 똥.(응, 소 있는 사람들 막 가서 거기 가서 올렸다가 밥들 먹고 해서 와, 고수레해 두고.)

110021 @ 아, 저녁 먹어? 그디서.(아, 저녁 먹어? 거기서.)

110021 # 이녁 행 간 것덜.(자기 해서 간 것들.)

110021 @ 행 간 것덜.(해서 간 것들.)

110021 # 응.(응.)

110021 @ 다 딱로딱로 출립니까? 이녁만씩.(다 따로따로 차립니까? 자기만큼씩.)

110021 # 응. 이녁만씩.(응. 자기만큼씩.)

110021 @ 아.(아.)

110021 # 이녁만씩 출령 강 경헝게 걸멍헤 똥 먹영 완주게. 절헤 똥.(자기만큼씩 차려서 가서 그렇게 해서 고수레해 두고 먹어서 오고 있지. 절헤 두고.)

110021 @ 응. 백중은 옛날도 백중이엔 곶앗수과? 뭐 다른 말로 곤는 말 엇수과?(응. 백중은 옛날도 백중이라고 말했습니까? 뭐 다른 말로 하는 말 없습니까?)

110021 # 백중이엔 곶아. 것도 절기라, 절기. 칠월에 절기.(백중이라고 말해. 그것도 절기야, 절기. 칠월에 절기.)

110021 @ 아니 무슨 목동 아니 뭐 이런 거 엇수과?(아니 무슨 목동 아니 뭐 이런 거 없습니까?)

110021 # 엇어.(없어.)

110021 @ 마불림제¹⁷²⁾ 뭐허는 거마씨?(‘마불림제’는 뭐하는 거예요?)

110021 # 마불림?(‘마불림’?)

110021 @ 그런 말 안 들어판?(그런 말 안 들어봤어?)

110021 # 그런 말 안 들어판.(그런 말 안 들어봤어.)

110023 @ 백중날 물 맞는 건 뭐엔 곶아?(백중 물 맞는 건 뭐라고 말해?)

110023 # 물 맞는 거 더우 깨렌게.(물 맞는 거 더워 깨라고.)

172) ‘마불림제’는 음력 7월에 행해지는 당곳으로 마(곰팡이)를 날려 보내는 제의라는 의미가 있다.

110023 @ 무신거?(뭐?)

110023 # 백중날에 더위 깨라고.(백중에 더위 깨라고.)

110023 @ 더위 깨라고 물 맞는 거예?(더위 깨라고 물 맞는 거요?)

110023 # 백중 물을 이제 맞이민.(백중 물을 이제 맞으면.)

110023 @ 물 맞이레 가게 영해?(물 맞으러 가자 이렇게 해?)

110023 # 옛날은이 이 촌에는이 실려운 수도가 엇어부난 백중날은 물이 실렵넌.(옛날은 이 촌에는 차가운 수도가 없어버리니까 백중날은 물이 차갑다고.)

110023 @ 예.(예.)

110023 # 경해근에 물맞이레 가.(그래서 물 맞으러 가.)

110023 @ 이디선 어디 갑니까?(여기서는 어디 갑니까?)

110023 # 이디서 저 절물을 못 가주게. 경허민 이제 바당에 이제 목욕허레 가곡.(여기서 저 절물을 못 가지. 그러면 이제 바다에 이제 목욕하러 가고.)

110023 @ 응.(응.)

110023 # 또 북촌 용물이엔 현 디 이서. 물이 든물 느리곡 허는 디.(또 북촌 용물이라고 한 데 있어. 물이 단물 내리고 하는 데.)

110023 @ 아.(아.)

110023 # 그디도 백중날 목욕허레 가곡. 이 선홀은 물 엇어부난게.(거기도 백중날 목욕하러 가고. 이 선홀은 물이 없어버리니까.)

110023 @ 물 맞이레 또 어디 가낫수과?(물 맞으러 또 어디 갔었습니까?)

110023 # 절물에.(절물에.)

110023 @ 이디선 절물에 물 맞이레 갑니까?(여기선 절물에 물 맞으러 갑니까?)

110023 # 응, 절물.(응, 절물.)

110023 @ 그뎨 물 하영 나난마씨?(그뎨 물 많이 냈었어요?)

110023 # 하이고, 그뎨이 사름이 막 하영 가.(아이고, 그뎨 사람이 아주 많이 가.)

110023 @ 아.(아.)

110023 # 으름에 덩곡 허민. 가민 이제 그 언덕으로 물이 툽툽툽툽 느리민 영 파이프 ㄹ추룩 허영 영 코 툽툽 느리게.(여름에 덩고 하면. 가면 이제 그 언덕으로 물이 툽툽툽툽 내리면 이렇게 파이프같이 해서 이렇게 코 툽툽 내리게.)

110023 @ 응.(응.)

110023 # 겨민 이제 그 아래 강 앓앙 이제 사람 우터레 툽툽툽툽 털어정 것이 물맞임이주게.(그러면 이제 그 아래 가서 앓아서 이제 사람 위에 툽툽툽툽 떨어져서 그것이 물맞이지.)

110023 @ 응.(응.)

110023 # 경허고 그 절물 앞인 또 큰 곳인 물이 이서. 그레 막 흘러가. 겐디 이젠 막 잘해 놔선게.(그리고 그 절물 앞엔 또 곳은 물이 있어. 그리 막 흘러가. 그런 데 이젠 막 잘 해 냈던데.)

110023 @ 예.(예.)

110023 # 벤헛주, 벤헛서, 참. 그땐 그디도이 밋밋헌 테역밭이라났저, 우리 두린 땐.(변헛지, 변헛어, 참. 그땐 거기도 평평한 잔디밭이었어, 우리 어린 땐.)

110023 @ 예.(예.)

110023 # 절물 벙뒤라고 해 가지고 밋밋헌 테역밭이라난디 이젠 막 낭 싱건에 그냥 허고 그 절물 코도 이젠 탁 막아 붙어선게.(절물 들판이라고 해 가지고 평평한 잔디밭이었었는데 이젠 막 나무 심어서 그냥 하고 그 절물 코도 이젠 탁 막아 버렸더라.)

110023 @ 아.(아.)

110023 # 탁 막아서.(탁 막아서.)

110023 @ 이젠 강 보민.(이제는 가서 보면.)

110023 # 이제 수도계. 문계.(이제 수도, 모두.)

110023 @ 계란.(그러니까.)

110023 # 수도로 이레저레 다 빼어단계 뭐 이디저디서 막 먹엄주게, 그 절물 지경도 가면은.(수도도 이리저리 다 빼어다가 뭐 여기저기서 막 먹고 있지, 그 절물 근처도 가면은.)

110023 @ 응.(응.)

110023 # 그 우리 물 맞아난 코는 탁 막아 붙어선게게. 영 가천. 나 제작년이, 작년이 가와젓구나, 작년이. 작년이 걸으레 가완.(그 우리 물 맞았던 코는 막아 버렸더라. 이렇게 갖혀서. 나 제작년에, 작년에 가왔구나, 작년에. 작년에 걸으러 갔다 왔어.)

110023 @ 응, 막 잘 해 놔십디게예?(응, 아주 잘 해 놨지요?)

110023 # 잘허곡말곡게. 이젠 막 벤허연 뭐 의자로 막 낭 아래 그냥 막 헤노난.(잘하고말고. 이젠 아주 변해서 뭐 의자로 막 나무 아래 그냥 막 헤놔서.)

110023 @ 예, 평상이영.(예, 평상이랑.)

110023 # 그디 관광객이 가고 이제 또 외지 사름은 입장료도 받암주게. 입장료 받아, 그디 들어가면.(거기 관광객이 가고 이제 또 외지 사름은 입장료도 받고 있지. 입장료 받아, 거기 들어가면.)

110023 @ 주차료도 받던데 우리, 차 한 대에 얼마씩.(주차료도 받던데 우리, 차 한 대에 얼마씩.)

110023 # 받암실 거여. 제주 사름은 안 받고게.(받고 있을 거야. 제주 사름은 안 받고.)

110023 @ 제주 사름도 받아. 입장료 안 받고 주차료 받아.(제주 사름도 받아. 입장료 안 받고 주차료 받아.)

110023 # 아, 주차빈 받암실 거라. 입장론 안 받고. 그딘 또 가민 음료수도 막 비싸.(아, 주차료는 받고 있을 거야. 입장료는 안 받고. 거기는 또 가면 음료수도 아주 비싸.)

110023 @ 하하하. 관광지, 관광지.(하하하. 관광지, 관광지.)

110023 # 게메 비싸. 우린 가정강 먹주게.(그러면 비싸. 우린 가져가서 먹지.)

110023 @ 물 맛이민 뭐가 좋아마씨?(물 맞으면 뭐가 좋아요?)

110023 # 아, 그때는게 뭐 그뎨 말이주게. 이 더우도 깨고.(아, 그때는 뭐 그뎨 말이지. 이 더위도 깨고.)

110023 @ 응.(응.)

110023 # 이 저 오장 흐뎡 불편헌 사름도 맛이민 좋다 해 가지고.(이 저 오장 조금 불편한 사름도 맞으면 좋다 해 가지고.)

110023 @ 아.(아.)

110023 # 그 물을 맞이레 가라게 무사산디. 우리도 가왔저, 옛날에.(그 물을 맞으러 가더라 왜인지. 우리도 갔다왔어, 옛날에.)

110023 @ 예.(예.)

110023 # 가민 그디 강 천막 쳐 가지고 막 밤 자.(가면 거기 가서 천막 쳐 가지고 막 밤 자.)

110023 @ 아, 밤 자기도 해?(아, 밤 자기도 해?)

110023 # 여기서 멀주게.(여기서 멀지.)

110023 @ 아, 맞아예.(아, 맞아요.)

110023 # 가민 저 흐루 가근에 혼 삼일이나 오일까장도 사는 사름 이서. 거기서.(가면 저 하루 가서 한 삼일이나 오일까지도 사는 사름 있어. 거기서.)

110023 @ 그디서?(거기서?)

110023 # 응, 밤 자명 밥헿 먹으명.(응, 밤 자면서 밥해서 먹으면서.)

110023 @ 밥헿 먹으명.(밥 먹으면서.)

110023 # 반찬덜 막 헿 가곡. 경헿 가민 사름이 하부난 흐루 혼 사름 흐루 혼 차례가 안 돌아와, 어떤 때 사름 한 때.(반찬들 막 해서 가고. 그렇게 가면 사름이 많아서 하루 한 사름 하루 한 차례가 안 돌아와, 어떤 때 사름 많은 때.)

110023 @ 응.(응.)

110023 # 그디 들어강 물 맞는 거. 우리 간 때도 막 오래영 혼 사름씩 맞앙 왓저. 경헿난.(거기 들어가서 물 맞는 거. 우리 간 때도 막 오래서 한 사름씩 맞아서 왔어. 그렇게 했었어.)

110022 @ 모래찜질도 헷니까?(모래찜질도 헷니까?)

110022 # 모래찜질헌덴 해도 우리 아이 가완. 우리 하르방 텡겨난.(모래찜질 한다고 해도 우린 안 갔다 왔어. 우리 할아버지 다녔었어.)

110022 @ 옛날에?(옛날에?)

110022 # 이제 발에 니시무시 걸려젧 헿명 간디.(이제 발에 무좀 걸렸다고 하면서 갔는데.)

110022 @ 무신거 걸려젧?(뭐 걸렸다고?)

110022 # 니시무시.(무좀.)

110022 @ 니시무시.(무죈.)
 110022 # 응.(응.)
 110022 @ 무죈 같은 건가?(무죈 같은 건가?)
 110022 # 무죈, 무죈. 무죈이주. 니시무시는 일본말이라.(무죈, 무죈. 무죈이지. 니시무시는 일본말이라.)
 110022 @ 계난 일본말.(그러니까 일본말.)
 110022 # 응, 무죈, 무죈.(응, 무죈, 무죈.)
 110022 @ 모래뜸허민 좋넨?(모래뜸하면 좋다고?)
 110022 # 좋넨 헨에 하르방 가낫어. 젊을 때.(좋다고 해서 할아버지 갔었어. 젊을 때.)
 110022 @ 어디 갑니까?(어디 갑니까?)
 110022 # 삼양, 삼양, 삼양베끼 더 셔?(삼양, 삼양, 삼양밖에 더 있어?)
 110022 @ 함덕 강 허민 안 돼?(함덕 가서 하면 안 돼?)
 110022 # 함덕 모래는 안 돼여.(함덕 모래는 안 돼.)
 110022 @ 아, 삼양 모래라사.(아, 삼양 모래야야.)
 110022 # 응, 삼양 모래라사. 삼양 모래뜸 허는 디 이시네.(응, 삼양 모래라야. 삼양 모래뜸 하는 데 있잖아.)
 110022 @ 예, 검은 모래.(예, 검은 모래.)
 110022 # 그디 가근에 팡 드러눕곡 헨덴 해도 난 안 가보고. 안 가봤어.(거기 가서 파서 드러눕고 한다고 해도 난 안 가보고. 안 가봤어.)
 110022 @ 나도 구경만 헛수다.(나도 구경만 했습니다.)
 110022 # 그디 강 해봐. 그디 강 막 그 모래 더경 자곡.(거기 가서 해봐. 거기 가서 막 그 모래 덮어서 자고.)
 110022 @ 모래 더경 자고 맞아.(모래 덮어서 자고 맞아.)
 110022 # 경허민 이제 몸에 좋넨.(그러면 이제 몸에 좋다고.)
 110022 @ 몸에 좋넨예.(몸에 좋다고요.)

8월

110025 @ 계민 이제 팔월. 팔월 초하룻날 허는 건 벌초?(그러면 이제 팔월. 팔월 초하룻날 하는 건 벌초?)
 110025 # 벌초. 팔월 나민.(벌초. 팔월 나면.)
 110025 @ 벌초는 팔월에만 합니까? 그전엔 안 합니까?(벌초는 팔월에만 합니까? 그전에는 안 합니까?)
 110025 # 그 전엔 안 헛다근에 팔월절 들민 허여.(그 전에 안 헛다가 팔월절 들면 해.)
 110025 @ 모듬 벌초?(모듬 벌초?)
 110025 # 그냥계 모다 이 켜당덜이 모다 땡기멍 이제 웃대 큰 묘가 잇주게, 웃

대 초상. 그땐 모다 덩기멍 허고 이녁 가까운 거시긴 이녁만도 허고. 경협주게.(그냥 모여서 이 권당들이 모여 다니면서 이제 윗대 큰 묘가 있지, 윗대 조상. 그땐 모여 다니면서 하고 자기 가까운 거시기는 자기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110025 @ 모듬벌초 잇고 그냥.(모듬벌초 잇고 그냥.)

110025 # 우린 흐리에 쫓나.(우리는 하루에 끝나.)

110025 @ 흐리에 쫓나. 이젠 기계로들 허난예, 예초기로예. 옛날엔 다 낮으로 허지 안헨?(하루에 끝나. 이젠 기계로들 하나까요, 예초기로요. 옛날에는 다 낮으로 하지 않았어?)

110025 # 문중벌초엔 허영 저 모다 강 큰 산에덜은 켜당덜 막 모다 강 허고.(문중벌초라고 해서 자 모여 가서 큰 산에들은 권당들 막 모여 가서 하고.)

110025 @ 소분은 무신거?(‘소분’은 뭐?)

110025 # 벌초엔도 허고 소분이엔도 허고. 거 ㄴ쁜 말. 벌초나 소분이나.(벌초라고도 하고 ‘소분’이라고도 하고. 그거 같은 말. 벌초나 ‘소분’이나.)

110025 @ 벌초 잘 안 허는 무덤은 무신거엔 곱아?(벌초 잘 안하는 무덤은 뭐라고 말해?)

110025 # 곱충.(고충.)

110025 @ 곱충.(고충.)

110025 # 경허난 즈순을 잘 키우는 이유가 그렇지 말라고 묘도 봐서 산도 씨고 즈순을 잘 키워 옛날 전통을 이어 가는 거주게. 사름 살아가는 게. 제주도 법은.(그러니까 자손을 잘 키우는 이유가 그렇지 말라고 묘도 봐서 묘도 쓰고 자손을 잘 키워서 옛날 전통을 이어 가는 거지. 사람 살아가는 게. 제주도 법은.)

110025 @ 예.(예.)

110025 # 경허난에 육지도 높은 사름덜은 묘덜 잘헨게이. 경허고 이 제주 사름도 이제 어디 강 보라. 참 묘덜 잘해놨주.(그러니까 육지도 높은 사름들은 묘들 잘했더라. 그리고 이 제주 사름도 이제 어디 가서 보라. 참 묘들 잘 해놨지.)

110025 @ 이젠 더 잘 해놨어. 가족묘지해 가지고.(이젠 더 잘 해놨어. 가족묘지해 가지고.)

110025 # 응, 계난 케우는 것만 잘못된 거지. 제주도 법은.(응, 그러니까 태우는 것만 잘못된 거지. 제주도 법은.)

110025 @ 여자덜도 가마씨?(여자들도 가요?)

110025 # 여자덜도 많이 가주. 우린 안 가봤저마는.(여자들도 많이 가지. 우리는 안 가봤다마는.)

110025 @ 할머니네 집은 여자들은 안 가?(할머니네 집은 여자들은 안 가?)

110025 # 여자들 잘 안 가. 우린 하르방 허단에 아덜덜 허곡. 아이덜 옥으난 아이덜 허주. 여자덜은 안 가, 잘.(여자들 잘 안 가. 우린 할아버지 하다가 아들들 하고. 아이들 크니까 아이들 하지. 여자들은 안 가, 잘.)

110025 @ 뭐 무슨 벌초 안 가민 벌금도 내고 해?(뭐 무슨 벌초 안 가면 벌금

도 내고 해?)

110025 # 아니, 건 못 가는 사람 문중에 돈 내놔야지.(아니, 그건 못 가는 사람 문중에 돈 내놔야지.)

110025 @ 아, 못 가는 사람은 돈 내야 돼여?(아, 못 가는 사람은 돈 내야 돼?)

110025 # 응, 문중더래, 뭘 사가던지 뭘 돈을 내던지.(응, 문중에, 뭘 사가던지 뭘 돈을 내던지.)

110025 @ 아.(아.)

110025 # 갱 문중에 돈도 잇꼭 허여. 문중, 도문중에는. 경행 모제덜도 지내꼭 경험주게.(그렇게 해서 문중에 돈도 있고 해. 문중, 도문중에는. 그렇게 묘제들도 지내고 그렇게 하지.)

110025 @ 묘제는 언제 지내는 거?(묘제는 언제 지내는 거?)

110025 # 묘제는 이 제스를 이제 우리가 이제 츠츠츠츠 해 가당 옷대 제스를 못허거든게. 경허면 그 옷대 나시 모제 허는 거.(묘제는 이 제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차츠차츠 해 가다가 윗대 제사를 못허거든. 그러면 그 윗대 것 묘제 하는 거.)

110025 @ 응.(응.)

110025 # 건 막 권당덜 막 모영.(그건 막 권당들 막 모여서.)

110025 @ 언제쯤에 험니까, 그건?(언제쯤에 합니까, 그건?)

110025 # 것도 허는 날 다 이서 삼월 보름에도 허고.(그것도 하는 날이 다 있어. 삼월 보름에도 하고.)

110025 @ 아, 삼월달에.(아, 삼월에.)

110025 # 응, 삼월 초승에도, 시월에도 허고.(응, 삼월 초승에도, 시월에도 하고.)

110025 @ 아, 시월에도 험니까?(아, 시월에도 합니까?)

110025 # 응.(응.)

110025 @ 할머니네는 삼월에 헤마씨, 시월에 헤마씨?(할머니네는 삼월에 해요, 시월에 해요?)

110025 # 우리 삼월에 해.(우리 삼월에 해.)

110025 @ 삼월에.(삼월에.)

110025 # 겐디 우리 짐칩인 잘 안험서. 우리 친정엔 이제도 삼월들에 꼭 허여.(그런데 우리 짐칩은 잘 안하고 있어. 우리 친정엔 이제도 삼월에 꼭 해.)

110025 @ 아.(아.)

110025 # 옛날부터 우리 두린 때부터. 우린 저 도문중은 어디 저 동이서 허고.(옛날부터 우리 어린 때부터. 우린 저 도문중은 어디 저 동에서 하고.)

@ 응.(응.)

110025 # 우린 이디 경 막 옷대 산이 엇어, 이디. 지금 다 제스 지내는 산.(우린 여기 그렇게 막 윗대 묘가 없어, 여기. 지금 다 제사 지내는 산밖에.)

110026 @ 팔월달에 팔월 보름은 추석, 팔월명절?(팔월에 팔월 보름은 추석, 팔

월명절?)

110026 # 추석.(추석.)

110026 @ 팔월명절?(팔월명절?)

110026 # 추석은 거 옛날부터 쓰는 거.(추석은 그거 옛날부터 쓰는 거.)

110026 @ 옛날부터 추석이엔 해수과?(옛날부터 추석이라고 했습니까?)

110026 # 응.(응.)

110026 @ 팔월명절이엔 안 행?(팔월명절이라고 안 하고?)

110026 # 응. 추석이엔 허여.(응. 추석이라고 해.)

110026 @ 추석이엔.(추석이라고.)

110026 # 응. 추석은 왜 추석이나? 가을 추제 아니냐게, 가을 들엄다고.(응. 추석은 왜 추석이나 가을 추자 아니냐, 가을 들었다고.)

110026 @ 응.(응.)

110026 # 게서 추석이라.(그래서 추석이야.)

110026 @ 팔월명절엔 어떻 해?(팔월명절에는 어떻게 해?)

110026 # 팔월명절 어떻 해? 추석, 팔월 추석 그냥 허주.(팔월명절 어떻게 해? 추석, 팔월 추석 그냥 하지.)

110026 @ 팔월 추석에 특별하게 송편은 팔월에 해?(팔월 추석에 특별하게 송편은 팔월에 해?)

110026 # 다 ㄴ따, 다 ㄴ따.(다 같아, 다 같아.)

110026 @ 다 ㄴ따, 음식은 다 ㄴ따?(다 같아, 음식은 다 같아?)

110026 # 응, 다 ㄴ따, 음식은.(응, 다 같아, 음식은.)

110026 @ 뭐 팔월 추석에 뭐 달구경 가고 경험니까?(뭐 팔월 추석에 뭐 달구경 가고 그렇게 합니까?)

110026 # 아니, 이녁 ㅁ음이주. 달 보구경 허민 달 보고 실프민 말곡.(아니, 자기 마음이지. 달 보고 싶으면 달 보고 싶으면 말고.)

110026 @ 하하하. 무사 테레비엔 막 강강술래도 허곡 막 영허는디 옛날에 그런 거 헤난마씨?(하하하. 왜 텔레비전에 막 강강술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했었어요?)

110026 # 이디 안 헤낫저. 강강술래도 여긴 안 헤여. 그 육지덜은 막.(여기 안 했었어. 강강술래도 여긴 안 했어. 그 육지들은 막.)

110026 @ 육지덜은 헤난 거 막 나오드라고마씨.(육지들은 했던 거 막 나오더라고요.)

110027 @ 그다음에 뭐 백로, 백로에는 뭐 특별히 허는 거 이수과?(그다음에 뭐 백로, 백로에는 뭐 특별히 하는 거 있습니까?)

110027 # 팔월 백로에?(팔월 백로에?)

110027 @ 응.(응.)

110027 # 엇어.(없어.)

110027 @ 엇어.(없어.)

110027 # 팔월 백로는 어떻게 해서 백로라고 했냐면 으름 지나 가지고.(팔월 백로는 어떻게 해서 백로라고 했냐면 여름 지나 가지고.)

110027 @ 예.(예.)

110027 # 이제게 팔월이 나민 벳이 희미허지 안허냐게?(이제 팔월이 나면 별이 희미하지 않니?)

110027 @ 예.(예.)

110027 # 겨난 팔월 백로라고 경헛주 거. 경헌 뜻일 걸.(그러니까 팔월 백로라고 그렇게 했지 그거. 그런 뜻일 걸.)

110027 @ 아.(아.)

110027 # 난 한제 잘 안 베와부난 모르켜마는 경헌 뜻이라.(난 한자 잘 안 배워 버리니까 모르겠다마는 그런 뜻이야.)

9월

110028 @ 상강은?(상강은?)

110028 # 산강은 이제 산강일이 또 이서이.(상강은 이제 상강일일 또 있어.)

110028 @ 예.(예.)

110028 # 시월 나면.(시월 나면.)

110028 @ 예, 예.(예, 예.)

110028 # 계민 산강 지곡 막 얼주게, 얼어, 추워.(그러면 상강 지고 아주 춥지, 추워. 추워.)

110028 @ 예.(예.)

110028 # 밧디 곡식도 막 그냥 산강일 전이 다 으물아야 웨여.(밭에 곡식도 막 그냥 상강일 전에 다 여물어야 돼.)

110028 @ 아.(아.)

110028 # 산강을 저불민 추워 가지고 으물질 못해.(상강 저 버리면 추워 가지고 여물지 못해.)

110028 @ 여물질 못해.(여물지 못해.)

110028 # 겨난 산강일. 산강일도 들고 나고 허여. 이 입춘 모양으로.(그러니까 상강일. 상강일도 들고 나고 해. 이 입춘 모양으로.)

110028 @ 예.(예.)

110028 # 제게 드는 해, 뜨게 이제 오는 해.(빨리 드는 해, 늦게 이제 오는 해.)

110028 @ 시월달 웨근에 입동, 소설 막 이런 거 잇던데 그때는 특별히 뭐?(시월 되어서 입동, 소설 막 이런 거 잇던데 그때는 특별히 뭐?)

110028 # 흐는 거 엇고.(하는 거 없고.)

110028 @ 흐는 거 엇고예.(하는 거 없고요.)

110028 # 거 절기, 절기.(그거 절기, 절기.)

110028 @ 거난 절긴데 이때쯤에, 그때쯤에 하는 거 이신가 해근에.(그러니까 절기인데 이때쯤에, 그때쯤에 하는 거 있나 해서.)

110028 # 흐는 무신 제나 무신거 안 해여.(하는 무슨 제나 무엇 안 해.)

110028 @ 제나 하는 거 안 해도 곡식허는 디 빨리 거뒤들여야 돼거나 뭐.(제나 하는 거 안 해도 곡식하는 데 빨리 거뒤들여야 되거나 뭐.)

110028 # 그 저 산강일 넘으면 이제 곡식도 비어불주. 그루후제는 읍지 안 헌텐.(그 저 상강일 넘으면 이제 곡식도 비어버리지. 그 후에는 여물지 안 한다고.)

110028 @ 그것만 잇구나예?(그것만 잇군요?)

110028 # 응, 입동이영 넘어불민 아무것도 읍지 못해.(응, 입동이랑 넘어버리면 아무것도 여물지 못해.)

110028 @ 보리는 몇 월에?(보리는 몇 월에?)

110028 # 보리는게 이제 이때에 갈앗당 거시기 시월에 갈앗당.(보리는 이제 이때 갈앗다가 거시기 시월에 갈앗다가.)

110028 @ 시월에 갈아?(시월에 갈아?)

110028 # 응, 꺾당 또 보리도 망종이 이서, 망종. 오월에.(응, 그랬다가 또 보리도 망종이 있어, 망종. 오월에.)

110028 @ 오월에.(오월에.)

110028 # 오월이나 사월에나 입춘ㄱ짜.(오월이나 사월에나 입춘처럼.)

110028 @ 예.(예.)

110028 # 스월에 망종 드는 해, 오월 낭 드는 해 허면은 망종 넘으면 눈 곰양 비렌 허여.(사월에 망종 드는 해, 오월 나서 드는 해 하면 망종 넘으면 눈 감아서 베라고 해.)

110028 @ 보리는 망종 넘으면.(보리는 망종 넘으면.)

110028 # 눈 곰양 비렌.(눈 감아서 베라고.)

110028 @ 눈 곰양 비어?(눈 감아서 베어?)

110028 # 응, 그루후제 읍질 안헌다고, 망종 넘으면.(응, 그 후에는 여물지 않는다고. 망종 넘으면.)

110028 @ 아, 보리는.(아, 보리는.)

110028 # 경허곡 또게 ㄱ을 농사는 산강일 넘으면 읍지 안헌텐 경헤여.(그리고 또 가을 농사는 상강 넘으면 여물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

110028 @ ㄱ을 농서는 상강일 넘으면 읍지 안헌다고?(가을 농사는 상강 넘으면 여물지 않는다고?)

110028 # 응. 경허는 거주.(응. 그렇게 하는 거지.)

11월

110030 @ 동짓날은?(동짓날은?)

110030 # 동지도 거 절기게.(동지도 그거 절기.)

110030 @ 동짓날 팥죽 썬어 먹어?(동짓날 팥죽 썬어서 먹어?)
110030 # 응.(응.)
110030 @ 이디도 행 먹읍니까?(여기도 행 먹읍니까?)
110030 # 이디도 우리도 썬 먹구정 허민 먹고. 저르 시민 썬 먹고. 팥도 이서도 아이 썬 먹어.(여기도 우리도 썬어서 먹고 싶으면 먹고, 겨를 있으면 썬어서 먹고. 팥도 있어도 안 썬어서 먹어.)
110030 @ 동짓날 특별히 팥죽을 썬 먹는 이유가 이신가?(동짓날 특별히 팥죽을 썬어서 먹는 이유가 있나?)
110030 # 몰라. 이유가 잇젠 해도 원 우린 원 그런 이유도 잘 몰르고.(몰라. 이유가 있다고 해도 원 우린 원 그런 이유도 잘 모르고.)
110030 @ 예.(예.)
110030 # 요새엔 법당에 가민 팥죽 썬 먹어. 절간에.(요새엔 법당에 가면 팥죽 썬어서 먹에. 절에.)
110030 @ 예, 예.(예, 예.)
110031 @ 납평날은 뭐마씨? 납평날?(납평날은 뭐예요? 납평날.)
110031 # 남편?(남편?)
110031 @ 납평날.(납평날.)
110031 # 납평, 거 우리 이제 안 허는다.(납평, 거 우리 이제 안 하는데.)
110031 @ 응, 옛날에 해낫수과?(응, 옛날에 했었습니까?)
110031 # 납평이엔 현 날도 잇긴 이서. 그런 때 뭘 헤신고, 아무것도 안 헤서.
(납평이라고 한 날도 잇긴 있어. 그런 때 뭘 했나, 아무것도 안 했어.)
110031 @ 옛 행 먹는 날도 이수과?(옛 해서 먹는 날도 있습니까?)
110031 # 그거 납평일 거여.(그거 납평일 거야.)
110031 @ 거난, 그거지예.(그러니까, 그거지요.)
110031 # 응, 납평날.(응, 납평날.)
110031 @ 그거 음력 십일월썬인가?(그거 음력 십일월썬인가?)
110031 # 아메도 십일월 나야 옛허기가 좋주게. 으름에는 덤곡 헤저게?(아무래도 십일월 나야 옛허기가 좋지. 여름에는 덤고 할 수 있나?)
110031 @ 옛은 무슨 옛을 어떻 헤신고?(옛은 무슨 옛을 어떻게 했는지?)
110031 # 옛은게 꺾사 곁은 것ㄴ찌 감주.(옛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감주.)
110031 @ 예.(예.)
110031 # 곁 허여근에 좁쌀에 이제 서젓당 감주를 막 오래 이제 물이 다 뺏뜨도록 허민 옛이 되는 거.(옛기름 해서 좁쌀에 이제 섞었다가 감주를 막 오래 이제 물이 다 झा아들도록 하면 옛이 되는 거.)
110031 @ 끝여?(끓여?)
110031 # 응, 막 끝이민 이제 옛 돼여, 감주. 그거.(응, 막 끓이면 이제 옛 돼, 감주. 그거.)

110031 @ 오래 끌리민 옛 웬다고?(오래 끓이면 옛 된다고?)

110031 # 응.(응.)

110031 @ 그민 좁쌀로 허는 거마씨, 옛도?(그러면 좁쌀로 하는 거예요, 옛도?)

110031 # 좁쌀로도 허고, 좁쌀로도 허고.(좁쌀로도 하고, 찹쌀로도 하고.)

110031 @ 아, 좁쌀로도 허고.(아, 찹쌀로도 하고.)

110031 # 응. 골 허영.(응. 옛기름 해서.)

110031 @ 골 허는 건? 아까.(옛기름 하는 건? 아까.)

110031 # 밀, 밀 해영 내웁고 보리도 행 내웁고.(밀, 밀 해서 나오게 하고 보리도 해서 나오게 하고.)

110031 @ 보리도 행 내웁고.(보리도 해서 나오게 하고.)

110031 # 거 침 묘허여. 그거 허민 들기가 침 옛ㄴ찌 든다.(그거 참 묘해. 그거 하면 달기가 참 옛처럼 달아.)

110031 @ 거난예.(그러니까요.)

110031 # 돌아, 돌아. 우리도 옛은 자꾸 잇당 가끔 헤여.(달아, 달아. 우리도 옛은 자꾸 있다가 가끔 해.)

110031 @ 아, 가끔 헤여?(아, 가끔 해?)

110031 # 아무 때나게 그 납평날 허지 안허고 헤지는 양게, 헤지는 양.(아무 때나 그 납평날 하지 않고 헤지는 대로, 헤지는 대로.)

110031 @ 좁쌀이나 찹쌀로 허는 거라예?(좁쌀이나 찹쌀로 하는 거지요?)

110031 # 응.(응.)

110031 @ 다른 거 놔근에 뭐 무슨 꿩옛 이런 건 안해?(다른 거 놔서 뭐 무슨 꿩옛 이런 거 안 해?)

110031 # 그런 건 옛에 농구정 허민.(그런 건 옛에 넣고 싶으면.)

110031 @ 아.(아.)

110031 # 이녁이 먹구정 허민. 옛도 낱 허고 돼지고기도 낱 허고.(자기 먹고 싶으면. 옛도 놔서 하고 돼지고기도 놔서 하고.)

110031 @ 아, 돼지고기도 넣고.(아, 돼지고기도 넣고.)

110031 # 응.(응.)

110031 @ 꿩도 넣고.(꿩도 넣고.)

110031 # 꿩도 넣고, 꿩옛 험젠 허영. 득옛도 허고.(꿩도 넣고, 꿩옛 한다고 해서. 닭옛도 하고.)

110031 @ 아, 득옛도 험니까?(아, 닭옛도 합니까?)

110031 # 응, 득도 낱 허고.(응, 닭도 놔서 하고.)

110031 @ 그때 특별한 재료는 따로 들어가는 건 옛고 그냥 이거 좁쌀이나 좁쌀?(그때 특별한 재료는 따로 들어가는 건 없고 그냥 이거 찹쌀이나 좁쌀?)

110031 # 응.(응.)

110031 @ 다시 한번만 허는 거 천천히 곱아줘 봅서.(다시 한번만 하는 거 천천

히 말해주세요.)

110031 # 골허고 이제 줍쌀이나 줍쌀이나. 흐린줍쌀이 엇어? 요새에.(엇기름하고 이제 찹쌀이나 줍쌀이나. 차줍쌀이 엇어? 요새에.)

110031 @ 어떻 헤근에 헤, 솥아?(어떻게 해서 헤, 삶아?)

110031 # 밥허여근에 골에 서경.(밥해서 엇기름에 섞어서.)

110031 @ 밥허여근에 골에 서경.(밥해서 엇기름에 섞어서.)

110031 # 서경 물 놔근에 낫당.(섞어서 물 놔서 놓았다가.)

110031 @ 물도 놔?(물도 놔?)

110031 # 물 놔야주게. 물 많이 놔야주.(물 놔야지, 물 많이 놔야지.)

110031 @ 물 놔근에.(물 놔서.)

110031 # 물 낱 이제 그것이 골에 밥에 서경 놔두민 흐르르 허여, 그계.(물 놔서 이제 그것이 엇기름에 밥에 섞어서 놔두면 ‘흐르르’ 해, 그계.)

110031 @ 응.(응.)

110031 # 경허여근에 허민 이제 걸러근앵이 솥디 낱.(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걸러서 솥에 놔서.)

110031 @ 걸렁, 솥디 낱.(걸러서, 솥에 놔서.)

110031 # 막 이제 끌러 가민.(막 이제 끓여 가면.)

110031 @ 딸려?(달여?)

110031 # 응, 경허민 엇이 돼여. 쟁 쟁엇 먹구정 허민 쟁 낱 허고.(응, 그러면 엇이 돼. 그래서 쟁엇 먹고 싶으면 쟁 놔서 하고.)

110031 @ 쟁 낱 솥아?(쟁 놔서 삶아?)

110031 # 응, 쟁 낱 솥고. 득엇 먹구정 허민 득 낱 솥고, 도새기궤기 낱 먹구정 허민 궤기 놓고.(응, 쟁 놔서 삶고. 닭엇 먹고 싶으면 닭 놔서 삶고, 돼지고기 놔서 먹고 싶으면 고기 놓고.)

110031 @ 이 동네서는 주로 무신 거 하영 먹어난마씨? 무신 엇 하영 행 먹읍디 가?(이 동네서는 주로 워 많이 먹었었어요? 무슨 엇 많이 해서 먹었습니까?)

110031 # 엇허는 사름도 벨로 엇다게, 요새.(엇하는 사름도 벨로 없어, 요새.)

110031 @ 아니, 옛날에.(아니, 옛날에.)

110031 # 옛날엔 그냥 골 헤영 그냥 엇헤영 먹엇주게.(옛날에는 그냥 엇기름 해서 그냥 엇해서 먹엇지.)

110031 @ 그냥 아무것도 안 논 엇?(그냥 아무것도 안 놓은 엇?)

110031 # 응, 아무것도 안 논 엇인디 이제 약재로 우린 하수 빨리.(응, 아무것도 안 놓은 엇인데 이제 약재로 우린 하수오 뿌리.)

110031 @ 무신 빨리?(무슨 뿌리?)

110031 # 하수엔 행 그 생이족박¹⁷³⁾ 빨리가 잇저게.(하수오라고 해서 그 새박 뿌리가 있어.)

173) ‘생이족박’은 박과의 한해살이풀로 ‘새박’의 제주어다.

110031 @ 아, 생이족박.(아, 새박.)

110031 # 그것이 이제 하수라고 허여이.(그것이 이제 하수오라고 해.)

110031 @ 예.(예.)

110031 # 그 옛을 행 먹으면 이 허리나 종에 아픈 디 종넨 허여.(그 옛을 해서 먹으면 이 허리나 종아리 아픈 데 좋다고 해.)

110031 @ 아.(아.)

110031 # 갱 그거 낱 득엇허듯 그걸 낱 그거 삶아 가지고 그 물을 이제 옛에 ㄴ치 낱 감주에 ㄴ치 낱 딸리면 것이 생이족박옛이라.(그래서 그거 놔서 닭옛하듯 그걸 놔서 그거 삶아 가지고 그 물을 이제 옛에 같이 놔서 감주에 같이 놔서 달이면 그것이 새박옛이야.)

110031 @ 응.(응.)

110031 # 경도 행 먹어봐.(그렇게도 해서 먹어봤어.)

12월

110033 @ 친구간에는, 지금은 이사햄주마는 옛날에는 뭐 헤난마씨?(친구간에는, 지금은 이사하지만 옛날에는 뭐 했었어요?)

110033 # 옛날도 이스주, 무시거라.(옛날도 이사주, 뭐야.)

110033 @ 보통 이사 잘 안 가잖아, 옛날에.(보통 이사 잘 안 가잖아, 옛날에.)

110033 # 이스주, 뭐.(이사지, 뭐.)

110033 @ 이제사 뭐 친구간에 이사허주마는.(이제야 뭐 친구간에 이사하지마는.)

110033 # 아니, 옛날도 그거라. 옛날도 이스허주게, 친구간에.(아니, 옛날도 그거야. 옛날도 이사하지, 친구간에.)

110033 @ 아.(아.)

110033 # 친구간이 열흘이라이, 열흘. 그때는 이제 날, 이녀 맞인 날 봐 가지고 이제 이스를 다 허는 거주게. 이스를.(친구간이 열흘이야, 열흘. 그때는 이제 날, 자기 맞는 날 봐 가지고 이제 이사를 다 하는 거지. 이사를.)

110033 @ 집에 뭐 고치거나 이런 거 할 때도?(집에 뭐 고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110033 # 그런 것도 허고.(그런 것도 하고.)

110033 @ 친구간 때 헤마씨?(친구간 때 해요?)

110033 # 응, 친구간에. 친구간 때 허면은 무승무해라고 해서 옛날에 법이.(응, 친구간에. 친구간 때 하면은 무흥무해라고 해서 옛날에 법이.)

110033 @ 무신거엔 해서?(뭐라고 해서?)

110033 # 무승무해게, 이 탈이 었다고.(무흥무해, 이 탈이 없다고.)

110033 @ 아.(아.)

110033 # 경헨 친구간에 허는 거. 모든 거. 친구간에 주로 허여. 이 집이 뭐 문

꺾든 거 혈면 고찌는 거나, 무시거나 다. 무승무해라고.(그렇게 해서 친구간에 하는 거. 모든 거. 친구간에 주로 해. 이 집에 뭐 문 같은 거 혈면 고치는 거나, 무엇 다. 무흥무해라고.)

110034 @ 이사갈 집은 어떻 구해마씨?(이사갈 집은 어떻게 구해요?)

110034 # 이사갈 집은, 이녀 이스 가구정 허민 집을 사나 어떻 헤사 거주 무신. (이사갈 집은, 자기 이사 가고 싶으면 집을 사거나 어떻게 해야 가지, 무슨.)

110034 @ 하하하.(하하하.)

110034 # 고만이 이신 사름 이사 가느냐?(가만히 있는 사람 이사 가니?)

110034 @ 아니, 어느 짝드레 가지 말라 영 허는 것도 잊지예?(아니, 어느 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요?)

110034 # 아, 이녀 무시거 이서.(아, 자기 무엇 있어.)

110034 @ 어디 강 물어봐야 돼?(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

110034 # 응, 서쪽에 가지 말렌 현 사름, 남쪽에 가지 말렌 현 사름, 그건 이서 이.(응, 서쪽에 가지 말라고 한 사람, 남쪽에 가지 말라고 한 사람, 그건 있어.)

110034 @ 응.(응.)

110034 # 그추룩 행 뺑 가는 거주. 이제 우리가 이디 살면 이제 우리 하르방 남쪽 가지 말렌 허여.(그렇게 해서 봐서 가는 거지. 이제 우리가 여기 살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남쪽 가지 말라고 해.)

110034 @ 아.(아.)

110034 # 이레 가지 말고 동, 이제 서, 동, 북더렌 가고. 난 이제 북에 가지 말렌 허여.(이리 가지 말고 동, 이제 서, 동, 북으로는 가고. 난 이제 북에 가지 말라고 해.)

110034 @ 아.(아.)

110034 # 거 띠로 가메.(그거 띠로 가.)

110034 @ 아, 띠로.(아, 띠로.)

110034 # 응, 우리 하르방네 띠 이제 남쪽 가지 말렌 허여. 용띠도 남쪽 가지 말렌 허고. 거 잘 뺑 나두라. 는 무슨 띠?(응, 우리 할아버지네 띠는 이제 남쪽 가지 말라고 해. 용띠도 남쪽 가지 말라고 하고. 그거 잘 봐서 놔둬라. 너는 무슨 띠?)

110034 @ 도새기띠마씨.(돼지띠요.)

110034 # 도새기띠 서쪽 가지 말아야, 서쪽, 서쪽 못 가.(돼지띠 서쪽 가지 말아야, 서쪽, 서쪽 못 가.)

110034 @ 나 원래 안덕인디예 고향은예. 시집은 조천이 완.(나 원래 안덕인데요 고향은요. 시집은 조천에 왔어.)

110034 # 조천 오난 잘 왓주게.(조천 오니까 잘 왔지.)

110034 @ 하하하. 경헨에.(하하하. 그래서.)

110034 # 동더레 오난.(동으로 오니까.)

110034 @ 동더레 완. 집도.(동으로 왔어. 집도.)

110034 # 경헌디 그런 건 안 봐. 이 믱을 안네.(그런데 그런 건 안 봐. 이 마을 안애.)

110034 @ 아.(아.)

110034 # 멀리 가는 건 상관 엇고.(멀리 가는 것은 상관없고.)

110034 @ 상관엇고. 마을 안에서.(상관없고. 마을 안에서.)

110034 # 믱을 안네.(마을 안애.)

110035 @ 이사 갈 때 무신거부터 가정 가야 되는 거 이서마씨?(이사 갈 때 뭐 부터 가져 가야 되는 거 있어요?)

110035 # 무신거부터. 이사 갈 때는 저 옛날은 이제 그 집이 갈 때 올레에 강 불살라근엇이 가곡, 집 상 가민 경허여.(뭐부터. 이사 갈 때는 저 옛날은 이제 그 집에 갈 때 ‘올레’에 가서 불살라서 가고, 집 사서 가면 그렇게 해.)

110035 @ 응.(응.)

110035 # 집 상 갈 때.(집 사서 갈 때.)

110035 @ 거난 뭐 솧부터 가정가야 웬다, 뭐 불부터 가져가야, 그런 거 잇던 데.(그러니까 솧부터 가져가야 된다, 뭐 불부터 가져가야, 그런 거 잇던데.)

110035 # 응, 솧도 아정 가고, 저 성냥도 낵 강.(응, 솧도 가져가고, 저 성냥도 낵서 가서.)

110035 @ 그거부터 해야 돼?(그거부터 해야 돼?)

110035 # 그거부터 아정 간텐 허여.(그것부터 가져 간다고 해.)

110035 @ 솧허고 성냥?(솧하고 성냥?)

110035 # 응.(응.)

110035 @ 그거부터 쥬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예.(그거부터 제일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요.)

110035 # 아, 겨난이 다 이제 이 혀드레 거 다 앗다 낵 날짜 본 날은 솧을 아정 가야 웨여.(아, 그러니까 다 이제 이 자질구레한 거 다 가져다 낵서 날짜 본 날은 솧을 가져가야 돼.)

110035 @ 아. 그 날짜 본 날 가져가는 거.(아. 그 날짜 본 날 가져가는 거.)

110035 # 응, 다른 뎨 그냥 날은 이런 것들은.(응, 다른 뎨 그냥 날은 이런 것들은.)

110035 @ 아무거나 가져가도 돼고.(아무거나 가져가도 되고.)

110035 # 그냥 헛득헌 건 가져 가도 돼고게. 그날은 이제 솧을 주로게 이젠게 밥헛 먹는 거 아니가게? 겨난게.(그냥 자질구레한 건 가져 가도 되고. 그날은 이제 솧을 주로 이젠 밥해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10036 @ 이제는 집들이 이런 거 헛니께?(이제는 집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110036 # 응.(응.)

110036 @ 옛날엔 그런 거 엇어나수과?(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습니까?)

110036 # 무사 엇어게. 이스 가민게 다들 보레도 가고 집 상 갖젠 헤영 집들이가 뭐. 허주, 무사 안 허여?(왜 없어. 이사 가면 다들 보러도 가고 집 사서 갔다고 해서 집들이가 뭐. 하지, 왜 안 해?)

110037 @ 선물 같은 것도 사 가?(선물 같은 것도 사 가?)

110037 # 사 가고말고. 돈 사오주게.(사 가고말고. 모두 사오지.)

110037 @ 이제는 막 화장지여, 뭐 슈퍼타이여 이런 거 허는디 옛날은 뭐 헤난 마씨?(이제는 막 화장지다, 뭐 슈퍼타이다 이런 거 하는데 옛날은 뭐 했었어요?)

110037 # 옛날은 무시거 흘 거 셔? 흘 거 벨로 엇어. 그자 생각헌 사름 그자 침 친족 간에 돈이나 흐뎡 아사가고 쓸이라도 흐뎡 아저가고 경헛주. 요새 그치 경 흘 게 시냐? 침 흘 게 엇주.(옛날은 뭐 할 게 있어? 할 거 별로 없어. 그냥 생각한 사 람은 그냥 참 친척 간에 돈이나 조금 가져가고 쓸이라도 조금 가져가고 그랬지. 요 새처럼 그렇게 할 게 있니? 참 할 게 없지.)

110037 @ 이젠 막 답례품들도 다 테웁니께? 옛날엔 그런 거 엇일 땐 어떻 헤낫 수과?(이젠 막 답례품들도 다 나눠주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없을 땐 어떻게 했었 습니까?)

110037 # 그런 거 엇어.(그런 거 없어.)

110037 @ 옛날엔 엇어난.(옛날엔 없었어요.)

110037 # 옛날 엇어난.(옛날에 없었어요.)

110037 @ 답례품덜 다 헛니께?(답례품들 다 하잖아요?)

110037 # 게메 이젠게 답례품, 흐쓸허민 답례품. 옛날은게 무시거 줄 거 엇이민 잔치 때도 고깃 반 찻당 돼지고기.(글쎄 이젠 답례품, 조금하면 답례품. 옛날은 무 엇 줄 거 없으면 잔치 때도 고기 반기 찻다가 돼지고기.)

110037 @ 응.(응.)

110037 # 반 흐나씩 주고 그거뿐이주 뭐. 요새엔 집이서 잔치허민 꿬기 반도 안 네고 답례품도 안네주마는 옛날 줄 거 엇어부난 그냥 늑신네덜신디영 꿬깃반으로. (반 하나씩 주고 그거뿐이지 뭐. 요새는 집에서 잔치하면 고기 반기도 드리고 답례 품도 드리지만 옛날은 줄 거 없어버리니까 그냥 늑은이들에게랑 고기 반기로.)

110037 @ 응.(응.)

110037 # 반 찻당 경헛 다 헤.(반기 찻다가 그렇게 해서 다 해.)

10. 놀이

111001 @ 옛날에 어렸을 때는 결혼허기 전이, 주로 뭐 허멍 놀아난마씨?(옛날 에 어렸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 주로 뭐 하면서 놀았었어요?)

111001 # 우리 놀 때?(우리 놀 때?)

111001 @ 두린 때.(어린 때.)

111001 # 우리 놀아난 거 뭐 해주 뭐.(우리 놀았던 거 뭐 많지 뭐.)

111001 @ 뭐해?(뭐해?)

111001 # 공기도 허고, 술래잡기도 허고, 곱을락도 허고.(공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숄바꼭질도 하고.)

111001 @ 술래잡기가 곱을락 아니? 틀린 거?(술래잡기가 숄바꼭질 아니? 다른 거?)

111001 # 술래엔 허여근에 손 심영 펜 갈랑 허는 것도 이서.(술래라고 해서 손 잡고 편 나누어서 하는 것도 있어.)

111001 @ 아, 그다음 또.(아, 그다음 또.)

111001 # 그다음 공 데껴근에 허는 것덜 허고 우리 두린 때 허고 또, 고무줄 영 심영 벅줄 심어근앵이 이젠 또 툄락툄락허는 것도 허고.(그다음 공 던져서 하는 것 들 하고 우린 어린 때 하고 또, 고무줄 이렇게 잡아서 밧줄 잡아서 이젠 ‘툄락툄락’ 하는 것도 하고.)

111001 @ 건 뭐엔 곴아?(그건 뭐라고 말해?)

111001 # 것ㄴ란 우리 뭐 무시거엔 곴으멍 말멍 고무줄 내기엔 허고.(그것보고 우린 뭐 뭐라고 말하면서 말면서 고무줄 내기라고 하고.)

111001 @ 고무줄락?(고무줄 내기?)

111001 # 응, 고무줄 턄락이엔도 허여 나고.(응, 고무줄 턄기라고도 했었고.)

111001 @ 고무줄 턄락.(고무줄 턄기.)

111001 # 또 땅에 기려근앵이 땅 뿍아먹을락 허영 영 뿍아. 뿍아근에 또 허여 나고, 턄대허여근에.(또 땅에 그려서 땅 뿍아먹기 해서 이렇게 뿍어. 뿍어서 또 했었고, 목대해서.)

111001 @ 아.(아.)

111001 # 이제 아이덜은 흑교허멍 바빠노난 안 해, 그런 거. 우린 멍청허엇지. (이제 아이들은 학교 하면서 바빠서 안 해, 그런 거. 우린 멍청했었지.)

111001 @ 게문.(그러면.)

111001 # 그런 거 뿍이엔 허여서.(그런 거 뭐라고 해서.)

연

111002 @ 연날리기도 해낫주예? 연. 이것도 남자들만 허나, 여자덜은 안 해?(연 날리기도 했었지요? 연. 이것도 남자들만 허나, 여자들은 안 해?)

111002 # 남즈덜만, 남즈덜만.(남자들만, 남자들만.)

111002 @ 아.(아.)

111002 # 요새에도 어디 육짓아이 오란 연 턄와신ㄴ라 우리 옥상에 걸어진 나 저레 앳다다 주멍 헨, 연.(요새에도 어디 육지 아이 와서 연 턄웠는지 우리 옥상에 걸려서 나 저리 가져다 주면서 했어, 연.)

111002 @ 하하하.(하하하.)

111002 # 아이덜 오면 우리도 손지덜 왕 어린 때 연 띄우켄. 저디 연 설레영 다 이서.(아이들 오면 우리도 손지들 와서 어린 때 연 띄우겠다고. 저기 연 얼레랑 다 있어.)

111002 @ 설레가 영 감는 거?(얼레가 이렇게 감는 거?)

111002 # 앓아가 붙어졌나. 연도 저, 헛간에 간 내분디.(가져가 버렸나. 연도 저, 헛간에 가서 내버렸는데.)

111002 @ 아, 여기 이서?(아, 여기 있어?)

111002 # 아, 저기 잇구나.(아, 저기 잇구나.)

111002 @ 어느 거?(어느 거?)

111002 # 저거 실 감아져세. 연 설레.(저거 실 감아졌네. 연 얼레.)

111002 @ 저게 연 설레?(저게 연 얼레?)

111002 # 응. 연 저디 뜯저근에 영 허여근에.(응, 연 저기 달려서 이렇게 해서.)

111002 @ 응.(응.)

111002 # 손지덜 완 허단.(손자들 와서 하다가.)

111002 @ 저거 보고 설레엔 곱읍니까?(저거 보고 얼레라고 말합니까?)

111002 # 응, 설레, 설레, 연 설레. 갱 양쪽으로 영 심영 연 설레.(응, 얼레, 얼레, 연 얼레.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연 얼레.)

111002 @ 응, 연도 여러 종류가 이수과?(응, 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111002 # 여러 종류가 이신디 니귀반듯헌 건 그냥 연이고 풀리 뜯진 건 가골레 비연.(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모반듯한 건 그냥 연이고 꼬리 달린 건 가오리연.)

111002 @ 가골레비연?(가오리연?)

111002 # 응.(응.)

111005 @ 연싸움도 해?(연싸움도 해?)

111005 # 막 옛날은이 연 하영 띄왕.(막 옛날은 연 많이 띄워서.)

111005 @ 응.(응.)

111005 # 느 연이 잘 뜰져, 누게가 잘 뜰져 허멍 저 정월 초승 때.(너 연이 잘 뜰다, 누가 잘 뜰다 하면서 저 정월 초승 때.)

111005 @ 응, 응.(응, 응.)

111005 # 경 헤여낫저게.(그렇게 했었지.)

111005 @ 할머니도 헤난?(할머니도 했었어?)

111005 # 우리도 장난으로게.(우리도 장난으로.)

111005 @ 장난으로. 녀의 연 실도 막 끊어불고?(장난으로. 녀의 연 실도 막 끊어 버리고.)

111005 # 아니, 그 연 포 부뜨민 끈어져.(아니, 그 연 겹치면 끊어져.)

111005 @ 포 부뜨민 끈어져?(겹치면 끊어져?)

111005 # 응, 구작 연이 다 날아가면은 어떻 안허는디 연찌리 또 걸리주게.(응, 곧게 연이 다 날아가면 어떻게 안하는데 연끼리 또 걸리지.)

111005 @ 예.(예.)

111005 # 겨민 끈어지주게. 싸움이 아니고.(그러면 끊어지지. 싸움이 아니고.)

111005 @ 게른 잘 안 끈어지게 아니민 늪이 거가 더 잘 끈어지게 될 해야 돼, 연실에다가?(그러면 잘 안 끊어지게 아니면 남의 것이 더 잘 끊어지게 될 해야 돼, 연실에다가?)

111005 # 아니, 아니. 것도 아니고.(아니, 아니. 그것도 아니고.)

111005 @ 것도 아니.(그것도 아니.)

111005 # 그냥 브름 발라¹⁷⁴⁾ 영 허민 뜨민 연 잘 땀젠 허영 높이 잘 뜨면.(그냥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뜨면 연 잘 뜬다고 해서 높이 잘 뜨면.)

111005 @ 아.(아.)

111005 # 겨고 연도 그 두 가지 참. 연에게 이 태극기 모양으로 영 거뭇거뭇 도장 찍어근에 뉘들앙.(그리고 연도 그 두 가지 참. 연에 이 태극기 모양으로 이렇게 거뭇거뭇 도장 찍어서 만들어서.)

111005 @ 응.(응.)

111005 # 겨꼭 풀리 들은 건 개골레비연이엔 허꼭 경헛주게.(그리고 꼬리 달린 건 가오리연이라고 하고 그랬었지.)

111006 @ 연이 실 끈어정 날아가민 뉘엔 헛니까?(연이 실 끊어져서 날아가면 뉘라고 합니까?)

111006 # 연 방장¹⁷⁵⁾헛젠 허주게. 연 방장. 연 뛰다근에 낭에나 어디 걸리민 아이고 연 방장헛저 영 근나. 낭에 걸리나 현 거.(‘연 방장’했다고 하지. ‘연 방장’. 연 날리다가 나무에나 어디 걸리면 아니고 ‘연 방장’했다 이렇게 말해. 나무에 걸리거나 한 거.)

111006 @ 택경¹⁷⁶⁾이엔 현 말은 안헛니까?(‘택경’이라고 한 말은 안 합니까?)

111006 # 택경, 영허는 거, 무릎에 영 허주. 느리거나 연이 느려 불어. 막 땡기민.(‘택경’, 이렇게 하는 거, 무릎에 이렇게 하지. 내리거나 연이 내려 버려. 막 당기면.)

111006 # 경허민 방향을 잘 헤사 연 잘 뜨주, 브름 가는양.(그러면 방향을 잘 해야 연 잘 뜨지, 바람 가는 대로.)

111006 @ 무신거엔 곱아마씨?(무엇이라고 말해요?)

111006 # 택경, 저 연 또 어디 가근앵에 걸민 방장 걸럿젠. 아이고 연 방장헛저 영. 방장이엔도 허고. 실 끈어정 낭에 강 걸려분 거. 흐쓸허민 대추낭에 연 걸리듯 혼 말맹¹⁷⁷⁾이 엇이냐? 옛날 대추낭이 높아난 생이라. 흐쓸허민 대추낭에 연 걸리듯

174) ‘발라’는 바람이 잘 드는 쪽이라는 뜻이다.
175) ‘방장’은 좋지 못한 것을 막거나 몰아내는 징표로 하는 일이다. 여기서는 연줄이 끊어지면 그 연이 자신의 나쁜 운수를 막아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연 방장’이라고 말했다.
176) ‘택경’은 연을 올려서 힘주거나 감았다가 풀면 연이 꺼꾸러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재주부리기를 말한다. ‘택견’이라고도 한다.
177) ‘말맹’은 ‘말명, 말미’라고도 하며 무당이 기원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말씀, 격언’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경허주.('택경', 저 연 또 어디 가서 걸리면 '방장' 걸렸다고. 아이고 '연 방장'했다 이렇게. '방장'이라고도 하고. 실 끊어져서 나무에 걸려버린 거. 조금하면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한 말이 없냐? 옛날 대추나무가 높았던 모양이야. 조금하면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그렇게 하지.)

111006 @ 어떻 할 때 허는 말이짜?(어떻게 할 때 하는 말입니까?)

111006 # 그런 말맹도 잊저게.(그런 말도 있어.)

제기차기

111010 @ 제기차기 같은 것도 많이 해난마씨?(제기차기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111010 # 무시거.(뒹.)

111010 @ 제기차기.(제기차기.)

111010 # 쫘끼차기.(제기차기.)

111010 @ 쫘끼차기.(제기차기.)

111010 # 쫘끼차기. 나 못해, 잘. 것도 허긴 허여.(제기차기. 나 못해, 잘. 그것도 하긴 해.)

111010 @ 남자들이 많이 허주예, 그것도예?(남자들이 많이 하지요, 그것도요?)

111010 # 응, 것도 아이덜 신백허영¹⁷⁸⁾ 허여, 것도. 신백허영.(응, 그것도 아이들 서로 겨루면서 해, 그것도. 서로 겨루면서.

111010 @ 응. 그건 뒹.(응. 그건 뒹.)

111010 # 쫘끼차기.(제기차기.)

111008 @ 한 발로 차기, 양 발로 차기 뭐 이런 것도. 한 발로도 차고?(한 발로 차기, 양 발로 차기 뭐 이런 것도. 한 발로도 차고?)

111008 # 아니 혼 쪽 발로만, 혼 쪽 발로.(아니 한 쪽 발로만, 한 쪽 발로.)

111008 @ 아, 한 쪽 발로만.(아, 한 쪽 발로만.)

111008 # 것도 잘 차는 아인 잘 차고 못 차는 아인 못 차고.(그것도 잘 차는 아이는 잘 차고 못 차는 아이는 못 차고.)

111009 @ 하영 차민 이기는 거라?(많이 차면 이기는 거야?)

111009 # 응, 것도 하영 차민 이기는 거. 막 세명 것도.(응, 그것도 많이 차면 이기는 거. 막 세명서 그것도.)

111009 @ 숫자 세명예?(숫자 세명서요.)

111009 # 응.(응.)

자치기

111014 @ 자치기.(자치기.)

111014 # 자치기?(자치기?)

178) '신백허다'는 실력이나 힘을 겨룬다는 의미의 제주어다.

111014 @ 자치기는 그 웨, 막대기 큰 거하고 작은 거 해근에 탁해근에 탁 치는 거 이수계?(자치기는 그 왜, 막대기 큰 거하고 작은 거 해서 탁해서 탁 치는 거 있잖아요?)

111014 # 아, 데끼는 거. 거 우리 안 해난.(아, 던지는 거. 거 우리 안 했었어.)

111014 @ 아, 안 해난?(아, 안 했었어?)

111014 # 저 무신 통더레 드르는 거.(저 무슨 통에 들이미는 거.)

111014 @ 아니, 영해근에 영 이시민 탁 쳐근에 탁 치는 거 이수계?(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탁 쳐서 탁 치는 거 있잖아요?)

111014 # 그것도 셋주마는 거 안 해나고.(그것도 있었지마는 그거 안 했었고.)

111014 @ 건 안 해난?(그건 안 했었어?)

111014 # 응, 요새에 그 어디 가근에 영 데끼는 거 왕실에서 해낫젠.(응, 요새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던지는 거 왕실에서 했었대.)

111014 @ 아, 그건 투호, 건 투호. 이렇게 던지는 거. 거 말고.(아, 그건 투호, 그건 투호. 이렇게 던지는 거. 거 말고.)

111014 # 그거 왕실에서 해낫주. 민간에 안 해낫어.(그거 왕실에서 했었지. 민간에 안 했었어.)

111014 @ 거 말고게 땅 팡게 탁 치는 거 이수계, 낭떼기로. 안 해반?(그거 말고 땅 파서 탁 치는 거 있잖아요, 막대기로. 안 해봤어?)

111014 # 안 해반, 건.(안 해봤어, 그건.)

말타기

111019 @ 말타기는?(말타기는?)

111019 # 몰타기 안 해여.(말타기 안 해.)

111019 @ 몰타기 안 해?(말타기 안 해?)

111019 # 응.(응.)

111019 @ 그 웨, 영 기등에 영 상 이시민 사름덜 영 굽어 가지고 그 우티 막 달려가명 영 타는 거 이수계?(그 왜, 이렇게 기등에 이렇게 서서 있으면 사람들 이렇게 굽어 가지고 그 위에 막 달려가면서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111019 # 거 안 해여.(거 안 해.)

111019 @ 안 해?(안 해?)

111019 # 등 굽영 허는 거.(등 굽어서 하는 거.)

111019 @ 응, 등 굽영 허는 거.(응, 등 굽어서 하는 거.)

111019 # 거 잘 안 해여.(그거 잘 안 해.)

111019 @ 아, 거 잘 안 허여. 그거 말타기엔 허여?(아, 그거 잘 안 해. 그거 말타기라고 해?)

111019 # 말타기엔 허주, 말타기엔 허여.(말타기라고 하지, 말타기라고 해.)

111019 @ 몰타기엔 허여예.(말타기라고 해요.)

111019 # 남즈덜이나 허주, 여즈덜 허도 안허여.(남자들이나 하지, 여자들 하지도 않아.)

111019 @ 아, 남자들만.(아, 남자들만.)

111019 # 여즈덜 안 허여. 요새엔 남즈동권¹⁷⁹이엔 행 여즈도 흑교 가민 다 허주마는 우리 두린 땐 남즈덜만 헤난. 남자 아이덜.(여자들 안 해. 요새엔 ‘남자동권’이라고 해서 여자도 학교 가면 다 하지만 우리 어린 때 남자들만 했었어. 남자 아이들.)

111019 @ 응.(응.)

111019 # 남자 아이덜 가이생¹⁸⁰이엔 허여근에 또 모즈 영허영 꺼꾸로 씨영 허고 거 일본말, 일본말.(남자 아이들 ‘가이생’이라고 해서 또 모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써서 하고 거 일본말, 일본말.)

111019 @ 일본말.(일본말.)

111019 # 이제 저 요꼬¹⁸¹엔 허영 모즈 영 옆드레 쓰고, 거 요꼬라 옆이. 우시루¹⁸²엔 허영 뒤트레 씨곡, 두깡은 우시루라이.(이제 저 ‘요꼬’라고 해서 모자 이렇게 옆으로 쓰고, 거 ‘요꼬’야 옆이. ‘우시루’라고 해서 뒤로 쓰고. 뒤쪽은 ‘우시루’야.)

111019 @ 응.(응.)

111019 # 겨곡 앞더레 또로 영 쓴 건 그냥. 경헤낫주게. 가이생 막 잘헤낫어, 남즈덜. 짓도.(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쓴 건 그냥. 그렇게 했었지. ‘가이생’ 아주 잘했었어, 남자들. 그것도.)

111019 @ 응.(응.)

111019 # 우리 일본말 반, 조선말 반 헤난.(우리 일본말 반, 조선말 반 했었어.)

구슬치기

111027 @ 구슬치기?(구슬치기.)

111027 # 구실?(구슬)

111027 @ 응.(응.)

111027 # 구실 둥그릴락.(구슬 굴리기.)

111027 @ 아, 구실 둥그릴락.(아, 구슬 굴리기.)

111027 # 이렇게 해 가지고 영 특허게시리.(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특하게.)

111027 @ 경행 어드레 들어가게?(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111027 # 고망더레. 구녁치기¹⁸³라고 해서.(구명에, ‘구녁치기’라고 해서.)

111027 @ 구녁치기.(‘구녁치기’.)

179) ‘남즈동권’은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남녀동권’, ‘남녀평등권’을 잘못 말한 것 같다.

180) ‘가이센(がいせん)’은 일본어로 전투, 싸움의 의미로 남자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가리킨다.

181) ‘요꼬(よこ)’는 ‘옆’이라는 뜻의 일본어다.

182) ‘우시루’는 일본어 ‘우시로(うしろ)’를 잘못 발음한 것으로 ‘뒤’라는 뜻이다.

183) ‘구녁치기’는 아이들이 동전이나 둥그란 사금파리를 구명에 던져 넣어 내기를 하는 놀이다.

111027 # 응.(응.)

111027 @ 이건 구녕치기구나?(이건 ‘구녕치기’구나?)

111027 # 응, 구녕치기. 이 손으로 영행 도록허게 둥그리민 그 고망더레 들어가야 돼. 거 구녕치기.(응, 구녕치기. 이 손으로 이렇게 도르륵하고 굴리면 그 구멍에 들어가야 돼. 거 ‘구녕치기’.)

111021 @ 아, 혹시 구슬치기도 여러 종류가 이수과? 영해근에 영 털어치는 것도 이수과?(아, 혹시 구슬치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도 있잖아요?)

111021 # 응.(응.)

111021 @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영 그림 영 그림 삼각형 그려 가지고 하거나 하는 거 엇고 그냥 구멍에 집어넣는 거베피 엇어?(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려서 삼각형 그려 가지고 하거나 하는 거 없고 그냥 구멍에 집어넣는 거밖에 없어?)

111021 # 응, 거 구녕치기.(응, 그거 ‘구녕치기’.)

딱지치기

111030 # 빠찌치기도 허고.(딱지치기도 하고.)

111030 @ 아, 빠찌치긴 어떻게 해?(아, 딱지치기는 어떻게 해?)

111028 # 빠찌를 멘들아, 종지로 허영.(딱지를 만들어, 종지로 해서.)

111028 @ 종지로. 응.(종지로. 응.)

111030 # 우리 셋아덜 잘해낫저. 빠찌치기 영행 탁허민 이제 그 빠찢 데싸.(우리 둘째아들 잘했었어. 딱지치기 이렇게 해서 탁하면 이제 그 딱지 뒤집어.)

111030 @ 응.(응.)

111030 # 늑의 걸. 데쓰민 이제 돈 내긴디 단추를 막 하영 행 단추 먹어. 단추 하나, 두 개.(남의 걸. 뒤집으면 이제 돈 내긴데 단추를 막 많이 해서 단추 먹어. 단추 하나, 두 개.)

111030 @ 하하하.(하하하.)

111030 # 우리 셋아덜 최고 해낫저. 그거.(우리 둘째아들 최고 했었어. 그거.)

111030 @ 셋아덜?(둘째아들?)

111030 # 응, 빠찌치기도 잘허곡, 화투치기도 잘허주마는. 이제 안 허여.(응, 딱지치기도 잘하고, 화투치기도 잘하지만. 이제 안 해.)

111030 @ 하하하.(하하하.)

111030 # 단추 늑의 아이, 하도 잘해부난이 늑의 아이 우리 아이 저 세 번에 혼 번 경해낫어. 하도 잘해부난 그 빠찌치기도.(단추 남의 아이, 하도 잘해버리니까 남의 아이 우리 아이 저 세 번에 한 번 그렇게 했었어. 하도 잘해 버리니까 그 딱지치기도.)

111031 @ 할머니네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해난마씨?(할머니네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했었어요?)

111031 # 우리 빠찌치기 안 해놨어. 아니 남즈덜은 헛주마는 우린 건 안 해나고.(우리 딱지치기 안 했었어. 아니 남자들은 했지만 우린 그건 안 했었고.)

111031 @ 여자들은 잘 안 해난예?(여자들은 잘 안 했었어요?)

111031 # 우리 아이덜 클 때 빠찌치기 잘허연게. 경해난.(우리 아이들 클 때 딱지치기 잘했었어. 그렇게 했었어.)

숨바꼭질

111032 @ 숨바꼭질, 옛날은 곱을락 아니?(숨바꼭질, 옛날은 ‘곱을락’ 아니?)

111032 # 응, 곱을락.(응, 숨바꼭질.)

111032 @ 곱을락할 땐 어떻 행은에 험니까?(숨바꼭질할 땐 어떻게 해서 합니까?)

111032 # 어떻 행 허여? 눈 곱으렌 허영 다 곱양 좇곡 헛주게.(어떻게 해서 해? 눈 감으라고 해서 다 숨어서 찾고 했지.)

111033 @ 저 술래는 뭐엔 굴아? 그냥 술래엔 굴아?(저 술래는 뭐라고 말해? 그냥 술래라고 말해?)

111032 # 응.(응.)

111032 @ 술래는 어떻 정해마씨? 처음에 시작할 때.(술래는 어떻게 정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111033 # 처음에 시작할 때도 펜 갈라근앵이 저 곱을락ㄴ추룩.(처음에 시작할 때도 펜 갈라서 저 숨바꼭질처럼.)

111033 @ 아니, 술래가 한 명 아니?(아니, 술래가 한 명 아니?)

111033 # 응, 술래잡기엔 헤영.(응, 술래잡기라고 해서.)

111033 @ 곱을락할 때 다 곱고 혼 사름이 좇읍니께, 그 좇는 사름은 무신거엔 굴아?(숨바꼭질할 때 다 숨고 한 사람이 찾잖아요, 그 찾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

111033 # 좇는 사름ㄴ라 뵈이엔 헤져신지 모르크라.(찾는 사람보고 뭐라고 했었는지 모르겠어.)

111033 @ 게문 그 좇는 사름 어떻 정해? 너가 좇아, 영허젠 허민.(그러면 그 찾는 사람 어떻게 정해? 네가 찾아, 이렇게 하려고 하면.)

111033 # 장겼보¹⁸⁴헤연 헤실 거여.(가위바위보해서 했을 거야.)

111033 @ 아, 장겼보헤근예. 젼 진 사름?(아, 가위바위보해서. 제일 진 사람?)

111033 # 진 사름이 이제 좇일락 헤실 거라.(진 사람이 이제 찾기 했을 거야.)

111033 @ 응.(응.)

111033 # 이긴 사름은 다 곱아 불고.(이긴 사람은 다 숨어 버리고.)

111033 @ 이긴 사름은 다 곱아 불고.(이긴 사람은 다 숨어 버리고.)

184) ‘장겼보(じゃんけんぽん)’는 ‘가위바위보’의 일본어다.

111033 # 응, 경헛주게.(응, 그렇게 했지.)

111033 @ 계민 멧 개까지 세근에 좃이레 가?(그러면 멧 개까지 세서 좃으러 가?)

111033 # 응, 갱 다 좃이민 이제 다 좃앗젠.(응, 그렇게 다 좃으면 이제 다 좃앗다고.)

111033 @ 못 좃이민?(못 좃으면?)

111033 # 못 좃이민 좃아야주.(못 좃으면 좃아야지.)

111033 @ 다 좃이민 다른 아이가 술래가 돼?(다 좃으면 다른 아이가 술래가 돼?)

111033 # 아니, 따시 장겜보헛 또 허고.(아니, 다시 가위바위보해서 또 하고.)

111033 @ 아, 다시 또 장겜보헤근에.(아, 다시 또 가위바위보해서.)

111033 # 경혜사 일이 웰 거 아니가? 경혜난.(그렇게 일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했었어.)

111034 @ 주로 어디 숨어마씨?(주로 어디 숨어요?)

111034 # 아무 디라도 이넉 곱구정헌 냥이주, 것사. 어디 곱을 디가 셔?(아무 데라도 자기 숨고 싶은 대로이지, 그거야. 어디 숨을 데가 있어?)

111034 @ 계난 곱을 디 엇이난 어디 강 곱아?(그러니까 숨을 데 없으니까 어디 가서 숨어?)

111034 # 아무 디라도 강게.(아무 데라도 가서.)

111035 @ 혹시 어렸을 때 곱을락헤난 재미난 일은 엇어났수과?(혹시 어렸을 때 숨바꼭질했던 재미있는 일은 없었습니까?)

111035 # 엇어, 그자 경헛 놀앗주.(없어, 그냥 그렇게 놀았지.)

실뜨기

111040 @ 실뜨기. 이렇게 손에 영헛 실 허는 거 이수게?(실뜨기.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해서 실 하는 거 있잖아요?)

111040 # 아, 거 데쓸락.(아, 거 뒤집기.)

111040 @ 데쓸락?(뒤집기?)

111040 # 응, 실 헤영 영 데쓸락.(응, 실 해서 이렇게 뒤집기.)

111040 @ 실 영 끼우고 영 끼우고.(실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끼우고.)

111040 # 응.(응.)

111040 @ 그다음 뭐 영헤근에 허는 거 이수게?(그다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111040 # 데쓸락 그거.(뒤집기 그거.)

111040 @ 나가 영 허민 할머니가 또 영헤근에 허는 거 이수게?(내가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111040 # 데싸.(뒤집어.)

111040 @ 아.(아.)

111040 # 영 손에 허민 우리가 데쓰는 거라. 둘리가 영.(이렇게 손에 하면 우리가 뒤집는 거야. 둘이가 이렇게.)

111040 @ 데쓸락이엔 해?(뒤집기라고 해?)

111040 # 거 데쓸락.(거 뒤집기.)

111037 @ 보통 실뜨기할 때는 어느 손가락을 많이 써마씨?(보통 실뜨기할 때는 어느 손가락을 많이 써요?)

111037 # 그냥 영. 영허영 실을 이디 허거든. 거민 이제 데쓰면 것도이 데싸 가민 가운데 다 모다져.(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을 여기 하거든. 그러면 이제 뒤집는 것도 뒤집어 가면 가운데 다 모여.)

111037 @ 응.(응.)

111037 # 모다져.(모여.)

111040 @ 이거 실이라. 게문 할머니, 게문 어떻 행 해?(이거 실이야. 그러면 할머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

111040 # 이거 실인디 니귀반듯허게 이걸 허여.(이거 실인데 네모반듯하게 이걸 해.)

111040 @ 응.(응.)

111040 # 이거 실로 허컬게.(이거 실로 할걸.)

111040 @ 실로 허카?(실로 할까?)

111040 # 데쓸락 그거 데쓸락.(뒤집기 그거 뒤집기.)

111040 @ 이거 데쓸락?(이거 뒤집기?)

111040 # 꿀안 보난 말도 하다이.(말하고 보니 말도 많다.)

111040 @ 계난 아직도 꿀 게 해서.(그러니까 아직도 말할 게 많아.)

111040 # 아이고, 나 이제도이 잇당 가끔 현 옷도 잇다근에 걸려매곡 허난 저 미싱 돌리지 못허연. 요새도 저영 더껀 내불언.(아이고, 나 이제도 잇다가 가끔 현 옷도 잇다가 걸려매고 하니까 저 재봉틀 돌리지 못했어. 요새도 저렇게 덮어서 내버렸어.)

111040 @ 그만 품서게, 얼마나 길게 허젠?(그만 푸세요, 얼마나 길게 하려고?)

111040 # 데쓸락도 해난디 이제 잊어불언. 무시거 허민 무시거여마는.(뒤집기도 했었는데 이젠 잊어버렸어. 뭐 하면 뭐다마는.)

111040 @ 무시거 허민 무시거 이름도 이서?(뭐 하면 뭐 이름도 있어?)

111040 # 이름도 잊지. 거 데쌍 애기구덕도 멘들곡.(이름도 잊지. 그거 뒤집어서 애기구덕도 만들고.)

111040 @ 애기구덕도 멘들고.(애기구덕도 만들고.)

111040 # 비차락도 멘들고.(빗자루도 만들고.)

111040 @ 아.(아.)

111040 # 데싸가민 경 벤허여. 이렇게 해 가지고 데싸.(뒤집어 가면 그렇게 변

해. 이렇게 해 가지고 뒤집어.)

111040 @ 데싸? 나가 해야 돼. 나가 어떻 해?(뒤집어? 내가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

111040 # 영 영 허라, 나가 데쓰저.(이렇게 이렇게 해라, 내가 뒤집지.)

111040 @ 하하하.(하하하.)

111040 # 영 데싸신가? 거 잊어 붙어졌저. 두 불 헛나?(이렇게 뒤집었나? 그거 잊어버렸다, 두 벌 했나?)

111040 @ 우린 영혜나신디.(우린 이렇게 했었는데.)

111040 # 아, 맞아, 맞아.(아, 맞아, 맞아.)

111040 @ 우린 영 혜났어.(우린 이렇게 했었어.)

111040 # 이렇게 데싸. 영 영.(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이렇게.)

111040 @ 데싸.(뒤집어.)

111040 # 또 데싸.(또 뒤집어.)

111040 @ 아이고 이상하게 댜.(아이고 이상하게 댜어.)

111040 # 데쓰는 거. 데쓸락은 알암신게게.(뒤집는 거. 뒤집기는 알고 있네.)

111040 @ 이걸 데쓸락이엔 허는 거예?(이건 뒤집기라고 하는 거예요?)

111040 # 응.(응.)

111040 @ 이것도 이름이 잇다고?(이것도 이름이 잇다고?)

111040 # 응, 데쓸락이라, 이거.(응, 뒤집기야, 이거.)

111040 @ 아이고, 므작져 붙언.(아이고, 매듭져 버렸어.)

111040 # 므작져 붙엇구나.(매듭져 버렸구나.)

111040 # 경허당이 이게 다 데싸가민 애기구덕이엔도 허고 또 가운데가 톡 모 두민 비치락 뵈젠.(그러다가 이게 다 뒤집어가면 애기구덕이라고도 하고 또 가운데가 톡 모으면 빗자루 뵈다고.)

111040 @ 아, 비치락 뵈젠.(아, 빗자루 뵈다고.)

111040 # 응, 경허는 거라. 다 데싸가민 뵈어.(응, 그렇게 하는 거야. 다 뒤집어가면 돼.)

111037 @ 손가락, 요 손가락을 무슨 손가락이렌 헤마씨?(손가락, 요 손가락을 무슨 손가락이라고 해요?)

111037 # 상손가락.(가운데손가락.)

111037 @ 상손가락? 이거는?(가운데손가락? 이거는?)

111037 # 건 엄지.(건 엄지.)

111037 @ 이거는?(이거는?)

111037 # 그건 뵈엔 허크니, 새끼손가락, 중손가락.(그건 뵈라고 하겠니, 새끼손가락, 약손가락.)

111037 @ 중손가락?(약손가락.)

111037 # 이거, 이거.(이거, 이거.)

111037 @ 요거 중손가락. 약지가?(요거 약손가락. 약지가?)

111037 # 응. 요건 족은손가락. 엄지, 족은손가락, 상손가락.(응. 요건 집게 손가락. 엄지, 집게손가락, 가운데손가락.)

111037 @ 두번째가 족은손가락?(두번째가 ‘족은손가락’?)

111037 # 어, 요거, 요거. 엄지손가락, 족은손가락, 상손가락, 중손가락, 새끼손가락. 그거주게.(어, 요거, 요거.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 그거지.)

111037 @ 상손가락, 중손가락, 새끼손가락.(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

111037 # 이것ㄴ란 일본말로 약 불리는 거엔 구스리유비¹⁸⁵엔 해난.(이것보고 일본말로 약 바르는 거라고 ‘구스리유비’라고 했었어.)

111037 @ 응.(응.)

111037 # 이건 고유비¹⁸⁶.(이건 ‘고유비’.)

111037 @ 아니, 제주도 말로.(아니, 제주도 말로.)

111037 # 게메 겨난 경 곤는 거.(그러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111037 @ 응.(응.)

111037 # 경헝 데쓰는 거주게, 영.(그렇게 해서 뒤집는 거지, 이렇게.)

111037 @ 겨난. 영 데쓰민.(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111037 # 이것도 잘 이렇게 질렁 영 데쓰는 거라. 영.(이것도 잘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뒤집는 거야. 이렇게.)

111037 @ 경 데쓰민.(그렇게 뒤집으면.)

111037 # 또로 데싸. 경허민 또 이렇게 데쌌실 걸. 영, 풀어졌네.(또 뒤집어.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뒤집을 걸. 이렇게 풀어졌네.)

111037 @ 에에, 풀어져 불었네.(에에, 풀어져 버렸네.)

111037 # 영 데싸낫저게. 경허민 가운데가 모도룩허게¹⁸⁷ 모도아지는데.(이렇게 뒤집었었어. 그러면 가운데가 ‘모도룩’하게 모아지는데.)

111037 @ 모도룩허게 모다지만 비차락이고.(‘모도룩’하게 모아지면 빗자루고.)

111037 # 응.(응.)

111038 # 엄지손가락하고 이 두 개를 곤는 말이 이수가?(엄지손가락하고 이 두 개를 말하는 말이 있습니까?)

111038 # 두 개? 엄지손가락 이것ㄴ라 뭐엔 허지, 잊어버렸어. 족은손가락이엔 해실 거여.(두 개? 엄지손가락 이것보고 뭐라고 하지, 잊어버렸어. 집게손가락이라고 했을 거야.)

111038 @ 이게 그냥 족은손가락?(이게 그냥 집게손가락?)

111038 # 응.(응.)

185) ‘구스리유비(くすりゆび)’는 일본어로 약지를 뜻한다.

186) ‘고유비(こゆび)’는 일본어로 새끼손가락이라는 뜻이다.

187) ‘모도룩허다’은 한군데 모아져 있다는 의미이다.

111039 @ 이거 실뜨기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영 뭐해?(이게 실뜨기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뭐해?)

111039 # 아니.(아니.)

111039 @ 아까 헐 때 새끼손가락으로 영 해수게?(아까 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111039 # 아, 데쓸락헐 때?(아, 뒤집기할 때?)

111039 @ 응. 이걸 무신거?(응. 이거 뭐?)

111039 # 새끼손가락계.(새끼손가락.)

111039 @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건 뭐엔 골아?(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건 뭐라고 말해?)

111039 # 뭐라, 데쓸락이주게.(뭐라, 뒤집기지.)

111039 @ 데쓸락이주.(뒤집기지.)

111039 # 거 무시거 다시. 실 허연 허는 거.(그거 뭐 다시. 실 해서 하는 거.)

111039 @ 실뜨기할 때 새끼손가락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실뜨기할 때 새끼손가락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111039 # 어떤 기능 엇어.(어떤 기능 없어.)

111039 @ 어떤 일해?(어떤 일해?)

111039 # 안 해여. 그런 거 몰라, 나.(안 해. 그런 거 몰라, 나.)

111038 @ 이 손가락 두 개를 엄지손가락하고 이거 아까 두 개가 무슨 손가락?(이 손가락 두 개를 엄지손가락하고 이거 아까 두 개가 무슨 손가락?)

111038 # 작은손가락.(집게손가락.)

111038 @ 작은손가락. 두 개를 같이 부르는 말 엇어마씨?(집게손가락. 두 개를 같이 부르는 말 없어요?)

111038 # 엇어, 엇어.(없어, 없어.)

111038 @ 아까 그 데쓸락할 때는 실 데쓸락 아니고 그냥 데쓸락예?(아까 그 뒤집기할 때는 실 뒤집기 아니고 그냥 뒤집기요?)

111038 # 응. 데쓸락.(응, 뒤집기.)

111037 @ 데쓸락헐 때는 보통 어느 손가락이 필요해?(뒤집기할 때는 보통 어느 손가락이 필요해?)

111037 # 손가락이 무신 필요가 셔? 엄지로 영.(손가락이 무슨 필요가 있어? 엄지로 이렇게.)

111037 @ 엄지하고 검지?(엄지하고 검지?)

111037 # 응.(응.)

111037 @ 엄지하고 작은손가락?(엄지하고 집게손가락?)

111037 # 응. 이걸로 보통 데싸야주게.(응. 이걸로 보통 뒤집어야지.)

111037 @ 이걸로 보통 영 데쓰고, 영 데쓰고예.(이걸로 보통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고요.)

111040 # 경 데싸가민 이제 그 우린 애기구덕이엔도 허고 그 데쓰면.(그렇게 뒤집어 가면 이제 그 우린 야기구덕이라고도 하고 그 뒤집으면.)

111040 @ 응, 응.(응, 응.)

111040 # 비차락이엔, 모다지민 비차락이엔 헤난디. 구녁치기.(빗자루라고, 모이면 빗자루라고 했었는데. ‘구녁치기’.)

111040 @ 구녁치기.(‘구녁치기’.)

111040 # 빠찌치기.(딱지치기.)

111040 @ 빠찌치기.(딱지치기.)

111040 # 응, 아이덜 주로 장난이 그거주.(응, 아이들 주로 장난이 그거지.)

공기놀이

111042 @ 공기도 헤낫주예?(공기도 했었지요?)

111042 # 응, 공긴 막 하영 헤나고.(응, 공기는 아주 많이 했었고.)

111042 @ 공기도 완전 잘헤난?(공기도 완전 잘했었어.)

111042 # 공기도이 영허영 초담허는 건 웨살.(공기도 이렇게 해서 처음하는 건 ‘웨살’.)

111042 @ 웨살?(웨살?)

111042 # 응, 이젠 또 그건 웨찍, 웨찍.(응, 이젠 또 그건 ‘웨찍, 웨찍’.)

111042 @ 웨찍.(‘웨찍’.)

111042 # 웨찍으로 시작허영 헤 가당 또 마갈땅값허여근영이 다섯 개 다 허영 두 개 튼 건 두 배록. 혼 번만 튼 건 웨 배록, 경허영 두 배록 트민 혼 찍이 올라가는 거라. 올라가.(‘웨찍’으로 시작해서 헤 가다가 ‘마갈땅값’해서 다섯 개 다 해서 두 개 튼 건 두 ‘배록’. 한 번만 튼 건 외 ‘배록’. 그렇게 해서 두 ‘배록’ 트면 ‘한 찍’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111042 @ 두 배록 트는 게 어떻 허는 거?(두 ‘배록’ 트는 게 어떻게 하는 거?)

111042 # 영 공깃돌 두 개게.(이렇게 공깃돌 두 개.)

111042 @ 응.(응.)

111042 # 두 개를 탁 띄왕 영 받아.(두 개를 탁 띄워서 이렇게 받아.)

111042 @ 위에 띄왕 받아?(위에 띄워서 받아?)

111042 # 받아.(받아.)

111042 @ 거문.(그러면.)

111042 # 영 허영 다 현 건 마갈땅값이엔 헤영.(이렇게 해서 다 한 건 ‘마갈땅값’이라고 해서.)

111042 @ 막을따갑?(‘막을따갑’?)

111042 # 땅값.(‘땅값’.)

111042 @ 막을땅값?(‘막을땅값’?)

111042 # 마갈, 마갈.(‘마갈, 마갈’.)

111042 @ 마갈땅값.(‘마갈땅값’.)

111042 # 경허연 헤나고.(그렇게 해서 했었고.)

111042 @ 마갈땅값은 흔꺼번에 영 다 영 잡는 거?(‘마갈땅값’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잡는 거?)

111042 # 응, 영 허영 영 다 잡는 거.(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잡는 거.)

111042 @ 그게 마갈땅값이고.(그게 ‘마갈땅값’이고.)

111042 # 응.(응.)

111042 @ 영 던져근에 잡아?(이렇게 던져서 잡아?)

111042 # 두 개 띄운 건 두 베풀.(두 개 띄운 건 두 ‘베풀’.)

111042 @ 두 베풀?(두 ‘베풀’?)

111042 # 두 개 영허영 탁허영 받은 건 두 베풀.(두 개 이렇게 탁해서 받은 건 ‘두 베풀’.)

111042 @ 응.(응.)

111042 # 흥나만 현 건 웨 베풀.(하나만 한 건 웨 ‘베풀’.)

111042 @ 웨 베풀. 경현 다음에.(웨 ‘베풀’. 그런 다음에.)

111042 # 공기가 몇 번인 중 알았다? 초담혈 때 웨쪽으로 헤가당 이젠.(공기가 몇 번인 줄 알아? 처음할 때 ‘웨쪽’으로 헤가다가 이젠.)

111042 @ 응.(응.)

111042 # 영 솟 앓지는 거¹⁸⁸ 니 짝. 니 짝 땅값, 웨살.(이렇게 솔 거는 거 ‘네 짝’. ‘네 짝 땅값’, ‘웨살’.)

111042 @ 응.(응.)

111042 # 또 얘기 나는 건 영 흥나허영 탁허영 흥나 툭 털어지왕 또 허곡.(또 야기 낳는 건 이렇게 하나해서 툭해서 하나 툭 떨어뜨려서 또 하고.)

111042 @ 하하하.(하하하.)

111042 # 경허영 이젠 다 헤영 마갈땅값허영 세 깎 헤여사 다 이긴 거라.(그렇게 해서 이젠 다 해서 ‘마갈땅값’해서 세 개를 해야 다 이긴 거야.)

111042 @ 아니, 우린 혈 때.(아니, 우린 할 때.)

111042 # 공기혈 때.(공기할 때.)

111042 @ 우린 혈 때 처음엔 하나씩 잡고 그다음 두 개씩 잡고 영 허는디 할머니넌 어떻 헤낫다고?(우린 할 땐 처음엔 하나씩 잡고 그다음 두 개씩 잡고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네는 어떻게 했었다고?)

111042 # 우리도 경헌디.(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111042 @ 응.(응.)

111042 # 이젠 두 개씩 잡은 건 웨 짝으로 헤여 강 그다음은 웨 살.(이젠 두 개씩 잡은 건 ‘웨 짝’으로 해서 가서 그다음은 ‘웨 살’.)

111042 @ 웨살은 어떻 허는 거?(‘웨 살’은 어떻게 하는 거?)

188) ‘솟 앓지는 거’는 공기놀이에서 공깃돌 세 알 위에 한 알을 올려놓는 것으로 솔 걸기라고 한다.

111042 # 이제 그건 영허영 우터레 데경, 데경 받는 거.(이제 그건 이렇게 해서 위로 던져, 던져서 받는 거.)

111042 @ 아, 영행 영 받는 건 웨 살.(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는 건 ‘웨 살’.)

111042 # 응.(응.)

111042 @ 응.(응.)

111042 # 영혜영 츠레츠레 해가는 건 웨 짝으로 해 강.(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해가는 건 ‘웨 짝’으로 해 가서.)

111042 @ 영 영허는 건 웨 짝.(이렇게 하는 건 ‘웨 짝’.)

111042 # 응, 또로 헐 땀 웨 살은 이제 툃툃 데경 받는 거.(응, 또 할 땀 ‘웨 살’은 이제 툃툃 던져서 받는 거.)

111042 @ 응.(응.)

111042 # 또 말짜엔 이젠 훅 데경 하나 털어지워.(또 나중엔 이젠 훅 던져 하나 떨어뜨려.)

111042 @ 응, 털어치워.(응, 떨어뜨려.)

111042 # 건 애기 나는 거.(그건 아기 낳는 거.)

111042 @ 애기 나는 거. 하하하.(아기 낳는 거. 하하하.)

111042 # 경허영 이젠 또 허고 또 솟덕 앓져이.(그렇게 해서 이젠 또 하고 또 솔 걸어.)

111042 @ 예, 솟덕 앓지는 건 위에 올려 놓는 거?(예, 솟 거는 건 위에 올려 놓는 거?)

111042 # 네 개 영 모되냥 하나 툃 앓져.(네 개 이렇게 모여 놓고 하나 툃 안 쳐.)

111042 @ 아, 영행 툃 앓져. 그게 솟덕 앓지는 거.(아, 이렇게 해서 툃 걸어. 그 개 솔 거는 거.)

111042 # 툃 앓정 이제 그걸 탁 반앙 이젠 영행 마갈땅값을 탁 허민 건 마갈땅값.(툃 걸어서 이제 그걸 탁 받아서 이젠 이렇게 해서 ‘마갈땅값’을 탁 하면 그건 ‘마갈땅값’.)

111042 @ 막을땅값?(‘막을땅값’?)

111042 # 응, 경허민 이제 이기는 거라, 다.(응, 그러면 이제 이기는 거야, 다.)

111042 @ 이디 손 위엔 안 올려?(여기 손 위엔 안 올려?)

111042 # 무사 안 올려?(왜 안 올려?)

111042 @ 건 무신거엔 굴아?(그건 뭐라고 말해?)

111042 # 이것도 영행 꺾음세기¹⁸⁹.(이것도 이렇게 해서 꺾기.)

111042 @ 꺾음세기.(꺾기.)

111042 # 응, 영행 탁혜영 탁 받고.(응, 이렇게 해서 탁해서 탁 받고.)

189) ‘꺾음세기’는 다섯 알을 위로 던져 두 알 이상 손등으로 받은 다음 다시 위로 올려서 손바닥으로 잡는 ‘꺾기’를 말한다.

111042 @ 영 탁 던정 탁 받고예.(이렇게 탁 던져서 탁 받고요.)

111042 # 응.(응.)

111042 @ 이걸 꺾음세기엔, 꺾음세기?(이걸 꺾기라고, 꺾기?)

111042 # 응, 경혜영 공기도 네, 세 가지로구나, 세 가지. 걸 다 해서 이긴 거라. 다 해서 이겨.(응, 그렇게 해서 공기도 네, 세 가지로구나, 세 가지. 그걸 다 해야 이긴 거야. 다 해야 이겨.)

111042 @ 응.(응.)

111042 # 숯 맞지는 거ㄱ장.(술 거는 거까지.)

111042 @ 공깃돌을 가정 왕 헤보렌 해야크라.(공깃돌을 가져와서 해보라고 해야겠어.)

111042 # 공기가 막 최고 잘해났저마는 이제 오래여 부난.(공기가 아주 최고로 잘했었지마는 이제 오래되어 버리니까.)

111042 @ 공기 다섯 개로 험니까?(공기 다섯 개로 합니까?)

111042 # 응, 다섯 개로.(응, 다섯 개로.)

111041 @ 공깃돌이엔 험니까? 돌은?(공깃돌이라고 합니까? 돌은?)

111041 # 공깃돌. 자갈 봉가당 다 단장허여근에.(공깃돌. 자갈 주위다가 다 단장 해서.)

111041 @ 영 영 못앙?(이렇게 이렇게 마서.)

111041 # 요새엔 공깃돌도 나왔주마는 못사근엔에 공깃돌이 이서.(요새에는 공깃돌도 나왔지마는 마서 공깃돌이 있어.)

111041 @ 응.(응.)

111041 # 우리 잘해난.(우리 잘했었어.)

111041 @ 잘해났일 거 님아. 할머니 그런 거.(잘했었을 것 같아. 할머니 그런 거.)

111041 # 것도 잘해났저마는 이제 잊어부런. 오래세게, 흔 십오 세 전이 해난 건디.(그것도 잘했었다마는 이제 잊어버렸어. 오래됐잖아, 한 십오 세 전에 했던 건 데.)

111042 @ 할머니, 영 뿌려마씨? 아니민 영행 뿌려마씨?(할머니, 이렇게 뿌려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뿌려요?)

111042 # 공기 험 때?(공기할 때.)

111042 @ 응.(응.)

111042 # 웨 짝은 영행 툃툃툃 받주게. 받앙 또로 그 땅값을 해야주. 다 받앙. 다섯 개 다 허면 탁 허영 영 받고. 경혜 낱 또.(‘웨 짝’은 이렇게 해서 툃툃툃 받지. 받아서 또 그 땅값을 해야지. 다 받아서. 다섯 개 다 하면 탁 해서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해 놔서 또.)

111042 @ 다섯 개 다 잡으민 한 번 탁 던정 영 받아?(다섯 개 다 잡으면 한 번 탁 던져서 이렇게 받아?)

111042 # 다섯 개 다. 다섯 개 다행 영 받아야 돼여.(다섯 개 다. 다섯 개 다해서 이렇게 받아야 돼.)

111042 @ 다섯 개 다 던져?(다섯 개 다 던져?)

111042 # 던져사주게.(던져야지.)

111042 @ 다섯 개 다 던졌당 다 받아야 돼.(다섯 개 다 던졌다가 다 받아야 돼.)

111042 # 경허당도 다 못 받는 사람이 하지.(그러다가도 다 못 받는 사람이 많지.)

111042 @ 계난 못 받으민.(그러니까 못 받으면.)

111042 # 다섯 개 다 못 받았. 계민 진 거라. 새로 해야 돼여, 것도.(다섯 개 다 못 받아서. 그러면 진 거야. 새로 해야 돼, 그것도.)

111042 @ 보통 두 사람이 험니까? 공기는?(보통 두 사람이 험니까? 공기는?)

111042 # 두 사람도 허고 세 사람도 허고 건 험엇고.(두 사람도 하고 세 사람도 하고 그건 험없고.)

111042 @ 이 공기로 직접 한번 공기 해봅서.(이 공기로 직접 한번 공기 해보세요.)

111042 # 아 공기, 공기는 초담 이추록 나란히 논 건 영 헤영 하나씩 영 좁은 거는 웨 짝이라, 이건 웨 짝. 영허영. 이거 두 배록 티우민 하나가 올라가는 거라이. 두 배록을 이것가 이것도 티우기가 어루와.(아 공기, 공기는 처음 이렇게 나란히 논 건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좁는 거는 ‘웨 짝’, 이건 ‘웨 짝’. 이렇게 해서 이거 두 ‘배록’ 띄우면 하나가 올라가는 거야. 두 ‘배록’을 이것이 이것도 띄우기가 어려워.)

111042 @ 하나 올리기도 허고 두 개 올리기도 허는 거.(하나 올리기고 하고 두 개 올리기도 하는 거.)

111042 # 경허난 이렇게 헤 가지고 웨 짝험 때 두 배록을 티우민 하나가 올라강 이젠 이거 두 짝을 험 건디 시 짝을 올라가는 거라.(그러니까 이렇게 헤 가지고 ‘웨 짝’할 때 ‘두 배록’을 띄우면 하나가 올라 가서 이젠 이거 ‘두 짝’을 할 건데 ‘시 짝’을 올라가는 거야.)

111042 @ 아.(아.)

111042 # 경헤영 허영 이젠 곳사 나 두 배록 티와세이. 계난 이제 ‘시 짝’을 허는 거라. 영험 하나베끼 못 티우민 니짝을 허는 거라. 니짝은이 아래 낵 안헤여. 이제 이걸 또 마갈이라.(그렇게 해서 해서 이젠 아까 나 두 ‘배록’ 띄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 짝’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밖에 못 띄우면 ‘니 짝’을 하는 거야. ‘니 짝’은 아래 낵서 안 해. 이제 이걸 또 ‘마갈’이라.)

111042 @ 흙치 다섯 개 다 던정 잡는 게 마갈.(함께 다섯 개 다 던져서 잡는 게 ‘마갈’.)

111042 # 응, 이것도 영허영 현 건 마갈이고이. 영 현 건 마갈땅값 이건.(응, 이

것도 이렇게 해서 한 건 ‘마갈’이고. 이렇게 한 건 ‘마갈땅값’ 이건.)

111042 @ 마갈땅값은 뭐?(‘마갈땅값’은 뭐?)

111042 # 이거 마갈이엔도 허고 땅값이엔도 현다.(이거 ‘마갈’이라고도 하고 ‘땅값’이라고도 한다.)

111042 @ 똑같은 거?(똑같은 거?)

111042 # 두 가질 거라. 경행 이제 올라가는 거라, 츠츠츠츠.(두 가지일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차츠차츠.)

111042 @ 솟덕은 안 앓져?(술은 안 걸어?)

111042 # 솟덕은 또 멀어서.(봇돌은 또 멀어서.)

111042 @ 멀어서?(멀어서?)

111042 # 영행 이제 이걸 왜 살이라. 문딱 데경 다 받는 거.(이렇게 이제 이걸 ‘왜 살’이야. 모두 던져서 다 받는 거.)

111042 @ 그다음엔. 세 개 다 던져서 하나 잡아?(그다음엔. 세 개 다 던져서 하나 잡아?)

111042 # 하나씩 초담은 영허여.(하나씩 처음은 이렇게 해.)

111042 @ 그게 왜 살?(그게 ‘왜 살’?)

111042 # 이걸 왜 살. 이제 또로 두 살 허영 이제 세 살 영행 올라가는 거라. 네 개 할 땐 이렇게 허는 거라, 영.(이건 ‘왜 살’. 이제 또 ‘두 살’ 해서 이제 ‘세 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네 개 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111042 @ 그거 마갈 아니?(그거 ‘마갈’ 아니?)

111042 # 땅값은 자꾸 허는 거? 못끝 때. 네 짝허민 솟 앓지는 거라.(땅값은 자꾸 하는 거? 매듭지을 때. ‘네 짝’하면 솟 앓는 거야.)

111042 @ 건 어떻 허는 거라?(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111042 # 이걸 또로 영 헤영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놔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걸 이젠 영 요렇게 앓져, 위로 툭허게.(이건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놔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걸 이젠 이렇게 요렇게 걸어, 위로 툭허게.)

111042 @ 경행.(그렇게 해서.)

111042 # 경헤영 영 심영 땅값허영 경헤사 못끄는 거주게.(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땅값’해서 그렇게 해야 매듭짓는 거지.)

111042 @ 손등에 올리는 건 무신거엔 곱아?(손등에 올리는 건 뭐라고 말해?)

111042 # 그것이 마갈이고, 마갈땅값. 경만 곱아났지, 알아지크라? 잊어불영. 땅값일 거라. 이것ㄴ라 무신거엔 헤신고 모르키여, 잊어불언.(그것이 마갈이고, ‘마갈땅값’. 그렇게만 말했었지, 알 수 있겠어? 잊어버렸어.)

111042 @ 응.(응.)

111042 # 경허명 이걸이 막 허여난. 어린 때 장난으로. 경헌디 으덥 솔, 아홉 솔, 열 솔, 혼 일곱 솔 ㄴ리에 이거 장난을 허단.(그러면서 이걸 막 했었어. 어릴 때 장난으로. 그런데 여덟 살, 아홉 살, 열 살, 한 일곱 살 사이에 이거 장난을 하다가)

111042 @ 응.(응.)

111042 # 열흔 술, 열두 술은 나난 막 김질메레, 존 김질메레, 어른덜이영 ㄱ찌, 막 그냥 일만 허렌 허영이 밧디 안 가민 아이 웨여.(열한 살, 열두 살은 나니까 막 김매러, 잔 김매러, 어른들이랑 같이, 막 그냥 일만 하라고 해서 밧에 안 가면 안 돼.)

111042 @ 응.(응.)

111042 # ‘땅값’일 거야. 이것보고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잊어버렸어.(‘땅값’일 거야. 이것보고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고누

111048 @ 할머니 고누도 해낫수과?(할머니 고누도 했었습니까?)

111048 # 고누 들어보지 안 헛는다. 고누가 뭐라?(고누 들어보지 안 했는데. 고누가 뭐야?)

111048 @ 이거 안 봐낫수과? 땅에 그렇 영 말이 가는 거.(이거 안 봤었습니까? 땅에 그러서 이렇게 말이 가는 거.)

111048 # 아이 봐낫저, 이거.(안 봤었어, 이거.)

땅뺨기

111050 @ 땅 뺨아 먹을락은 어떻 허는 거?(땅뺨기는 어떻게 하는 거?)

111050 # 땅 뺨아 먹을락은 이추룩 뺨앙, 영 뺨아근앵이, 것도 쟁검보해근에 문 여 이긴 사름이 먼저 허여이. 경허민 이제 뺨아근앵이.(땅뺨기는 이렇게 뺨어서, 이렇게 뺨어서, 그것도 가위바위보해서 먼저 이긴 사람이 먼저 해. 그러면 이제 뺨어서.)

111050 @ 뭇 뺨아?(뭇 뺨어?)

111050 # 땅을 이추룩 뺨앙, 흔 뺨씩.(땅을 이렇게 뺨어, 한 뺨씩.)

111050 @ 손으로?(손으로?)

111050 # 응.(응.)

111050 @ 영행?(이렇게 해서?)

111050 # 경도 헤난 것ㄱ라 거 잊어부런, 이름. 경도 헤난. 공기, 옷놀이 그런 거.(그렇게도 헛던 것보고 그거 잊어버렸어, 이름. 그렇게도 헛었어. 공기, 옷놀이 그런 거.)

111051 @ 땅 어떻 뺨는 거라? 늬의 건 어떻 뺨아?(땅 어떻게 뺨는 거야? 남의 것은 어떻게 뺨어?)

111050 # 응?(응?)

111050 @ 땅 뺨아 먹을락은 늬의 것도 나 걸로 만드는 거?(땅뺨기는 남의 것도 내 걸로 만드는 거?)

111051 # 응.(응.)

111050 @ 어떻게?(어떻게 해서?)

111050 # 뺨아가다근에 컷다리도 남곡 허민 막 그디 뺨아오곡 경. 널르게 기서냥.(뺨어가다가 귀통이도 남고 하면 막 거기 뺨어오고 그렇게. 넓게 그려 놔서.)

111050 @ 응, 널르게 기서냥.(응, 넓게 그려 놔서.)

111050 # 것ㄴ라 나라방이엔 헤신가? 일본말로. 헤낫저마는 이젠 잊어부런. 장난 거리가 잘도 하낫주게.(그것보고 ‘나라방’이라고 했었나? 일본말로. 했었다마는 이젠 잊어버렸어. 장난 거리가 아주 많았었지.)

웃놀이

111058 @ 웃놀이도?(웃놀이도?)

111058 # 웃놀이도 허주게.(웃놀이도 하지.)

111058 @ 이건 녀동배기?(이건 녀동내기?)

111058 # 녀동배기는 남즈덜 돈내기 허는 거.(녀동내기는 남자들 돈내기하는 거.)

111058 @ 응.(응.)

111058 # 그냥 우리 웃놀이.(그냥 우리 웃놀이.)

111056 @ 웃이 크기도 틀려?(웃이 크기도 달라?)

111056 # 크는 건 장난 웃게. 큰 거.(큰 건 장난 웃. 큰 거.)

111056 @ 응.(응.)

111056 # 노인정에도 큰 웃 이시네. 막 큰 거.(노인정에서도 큰 웃 있잖아. 아주 큰 거.)

111056 @ 그런 거 안 써?(그런 거 안 써?)

111056 # 그런 거 안 써. 녀동배기허는 거. 존 거. 존 거. 걸로도 쓰주마는 존 거 웃가락 멘들아근엔에 종지에 담아근엔에.(그런 거 안 써. 녀동내기하는 거. 잔 거, 잔 거. 그걸로도 쓰지마는 잔 거 웃가락 만들어서 종지에 담아서.)

111056 @ 응.(응.)

111056 # 우리 하르방은 녀동배기 하도 잘부난 이 쓰봉이 멧 개 이 동무릅 그 차져 비엇저게.(우리 할아버지는 녀동내기 하도 잘해서 이 바지가 멧 개 이 무릎 헤어져 버렸어.)

111056 @ 영허멍 허젠 헤부난.(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111056 # 화툰 안 해도 녀동배긴 일등이라낫저게. 그냥 어디 큰일칩이도 가민 잔치집이도 가민 녀동배기.(화투는 안 해도 녀동내기는 일등이었어. 그냥 어디 큰일집에도 가민 잔치집에도 가민 녀동내기.)

111056 @ 응.(응.)

111056 # 덕석 폐왕. 요자기 덕석도 우리 족은아덜 벗 오란 하나 가져가 불언. 하나 쥐불언. 재미로 시엿사름.(명석 퍼서. 요전에도 명석도 우리 막내아들 벗 와서 하나 가져가 버렸어. 하나 쥐버렸어. 재미로 시의 사람.)

111056 @ 무사 가져가 불언? 우리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왜 가져가 버렸어? 우리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111056 # 이제도 이서, 명석.(이제도 있어, 명석.)

111056 @ 날 좋은 날은 사진도 찍게예.(날 좋은 날은 사진도 찍어요.)

111056 # 하나 쥐불언. 그 시에 사름덜 재미로 녀동배기 놀켤 헨.(하나 쥐 버렸어. 그 시의 사람들 재미로 녀동내기 하겠다고 해서.)

111056 @ 아.(아.)

111056 # 이디 놀레 왔단. 조그만헌 거 존 건디 건 아저가 불어선게. 막 오란 녀동배기 놀멍, 놀단. 우리 하르방네 젊은 땀이 이 거리에도 모영 허고 이디 또 노인당에 모인 때도 녀동배기 주로 논다게.(여기 놀러 왔다가. 조그마한 거 좋은 건데 그건 가져가 버렸어. 막 와서 녀동내기 하면서, 하다가. 우리 할아버지네 젊은 땀이 거리에도 모여서 하고 여기 또 노인당에 모인 때도 녀동내기 주로 한다.)

111056 @ 응.(응.)

111056 # 겨난 이제 하르방 늠어부난 험주, 젊은 땀 막 좋아해.(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늠어버리니까 하지, 젊은 땀 아주 좋아해.)

111054 @ 나무는 무슨 나무로 만들어?(나무는 무슨 나무로 만들어?)

111054 # 옷?(옷?)

111054 @ 응.(응.)

111054 # 옷은게, 옛날은 윤누리 해당 깨주마는 아무 거라도 다 돼여.(옷은, 옛날은 윤노리 해다가 쪼개지마는 아무 거라도 다 돼.)

111054 @ 윤누리?(윤노리?)

111054 # 옷낭. 윤누리가 이서. 윤누리낭 질긴 낭.(옷나무. 윤노리가 있어. 윤노리나무가 질긴 나무.)

111054 @ 응.(응.)

111054 # 윤누리낭이 막 질겨. 계민 그거 해다근에 멘글양 놔두민 언제까지정이라도 가주게.(윤노리나무가 아주 질겨. 그러면 그거 해다가 만들어서 놔두면 언제까지라도 가지.)

111055 @ 이건 뭐엔 곶아? 그릇은? 담아근에 영 던질 거 아니파?(이건 뭐라고 말해? 그릇은? 담아서 이렇게 던질 거 아녘니까?)

111055 # 종지, 종지.(종지, 종지.)

111055 @ 무신 걸로 뵈 거?(뵈로 뵈 거?)

111055 # 무시거게 사기 종지게.(뵈 사기 종지지.)

111055 @ 사기 종지로 해?(사기 종지로 해?)

111055 # 우리 종지도 하난디 그 종지도 문 녀동배기 놀멍 다. 그 종지 구허지 못헿 우리 거 막 앓아가낫저게.(우리 종지도 많았었는데 그 종지도 모두 녀동내기 하면서 다. 그 종지 구하지 못해서 우리 거 막 가져갔었어.)

111055 @ 요기 영 그럽니께, 옷놀이헿 때?(요기 이렇게 그리잖아요, 옷놀이할

때?)

111055 # 응, 그러. 이제 토 허민 쥘 죽은 거.(응, 그러. 이제 도 하면 쥘 작은 거.)

111055 @ 응.(응.)

111055 # 걸 허민 흐쫄 큰 거.(걸 하면 조금 큰 거.)

111055 @ 순서대로 알아봅서. 토 그다음.(순서대로 말해보세요. 도 그다음.)

111055 # 토, 케.(도, 개.)

111055 @ 케.(개.)

111055 # 걸.(걸.)

111055 @ 걸.(걸.)

111055 # 백숫.(웃.)

11105 @ 백숫?(웃?)

111055 # 백숫은 네 개 다 갈라진 거.(웃은 네 개 다 자빠진 거.)

111055 @ 아.(아.)

111055 # 문 또 니 개 다 엮어진 거.(모는 또 네 개 다 엮어진 거.)

111055 @ 응.(응.)

111057 # 모가 일등이라. 모 나민 잠지 탁 치명 잘 낫젠 허곡.(모가 일등이야. 모 나오면 볼기 탁 치면서 잘 나왔다고 하고.)

111057 @ 잠지 탁 치명 잘 뻬젠.(볼기 탁 치면서 잘 뻬다고.)

111057 # 잘 뻬젠.(잘 뻬다고.)

111057 @ 아까 뉘 백숫?(아까 뉘 웃?)

111057 # 백숫은이 네 개 다 갈라진 거.(웃은 네 개 다 자빠진 거.)

111056 @ 웃놀이는 그 저 뉘 할 때 잔칫날 허는 그거베끼 엮인가, 다른 종류 웃놀인 엮인가?(웃놀이는 그 저 뉘 할 때 잔칫날 하는 그거밖에 없나, 다른 종류 웃놀이는 없나?)

111056 # 무사 엮어게? 어디 놀 데도 이 노인당에서 놀 때도 남즈덜 모영 어머니날 ㄱ쁜 날.(왜 없어? 어디 놀 데도 이 노인당에서 놀 때도 남자들 모여서 어머니날 같은 날.)

111056 @ 계난 옛날에도 그런 거 이서낫수과?(계난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습니까?)

111056 # 옛날부터 녁동배기는.(옛날부터 녁동내기는.)

111056 @ 녁동배기추룩 종지에 안 담양 허는 지금 막 허는 거처럼은 안 해?(냁동내기처럼 종지에 안 담아서 하는 지금 막 하는 것처럼은 안 해?)

111056 # 또이 올라가는 게 있어. 난 거 몰 디릴 충 몰라.(또 올라가는 게 있어. 난 거 말 쓸 줄 몰라.)

111056 @ 응.(응.)

111056 # 뉘을 디려. 숫허민 이제 토 허민 쥘 죽은 거.(말을 써. 웃하면 이제 도

하면 제일 작은 거.)

111056 @ 응.(응.)

111056 # 또 케 허민 흐끔 올라가고 걸 허민 올라가꼭 허멍 모 허민 아주 일등 이긴 거라.(또 개 하면 조금 올라가고 걸 하면 올라가고 하면서 모 하면 아주 일등 이긴 거야.)

111057 @ 이디 놓는 건 뭐엔 글아?(여기 놓는 건 뭐라고 말해?)

111057 # 뭇 디리는 거.(말 쓰는 거.)

111056 @ 뭇.(말.)

111056 # 응.(응.)

111056 @ 뭇을 이레 탁 놔?(말을 이리 탁 놔?)

111056 # 아니, 이제. 종이에다가 써, 써.(아니, 이제. 종이에다가 써, 써.)

111057 @ 탁 던정 모 똤잖아. 게민 요걸로 이레 영영 갑니께, 요거 무신거 요 거?(탁 던져서 모가 되잖아. 그러면 요걸로 이리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요거 무엇 요거?)

111057 # 모게.(모.)

111057 @ 말? 돌맹이?(말? 돌맹이?)

111057 # 아니, 아니. 뭇은 기렁.(아니, 아니. 말은 그러서.)

111056 @ 뭇 기렁.(말 그러서.)

111056 # 아, 그 돌맹이 허영 츄츄츄 놔 가.(아, 그 돌맹이 해서 차차차차 놔 가.)

111057 @ 그 돌맹이 이름은 뭐?(그 돌맹이 이름은 뭐?)

111057 # 거 무신거 아니 건 패적이주, 건. 패적.(그거 무엇 아니 그건 표적이 지, 그건. 표적.)

111057 @ 패적 그냥?(표적 그냥?)

111057 # 응, 패적.(응, 표적.)

111057 @ 흐나씩 가다근에 개가 두 개 나오민 영 부짱 ㄴ치 갑니께. 건 무신거 엔 글아?(하나씩 가다가 개가 두 개 나오면 이렇게 붙여서 같이 가잖아요. 그건 무엇이라고 말해?)

111057 # 몰라. 뭇 올라감지 것도, 츄츄츄츄.(몰라. 말 올라가지 그것도, 차츄츄츄.)

111057 @ 두 개 ㄴ찌 갑니께? 거 따로 굳는 말 엇고?(두 개 같이 가잖습니까? 그거 따로 하는 말 없고?)

111057 # 따로 굳는 말 엇어. 케 두 번베핀.(따로 하는 말 없어. 개 두 번밖에.)

111057 @ 케 두 번베핀.(개 두 번밖에.)

111057 # 케 두 번 허민 두 개 낚실 거라.(개 두 번 하면 두 개 놓고 있을 거야.)

111058 @ 윗놀이도 보통 남자들이 많이 헛지예?(윗놀이도 보통 남자들이 많이

했지요?)

111058 # 많이 허여. 윗놀이도. 남즈덜 많이 허여.(많이 해. 윗놀이도. 남자들 많이 해.)

111058 @ 잔치날예?(잔치날요?)

111058 # 응. 잔치 넘어나민이 그냥 옛날 담배 피와 노민 우리 집이 밤새낭 잔치 아섯날 막 먹영 술도 그냥 멧 상자 앓당 놔두민 막 먹곡 담배 막 피와놓민 뒷날 아침은 새백이 일어난 청소해사. 담배꽁추.(응. 잔치 지나면 그냥 옛날 담배 피워 놓으면 우리 집에 밤새도록 잔치 전날 막 먹어서 술도 그냥 멧 상자 가져다 놔두면 막 먹고 담배 막 피워놓으면 뒷날 아침은 새백에 일어나서 청소해야. 담배꽁초.)

111058 @ 밤새낭 윗 놀안?(밤새도록 윗놀이 했어?)

111058 # 응. 고기도 그냥 낱 내불민 안주로 아시멍덜 짓먹영. 우리도 잔치 으섯번 헛저. 집이서.(응. 고기도 그냥 놔서 내버리면 안주로 가지면서 짓먹어서. 우리도 잔치 여섯번 했어. 집에서)

111058 @ 응.(응.)

111058 # 저 죽은아덜만 식당에 간 젤 문여 우리가 식당에 간 허고 셋딸만 서울서 해연.(저 막내아들만 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식당에 가서 하고 둘째딸만 서울서 했어.)

111058 @ 갱 여섯번은 다 집이서?(그래서 여섯번은 다 집에서?)

111058 # 응, 집이서. 두부허고이 그뻬 약밥허고, 돼지 잡고.(응, 집에서. 두부하고 그뻬 약밥하고, 돼지 잡고.)

111058 @ 맞아, 옛날은 약밥들을 꼭 해낫어.(맞아, 옛날은 약밥들을 꼭 했었어.)

111058 # 약밥, 찰떡. 멧 가질 헤여.(약밥, 찰떡. 멧 가지를 해.)

111058 @ 찰떡은 뭐 모찌?(찰떡은 뭐 찹쌀떡.)

111058 # 응(응.)

팽이치기

111065 @ 팽이치기나.(팽이치기나.)

111065 # 팽인게 도레기 돌리는 거주게.(팽인 팽이 돌리는 거지.)

111065 @ 도레기 돌리는 거.(팽이 돌리는 거.)

111065 # 응.(응.)

111065 @ 그거 무신거엔 굳는 거 엇어마씨?(그거 뭐라고 말하는 거 없어요?)

111065 # 엇어. 헤나도 경 잘 못헤.(없어. 했어도 그렇게 잘 못헤.)

111065 @ 주로 남자들이예?(주로 남자들이요?)

111065 # 아이덜 막 그것도 잘허주게. 도레기가 이제 옛날은 낭으로 멘들앙 허여이.(아이들 막 그것도 잘하지. 팽이가 이제 옛날은 나무로 만들어서 해.)

111065 @ 응.(응.)

111065 # 경헌디 이제 팽이도 풀암실겘.(그런데 이제 팽이도 팔고 있을겘.)

111065 @ 예, 다 풀지.(예, 다 팔지.)

111065 # 게.(그렇지.)

111065 @ 이거 팽이를 도레기엔 해?(이거 팽이를 ‘도레기’라고 해?)

111065 # 응, 도레기.(응, ‘도레기’.)

111063 @ 영 치는 건 뭐엔 글아?(이렇게 치는 건 뭐라고 말해?)

111063 # 도레기채.(팽이채.)

111063 @ 도레기채.(팽이채.)

111063 # 도레기채로 착착 해가민 그 도레기도 잘 돌당 꺼져볼주게.(팽이채로 착착 해가면 그 팽이도 잘 돌다가 꺼져 버리지.)

111061 @ 도레기 무신 낭으로 주로 멘들아마씨?(팽인 무슨 나무로 주로 만드어요?)

111061 # 아무 낭이라도 돼여, 거.(아무 나무라도 돼, 그거.)

111061 @ 응.(응.)

111061 # 가장 것도 멘들아사 돼여.(깎아서 그것도 만들어 돼.)

111060 @ 도레기 종류도 여러 가지 이신가?(팽이 종류도 여러 가지 있나?)

111060 # 엇어.(없어.)

111060 @ 엇어. 똑ㄱ테?(없어. 똑같아?)

111060 # 응.(응.)

111064 @ 다른 아이영 두 개 부딪쳐근에 오래 도는 게 이기고 이렇게 시합도 해?(다른 아이랑 두 개 부딪쳐서 오래 도는 게 이기고 이렇게 시합도 해?)

111064 # 시합도 허주게. 도레기 돌릴락.(시합도 하지. 팽이 돌리기.)

111064 @ 도레기 돌릴락?(팽이 돌리기?)

111064 # 응, 돌릴락 허민 그것도 탁탁 채로 치민 이제 막 오래 도는 거 잇고 꺼져 부는 거 잇주게.(응, 돌리기 하면 그것도 탁탁 채로 치면 이제 막 오래 도는 거 잇고 꺼져 버리는 거 잇지.)

111064 @ 그문 오래 도는 게 이기는 거?(그러면 오래 도는 게 이기는 거?)

111064 # 이기는 거주게. 오재미도 영행 테끼다근에 두 개 탁 잡양 영 해영 또 허곡. 나완게 그 오재민 이제도 텔레비에도.(이기는 거지. 오자미도 이렇게 해서 던져서 두 개 탁 잡아서 이렇게 해서 또 하고. 나오더라 그 오자민 이제도 텔레비전에도.)

111062 @ 팽이를 잘 돌게 할려면 어떻게야 돼?(팽이를 잘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11062 # 어떻게는 어떻. 채를 잘 쳐야주.(어떻게는 어떻게. 채를 잘 쳐야지.)

111062 @ 난 잘 안 돼더라고.(난 잘 안 되더라고.)

111062 # 겨난 건 못허는 거주게.(그러니까 그건 못하는 거지.)

111062 @ 팽이 영 돌려근에 탁 던정 돌리던데.(팽이 이렇게 돌려서 탁 던져서 돌리던데.)

111062 # 아니 채에 끈 어샤게?(아니 채에 끈 없니?)

111062 @ 예.(예.)

111062 # 팽팽 감양 삭 풀면은 이제 탁탁 재게 쳐야 잘 들주게.(팽팽 감아서 삭 풀면 이제 탁탁 재게 쳐야 잘 들지.)

111062 @ 어.(어.)

111062 # 그냥 세우면 그게 어떻 헐 말이라게?(그냥 세우면 그게 어떻게 할 말 이냐?)

111062 @ 그냥 세우면 안 돌아가지.(그냥 세우면 안 돌아가지.)

111062 # 도레기에 그 채 감양 끈을 감아 가지고 삭 풀면 이제 그게 돌아강 탁 탁 치민 들주게. 것도 기술이 좋아사 돼여.(팽이에 그 채 감아서 끈을 감아 가지고 삭 풀면 이제 그게 돌아가서 탁탁 치면 들지. 그것도 기술이 좋아야 돼.)

111062 @ 계난예.(그러니까요.)

111062 # 것도. 것도 기술이 좋아사. 도레기 돌리는 것도.(그것도. 그것도 기술 이 좋아야. 팽이 돌리는 것도.)

깡통차기

111069 @ 통차기 이런 것도 해난, 깡통차기?(통차기 이런 것도 했었어, 깡통차 기?)

111069 # 깡통?(깡통?)

111069 @ 그런 건 안 해판?(그런 건 안 해봤어?)

111069 # 안 해판.(안 해봤어.)

빨기치기

111072 @ 뽕이치기?(빨기치기?)

111072 # 뽕이치긴 뽕이 빠단.(빨기 치기는 빨기 빠다가.)

111073 @ 뽕이 빠단 어떻 허는 거?(빨기 빠다가 어떻게 하는 거?)

111073 # 뽕이 빠단이 이젠 영허여근에 이젠 영허민 이제 뽕이 탁 놓민 밧이 영 니귀반듯허게 밧이 나와. 뽕이 코짱허게¹⁹⁰⁾ 허영 그 밧되 디물아. 경허민 이제 수정 멧 개 세여, 밧되 들어간 거. 밧 크게 허민 하영 따는 거라.(빨기 빠다가 이젠 이렇게 해서 이젠 이렇게 하면 이제 빨기 탁 놓으면 밧이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밧 이 나와. 빨기 ‘코짱’하게 해서 그 밧에 들어 밀어. 그러면 이제 숫자 몇 개 세어, 밧에 들어간 거. 밧 크게 하면 많이 따는 거야.)

111073 @ 밧은 어떻 만들어? 네 개로 허여?(밭은 어떻게 만들어? 네 개로 해?)

111073 # 멧 개 뭐 요라 개 심영 탁 데끼민. 뽕이치기도 해난, 뽕이 빠단.(멧 개 뭐 여러 개 잡아서 탁 던지면. 빨기치기도 했었어, 빨기 빠다가.)

111073 @ 뽕이 여러 개 잡양 탁 던정?(빨기 여러 개 잡아서 탁 던져서?)

190) ‘코짱허다’는 길이나 크기 따위가 가지런하고 고르다는 뜻이다.

111073 # 응, 영 데끼민 요디 밧이 뒤여이.(응, 이렇게 던지면 요기 밧이 되어.)

111073 @ 하영 들어가민 이기는 거?(많이 들어가면 이기는 거?)

111073 # 응, 하영 들어가민 하영 따고. 겨민 이제 남은 사름이.(응, 많이 들어가면 많이 따고. 그러면 이제 남은 사름이.)

111073 @ 이거 뺑이민.(이거 뺑기면.)

111073 #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허민 이거 밧 아이 땡다. 이렇게 허영 요렇게 허민 밧 땡 거 아니가? 요추룩 요렇게 허영. 뺑이를 이제 이디 영 즈근즈근 해영 꼭 찢러. 영행 즈아근에 뺑이가 영허면 그 수정 이제 다른 아이가 주는 거라. 뺑이가 하영 따민 그냥 혼 못. 겨민 뺑이치기 허레 가젠 뺑이 빠레 가.(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밧이 안 땡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밧 땡 거 아니냐? 요렇게 요렇게 해서. 뺑기를 이제 여기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꼭 찢러. 이렇게 잡아서 뺑기가 이렇게 하면 그 숫자 이제 다른 아이가 주는 거야. 뺑기가 많이 따면 그냥 한 못. 그러면 뺑이치기 하러 가려고 뺑기 빠러 가.)

111073 @ 먹는 게 아니고?(먹는 게 아니고?)

111073 # 먹음도 허여, 먹주게. 경헌디 이제 새왓이 시냐? 이 옛날은 새 디려근에 집도 일곡 허민 새왓도 보디어, 이디도이. 경허민 강 뺑이 빠레 가, 아이덜이 막. 신을 신어시냐? 맨발에. 두린 때. 맨발에 가는 아이가 하. 경행 이제 빠당 뺑이치길 허는 거라이, 놀멍. 뺑이치길 허민 밧이 땡면 이젠 경허민 뺑일 이제 하영 심영 세민 이젠 그 수정에.(먹기도 해, 먹지. 그런데 이제 띠밭이 있니? 이 옛날은 띠 들어서 집도 이고 하려면 띠밭도 가까워, 여기도. 그러면 가서 뺑기 빠러 가, 아이들이 막. 신을 신었니? 맨발에. 어릴 때. 맨발에 가는 아이가 많아. 그렇게 해서 이제 빠다가 뺑이치기를 하는 거야, 놀면서. 뺑이치길 하면 밧이 되면 이젠 그렇게 하면 뺑길 이제 많이 잡아서 세면 이젠 그 숫자에.)

111073 @ 스무 개 허민 스무 개 다 줘야 땡?(스무 개 하면 스무 개 다 줘야 돼?)

111073 # 어, 스무 개 허민 스무 개 다 주고, 열 개 허민 열 개 다 주고 경허민 딴 사름은 뺑이가 혼나눔.(응, 스무 개 하면 스무 개 다 주고, 열 개 하면 열 개 다 주고 그렇게 하면 딴 사름은 뺑기가 ‘혼나눔’.)

111074 @ 거 땡힐 거라?(그거 땡힐 거야?)

111074 # 깡 먹주게. 재미로, 재미로. 것도 잊어불도 안헛져, 뺑이치기. 우리 막 어린 때게. 우린 혼 열네 살, 십오 쉰 땡난이 검질을 막 어른덜이영 그찌 밧디 검질, 수늘영 메레 땡겨세, 어른으로 막.(까서 먹지. 재미로, 재미로. 그것도 잊어버리지도 않았어, 뺑이치기. 우리 막 어린 때. 우린 한 열네 살, 십오 세는 되니까 김을 막 어른들이랑 같이 밧에 김, 품앗이하면서 매러 다녔어, 어른으로 막.)

111074 @ 경허난 키 안 커불엇인가?(그러니까 키 안 커버렸나?)

111074 # 아이고 키사 땡. 경 일헌 걸로 안 크지 안허여. 요섯 아이덜 흐뎡 잘 먹으난 컴젠 헤도 잘 먹은 사름도 아이 큰 사름도 하라. 겨난 키는 그 침영 집안에

따라 크꼭 죽꼭 허는 거주. 우리도 메누리가 크난 손진 막 크다게.(아이고 키야 뭐. 그렇게 일한 것으로 안 크지 않아. 요새 아이들 조금 잘 먹으니까 크다고 해도 잘 먹은 사람도 안 큰 사람 많더라. 그러니까 키는 그 참 이렇게 집안에 따라 크고 작고 하는 거지. 우리도 며느리가 크니까 손주는 막 크다.)

111074 @ 할머니 닭양.(할머니 닭아서.)

고무줄 놀이

111077 @ 고무줄은?(고무줄은?)

111077 # 고무줄은 영 양펜이 앓양 가운데서 허주게, 영.(고무줄은 이렇게 양쪽에 앉아서 가운데서 하지, 이렇게.)

111077 @ 그냥 거멍헌 고무줄 양펜이 잡양. 우리영 똑ㄴ뜨구나.(그냥 까만 고무줄 양쪽에서 잡아서. 우리랑 똑같구나.)

111077 # 우리 일본 말로 험난, 것도.(우리 일본말로 했었어, 그것도.)

111077 @ 노래 부르멍?(노래 부르면서?)

111077 # ‘테쇼 테쇼 아간 테쇼’ 경허멍.(‘테쇼 테쇼 아간 테쇼’ 그렇게 하면서.)

111077 @ 하하하.(하하하.)

111077 # 경헝 것도이 허당 못허민 진 거. 느랑 쪽 허게 노래광ㄴ치 헤지민 이긴 건디 것도 노래도 잊어불언.(그렇게 해서 그것도 하다가 못하면 진 거. 늘 쪽하게 노래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이긴 건데 그것도 노래도 잊어버렸어.)

111077 @ 예.(예.)

111077 # 그런 것도 험난.(그런 것도 했었어.)

111076 @ 우리는 다리로 영 고무줄 넘기도 헛엇는데.(우리는 다리로 이렇게 고무줄 넘기도 했었는데.)

111076 # 고무줄 넘기사 허주게. 것사 안허여?(고무줄 넘기야 하지. 그거야 안해?)

111076 @ 발로 영 넘어 가는 거.(발로 이렇게 넘어 가는 거.)

111076 # 응, 그건 줄넘기.(응, 그건 줄넘기.)

111076 @ 공작사기 아니?(물구나무서기 아니?)

111076 # 건 줄넘기.(그건 줄넘기.)

111076 @ 아, 줄넘기. 건 어떻게 하는데?(아, 줄넘기. 그건 어떻게 하는데?)

111076 # 그건 심으민 일로 돌아오당 훌허게 넘엉 뜯꼭게.(그건 잡으면 이리로 달려오다가 훌허게 넘어서 달리고.)

111076 @ 예.(예.)

111076 # 건 줄넘기.(그건 줄넘기.)

111076 @ 건 줄넘기.(그건 줄넘기.)

111076 # 줄넘긴 하영 허지.(줄넘기는 많이 하지.)

111076 @ 이렇게 누워근에 다리로 넘진 안해?(이렇게 누워서 다리로 넘지는 않

아?)

111076 # 아니.(아니.)

111076 @ 그냥 뛰어 가지고?(그냥 뛰어 가지고?)

111076 # 이디 양펜이 이제 심영 맞으면 줄넘기는 돌아가명 혹하게 넘주게.(여기 양편에 이제 잡아서 앉으면 줄넘기는 달려가면서 혹하게 넘지.)

111076 @ 이렇게 돌리는 거 말고?(이렇게 돌리는 거 말고?)

111076 # 아니.(아니.)

111077 @ 고무줄도 완전 잘해실 거 다향.(고무줄도 아주 잘했을 것 같아.)

111077 # 그런 건 잘했저마는 이제 무신 소용 시냐게? 공기도 일등 잘해지곡 해난.(그런 건 잘했었다마는 이제 무슨 소용 있니? 공기도 일등 잘할 수 있고 했었어.)

111077 @ 고무줄 노래 생각나는 거 잊수과?(고무줄 노래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111077 # 조선말론 잘 몰르크라.(조선말로는 잘 모르겠어.)

111077 @ 일본말로라도 해봅서.(일본말로라도 해보세요.)

111077 # 데쇼데쇼데쇼 아간 데쇼. 아고 잊어불언, 것도게. 경허멍 막 헤낫저게, 막 헤낫어. 고무줄 양쪽에 앓앙 심어. 겨곡 베틀락 최고 허고.(‘데쇼데쇼데쇼 아간데쇼.’ 아이고 잊어버렸어,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막 했었어, 막 했었어. 고무줄 양쪽에 앓아서 잡아. 그리고 줄넘기 최고 하고.)

111077 @ 고무줄도 옛날에 잊엇일 거 아니짜?(고무줄도 옛날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111077 # 잊어부난 노끗뎡이 심영. 고무줄이 어디 실 말이니? 고무줄도 해방뎡언이 뭐 뎡어서 이 고무줄이 나왔주, 실 말가?(없어버리니까 노 끄트머리 잡아서. 고무줄이 어디 있을 말이니? 고무줄도 해방뎡어서 뭐 뎡어서 이 고무줄이 나왔지, 있을 말이나?)

줄넘기

111078 @ 이렇게 줄 돌리는 건 뭐엔 헤여?(이렇게 줄 돌리는 건 뭐라고 해?)

111078 # 그런 거 잊인디.(그런 거 없는데.)

111078 @ 아니, 양착에 상 영 돌리민 이 사이로.(아니, 양쪽에 서서 이렇게 돌리면 이 사이로.)

111078 # 아, 그건 베틀락.(아, 그건 ‘베틀락’.)

111078 @ 아, 그건 베틀락.(아, 그건 ‘베틀락’.)

111078 # 줄넘기도 허곡 베틀락도 허곡게.(줄넘기도 하고 ‘베틀락’도 하고.)

111078 @ 줄넘기는 뛰영 넘는 거?(줄넘기는 뛰어서 넘는 거?)

111078 # 넘는 거고.(넘는 거고.)

111078 @ 응.(응.)

111078 # 베틀락은 영 심영 요새 안허느냐, 무사?(줄넘기는 이렇게 잡아서 요새 안하니, 왜?)

111078 @ 해, 해.(해, 해.)

111078 # 거 베틀락게.(그거 줄넘기.)

111078 @ 혼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허는 것도 베틀락?(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줄넘기?)

111078 # 아, 것도 베틀락.(아, 그것도 줄넘기.)

111078 @ 이것도 베틀락, 영 돌리는 것도 베틀락.(이것도 줄넘기, 이렇게 돌리는 것도 줄넘기.)

111078 # 응.(응.)

111078 @ 똑ㄴ따마씨?(똑같아요?)

111078 # 똑ㄴ따, 똑ㄴ따, 것도. 베틀락은. 지금 농협 ㄴ쁜 디 모더 가면은 그 베틀락 허주게.(똑같아, 똑같아, 그것도. 줄넘기는. 지금 농협 같은 데 모여 가면은 그 줄넘기 하지.)

111078 @ 예, 막 여러 사람도 험니께?(예, 막 여러 사람도 하잖습니까?)

111078 # 응.(응.)

111078 @ 돌아가명도 허고.(돌아가면서도 하고.)

111078 # 응, 돌아가명 세명, 혼 번, 두 번 오래허민 이기는 거.(응, 돌아가면서 세면서, 한 번, 두 번 오래하면 이기는 거.)

111078 @ 응.(응.)

111078 # 건디 우리도이 혼자만 베틀락허는 것도 세연 해난. 것도 오래 허민 이기는 거. 잘허는 거.(그런데 우리도 혼자만 줄넘기하는 것도 세어서 했었어. 그것도 오래 하면 이기는 거.)

111078 @ 응.(응.)

111078 # 경허고 또 심영도 튀곡.(그리고 또 잡아서도 뛰고.)

111078 @ 응.(응.)

111078 # 우리 어린 때부터 거 해낫저게. 경허단 요새 안헌디 그 베틀락은 이제 허여.(우리 어린 때부터 그거 했었어. 그러다가 요새 안하는데 그 줄넘기는 이제 해.)

그네뛰기

111080 @ 그네는 제주도 말로 뭐마씨?(그네는 제주도 말로 뭐예요?)

111080 # 궁글, 궁글 텀저.(‘궁글, 궁글’ 똤다.)

111080 @ 그네뛰기, 그네 뛰는 거 할머니도 많이 해난?(그네뛰기, 그네 뛰는 거 할머니도 많이 했었어?)

111080 # 궁글 트는 거 해낫주게. 낭에 그거 베 메여근에 궁글 트겐 허영 서로 가 밀리멍 궁글 트는 거.(그네 뛰는 거 했었지. 나무에 그거 바 매어서 그네 뛰겠다

고 해서 서로가 밀리면서 그네 뛰는 거.)

111080 @ 어느 냥에 맵니까?(어느 나무에 맵니까?)

111080 # 냥 이서낫저게, 옛날에. 동네에도 큰 냥이 이서난. 베 메영. 베 메영 서로 막 밀리멍.(나무 있었어, 옛날에. 동네에도 큰 나무가 있었어. 바 매어서, 바 매어서 서로 막 밀리면서.)

111080 @ 앓앙 해, 상 해?(앉아서 해, 서서 해?)

111080 # 그냥 앓앙게. 베에게 앓앙.(그냥 앉아서. 바에 앉아서.)

111080 @ 앓는 판 엇이?(앉은 판 없이?)

111080 # 판은 놓구정허민 놓고 그냥 궁글 텃주게.(판은 놓고 싶으면 놓고 그냥 그네 탕지.)

111080 @ 궁글 탈 때 밑에 냥으로 웬 건 뭐마씨?(그네탈 때 밑에 나무로 된 건 뭐예요?)

111080 # 널판, 널판. 널판으로 영 해영 사름 앓아사 궁글 털 거 아니라게?(널판, 널판. 널판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 앉아야 그네 떨 거 아니냐?)

111081 @ 막 잘해낫지예?(아주 잘했었지요?)

111081 # 운동은 잘 해난. 경허단 이젠 늙어부난.(운동은 잘 했었어. 그러다가 이젠 늙어버리니까.)

111081 @ 할머니 완전 잘 해나실 거 다향.(할머니 아주 잘 했었을 거 같아.)

111081 # 철봉 도는 거 철봉. 학교에 초담으로 이제 제국 때 해단 세왓저, 초등학교 마당에. 게난 그거 아무도 못허는 거 꺾음세기 해낫저게, 팽팡 도는 거. 게고 뭐 술래잡기도 허민 나가 일등으로 해낫저게. 우리쪽만 나쪽만 오젠 허고 초담 일 이삼사 할 때 그자 앓다놓민 못허는 거 엇이 경 헤져라마는 이놈의 스삼사건 덕분에 공불 헤져시냐게? 한즈도 막 알아난디 이젠 잊어불언.(철봉 도는 거 철봉. 학교에 처음으로 이제 제국시절 하다가 세웠지, 초등학교 마당에. 그러니까 그거 아무도 못하는 거 ‘꺾음세기’ 했었어, 팽팡 도는 거. 그리고 뭐 술래잡기도 하면 내가 일등으로 했었어. 우리쪽만 내쪽만 오려고 하고 처음 일이삼사 할 때 그냥 가져다 놓으면 못하는 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더라마는 이놈의 사삼사건 덕분에 공부를 할 수 있었니? 한자도 막 알았었는데 이젠 잊어버렸어.)

한다리인다리

111083 @ 한다리인다리.(한다리인다리.)

111083 # 흘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저 버문개.(‘흘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저 버문개’.)

111083 @ 다리 영 행? 거청겐 뭐?(다리 이렇게 해서? ‘거청게’는 뭐?)

111083 # 몰라.(몰라.)

111083 @ 무슨 뜻인고?(무슨 뜻인가?)

111083 # 몰라, 뭇산디. 흘다리 인다린 으라 가진디 것도.(몰라, 뭐인지. ‘한다리

인다리'는 여러 가진데 그것도.)

111083 @ 또 이수과?(또 있습니까?)

111083 # 또 이신디 잊어버렸어. 으라 개 이신디 그것만 웨와졌네. 혼다리인 다리 거청게, 시나노저 버문개.(또 있는데 잊어버렸어. 여러 개 있는데 그것만 외웠네. '혼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저 버문개'.)

111083 @ 시나노전 뭐지?('시나노저'는 뭐지?)

111083 # 몰라.(몰라.)

111084 @ 다리 영 끼왕.(다리 이렇게 끼워서.)

111084 # 혼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저 버문개. 그추룩 헛주게.(‘혼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저 버문개’. 그렇게 했었지.)

111084 @ 그다음. 다 끝난 거? 하나 빼야 돼어?(그다음. 다 끝난 거? 하나 빼야 돼어?)

111084 # 응.(응.)

111084 @ 빼고, 그다음은.(빼고, 그다음은?)

111084 # 게민 또시 허지.(그러면 또 하지.)

111084 @ 또시 허민 나가 노래 불러?(또 하면 내가 노래 불러?)

111084 # 아무라도 불러.(아무라도 불러.)

111084 @ 요기서부터 시작? 혼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저 버문개. 게민 야이진 거? 빼고?(요기서부터 시작? ‘혼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저 버문개’. 그러면 이야진 거? 빼고?)

111084 # 응.(응.)

111084 @ 그다음? 또 허여.(그다음? 또 해?)

111084 # 혼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저 버문개. 우리 그추룩 헤난디.(‘혼다리인다리 거청게 시나노저 버문개’. 우리 그렇게 했었는데.)

111085 @ 언제 헤마씨? 이런 거.(언제 해요? 이런 거.)

111085 # 고만 시라. 어친게 쿵다쿵 헤신가? 뭐 헤신가?(가만 있어라. ‘어친게 쿵다쿵’ 했었나? 뭐 했었나?)

111085 @ 무신거마씨?(뭐예요?)

111085 # 우리 어린 때 막 헤난 것도. 이것도 헐락 헐. 장난으로, 장난으로.(우리 어린 때 막 했던 것도. 이것도 하기 해서. 장난으로, 장난으로.)

111085 @ 이걸 집이서 허는 거 아니?(이건 집에서 하는 거 아니?)

111085 # 집이서 앓앙 놀명게, 겨난 명청헛주게, 요셋 아이덜ㄴ치 공불 헤시민 허컬게.(집에서 앓아서 놀면서, 그러니까 명청헛지, 요새 아이들같이 공부를 했으면 할걸.)

111085 @ 요새 아이덜 핸드폰베끼 안 헛니께게?(요새 아이들 핸드폰밖에 안 하잖습니까?)

방칠락

111086 # 장난이 심하여. 그자 놀레 가민 어스름 때도 놀레 가민 그 땅에 기러 낱 오리양, 또 오리양 허단 또로 저 구녁치긴 남즈덜 허여, 빠찌치기허고, 주로 허고. 우린 오리양을 잘해낫어. 또로 니귀반듯허게 기러논 거.(장난이 심해. 그냥 놀러 가면 어스름 때도 놀러 가면 그 땅에 그려 놔서 사방치기, 또 사방치기 하다가 또 저 구멍치기는 남자들 해, 딱지치기하고, 주로 하고. 우린 사방치기를 잘 했었어. 또 네모반듯하게 그려 놓은 거.)

111086 @ 응.(응.)

111086 # 또 영 이젠 질레에 이제 그릇 기서근에 오리양이엔 허영 떡대, 떡대엔 허영.(또 이렇게 이젠 길에 이제 선 그어서 사방치기라고 해서 목대, 목대라고 해.)

111086 @ 응.(응.)

111086 # 사금파리 헤근에 발로 창, 오리양도 잘 그릇에 아이 들어가민 지고.(사금파리 해서 발로 차서. 사방치기도 잘 선에 안 들어가면 지고.)

111086 @ 그건 이름이 뭐라고?(그건 이름이 뭐라고?)

111086 # 오리양.(‘오리양’.)

111086 @ 건 일본말 닻고.(그건 일본말 같고.)

111086 # 오리양이엔 헤난. 것베피 엇어.(‘오리양’이라고 했었어. 그것밖에 없어.)

111086 @ 방칠락 아니?(‘방칠락’ 아니?)

111086 # 아니.(아니.)

111086 @ 방칠락 허곤 틀려?(‘방칠락’ 하고는 달라?)

111086 # 몰라, 것ㄴ라 방칠락이엔 헤신가? 우린 오리양, 오리양 헤나신디.(몰라, 그것보고 ‘방칠락’이라고 했었나? 우린 ‘오리양, 오리양’ 했었는데.)

111086 @ 어떻 허는 거파? 알아봅서.(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해보세요.)

111086 # 겨난 영 그릇 그성이 이레 발로 떡대허여근에 낱 사금파리 낱 탁탁 창, 것도 이제 잘 돌아오지 안허민 지는 거라.(그러니까 이렇게 선 그어서 이리로 발로 목대 해서 놔서 사금파리 놔서 탁탁 차서, 그것도 이제 잘 돌아오지 않으면 지는 거야.)

111086 @ 응, 응.(응, 응.)

111086 # 경헨 헤난. 거 제국 때에 문 헤난 거.(그렇게 해서 했었어. 그거 제국 때 모두 했던 거.)

111086 @ 사금파린 어떻 가정와?(사금파린 어떻게 가져와?)

111086 # 사금파리 천지주게. 어디 강 봉가당게.(사금파리 천지지. 어디 가서 주워다가.)

111086 @ 아.(아.)

111086 # 사금파리가 엇어? 떡대엔 허영. 것ㄴ라 떡대.(사금파리가 없어? 목대라고 해서. 그것보고 목대.)

111086 @ 사금과리가 떡대?(사금과리가 목대?)
111086 # 응.(응.)
111086 @ 떡대 데껴?(목대 던져?)
111086 # 떡대 영 발로 차.(목대 이렇게 발로 차.)
111086 @ 처음에 시작할 때는?(처음에 시작할 때는?)
111086 # 시작할 때 오리양 기서냥.(시작할 때 ‘오리양’ 그어 놔서.)
111086 @ 오리양 기서냥.(‘오리양’ 그려 놔서.)
111086 # 영 영 니귀반듯하게 허여근에 영허영 기서냥 이젠 으라 칸 헤영 발로 이렇게 차 가, 돌아오게.(이렇게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려 놔서 이젠 여러 칸 해서 발로 이렇게 차 가, 돌아오게.)
111086 @ 응.(응.)
111086 # 경허당 발로 이 그릇에 잘 안 들어가이. 게민 지는 거라.(그러다가 발로 이 선에 잘 안 들어가. 그러면 지는 거야.)
111086 @ 아, 게민 지는 거.(아, 그러면 지는 거.)
111086 # 구썩허게 다 차 오면 이긴 거고. 경헤낫주게.(곧장 다 차 오면 이긴 거고. 그랬었지.)
111086 @ 응.(응.)
111086 # 쟁 것도 썩 썩.(그래서 그것도 썩 썩.)
111086 @ 썩 썩.(썩 썩.)
111086 # 멧 사름 이제 세 사름씩, 으섯 사름이면 세 사름씩 혼 썩.(멧 사름 이제 세 사름씩, 여섯 사름이면 세 사름씩 한 썩.)
111086 @ 할머니 막 잘헤낫지예?(할머니 아주 잘했었지요?)
111086 # 아이고, 그런 것만 허멍 공부도 안허고 멧청헌 것덜.(아이고, 그런 것만 하면서 공부도 안하고 멧청한 것들.)
111086 @ 다 할머니 썩 허켄 허크라. 할머니 잘허니까.(다 할머니 썩 하겠다고 하겠어. 할머니 잘하니까.)
111086 # 어, 경헤낫저. 흑교에도 얼만 안 땡겨도 철봉.(어, 그랬었어. 학교에도 얼마 안 다녀도 철봉.)
111086 @ 응.(응.)
111086 # 잘 돌아나고. 영영영영 허는 거, 거 잘 헤난.(잘 들었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잘 했었어.)
111086 @ 응.(응.)
111086 # 허단 이놈으 스삼사건으로 아이고 제국시절로 우린 막 시대를 못 탄 나오난 아무것도 못헤세.(하다가 이놈의 사삼사건으로 아이고 제국 시절로 우린 막 시대를 못 타서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했어.)
111086 @ 응.(응.)
111086 # 아무것도 못헐, 흑교도 못허고. 시상은 망헐주게.(아무것도 못했어, 학

교도 못하고. 세상은 망했지.)

111086 @ 하하하.(하하하.)

111086 # 아니 시에서 난 사람은 그닥지 안했주마는 이디 촌이라부난 더 험 거 주게, 촌이라부난.(아니 제주시에서 난 사람은 그다지 안했지마는 여기 촌이라서 더 한 거지, 촌이라서.)

공던지기

111087 # 또 도루보¹⁹¹ 술래엔 허영이.(또 ‘도루보’ 술래라고 해서.)

111087 @ 무신거?(뭐?)

111087 # 도루보 술래엔 허영 이디서 펜 짜근에 공 닳은 걸로 데껴.(‘도루보’ 술래라고 해서 여기서 펜 짜서 공 닳은 걸로 던져.)

111087 @ 예.(예.)

111087 # 쟁 이제 그거 맞지 안허게 막 들어. 그것도 해난.(그래서 이제 그거 맞지 않게 막 달려, 그것도 했었어.)

111087 @ 아, 건 도로보 술래엔 해?(아, 그건 ‘도로보’ 술래라고 해?)

111087 # 응.(응.)

111087 @ 이건 일본말 닳다예?(이건 일본말 같네요?)

111087 # 일본말이주, 도로보는.(일본말이지, ‘도로보’는.)

111087 @ 도로보가 일본 말로 뭐?(‘도로보’가 일본 말로 뭐?)

111087 # 일본말이라 도로보. 도둑질헌텐 말이주, 도로보가.(일본말이야 ‘도로보’. 도둑질한다는 말이지, ‘도로보’가.)

111087 @ 아.(아.)

111087 # 정혜영 그것도 해난.(정해서 그것도 했었어.)

111087 @ 무신거 영 만들어근에?(뭐 이렇게 만들어서?)

111087 # 공, 공.(공, 공.)

111087 @ 아, 공.(아, 공.)

111087 # 하나시엔도 허고, 도로보 술래엔도 허여 것ㄴ라. 하나시도 일본말.(‘하나시’라고도 하고, ‘도로보’ 술래라고도 해 그것보고. ‘하나시’도 일본말.)

111087 @ 우린 모래 같은 거 담아서 이렇게 네모나게.(우린 모래 같은 거 담아서 이렇게 네모나게.)

111087 # 아, 그건 오재미?(아, 그건 오자미?)

111087 @ 응, 그거영 비슷한 거 아니?(응,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

111087 # 아니.(아니.)

111087 @ 틀려?(틀려?)

111087 # 오재미는 영 손으로 영 데끼는 거고. 오재미.(오자미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고. 오자미.)

191) ‘도로보(どろぼう)’는 일본어로 도둑질, 도둑이라는 뜻이다.

111087 @ 그걸로 영 데경 마치는 거 아니고?(그걸로 이렇게 던져서 맞히는 거 아니고?)

111087 # 아니, 그냥 영 손으로 허는 거.(아니,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111087 @ 아.(아.)

111087 # 손으로 허당 이것도 오재미도 독독독독해가당 두 개 탁 심어.(손으로 하다가 이것도 오자미도 독독독독해가다가 두 개 딱 잡아.)

111087 @ 응.(응.)

111087 # 경허민 잘 허는 거고 못허는 사람 것도 못 심어, 오재미허는 것도. 조나 무시거 이제 곡식이라도 담양 존존하게 멘들앙 두 개허영 영영영영 허주게. 경허당 두 개 탁 받아야 것도 잘허는 사람.(그러면 잘 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 그것도 못 잡아, 오자미하는 것도. 조나 뭐 이제 곡식이라도 담아서 자잘하게 만들어서 두 개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그러다가 두 개 탁 받아야 그것도 잘하는 사람.)

111087 @ 응.(응.)

111087 # 못허는 사람 것도 못헤여, 오재미.(못하는 사람 그것도 못해, 오자미.)

111087 @ 건 오재미.(그건 오자미.)

111087 # 것도 우리도 해난. 막 데끼다근앵에 탁 두 개 다 받아야 돼여.(그것도 우리 했었어. 막 던지다가 탁 두 개 다 받아야 돼.)

111087 @ 공 데킬락이 그거, 도로보술래?(공 던지기 그거, ‘도로보술래’?)

111087 # 공 데킬락은 하나시¹⁹²⁾엔도 허곡 허는디 것도 펜 짜근앵이 이제 도로보술레헐 걸로 허영 학교 마당에서도이 요만이 오재미ㄴ치 멘들앙 공, 공.(공 던지기는 ‘하나시’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편 짜서 이제 ‘도로보술래’할 것으로 해서 학교 마당에서도 요만큼 오자미같이 만들어서 공, 공.)

111087 @ 응.(응.)

111087 # 공이 이젠 핫주마는 그때 엇어부난 힘벅세기로 멘들아, 멘들아. 막 담양.(공이 이젠 많지마는 그때 없어버리니까 형겁으로 만들어, 만들어. 막 담아서.)

111087 @ 아.(아.)

111087 # 멘들앙 동글락허게 해근에 이제 맞춰. 탁 마추민 마치지 못허게 막 돌아부는 거라. 요새 ㄴ뜨민 야구 닳아, 거.(만들어서 동그랴게 해서 이제 맞혀. 탁 맞히면 맞히지 못하게 막 달아나버리는 거야. 요새 같으면 야구 같아, 그거.)

111087 @ 아.(아.)

111087 # 야구ㄴ추룩 헤여.(야구처럼 해.)

111087 @ 저 뭐 피구처럼 허는 게 아니고?(저 뭐 피구처럼 하는 게 아니고?)

111087 # 응?(응?)

111087 @ 영 선 긋영 그 안에서만 허는 게 아니고?(이렇게 선 그어서 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192) ‘하나시’는 일본어 ‘はなし’로 소문, 이야기라는 뜻이다.

111087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111087 @ 야구 닮은 거?(야구 같은 거?)
111087 # 응, 야구 닮은 거라 그거. 경헌 것도 헤난.(응, 야구 같은 거야 그거.
그런 것도 했었어.)

11. 통과이레

출생

112001 @ 옛날에는 아기 가지면 지금처럼 뭐 아기 태교하고 이런 거 었수게?
(옛날에는 아기 가지면 지금처럼 뭐 아기 태교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112001 # 어, 어.(어, 어.)

112001 @ 옛날 어떻게 헤낫수과?(옛날 어떻게 했었습니까?)

112001 # 우리 아기 가지민 부끄르왕 늬 앞이 가도 안 허여.(우리 아기 가지면
부끄러워서 남 앞에 가지도 았아.)

112001 @ 아니, 결혼헤신디?(아니, 결혼했는데?)

112001 # 결혼허고 아무거고.(결혼하고 아무것이고.)

112001 @ 하하하.(하하하.)

112001 # 아기도 또 나지 안허지카 허민 또 아기가 가정 나.(아기도 또 나지 았
을 수 있을까 하면 또 아기가 가져서 낱아.)

112001 @ 응, 응.(응, 응.)

112001 # 거민 낱 커가민 침 아이고 이거 영 헨 난 컷구나 영헨 아깁주. 아기
가질 때 늬 부끄르왕.(그러면 커가면 참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서 낱아서 컷구나 이
렇게 해서 아깁지. 아기 가질 때 남 부끄러워서.)

112001 @ 늬 부끄르왕.(남 부끄러워서.)

112001 # 늬 막 한 디 넘어가도 못허여. 배 부르민.(남 아주 많은 데 넘어가지도
못해. 배 부르면.)

112001 @ 하하하.(하하하.)

112001 # 요새 ㄹ찌 경 병원에 강 검사여 무시거여 아이고 침말로 침.(요새같이
그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다 뭐다 아이고 참말로 참.)

112001 @ 하하하.(하하하.)

112001 # 요셋년덜 침.(요새 년들 침.)

112001 @ 게메.(그거게.)

112001 # 우리 이 산부인과 안 구경허연.(우리 이 산부인과 구경 안했어.)

112001 @ 갈 일이 었주예.(갈 일이 없지요.)

112001 # 갈 일이 없어.(갈 일이 없어.)

112001 @ 응, 맞아, 갈 일이 없지.(응, 맞아, 갈 일이 없지.)

112001 # 그냥.(그냥.)

112001 @ 계근 옛날에 할무니 애기 가졌을 땐 어떻 해납디가?(그러면 옛날에 할머니 아기 가졌을 땐 어떻게 했었습니까?)

112001 # 어떻 허여?(어떻게 해?)

112001 @ 뭐 입덧 같은 건 안 헨?(뭐 입덧 같은 건 안 했어?)

112001 # 아이고 아고 입덧이랑말앙 아무것도 안헐저.(아이고 아고 입덧이고말고 아무것도 안했어.)

112001 @ 하하하. 아니, 뭐 잘 못 먹고 뭐 영 신 거 먹고 싶고 이렇게 안 해판?(하하하. 아니, 뭐 잘 못 먹고 뭐 이렇게 신 거 먹고 싶고 이렇게 안 해봤어?)

112001 # 난 그런 것도 안 해판. 난 그런 것도 안 해판.(난 그런 것도 안 해봤어. 난 그런 것도 안 해봤어.)

112001 @ 아, 할무니 완전 체질이구나게.(아, 할머니 아주 체질이구나.)

112001 # 아무것도 잇어.(아무것도 없어.)

112001 @ 아무것도 안 해.(아무것도 안 해.)

112001 # 애기가, 애기 셔진 중도 몰랑이. 땃달, 서넉달 똤사 아이고, 이거 애기 배져신가? 영헤저.(애기가, 아기 잇는 줄도 몰라서. 땃달, 서넉달 되어야 아이고, 이거 아기 뻘나? 이렇게 해.)

112001 @ 응.(응.)

112001 # 경헨 난. 애기 나 침 으섯 오누이 난에.(그렇게 했었어 나는. 아기 나 참 여섯 오누이 낳아서.)

112001 @ 응.(응.)

112001 # 우린 또 세 슬.(우린 또 세 살.)

112001 @ 세 슬 못이?(세 살 터울.)

112001 # 나야 나. 응 세 슬 못이.(나야 나. 응, 세 살 터울.)

112001 @ 응.(응.)

112001 # 네 슬 나서 꼭 나단에 어떻헤연 쌍둥이 난.(네 살 나서 꼭 낳다가 어떻게 해서 쌍둥이 낳았어.)

112001 @ 쌍둥이도 이신 칠이파?(쌍둥이도 잇는 셈입니까?)

112001 # 응, 쌍둥이.(응, 쌍둥이.)

112001 @ 땃 번째가 쌍둥이?(땃 번째가 쌍둥이?)

112001 # 막둥이.(막둥이.)

112001 @ 막둥이가 쌍둥이.(막둥이가 쌍둥이.)

112001 # 으섯 오누이 난에 딱 좋게 난디.(여섯 오누이 낳아서 딱 좋게 낳았는데.)

112001 @ 응.(응.)

112001 # 쌍둥이 나부난 으답 나세.(쌍둥이 낳아서 여덟 낳았어.)

112001 @ 쌍둥이는 무신거엔 곶아? 제주도 말로.(쌍둥이는 뭐라고 말해? 제주

도 말로.)

112001 # 무신거엔 해 쌍둥이주. 골루기¹⁹³엔.(뭐라고 해, 쌍둥이지. ‘골루기’라고.)

112001 @ 골루기, 응.(‘골루기’, 응.)

112001 # 여즈 남즈가 골루기주게. 나 골루기 나세계.(여자 남자가 ‘골루기’지. 나 ‘골루기’ 낳았어.)

112001 @ 아, 여자, 남자.(아, 여자, 남자.)

112001 # 응, 여즈 남즈 보고 골루기엔 허더라고.(응, 여자 남자를 보고 ‘골루기’라고 하더라고.)

112001 @ 여자, 여자끼리 허민 골루기엔 안 골아?(여자, 여자끼리 하면 ‘골루기’라고 안 말해?)

112001 # 아니 건 쌍둥이고.(아니 그건 쌍둥이고.)

112001 @ 그냥 쌍둥이고.(그냥 쌍둥이고.)

112001 # ㄹ찌 난 건.(같이 낳은 건.)

112001 @ 응. 하나 태어났는데 여자 남자 쌍둥이는 골루기엔 골아.(응. 하나 태어났는데 여자, 남자 쌍둥이는 ‘골루기’라고 말해.)

112001 # 응.(응.)

112001 @ 응.(응.)

112001 # 경근는 거 들음만 현디, 나가 쌍둥이 나지카부덴 안 현디 쌍둥이 난. 죽은딸 풀도 못헤연 이서.(그렇게 말하는 거 들음만 했는데, 내가 쌍둥이 낳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쌍둥이 낳았어. 막내딸 결혼하지도 못해서 있어.)

112001 @ 누게 웨, 저, 쌍둥이는 누구 어머니네 쪽이나 아버지네 쪽이 쌍둥이가 이서야 웬덴 허던데.(누구 왜, 저, 쌍둥이는 누구 어머니네 쪽이나 아버지네 쪽이 쌍둥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112001 # 엇어. 우린 꿈도 안 꺾난디 나 낳저.(없어. 우린 꿈도 안 꺾었는데 나 낳았어.)

112001 @ 아. 아니 할머니네, 아니 어무니도 엇인 철?(아. 아니 할머니네, 아니 어머니도 없는 셈?)

112001 # 우리가 이거 삼대, 오대 웨어도 엇인디.(우리가 이거 삼대, 오대 되어도 없는데.)

112001 @ 쌍둥이 엇인디.(쌍둥이 없는데.)

112001 # 엇인디 쌍둥이 난.(없는데 쌍둥이 낳았어.)

112001 @ 기구나. 보통 어무니나 아버지 쪽에 그계.(그렇구나. 보통 어머니나 아버지 쪽에 그계.)

112001 # 것도 아니.(그것도 아니.)

112001 @ 것도 아니구나예?(그것도 아니군요.)

193) ‘골루기’는 쌍둥이를 말하는 것인데 제보자는 여자, 남자 쌍둥이를 ‘골루기’라고 한다고 했다.

112001 # 것도 아니. 우리 경헌디 우리 친척에 그 해에 둘이 낳어.(그것도 아니. 우리 그런데 우리 친척에 그 해에 둘이 낳았어.)

112001 @ 아.(아.)

112001 # 나 나고 이디 조끗디 권당네 나고.(나 낳고 여기 곁에 권당네 낳고.)

112001 @ 아, 기마씨?(아, 그래요?)

112001 # 응, 경은 헛주마는 우리 쌍둥이 소문도 안 들어난디 쌍둥이 낳어.(응, 그렇게는 했지만은 우리 쌍둥이 소문도 안 들었었는데 쌍둥이 낳았어.)

112001 @ 하하하.(하하하.)

112001 # 갱 아덜은 이제 애기영 서 오누이 난 살암저마는 죽은뜰 안 풀안.(그래서 아들은 이제 아기랑 서 오누이 낳아서 살고 있지만 막내딸은 결혼 안 했어.)

112001 @ 그때 애기헌 죽은뜰.(그때 애기한 막내딸.)

112001 # 응.(응.)

112001 @ 그때 멧 슬이엔 곱앗수과?(그때 몇 살이라고 말했습니까?)

112001 # 마흔 으섯게.(마흔 여섯.)

112001 @ 마흔 으섯, 개띠.(마흔 여섯, 개띠.)

112002 @ 옛날 애기 낳 때 어떻 헤난마씨?(옛날 아기 낳을 때 어떻게 했었어 요?)

112002 # 어떻 헤여, 뒤.(어떻게 해, 뒤.)

112002 @ 이제사 병원 가민 탁탁 알앙 해주는다.(이제야 병원 가면 탁탁 알아서 해주는데.)

112002 # 아이고, 아이고. 이젠 뭐 아기 나지카부덴도 안헌디 나면은 우린. 우리 시고모님이 올레에 살아났저.(아이고, 아이고. 이젠 뭐 아기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낳으면 우린. 우리 시고모님이 올레에 살았었어.)

112002 @ 아.(아.)

112002 # 경허민 그 할머니가 와근앵에 모욕시겨주고 혼 일주일간은 매일 모욕 시겨줘.(그러면 그 할머니가 와서 목욕 시켜주고 한 일주일간은 매일 목욕 시켜줘.)

112002 @ 응.(응.)

112002 # 경헌디 윈 침 아직까장은 뭐 **이 없어.(그런데 윈 침 아직까지는 뭐 **이 없어.)

112002 @ 아니, 애기 낳 땐.(아니, 아기 낳을 땐.)

112002 # 낳 때도 아무 충도 안행 나.(낳 때도 아무렇지도 않아서 낳아.)

112002 @ 안 아판?(안 아팠어?)

112002 # 아프멍 말멍 그자 나는 거주.(아프면서 말면서 그냥 낳는 거지.)

112002 @ 난 막 아판예, 병원에서예.(난 아주 아파서요, 병원에서요.)

112002 # 응, 아판.(응, 아팠어.)

112002 @ 예, 애기 안 나와 가지고예.(예, 아기 안 나와 가지고요.)

112002 #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12002 @ 수술허렌 허는 막 허는 걸예, 혼 시간만 춤아뵤 안 뵤걸랑 수술허게 마씨, 막 영헨예 경헨.(수술하라고 하는 막 하는 걸요, 한 시간만 참아보고 안 되면 수술해요, 막 이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112002 # 우리 셋메누리 경헨 애기 브러세게.(우리 둘째며느리 그렇게 해서 아 기 버렸어.)

112002 @ 응?(응?)

112002 # 우리 셋메누리, 셋아덜에 손지.(우리 둘째며느리, 둘째아들에 손주.)

112002 @ 응.(응.)

112002 # 애기에 기십이주, 사람은. 돈 필요 없어. 애기에 기십이라.(아기에 담 력이지, 사람은. 돈 필요 없어. 애기가 담력이야.)

112002 @ 응.(응.)

112002 # 애기가 커근에 공부도 잘허고 오야오야 해야지. 아기 경허민 안 뵤여, 안 뵤여. 우리도 죽은놈네도 서오누인디 막 공부들 잘허멍 살암서. 쌍둥이.(아기가 커서 공부도 잘하고 ‘오야오야’ 해야지. 아기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우리 막내 네도 서 오누인디 막 공부들 잘하면서 살고 있어. 쌍둥이.)

112002 @ 옛날엔 애긴 어디서 나신고마씨? 병원도 엇인디.(옛날엔 아기 어디서 낳았어요? 병원도 없는데.)

112002 # 방에서 낳주. 어디서 나?(방에서 낳았지, 어디서 낳아?)

112002 @ 방에서?(방에서?)

112002 # 응.(응.)

112002 @ 어떻헤근에 밑에 뵤 깎아?(어떻게 해서 밑에 뵤 깎아?)

112002 # 깎주게, 무사.(깎지, 왜?)

112002 @ 무신거 깎아?(무엇 깎아?)

112002 # 이런 이불이사 엇어?(이런 이불이야 없어?)

112002 @ 이런 이불에 허민 막 곳인 물 허지 안 허여?(이런 이불에 하면 막 곳 은 물 하지 않아?)

112002 # 곳인 물 허여도 경. 우리 곳인 물.(곳은 물 해도 그렇게. 우린 곳은 물.)

112002 @ 옛날 막 보리짚 깎아낳저 막 경허던데.(옛날 막 보릿짚 깔았었다 막 그러던데.)

112002 # 우리 세대엔 거 엇어.(우리 세대엔 그거 없어.)

112002 @ 아.(아.)

112002 # 그냥 저 무시거 흐쓸 깎았던 거 빨아불민 깨끗허여.(그냥 저 무엇 조금 깔았던 거 빨아버리면 깨끗해.)

112002 @ 응. 옛날 할무니네 물어보민 보리낭 깎앙 헤낳저 막 영 골안게마는. (응. 옛날 할머니네 물어보면 보릿짚 깔아서 했었어 막 이렇게 말하던데.)

112002 # 것도 심헌 사름은 구들이 판나.(그것도 심한 사름은 구들이 판나.)

112002 @ 예.(예.)

112002 # 우린 경 안 해, 간단해여. 빨래 조금 헤블민 말아.(우린 그렇게 안 해, 간단해. 빨래 조금 해버리면 말아.)

112003 @ 그 얘기 나나민 그 뭐 이수계, 텃줄 아니?(그 아기 낳아 나면 그 뭐 있잖아요, 텃줄 아니?)

112003 # 아, 그거 슬아 불어.(아, 그거 태워 버려.)

112003 @ 어디 강 슬아?(어디 가서 태워?)

112003 # 이 선홍사 슬 디 족느냐? 스룻 땅에 마당에, 올레에서 슬아불주.(이 선홍이야 태울 데 적니? 사룻 땅에 마당에, 올레에서 태워버리지.)

112003 @ 아, 나 낳 땐 우리 시어머니 어디 바당에 강은에.(아, 나 낳을 땐 우리 시어머니 어디 바다에 가서.)

112003 # 데껴불엇인가?(던져버렸나?)

112003 @ 몰르크라마씨.(모르겠어요.)

112003 # 우린 손지덜 시에서 나도이.(우리 손주들 제주시에서 낳아도.)

112003 @ 응.(응.)

112003 # 서문통 밧덜 이시난 밧 깨끗헌 디 강 다 슬앗저.(서문통 밧들 있으니까 밧 깨끗한 데 가서 다 태웠어.)

112003 @ 아.(아.)

112003 # 병원에서 나도 아정왕.(병원에서 나도 가져와서.)

112003 @ 거 무슨 나중에 약 웬덴 허멍은에?(거 무슨 나중에 약 된다고 하먼서?)

112003 # 겨난 그것도 그 말 들언에이 쪼끔 남아.(그러니까 그것도 그 말 들어서 조금 남아.)

112003 @ 응.(응.)

112003 # 갱 쌍 나뵈주. 이제 실 거라, 손지덜신디.(그래서 싸서 놔뵈지. 이제 있을 거야, 손주들에게.)

112003 @ 응.(응.)

112003 # 그것도, 것도 케와보민 또 흐뎡 남양 툃툃허는 게 잇고.(그것도, 그것도 태워보면 또 조금 남아서 툃툃하는 게 잇고.)

112003 @ 응.(응.)

112003 # 그냥 부서져부는 게 이서. 케민 툃툃헌 게 좋덴 허여. 옛날.(그냥 부서져 버리는 게 있어. 그러면 툃툃한 게 좋다고 해. 옛날.)

112003 @ 옛날에도 할머니네도 그냥 옛날에 놔두고 영 허는 거 엇이 다 그냥 깨끗이 슬아불언마씨?(옛날에도 할머니네도 그냥 옛날에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거 없이 다 그냥 깨끗이 태워버렸어요?)

112003 # 슬단에 것도 녁겨도 써지지 안 허더라. 옛날에는 그 부시럼 나면은.(태우다가 그것도 남겨도 써지지 않더라. 옛날에는 그 부스럼 나면은.)

112003 @ 응.(응.)

112003 # 분식 몰란 거주게, 병원 엇어부난.(분수 몰라서 그거지, 병원 없어버리니까.)

112003 @ 응.(응.)

112003 # 태독 낫젠 허영이 그걸로 불른덴 헤낫저게, 이 부시럼 나면.(태독 낫다고 해서 그걸로 바른다고 했었어, 이 부스럼 나면.)

112003 @ 아.(아.)

112003 # 무신 종이나 얼굴에 나면은.(무슨 종기나 얼굴에 나면은.)

112003 @ 응.(응.)

112003 # 태독이엔 허여 가지고.(태독이라고 해 가지고.)

112003 @ 애기 때?(아기 때?)

112003 # 응, 쟁 그거 불른덴 헤낫어. 건디 그런 거 엇어고. 써지지 안 허고.(응, 그래서 그거 바른다고 했었어. 그런데 그런 거 없더라. 써지지 않고.)

112004 @ 애기 난 어멍안퇴 주는 건, 무신거 맥입니까?(아기 난 어머니에게 주는 건, 무엇 먹입니까?)

112004 # 우린 모뎀쿳루 헛단 그자 모뎀츨베기 주로 먹어.(우린 메밀가루 했다가 그냥 메밀수제비 주로 먹어.)

112004 @ 모뎀츨베기 주로.(메밀수제비 주로.)

112004 # 응.(응.)

112004 @ 메역국은 안 헤영 먹어?(미역국은 안 해서 먹어?)

112004 # 메역 냥.(미역 놔서.)

112004 @ 모뎀츨베기 말고 미역국은 안 먹어.(메밀수제비 말고 미역국은 안 먹어.)

112004 # 게, 메역에 모뎀츨베기 냥. 메역 냥 모뎀츨베기헤영.(그렇지, 미역에 메밀수제비 놔서. 메밀 놔서 메밀수제비해서.)

112004 @ 응, 메칠 동안?(응, 며칠 동안?)

112004 # 건 이녁 므음. 먹구정 허민 뭐 자꾸 자꾸 행 먹고. 우린 모뎀 같안 그때 모뎀 셔나난.(그건 자기 마음. 먹고 싶으면 뭐 자꾸 자꾸 해서 먹고. 우린 메밀 같아서 그때 메밀 있었으니까.)

112004 @ 예.(예.)

112004 # 모뎀쫄은 행 놔뒤. 모뎀쿳루.(메밀쌀은 해서 놔뒤. 메밀가루.)

112004 @ 예, 예.(예, 예.)

112004 # 그런 때 행 먹젠.(그런 때 해서 먹으려고.)

112004 @ 응.(응.)

112004 # 우리 메누리덜토 애기 난 때마다 나가 모뎀쿳루 헛당.(우리 며느리들도 애기 난 때마다 내가 메밀가루 했다가.)

112004 @ 예.(예.)

112004 # 병원에도 강 행 주고. 느랑 헤다 줏어.(병원에도 가서 해서 주고. 늘 헤다 줏어.)

112004 @ 응.(응.)

112004 # 또 속 주로 슯앙.(또 쑥 주로 삶아서.)

112004 @ 아, 속예.(아, 쑥요.)

112004 # 병원에서 나도이 속 슯앙 모욕시키고.(병원에서 나도 쑥 삶아서 목욕 시키고.)

112005 @ 애기?(아기?)

112005 # 응, 속 곱닥허게 행 물리왓당.(응, 쑥 곱게 해서 말렸다가.)

112005 @ 예.(예.)

112005 # 나 자꾸 이디서 행 아저갓주게. 딸 애기 난 때나 메뉴리 애기 난 때나 나가 다 행 아저가.(나 자꾸 여기서 해서 가져갔지. 딸 애기 낳은 때나 며느리 애기 낳은 때나 내가 다 해서 가져가.)

112005 @ 아.(아.)

112005 # 슯앙.(삶아서.)

112005 @ 애기 목욕, 어명도 속으로 목욕허민 좋은가?(아기 목욕, 어머니도 속으로 목욕하면 좋은가?)

112005 # 응.(응.)

112005 @ 아, 좋아마씨?(아, 좋아요?)

112005 # 속으로. 속으로 배도 따듯허게 올리곡 허민 그게 최고라. 속으로.(쑥으로. 쑥으로 배도 따듯하게 올리고 하면 그게 최고야. 쑥으로.)

112005 @ 응.(응.)

112005 # 우린 막 다 경혜연.(우린 아주 다 그렇게 했어.)

112005 @ 응.(응.)

112004 # 경허고 또로 이 젓을 잘 못 맥이는 애기도 그 속헤근에 막 잘 해주민 어명 안 허고.(그리고 또 이 젓을 잘 못 먹이는 애기도 그 쑥해서 아주 잘 해주면 어떻게 안 하고.)

112004 @ 예.(예.)

112004 # 또로 약이 좋아 이젠. 그 옛날에는 그 젓을 이제 뽕뽕허여근앵에 짜지 못허영 막 고통 받주게.(또 약이 좋아 이젠. 그 옛날에는 그 젓을 이제 뽕뽕해서 짜지 못해서 아주 고통 받지.)

112004 @ 예.(예.)

112004 # 견디 이젠 약 좋아부난 경 안 허고.(그런데 이젠 약 좋아버리니까 그렇게 안 하고.)

112004 @ 나도예 애기에 젓을 못 먹여 가지고.(나도요 애기 젓을 못 먹여 가지고.)

112004 # 고통 이신게.(고통 있네.)

112004 @ 안 먹영 막예 안 먹으켄만 얘기가.(안 먹어서 막 안 먹겠다고만 아기가.)

112004 # 게 요새 아기덜 잘 안 먹어.(그러게 요새 아기들 잘 안 먹어.)

112004 @ 쟁예 막 그 짜는 거 잇거든마씨. 그걸로 짜근예.(그래서요 막 그 짜는 게 잇거든요. 그걸로 짜서.)

112004 # 못 견더, 못 견더.(못 견더, 못 견더.)

112004 @ 예.(예.)

112004 # 아파.(아파.)

112004 @ 예.(예.)

112004 # 아기가 짹 짹 먹어 붙어야 돼는디.(아기가 짹 짹 먹어 버려야 되는데.)

112004 @ 계난. 쟁 막 이거 무사 젓 얘기 안 먹으면 땀땀해집니까?(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거 왜 젓 아기 안 먹으면 땀땀해지잖습니까?)

112004 # 응, 견디 그 약을 잘 먹어야지게. 그 약도 약방마다 틀려.(응, 그런데 그 약을 잘 먹어야지. 그 약도 약방마다 달라.)

112004 @ 아, 한약?(아, 한약?)

112004 # 아니, 한약 말앙. 약방에 강.(아니, 한약 말고. 약방에 가서.)

112004 @ 약 나와. 우리 헐 때 그런 거 었어나신디.(약 나와. 우리 할 때 그런 거 없었었는데.)

112004 # 무사 었어게? 우리 큰메누리 얘기 난에 이젠 막 젓 못 짹에 그냥 허연 나가 약방에 간 곱으난 그땐 약도 헤끄만헌 거라라.(왜 없어? 우리 큰며누리 아기 낳아서 이젠 막 젓 못 짜서 그냥 해서 내가 약방에 가서 말하니까 그땐 약도 조그마한 거더라.)

112004 @ 응.(응.)

112004 # 그 약을 먹건 그자 스스로 막 그냥 허연.(그 약을 먹으면 그냥 스스로 막 그냥 해.)

112004 @ 옛날에 할머니넌 어떻 해낫수과?(옛날에 할머니네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12004 # 우린 어떻 안 허고게.(우린 어떻게 안하고.)

112004 @ 아니 경헌 일 이시민 어떻 해낫어, 옛날에?(아니 그런 일 있으면 어떻게 했었어, 옛날에?)

112004 # 경헌 일이 벨로 었인디 경헌 일 당헌 사름은 젓을 버려, 버려. 아파 안 돼여, 안 돼여. 자연으로 이제 그것이 돼야 사름이 어떻 안 허지.(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런 일 당헌 사름은 젓을 버려, 버려. 아파 안 돼, 안 돼. 자연으로 이제 그것이 돼야 사름이 어떻게 안 하지.)

112004 @ 무신거 먹으른 뒤 막걸리 이런 거 먹으면 이런 건 뭐? (무엇 먹으면 뒤 막걸리 이런 거 먹으면 이런 건 뭐?)

112004 # 그거는 이제 그 아기 난 때 말앙.(그거는 이제 그 아기 난 때 말고.)

112004 @ 예.(예.)

112004 # 사름이 으식으식 얼멍 막 그 감기 기운 ㄱ추룩 혈 때 이디가 불편허여. 경허면은 막걸리 뜨뜻허게 데왕 먹으면.(사람이 으씩으씩 추우면서 막 그 감기 기운 처럼 할 때 여기가 불편해. 그러면은 막걸리 따뜻허게 데워서 먹으면.)

112004 @ 예.(예.)

112004 # 종넌 헤낫주게.(종다고 했었지.)

112004 @ 아.(아.)

112004 # 경헌디 그런 사름이 좋지 안 허여. 몸이 아파. 그추룩 안행 고통 아이 받앙 넘은 사름은 편안허고.(그런데 그런 사람이 좋지 않아. 몸이 아파. 그렇게 안 하고 고통 안 받아서 넘은 사름은 편안허고.)

112004 @ 예.(예.)

112004 # 겨난 그때게 약을 이젠 허여나난 이제 나가 우리 셋메누리가 이제 그 애기가 젓을 못 멕였저게, 흔 십오일. 그 애기 키우는 디 들어가 부난. 이제 또 그 약방 좃아간 그 약 사단 멕이난 어떻 안 허연 그냥 아이 멕여도 어떻 안 헤연.(그러니까 그때 약을 이젠 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우리 둘째며느리가 이제 그 애기가 젓을 못 멕였어, 한 십오일. 그 애기 키우는 데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또 그 약방 좃아가서 그 약 사다가 멕이니까 어떻게 안 해서 그냥 아이 멕여도 어떻게 안 했어.)

112004 @ 아.(아.)

112004 # 젓 안 멕여도 어떻 안 허연.(젓 안 멕여도 어떻게 안 했어.)

112004 @ 응.(응.)

112004 # 게고 족은메누리 애기 난 때도 거 사줬어.(그리고 막내며느리 야기 난 때도 그거 사줬어.)

112004 @ 응.(응.)

112004 # 그 약방이 어디사 가신디 지금 못 좃이크라, 나.(그 약방이 어디 갔는지 지금 못 좃았어, 나.)

112004 @ 하하하.(하하하.)

112004 # 아니 막 나가 이 기억해 두주게.(아니 아주 내가 이 기억해 두지.)

112004 @ 응.(응.)

112004 # 보은약국이엔 허영.(보은약국이라고 해서.)

112004 @ 보은약국?(보은약국?)

112004 # 응.(응.)

112004 @ 아, 들어본 거 님은디.(아, 들었던 것 같은데.)

112004 # 건디 그 약국이 이젠 서문통 이서났어이.(그런데 그 약국이 이젠 서문통 있었는디.)

112004 @ 응.(응.)

112004 # 경헛당.(그랬다가.)

112004 @ 봐난 거 다했디 나도.(봤던 거 같은데 나도.)

112004 # 경혜연 이제 서문통 신 때게 그 약을 나가 주로 사단 허엿단 이젠 좇지 못헨 허단 보난 중앙병원 조끗디 오랏더라고, 중앙병원 조끗디.(그래서 이제 서문통 있을때 그 약을 주로 사다가 했다가 이젠 좇지 못해서 하다보니 중앙병원 곁에 왔더라고, 중앙병원 곁에.)

112004 @ 아.(아.)

112004 # 우리 죽은메누리 애기 난 때 중앙병원 조끗디 간 사왔어, 나.(우리 막내며느리 아기 낳은 때 중앙병원 곁에 가서 사왔었어. 나.)

112004 @ 응.(응.)

112004 # 막 소문 들으멍, 보은약국.(막 소문 들으면서, 보은약국.)

112004 @ 응.(응.)

112004 # 그 약방도 틀려고.(그 약방도 다르더라고.)

112004 @ 예.(예.)

112004 # 그 약방에 약이 경 좋안게.(그 약방에 약이 그렇게 좋았다고.)

112002 @ 응. 그 꿈에 애기, 그 무사 태몽 영 곱읍니께, 이젯말로는. 애기 사젠 허민?(응. 그 꿈에 아기, 그 왜 태몽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말로는. 아기 서려고 하면?)

112002 # 필요 없어.(필요 없어.)

112002 @ 필요 없어? 하하하. 그런 거 안 꺾낫수과? 하나도.(필요 없어? 하하하. 그런 거 안 꺾었습니까? 하나도.)

112002 # 필요 없어.(필요 없어.)

112002 @ 필요 없는 거 말고 할머니가 그런 거 꺾보진 안헨?(필요 없는 거 말고 할머니가 그런 거 꺾보지는 않았어?)

112002 # 꺾보도 안 허고.(꺾보지도 았고.)

112002 @ 그믄 저 꿈에 막 이상현 꿈을 꺾지민 꿈자리가.(그러면 저 꿈에 막 이상한 꿈을 꾸면 꿈자리가.)

112002 # 꺾어렌 허주게.(꺾더라고 하지.)

112002 @ 꿈사리, 꿈자리?(‘꿈사리’, 꿈자리?)

112002 # 꿈사리.(‘꿈사리’.)

112002 @ 꿈사리.(‘꿈사리’.)

112002 # 우리 꿈사리엔 곱아. 아이고 어치낙 꿈사리가 꺾어라, 영헨.(우린 ‘꿈사리’라고 말해. 아이고 엇저녁 꿈자리가 꺾더라, 이렇게 해서.)

112002 @ 아. 애기 생긴 거 보곤 무신거엔 곱아? 애기 샷저, 애기 섷저. 뭐엔 곱아마써?(아. 아기 생긴 거 보고는 뭐라고 말해? 아기 섷다, 아기 섷다. 뭐라고 말해요?)

112002 # 애기 초담 살 때?(아기 처음 설 때?)

112002 @ 응, 쥬 처음에 애기 생길 때.(응, 제일 처음에 아기 생길 때.)

112002 # 뭣이엔 허여? 애기 설업저베끼.(뭘라고 해? 아기 선다고 밖에.)

112002 @ 아, 애기 설업저?(아, 아기 선다?)

112002 # 응. 아기 가진 때, 아이고 저 애기 설업구나 영 허주게.(응. 아기 가진 때, 아이고 저 아기 서는구나 이렇게 하지.)

112002 @ 애기 설업구나.(아기 서는구나.)

112002 # 응. 설업젠.(응 선다고.)

112007 @ 응, 무사 저 삼싱할망, 삼승할망?(응, 왜 저 삼싱할머니, 삼싱할머니?)

112007 # 응.(응.)

112007 # 이디선 뭘엔 곶아마씨?(여기서는 뭘라고 말해요?)

112007 # 삼싱할망이주, 무신거라.(삼싱할머니지, 뭘야?)

112007 @ 삼?(삼?)

112007 # 삼싱할망.(삼싱할머니.)

112007 @ 삼싱할망.(삼싱할머니.)

112007 # 삼싱, 삼싱이주게, 삼싱이엔 헤도, 삼싱.(삼싱, 삼싱이지. ‘삼싱’이라고 해도, 삼싱.)

112007 @ 아니.(아니.)

112007 # 신을 말허는 거라, 삼싱.(신을 말하는 거야, 삼싱.)

112007 @ 아는다.(아는데.)

112007 # 응.(응.)

112007 @ 이 선흥서 삼싱이렌 곤는지 삼싱이렌 곤는지.(이 선흥에서 삼싱이라고 말하는지 ‘삼싱’이라고 말하는지.)

112007 # 그냥.(그냥.)

112007 @ 보통으로.(보통으로.)

112007 # 그냥 곶음을 못 해 가지고 삼싱할망, 삼싱할망 영허주마는 삼싱은 맞은 거.(그냥 말하지 못 해 가지고 ‘삼싱할망. 삼싱할망’ 이렇게 하지마는 삼싱이 맞은 거.)

112007 @ 혹시 애기할망이엔은 안 곤고?(혹시 ‘애기할망’이라고는 안 말하고?)

112007 # 아니 애기할망이엔도 곤주마는게.(아니, ‘애기할망’이리고도 말하지마는.)

112007 @ 아니, 애기 받아주는 할망은 뭘엔 곶아?(아니, 아기 받아주는 할머니는 뭘라고 말해?)

112002 # 받아주는 할망 이제, 이제 옛날은 뭘 그냥 할망 출리멍 헤시냐게?(받아주는 할머니 이제, 이제 옛날은 뭘 그냥 할머니 차리면서 했니?)

112007 @ 아, 따로 부르는 거 엇어.(아, 따로 부르는 거 없어.)

112007 # 엇어, 엇어. 산파, 이제 시에 가사 산파여 하간 거.(엇어, 엇어. 산파, 이제 제주시에 가야 산파다 온갖 거.)

112007 @ 건 이젠 말이고게. 옛날에는.(그건 이제 말이고. 옛날에는.)

112007 # 겐디, 옛날은 애기 받아주는 할망도 엇다게. 이녀 어머니나 이제 시어머니나 조꼳디 시면 애기 날 때 보주, 뭐 거 없어.(그런데, 옛날은 아기 받아주는 할머니도 없다. 자기 어머니나 이제 시어머니나 곁에 있으면 아기 낳을 때 보지, 뭐 그거 없어.)

112007 @ 응, 그런 거 엇이.(응, 그런 거 없이.)

112007 # 응, 그런 거 엇이.(응, 그런 거 없이.)

112006 @ 애기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입히는 옷 이수게?(아기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입히는 옷 있잖아요?)

112006 # 옷 무시거?(옷 뭐?)

112006 @ 무신 저고리엔 곱아?(무슨 저고리라고 말해?)

112006 # 붓딛적삼.(배넛저고리.)

112006 @ 붓딛적삼?(배넛저고리.)

112006 # 응.(응.)

112006 @ 붓딛적삼.(배넛저고리.)

112006 # 곱 돌아근에 진진허게시리 허영 입저났저, 붓딛적삼. 우리도 큰아덜 입어난 거 문딱 입단 이 집 지시명 어디레 놔두난 어떻게 해서신지, 엇어.(고름 달아서 길게 해서 입혔었어, 배넛저고리. 우리도 큰아들 입었던 거 모두 입다가 이 집 지으면서 어디에 놔두니까 어떻게야 했는지, 없어.)

112006 @ 붓딛적삼은 어떻 만들어마씨?(배넛저고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112006 # 어떻 멘들야? 그냥게.(어떻게 만들어? 그냥요.)

112006 @ 뭐가 트나? (뭐가 달라?)

112006 # 응?(응?)

112006 @ 어떻 트나, 다른 옷이영?(어떻게 달라, 다른 옷이랑?)

112006 # 아니, 트나지 안 헨다게, 그냥 저고리ㄴ짜, 저고리라.(아니, 다르지 않아, 그냥 저고리처럼, 저고리야.)

112006 @ 응. 저고리디 뭐가 어떻게?(응. 저고리인데 뭐가 어떻게 해?)

112006 # 아무것도 엇어. 애기 저고리 쪼끌락헨 거 이제 풀지 안햐샤게?(아무것도 없어. 아기 저고리 조그마한 거 이제 팔지 않니?)

112006 @ 예.(예.)

112006 # 그거, 그거주게.(그거, 그거지.)

112006 @ 그냥 곱 들양?(그냥 곱 달아서?)

112006 # 응, 영 허리띠영 뒤뜰러근에 메주게.(응, 이렇게 허리띠랑 둘러서 매지.)

112006 @ 그믄 곱이 흐곱 질어 다른 옷에 비해서?(그러면 곱이 조금 길어서 다른 옷에 비해서?)

112006 # 응, 질어, 질어.(응, 길어, 길어.)

112006 @ 혹시 우리 이제 나온 거는 손도 영 바꿉디레 못 나오게 영 막아지게

이렇게 막아지게 영 꼬매 부는디 옛날도 경해났수과?(혹시 우리 이제 나온 거는 손도 이렇게 바깥으로 못 나오게 이렇게 막히게 이렇게 막히게 이렇게 꿰매 버리는데 옛날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112006 # 경 안 허여.(그렇게 안 해.)

112006 @ 경 안 헤여?(그렇게 안 해.)

112006 # 경 안 헤여. 그냥 영 끼와지게.(그렇게 안 해. 그냥 이렇게 끼울 수 있게.)

112006 @ 질게?(길게?)

112006 # 응, 질게 헤영 입져.(응, 길게 해서 입혀.)

112006 @ 질게 그냥 행 입져, 고망 막진 안 허고?(길게 그냥 해서 입혀, 구멍 막지는 앓고?)

112006 # 막지도 안 허고. 뭐 손 시칠 때민 영 걷영 손도 시치고.(막지도 앓고. 뭐 손 씻을 때면 이렇게 걷어서 손도 씻고.)

112006 @ 응.(응.)

112006 # 막양 무시거 허젠?(막아서 뭐라고 하려고?)

112006 @ 게메마씨게. 우리 요새 건 다 경 나와.(그러게요. 우리 요새 것은 다 그렇게 나와.)

112006 # 요새 손 나강 얼굴 굼친다고.(요새는 손 나가서 얼굴 굼힌다고.)

112006 @ 예, 예.(예, 예.)

112006 # 그렇게 험주마는 옛날은.(그러고 있지마는 옛날은.)

112006 @ 옛날은 그런 거 엇어났어.(옛날은 그런 거 없었었어.)

112006 # 소매 흐뎀 질게 허민 손 디물앗닥 걸엇닥 허주.(소매 조금 길게 하면 손 디밀었다가 걸었다가 하지.)

112006 @ 뭐 붓디.(뭐, 배넛.)

112006 # 붓딛적삼.(배넛저고리.)

112006 @ 붓딛적삼에는 이디 뭐?(배넛저고리에는 여기 뭐?)

112006 # 동전 아이 돌아, 짓만 돌아.(동정 안 달아, 짓만 달아.)

112006 @ 아, 짓만 돌아?(아, 짓만 달아?)

112006 # 응.(응.)

112006 @ 동전 안 들양 짓은 돌아야 웨여.(동정 안 달아서 짓을 달아야 돼.)

112006 # 짓은 돌아사주게.(짓은 달아야지.)

112006 @ 응.(응.)

112006 # 적삼에도 짓은 돌아야 웨여.(적삼에도 짓은 달아야 돼.)

112006 @ 응.(응.)

112006 # 앞섰허고 다 짓.(앞섰하고 다 짓.)

112005 @ 애기 목욕은 메칠 지나민 시키는 거마씨?(아기 목욕은 며칠 지나면 시키는 거예요?)

112005 # 애기 목욕은 갓 난 때 시켜야.(아기 목욕은 갓 난 때 시켜야.)

112005 @ 아, 갓 난 때 시켜야.(아, 갓 난 때 시켜야.)

112005 # 옛날도 갓 난 때 시켜, 애기 목욕은.(옛날도 갓 난 때 시켜, 아기 목욕은.)

112005 @ 아.(아.)

112005 # 물 데왕. 우리도 갓 난 때 시켰.(물 데워서. 우리도 갓 난 때 시켰어.)

112005 @ 처음 갓 난 때 시키고 그 다음엔?(처음 갓 난 때 시키고 그 다음엔?)

112005 # 그 다음 매일 시켜야지.(그 다음 매일 시켜야지.)

112005 @ 응. 이제 말고 옛날에.(응. 이제 말고 옛날에.)

112005 # 게메, 옛날에도 우리도 일주일 동안 매일 시켰다고, 매일.(그러게, 옛날에도 우리도 일주일 동안 매일 시켰다고, 매일.)

112005 @ 아.(아.)

112005 # 물 데왕.(물 데워서.)

112005 @ 그른 어명은 며칠 동안 목욕하지 말렌 허는 거 이수게?(그러면 어머니는 며칠 동안 목욕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12005 # 에에, 목욕해지민 좋주. 그날만 못허주.(에에, 목욕할 수 있으면 좋지. 그날만 못하지.)

112005 @ 그날만.(그날만.)

112005 # 응. 뒷날 사흘 돼민, 뒷날도 해도 돼고. 사흘 돼민 허곡.(응. 뒷날 사흘 되면, 뒷날도 해도 되고. 사흘 되면 하고.)

112005 @ 거난 보통 다음날도 허는디 보통 좋은 건 한 삼 일 동안 안 헛당은에 허렌 허는 거? 옛날도 경혜낫수과?(그러니까 보통 다음날도 하는데 보통 좋은 건 한 삼 일 동안 안 했다가 하라고 하는 거? 옛날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112005 # 응. 옛날은 경해도 이젠 그렇지 안 해도.(응. 옛날은 그래도 이젠 그렇지 않아도.)

112005 @ 응.(응.)

112005 # 속은 또 쓰고, 속물.(속은 또 쓰고, 속물.)

112005 @ 속물?(속물?)

112005 # 응.(응.)

112005 @ 속물로 헤근에.(속물로 해서.)

112005 # 속물로 허영 머리도 금곡 다 모욕을 허여.(속물로 해서 머리도 감고 다 목욕을 해.)

112005 @ 아, 애기 난 날만 못허고 그 다음날부터는?(아, 아기 낳은 날만 못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112005 # 응, 혼 일주일동안 그 속으로 모욕해볼면.(응, 한 일주일동안 그 속으로 목욕해버리면.)

112005 @ 예.(예.)

112005 # 깨끗허여.(깨끗해.)
 112005 @ 응.(응.)
 112005 # 애기도 깨끗허고.(아기도 깨끗하고.)
 112005 @ 애기도 속으로 허고?(아기도 속으로 하고.)
 112005 # 응. 어명도 허고.(응. 어머니도 하고.)
 112005 @ 어명도 속으로 허고, 응.(어머니도 속으로 하고, 응.)
 112007 @ 혹시 할망상은 어떻 허는 거마씨?(혹시 ‘할망상’은 어떻게 하는 거에
 요?)
 112007 # 아, 할망상은이 낫 나민 이제 고맙수뎡 헤영 할마님신디, 불도할마님
 신디 치선메¹⁹⁴엔 허영 올려.(아, ‘할망상’은 갓 나면 이제 고맙다고 해서 할머님께,
 불도할머님께 ‘치선메’라고 해서 올려.)
 112007 @ 응.(응.)
 112007 # 경행 또로 일뵈 뵈민, 사흘 뵈도 허영 올리고 일뵈에도 행 올리고. 경
 헤여.(그렇게 해서 또 이레 되면, 사흘 뵈도 해서 올리고 이레에도 해서 올리고. 그
 령게 해.)
 112007 @ 언제까지?(언제까지?)
 112007 # 일주일까지.(일주일까지.)
 112007 @ 아, 일주일까지.(아, 일주일까지.)
 112007 # 응.(응.)
 112007 @ 그른 일주일까지 매일 매일 허는 게 아니라?(그러면 일주일까지 맨날
 맨날 하는 게 아니라?)
 112007 # 응, 매일 매일 아니허고.(응, 맨날 맨날 안 하고?)
 112007 @ 그던 무시거 올려?(거긴 뵈 올려?)
 112007 # 무시거 올리느니게? 메허영 세 기에, 세 기 올리고.(뵈 올리니? 밥해서
 세 기에, 세 기 올리고.)
 112007 @ 세 기가 뵈?(세 기가 뵈?)
 112007 # 세 사발.(세 사발.)
 112007 @ 예.(예.)
 112007 # 세 기.(세 기.)
 112007 @ 아, 세 개.(아, 세 개.)
 112007 # 응, 세 개.(응, 세 개.)
 112007 @ 세 기 올리고.(세 기 올리고.)
 112007 # 채소, 메역, 메역채.(채소, 미역, 미역채.)
 112007 @ 메 헤영 세 개 허고.(메 해서 세 개 하고.)
 112007 # 메역채 헤영 올리고.(미역채 해서 올리고.)

194) ‘치선메’는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을 위한 할망상에 올리는 메이다.

112007 @ 메역채 허고. 채소는 메역채 하나만?(미역채 하고. 채소는 미역채 하나만?)

112007 # 응, 메역채 하나만.(응, 미역채 하나만.)

112007 @ 국은 안 허여?(국은 안 해?)

112007 # 안 허여.(안 해.)

112007 @ 밥허고 메역채.(밥하고 미역채.)

112007 # 응.(응.)

112007 @ 거뿐?(그거뿐?)

112007 # 거뿐. 또 것도 막 정성허영 허는 사람은 곳 나민 치선메엔 허영 올리고.(그거뿐. 또 그것도 막 정성해서 하는 사람은 갓 나면 ‘치선메’라고 해서 올리고.)

112007 @ 치선메.(‘치선메’.)

112007 # 응. 또 못허는 사람이 해주. 겨민 사흘허고 일뤼엔 허여.(응. 또 못하는 사람이 많지. 그러면 사흘하고 이레라고 해.)

112007 @ 사흘에 한 번, 그다음 일뤼에 한 번.(사흘에 한 번, 그다음 이레에 한 번.)

112007 # 응. 일뤼에.(응. 이레에.)

112007 @ 곧 날 때도 한 번.(곧 날 때도 한 번.)

112007 # 응.(응.)

112007 @ 그른 세 번 총?(그러면 세 번 총?)

112007 # 세 번.(세 번.)

112007 @ 아, 할망상은 얘기 나쁜 막 신경 쓰는 딴 세 번 허는구나예?(아, ‘할망상’은 아기 낳으면 아주 신경 쓰는 데는 세 번 하는군요?)

112007 # 막 신경 썩 정성허는 집이는.(아주 신경 써서 정성 드리는 집에는.)

112007 @ 정성허는 집이는.(정성드리는 집에는.)

112007 # 경허고 안 허는 집인 못헿 내불고.(그리고 안 하는 집에는 못해서 내버리고.)

112007 @ 응.(응.)

112007 # 못허고, 경헿주게.(못하고, 그랬지.)

112007 @ 그건 어디, 부엌, 정지에?(그건 어디, 부엌, 부엌에?)

112007 # 어이, 구들에 잘 모셔야 허주. 부엌에 어디.(어이, 구들에 잘 모셔야 하지. 부엌에 어디.)

112007 @ 구들에?(구들에?)

112007 # 부엌엔 조왕할마님 나시 잘허고. 불도할마님 나신. 이 세상 개편할 때 이 제주도 법은 이제 불도할마님이 아기들을 잘 키워준덴 해서.(부엌엔 조왕할머님 깃 잘하고. 불도할머님 깃은. 이 세상 개편할 때 이 제주도 법은 이제 불도할머님이 아기들을 잘 키워준다고 해서.)

112007 @ 응.(응.)

112007 # 천지신명에서 나는 거주, 거 사름이 나는 거라도. 거 보통으로 경.(천지신명에서 나는 거지, 그거 사름이 나는 거라도. 그거 보통으로 그렇게.)

112007 @ 응.(응.)

112007 # 애기도 자연으로 거 법이 그렇게 마련돼난 나는 거주. 당추.(아기도 자연을 그거 법이 그렇게 마련되니까 나는 거지. 당최.)

112007 @ 응.(응.)

112007 # 경행 잘 구들에 상 출령 잘 모사.(그렇게 해서 잘 구들에 상 차려서 잘 모셔.)

112007 @ 구들에 상 출령.(구들에 상 차려서.)

112007 # 옛날 법이주게, 것도게, 옛날 법.(옛날 법이지, 그것도, 옛날 법.)

112007 @ 출령 헛당 치워 붙어, 아니민 그냥 영 놔 뒤?(차려서 했다가 치워 버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놔 뒤?)

112007 # 치왕 먹곡 허주게.(치워서 먹고 하지.)

112007 @ 아, 치왕 헛당, 올렛당 먹고.(아, 치워서 했다가, 올렸다가 먹고.)

112007 # 응.(응.)

112008 @ 애기 태어나서 머리 안 땀이고 있다가 나중에 까꿍니께?(아기 태어나서 머리 안 깎고 있다가 나중에 깎잖습니까?)

112008 # 아니, 막음.(아니, 마음.)

112008 @ 그거 무신 머리엔 글야?(그거 무슨 머리라고 말해?)

112008 # 무신 머리?(무슨 머리?)

112008 @ 배속엿머리?(배넛머리?)

112008 # 배안넛머리엔 허주게.(‘배안넛머리’라고 하지.)

112008 @ 배안넛머리.(‘배안넛머리’.)

112008 # 응.(응.)

112008 @ 우린 배넛머리, 배넛머리 허는다.(우린 배넛머리, 배넛머리 하는데.)

112008 # 응, 배안넛머리.(응, ‘배안넛머리’.)

112008 @ 배안넛머리.(배넛머리.)

112008 # 배안넛머리도 아이 가깎구나. 영허고.(배넛머리도 안 깎았구나. 이렇게 하고.)

112008 @ 응.(응.)

112008 # 경헛주.(그랬지.)

112008 @ 그믐 애기가, 아, 이 배안넛머리는 언제 땀은 거짜?(그러면 아기가, 아, 이 배넛머리는 언제 깎는 겁니까?)

112008 # 요새에 배안넛머리 가깎서? 그냥 키워주.(요새에 배넛머리 깎고 있어? 그냥 기르지.)

112008 @ 아, 옛날에게.(아, 옛날에.)

112008 # 옛날 뭐 초과일날 가끄민 머리 좋넨헨 초과일날 가깝주.(옛날 뭐 초과일날 깎으면 머리 좋다고 해서 초과일날 깎았지.)

112008 @ 아.(아.)

112008 # 스월 팔일날.(사월 팔일날.)

112008 @ 게믄 초과일이 가깝지 안허민.(그러면 초과일이 가깝지 않으면.)

112008 # 아니, 가까와. 아무 때 돌아와도 돌아오주.(아니, 가까워. 아무 때 돌아와도 돌아오지.)

112008 @ 아, 경해도게. 거난 뭐 한에 음력 오월에 난 얘기라.(아, 그래도. 그러니까 뭐 한 음력 오월에 난 아기가.)

112008 # 응.(응.)

112008 @ 그믄 일 년동안 안 잘라?(그러면 일 년동안 안 잘라?)

112008 # 아니 그땐 쫄르곡게. 경허단 두 번 까끌 때도 초과일에 가까도 뉘고게.(아니 그땐 자르고. 그러다가 두 번 깎을 때도 초과일에 깎아도 되고.)

112008 @ 아, 두 번 까끌 때도 초과일에 땀민. 초과일에 땀민?(아, 두 번 깎을 때도 초과일에 깎으면?)

112008 # 뭐, 좋텐허난 땀은 거주 뭐, 초과일에.(뭐, 좋다고 하니까 깎는 거지 뭐, 초과일에.)

112008 @ 누게가 깎아 줘니까?(누가 깎아 줘니까?)

112008 # 메, 아무라도 이발소에 강 가끄나 뭐 이녁으로 가끄나 다 가깝주게.(‘메’, 아무라도 이발소에 가서 깎거나 뭐 자기대로 깎거나 다 깎았지.)

112008 @ 이녁으론 어떻 까까?(자기대로는 어떻게 깎아?)

112008 # 까깝주게, 옛날이사게.(깎았지, 옛날이야.)

112008 @ 뽁뽁 밀어, 아니민 그냥 ㄱ새로 쫄라?(뽁뽁 밀어, 아니면 그냥 가위로 잘라?)

112008 # 흐뎡 ㄱ새로도 ㄱ곡게. 경 해줘낫주게.(조금 가위로도 자르고. 그렇게 해줬었지.)

112007 @ 게믄 얘기가 태어나서 일 년이 뉘민 지금은 뭐 돌잔치 막 영 허는디 옛날은 뉘엔 곶아난마씨?(그러면 얘기 태어나서 일 년이 되면 지금은 뭐 돌잔치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은 뉘라고 말했었어?)

112007 # 옛날에도 돌잔치주. 무시거엔 돌 돌아오난.(옛날에도 돌잔치지. 뉘라고 돌 돌아오니까.)

112007 @ 돌 돌아와, 돛 돌아와?(돌 돌아와, ‘돛’ 돌아와?)

112007 # 돌이주게. 돌.(돌이지. 돌.)

112007 @ 아, 돌. 돛 아니고예?(아, 돌. ‘돛’ 아니고요?)

112007 # 돛이 뉘고게? 돌게.(‘돛’이 뉘니? 돌.)

112007 @ 아니 돛 돌아왔저 영 ㄱ는디 경 안 곶아반예.(아니 ‘돛’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안 말해봤어.)

112007 # 돌 돌아완.(돌 돌아왔어.)
112007 @ 그냥 돌.(그냥 돌.)
112007 # 백일도 허고.(백일도 하고.)
112007 @ 백일도 해놔수과?(백일도 했었습니까?)
112007 # 허주게, 백일.(하지, 백일.)
112007 @ 백일엔 무신거 허여?(백일에는 뭐 해?)
112007 # 그대로. 그대로 할마님상 출려냥.(그대로. 그대로 할머님상 차려놔서.)
112007 @ 아, 할마님상 출령.(아, 할머님상 차려서.)
112007 # 응.(응.)
112007 @ 그것도 밥 세 개?(그것도 밥 세 개?)
112007 # 응.(응.)
112007 @ 메역채영.(미역채랑.)
112007 # 응, 메역채.(응, 미역채.)
112007 @ 다른 거 허는 건 엇고?(다른 거 하는 것은 없고?)
112007 # 다른 거 썰이영 돈도 올리꼭게.(다른 거 썰이랑 돈도 올리고.)
112007 @ 썰이영 돈, 백일에도?(썰이랑 돈, 백일에도.)
112007 # 응, 백일에도.(응, 백일에도.)
112007 @ 응.(응.)
112007 # 실도 올리고.(실도 올리고.)
112007 @ 실도 올리고.(실도 올리고.)
112007 # 돈도 올리고, 썰 거렁 썰도 올리고, 물도 올리고.(돈도 올리고, 썰 떠서 썰도 올리고, 물도 올리고.)
112007 @ 하하하.(하하하.)
112007 # 경허엿주게.(그렇게 했지.)
112007 @ 백일상에?(백일상에?)
112007 # 응.(응.)
112007 @ 떡은 안 허여?(떡은 안 해?)
112007 # 떡 해지민 좋주마는 떡을 경 자꾸 헤져?(떡 할 수 있으면 좋지마는 떡을 그렇게 자주 할 수 있어?)
112007 @ 게믄 돌에는?(그러면 돌에는?)
112007 # 정성껏. 돌에는 떡도 해야지.(정성껏. 돌에는 떡도 해야지.)
112007 @ 무신 떡, 애기떡은 무신 떡 험니까?(무슨 떡, 아기떡은 무슨 떡 합니까?)
112007 # 떡, 흰, 저 돌레떡.(떡, 흰, 저 도래떡.)
112007 @ 아, 돌레떡. 애기 돌 험 때도?(아, 도래떡. 애기 돌 할 때도?)
112007 # 응, 돌레떡 헤영 올려. 곱닥허게 헤영케시리 헤영.(응, 도래떡 해서 올려. 곱게 하얗게끔 해서.)

112007 @ 혜영께.(하얗게.)

112007 # 옛날 소금도 아이 놓고 그냥 곱닥허게 더 맛좋아 그 떡.(옛날 소금도 안 놓고 그냥 곱게 더 맛있어 그 떡.)

112007 @ 응.(응.)

112007 # 우리 떡 이서, 그 떡.(우리 떡 이서, 그 떡.)

112007 @ 어디 저 어디 갈 때 허는 거영.(어디 저 어디 갈 때 하는 거랑.)

112007 # 응, 일뻬.(응, 이레.)

112007 @ 당에 갈 때 허는 거, 비슷허게?(당에 갈 때 하는 거, 비슷허게?)

112007 # 응, 비슷허게 그추룩 허여.(응, 비슷허게 그처럼 해.)

112007 @ 응.(응.)

112007 # 옛날에 소금도 아이 놓꼭 허영 곱닥허게 할마님상에는 우선 그 소금도 아이 낱 떡해여, 올려.(옛날에 소금도 안 놓고 해서 곱게 ‘할머님상’에는 우선 그 소금도 안 놔서 떡해, 올려.)

112007 @ 응, 돌잔치 혈, 뭐 돌잔치는 옛날에 엇엇일 거주마는 돌 웨민 뭐 다른 거 할마님상 출리는 거 말고 다른 건 엇어낫수과?(응, 돌잔치 할. 뭐 돌잔치는 옛날에 없었을 거주마는 돌 되면 뭐 다른 거 할머니상 차리는 거 말고 다른 건 없었습니까?)

112007 # 엇어. 요새 ㄱ치 돌잔친 안 해도 대부분은 돌에 밥허영 떡곡 할마님상 출려.(없어. 요새처럼 돌잔친 안 해도 대부분 돌에 밥해서 먹고 할머니상 차려.)

112007 @ 응.(응.)

112007 # 옛날도.(옛날도.)

112007 @ 옛날도예.(옛날도요.)

112007 # 정성허는 집인. 우리도 허여난.(정성 드리는 집은, 우리도 했었어.)

112007 @ 응, 뭐 어디 친척들안티 주고 영은 안 허고?(응, 뭐 어디 친척들에게 주고 이렇게는 안 하고?)

112007 # 그런 건 엇고게.(그런 건 없고.)

112007 @ 그런 건 엇고, 그냥예. 식구들끼리 밥 먹으멍 할마님상 찰령, 출령.(그런 건 없고, 그냥요. 식구들끼리 밥 먹으면서 할머니상 차려서, 차려서.)

112007 # 응, 돌 돌아왔저. 아기 돌이여 허멍, 경헛주.(응 돌 돌아왔어, 아기 돌 이야 하면서, 그랬지.)

112007 @ 아.(아.)

112007 # 요새 ㄱ치 돌잔치, 요작이 돌잔치 먹으레 가 왓저.(요새처럼 돌잔치, 요 전에 돌잔치 먹으러 갔다 왔어.)

112007 @ 계난 요샌 다들예 돌잔치.(그러니까 요샌 다들요 돌잔치.)

112007 # 우리 손지. 저 큰딸에 딸, 손지 난.(우리 손주. 저 큰딸에 딸, 손주 낳았어.)

112007 @ 증손지?(중손주?)

112007 # 응.(응.)
112007 @ 아.(아.)
112007 # 큰딸 손지.(큰딸 손주.)
112007 @ 큰딸 손지.(큰딸 손주.)
112007 # 돌잔치 했주게.(돌잔치 했지.)
112007 @ 응.(응.)
112009 @ 계민 옛날엔 애기 아프민 어떻게난마씨? (그러면 옛날엔 아기 아프민 어떻게 했었어요?)
112009 # 어떻게여.(어떻게 해?)
112009 @ 병원도 엇고, 약도 엇고.(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112009 # 병원도 엇이난 할마님신디 간 빌었주.(병원도 없으니까 할머님께 가서 빌었지.)
112009 @ 할마님신디 강예.(할머님께 가세요.)
112009 # 응, 상 출러냥 낮게 해줍센.(응, 상 차려놔서 낮게 해 달라고.)
112009 @ 집에서 빌어?(집에서 빌어?)
112009 # 집에서.(집에서.)
112009 @ 어디 강은에 빌어?(어디 가서 빌어?)
112009 # 어디 강 빌어? 집에서 빌주, 집에서. 경험시민 나시민 아이고 빈 덕분에 낮앗구나 경허곡. 낮임도 허주게.(어디 가서 빌어? 집에서 빌지,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으면 아이고 빈 덕분에 나왔구나 그렇게 하고. 낮기도 하지.)
112009 @ 예.(예.)
112009 @ 경 애기 때, 애기 때 젤 많이 아프는 게 어떤 거마씨? 하영 아광 흐뵂 겹나는 거?(그렇게 해서 애기 때, 애기 때 제일 많이 아픈 게 어떤 거예요? 많이 아파서 조금 겹나는 거?)
112009 # 겹남은 무사 겹나?(겹나는 것은 왜 겹나?)
112009 @ 아니, 애기 병 중에서.(아니, 아기 병 중에서.)
112009 # 경험당 감기 걸령 흐뵂 허주, 경 아광 살아지느냐? 어느 요새 ㄹ치 병원 멩겹시민 살지도 못한다.(그렇게 했다가 감기 걸려서 조금 하지, 그렇게 아파서 살 수 있니? 어느 요새처럼 병원 다니고 있으면 살지도 못한다.)
112009 @ 뭐 흥역이나 천연두는?(뭐 흥역이나 천연두는?)
112009 # 아, 그런 때는 멩심허여야 돼여.(아, 그런 때는 멩심해야 돼.)
112009 @ 건 무신거엔 허여, 마누라?(그건 뭐라고 해, 마마?)
112009 # 응. 거 멩심해야 돼여.(응. 그거 멩심해야 돼.)
112009 @ 마누라엔 곶아? 우린 옛날에는.(마마라고 말해? 우린 옛날에는.)
112009 # 응, 경 곶아.(응, 그렇게 말해.)
112009 @ 옛날에 마누라엔 곶아난? 마누라 험 땀 어떻게야 돼여?(옛날에 마마라고 말했었어? 마마할 땀 어떻게 해야 돼?)

112009 # 어떻허여, 정성해야주게.(어떻게 해, 정성드려야지.)
112009 @ 정성은 어떻행 정성허는 거파?(정성은 어떻게 해서 드리는 겁니까?)
112009 # 부정헌 사름은 못 들어오게.(부정한 사름은 못 들어오게.)
112009 @ 집이?(집에?)
112009 # 응, 어디 상가에 ㄴ쁜 디 가온 사름.(응, 어디 상가에 같은 데 갔다 온 사름.)
112009 @ 응.(응.)
112009 # 또 돼지고기 먹지 말고.(또 돼지고기 먹지 말고.)
112009 @ 아.(아.)
112009 # 경헤야 웨여.(그래야 돼.)
112009 @ 바닷고기도 굶지 말렌.(바닷고기도 굶지 말라고.)
112009 # 어, 것도 굶지도 안 헤여, 냄새 나는 거. 깨끗허게 정성헤야 웨여.(어, 그것도 굶지도 았아, 냄새 나는 거. 깨끗허게 정성드려야 돼.)
112009 @ 그게 마누라?(그게 마마?)
112009 # 응.(응.)
112009 @ 마누라 헐 때는 어떻 다른 거는?(마마할 때는 어떻게 다른 것은?)
112009 # 할마님 다 직허여 줘, 어떻 안 허여.(할머님 다 지켜 줘, 어떻게 안 해.)
112009 @ 어떻 안 허여. 이런 디 막 곰보웨고 허는.(어떻게 안 해. 이룬데 막 곰보되고 하는.)
112009 # 어떻 안 헤여.(어떻게 안 해.)
112009 @ 할머니넨 애기가 속 썩이지 안헿 컷구나게.(할머니네는 아기가 속 썩이지 았아서 컷구나.)
112009 # 다 껴졌지 경헤도게, 옛날이니까.(다 껴졌지 그래도, 옛날이니까.)
112009 @ 기지예.(그렇지요.)
112009 # 응.(응.)
112009 @ 막 열 나민 어떻?(막 열이 나면 어떻게?)
112009 # 열 나도 그대로 껴지주, 어떻 안 헤여.(열 나도 그대로 내리지, 어떻게 안 해.)
112009 @ 뤼 특별허게 어떻 헤주거나 이런 거 았고?(뤼 특별허게 어떻게 헤주거나 이런 거 았고?)
112009 # 응, 았고. 우린 옛날 애기덜 흑에 키와세, 흑에.(응, 았고. 우린 옛날 애기들 흑에 키웠잖아, 흑에.)
112009 @ 예, 맞아.(예, 맞아.)
112009 # 질에도 뤼 나닝구도 혼 번 빨도 안헿 입정 거멍게 헤도 애기덜이 슬성이 하도 히어부난.(길에도 뤼 런닝도 한 번 빨지도 았아서 입혀서 거멍게 헤도 애기들 살성이 하도 희어버리니까.)

112009 @ 응.(응.)
 112009 # 히영혜낫어.(하했었어.)
 112009 @ 응.(응.)
 112010 @ 혹시 얘기 낫 때, 얘기 가진 사름은 영 허민 안 좋은다 영허는 그런 거 엇수과?(혹시 아기 낫 때, 아기 가진 사름은 이렇게 하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112010 # 엇어.(없어.)
 112010 @ 얘기 가진 사름은 무신것도 안 쥬다, 뭐 허민 안 좋다 영 허는 거.(아기 가진 사름은 무엇도 안 쥬다, 뭐 하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
 112010 # 엇어. 화재 난 디 ㄴ똥 디 가지 말렌 해.(없어. 화재 난 데 같은 데 가지 말라고 해.)
 112010 @ 어디 가지 말렌?(어디 가지 말라고?)
 112010 # 화재 난 디 ㄴ똥 디 가지 말렌 허여.(화재 난 데 같은 데 가지 말라고 해.)
 112010 @ 아, 화재 난 디 ㄴ똥 디.(아, 화재 난 데 같은 데.)
 112010 # 얘기 가진 사름은.(아기 가진 사름은.)
 112010 @ 얘기 가진 사름은. 우린 그런 것도 이서 나신디, 밀가루 음식 밀가루 먹으면 허영헌 얘기 난다.(아기 가진 사름은. 우린 그런 것도 있었었는데, 밀가루 음식 밀가루 먹으면 하얀 아기 난다.)
 112010 # 예.(예.)
 112010 @ 그런 거 엇어?(그런 거 없어?)
 112010 # 얘기광 먹은 게 뭐 것이 서꺼지나?(아기랑 먹은 게 뭐 그것이 섞이나?)
 112010 @ 계난.(그러니까.)
 112010 # 거 참 터문엇인 말이라 그거.(거 참 터무니없는 말이야 그거.)
 112010 @ 예, 그런 말 이서낫지예? 엇어?(예, 그런 말 있었었지요? 없어?)
 112010 # 건 무식헌 소리.(그건 무식한 소리.)
 112010 @ 무식헌 소리.(무식한 소리.)
 112010 # 무식헌 소리. 아기 신 디광 것 먹은 게 뭘 상관이 있나? 생각을 해 봐.(무식한 소리. 아기 있는 데와 먹은 게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을 해 봐.)
 112010 @ 계메.(그러게.)
 112010 # 경험시민 아기 똥에 버물영 살지도 못헐 건디.(그리고 있으면 아기 똥에 더럽혀져서 살지도 못헐 건데.)
 112010 @ 하하하.(하하하.)
 112010 # 거 아니, 아니. 건 절대 아니.(그거 아니, 아니. 그건 절대 아니.)

혼례

112011 @ 옛날에 할머니 결혼할 때 어땠 행 결혼헐디가?(옛날에 할머니 결혼할 때 어떻게 해서 결혼하셨습니까?)

112011 # 어땠 행 허여? 족두리 씨엇주게, 우린.(어떻게 해서 해? 족두리 썼지, 우린.)

112011 @ 예.(예.)

112011 # 장옷 입고.(장옷 입고.)

112011 @ 장옷 입고 또?(장옷 입고 또?)

112011 # 가메 탄.(가마 탔어.)

112011 @ 가메 탄. 가메엔 그냥 골아마씨? 다른 말로 안 골아, 가메? 가메 사름이 들러? 들에 허는 거?(가마 타어. 가마라고 그냥 말해요? 다른 말로 안 말해, 가마? 가마 사람이 들어? 말에 하는 거?)

112011 # 사름이 들러.(사람이 들어.)

112011 @ 양착에 두 명씩(양쪽에 두 명씩.)

112011 # 응. 두 사름씩 너이.(응, 두 사람씩 넷.)

112011 @ 너이가 들러? 앞이 두이.(넷이 들어? 앞에 뒤에.)

112011 # 우리 시절 끝나니까 거 엇어졌어.(우리 시절 끝나니까 그거 없어졌어.)

112011 @ 옛날에 할머니 가메 탕은에 어땠 행은에 결혼헐디가?(옛날에 할머니 가마 타서 어떻게 해서 결혼하셨습니까?)

112011 # 가메 탄 갓주게, 어땠허여?(가마 타서 갓지, 어떻게 해?)

112011 @ 그 가메 탄 결혼허기 전인 어땠, 그 결혼허는 전날.(그 가마 타서 결혼하기 전엔 어떻게, 그 결혼하는 전날.)

112011 # 어땠허여, 전날.(어떻게 해, 전날.)

112011 @ 어땠, 저. 도새기 잡는 날부터 허카?(어떻게, 저 돼지 잡는 날부터 할까?)

112011 # 도새기 잡안에 뭐 아싯날도 잔치허곡.(돼지 잡아서 뭐 전날도 잔치하고.)

112011 @ 응.(응.)

112011 # 잔칫날도 허곡.(잔칫날도 하고.)

112011 @ 응.(응.)

112011 # 이제 뒷날은 사둔열맹¹⁹⁵⁾ 가고. 침 복잡헐주.(이제 뒷날은 사둔열맹 가고. 침 복잡헐지.)

112011 @ 게문 저 차례차례예.(그러면 저 차례차례요.)

112011 # 응.(응.)

112013 @ 처음에 막펜지¹⁹⁶⁾? 중매?(처음에 ‘막펜지’? 중매?)

195) ‘사둔열맹’은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의 가까운 친척들이 한 자리에 앉아 서로 인사하는 절차이다.

196) ‘막펜지’는 신랑 쪽 집안에서 궁합이 맞으면 결혼할 날을 택일하여 신부 집에 정식으로 통보하는

112013 # 중매.(중매.)

112013 @ 중신?(중신?)

112013 # 잔치혈 때 중매허영 잔치혈 땀 또로 잔치허쿠덴 허영 그 저 스주, 스주 아저갓당.(잔치할 때 중매해서 잔치할 땀 또 잔치하겠다고 해서 그 저 사주, 사주 가져갔다.)

112013 @ 응.(응.)

112013 # 잔치허켄 잔치 택일 가져 오주게.(잔치하겠다고 잔치 택일 가져오지.)

112013 @ 그게 막펜지?(그게 ‘막펜지’?)

112013 # 응, 것도 요 중간에사 이제 그 막펜지 아정 오랑 사둔덜끼리 우리도 우리 아이덜 풀 땀 다 헤연.(응, 그것도 요 중간에야 이제 그 ‘막펜지’ 가져 와서 사둔들끼리 우리도 우리 아이들 팔 땀 다 했었어.)

112013 @ 응.(응.)

112013 # 메누리 혈 때도 이젠 메누리 집이 저 잔치허쿠덴 갈 때민 강 먹영 오곡 이젠 딸 풀 땀 또 그 새서방칩이서 왕 잔치행 먹고.(머느리 할 때도 이젠 머느리 집에 저 잔치하겠다고 갈 때면 가서 먹어서 오고 이젠 딸 팔 땀 또 그 새신랑 집에서 와서 잔치해서 먹고.)

112013 @ 응.(응.)

112013 # 것이 잔치라.(그것이 잔치야.)

112013 @ 아니 옛날에 할머니네, 할머니 결혼할 때.(아니 옛날에 할머니네, 할머니 결혼할 때.)

112013 # 응.(응.)

112012 @ 할아버지영 허젠 허난 누게가 중매 사수과?(할아버지랑 하려고 하니까 누가 중매 셧습니까?)

112012 # 뭐 누게 중매 누게 산 거 알아지크라?(뭐 누가 중매 누가 선 거 알 수 있겠어?)

112012 @ 어떻 행 결혼헙디가?(어떻게 해서 결혼하셧습니까?)

112012 # 어떻허여? 하르방덜끼리 결혼허연 잔치헙엇주.(어떻게 해? 할아버지들끼리 결혼해서 잔치했지.)

112012 @ 아버지가 저 집이 결혼허라 영 허난 그냥 결혼헨?(아버지가 저 집에 결혼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결혼했어?)

112012 # 경.(그렇게.)

112012 @ 얼굴도 몰르고? 이 동네 아니? 혼 동네.(얼굴도 몰르고? 이 동네 아니? 한 동네.)

112012 # 이 동네라도 경 그 시절에 경 혼디 만나보도 안 허고.(이 동네라도 그렇게 그 시절에 그렇게 함께 만나보지도 았고.)

112012 @ 혼디 만나보도 안 허고?(함께 만나보지도 았고?)

서식으로, 일종의 약혼 의례로 간주되기도 한다.

112012 # 만나보도 안 혀고.(만나보지도 않고.)

112012 @ 경 혜신디. 결혼할 거렌 허난 어떻?(그랬는데. 결혼할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112012 # 그 뭐 그자 혀는 냥 헛지, 뭐. 어른덜 허는 냥.(그 뭐 그냥 하는 대로 헛지, 뭐. 어른들 하는 대로.)

112012 @ 어른덜 허렌 허난 그냥?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어른들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112012 # 응.(응.)

112012 @ 결혼허기 전이 혼 번 만나기라도 헐낫수과?(결혼하기 전에 한번 만나기라도 헐었습니까?)

112012 # 아이 만남.(안 만났어.)

112012 @ 아이 만남. 하하하.(안 만났어. 하하하.)

112012 @ 하르방네끼리 손지, 손녀 결혼시키겐 허연에 헐 거?(할아버지끼리 손자, 손녀 결혼시키겠다고 해서 한 거?)

112012 # 경혜연, 경혜연. 뭐 잔칫날이 언제산디 몰르고.(그렇게 헐어, 그렇게 헐어. 뭐 잔칫날이 언제인지 몰르고.)

112012 @ 응.(응.)

112012 # 침, 우리 혼 동네서 난 컷젠 헤도 경 가깝게 지내도 안 헐나고. 혼 동넨디 이 하르방은 저 알동네 흑교 저꿏되고, 우린 요 중간에 살안. 또 우리광 막 천지차이주. 우리 하르방넨 막 글선생 혀고 스뭏.(참, 우리 한 동네서 나서 컷다고 헤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도 았았었고. 한 동넨테 이 할아버지는 저 아랫동네 학교 곁이고, 우린 요 중간에 살았어. 또 우리랑 아주 천지차이지. 우리 할아버지네는 막 글선생 하고 사뭏.)

112012 @ 아까 할아버지네도 훈장이라낫젠 허멍마씨?(아까 할아버지네도 훈장이었다고 하면서요?)

112012 # 응 훈장. 훈장이라도게 나보단 두 살 밑에고 허난 우린 상관도 안 헐난디. 이 하르방 만남 일생 므까세, 일생 므까서.(응, 훈장. 훈장이라도 나보다 두 살 아래고 하니까 우린 상관도 았았었는데. 이 할아버지 만나서 인생 마쳤어, 일생 마쳐서.)

112014 @ 게믄 이바지 같은 건 어떻 헐 허는 거마씨?(그러면 이바지 같은 건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112014 # 이버지, 옛날 엇어난.(이바지, 옛날 없었어.)

112014 @ 아, 이버지 옛날 엇어낫수과?(아, 이바지 옛날 없었습니까?)

112014 # 우리 시절에 엇어난.(우리 시절에 없었어.)

112014 @ 아.(아.)

112014 # 그루후제사 이제 새서방 집이서 이거 돈 앓아가는 법 낫어, 그 후제사.(그 후에야 이제 새신랑 집에서 이거 돈 가져가는 법 낫어, 그 후에야.)

112014 @ 아니 뭐 도새기, 돼야지고기나, 술이나?(아니 뭐 돼지, 돼지고기나, 술이나?)

112014 # 술 흔 허벅, 돼지고기, 돼지 흔 므리씩 해 가냇저게.(술 한 허벅, 돼지고기, 돼지 한 마리씩 해 가져갔었어.)

112014 @ 아, 그건 새서방 집이서.(아, 그건 새신랑 집에서?)

112014 # 새서방 집이서.(새신랑 집에서.)

112014 @ 새각시 집이 주는 거?(새색시 집에 주는 거?)

112014 # 응.(응.)

112014 @ 그게 이버지 아닌가?(그게 이바지 아닌가?)

112014 # 것이 이버지.(그것이 이바지.)

112014 @ 옛날도 허긴 해냇구나예?(옛날도 하긴 했었군요?)

112014 # 옛날도 해난.(옛날도 했었어.)

112014 @ 응.(응.)

112014 # 경헌디 소뭇 옛날은 또 더 심해나서라, 소뭇 옛날. 돈도 아저가곡 막 해나선게게.(그런데 사뭇 옛날은 또 더 심했었더라, 사뭇 옛날. 돈도 가져가고 막 했었더라.)

112014 @ 할머니네보다 더 옛날?(할머니네 보다 더 옛날?)

112014 # 응.(응.)

112014 @ 아.(아.)

112014 # 우리 시절에가, 우리 보단 흐뭇 앞이부터가 술 흔 허벅, 도새기 흔 므리 경 해간덴 해냇어.(우리 시절에는, 우리 보다 조금 앞에부터가 술 한 허벅, 돼지 한 마리 그렇게 해서 간다고 했었어.)

112014 @ 응.(응.)

112014 # 그 시절에. 겨단 글로 후에는 또 돈으로 흐뭇씩 아저 가는 법.(그 시절에. 그러다가 그 후에는 또 돈으로 조금씩 가져 가는 법.)

112014 @ 응.(응.)

112014 # 허단 이젠 돈이 엄청나게 하영 가정 간게.(하다가 이젠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 가더라.)

112014 @ 계난마씨.(그러니까요.)

112014 # 요센 천만 원.(요새는 천만 원.)

112014 @ 우리 헐 때도 천만 원이라 낫수다. 이십, 십오 년 전이.(우리 할 때도 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십, 십오 년 전에.)

112014 # 이젠 천오백이여 무시거여.(이젠 천오백이다 무엇이다.)

112014 @ 계난 이젠 더허지 안 허멘?(그러니까 이젠 더하지 않아?)

112014 # 하하하. 이젠 남즈 돈 엇인 사름 장게도 못 가.(하하하. 이젠 남자 돈 없는 사람 장가도 못 가.)

112014 @ 계난.(그러니까.)

112014 # 돈 엇영.(돈 없어서.)
 112014 @ 예.(예.)
 112015 @ 시집올 땐 무신거 무신거 행 읍디가?(시집올 땐 무엇 무엇 해서 오셨습니까?)
 112015 # 무시거 허여? 이불 혼 채 헨 왓주.(뭐 해? 이불 한 채 해서 왔지.)
 112015 @ 이불 혼 채? 뭐 베개도 허는가?(이불 한 채? 뭐 베개도 하는가?)
 112015 # 베개영 이불이영게, 이불 두 채허곡게 베개뿐이주, 무시거.(베개랑 이불이랑. 이불 두 채하고 베개뿐이지, 무엇.)
 112015 @ 베개 따로 따로 하나씩 하나씩 해마씨? 옛날에 막 진 베개도 해낫젠 현 디 이선게마는 그런 거 아니?(베개 따로 따로 하나씩 하나씩 해요? 옛날에 아주 긴 베개도 했었다고 하는 데 있던데 그런 거 아니?)
 112015 # 우리 스삼사건이난 아무것도 출리도 안헨.(우리 사삼사건이니까 아무것도 차리지도 않았어.)
 112015 @ 뭐 요강도 헛텐 허는 사름도 싯고.(뭐 요강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12015 # 요강은 헤여.(요강은 해.)
 112015 @ 요강은 허여.(요강은 해.)
 112015 # 거울, 저런 거.(거울, 저런 거.)
 112015 @ 아, 거울도 허여?(아, 거울도 해?)
 112015 # 응, 저거ㄴ란 경대엔 해낫어. 경대.(응, 저거보고는 경대라고 했었어. 경대.)
 112015 @ 아, 경대.(아, 경대.)
 112015 # 거 해난.(그거 했었어.)
 112015 @ 경대도 해신게게, 계난. 경대도 허고 요허고 이불 혼 채씩, 두 채씩?(경대도 했네, 그러니까. 경대도 하고 요하고 이불 한 채씩, 두 채씩?)
 112015 # 이불 두 채, 요 혼 채게.(이불 두 채, 요 한 채.)
 112015 @ 아, 이불 두 채, 요 혼 채.(아, 이불 두 채, 요 한 채.)
 112015 # 것도 출리는 사름은 뭐 꺄레이불¹⁹⁷이니 뭐니 막 출렁 가지.(그것도 차리는 사름은 뭐 누비이불이니 뭐니 막 차려서 가지.)
 112015 @ 응.(응.)
 112015 # 경허단 중간엔 또로 미싱 허영 가는 사름 뭐, 꺄 헤영 가는 사름 뭐 해낫어.(그러다가 중간에는 또 재봉틀 해서 가는 사람 뭐, 꺄 해서 가는 사람 뭐 했었어.)
 112015 @ 응.(응.)
 112015 # 미쳤다고 그렇게 헤영 강 뵈허느니?(미쳤다고 그렇게 해서 가서 뭐하니?)

197) ‘꺄레이불’은 누비이불의 제주어다.

112015 @ 아니, 할머니 할 때는?(아니, 할머니 할 때는?)

112015 # 우리 할 때 게메 덜랑게 이불. 스삼사건이라부난 우리 엇어부난 아무 것도 안 헛져.(우리 할 때 글썸 달랑 이불. 사삼사건이어서 우리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어.)

112015 @ 이불은 어떤 이불, 어떤 이불 잇수과?(이불은 어떤 이불, 어떤 이불 있습니까?)

112015 # 이건 소게이불이고 얄룬 이불은 옛날은 깰레이불이 셔낫주게. 누빈 거.(이건 솜이불이고 얄룬 이불은 옛날 누비이불이 있었지. 누빈 거.)

112015 @ 예.(예.)

112015 # 경허단 뭐 이젠 뭐. 이거 이불 거적, 이불 안. 이불짓도 이서. 이거이 이거 이불 들안에. 이거 깃. 이거 난이 나가 여기가 이제 땡기당 빨기가 실으니까 경허난 이거 헛당 흐뎡만 버물민 트딩 빨아. 이불깃.(그러다가 뭐 이젠 뭐. 이거 이불 거죽, 이불 안. 이불짓도 있어. 이거 이거 이불 달아서. 이거 깃. 이거 난 내가 여기가 이제 다니다가 빨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다가 조금 더러워지면 뜯어서 빨아. 이불깃.)

112015 @ 아.(아.)

112015 # 계난 하르방허고 나허고 이젠 늙어부난 이거 허지. 젊을 땐 이거 안 해반. 거난 이제 이것도 나 바느질로 잇당 허여. 경해도 이것도 이제사 나난 자크로 허는 거 해단 끼웠주게. 이제사 난 거.(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이젠 늙어버리니까 이거 하지. 젊을 땐 이거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나 바느질로 잇다가 해. 그래도 이것도 이제야 나니까 지퍼로 하는 거 해다가 끼웠지. 이제야 난 거.)

112015 @ 여름에 더끄는 이불은?(여름에 덮는 이불은?)

112015 # 그거 이제 카페트 하영 나부난 엇어. 우이 더끄는 건 훗이불이주게 다른 말 엇어.(그거 이제 카펫 많이 나버리니까 없어. 위에 덮는 건 훗이불이지 다른 말 없어.)

112015 @ 깰레이불은?(누비이불은?)

112015 # 깰레이불이엔 행 옛날은 천을 해 가지고 막 누벼.(누비이불이라고 해서 옛날은 천을 해 가지고 막 누벼.)

112015 @ 깰레이불은 깃는 거, 더끄는 거?(누비이불은 까는 거, 덮는 거?)

112015 # 더끄는 거 깰레이불, 미녕으로 옛날은이 깰레이불 맨글아낫저게. 솜 답양.(덮는 거 누비이불, 무명으로 옛날은 누비이불 만들었었어. 솜 답아서.)

112015 @ 응.(응.)

112015 # 미싱에 누병 깰레이불. 그것도 잘 출리는 사름은 결혼할 때도 누빔깃 정 행 가고 못 출린 사름은 것도 못헤여.(재봉틀에 누벼서 누비이불. 그것도 잘 차리는 사름은 결혼할 때도 누빔까지 해서 가고 못 차린 사름은 그것도 못해.)

112015 @ 막 두꺼워?(막 두꺼워?)

112015 # 요 정도 두꺼워, 이보담도 얇아. ‘글레이불’을 누비이불이라고 해여.(요 정도 두꺼워, 이보다도 얇아. ‘글레이불’을 누비이불이라고 해.)

112015 @ 베개 부분 명칭도 말해 줘서.(베개 부분 명칭도 말해 주세요.)

112015 # 베개 이건 베갯잇, 요건 모메기.(베개 이건 베갯잇, 요건 베갯모.)

112015 @ 모메기?(베갯모?)

112015 # 이것ㄴ라이 베개에다가 이 모메길 끼와야 돼. 베갯모메기 수논 거 이제도 나와, 이불 푸는 집. 것도 수놓은 사람 다 해다근에 풀거든, 모메기로. 거난 이것ㄴ란 베갯잇, 이건 또 우이 끼우는 거 베개 거적. 베갯잇 씨왓주 나도.(이것보고 베개에다가 이 베갯모를 끼워야 돼. 베갯모 수놓은 거 이제도 나와, 이불 파는 집. 그것도 수놓은 사람 다 해다가 팔거든, 베갯모로. 그러니까 이것보고 베갯잇, 이건 또 위에 끼우는 거 베개 거죽. 베갯잇 썩웠지, 나도.)

112015 @ 케민 저. 결혼하는 그 신부는 새각시엔 곤는가?(그러면 저. 결혼하는 그 신부는 새각시라고 말하는가?)

112015 # 응.(응.)

112015 @ 새서방, 새각시? 뭐 다르게 곤는 말은 엇수과?(새신랑, 새색시? 뭐 다르게 하는 말은 없습니까?)

112015 # 응.(응.)

112015 @ 새서방, 새각시?(새신랑, 새색시?)

112015 # 응.(응.)

112015 @ 아까 가메 탕?(아까 가마 타서?)

112015 # 응.(응.)

112015 @ 저 어뜬 던 도께 뭐 이런 말도 헨게마는. 도겐 아니?(저 어떤 덴 독교 뭐 이런 말도 하던데. 독교 아니?)

112015 # 응, 뉘께엔도 곶아.(응, 독교라고도 말해.)

112015 @ 뉘께엔도 곶아?(독교라고도 말해?)

112015 # 응.(응.)

112015 @ 똑ㄴ튼 거?(똑같은 거?)

112015 # 똑ㄴ튼 거.(똑같은 거.)

112015 @ 뉘께.(독교.)

112015 # 가메가 주로 곤주.(가마라고 주로 말하지.)

112015 @ 옛날엔 뉘께엔도 곶아난?(옛날엔 독교라고도 말했었어?)

112015 # 응. 뉘께엔도 곶아난.(응, 독교라고고 말했었어.)

112015 @ 시집가는 건 무신거엔 곶아?(시집가는 건 뭐라고 말해?)

112015 # 시집감젠허주 무신거엔 허여. 요새사 결혼이여 무시거여 허주.(시집간다고 하지 뭐라고 해. 요새야 결혼이다 뭐다 하지.)

112015 @ 할머니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 시집보내는 건 무신거엔 곶아?(할머니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 시집보내는 건 뭐라고 말해?)

112015 # 무시꺼엔 허여, 딸 시집감, 시집보냄젠 허주.(뭘라고 해, 딸 시집간, 시집보낸다고 하지.)

112015 @ 딸 풀암저?(딸 판다?)

112015 # 응. 거 이제도 곤는 말, 것도.(응. 그거 이제도 하는 말, 그것도.)

112015 @ 딸 풀다, 아덜은 장게 가다.(시집보내다, 아들은 장가가다.)

112015 # 응, 아덜 풀암저, 딸 풀암저, 거.(응, 장가보낸다, 시집보낸다, 그거.)

112015 @ 아덜 풀암저, 딸 풀암저.(장가보낸다, 시집보낸다.)

112015 # 거 곤는 말.(그거 하는 말.)

112015 @ 혹시 머리 베긴다 이런 말은 엇지예?(혹시 머리 벗긴다 이런 말은 없지요?)

112015 # 무사 것도 잇주.(왜 그것도 있지.)

112015 @ 거 무신거라?(거 뭐야?)

112015 # 거 무신거산디. 풀아사컬 허는 말, 아이고 머리 베껴사컬 경 곺아.(거 무엇인지. 팔아야 할 텐데 하는 말, 아이고 머리 벗겨야 할 텐데 그렇게 말해.)

112015 @ 아덜, 딸?(아들, 딸?)

112015 # 딸이고 아덜이고 ㄴ짜.(딸이고 아들이고 같이.)

112015 @ 아, 딸이고 아덜이고 결혼시켜사켜 영헌 말을 머리 베껴사켜 영 곺아?(아, 딸이고 아들이고 결혼시켜야겠다 이런 말을 머리 벗겨야겠다 이렇게 말해?)

112015 # 응, 경 곺아.(응, 그렇게 말해.)

112015 @ 딸풀다, 아덜풀다를 머리 베껴사켜.(시집보내다, 장가보내다를 머리 벗겨야겠다.)

112015 # 응.(응.)

112016 @ 그다음에 결혼할 때 함 이수게? 함.(그다음에 결혼할 때 함 있잖아요? 함.)

112016 # 함, 옛날은이 미녕 두 필 담양.(함, 옛날은 무명 두 필 담아서.)

112016 @ 응.(응.)

112016 # 흥세함¹⁹⁸이엔 행 앓아가.(‘흥세함’이라고 해서 가져가.)

112016 @ 흥세함예.(‘흥세함’요.)

112016 # 응, 앞이 강, 문전에 강 영 낱 흥세함 디려.(응, 앞에 가서, 문전에 가서 이렇게 와서 ‘흥세함’ 드려.)

112016 @ 응. 미녕 두 필 낱.(응. 무명 두 필 뇌서.)

112016 # 문전제 허곡.(문전제 하고.)

112016 @ 응, 문전제 허곡.(응, 문전제 하고.)

112016 # 겨단 이제 간단허게 돈 난 텡검주. 겨단 이젠 것도 엇어, 엇어.(그러다가 이제 간단허게 돈 뇌서 다니고 있지. 그러다가 이젠 그것도 없어, 없어.)

198) ‘흥세함’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으로 함 속에는 예장과 무명을 넣는다.

112016 @ 엇어?(없어?)

112016 # 응, 우리 손지 풀 땀 그런 것도 설러불언.(응, 우리 손주 결혼할 땀 그런 것도 그만뒀어.)

112016 @ 응. 이젠 간단하게덜예.(응. 이젠 간단하게들요.)

112016 # 응.(응.)

112018 @ 옛날에 할머니 할 때는 아침이, 아침이예. 아침이부터 허게 마씨. 아침이 새서방이 새각시 들레 읍니께?(옛날에 할머니 할 때는 아침에, 아침에요. 아침부터 해요. 아침에 새신랑이 새색시 데리러 오잖아요?)

112018 # 올 때게 왕 감주게. 왕 새서방상 받아아정.(올 때 와서 가는 거지. 와서 새신랑상 받아서.)

112018 @ 계난. 새서방이 새각시침이 새각시 들레 읍니께?(그러니까. 새신랑이 새색시 집에 새색시 데리러 오잖아요?)

112018 # 응.(응.)

112018 @ 그때 올 때 누게 누게 ㄴ치 읍니께?(그때 올 때 누구 누구 같이 읍니께?)

112018 # 그때? 우시¹⁹⁹⁾ 오주게. 그디서 양쪽에 이제.(그때? 위요 오지. 거기서 양쪽에 이제.)

112018 @ 예.(예.)

112018 # 어멍 펜이 사름 하나.(어머니 편에 사람 하나.)

112018 @ 응.(응.)

112018 # 아방펜이 사름 하나 해영.(아버지 편에 사람 하나 해서.)

112018 @ 응, 경행.(응, 그렇게 해서.)

112018 # 들이와, 들이, 우시가.(들이 와, 들이, 위요가.)

112018 @ 아.(아.)

112018 # 양쪽엿 사름, 우시.(양쪽의 사람, 위요.)

112018 @ 남자?(남자?)

112018 # 남즈게. 겨단 말제엔 여즈도 들씩 땡것주.(남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자도 들씩 다녔었지.)

112018 @ 거난 여자들도 오더라.(그러니까 여자들도 오더라.)

112018 # 응. 거 중간에, 것도.(응. 그거 중간에, 그것도.)

112018 @ 아, 처음에는 남자들만 헤신디.(아, 처음에는 남자들만 했는데.)

112018 # 응. 옛날은 남즈만 양펜이 어멍 오라방이나.(응, 옛날은 남자만 양편에 어머니 오빠나.)

112018 @ 응.(응.)

112018 # 이제 또 아방 펜이 족은아방이나.(이제 또 아버지 편에 작은아버지나.)

112018 @ 응.(응.)

199) '우시'는 '위요'의 제주어로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 신부 집에 가는 상객을 이르는 말이다.

112018 # 권당 오고.(권당 오고.)

112018 @ 응, 응. 경혜신디 이젠.(응, 응. 그랬었는데 이젠.)

112018 # 흐쓸 서가난 여즈도 흐나씩 들랑 가.(조금 있어가니까 여자도 하나씩 따라 가.)

112018 @ 예.(예.)

112018 # 그런 법이 낫어.(그런 법이 낫어.)

112018 @ 계난 할머니 헐 때는?(그러니까 할머니 할 때는?)

112018 # 우리 시절엔게 어멍 펜이 오라방 흐나게, 외삼촌.(우리 시절에는 어머니 편에 오빠 하나, 외삼촌.)

112018 @ 응.(응.)

112018 # 아방 펜이 권당 족은아방이나 누게 시민 가고.(아버지 편에 권당 작은 아버지나 누구 있으면 가고.)

112018 @ 경행 셋이서 집이 아침이 들레 와십디가?(그렇게 해서 셋이서 집에 아침에 데리러 왔었습니까?)

112018 # 응, 둘이 오주게.(응, 둘이 오지.)

112018 @ 쟁 오민 이디서 새서방상 출렁 줍니께? 새서방상엔 무신거 맛있는 거 하영 올려?(그렇게 오면 여기서 새신랑상 차려 주잖아요? 새신랑상엔 뭐 맛있는 거 많이 올려?)

112018 # 올리주게. 출린 거, 잔치 출린 거.(올리지. 차린 거, 잔치 차린 거.)

112018 @ 무신거 무신거 출려?(무엇 무엇 차려?)

112018 # 메, 출린 게 족아?(참, 차린 게 적어?)

112018 @ 게, 요새 말고게 옛날에.(그러게, 요새 말고 옛날에.)

112018 # 게메, 옛날에도 새서방상에 출린 거 하.(글쎄, 옛날에도 새신랑상에 차린 거 많아.)

112018 @ 무신거 무신거 곱아봘서.(뭐 뭐 말해보세요.)

112018 # 반상기엔 행이 그릇이 막 한다. 반상기, 새색시상 출리는 그릇.(반상기라고 해서 그릇이 아주 많아. 반상기, 새색시상 차리는 그릇.)

112018 @ 응.(응.)

112018 # 새서방상 출리는 그릇이 잇다고.(새신랑상 차리는 그릇이 잇다고.)

112018 @ 아.(아.)

112018 # 반상기엔 헤 가지고 보시도 이제 사발, 국그릇, 밥사발 말앙, 수저도 딱난 거 새각시 숟가락 이서낫어.(반상기라고 해 가지고 보시기도 이제 사발, 국그릇, 밥사발 말고, 수저도 다른 거 새색시 숟가락 있었어.)

112018 @ 아.(아.)

112018 # 우리집이 이서난디 것도 어디 가 붙어신디. 토라지듯 현 숟가락 이서 낫어, 새각시 숟가락.(우리집에 있었었는데 그것도 어디 가 버렸는지. 비뿔어지듯한 숟가락 있었었어, 새색시 숟가락.)

112018 @ 응.(응.)

112018 # 것도 이서난디 반상기라고 건 트로 쌍 놔뒀, 반상기.(그것도 있었는데 반상기라고 그것은 따로 싸서 놔뒀, 반상기.)

112018 @ 응.(응.)

112018 # 그 하간 온갖 채소 이제 송능 사발7장 으라가지 뒀어. 열두 꺾 거라. (그 온갖 온갖 채소 이제 송능 그릇까지 여러 가지 뒀. 열두 개일 거야.)

112018 @ 응.(응.)

112018 # 사발 두 개, 국그릇하고 밥사발 말앙.(사발 두 개, 국그릇하고 밥사발 말고.)

112018 @ 응.(응.)

112018 # 으답 갠가, 열두 갠가 잊어불어졌저, 이제.(여덟 갠가, 열두 갠가 잊어 버렸다, 이제.)

112018 @ 갠, 옛날에는 뭐 음식 맛있는 거 별로 잊어나수게?(그래서 옛날에는 뭐 음식 맛있는 거 별로 없었잖아요?)

112018 # 잊어도 채소여, 꿩기여, 뭐 계란 솥양 농곡 하간 거 해가면 옛날도 반상긴 이서.(없어도 채소다, 고기다, 뭐 계란 삶아 놓고 온갖 거 해가면 옛날도 반상기는 있어.)

112018 @ 아, 독새기, 계란?(아, 계란, 계란.)

112018 # 응.(응.)

112018 @ 계란 몇 개나 솥양 올립니까?(계란은 몇 개나 삶아서 올립니까?)

112018 # 계란, 새각시상에도 두 개, 새서방상에도 두 개.(계란, 새색시상에도 두 개, 새신랑상에도 두 개.)

112018 @ 아, 두 개.(아, 두 개.)

112018 # 경행 보시 하나에 두 개씩 낱 두께가 다 맞인 거라.(그렇게 보시기 하나에 두 개씩 놔서 뚜껑이 다 맞는 거야.)

112018 @ 아, 두께 다 맞게.(아, 뚜껑 다 맞게.)

112018 # 응. 이제 반상기가 어디 놔둔 사람 이실걸, 것도.(응. 이제 반상기가 어디 놔둔 사람 있을걸, 그것도.)

112018 @ 응.(응.)

112018 # 옛날 걸로. 반상기엔 허여, 것7라.(옛날 걸로. 반상기라고 해, 그것보고.)

112018 @ 반상기엔예.(반상기라고요.)

112018 @ 채소는 무신 채소, 무신 채소 험니까?(채소는 무슨 채소, 무슨 채소 합니까?)

112018 # 온갖 채소 이제 잔치 먹는 채손 다 것에 담지.(온갖 채소 이제 잔치 먹는 채소는 다 그것에 담지.)

112018 @ 계란 무신거 무신거 행 먹어?(그러니까 뭐 뭐 해서 먹어?)

112018 # 뭐?(뭐?)

112018 @ 콩늬물?(콩나물?)

112018 # 그런 것덜 하영계 허곡 다른 것도 허곡계.(그런 것들 많이 하고 다른 것도 하고.)

112018 @ 특별히 허는 건 엇고?(특별히 하는 건 없고?)

112018 # 엇어.(없어.)

112018 @ 늬물허고 그다음 이젠 막 닭도 잡앙 허는디 옛날에도 닭 헤나신가?
(나물하고 그다음 이젠 막 닭도 잡아서 하는데 옛날에도 닭 했었나?)

112018 # 아니.(아니.)

112018 @ 득 솥양 안 허여?(닭 삶아서 안 해?)

112018 # 응.(응.)

112018 @ 바닷래기도 구워?(바닷고기도 구워?)

112018 # 응.(응.)

112018 @ 이디도 바닷래기 잘 엇인디도 구워낫수과?(여기도 바닷고기 잘 없는데도 구웠었습니까?)

112018 # 아니, 새각시상에 바닷고기 온 차 군 거 이서 나신가 몰라.(아니, 새색시상에 바닷고기 온 채 구운 거 있었나 몰라.)

112018 @ 게른 뭐 독새기허고 채소베끼 엇어?(그러면 뭐 계란하고 채소밖에 없어?)

112018 # 응.(응.)

112018 @ 맞존 거 하영 헌텐 허멍?(맛있는 거 많이 한다고 하면서?)

112018 # 채소, 두부, 돼지래기에도게.(채소, 두부, 돼지고기에도.)

112018 @ 아, 두부, 돼지래기.(아, 두부, 돼지고기.)

112018 # 래기도 각자 낫지게. 순대 놓고, 두부 놓고, 돼지고기 놓고.(고기도 각자 낫지. 순대도 놓고, 두부 놓고, 돼지고기 놓고.)

112018 @ 응.(응.)

112018 # 헤가민 멧 가지라. 두부, 순대만 해도 세 가지, 계란해도 네 가지, 또 이젠 콩늬물이나 이제 다른 채소나 고사리나 해도 다섯 가지. 반상기가 하엿튼 열 갠가 돼여. 그릇이 새각시상에 올라가는 게.(하다보면 멧 가지야. 두부, 순대만 해도 세 가지, 계란해도 네 가지, 또 이젠 콩나물이나 이제 다른 채소나 고사리 해도 다섯 가지. 반상기가 하여튼 열 갠가 돼. 그릇이 새색시상에 올라가는 게.)

112018 @ 뭐 지지미라도 행 올리는 건가?(뭐 부침개라도 해서 올리는 건가?)

112018 # 지지민 벨로 안 해도 허는 게 이서. 지지미도 지정 허주게, 텨부라²⁰⁰ 지저근에.(부침개는 별로 안 해도 하는 게 있어. 부침개도 지저서 하지, 튀김 지저서.)

112018 @ 거난 텨부라도 헤나신가?(그러니까 튀김도 했었나?)

200) ‘텨부라(てんぷら)’는 튀김을 뜻하는 일본어다.

112018 # 응, 해여.(응, 해.)
112018 @ 새서방상이영 새각시상에.(새신랑상이랑 새색시상에.)
112018 # 비슷하게 해여.(비슷하게 해.)
112018 @ 국은 무신 국 끌려마씨?(국은 무슨 국 끓여요?)
112018 # 국은 두부 놔근에 소고기국도 끌렁 놓고.(국은 두부 놔서 소고기국도 끓여서 놓고.)
112018 @ 응, 아니 옛날에?(응, 아니 옛날에?)
112018 # 게메 옛날에.(글쎄 옛날에.)
112018 @ 아, 옛날에도 소고기국?(아, 옛날에도 소고기국?)
112018 # 응, 특별히 허는 디 이제 생선국 끌려.(응, 특별히 하는 데 이제 생선국 끓여.)
112018 @ 아, 생선국도 끌립니까?(아, 생선국도 끓입니까?)
112018 # 응.(응.)
112018 @ 생선국은 옥돔인가?(생선국은 옥돔인가?)
112018 # 옥돔. 옥돔 하나.(옥돔. 옥돔 하나.)
112018 @ 아.(아.)
112018 # 하나 놔.(하나 놔.)
112018 @ 것도 저 무수, 무우 놓는 건가?(그것도 저 무우, 무 놓는 건가?)
112018 # 무우 놔.(무 놔.)
112018 @ 메역은 안 놔?(미역은 안 놔?)
112018 # 메역도 놓는 디 놓고. 거 막음 건.(미역도 놓는 데 놓고. 거 막음 건.)
112018 @ 메역국은 안 올리는 거런 헌 말도 들어난 거 님은디.(미역국은 안 올리는 거라고 한 말도 들었던 거 같은데.)
112018 # 아니, 아니. 메역국 안 올리는 거 엇어.(아니, 아니. 미역국 안 올리는 거 없어.)
112019 @ 대반은 무신거 대반?(대반은 뭐 대반?)
112019 # 응?(응?)
112019 @ 대반.(대반.)
112019 # 아, 새각시 옆이 앉는 것ㄴ라 대반.(아, 새색시 옆에 앉는 것보고 대반.)
112019 @ 대반은 누게가 앉이는 거짜?(대반은 누가 앉는 겁니까?)
112019 # 대반은이 이 방상에 웃어른.(대반은 이 일가붙이의 웃어른.)
112019 @ 방상에 웃어른?(일가붙이의 웃어른?)
112019 # 응.(응.)
112019 @ 새각시 옆이 앉는 사름? 새서방 옆인 엇어?(새색시 옆에 앉는 사름? 새서방 옆에는 엇어?)
112019 # 새서방 옆이도 마찬가지로.(새신랑 옆에도 마찬가지로.)

112019 @ 아, 양쪽에 다 이신 거마씨?(아,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112019 # 건디 이젠 여자 우시가 와근엔에 양쪽에 앉거든, 옛날.(그런데 이젠 여자 상객이 와서 양쪽에 앉거든, 옛날.)

112019 @ 예.(예.)

112019 # 중간에 그거 중간에. 옛날은 대반이엔 헝 웃어른 앉혀. 대반상.(중간에 그거 중간에. 옛날은 대반이라고 해서 웃어른 앉혀. 대반상.)

112019 @ 응.(응.)

112019 # 대반상도 새각시상ㄱ찌 잘 출려다근에 놔.(대반상도 새색시상처럼 잘 차려다가 놔.)

112019 @ 응, 게민 중방은 무신거 허는 사름?(응, 그러면 중방은 뭐하는 사람?)

112019 # 중방은 새서방 들어올 때.(중방은 새신랑 들어올 때.)

112019 @ 응.(응.)

112019 # 새서방이 올레 오거든. 영허민 중방 상 영 영 영 영 세 번 허민 새서방이 들어와, 거 중방.(새서방이이 올레 오거든. 이렇게 하면 중방 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번 하면 새신랑이 들어와, 거 중방.)

112018 @ 아, 새서방은 말 탕 읍니까?(아, 새신랑은 말 타서 읍니까?)

112018 # 말 탕 오곡. 옛날엔 말 탕 왓주게.(말 타서 오고. 옛날엔 말 타서 왔지.)

112018 @ 웃은 무신 거 입어?(웃은 뭐 입어?)

112018 # 새서방 입는 관복이 있주.(새신랑 입는 관복이 있지.)

112018 @ 아.(아.)

112018 # 요새 무사 안 나오느냐? 관복.(요새 왜 안 나오니? 관복.)

112018 @ 아, 그거영 똑ㄱ튼 거?(아, 그거랑 똑같은 거?)

112018 # 응.(응.)

112018 @ 머리에 무신거 씨?(머리에 뭐 씨?)

112018 # 머리에도 그 모저 잇주게. 새서방 씨는 거.(머리에도 그 모자 있지. 새신랑 쓰는 거.)

112018 @ 아, 신발은?(아, 신발은?)

112018 # 신발도 이실걸.(신발도 있을걸.)

112018 @ 이름은 엇어?(이름 없어?)

112018 # 이름 몰라. 새각시 옛날 가막창신이엔 허영 창신 신어났저마는 중간에 그런 거 엇고.(이름 몰라. 새색시 옛날 ‘가막창신’이라고 해서 가죽신 신었었다마는 중간에 그런 거 없고.)

112018 @ 응.(응.)

112018 # 그냥 고무신 신영 가.(그냥 고무신 신어서 가.)

112018 @ 이디 영 새서방 입 영 막앙 온덴 헹게마는?(여기 이렇게 새신랑 입 이렇게 막아서 온다고 하던데?)

112018 # 것도 막아났어.(그것도 막았었어.)
 112018 @ 무신걸로 막아?(뭘로 막아?)
 112018 # 부채, 부채. 부채 영 헤어.(부채, 부채. 부채 이렇게 해서.)
 112018 @ 응.(응.)
 112018 # 거 관복에 들른 거. 새셔방 옷이 있어, 그 가메에 부튼 거.(그거 관복에 따른 거. 새신랑 옷이 있어, 그 가마에 붙은 거.)
 112018 @ 예. 예.(예, 예.)
 112018 # 새각신 또 장옷은이 호상. 나 이제 헨 놔뒀저, 그거.(새색시는 또 장옷은 호상. 나 이제 해서 놔뒀어, 그거.)
 112018 @ 죽영 갈 때 입영 가젠?(죽어서 갈 때 입어서 가려고?)
 112018 # 그런 거 빌영 입나, 장옷.(그런 거 빌어서 입어, 장옷.)
 112018 @ 응.(응.)
 112018 # 새각시.(새색시.)
 112018 @ 영 입고 족두리 썩. 머린 어떻 허여?(이렇게 입고 족두리 써서. 머리는 어떻게 해?)
 112018 # 머린 낭저²⁰¹⁾, 옛날은 낭저, 우리 시절엔 낭저 해난.(머리는 낭자, 옛날은 낭자, 우리 시절에는 낭자 했었어.)
 112018 @ 낭저는 지 머리로 다 못합니까, 지 머리로 쫄브지 안 허여?(낭자는 자기 머리로 다 못하잖아요, 자기 머리로 짧지 않아?)
 112018 # 거뿐. 것만 해도 돼.(거뿐. 그것만 해도 돼.)
 112018 @ 늬이 거 빌어당 해?(남의 거 빌어다가 해?)
 112018 # 빌어당 옛날은 막 그 머리 허젠 허민 소뭇 머리허는 사름 빌어당 그 머털 다와, 다와.(빌어다가 옛날은 막 그 머리 하려고 하면 사뭇 머리하는 사람 빌어다가 그 머털 땡아, 땡아.)
 112018 @ 응.(응.)
 112018 # 다와근앵이 크게 헨 것도 우리 두린 때.(땡아서 크게 한 것도 우리 어린 때.)
 112018 @ 응.(응.)
 112018 # 우리 옥은 후젠 그런 거 엇어.(우리 큰 다음엔 그런 거 없어.)
 112018 @ 할머니 헐 땡 경 안 해?(할머니 할 땡 그렇게 안 해?)
 112018 # 안 헨.(안 했어.)
 112020 @ 부주는 옛날에 어떻 해난마씨?(부조는 옛날에 어떻게 했었어요?)
 112020 # 부주 옛날은 돈이 시냐?(부조 옛날은 돈이 있니?)
 112020 @ 계난.(그러니까.)
 112020 # 쓸도 뒤 땡 아저 가고, 가동가세²⁰²⁾에 맞게 것도.(쌀도 두어 되 가져

201) ‘낭저’는 표준어 ‘낭자’로 여자의 예장(禮裝)에 쓰는 판머리의 하나로 쪽 찢 머리 위에 덧대어 얹고 긴 비녀를 꽂는다.

202) ‘가동가세(可東可世)’는 ‘가이동가이서(可以東可以西)’의 준말로 즉 동쪽도 가하고 서쪽도 가하다

가고, 가동가세에 맞게 그것도.)

112020 @ 아, 쟁 막 가까운 저기 뭐?(아, 그래서 막 가까운 저기 뭐?)

112020 # 가까운 디 곤썰 흔 말이 최고 부주.(가까운 데 흰쌀 한 말이 최고 부조.)

112020 @ 곤썰 흔 말이 최고 부주.(흰쌀 한 말이 최고 부조.)

112020 # 응. 아이고 참 이제난 허염주.(응. 아이고 참 이제니까 하고 있지.)

112020 @ 응.(응.)

112020 # 사둔침이도 곤썰 흔 말 해가사켜 영 최고 부주.(사둔집에도 흰쌀 한 말 해가야겠다 이렇게 최고 부조.)

112020 @ 최고 부주.(최고 부조.)

112020 # 응, 이제 썰 흔 가맹이 값, 두 가맹이 값. 거 무사 그거라?(응, 이제 쌀 한 가마니 값, 두 가마니값. 거 왜 그거야?)

112020 @ 게메.(그러게.)

112020 # 흐썰 현 딘 십만 원, 흐썰 현 딘 오만 원. 이거 뭐뭐 돈을 어떻게 당혀여?(조금 한 텐 십만 원, 조금 한 텐 오만 원. 이거 뭐뭐 돈을 어떻게 당해?)

112020 @ 게메마씨게. 이제 부주들예.(그러게요. 이제 부조들요.)

112020 # 그거 너무 허염서. 썰 흔 관뒤 값도 안 허연, 옛날은, 돈도. 흔 방울 해영, 경허단 이제 침. 법이 달라져서.(그거 너무 하고 있어. 쌀 한 되 값도 안 했어, 옛날은, 돈도. 한 방울 해서, 그러다가 이제 참. 법이 달라져서.)

112018 @ 신부상은 잘 출런텐 행은에 뭐 무신거엔 굳는 말 이수과?(신부상은 잘 차린다고 해서 뭐 무엇이라고 하는 말 있습니까?)

112018 # 엇어.(없어.)

112018 @ 뭐 마진상²⁰³?(뭐 ‘마진상’?)

112018 # 마진상이주게, 마진상 받암젠.(‘마진상’이지, ‘마진상’ 받고 있다고.)

112018 @ 마진상은.(‘마진상’은.)

112018 # 잘 출런 것마라 마진상이엔.(잘 차린 것보고 ‘마진상’이라고.)

112018 @ 아. 마진상은 계난 시집갈 때 흔 번 받는 건가?(아. ‘마진상’은 그러니까 시집갈 때 한 번 받는 건가?)

112018 # 응, 겐디 호텔에서 허난 새각시상도 엇어.(응, 그런데 호텔에서 하나까 새색시 상도 없어.)

112018 @ 하하하.(하하하.)

112018 # 그런 벤도 시냐? 겨난이 새각시상을 출리렌 허난 호텔에서 헤부난 상 엇넨. 겨난 이제 나가이 집이서 밥을 행 가켄 헛주게 새각시 나시. 경해도 이제 그 디 밥 싯젠헨 간 보건 거 무신 호텔고? 라마다호텔 못 빌언 이웬이 거 무신 호텔고?(그런 변도 있니? 그러니까 새색시상을 차리라고 하나까 호텔에서 해버리니까

는 뜻인데 이렇게 할 만도 하고, 저렇게 할 만도 하다는 뜻이다.
203) ‘마진상’은 잔치 때 의식에 맞게 잘 갖추어진 상을 말한다.

상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에서 밥을 해서 가겠다고 했지, 새색시 갖. 그래도 이젠 거기 밥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거 무슨 호텔이니? 라마다호텔 못 빌려서 이편에 거 무슨 호텔이니?)

112018 @ 오리엔탈?(오리엔탈?)

112018 # 오리엔탈. 그디서 허는디 간 보건 밥솥이 실말가? 볶음밥을 이제 통에 해 왔어라레. 거난 쥘 먼저 간 걸연. 아무도 안 먹어난 때. 경헨 거련에 가지깁이 더깁, 사발 앳안 간. 경헨 새각시 쥐시네게.(오리엔탈. 거기서 하는데 가서 보니까 밥솥이 있을 말이나? 볶음밥을 이제 통에 해 왔더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떼어. 아무도 안 먹었을 때. 그래서 떠서 뚜껑 덮어서, 사발 가져 가서. 그래서 새색시 쥘었어.)

112018 @ 하하하. 아니, 방에 호텔방에 차려 가지고 헤나신디 옛날에는.(하하하. 아니, 방에 호텔방에 차려 가지고 했었는데 옛날에는.)

112018 # 이제 엇텐. 아니 것도 돈 하영 주민 무사 잇긴 이실 테주.(이젠 없대. 아니 그것도 돈 많이 주면 왜 잇긴 있을 테지.)

112018 @ 계난.(그러니까.)

112018 # 안 현텐 행 안 헤불언.(안한다고 해서 안 해버렸어.)

112018 @ 응.(응.)

112018 # 계난 나 거 뭘 놈으 잔치냐고게.(그러니까 나 거 무슨 놈의 잔치냐고.)

112018 @ ㄴ진상 받아사 돼는다.(ㄴ진상' 받아야 되는데.)

112018 # 응. 계난이 사름덜 안 먹어난 때 쥘 문여 간 밥 거련 두깁이 더깁.(응. 그러니까 사람들 안 먹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밥 떠서 뚜껑 덮어서.)

112018 @ 하하하.(하하하.)

112018 # 더깁 이제 막 거 쥘 낫단 식장 끝나난, 식 끝나난에 이 밥 먹어아져근 에 무시거 허렐 허연 그 밥을 새각시, 새서방 불러단 뵙엇주게, 나.(덮어서 이제 막 그거 싸서 뵙다가 식장 끝나니까, 식 끝나니까 이 밥 먹어서 뵙 하라고 해서 그 밥을 새색시, 새신랑 불러다가 먹었지, 나.)

112018 @ 예.(예.)

112018 # 경허연 허엿주, 아이고.(그렇게 해서 했지, 아이고.)

112018 @ 상에 반찬들 막 하민 상다리 휘어지게 출럿저 영 험니께? 그거 무신 거엔 글아?(상에 반찬들 아주 많으면 상다리 휘어지게 차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뵙라고 말해?)

112018 # 무시거 상다리가 휘어지켄 허주.(뵙 상다리가 휘어지겠다고 하지.)

112018 @ 휘어지켄 해, 뵙라지켄 해?(휘어지겠다고 해, 무너지겠다고 해?)

112018 # 응, 그거주게. 아이고, 상다리 부서지켄 경허고.(응, 그거지. 아이고, 상다리 부서지겠다고 그렇게 하고.)

112018 @ 상다리 부서지켄 허고.(상다리 부서지겠다고 하고.)

112018 # 응.(응.)

112018 @ 사돈집, 사돈, 사돈 뭐엔 골아.(사돈집, 사돈, 사돈 뭐라고 말해?)
 112018 # 무시거엔 허여, 사돈이주.(뭐라고 해, 사돈이지.)
 112018 @ 사돈예.(사돈요.)
 112018 # 사돈님.(사돈님.)
 112018 @ 사돈님.(사돈님.)
 112018 # 높이영 부르민 사돈님.(높여서 부르면 사돈님.)
 112018 @ 사돈이 무사 남자 사돈 잇고 여자 사돈 이수게. 무신거엔 골옵니까? 안사돈, 밧사돈? 아니른 소나이사돈?(사돈이 왜 남자 사돈 잇고, 여자 사돈 잇잖아 요. 뭐라고 말합니까? 안사돈, 바깥사돈? 아니면 사나이사돈?)
 112018 # 아니 안사돈, 밧사돈 사돈ㄴ라 경 골아사주. 소나이사돈, 예펜사돈 행 웨느냐? 뒤에서는 경 곤지마는 앞에는.(아니 안사돈, 바깥사돈 사돈보고 그렇게 말 해야지. 사나이사돈, 여편사돈 해서 되니? 뒤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마는 앞에는.)
 112018 @ 무신거엔 골아?(뭐라고 말해?)
 112018 # 안사돈님, 밧사돈님. 게 경 골아야주게.(안사돈님, 바깥사돈님. 그렇게 그렇게 말해야지.)
 112018 @ 아, 안사돈님, 밧사돈님.(아, 안사돈님, 바깥사돈님.)
 112018 # 응.(응.)
 112018 @ 무사 저 접사돈도 이수게?(왜 저 접사돈도 잇잖아요?)
 112018 # 접사돈허는 것들은 건 안 툐 거지.(접사돈 하는 것들은 그건 안 되는 거지.)
 112018 @ 그냥 접사돈이엔 곤는가, 접사돈이엔 허는가?(그냥 접사돈이라고 말 하는가, ‘접사돈’이라고 하는가?)
 112018 # 겨난게 부찌사돈이엔 허여근에게.(그러니까 ‘부찌사돈’이라고 해서.)
 112018 @ 아 부찌사돈.(아, ‘부찌사돈’.)
 112018 # 응. 그런 덴 불편허주게.(응. 그런 덴 불편하지.)
 112018 @ 부찌사돈은 어떤 거?(접사돈은 어떤 거?)
 112018 # 쁘당찌리게, 나가 이제 나허고 조캐 벌 웨지 안 헤샤?(쁘당끼리, 네가 이제 나하고 조카 벌 되지 안했니?)
 112018 @ 응.(응.)
 112018 # 그다음 이제 또 느네 동생이나 누게가 또 이디 시집오면.(그다음 이제 또 너희 동생이나 누가 또 여기 시집오면.)
 112018 @ 응. 케민 부찌사돈.(응. 그러면 접사돈.)
 112018 # 부찌사돈. 아이고 그디 막 부찌사돈이로구나.(접사돈. 아이고 거기 막 접사돈이로구나.)
 112018 @ 응.(응.)
 112018 # 거 좋지 못해.(거 좋지 못해.)
 112018 @ 좋지 못해?(좋지 못해?)

112018 # 응.(응.)

112021 @ 케민 혹시 암창개²⁰⁴가 뭔지 알아마씨?(그러면 혹시 ‘암창개’가 뭔지 알아요?)

112021 # 아이고 그건게, 남즈 엇이. 어디 남즈가 어디 가불면은게 여즈만 그 결혼날 가는 것이라 경 골앗주게.(아이고 그건, 남자 없이. 어디 남자가 어디 가버리면은 여자만 그 결혼날 가는 것보고 그렇게 말했었지.)

112021 @ 아. 그게 암창개.(아. 그게 ‘암창개’.)

112021 # 그런 사름이 가끔 잊지 경 매사름 엇어.(그런 사람이 가끔 잊지 그렇게 사람마다 없어.)

112021 @ 응, 선홀에선 경헌 사름 엇언?(응, 선홀에서 그런 사람 없었어?)

112021 # 엇어, 엇어.(없어, 없어.)

112021 @ 조끗되서 안 봐납디가?(결에서 안 봤었습니까?)

112021 # 안 봐난, 안 봐난.(안 봤었어, 안 봤었어.)

112022 @ 혹시 죽은 사름들끼리도 결혼시키고 허는가?(혹시 죽은 사름들끼리도 결혼시키고 하는가?)

112022 # 그런 거 죽은혼서라고 허주마는 우리도 이 스삼사건에 죽은 시누이 이서도 허렌 해도 안 헛저게.(그런 거 사혼라고 하지마는 우리도 이 사삼사건에 죽은 시누이 있어도 하라고 해도 안 했어.)

112022 @ 죽은혼서렌 곤는구나예?(사혼라고 말하는군요?)

112022 # 응.(응.)

112023 @ 혹시 결혼할 때 결혼허기 전이 날 받으면 이런 거 허민 안 췌다 영허는 거 이수과?(혹시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날 받으면 이런 거 하면 안 췌다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112023 # 아니 잔치가 우리가 혼 들 앞두지 안 헛샤? 경허민 늬이 잔치 먹으레 안 가주게.(아니 잔치가 우리가 한 달 앞두지 않았니? 그러면 남의 잔치 먹으러 안 가지.)

112023 @ 아, 무사 경허는 거라?(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112023 # 몰라. 건 나도 몰르크라.(몰라. 그건 나도 모르겠어.)

112023 @ 하하하.(하하하.)

112023 # 늬이 대동이라, 그건.(남이 대동이야, 그건.)

112023 @ 늬이 대동이라?(남이 대동이야?)

112023 # 응, 겨난. 아이고, 잔치 ㅼ더부난 못 갖저 영허고.(응, 그러니까. 아이고, 잔치 가까워 버리니까 못 갔다 이렇게 하고.)

112023 @ 아, 잔치 ㅼ더부난.(아, 잔치 가까워 버리니까.)

112023 # 응, 그거주 뵤. 벨다른 게 엇어.(응, 그거지 뵤. 벨다른 게 없어.)

204) ‘암창개’는 약혼한 다음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이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혼례 당일 신랑이 먼 곳으로 나갔다가 부득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 예정된 날에 신랑집에서 상객들만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보통 혼례처럼 하객을 맞이하면서 치르는 혼례이다.

112017 @ 그리고 하나만. 그 도새기, 잔치허젠 허민 도새기 질좌사 웹니께?(그리고 하나만. 그 돼지, 잔치하려고 하면 돼지 길러야 되잖습니까?)

112017 # 응.(응.)

112017 @ 집이서 질루지 안 해? 옛날엔.(집에서 기르지 않아? 옛날에는.)

112017 # 질량도 허고 사당도 허고, 것사 뭐. 질좌지민 좋주게.(길러서도 하고 사다가도 하고, 그거야 뭐. 기를 수 있으면 좋지.)

112017 @ 보통 몇 키로 정도 헤근에?(보통 몇 킬로 정도 해서?)

112017 # 아이고 것사 혼 시냐? 커도 허곡 족아도 허곡.(아이고 그거야 한이 있니? 커도 하고 작아도 하고.)

112017 @ 경해도 보통 허는 게 이실 거 아니파?(그래도 보통 하는 게 있을 거 아납니까?)

112017 # 보통 요새에 뭐 요새에 뭐 무신 멧 키로, 멧 키로 허난 알아지크라?(보통 요새에 뭐 요새에 뭐 무슨 멧 킬로, 멧 킬로 하나까 알 수 있겠어?)

112017 @ 옛날 걸로게, 지금 거 말고.(옛날 걸로, 지금 거 말고.)

112017 # 저 혼 막 도새기 크게 질루민 혼 으든 근 돼켜, 쉰 근 넘으켜, 경헛주게.(저 한 막 돼지 크게 기르면 한 여든 근 되겠어, 쉰 근 넘겠어, 그렇게 했지.)

112017 @ 아.(아.)

112017 # 경혜연.(그렇게 했어.)

112017 @ 혹시 쉬염도새기 무신거?(혹시 ‘쉬염도새기’는 뭐?)

112017 # 그건 쪼글락헌 것 보고 경 곱아난.(그건 조그마한 것 보고 그렇게 말했었어.)

112017 @ 아.(아.)

112017 # 잔치해도 이제 쪼글락헌 도새기 아이고 쉬염도새기 헛구나.(잔치해도 이제 조그마한 돼지 아이고 ‘쉬염도새기’ 헛구나.)

112017 @ 아, 쪼글락헌 거?(아, 조그마한 거?)

112017 # 응.(응.)

112017 @ 멧 키로 정도 웨는진 모르겠고?(멧 킬로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고?)

112017 # 멧 키로 아이 웨주게, 쪼글락헌 거.(멧 킬로 안 되지, 조그마한 거.)

112017 @ 아, 쪼글락헌 거.(아, 조그마한 거.)

112017 # 아이고 쉬염도새기 잡안. 경 곱아난 거주게. 거 제주도 사름 말덜.(아이고 ‘쉬염도새기’ 잡았어. 그렇게 말했던 거지. 거 제주도 사람 말덜.)

112017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17 @ 잔치할 때 음식은 무신거 무신거 헤근에.(잔치할 때 음식은 뭐 뭐 해서.)

112017 # 무시거?(뭐?)

112017 @ 보통 가문잔치날 무신거 행 먹어?(보통 ‘가문잔치’날 뭐 해서 먹어?)

112017 # 무시거 그냥 잔치 출린 거 먹주게.(무엇 그냥 잔치 차린 거 먹지.)

112017 @ 뭐 출려, 잔치 때?(뭐 차려, 잔치 때?)
 112017 # 계, 도새기 잡아놓민 잔칫날 처낙도계, 아싯날 처낙도 맥이주게.(그러
 계, 돼지 잡아놓으면 잔칫날 저녁도, 전날 저녁도 먹이지.)
 112011 @ 순서대로 켈 처음에 도새기 잡는 날.(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돼지 잡
 는 날.)
 112011 # 응.(응.)
 112011 @ 그다음은?(그다음은?)
 112011 # 그다음 무시거 뭐.(그다음 무엇 뭐.)
 112011 @ 가문잔치.(‘가문잔치’.)
 112011 # 뒷날, 이제 아싯날 먹주게.(뒷날, 이제 전날 먹지.)
 112011 @ 응.(응.)
 112011 # 아싯날 먹영 잔칫날²⁰⁵장 삼일허여, 옛날은.(전날 먹어서 잔칫날까지 삼
 일해, 옛날은.)
 112011 @ 삼일이 무신거라? 도새기 잡는 날.(삼일이 뭐야? 돼지 잡는 날.)
 112011 # 도새기 잡는 날, 먹는 날, 잔칫날.(돼지 잡는날, 먹는 날, 잔칫날.)
 112017 @ 먹는 날을 가문잔치엔 굳는 거봐?(먹는 날을 ‘가문잔치’라고 말하는
 겁니까?)
 112017 # 응.(응.)
 112017 @ 옛날도 가문잔치엔 곺아난?(옛날도 가문잔치라고 말했었어.)
 112017 # 응, 가문잔치가 뒷인고 허면은이 가문이 엇샤? 이 방상²⁰⁵라 굳는 거
 계.(응, ‘가문잔치’가 뒷인가 하면은 가문이 없니? 이 일가붙이보고 말하는 거.)
 112017 @ 응.(응.)
 112017 # 거난 켤당덜 맥이는 잔치라, 이거, 옛날은.(그러니까 권당들 먹이는 잔
 치야, 이거, 옛날은.)
 112017 @ 아.(아.)
 112017 # 견디 이제 아싯날 대목 잔칠 허여.(그런데 이제 전날 대목 잔치를 해.)
 112017 @ 예, 갹 잔칫날 당일날 잔치허고.(예, 그렇게 해서 잔칫날 당일날 잔치
 하고.)
 112017 # 응.(응.)
 112011 @ 그다음 또 뒷날도 됩니까?(그다음 또 뒷날도 됩니까?)
 112011 # 뒷날은 이제 엇어.(뒷날은 이제 없어.)
 112011 @ 옛날에.(옛날에.)
 112011 # 옛날은이 사둔 이제 잔치 뒷날은 새서방침이, 새각시침이 사둔열맹²⁰⁵
 가고.(옛날은 사둔 이제 잔치 뒷날은 새신랑집에, 새색시집에 ‘사둔열맹’ 가고.)
 112011 @ 응.(응.)

205) ‘사둔열맹’은 사둔끼리 하는 인사를 이르는 것으로 결혼식이 끝나고 양가 친척들이 인사하는 자
 리가 마련되는데 이 절차를 말한다.

112011 # 또 뒷날은 새각시침이 가고, 아 또 뒷날이 새서방침이 가고. 경허영이 양편 사둔침이 다 사둔열맹도 가.(또 뒷날은 새색시집에 가고, 아 또 뒷날이 새신랑 집에 가고. 그렇게 해서 양편 사둔집에 다 '사둔열맹'도 가.)

112011 @ 아.(아.)

112011 # 잔치 넘으면.(잔치 넘으면.)

112011 @ 잔치 넘으면.(잔치 넘으면.)

112017 # 응.(응.)

112011 @ 경허난 일뤼잔치엔 허는 말이구나.(그러니까 이레잔치라고 하는 말이구나.)

112011 # 응, 일뤼잔치 뉘주, 일뤼잔치 뉘여.(응, 이레잔치 되지, 이레잔치 돼.)

112011 @ 응.(응.)

112011 # 새각시가 그날 오난 뒷날은 새각시침이 가고.(새색시가 그날 오니까 뒷날은 새색시집에 가고.)

112011 @ 응.(응.)

112011 # 또 뒷날은 또 새각시침이서가 새서방침이 오고. 경허영 사둔잔치가, 경 허난.(또 뒷날은 또 새색시집에서가 새신랑집에 오고. 그렇게 해서 사둔잔치가, 그렇게 했었어.)

112011 @ 거난예.(그러니까요.)

112011 # 이제가 간단허주게.(이제가 간단하지.)

112011 @ 이제가 간단허주, 옛날은.(이제가 간단하지, 옛날은.)

112011 # 아이고, 이젠 답례품도 안 행 설러 불언.(아이고, 이젠 답례품도 안 하고 그만뒤 버렸어.)

112011 @ 하하하. 답례품도 안 행?(하하하. 답례품도 안 했어.)

112011 # 아이고.(아이고.)

상례

112028 @ 사람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집은 뉘엔 곶아, 영장침?(사람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집은 뉘라고 말해, 영장침?)

112028 # 초상집, 초상.(초상집, 초상.)

112028 @ 초상집.(초상집.)

112028 # 초상 낫저.(초상 낫다.)

112028 @ 초상집.(초상집.)

112028 @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은?(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은?)

112028 # 수의엔도 허고 그냥 보통은 호상이엔 허여.(수의라고도 하고 그냥 보통은 '호상'이라고 해.)

112028 @ 호상.(호상.)

112028 # 수의는.(수의는.)

112028 @ 수의는 표준말.(수의는 표준말.)

112028 # 계메, 지금 텔레비에선 뭐 막 수의엔 허는디 호상, 호상.(그러게, 지금 텔레비에선 뭐 막 수의라고 하는데 ‘호상, 호상’.)

112028 @ 호상, 호상예.(‘호상, 호상’요.)

112028 @ 그른 상제가 입는 옷은?(그러면 상주가 입는 옷은?)

112028 # 상복.(상복.)

112028 @ 상복. 상젠 어떤 사름?(상복. 상주는 어떤 사름?)

112028 # 상제, 상제 어떤 사름이라게. 부모가 돌아가민 아덜이나 딸이 상제주. 하하하. 너 어머니 죽으면 상제 아이냐?(상주, 상주 어떤 사름이니. 부모가 돌아가면 아들이나 딸이 상주지. 하하하. 너 어머니 죽으면 상주 아니냐?)

112028 @ 건디 상제 중에 쯤 큰 상제는 무신거?(그러나 상주 중에 쯤 큰 상주는 뭐?)

112028 # 큰아덜이주게, 큰 상제.(큰아들이지, 큰 상주.)

112028 @ 그냥 큰 상제엔 곱아?(그냥 큰 상주라고 말해?)

112028 # 응. 큰 상제, 죽은 상제, 딸 상제.(응. 큰 상주, 작은 상주, 딸 상주.)

112028 @ 그른 흑시, 쯤 큰 아덜은 아까 큰 상제?(그러면 흑시, 쯤 큰 아들은 아까 큰 상주?)

112028 # 응. 장남.(응 장남.)

112028 @ 큰 상제 말고 흑시 다른 말은 엇수과?(큰 상주 말고 흑시 다른 말은 없습니까?)

112028 # 엇다게. 딸 상제도 잇고.(없어. 딸 상주도 잇고.)

112030 @ 계민 머리에 쓰는 건 두건예?(그러면 머리에 쓰는 것은 두건요?)

112030 # 두건, 건대.(두건, 건대.)

112030 @ 두건. 두건에 두건 위에.(두건. 두건에 두건 위에.)

112030 # 건대.(건대.)

112030 @ 아니 두건 안 꼬맨 거 이수게?(아니 두건 안 꿰맨 거 있잖아요?)

112030 # 고만 시라. 그저 무시것ㄴ라 뭐엔 헛저, 잊어불엇저.(가만 있어라. 그저 무엇보고 뭐라고 했지, 잊어버렸다.)

112030 @ 건대?(건대?)

112030 # 건대 말양 영 들르는 거.(건대 말고 이렇게 두르는 거.)

112030 @ 친?(끈?)

112030 # 친 말양게. 아이고 잊어불언. 그게 스끼 꼬아근에게 영 둘러근엔에 건대에 또 두건 써고 허는 것ㄴ라 뭐여마는. 아이고 그거 잊어불어졌저게. 썩 놔두켈. 영 들을 중 알아시민. 건대는 우이 거짜헌 게 건대고.(끈 말고. 아이고 잊어버렸어. 그게 새끼 꼬아서 이렇게 둘러서 건대에 또 두건 쓰고 하는 것보고 뭐더라마는. 아이고 그거 잊어버렸다. 써서 놔둘 걸.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으면. 건대는 위에 ‘거짜’한 게 건대고.)

112030 @ 건넌 어땀한 거라? 영 이렇게 뵈 거.(건대는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뵈 거.)

112030 # 응. 두건허고 건대허고(두건하고 건대하고.)

112030 @ 두건 잇고 이렇게 이렇게 잇는 거.(두건 잇고 이렇게 이렇게 잇는 거.)

112030 # 들르는 거, 그거. 멩글므로 오죽 야단시러와게, 상제마다.(두르는 거, 그거. 만듭으로 오죽 야단스러워, 상주마다.)

112030 @ 건대 말앙?(건대 말고.)

112030 # 뵈동글락헌 거. 우리 몬 케완 설러볼엇주. 노로 멘들아근에게. 띠, 띠. (동그란 거. 우리 모두 태워서 끝내버렸지. 노로 만들아서. 띠, 띠.)

112030 @ 그 저 뵈허기 전이 입관허기 전이 상제들 두건은 우에 꼬매지 안 허 지예?(그 저 뵈허기 전에 입관허기 전에 상주들 두건은 위에 꿰매지 안 하지요?)

112030 # 꼬매지 안 헌 건 통두건.(꿰매지 않은 건 통두건.)

112030 @ 꼬매지 안 헌 건 통두건.(꿰매지 않은 건 통두건.)

112030 # 임시 초담이 흰 두루마기에 이제 통두건에.(임시 처음에 흰 두루마기에 이제 통구건에.)

112030 @ 흰 두루마기에 통두건을 써? 처음에.(흰 두루마기에 통두건을 써? 처음에.)

112030 # 응. 경허당 이제 입관허면은 제 볼 때는 상복 입어. 경허는 거.(응. 그러다가 이제 입관하면은 제 지넌 때는 상복 입어. 그렇게 하는 거.)

112030 @ 여자들이 입는 건 복치메?(여자들이 입는 건 복치마?)

112030 # 응.(응.)

112030 @ 그냥 복치메엔 곱아?(그냥 복치마라고 말해?)

112030 # 복치메, 복치메. 또 그이.(복치마, 복치마. 또 그.)

112030 @ 응.(응.)

112030 # 심오옷이엔도 허메. 심오옷.(‘심오옷’이라고도 해. ‘심오옷’.)

112030 @ 심오옷은 뵈?(‘심오옷’은 뵈?)

112030 # 그거나 그거나 ㄴ뵈 거. 상복이나 심오옷이나.(그거나 그거나 같은 거. 상복이나 심오옷이나.)

112030 @ 아, 상복이나 심오옷이나 똑ㄴ뵈 거?(아, 상복이나 심오옷이나 똑같은 거?)

112030 # 응, 저 흐쫄허민 상복 입엇젠 허는디 심오옷덜 다 입엇인가 영허고. 경허여.(응, 저 조금하면 상복 입엇다고 하는데 ‘심오옷’들 다 입엇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

112030 @ 어느 게 더 옛날 말인고?(어느 게 더 옛날 말인고?)

112030 # ㄴ뵈 거, ㄴ뵈 거. ㄴ따. 옛날부터 쓰는 말.(같은 거, 같은 거. 같아. 옛날부터 쓰는 말.)

112030 @ 옛날부터 씨는 말?(옛날부터 쓰는 말?)
112030 # 응.(응.)
112029 @ 남자 상제가 들르는 거, 막대기.(남자 상주가 드는 거, 막대기.)
112029 # 아, 방장대.(아, 상장.)
112029 @ 방장댄 무신 낭으로 허는 거?(방장댄 무슨 나무로 하는 거?)
112029 # 머구낭, 또로 그 앞이 놓는 건 째뎡이.(머귀나무, 또 그 앞에 놓는 건 째뎡.)
112029 @ 째뎡이.(째뎡.)
112029 # 방장대 앞이 째뎡이 뉘.(상장 앞에 째뎡 뉘.)
112029 @ 예. 째뎡인 멧 개 무꺼?(예. 째뎡은 멧 개 묶어?)
112029 # 것도 상제마다. 그 저 상제가 하민 째뎡이 으라 개. 방장대도 으라 개 허고.(것도 상주마다. 그 저 상주가 많으면 째뎡 여러 개. 상장도 여러 개하고.)
112029 @ 아.(아.)
112029 # 엇이민 엇인 냥 흐나.(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
112029 @ 째뎡이 멧 번 무끄냐고?(째뎡 몇 번 묶느냐고?)
112029 # 산뒤낭으로 무끄는 거, 일곱 번 무끄는 사름 건이 건 무끄는 사름에 따라 거 수정 엇어, 건. 원칙은 일곱번이라.(발벼째뎡으로 묶는 거, 일곱 번 묶는 사람 그것은 묶는 사람에 따라 그거 횃수 없어, 그건. 원칙은 일곱 번이야.)
112029 @ 무사 일곱 번 무릅니까?(왜 일곱 번 묶습니까?)
112029 # 그건 몰르고. 경헌디 그 건대 그거 잊어불어졌저.(그건 모르고. 그런데 그 건대 그거 잊어버렸다.)
112029 @ 영 허는 거?(이렇게 하는 거?)
112029 # 영 영, 뱅동글락헌 거.(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거.)
112029 @ 동글락헌 거. 나중에.(동그란 거. 나중에.)
112029 # 잊어불언, 이름. 게메 띠, 띠디 두건 띠가 것ㄴ라. 뉘 이름이 이서 거.(잊어버렸어, 이름. 글쎄 띠, 띠데 두건 띠가 그것보고. 뉘 이름이 있어 그거.)
112033 @ 하루 전날은 일포?(하루 전날은 ‘일포’?)
112033 # 아이 건이.(아니 그건이.)
112033 @ 상, 묻기 전날.(상, 묻기 전날.)
112033 # 응, 묻기 전날 일포. 요새 그거 느랑 씨는 말.(응, 묻기 전날 ‘일포’. 요새 그거 늘 쓰는 말.)
112033 @ 옛날도 일포엔 곶아난?(옛날도 ‘일포’라고 말했었어?)
112033 # 응.(응.)
112034 @ 일포날 그 저 상갓집 가는 건 조문 간덴 곶아?(‘일포’ 그 저 상갓집 가는 건 조문 간다고 말해?)
112034 # 조문.(조문.)
112034 @ 그냥 조문 가다.(그냥 조문 가다.)

112034 # 고렘이엔도 허고.(‘고렘’이라고도 하고.)
 112034 @ 무신거 고렘?(뉘 ‘고렘’?)
 112034 # 고렘, 고렘 감저.(‘고렘’, ‘고렘’ 간다.)
 112034 @ 고렘 감저 곴아?(‘고렘’ 간다고 말해?)
 112034 # 응, 고렘 감저, 조문 감저, 짓도 두 가지.(응, ‘고렘’ 간다, 조문 간다, 그것도 두 가지.)
 112034 @ 고렘. 똑ㄴ뜬 말?(‘고렘’. 똑같은 말?)
 112034 # 똑ㄴ뜬 말.(똑같은 말.)
 112034 @ 더 옛날 말은 고렘?(더 옛날 말은 ‘고렘’?)
 112034 # 응. 아니 다 ㄴ따.(응. 아니 다 같아.)
 112034 @ 응.(응.)
 112034 # 그거면 이제 통허여. 조문 감저해도 통허고 고렘 감저 해도 통허고. 문상은 이제 못 간 사름ㄴ라 문상헛젠. 못 본 사름.(그거면 이제 통해. 조문 간다고 해도 통하고 ‘고렘’ 간다고 해도 통하고. 문상은 이제 못 간 사람보고 문상헛다고. 못 본 사람.)
 112034 @ 아니 간 사름?(안 간 사람?)
 112034 # 아니, 부모가 돌아갈 때이 못 본 사름ㄴ란 문상헛젠.(아니, 부모가 돌아갈 때 못 본 사람보고 문상헛다고.)
 112026 @ 아. 묘를 쓸 자리 못자리, 뒷자리 무신거엔 곴아?(아. 묘를 쓸 자리 못자리, 뒷자리 뉘라고 말해?)
 112026 # 못자리, 모. 산터엔도 허고.(‘못자리’, ‘모’. ‘산터’라고도 하고.)
 112026 @ 못자리 보러 가근에 이딘 좋다 이딘 나쁘다 영 곴아주는 사름?(못자리 보러 가서 여긴 좋다 여긴 나쁘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112026 # 정시.(지관.)
 112026 @ 정시가 영 들렁 다니는 나침반 님은 거.(지관이 이렇게 들어서 다니는 나침반 같은 거.)
 112026 # 나경판.(‘나경판’.)
 112026 @ 무신거?(무엇?)
 112026 # 나경판, 나경판.(나침반, 나침반.)
 112026 @ 나경판. 판 낱 영 들렁가는 거 이수게?(나침반. 판 놔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112026 # 아, 건 뉘 곴아지는 거엔 곤주 무시거엔 곴아?(아, 그건 뉘 말해지는 거라고 말하지 뉘라고 말해?)
 112036 @ 상여, 표준말로 상여. 옛날 말로 뉘 행상?(상여, 표준말로 상여. 옛날 말로 뉘 행상?)
 112036 # 행상헛젠.(행상한다고.)
 112036 @ 행상 허는디 막 그 색깔 이신 천 이수게?(행상 하는데 막 그 색깔 있

는 천 있잖아요?)

112036 # 그거 이젠 안 허여.(그거 이젠 안 해.)

112036 @ 옛날에 뭐엔 글아낫수과?(옛날에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12036 # 아, 저 거시기 멩전²⁰⁶.(아, 저 거시기 ‘멩전’.)

112036 @ 멩전?(‘멩전’?)

112036 # 미시거 멩전베끼. 멩전, 추도 옛날은.(무엇 명정밖에. 명정, 추도 옛날은.)

112036 @ 멩전하고 무신거?(명정하고 무엇?)

112036 # 추도, 추도.(추도, 추도)

112036 @ 추도는 뭐고 멩전은 뭐?(추도는 뭐고 명정은 뭐?)

112036 # 그건이 이제 막 근족이나 친헌 사람이 요새 막 돈으로 꽃 헤오지 안 허느냐?(그건 이제 막 근족이나 친한 사람이 요새는 막 돈으로 꽃 헤오지 않느냐?)

112036 @ 예.(예.)

112036 # 경허듯이 추돌 허여.(그렇게 하듯이 추도를 해.)

112036 @ 추도가 뭐디? 꽃?(추도가 뭐데? 꽃?)

112036 # 만세²⁰⁷라고 만세엔 허여. 만세.(만장이라고 만장이라고 해. 만장.)

112036 @ 응.(응.)

112036 # 만서가 막 하영 들어왔저 경 글아. 추도엔도 곤곡.(만장이 아주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해. 추도라고도 말하고.)

112036 @ 그게 꽃이라?(그게 꽃이야?)

112036 # 지금은 꽃으로 허는디 옛날은 그거 허여.(지금은 꽃으로 하는데 옛날은 그거 해.)

112036 @ 천?(천?)

112036 # 천으로.(천으로.)

112036 @ 아, 이거 천으로.(아, 이거 천으로.)

112036 # 천으로 허영 저 행상에 갈 때이.(천으로 해서 저 행상에 갈 때.)

112036 @ 응.(응.)

112036 # 추도 막. 우리 하르바님넨 한문 선생해나부난 스타 아니 ㄱ뜨민 추도가 몇 장 들어오주. 막 그냥. 글 써근앵이.(추도 막. 우리 할아버님네는 한문 선생했었기 때문에 사태 안 같으면 추도가 몇 장 막 들어오지. 막 그냥. 글 써서.)

112036 @ 아, 이진 글 써근에 오는 거?(아, 이진 글 써서 오는 거?)

112036 # 응, 추도엔 허고 만세도, 만세엔도 헨다. 부주추록 ㄱ뜨게 허는 거게.(응, 추도라고 하고 만장이라고도 한다. 부조처럼 같게 하는 거.)

112036 @ 부주처럼?(부조처럼?)

112036 # 응, 부주추록. 지금 꽃 헤오오듯.(응, 부조처럼. 지금 꽃 헤오듯.)

206) ‘멩전’은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로 ‘명정’을 말하는 것이다.

207) ‘만세’는 ‘만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죽은 이를 슬퍼하여 지은 글. 또는 그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기(旗)처럼 만든 것이다. 주검을 산소로 옮길 때에 상여 뒤에 들고 따라간다.

112036 @ 꽃 헤여오듯. 응.(꽃 헤오듯. 응.)

112036 # 막 스몫 뒤, 뒤헌 집인 그게이 막 하영 들렁 나레로²⁰⁸⁾ 헤영 간다. 우리 하르바님은 스테 넘언에 돌아가도 추도 으라 장 들오라낫저. 한문 선생 헤나부난.(아주 사몫 뒤, 뒤한 집은 그게 아주 많이 들고 ‘나레로’ 헤서 간다. 우리 할아버님은 사태 넘어서 돌아가도 추도 여러 장 들어 왔었지. 한문선생 했었기 때문에.)

112036 @ 응.(응.)

112036 # 많이 들어와낫어.(많이 들어왔었어.)

112036 @ 계모임 헌덴 헉니께, 계?(계모임 한다고 하잖아요, 계?)

112036 # 계?(계?)

112036 @ 여러 사람이 헤 가지고 계 들어근에 허잖아예?(여러 사람이 헤 가지고 계 들어서 하잖아요?)

112036 # 제, 제.(‘제’, ‘제’.)

112036 @ 아, 제. 계가 아니고?(아, ‘제’. 계가 아니고.)

112036 # 계엔도 허주게.(계라고도 하지.)

112036 @ 이젯말로 겐디 옛날은 제?(이젯말로 계인데 옛날은 ‘제’?)

112036 # 제, 제. 젯군, 젯군.(계, 계. 젯군, 젯군.)

112036 @ 젯군?(젯군?)

112036 # 제 메염젠, 제 헤염젠.(계 맨다고, 계 한다고.)

112036 @ 거 어떻 허는 거파?(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2036 # 사름덜 막 모인 것ㄴ라, 이제 우리가.(사람들 막 모인 것보고, 이제 우리가.)

112036 @ 응.(응.)

112036 # 여라이 이제 저 친목을 허느네게. 이젠 친목이엔헤도 그땐 제.(여럿이 이제 저 친목을 하잖아. 이젠 친목이라고 해도 그땐 계.)

112036 @ 그땐 제. 아.(그땐 계. 아.)

112036 # 아이고 제에 들어샤, 영허고.(아이고 계 들었니, 이렇게 하고.)

112036 @ 아.(아.)

112036 # 친목에 들어샤, 영허는 거광 ㄴ쁜 거.(친목에 들었니,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

112036 @ 친목이엔 헌 말을 제엔 허는구나예?(친목이라고 한 말을 계라고 하는군요?)

112036 # 우리도이 서른다섯 사름이 그 제허연.(우리도 서른다섯 사람이 그 계 했었어.)

112036 @ 예.(예.)

112036 # 이제 그 행상이나 뭐 헐 때.(이제 그 행상이나 뭐 할 때.)

208) ‘나레로’는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문맥상 나란히, 여럿이 줄지어 늘어진 모양을 말하는 것 같다.

112036 @ 예.(예.)
 112036 # 서른다섯 사람이 나오민 막 해주게.(서른다섯 사람이 나오면 아주 많지.)
 112036 @ 예.(예.)
 112036 # 경허민이 앞이 사근앵이 장귀 두드리멍.(그러면 앞에 서서 장구 두드리면서.)
 112036 @ 응.(응.)
 112036 # 막 간다게. 경허영 허당 설러불엇저, 이제. 시대가 이제 바파져 가난.(막 간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만뒀버렸어,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어져 가니까.)
 112036 @ 그믐 상여 매는 사람은? 행상 매는 사람은 뭐라?(그러면 상여 매는 사람은? 행상 매는 사람은 뭐야?)
 112036 # 행상꾼.(상여꾼.)
 112036 @ 행상꾼. 장사 지내는 날은? 장날?(상여꾼. 장사 지내는 날은? 장날?)
 112036 # 장날. 오늘 장 헤염저, 장사 지냄저, 경 허는 거주.(장삿날. 오늘 장사 한다, 장사 지낸다, 그렇게 하는 거지.)
 112036 @ 그냥 장삿날, 영장날?(그냥 장삿날, 장삿날?)
 112036 # 응. 영장날.(응. 장삿날.)
 112038 @ 관 놓젠 허민 땅 파삽니께? 구덩이.(관 놓으려고 하면 땅 파야하잖습니까? 구덩이.)
 112038 # 개광. 개광 팜저.(묘광. 묘광 판다.)
 112038 @ 개광 팜저.(묘광 판다.)
 112038 # 응.(응.)
 112038 @ 그 우에 놓는 판? 관 논 다음에 우에.(그 위에 놓는 판? 관 놓은 다음에 위에.)
 112038 # 개관²⁰⁹. 개관 더경.(개관. 개관 덮어서.)
 112038 @ 개관 더경예.(개관 덮어서요.)
 112038 # 하관험저.(하관하고 있다.)
 112038 @ 하관험저. 그다음에 호충. 하관험 때 어떤 사람은 보민 안웁다 허는 거.(하관하고 있다. 그다음에 호충살. 하관할 때 어떤 사람은 보면 안 된다 하는 거.)
 112038 # 아, 그거.(아, 그거.)
 112039 # 아, 그거, 그건 이 사람 나이에 따라 가지고 무신 이제 헤치.(아, 그거, 그건 이 사람 나이에 따라 가지고 무슨 이제 띠.)
 112039 @ 무신 헤친 보민 안 되고 허는 거 잇주예?(무슨 띠 보면 안 되고 하는 거 잇지요?)
 112039 # 무신 생은 보지 말라 경헌다게.(무슨 생은 보지 말라 그렇게 한다.)

209) '개관'은 관 위에 덧덮는 널빤지를 말한다.

112039 @ 그거 호충이엔 굴아?(그거 호충살이라고 말해?)
 112039 # 아니.(아니.)
 112039 @ 몰라?(몰라?)
 112039 # 응, 그건이 그런 사람은 그런 때 보면은 것에 걸린덴 말을 경 끝나.
 (응, 그건 그런 사람은 그런 때 보면은 그것에 걸린다는 말을 그렇게 한다.)
 112039 @ 무덤 옆에 잇는 담은 산담?(무덤 옆에 잇는 담은 '산담'?)
 112039 # 응. 요샌 그런 거 시냐? 문딱 케완 데껴 부는다.(응. 요샌 그런 거 있
 니? 모두 태워서 던져 버리는데.)
 112045 @ 토통은?(토통은?)
 112045 # 토통은 여점 허는 것ㄴ라 토통이고.(토통은 임시 하는 것보고 토통이
 고.)
 112045 @ 여점.(임시.)
 112045 # 잠시 헛다근에 잘허영.(잠시 헛다가 잘해서.)
 112045 @ 아.(아.)
 112045 # 우리도 들은 말이주게, 봐시냐게? 들은 말이주게. 옛날은, 옛날 어른덜
 허여난 거주게.(우리도 들은 말이지, 봤었냐? 들은 말이지. 옛날은, 옛날 어른들 헛
 었던 거지.)
 112038 @ 관을 묻고 나서 산 만드는 거는? 산역?(관을 묻고 나서 산 만드는 거
 는? 산역?)
 112038 # 봉토 씹주게.(봉토 썩지.)
 112038 @ 봉토?(봉토?)
 112038 # 응, 봉토 싸.(응, 봉토 썩아.)
 112038 @ 봉분 올리는 거예?(봉분 올리는 거요?)
 112038 # 응. 봉토 다 싸민 막제 지내어근에게.(응. 봉토 다 썩으면 마지막제 지
 내서.)
 112038 @ 다 ㅁ치는 거?(다 마치는 거?)
 112038 # 응, 계민 막제 허영 오주게.(응, 그러면 마지막제 해서 오지.)
 112038 @ 계민 다 꺾나는 거?(그러면 다 끝나는 거?)
 112038 # 응, 다 꺾나는 거.(응, 다 끝나는 거.)
 112038 @ 팔월 초하루날 허는 건 벌초?(팔월 초하룻날 하는 건 벌초?)
 112038 # 벌초.(벌초.)
 112038 @ 소분은 무신거?(소분은 뭐?)
 112038 # 벌초엔도 허곡 소분이엔도 허곡. 거 ㅁ쁜 말.(벌초라고도 하고 소분이
 라고도 하고. 거 같은 말.)
 112038 @ 응.(응.)
 112038 # 벌초나 소분이나.(벌초나 소분이나.)
 112038 @ 제사 지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밧?(제사 지내는 비용

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밭?)

112038 # 아, 제월제.(아, 제위전.)

112038 @ 제월제.(제위전.)

112038 # 제월제, 것도 돈 뭐헌 하르방덜은이 이 밭은 어느 하르방 제월밭이여.
(제위전, 그것도 돈 뭐한 할아버지들은 이 밭은 어느 할아버지 제위전이다.)

112038 @ 아, 제월밭이여.(아, 제위전이다.)

112038 # 어느 할망 제월밭이여 영허고.(어느 할머니 제위전이다 이렇게 하고.)

112038 @ 제월밭이여, 응.(제위전이다, 응.)

112038 # 그냥 이제 물령 행 허는 사름은 제사도 안 허곡 헤 먹곡.(그냥 이제 물려서 해서 하는 사름은 제사도 안 하고 헤 먹고.)

112038 @ 응.(응.)

112038 # 그 제월밭 헤 먹는 사름은 괴로와. 제스허젠 허민.(그 제위전 헤 먹는 사름은 괴로워. 제사하려고 하면.)

112038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38 # 계난 돈 번 어른덜은 이 밭도 앓곡 나 제스허라 영허영 다 옛날 어른 덜 다 헤여. 경헌디 요새 우린 하르버지, 할마님네 물려준 밭 다 지탱헤져시냐? 제 월밭덜도.(그러니까 돈 번 어른들은 이 밭도 갖고 나 제사 해라 이렇게 해서 다 옛날 어른들 다 해. 그런데 요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물려준 밭 다 지탱헤졌니? 제 위전들도.)

112038 @ 다 폴아불엇주?(다 팔아버렸지?)

112038 # 폼도 허곡 또 아이 줍젠 막 아시 독헌 거 들리난 막 두드려 불명 허 곡 그런 집 많아.(팔기도 하고 또 안 줬다고 막 아우 독한 거 걸리니까 막 두드려 버리면서 하고 그런 집 많아.)

112038 @ 하하하, 많아. 벌초 잘 안 허는.(하하하, 많아. 벌초 잘 안 하는.)

112038 # 골충.(고충.)

112038 @ 골충. 골충 뉘여예, 뭐 안 허민예?(고충, 고충돼요, 뭐 안 허면요.)

112038 # 경허난 즈순을 잘 키우는 이유가 그렇지 말라고.(그러니까 자손을 잘 키우는 이유가 그렇지 말라고.)

112038 @ 골충 뉘게 허지 말라고?(고충 되게 하지 말라고?)

112038 # 묘도 봐서 산도 씨고 즈순을 잘 키워 옛날 전통을 이어 가는 거주게.
(묘도 봐서 산도 쓰고 자손을 잘 키워서 옛날 전통을 이어 가는 거지.)

112038 @ 응.(응.)

112038 # 사름 살아 가는게. 제주도 법은. 경허난에 저 육지도 높은 사름덜은 묘덜 막 잘 험게이.(사름 살아 가는게. 제주도 법은. 그러니까 저 육지도 높은 사름 들은 묘들 막 잘 하더라.)

112038 @ 예.(예.)

112038 # 경허고 이 제주 사름도 이제 어디 강 보라, 참 묘덜 잘 헤냈주.(그리고

이 제주 사람도 이제 어디 가서 봐라, 참 묘들 잘 해놨지.)

112038 @ 이젠 더 잘해놨어, 옛날보다. 무신 가족 묘지 해 가지고.(이젠 더 잘해놨어, 옛날보다. 무슨 가족 묘지 해 가지고.)

112038 # 응, 계란 케우는 것만 잘못된 거주, 제주도 법은.(응, 그러니까 태우는 것만 잘못된 거지, 제주도 법은.)

112046 @ 무덤을 옮겨서, 천리헌텐 험니까?(무덤을 옮겨서, 천묘한다고 합니까?)

112046 # 응.(응.)

112046 @ 뭐엔 글아?(뭐라고 말해?)

112046 # 옮겨 가는 거.(옮겨 가는 거.)

112046 @ 옮겨 가는 거 뭐?(옮겨 가는 거 뭐?)

112046 # 이묘, 이묘험젠.(‘이묘’, ‘이묘’한다고.)

112046 @ 이묘는?(‘이묘’는?)

112046 # 그거나 그거나 ㄴ쁜 거. 이묘험젠 말이 좋아.(그거나 그거나 같은 거. 이장한다는 말이 좋아.)

112046 @ 이묘험젠 말도 허고.(이장한다고 말도 하고.)

112046 # 천리험젠도 허고 ㄴ쁜 말. ㄴ쁜 말.(천묘한다고도 하고 같은 말, 같은 말.)

제례

112049 @ 제사는 식계?(제사는 ‘식계’?)

112049 # 응, 식계.(응, ‘식계’.)

112049 @ 제사허는 집은?(제사하는 집은?)

112049 # 식계집.(제삿집.)

112049 @ 제사할 때 떡 올리는 굽이 높은 나무 그릇?(제사할 때 떡 올리는 굽이 높은 나무 그릇?)

112049 # 쟁반?(쟁반?)

112049 @ 나무로 뉘 건디 굽 달린 거?(나무로 된 건데 굽 달린 거?)

112049 # 것도 쟁반.(그것도 쟁반.)

112049 @ 것도 쟁반?(그것도 쟁반.)

112049 # 이제 저 이무노 쟁반, 놋쟁반, 쟁반이주. 우리도 놋쟁반 허여 가단, 남쟁반 허여가단 놋쟁반 허여 가단 이젠 이무노 쟁반 헤염저.(이제 저 ‘이무노’ 쟁반, 놋쟁반, 쟁반이지. 우리도 놋쟁반 해 가다가, 나무쟁반 해 가다가 놋쟁반 해 가다가 이젠 ‘이무노’ 쟁반 하고 있지.)

112049 @ 쉼대 이런 말은 안 써?(‘쉼대’ 이런 말은 안 써?)

112049 # 무사 안 써? 쉼대도 잇주.(왜 안 써? ‘쉼대’도 있지.)

112049 @ 쉼대는 뭐라?(‘쉼대’는 뭐야?)

112049 # 사라, 사라.(접시, 접시.)
 112049 @ 펜대도 사라?('펜대'도 접시?)
 112049 # 사라보고, 펜대는 거 일본말 아닌가?(접시보고 '펜대'는 거 일본말 아닌가?)
 112049 @ 사라가 일본말.(사라가 일본말.)
 112049 # 사라가 일본말.(사라가 일본말.)
 112049 @ 펜대엔도 허여?('펜대'라고도 해?)
 112049 # 펜대엔도 허여. 사라ㄴ라 펜대엔도 허여.('펜대'라고도 해. '사라'보고 '펜대'라고도 해.)
 112049 @ 떡 같은 거 올리는 그릇.(떡 같은 거 올리는 그릇.)
 112049 # 펜대엔도 허여.('펜대'라고도 해.)
 112049 @ 그냥 쟁반예.(그냥 쟁반요.)
 112060 @ 제사 다 진설해 나민 음식은 무신거엔 험니까?(제사 다 진설하고 나면 음식은 뭐라고 합니까?)
 112060 # 음복 허염서.(음복 하고 있어.)
 112060 @ 음복허기 전이 돼, 돼물?(음복하기 전에 돼, 돼물?)
 112060 # 식게 돼물.(제사 돼물.)
 112060 @ 식게 돼물예.(제사 돼물요.)
 112060 # 식게 돼물.(제사 돼물.)
 112058 @ 식게 때 올리는 밥은?(제사 때 올리는 밥은?)
 112058 # 메.(메.)
 112058 @ 메.(메.)
 112058 # 멧밥. 갱국.(메. 갱.)
 112058 @ 갱, 갱국.(갱, 갱.)
 112058 # 국은 갱국이라고.(국은 '갱국'이라고.)
 112052 @ 고기 여러 가지 고기들은? 식게 때 허는 거.(고기 여러 가지 고기들은? 제사 때 하는 거.)
 112052 # 적, 적.(적, 적.)
 112052 @ 그런 거 다 제숙?(그런 거 다 제육?)
 112052 # 제숙.(제육.)
 112052 @ 제숙이엔 낀주예?(제육이라고 말하지요.)
 112052 # 응.(응.)
 112052 @ 제숙은 돼지고기, 소고기? 바닷고기도 다?(제육은 돼지고기, 소고기? 바닷고기도 다?)
 112052 # 바닷고기고 소고기고 제숙이라고 헤여.(바닷고기고 소고기고 제육이라고 해.)
 112052 @ 고기는 다 제숙?(고기는 다 제육?)

112052 # 응. 제에 씨는 거니까.(응. 제에 쓰는 거니까.)
112052 @ 제에 쓰는 거?(제에 쓰는 거?)
112052 # 응, 경허니까 계속.(응, 그러니까 계속.)
112052 @ 돼지고기, 소고기, 바닷고기 다.(돼지고기, 소고기, 바닷고기 다.)
112052 @ 바닷고기엔 곱아, 뭐엔 곱아?(바닷고기라고 말해, 뭐라고 말해?)
112052 # 갯것 계속.(바다 계속)
112052 @ 갯것 계속.(바다 계속.)
112052 # 우리 곧는 말.(우리 하는 말.)
112052 @ 게난 곧는 말 그거 곱아 주는 거.(그러니까 하는 말 그거 말해 주는 거.)
112054 @ 시루에 찢 떡은?(시루에 찢 떡은?)
112054 # 친떡.(시루떡.)
112052 @ 무신 떡?(무슨 떡?)
112052 # 친떡이주.(시루떡이지.)
112054 @ 쌀이나 메밀가루로 납작하게 얇게 편 다음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떡?(쌀이나 메밀가루로 납작하게 얇게 편 다음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떡?)
112054 # 그건 저 은절미.(그건 저 ‘은절미’.)
112054 @ 은절미.(‘은절미’.)
112054 # 응, 납작하게 헤영 니귀반듯하게 썬 거.(응, 납작하게 해서 네모반듯하게 썬 거.)
112054 @ 니귀반듯하게 현 거예.(네모반듯하게 한 거요.)
112054 # 건 은절미.(건 ‘은절미’.)
112054 @ 그다음에 떡살로 이렇게 본으로 헤근에 동그랑허게 현 하얀 떡.(그다음에 떡살로 이렇게 본으로 해서 동그랑허게 한 하얀 떡.)
112054 # 그건 쉹펜게, 송편.(그건 송편, 송편.)
112054 @ 아니, 속에 뭐 안 놓고 떡본으로 영 찍어근에 속에 제편, 절편?(아니, 속에 뭐 안 놓고 떡본으로 이렇게 찍어서 속에 제편, 절편?)
112054 # 그건이 절벤이다.(그건 절편인데.)
112054 @ 절벤.(절편.)
112054 # 그건이 두 개 영 똑똑 허영 두 개 부찢 것이 절벤.(그건 두 개 이렇게 똑똑 해서 두 개 붙인 것이 절편.)
112054 @ 응.(응.)
112054 # 포부찢 거.(붙인 거.)
112054 @ 포부찢 거예.(붙인 거.)
112054 # 두 개 부찢 거 절벤.(두 개 붙인 거 절편.)
112054 @ 포 안 부찢 건?(안 붙인 건?)
112054 # 솔벤.(솔편.)

112054 @ 솔벤은 반달?(솔편은 반달?)

112054 # 반달. 반달보고 솔벤.(반달. 반달보고 솔편.)

112054 @ 반달 모양은 솔벤, 동글락현 건 절벤.(반달 모양은 솔편, 동그란 건 절편.)

112054 # 절벤.(절편.)

112054 @ 젤 위에 모양을 내기 위해 맨 위에 제사할 때 올려놓는 떡?(젤 위에 모양을 내기 위해 맨 위에 제사할 때 올려놓는 떡?)

112054 # 지름떡.(기름떡.)

112054 @ 젤 위에 올려 놓는 건 지름떡?(젤 위에 올려 놓는 건 기름떡?)

112054 # 응.(응.)

112054 @ 지름떡 말고 다른 말은 있어?(기름떡 말고 다른 말은 없어?)

112054 # 없어, 지름떡 말고.(없어, 기름떡 말고.)

112054 @ 우 짝은 뭐? 우 짝?(웃기는 뭐? 웃기?)

112054 # 우 짝?(웃기?)

112054 @ 아니민 웃기떡. 우 짝 영 허는 말 안 들어봐수과?(아니면 웃기떡. 웃기 이렇게 하는 말 안 들어봤습니까?)

112054 # 안 들어봐. 우 짝이 뭐라?(안 들어봤어. 웃기가 뭐야?)

112054 @ 그냥 지름떡으로. 젤 위에 지름떡 올려예?(그냥 기름떡으로. 제일 위에 기름떡 올려요?)

112054 # 질 문여 지름떡 올리주. 조근조근 올려가당.(제일 먼저 기름떡 올리지. 차근차근 올려가다가.)

112054 @ 응.(응.)

112054 # 지름떡 올리는데 이 제스에는 지름떡베끼 안 허는데 이제 큰 제, 이제 상가에나 소상 때 ㄱ뜨 때는 저 거시기 뭐.(기름떡 올리는데 이 제사에는 기름떡밖에 안 하는데 이제 큰 제, 이제 상가에나 소상 때 같은 때는 저 거시기 뭐.)

112054 @ 계란?(계란?)

112054 # 아이고 것도 잊어 불언. 저 세미떡도 쥌쥌하게 허곡. 쥌명, 쥌명. 아이고 이제사.(아이고 그것도 잊어버렸어. 저 ‘세미떡’도 자잘하게 하고. ‘쥌명, 쥌명’. 아이고 이제야.)

112054 @ 쥌명?(‘쥌명’?)

112054 # 쥌명.(고명.)

112054 @ 쥌명. 젤 우에다 올려봐?(고명. 젤 위에다 올려봐?)

112054 # 아니 그건이.(아니 그건.)

112054 @ 응, 뭐라 쥌명?(응, 뭐야 고명?)

112054 # 제스 때에는 안 해.(제사 때에는 안 해.)

112054 @ 제사 때 안 해. 영장 때?(제사 때 안 해. 상 났을 때?)

112054 # 그런 때 소상 때, 그런 때는 저 거시기 ㄱ사 곶아된 뿃고?(그런 때 소

상 때, 그런 때는 저 거시기 아까 말해두고 뭐니?)

112054 @ 퀘명.(고명.)

112054 # 퀘명, 퀘명인디 요추록 헤 가지고.(고명, 고명인데 요렇게 해 가지고.)

112054 @ 응.(응.)

112054 # 요기서 그릇을 세 개 내왕 스랑스랑허고.(요기서 선을 세 개 내서 길 쪽길쪽하고.)

112054 @ 응.(응.)

112054 # 또 세미떡 존존허게 멘들고.(또 '세미떡' 자잘하게 만들고.)

112054 @ 응.(응.)

112054 # 또로 궂사 곶은 그 솔벤, 절벤 그거 다 궂황이 세 가지라, 세 가지. 게 지름떡 헤가민 다섯 가지라.(또 아까 말한 그 솔편, 절편 그거 다 갖춰서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러게 기름떡 하면 다섯 가지야.)

112054 @ 응, 다섯 가지.(응, 다섯 가지.)

112054 # 퀘명이, 퀘명. 퀘명을 다섯 가지 헤 가지고 친떡 우이 즈근즈근 올려.(고명이, 고명. 고명을 다섯 가지 헤 가지고 시루떡 위에 차근차근 올려.)

112054 @ 아.(아.)

112054 # 친떡 올령, 그다음 송편 올령, 그 퀘명이 퀘명을 이제 그 숟가락 닳은 퀘명에 또로 저 세미떡 존존허게 멘들앙 세미떡에, 또 솔벤에, 절벤에, 지름떡에 허민 다섯 가지라고 다섯 가지. 그거, 경혜영 허는디 요새에는 그런 제법이 엇다게, 요새.(시루떡 올려서, 그다음 송편 올려서, 그 고명을 고명을 이제 그 숟가락 같은 고명에 또 저 '세미떡' 자잘하게 만들어서 '세미떡'에, 또 솔편에, 절편에, 기름떡에 하면 다섯 가지라고 다섯 가지. 그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요새는 그런 제법이 없어, 요새.)

112054 @ 친떡 그다음엔?(시루떡 그다음엔?)

112054 # 그다음은 송편.(그다음은 송편.)

112054 @ 송편, 그다음 세미떡.(송편, 그다음 '세미떡'.)

112054 # 세미떡.('세미떡'.)

112054 @ 그다음 솔벤.(그다음 솔편.)

112054 # 경 올러난 다음에 퀘명으로 들어가면.(그렇게 올린 다음 고명으로 들어가면.)

112054 @ 응.(응.)

112054 # 궂사 나 아이 곶아냐? 숟가락 닳은 거, 또로 쪼글락헌 세미떡.(아까 나 안 말하더냐? 숟가락 같은 거, 또 조그마한 '세미떡'.)

112054 @ 궂난 보통 떡을 헤난 다음에 그 우티 퀘명으로 쪼글락허게 멘들아?(그러니까 보통 떡을 한 다음에 그 위에 고명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112054 # 응, 또로, 퀘명이 이서, 퀘명.(응, 또, 고명이 있어, 고명.)

112054 @ 아, 그민 퀘명은 아까.(아, 그러면 고명은 아까.)

112054 # 다섯 가지라, 다섯 가지.(다섯 가지야, 다섯 가지.)

112054 @ 쪼글락허게 멘드는 걸 다섯 가지 멘들아?(조그맣게 만드는 걸 다섯 가지 만들어?)

112054 # 응, 세미떡에 이젠 요 손가락 ㄱ추룩 현 것에.(응, '세미떡'에 이젠 요 손가락처럼 한 것에.)

112054 @ 응. 세미, 손가락.(응, 세미, 손가락.)

112054 # 또 저 거시기 솔벤.(또 저 거시기 솔편.)

112054 @ 솔벤.(솔편.)

112054 # 절벤.(절편.)

112054 @ 절벤.(절편.)

112054 # 지름떡 경허믄 다섯 가지 아니가?(기름떡 그렇게 하면 다섯 가지 아니냐?)

112054 @ 응.(응.)

112054 # 경혜영 굿추아, 그걸.(그렇게 갖춰, 그걸.)

112054 @ 게믄 아까 저 처음에 밑에 할 때는 솔벤, 절벤은 안 놔?(그러면 아까 저 처음에 밑에 할 때는 솔편, 절편 안 놔?)

112054 # 안 놔.(안 놔.)

112054 @ 아, 거믄 친떡허고 송편 논 위이.(아, 그러면 시루떡하고 송편 놓은 위에.)

112054 # 응, 우이.(응, 위에.)

112054 @ 이거 우이 그다음엔 세미.(이거 위에 그다음엔 '세미'.)

112054 # 세미떡 다음에.(세미떡' 다음에.)

112054 @ 쪼글락헌 거.(조그만한 거.)

112054 # 응, 쪼글락헌 것에 이젠 또로.(응, 조그마한 것에 이젠 또.)

112054 @ 손가락 아까 손가락 영 현 건, 그 떡은 무신거 이름?(손가락 아까 손가락 이렇게 한 건, 그 떡은 뭐 이름?)

112054 # 거 다 궤명으로 허여.(거 다 고명으로 해.)

112054 @ 다 궤명으로.(다 고명으로.)

112054 # 즌 궤명이라고 해 가지고.(잔 고명이라고 해 가지고.)

112054 @ 예.(예.)

112054 # 겨난 이제 지름, 솔벤, 절벤, 그 세미떡, 그 손가락 닳은 이제 그 궤명.(그러니까 이제 기름, 솔편, 절편, 그 '세미떡', 그 손가락 같은 이제 그 고명.)

112054 @ 응.(응.)

112054 # 경 혜가믄 네 가지에 지름떡 허믄 다섯 가지.(그렇게 혜가면 네 가지에 기름떡 하면 다섯 가지.)

112054 @ 건 궤명으로 허는 거, 영장 때?(그건 고명으로 하는 거, 상났을 때.)

112054 # 응, 이름이 궤명이라. 요새 게난 그 맞창 헤오는다 궤명 온 디도 잇긴

있더라.(응, 이름이 고명이야. 요새 그러니까 그 맞춰서 해오는데 고명 온 데도 있긴 있더라.)

112054 @ 아.(아.)

112054 # 궤명도 멘들아.(고명도 만들어.)

112054 @ 멘들아.(만들어.)

112054 # 옛날식으로. 경혜근에 궤명 또 세미떡 요보단 흐뭇 훑어.(옛날식으로. 그렇게 해서 고명 또 '세미떡' 요것보다 조금 굵어.)

112054 @ 예.(예.)

112054 # 세미떡, 거.('세미떡', 그거.)

112054 @ 쪼끌락허게?(조그맣게?)

112054 # 응, 세미떡도 허민이 제 이제 으라 번 허젠 허민 것도 으라 개 들어가. 흐 쟁반에 이제 낫좌, 그거.(응, '세미떡'도 하면 제 이제 여러 번 하려고 하면 그것도 여러 개 들어가. 한 쟁반에 이제 갖춰, 그거.)

112054 @ 다 낫추는 건 무신거엔 골옵니까?(다 갖추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112054 # 다 낫좌야주게.(다 갖춰야지.)

112054 @ 그냥.(그냥.)

112054 # 흐 반, 흐 쟁반.(한 반, 한 쟁반.)

112054 @ 흐 쟁반 행은에.(한 쟁반 해서.)

112054 # 제 흐 번힐 때 비와똥 또 궤명 허고 그렇게 한다고.(제 한 번 할 때 비워똥서 또 피어서 하고 그렇게 한다고.)

112054 @ 응.(응.)

112054 # 경혜여. 옛날은 그 떡힐 때.(그렇게 해. 옛날은 그 떡할 때.)

112054 @ 예.(예.)

112054 # 그 궤명 마탕 허는 사람이 이서, 또로. 궤명 헤볼라 헤여근에.(그 고명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 또. 고명 해버려라 해서.)

112054 @ 아.(아.)

112054 # 경행 헤여.(그렇게 해서 해.)

112054 @ 궤명은 다섯 개 떡이 들어가는 거라예?(고명은 다섯 개 떡이 들어가는 거예요?)

112054 # 응, 다섯 개 들어가.(응, 다섯 개 들어가.)

112054 @ 응.(응.)

112054 # 경허민 그 동드레는 그 판이 이서. 그 절벤, 솔벤 허는 판.(그러면 그 동쪽으로는 그 판이 있어. 그 절편, 솔편 하는 판.)

112054 @ 예.(예.)

112054 # 겐디 이렌 엇어. 손으로 멘들아 그냥. 반들은 안 허고 여기는. 반들은 안 허여.(그런데 이쪽으로는 없어. 손으로 만들어 그냥. 반달은 안 하고 여기서는. 반달은 안 해.)

112054 @ 반들은 안 허여?(반달은 안 해?)

112054 # 응, 반들은이 짐녕으로 표선이깁장 험실 거여. 것도.(응, 반달은 짐녕으로 표선까지 하고 있을 거야. 그것도.)

112054 @ 솔벤을 안 헌다는 거?(솔편을 안 한다는 거?)

112054 # 솔벤, 절벤은 여기도 허는다. 반들.(솔편, 절편은 여기도 하는데. 반달.)

112054 @ 반들은 무신거?(반달은 뭐?)

112054 # 떡이 저 숨메 아이 낱 반들이 이서.(떡이 저 고물 안 놔서 반달이 있어.)

112054 @ 솔벤 말고?(솔편 말고?)

112054 # 응. 곤떡으로 그냥이 쉥펜 대신 씨는 거. 동드레 다해여, 거.(응. 흰떡으로 그냥 송편 대신 쓰는 거. 동쪽으로는 다 해, 거.)

112054 @ 송편 대신 쓰는 반달은 이딘 안 헌다고예?(송편 대신 쓰는 반달은 여긴 안 한다고요?)

112054 # 이디 안 허여, 안 허여. 몰라 이젠 동드레도 송펜으로 험신가 몰라. 그거 허어나곤 디 오래지 안 해서.(여기 안 해, 안 해. 몰라 이젠 동쪽으로도 송편으로 하고 있나 몰라. 그거 한 지 오래지 않았어.)

112054 @ 응.(응.)

112054 # 저이 짐녕으로 구좌면으로 들어사민 표선면깁장은 거 허는 거 봐져.(저 짐녕으로 구좌면으로 들어가면 표선면까지는 거 하는 거 볼 수 있어.)

112054 @ 아.(아.)

112054 # 우리가 그거 허는 거. 또 이딘이 상웨떡도이.(우리가 그거 하는 거. 또 여긴 상화떡도.)

112054 @ 예.(예.)

112054 # 숨메 낱 대부분 허는다.(고물 놔서 대부분 하는데.)

112054 @ 예.(예.)

112054 # 이제 짐녕으로 저레 가가민이 저 그 상웨떡.(이제 짐녕으로 저리 가가면 저 그 상화떡.)

112054 @ 예.(예.)

112054 # 기주에 들앙 흰 거 영 밀어 가지고 썰엉 치어. 니귀반듯허게 은절미 모양으로, 맛좋아 거.(기주에 반죽해서 한 거 이렇게 밀어 가지고 썰어서 찌. 네모 반듯하게 ‘은절미’ 모양으로, 맛있어 그거.)

112054 @ 이디선 경 안 허고?(여기선 그렇게 안 하고?)

112054 # 경 안 허여. 이딘 떡구정 허민 진진허게 그냥 쳐근에 썰엉 떡주.(그렇게 안 해. 여긴 먹고 싶으면 길게 그냥 찌서 썰어서 먹지.)

112054 @ 진진허게 쳐근에.(길게 찌서.)

112054 # 역부로 그 떡으론 안 해여. 경헌디 짐녕은 이제도 그런 떡 이선게, 짐

녕.(일부러 그 떡으로는 안 해. 그런데 김녕은 이제도 그런 떡 있더라, 김녕.)

112054 @ 상웨떡을 동글랑허게 안 허고 길게 험니까?(상화떡을 동그랗게 안 하고 길게 험니까?)

112054 # 아니, 아니. 길게 허영 동드레는 그걸 이제 썰어 가지고 니귀반듯허게 행 치민 똑 상웨떡ㄱ치 숨메 아이 낳게.(아니, 아니. 길게 해서 동쪽으로는 그걸 이제 썰어 가지고 네모반듯하게 해서 짜면 꼭 상화떡처럼 고물 안 놔서.)

112054 @ 아.(아.)

112054 # 숨메 아이 놔.(고물 안 놔.)

112054 @ 이 동넨 경 안 허고?(이 동넨 그렇게 안 하고?)

112054 # 안 허여, 안 허여.(안 해, 안 해.)

112054 @ 이 동네 허는 게.(이 동네 하는 게.)

112054 # 이 동네 허는 건 상웨떡 숨메 낳 허는 거.(이 동네 하는 건 상화떡 고물 놔서 하는 거.)

112054 @ 숨메 낳예.(고물 놔서요.)

112054 # 응.(응.)

112054 @ 팻숨메?(팻고물.)

112054 # 팻숨메게. 이디 이 동네 허는 거. 건디 이제 누게가 상웨떡 험시게? 난 허여난 건디 오래지 안 헛저마는.(팻고물. 여기 이 동네 하는 거. 그런데 이제 누가 상화떡 하고 있니? 난 헛었던 지 오래지 았았지마는.)

112054 @ 경해도 저 어디 신촌 강 사당 먹읍니까?(그래도 저 어디 신천 가서 사다 먹잖습니까?)

112054 # 아니 함덕. 우리 맞창 해와.(아니 함덕. 우린 맞춰서 해와.)

112054 @ 하양헌 거?(하얀 거?)

112054 # 응, 숨메 논 거, 팻 논 거.(응, 고물 놓은 거, 팻 놓은 거.)

112054 @ 아, 팻 논 거.(아, 팻 놓은 거.)

112054 @ 응.(응.)

112054 # 흑설탕 논 그건 뭐?(흑설탕 놓은 그건 뭐?)

112054 # 거 맛좋지 안 허여, 거.(거 맛있지 았아, 거.)

112054 @ 요새 경해근에 해 줘라, 맞추난.(요새 그렇게 해서 해 주더라, 맞추니까.)

112054 # 그것도 거 팻 대신 논 거주게.(그것도 그거 팻 대신 놓은 거지.)

112054 @ 계난.(그러니까.)

112054 # 겐디 그거 좋지 안 허여. 우린 팻 논 게 좋아 베여.(그런데 그거 좋지 았아. 우린 팻 놓은 게 좋아 보여.)

112054 @ 팻 논 건 저 뭐 밀가루로 험니까, 보릿가루로 험니까?(팻 놓은 건 저 뭐 밀가루로 험니까, 보릿가루로 험니까?)

112054 # 밀ㄱ루주게.(밀가루지.)

112054 @ 하양해?(하애?)
112054 # 응 밀가루 헤영케 밀상워.(응, 밀가루 하얗게 밀상화.)
112054 @ 밀상워.(밀상화.)
112054 # 응.(응.)
112054 @ 우리 제사 때 보민 속에 설탕 논 거.(우리 제사 때 보민 속에 설탕 놓은 거.)
112054 # 설탕 논 것도 허여.(설탕 놓은 것도 해.)
112054 @ 그거 가정 오드라고.(그거 가져 오더라고.)
112054 # 게메, 함덕도 소원으로 해줘.(그러게, 함덕도 원하는 대로 해줘.)
112054 @ 거난 함덕에서 헛덴 허멍.(그러니까 함덕에서 했다고 하면서.)
112054 # 설탕 낱 헤도라 허민 설탕.(설탕 놔서 해달라고 하면 설탕.)
112054 @ 아.(아.)
112054 # 난 풋 낱 헤도렌 허영 맛좋은. 이디 노인정에 앓앙 가도 막 할망덜 허 나씩 먹으면 막 맛좋은 헤여. 제스 넘어나민이.(난 팔 놔서 해달라고 해서 맛있다고. 여기 노인정에 가져 가도 아주 맛있다고 해. 제사 지나고 나면.)
112054 @ 응.(응.)
112054 # 경헌디 흥번은 흑설탕 낱 허난 맛있어라.(그런데 한번은 흑설탕 놔서 하니까 맛없더라.)
112054 @ 응.(응.)
112054 # 게난 설탕 놔부난 맛있수다마는 먹읍서 허난 좋다게 허멍.(그러니까 설탕 놔버리니까 맛없습시다마는 드세요 하니까 좋다고 하면서.)
112054 @ 하하하.(하하하.)
112054 # 경헤연 떡집이 왜 저 풋 낱 헤오렌 헤노난 설탕 낱 헤왔어? 겨난 이번만 먹어십서, 다음에 헤 가쿠다 경 곱안게.(그래서 떡집에 왜 저 팔 놔서 헤오라고 해놓으니까 설탕 놔서 헤왔어 하니까 이번만 드세요, 다음에 헤 갈게요 그렇게 말하더라.)
112054 @ 풋 놓민 더 비싸주예? 아멩헤도 풋 값이.(팔 놓으면 더 비싸지요? 아무래도 팔 값이.)
112054 # 비싸지 안 허여, ㄴ타.(비싸지 않아, 같아.)
112054 @ ㄴ타.(같아.)
112054 # 겐디 그 멩그는 사름은 쉬와, 설탕 놓는 게.(그런데 그 만드는 사람은 쉬워, 설탕 놓는 게.)
112054 @ 아, 풋 놓는 거 보다.(아, 팔 놓는 거보다.)
112054 # 아주 쉽주게. 설탕 흥발씩 거려노난.(아주 쉽지. 설탕 한 방울씩 떠놓으니까.)
112054 @ 게난예.(그러니까요.)
112054 # 풋은 숲아근에 거 숨메헤근에.(팔은 삶아서 거 고물해서.)

112054 @ 맞아.(맞아.)

112054 # 뽕아근에 거러 놓젠 허민 허주마는. 값은, 가격은 ㄴ뜨고.(뽕아서 떠 놓으려고 하면 하지마는. 값은, 가격은 같고.)

112054 @ 가격은 ㄴ트구나예.(가격은 같군요.)

112054 @ 그다음에 제사 먹어 나민 혼 쟁반씩 다 나뉘 줘니께?(그다음에 제사 먹고 나면 한 쟁반씩 다 나뉘 주잖아요?)

112054 # 반, 반. 반 췌젠.(반기, 반기. 반기 준다고.)

112054 @ 반 테왕예.(반기 나뉘주어서요.)

112054 # 반 테와야주게.(반기 나뉘줘야지.)

112054 @ 반 테우다예.(반기 나뉘주다.)

112054 # 반 테와줘사. 가는 반 탕 가라. 가는 반, 갈 때. 이제도 떡 아니 먹넨 해도.(반기 나뉘줘야. 가는 반기 받아서 가라. 가는 반기, 갈 때. 이제도 떡 안 먹는 다고 해도.)

112054 @ 예.(예.)

112054 # 이제도 떡 흐뎡 싸고 적도 갈라놓곡 헤영 반 싸주게.(이제도 떡 조금 싸고 적도 갈라놓고 해서 반기 싸지.)

112054 @ 응.(응.)

112054 # 반덜 싸불라행.(반기들 싸버려라 해서.)

112054 @ 여럿이 나누어 가지는 누구 찍시, 찍시?(여럿이 나누어 가지는 누구 깃, 깃?)

112054 # 다덜 찍시로게.(다들 깃으로.)

112054 @ 찍시로예?(깃으로요?)

112054 # 혼 사름, 두 사름 행 다 아정가주. 누게 찍시 가지냐? 영허고.(한 사람, 두 사람 해서 다 가져가지. 누구 깃 갔니? 이렇게 하고.)

112053 @ 적꼬지 허는 대나무는 어떤 거 험니까?(적꼬치 하는 대나무는 어떤 거 합니까?)

112053 # 대도 나근에게 오래 크민게, ㄴ 난 건 야리주게.(대도 나서 오래 크면, ㄴ 난 건 야리지.)

112053 @ 응.(응.)

112053 # 대가 ㄴ 난 건 굳지 안 현 거. 무린덴게 이제사 난 것ㄴ라 무린대엔 허고. 이제사 난 건 야리주, 야려.(대가 ㄴ 난 건 굳지 안 한 거. 무른대 이제야 난 것보고 무른대라고 하고. 이제야 난 건 야리지, 야려.)

112053 @ 응.(응.)

112053 # 오래 췌 건 굳은대게. 그걸 헤사 하간 걸 싸고 적꼬지도 멘들곡 허여 막.(오래 된 건 굳은대. 그걸 해야 온갖 걸 싸고 적꼬치도 만들고 해 막.)

112053 @ 소쿠리할 때 만들 때 허는 대나무는?(소쿠리할 때 만들 때 하는 대나무는?)

112053 # 수리대, 수리대. 왕대로 못허여.(수리대, 수리대. 왕대로 못해.)

112053 @ 왕대허고 수리대 두 개 잇수과?(왕대하고 수리대 두 개 있습니까?)

112053 # 응, 두 개.(응, 두 개.)

112056 @ 식계 때 무신 누물 험니까?(제사 때 무슨 나물 합니까?)

112056 # 콩누물허고 허여지는 양 허주, 잡채 허고. 녹디누물, 무채도 헝 올려. 무채, 미네기채, 뭐 해지는 사름은 으라 가지.(콩나물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잡채하고. 숙주나물, 무채도 해서 올려. 무채, 미나리채,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112056 @ 봄 나민 고사리도 꺼끄레 감수과?(봄 나면 고사리 꺼끄러 갑니까?)

112056 # 이때도록 고사리 거껏주마는 이젠 안 가켜.(이때까지 고사리 꺾었지마는 이젠 안 가겠어.)

112056 @ 옛날엔 막 하영 거꺼낫지예?(옛날엔 아주 많이 꺾었었지요?)

112056 # 아이고 말도 못허지. 구덕으로 막 흔 짐씩 꺼경 오주게. 숲양 풀곡 조천 장에 강.(아이고 말도 못하지. 구덕으로 막 한 짐씩 꺾어서 오지. 삶아서 팔고 조천 장에 가서.)

112056 @ 고사리 손은 비벼릅니까?(고사리밥은 비벼 버립니까?)

112056 # 보비영 거꺼. 지금도 손차 먹는 사름은 육지 사름, 제주 사름은 안 먹어. 흔 줌 꺼경 영 보병 농곡 경해. 계난 이제 이거 멧 년은 경 하영 거끄지 안 허여. 제서에 쓸 거나 꺼경.(비벼서 꺾어. 지금도 고사리밥째 먹는 사람은 육지 사람. 제주 사람은 안 먹어. 한 줌 꺾어서 이렇게 비벼서 놓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멧 년은 그렇게 많이 꺾지 않아. 제서에 쓸 거나 꺾어서.)

112056 @ 어디 강 고사리 꺼릅니까?(어디 가서 고사리 꺾습니까?)

112056 # 드르에, 곳 저끄디. 멀어, 이디서도 고사리 꺼끄는다. 저 반못 안트레도 가고, 이디 먼물각 저끄디도 가고. 선흘이라고 고사리 곳 ㅼ디지도 안 허고.(들에, 숲 곁에. 멀어, 여기서도 고사리 꺾는데. 저 ‘반못’ 안으로도 가고, 여기 ‘먼물각’ 곁에도 가고. 선흘이라고 고사리 숲 가깝지도 앓고.)

112056 @ 응.(응.)

112056 # 요새엔 시에 사름이 빨리 와. 차로 오랑 막 시에서 오랑 거꺼불민 선흘 사름 하영 거끄지도 못허여.(요새엔 제주시 사람이 빨리와. 차로 와서 막 제주시에서 와서 꺾어 버리면 선흘 사람 많이 꺾지도 못해.)

112064 @ 묘제는 언제 지내는 거?(묘제는 언제 지내는 거?)

112064 # 묘제는 제스를 이제 우리가 이제 츄츄츄츄 헝 가당 옷대 제스를 못허 거든게. 경허면 그 옷대 나시 묘제 허는 거. 건 막 쁼당덜 막 모영. 것도 허는 날 다 이서. 삼월 보름에도 허고, 시월에도 허고.(묘제는 제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차츄차츄 해 가다가 옷대 제사를 못하거든. 그러면 그 옷대 깃 묘제 하는 거. 그건 막 쁼당들 막 모여서. 그것도 하는 날 다 있어. 삼월 보름에도 하고, 시월에도 하고.)

112064 @ 할머니네는?(할머니네는?)

112064 # 우리 삼월에 해. 겐디 우리 짐칩인 잘 안햐서. 우리 친정엔 이제도 삼월들에 꼭 허여.(우리 삼월에 해. 그런데 우리 김집은 잘 안하고 있어. 우리 친정엔 이제도 삼월에 꼭 해.)

112064 @ 아.(아.)

112064 # 옛날부터 우리 두린 때부터. 우린 저 도문중은 어디 저 동이서 허고, 우린 이디 경 막 옷대 산이 었어, 이디. 지금 다 제스 지내는 산베끼.(옛날부터 우리 어린 때부터. 우린 저 도문중은 어디 저 동에서 하고, 우린 여기 그렇게 막 옷대 산이 없어, 여기. 지금 다 제사 지내는 산밖에.)

12. 민간요법

113001 @ 기계충, 기계충, 이발충 머리에 헤영허게.(기계충, 기계충, 기계충 머리에 하얗게.)

113001 # 그거 아무나 안 헤, 우린 었어.(그거 아무나 안 헤, 우린 없어.)

113001 @ 그거 생기민 어떻 구완합니까?(그거 생기면 어떻게 구완합니까?)

113001 # 그거 생기민 구완허기 어루와. 우리 소문만 들언.(그거 생기면 구완허기 어려워. 우리 소문만 들었어.)

113001 @ 무신거엔 곶아, 그건?(무엇이라고 말해, 그건?)

113001 # 그것ㄴ라 이발충이엔 허는데, 머리에 그런 거 올른 사름보고. 경헌디 그거 올른 사름 고완허기가 어루와.(그것보고 기계충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그런 거 올른 사름보고. 그런데 그거 올른 사름 고치기 어려워.)

113001 @ 예.(예.)

113001 # 약 잘 었어. 그 저 옛날 약 었이난. 옛날은 그 먹으렌 현 건 었고 보미 그 산뒤 저난 이 채가 이서, 줌진 거. 것ㄴ라 보미라고해이. 보미 지름 다짱 블라난.(약 잘 없어. 그 저 옛날 약 없으니까. 옛날은 그 먹으라고 한 건 없고 등겨 그 받벼 쫓고 나서 이 채가 있어, 자잘한 거. 그것보고 등겨라고 해. 등겨 기름 짜서 발랐었어.)

113001 @ 보미 지름은 어떻 만드는 거?(등겨 기름은 어떻게 만드는 거?)

113001 # 보미지름 어떻게 다끄느냐 허면 저 이제 사기 대접 잇지.(등겨 기름 어떻게 짜느냐 하면 저 이제 사기 대접 잇지.)

113001 @ 응.(응.)

113001 # 그 대접에 험벅을 깔아 가지고 험벅을 쳐메 가지고 이제 그레 보밀냥 불을 살파.(그 대접에 험겂을 깔아 가지고 험겂을 쳐메 가지고 이제 거기에 등겨를 놔서 불을 살라.)

113001 @ 응.(응.)

113001 # 경허민 이제 천으로 영 감아 가지고, 그레 보미를 거러냥 불을 때어.

숯불.(그러면 이제 천으로 이렇게 감아 가지고, 거기에 등겨를 떠 나서 불을 때. 숯불.)

113001 @ 응.(응.)

113001 # 경허민 그게 풍풍풍 카가민 그 알르레 물이 나와. 것ㄴ라 보미 지름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다깁 불르는 거 봐났어. 우리 그 즈끄되 가도 안해.(그러면 그게 풍풍풍 타면 그 아래로 물이 나와. 그것보고 등겨 기름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짜서 바르는 거 봤었어. 우리 그 곁에 가지도 않아.)

113001 @ 산뒤 다까난 가루?(발벼 거피했던 가루.)

113001 # 보미라고 해, 것ㄴ라.(등겨라고 해, 그것보고.)

113001 @ 그시령으로 불른덴도 헨게마는.(그을음으로 바른다고도 하던데.)

113001 # 그시령은 저 부역에 이제 막 기실면 기시령이주게, 그거.(그을음은 저 부역에 이제 막 그을면 그을음이지, 그거.)

113001 @ 득베긴 뭐?('득베기'는 뭐?)

113001 # 그것도 ㄴ쁜 거. 것광 그게 ㄴ쁜 거. 득베기가 병이지게. 그 이발총이 그거라. 곧지 말라. 우린 혜나도 안허고 아이덜신디도 거늘도 안 한다. 그거 더루왕. 안 거느려.(그것도 같은 거. 그것과 그게 같은 거. '득베기'가 병이지. 그 기계총이 그거야. 말하지 마. 우린 하지도 않았었고 아이들에게도 말도 안 한다. 그거 더러워서. 들먹이지 않아.)

113001 @ 아.(아.)

113001 # 난 누게 놀레왕 환자 말 곶아가도 곧지 말렌 혜진다. 거느리지 말렌 그런 병 말 곧지 말렌.(난 누가 놀러와서 환자 말해도 말하지 말라고 한다. 들먹이지 말라고 그런 병 말하지 말라고.)

113001 @ 어떻 헐 거라? 다 병 말 물어볼건디.(어떻게 할 거야. 다 병 말 물어볼건데.)

113001 # 난 누게가 놀레왕 말이 맞는 사름이 왔다. 누게가 돌아갔다 허면은 뭐 병이 어떻고 허민 곧지 말라, 곧지 말라 혜진다.(난 누가 놀러와서 말이 맞는 사름이 왔다. 누가 돌아갔다 허면은 뭐 병이 어떻고 하면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하게 된다.)

113001 @ 멩심험으로예.(멍심함으로.)

113001 # 응, 이진이 득베기영 그거는 이 동네 어떤 집이 한 사름 이서났다고. 머리가 열레기 ㄴ쁜 거 빌리도 안허고 그 사름 혜난 거 허도 안허여. 거 올르민 곶 찌기 어려와. 머리도 문딱 메어져 가명. 이젠 엇지.(응, 이진 '득베기'랑 그거는 이 동네 어떤 집에 한 사름 있었다고. 머리가 열레빋 같은 거 빌리지도 았고 그 사름 했던 거 하지도 았아. 거 읍으면 곶치기 어려워. 머리도 모두 미어져 가면서. 이젠 없지.)

113002 @ 독창, 독짓은 뭐?(독창, '독짓'은 뭐?)

113002 # 몰라, 난.(몰라, 난.)

113003 @ 비듬은 어떻게 구완하는고?(비듬은 어떻게 해서 구완하는지?)

113003 # 비듬도 고찌기 어려워. 그것도 흔 가지 병이라.(비듬도 고치기 어려워. 그것도 한 가지 병이야.)

113004 @ 얼굴에 버짐 피는 거? 못 먹으면.(얼굴에 버짐 피는 거? 못 먹으면.)

113004 # 군버즘. 군버즘은 벨로 건 큰 병이 아니.(마른버짐. 마른버짐은 별로 그건 큰 병이 아니.)

113004 @ 뭘 불러?(뭘 발라?)

113004 # 그것도 흠뻐 지금사 그거 약 었어?(그것도 조금 지금이야 그거 약 없어?)

113004 @ 옛날, 민간요법.(옛날, 민간요법.)

113004 # 옛날은 벨로 약 었어. 거, 군버즘 난 사람 나. 경해도 건 큰 병 아니.(옛날은 별로 약 없어. 거, 마른버짐 난 사람 나. 그래도 건 큰 병 아니.)

113006 @ 여드름은 어떻게 허여?(여드름은 어떻게 해?)

113006 # 여드름도 나는 사람 나도 것도 건 큰 병이 아니고.(여드름도 나는 사람 나도 그것도 건 큰 병이 아니고.)

113006 @ 여드름은 어떻게 허민 좋아?(여드름은 어떻게 하면 좋아?)

113006 # 그것도이 그건 뭐 옛날은 뭐 무신 흔 말로 우리가 그 여드름 나는 사람은 무신 뭐 요새사 거 나는 사람 이사?(그것도 그건 뭐 옛날은 뭐 무슨 뭐 한 말로 우리가 그 여드름 나는 사람은 무슨 뭐 요새야 거 나는 사람 있니?)

113006 @ 우리 아들도 여드름 납니다.(우리 아들도 여드름 납니다.)

113006 # 건 큰 병 아니.(건 큰 병 아니.)

113006 @ 여드름은 여드름이엔 곱아?(여드름은 여드름이라고 말해?)

113006 # 그것 ㄹ라 옛날은 ㄴ쌐옴 ㄴ쌐젠 헤ㄴ주.(그것보고 옛날은 ‘ㄴ쌐옴’ ㄴ쌐고 했었지.)

113006 @ ㄴ쌐옴.(‘ㄴ쌐옴’.)

113006 # 경허단 이젠 여드름이라고 허는데 나가 우리 손지가 양지, 이디 저 딸 옛 손지가 코도 붉고 막 허니까 아이고 이거 미신 큰 병이엔 헤연 세종의원에 들안갔주게.(그러다가 이젠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 손주가 얼굴, 여기 저 딸의 손지가 코도 붉고 막 하니까 아이고 이거 무슨 큰 병이라고 해서 ‘세종의원’에 데리고 갔지.)

113006 @ 응.(응.)

113006 # 경허난 병 아니엔 여드름이난 어떻게 안헌텐. 이제 판찍해 불언. 옥아가 난 판찍해 불언. 가니까 약도 안 주고, 어멍넌이 그걸 대음헌 내부난 나가 막 어중간헌 코도 붉고 얼굴이 붉으난 겐 나 세종의원에 들안갔지.(그러니까 병 아니라고 여드름이니까 어떻게 안한다고. 이제 깨끗해 버렸어. 커가니까 깨끗해 버렸어. 가니까 약도 안 주고, 어머니네는 그걸 ‘대음’해서 내버리니까 내가 막 어중간해서 코도 붉고 얼굴도 붉으니까 그래서 나 ‘세종의원’에 데리고 갔지.)

113006 @ 아.(아.)

113006 # 이제 시집갔져, 가이. 경헌이 들안 가난 병 아니난 즈들지 말앙 갑센 약도 아이 주고. 겐 판씩헨, 이제.(이제 시집갔어, 개. 그래서 테리고 가니까 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약도 안 주고. 그래서 깨끗했어, 이제.)

113007 @ 기미는 뭐 불르민 좋으코?(기미는 뭐 바르면 좋을까?)

113007 # 지미 약 엇어.(기미 약 없어.)

113007 @ 할머니 기미도 엇다.(할머니 기미도 없다.)

113007 # 기미 엇인디 늙어 가민 무신 저.(기미 없는데 늙어 가면 무슨 저.)

113007 @ 검버섯?(검버섯?)

113007 # 그런 거 난텐 해도 아직은 그런 거, 이제 날테주. 늙어 가민.(그런 거 난다고 해도 아직은 그런 거, 이제 나겠지. 늙어 가면.)

113008 @ 얼굴에 막 주근깨 난 아이덜 이수게?(얼굴에 막 주근깨 난 아이들도 있잖아요?)

113008 # 프리춤. 요새 프리춤도 가깝실걸. 요샌 기술이 좋으니까.(‘프리춤’. 요새 주근깨도 깎을걸. 요새는 기술이 좋으니까.)

113009 @ 손에 이런디 막 난 거. 말촉?(손에 이런데 막 난 거. 무사마귀?)

113009 # 말촉. 말촉도 그거 낫당 어느 순간 엇어지는 중 몰르게 엇어져.(무사마귀. 무사마귀도 그거 낫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는 줄 몰르게 없어져.)

113009 @ 어떻 헤사 엇어지는 게 아니고?(어떻게 해야 없어지는 게 아니고?)

113009 # 옛날은이 말촉이 손에 잘 나. 경허민이 거미줄 엇샤? 거미줄.(옛날은 무사마귀 손에 잘 나. 그러면 거미줄 없니? 거미줄.)

113009 @ 응.(응.)

113009 # 그 새벽이 거미줄에서 먼저 난 거. 이젠 영 심영 뽕뽕 감앙 놔둔덴 허영. 경헌디 경허는 사람은 허여도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엇어지는 중 몰르게 엇어져. 말촉 낫당.(그 새벽에 거미줄 먼저 난 거. 이젠 이렇게 잡아서 뽕뽕 감아서 놔둔다고 해. 그런데 그러는 사람은 해도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없어지는 줄 몰르게 없어져. 무사마귀 낫다가.)

113009 @ 응.(응.)

113009 # 손등어리에 만촉 난 사람 하. 어느 순간 엇어져. 엇어지는 중 몰르게.(손등에 무사마귀 난 사람 많아. 어느 순간 없어져. 없어지는 줄 몰르게.)

113009 @ 요샌 안 나예.(요샌 안 나요.)

113009 # 응, 요샌 안 나. 옛날은 손등어리에 난 사람 하낫져. 경허단이 그런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엇어져, 말촉 낫당.(응, 요샌 안 나. 옛날은 손등에 난 사람 많았었어.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무사마귀 낫다가.)

113010 @ 눈에 나는 거 이수게, 다래끼?(눈에 나는 거 있잖아요, 다래끼?)

113010 # 아, 거 다래끼. 요새엔 다래끼엔 허주마는 옛날은 우두께 난 건 들럿, 아래 건 개집이엔도 곧고.(아, 거 다래끼. 요새에는 다래끼라고 하지마는 옛날은 윗

눈두덩이에 난 건 ‘들럿’, 아래 건 ‘개씹’이라고도 말하고.)

113009 @ 아.(아.)

113009 # 건디 들럿은 나면 방법은 이제 약이 없어. 것도 초담 난 때 더운밥 헤영 똑똑 눌르민.(그런데 다래끼 나면 방법은 이제 약이 없어. 그것도 처음 난 때 더운밥 해서 똑똑 누르면.)

113010 @ 더운밥?(더운밥?)

113010 # 응, 확하게 엇어져 불어, 그게. 초담 흐뎡 근지러울 때 더운밥헤영 올려, 올려.(응, 확하게 엇어져 버려, 그게. 처음 조금 간지러울 때 더운밥 해서 올려, 올려.)

113010 @ 아.(아.)

113010 # 경헌디 들럿은 이제 초담 옷두께 나는 건 발창에다가 ‘천평, 지평’이엔 쓰는 방법이 있어. 우리 그거 아이덜 경헤가민 써줘낫어.(그런데 다래끼는 이제 처음 윗눈두덩이에 나는 건 발창에 ‘천평, 지평’이라고 쓰는 방법이 있어. 우리 그거 아이들 그러면 써줬었어.)

113010 @ 응.(응.)

113010 # 경헌디 어느 순간 것도 엇어져. 것도 얼굴에 표적이 나렌 헤사 허주. 경 안허민 어떻 안헌다, 그런 거. 요센 병원 존 때난 강 약 흐 방울만 상 먹어불민 싹 낫어불고.(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도 없어져. 그것도 얼굴에 표지가 난다고 해야 하지. 그렇지 았으면 어떻게 안 해, 그런 거. 요센 병원 좋은 때니까 가서 약 한 방울만 사서 먹어버리면 싹 나아버리고.)

113011 @ 눈 별정허게 충혈된 건?(눈 별정게 충혈된 건?)

113011 # 그것도 병원에 강 안과에 가민.(그것도 병원에 가서 안과에 가면.)

113011 @ 옛날 병원이 없으니까.(옛날 병원이 없으니까.)

113011 # 게메, 병원이 없다해도 그런 것도 경허당 낫은 사름이 하지. 경 것이 병이 아니.(그러게, 병원이 없다해도 그런 것도 그러다가 낫는 사름이 많지. 그렇게 그것이 병이 아니.)

113011 @ 도라움은 뭐?('도라움'은 뭐?)

113011 # 도라움, 병. 이 눈에 눈 조금 깜빡깜박허는 사름 ㄹ라 거 도라움 걸럿젠 곱아난. 들럿은 갑자기 낫당 엇어지는 거고 도라움은 흐뎡 오래 가, 건. 오래 간다고.(‘도라움’, 병. 이 눈에 눈 조금 깜빡깜박하는 사름보고 거 ‘도라움’ 걸렸다고 말했었어. 다래끼는 갑자기 낫다가 없어지는 거고 ‘도라움’은 조금 오래 가, 그건. 오래 간다고.)

113011 @ 눈 별정헌 거 아니민 깜빡깜박허는 거?(눈 별건 거 아니면 깜빡깜박하는 거?)

113011 # 깜빡깜박허민 저 사름 눈에 도라움 걸럿젠 곱는 거 들어난.(깜빡깜박하면 저 사름 눈에 ‘도라움’ 걸렸다고 말하는 거 들었었어.)

113012 @ 이 알리민?(이 아리면.)

113012 # 니 알린 것사 어떻 니 아픈 거주.(이 아린 것이야 어떻게 이 아픈 거지.)

113012 @ 뭐 허민 흐뎡 녹이는 거 잊어?(뭐 하면 조금 녹이는 거 없어?)

113012 # 녹이는 거 옛날 박하가 잊어났어, 박하. 박하기름 이제 놓으면 그 병원 잊인 때.(녹이는 거 옛날 박하가 있었어, 박하. 박하유 이제 놓으면은 그 병원 없을 때.)

113012 @ 박하지름?(박하유?)

113012 # 응, 지름 빼는 디가 잊어났져, 옛날. 박하지름 쎅에 쪼금 해당 놓민 녹여, 것이 독허여이. 또 이제 제피, 제피 먹으면 이제 니에 충 잊넌 허영 제피 주로 먹으면 좋아. 제피 푸는 거 잊사게?(응, 기름 빼는 데가 있었어, 옛날. 박하유 병에 조금 했다가 놓으면 녹여, 그것이 독해. 또 이제 초피, 초피 먹으면 이제 이에 충이 없다고 해서 초피 주로 먹으면 좋아, 초피 파는 거 없니?)

113012 @ 예, 거 입에 물영 이서? 먹어?(예, 거 입에 물어서 있어? 먹어?)

113012 # 거 먹으면 좋아, 승기로.(그거 먹으면 좋아, 푸성귀로.)

113012 @ 승기로. 자리물취할 때 놓는 거 아니?(푸성귀로. 자리물취할 때 놓는 거 아니?)

113012 # 자리물취에 그거 꼭 놓민 좋고. 그것도 승기로 푹푹 쥘장에 하나 한 가지씩 먹어봐, 맛좋아. 우리 저디 낭 이서.(자리물취에 그거 꼭 놓으면 좋고. 그것도 푸성귀로 푹푹 쥘장에 하나 한 가지씩 먹어봐, 맛있어. 우리 저기 나무 있어.)

113012 @ 그게 이빨 알릴 때 좋아?(그게 이빨 아릴 때 좋아?)

113012 # 니빨에 충 잊나고, 그것이 먹으면.(이빨에 충 없다고, 그거 먹으면.)

113012 @ 아. 이빨에 충이 안 생긴다고. 헛바닥에 무신거 나는 거 이수게.(아, 이빨에 충이 안 생긴다고. 헛바닥에 뭐 나는 거 있잖아요?)

113012 # 그건이, 순간적이주, 그런 거.(그건, 순간적이지, 그런 거.)

113013 @ 혀에 뭐 난 건 뭐엔 글아?(혀에 뭐 난 건 뭐라고 말해?)

113013 # 셋발 샷젠 허주게.(‘셋발’ 썼다고 하지.)

113013 @ 셋발예?(‘셋발’요?)

113013 # 셋발 샷젠 허는디 것도 순간적이주, 그 이런 이 중요한 디는 사람이 병이 경 하영 아이 걸리거든.(헛바늘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순간적이지, 그 이런 이 중요한 데는 사람이 병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

113013 @ 성가십니까. 어떻 허민 흐뎡 낫을건가?(성가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나올까?)

113013 # 성가셔도. 약 잊어. 요센 병원이 시니까 것도 가민 잊지마는 옛날에 경 흐당 좋아, 좋아.(성가셔도. 약 없어. 요센 병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면 잊지마는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좋아, 좋아.)

113014 @ 마누라는?(마마는?)

113014 # 그건게 옛날 약 잊인 때니까. 열이지, 열.(그건 옛날 약 없을 때니까.)

열이지, 열.)

113014 @ 열나는 거예. 아이덜도 해낫주예?(열나는 거요. 아이들도 했었지요?)

113014 # 허주게. 그런 뎨이 부정 탄 사름 못 들어오게 솟 매어. 부정 탄 사름은 들어오민, 이제 중기 날 때도 그 부정 탄, 옛날 법이 부정 탄 사름 오민 그것이 열이나, 열이.(하지. 그런 뎨 부정 탄 사람 못 들어오게 새끼 매어. 부정 탄 사람은 들어오면, 이제 중기 날 때도 그 부정 타서, 옛날 법이 부정 탄 사람 오면 그것이 열이나, 열이.)

113014 @ 무신거 걸어? 솟?(무엇 걸어? ‘솟’?)

113014 # 스끼 매주게, 올레에. 들어오지 못허게. 이 사름이 직허영 누게 와가민 오지 말라 영 허지 못허니까 방법으로 솟을 매는 거라.(새끼 매지, ‘올레’에. 들어오지 못허게. 이 사람이 지켜서 누가 오면 오지 말라 이렇게 하지 못허니까 방법으로 새끼를 매는 거야.)

113014 @ 솟이파, 스끼파?(‘솟’입니까, ‘스끼’입니까?)

113014 # 솟게, 스끼엔도 허고 솟이엔도 허고.(‘솟’. ‘스끼’라고도 하고. ‘솟’이라고도 하고.)

113014 @ 어딘 가난 웬솟²¹⁰, 노단솟 허던데.(어디 가니까 왼새끼, 오른새끼 허던데.)

113014 # 아 그거는이, 이 그런 때는 웬솟 안 매.(아 그거는, 이 그런 때는 왼새끼 안 매.)

113014 @ 아, 웬솟은 어떤 때 매는 거?(아, 왼새끼는 어떤 때 매는 거?)

113014 # 웬솟이 또 깎는 게 뜨난다. 웨로 깎는 게 잇고 느다 깎는 게 이서.(왼새끼는 또 꼬는 게 다르다. 왼쪽으로 꼬는 게 잇고 오른쪽으로 꼬는 게 있어.)

113014 @ 아.(아.)

113014 # 그 웬솟은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때 병원이 엇어부난이 어디 이제 믿을 곳이 엇지 안허냐? (그 왼새끼는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때 병원이 엇어버리니까 어디 이제 믿을 곳이 없지 않니?)

113014 @ 예,(예.)

113014 # 신이나 돌아다 가지고 뭐 일을 냅겨 나면은 신을 방비허기 위허영 웬솟을 매는 거라.(신이나 데려 가지고 뭐 일을 넘기고 나면 신을 방비하기 위해서 왼새끼를 매는 거야.)

113014 @ 헤난 다음에, 심방 돌아당 헤 난 다음에?(하고 난 다음에, 무당 데려다가 하고 난 다음에?)

113014 # 웬솟을 매는 거고, 그렇지 안 현 뎨 웬솟 안 매.(왼새끼 매는 거고, 그렇지 않을 뎨 왼새끼 안 매.)

113014 @ 보통은 웬솟 안 매는 거파?(보통은 왼새끼 안 매는 겁니까?)

113014 # 안 매, 안 매. 안 매어. 그런 그 뭐 현 때도 웬솟 안 매어. 그 사름 방

210) ‘웬솟’은 반대 방향으로 꼰 새끼줄이다. 주로 무속에서 금줄로 사용된다.

비도 웬숫 안 매어. 또로 애기 난 때도 그 고치 돌아 매지 안허나? 거 웬숫 안 매어.(안 매, 안 매. 안 매어. 그런 그 뭐 한 때도 원새끼 안 매. 그 사람 방비도 원새끼 안 매어. 또 아기 난 때도 그 고추 달아매지 않니? 거 원새끼 안 매.)

113014 @ 건 웬숫 안 매어.(건 원새끼 안 매어.)

113014 # 그냥 숫 곱닥허게 꼬양 매주. 고치 돌아매곡 숫 돌아매고. 그 웬숫 안 맨다고.(그냥 새끼 곱게 꼬아서 매지. 고추 달아매고 숫 달아매고. 그 원새끼 안 맨다고.)

113014 @ 웬숫은 무사 매는 거라, 게민?(원새끼는 왜 매는 거야, 그러면?)

113014 # 신을 방비.(신을 방비.)

113014 @ 귀신을 막는 게?(귀신을 막는 게?)

113014 # 우리도 들은 말이주게. 허여 보도 안 허고 들은 말. 우리 뭐 들은 해 봤어?(우리도 들은 말이지. 해 보지도 않고 들은 말. 우리 뭐 들어서 해봤어?)

113015 @ 마누라도 큰 마누라 죽은 마누라 이수게?(마마도 큰 마마 작은 마마 있잖아요?)

113015 # 게메, 옛날게 열. 신이 있다고 해서 막 정성을 허지. 똑ㄴ치 정성을.(그러게, 옛날 열. 신이 있다고 해서 아주 정성을 하지. 똑같이 정성을.)

113015 @ 무신거 허민 안 돼여, 마누라할 때?(무엇 하면 안 돼, 천연두할 때?)

113015 # 게메 겨난게 부정 탄 사름 못 오게 방비. 집어서 이 돼지고기나 그런 나쁜 거 먹지 안허고.(그러게 그러니까 부정 탄 사름 못 오게 방비. 집에서 이 돼지고기나 그런 나쁜 거 먹지 않고.)

113015 @ 돼지고기 먹지 안허고, 생선은?(돼지고기 먹지 않고, 생선은?)

113015 # 생선도 굽지 안허여. 냄새나는 거 굽지 말아사. 정성을 해야 돼여.(생선도 굽지 않아. 냄새나는 거 굽지 말아야. 정성을 해야 돼.)

113015 @ 정성을.(정성을.)

113015 # 경혜낫주게, 옛날에. 경허당도 열 버쳐서 가는 사름도 있고 그렇게 헤 낫주게. 경허단 그루허젠 예방 주사를 맞지 안헤시냐?(그랬었지, 옛날에. 그러다가도 열 부쳐서 가는 사름도 있고 그렇게 했었지. 그러다가 그 후엔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나?)

113015 @ 예방 주사 맞지. 옛날은 그게 잇이난 경행덜 하영 죽엇주예?(예방 주사 맞지. 옛날은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들 많이 죽엇지요?)

113015 # 죽엇주게, 열로.(죽엇지, 열로.)

113016 @ 풋터는 벙은?(학질은?)

113016 # 아, 거 곧지 말라, 우리 몰른다. 그런 거 곧지 마라. 그런 더러운 거 곧지 마라.(아, 거 말하지 마라, 우리 모른다. 그런 거 말하지 마라. 그런 더러운 거 말하지 마라.)

113017 @ 귀 영 붓는 병 이수게? 볼거리.(귀 이렇게 붓는 병 있잖아요? 볼거리.)

113017 # 아, 거 불거린 열, 것도.(아, 거 불거린 열, 그것도.)

113017 @ 불거린 무신거엔 글아? 콧뚨치긴가?(불거린 뭐라고 말해? ‘콧뚨치기’ 인가?)

113017 # 응, 경 글아난디 그것도 그 열로 허니까 그것도이 막 위험허여근앵이 그 아이가 뭐허는 사름은 해도 순간적으로 낮아, 것도.(응,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것도 그 열로 하니까 그것도 막 위험해서 그 아이가 뭐하는 사름은 해도 순간적으로 나아, 그것도.)

113017 @ 어떻 허민 열 내리고 좋는고?(어떻게 하면 열 내리고 나아?)

113017 # 엇어, 그냥 놔두민 좋아. 불거리라 콧뚨치기 낮젠 허주게, 이디 아프민.(엇어, 그냥 놔두면 좋아. 불거리보고 ‘콧뚨치기’ 낮다고 했었지, 여기 아프면.)

113019 @ 땀뚨기는 어떻 허민 낮아?(땀뚨는 어떻게 하면 나아?)

113019 # 땀뚨기사, 저. 어떻허민 낮아게? 목욕 해볼고 시원허민 낮지 뭐. 땀뚨끼 까짓거 뺨이냐? 아이고, 더윈 땀뚨기 남저 영 허영 좋아 불주. 거 무신 땀뚨기 병이라?(땀뚨야, 저. 어떻게 하면 낮아? 목욕 해버리고 시원하면 낮지 뭐. 땀뚨끼 까짓것 병이니? 아이고, 더워서 땀뚨 난다 이렇게 해서 좋아 버리지. 거 무슨 땀뚨 병이냐?)

113022 @ 증기나 허물 난 때.(증기나 부스럼 난 때.)

113022 # 게메 증기 난 때 옛날은 약이 엇어부난 그 막 왈랑왈랑 이제 저 증기도 이제 쪼글락허영 영 딱지 입는 증기가 있고 그냥 민들 엇이 낭 열이 난 땀 오래지 안허영 돌늑물, 돌늑물 낱 뺨아 가지고 소금 낱 뺨아 가지고 딱 처매면 것이 열 제행 그냥 엇어져 불어, 삭아져 불어.(글쎄 증기 난 때 옛날은 약이 엇어 버리니까 그 막 ‘왈랑왈랑’ 이제 저 증기도 이제 조그마해서 이렇게 딱지 입는 증기가 있고 그냥 ‘민들’ 엇이 나서 열이 난 때 오래지 앓아서 돌나물, 돌나물 놔서 뺨아 가지고 소금 놔서 뺨아 가지고 딱 처매면 그것이 열 내려서 그냥 엇어져 버려, 가라앉아 버려.)

113022 @ 아.(아.)

113022 # 우리 어린 때 그런 거 봐난.(우리 어린 때 그런 거 봤었어.)

113022 @ 딱지는 뭐엔 글아?(딱지는 뭐라고 말해?)

113022 # 허물 봉오리게. 딱지 생긴 병은 건 큰 병이 아니고, 큰 병이 아니라. 그 증기도 돌늑물 처멩 안 낮은 건이 위험헤여, 딱지 엇은 거.(허물 봉오리. 딱지 생긴 병은 그건 큰 병이 아니고, 큰 병이 아니야. 그 증기도 돌나물 처매서 안 낮는 것은 위험헤, 딱지 엇는 거.)

113022 @ 아.(아.)

113022 # 그건이 침 옛날 그 의원들신디 가면 그거 영 쟈나 어떻 영 헤 불어야 좋지. 그것이 오래면, 것이 큰 증기주, 딱지 입은 건 소소한 거.(그건 참 옛날은 의원들에게 가면 그거 이렇게 찢거나 어떻게 이렇게 해 버려야 좋지. 그것이 오래면, 그것이 큰 증기지, 딱지 앓은 건 소소한 거.)

113022 @ 아.(아.)

113022 # 무니냥은 이제 이 거품을 해 가지고 이 쪽 나면은 부짚도 허고.(느릅 나무는 이제 이 꺼풀을 해 가지고 이 ‘쪽’ 나면은 붙이기도 하고.)

113022 @ 뭐 나면?(뭐 나면.)

113022 # 쪽 나근에, 그.(쪽 나서, 그.)

113022 @ 종기?(종기?)

113022 # 응, 종기 나근에 헐 때. 이 무니냥 불리를 해다 가지고 뺏아 가지고 처매면 막 물 짜.(응, 종기 나서 할 때. 이 느릅나무 뿌리를 해다가 뺏아 가지고 처매면 막 물 짜.)

113022 @ 불리 아니민 거죽?(뿌리 아니면 껍질?)

113022 # 거죽도 허고 불릴 못 파, 잘. 거죽 허여.(껍질도 하고 뿌리 못 파, 잘. 껍질 해.)

113022 @ 거죽으로.(껍질로.)

113022 # 경허곡 이거 딸렁 먹음도 허곡 옛날부터. 옛날부터 약이라 이견 약. 경헌디 그 쫓냥 요새 무신 뽕이엔 헨이 것ㄹ라 뭐엔 헨이? 쫓냥, 쫓가시.(그리고 이 거 달여 먹기도 하고 옛날부터. 옛날부터 약이야 이견 약. 그런데 그 꾸지뽕나무 요새 무슨 뽕이라고 해서 그것보고 뭐라고 하니? 꾸지뽕나무, 꾸지뽕.)

113022 @ 예.(예.)

113022 # 그것은 약에 썬덴 말 아이 들어난디 요새는 걸 큰 약으로 허더라. 건 우린 쫓가시 열매엔 허영 간절미²¹¹⁾라고 해 가지고 이제 팔월 나민 익어, 그계. 경허민 막 타 먹어놔주게.(그것은 약에 쓴다고 말 안 들었었는데 요새는 그걸 큰 약으로 하더라. 그건 우린 꾸지뽕 열매라고 해서 ‘간절미’라고 해 가지고 이제 팔월 되면 익어, 그계. 그러면 막 따 먹었었지.)

113022 @ 아.(아.)

113022 # 강뭇²¹²⁾디나 것도 불 부떠불민 아이 뉘부난 강뭇디는 불이 안 부떠이, 옛날.(‘강뭇’디나 그것도 불 붙어버리면 안 되버리니까 ‘강뭇’디는 불이 안 붙어, 옛날.)

113022 @ 강뭇디가 어디?(‘강뭇’디가 어디?)

113022 # 물 굴르는 통이 이서. 이 드르에 가면, 이 자연으로 그냥 이 저 논밭 모양으로 그런 강뭇이라 해 가지고 비 와난 땐 물이 그득허고 오래 물 앓는 디 그 쫓냥이 으라 개 나.(물 고이는 통이 있어. 이 들에 가면, 이 자연으로 그냥 이 저 논밭 모양으로 그런 ‘강뭇’이라 해 가지고 비 왔던 땐 물이 가득하고 오래 물 고이는 데 그 꾸지뽕나무가 여러 개 나.)

113022 @ 응.(응.)

113022 # 경허민 이제 그디 가근에 허민 그 간절미가 올라근에 익나게. 익으면

211) ‘간절미’는 꾸지뽕나무 열매를 말하는 것으로 간절귀, 쫓냥 열매라고도 한다.

212) ‘강뭇’은 들에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는 연못 같은 것인데 그 주변에 꾸지뽕 나무가 많았었다는 설명이다.

잘 익은 건 달아. 흐쭈덜 익은 건 맛이 엇고. 경허멍 허영 원 그걸 아니 헤난디 요새엔 그걸 큰 약으로 헤라.(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하면 그 '간절미'가 열어서 익어. 익으면 잘 익은 건 달아. 조금 덜 익은 건 맛이 없고. 그러면서 해서 원 그걸 안 했었는데 요새에는 그걸 큰 약으로 하더라.)

113022 @ 간절미가 익으면 별경허여?('간절미'가 익으면 별개?)

113022 # 응, 익으면 별경. 별경허고 막 잘 올주게, 잘 올라.(응, 익으면 별경고. 별경고 아주 잘 열지, 잘 열어.)

113022 @ 틀허곤 딱난 거주예?(산딸나무 열매하고는 다른 거지요?)

113022 # 틀 이제 봐서? 틀은 산고지베끼 엇인디, 할로산에.(산딸나무 열매 이제 볼 수 있어? 산딸나무 열매는 산에 밖에 없는데, 한라산에.)

113022 @ 제주대학교에 틀낭이 이수다.(제주대학교에도 산딸나무 있습니다.)

113022 # 제주대학교에 이서? 어뎡헌 말고?(제주대학교에 있어? 어떻게 된 말이야?)

113022 @ 일부로 싱것주게.(일부러 심었지요.)

113022 # 틀은이 소곱에 씨 혼 방울 딱딱허게 셔노민 그거 먹어서 똥 싸민 도새기 옥헌텐 헤낫주게.(산딸나무 속에 씨 한 방울 딱딱하게 있어서 그거 먹어서 똥 싸면 돼지 옥한다고 했었지.)

113022 @ 도새기가 무사 옥해?(돼지가 왜 옥해?)

113022 # 거 씹젠허민 바싹바싹. 경헌디 그 틀낭이 잇구나, 타떡어?(그거 씹으려고 하면 바싹바싹. 그런데 그 산딸나무가 잇구나, 따떡어?)

113022 @ 안 떡어.(안 떡어.)

113022 # 맛좋은디, 거. 고만 시라. ㄱ실 익지? 시월들에. 시월들에 익으면 우리 두린 때 할로산에베끼 엇어부난이 석유통, 그거 옛날, 저 요새에도 석유통 엇사게?(맛있는데, 거. 가만 있어라. 가을 익지? 시월에. 시월에 익으면 우리 어린 때 한라산에밖에 없어버리니까 석유통, 그거 옛날, 저 요새에도 석유통 없니?)

113022 @ 예.(예.)

113022 # 그거 이젠 허영 영 우 들랑 그거 정강 그레 틀을 타 놔. 지아정 와, 까지카분덴. 지영 왕 이제 그 사발로 웨어근에 혼 사발에 쓸 혼 사발에. 뉘헌 사름 덜 강 타와. 경허민 이젠 흐쭈덜허민 틀 타레 가온 하레비 허대듯.(그거 이젠 해서 이렇게 위 잘라서 그거 저서 가서 거기에 산딸나무 열매를 따서 놔. 저서 와, 까질까 봐. 저서 와서 이제 그 사발로 되어서 한 사발에 쌀 한 사발에. 뉘헌 사람들 가서 따와. 그러면 이제 조금하면 산딸나무 열매 따러 가온 할아버지 쓸데없는 소리 늘 어놓듯.)

113022 @ 예? 건 어뎡헌 때 쓰는 말이파?(예? 그건 어떻게 할 때 쓰는 말입니까?)

113022 # 이제 틀을 타레 가면 그 틀 탕 오민 영헨 타고라 정헨 타고라 말이 하난 모양이지. 경허민 무스거엔 누게 말 하영 올라가민, 아이고 저 틀 타게 가온

하레비 허대듯, 경 해영 곤주게.(이제 산딸나무 열매 따러 가면 그 산딸나무 열매 따서 오면 이렇게 해서 땀다 저렇게 해서 땀다 말이 많았던 모양이지. 그러면 뭐라고 누가 말 많이 하면, 아이고 저 산딸나무 열매 따러 갔다온 할아버지 쓸데없는 소리 늘어놓듯, 그렇게 말하지.)

113022 @ 아.(아.)

113022 # 말 하영 곤는 사름 보고, 경해영 웃어. 동글동글헌 게 이제 발갱게 익으면 요만씩허여 요만씩 크도 안허여. 그거 이제 탕왕 이제 틀 타온 사름이 것에 지영 왕 사발로 웨영 혼 사발에 쓸 혼 사발.(말 많이 하는 사람 보고, 그래서 웃어. 동글동글헌 게 이제 발갱게 익으면 요만큼씩 해, 요만큼씩 크지도 않아. 그거 이제 따와서 이제 산딸나무 열매 따온 사람이 그것에 저서 와서 사발로 되어서 한 사발에 쌀 한 사발.)

113022 @ 경 비싸?(그렇게 비싸?)

113022 # 경허민 그 석유통으로 흥날 탕 오민 게도 쓸 혼 말쭙 바꾸지. 너 웨쭙 바짜. 틀은게 쓸ㄴ찌 영 펜직펜직 아이 웨영 흥쓸 모록허게 쥐불곡 허민 거 쓸 혼 말베끼 더 바짜지는냐게? 쟁 우리 바짱 먹어났저게.(그러면 그 석유통으로 하나를 따서 오면 그래도 쌀 한 말쭙 바꾸지. 녀 되쭙 바짜. 산딸나무 열매는 쌀처럼 편편하게 안 되고 조금 모록하게 쥐 버리고 하면 거 쌀 한 말밖에 더 바꿀 수 있니? 그래서 우리 바짜서 먹었었지.)

113022 @ 걸로 쓸도 바짱 먹어?(그걸로 쓸도 바짜서 먹어?)

113022 # 응, 풀레 와, 그거, 쓸 바꾸레 와.(응, 팔러 와, 그거, 쌀 바꾸러 와.)

113022 @ 다 데껴부는디 지금은.(다 던져버리는데 지금은.)

113022 # 게메 나 제주대학 신 중 알아시민 나 타먹으레 가컬. 언제 익건 곶으라, 나 타먹으레 가켜. 옛날 틀도 먹어났저마는 틀이 어디 가신고 경행 산고지 이제도 틀이 신가, 경만 생각험주.(글쎄 나 제주대학 있는 줄 알았으면 나 따먹으러 갈걸. 언제 익으면 말해라, 나 따먹으러 가겠어. 옛날 산딸나무 열매도 먹었었지마는 산딸나무 열매가 어디 갔나 그렇게 해서 산에 이제도 산딸나무 열매가 있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113022 @ 예.(예.)

113022 # 거 할로산에베끼 엇어. 이 근처엔 엇어. 할로산에 가근에 허민 밤 장 그 틀을 탕 느려오주게. 이디서 할로산 가젠 허민 오죽 머냐? (거 한라산에밖에 없어. 이 근처에는 없어. 한라산에 가서 하면 밤 자면서 그 산딸나무 열매를 따서 내려오지. 여기서 한라산 가려고 하면 오죽 머냐?)

113022 @ 응.(응.)

113022 # 경허민 밤 자근에 어떤 땀 틀 타당 털어정 사름이 죽넨 헤라. 거 밤이 장 줍자민이 그 털어정 막 므스왕 어떤 사름덜 벳헝베끼 안 가났어.(그러면 밤 자서 어떤 땀 산딸나무 열매 따다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 거 밤에 가서 잠 자면 그 떨어져서 아주 무서워서 어떤 사람들 벳해서밖에 안 갔었어.)

113022 @ 틀 타레 읍센 전화해사큰게.(산딸나무 열매 따러 오라고 전화해야겠네.)

113022 # 타레 가주레. 어떻게 이젠 올암시니 봄도 허고. 우린 봐나도 안해서. 그 틀낭이엔 허연 선홀고지 하나가 이시난 우리 아버지네 저거 틀낭 아나가 영허영 ㄱ리쳐쥬 봐난디. 경헝게 틀 탕 오민 이젠 쌀에 바짱 주민 먹어 낫주게.(따러 가지. 어떻게 이젠 열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 우린 보지도 았았었어. 그 산딸나무라고 해서 선홀술에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네 저거 산딸나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가르쳐쥬서 봤었는데. 그렇게 해서 산딸나무 열매 따서 오면 이젠 쌀에 바뀜 주면 먹었었지.)

113022 @ 응.(응.)

113022 # 경 이제 틀 먹어근에 똥 싸민 도새기가, 그땐 집집마다 질루지 안해사게? 경허민 틀 먹영 도새기 통시에 가민 바싹바싹허영 도새기 육헌덴, 그 씨 씹어 먹젠허민.(그렇게 이제 산딸나무 열매 먹어서 똥 싸면 돼지가, 그땐 집집마다 기르지 았았나? 그러면 산딸나무 열매 먹어서 돼지 '통시'에 가면 바싹바싹해서 돼지 육한다고, 그 씨 씹어 먹으려고 하면.)

113022 @ 도새기가 못 씹영?(돼지가 못 씹어서?)

113022 # 틀 먹영 통시에 가민 도새기 육헌덴 경 곱아난. 씨차 막 먹영 누리와 불민 사름덜은. 그 씨도 이젠 먹지도 안 할 거여. 씨, 틀 허나에 아메도 씨가 혼 방울베끼 엇일 거라, 거. 우리 두린 때 먹어난.(산딸나무 열매 먹어서 '통시'에 가면 돼지 육한다고 그렇게 말했었어. 씨째 막 먹어서 내려 버리면 사람들은. 그 씨도 이젠 먹지도 았을 거야. 씨, 산딸나무 열매 하나에 아무래도 씨가 한 방울밖에 았을 거야, 거. 우리 어린 때 먹었었어.)

113024 @ 손톱에 영 툃아불민 막 붓곡 헝니께?(손톱에 이렇게 뜯어버리면 막 붓고 하잖아요?)

113024 # 손 알린 거. 거심, 거심. 그것도이 하영 헤사지, 이제 거심도 안 헝다게. 장갑 쥬 일헤불곡 허민. 옛날 장갑도 아이 찌곡 헝 땐 거심 많이 일어.(손 아린 거. 거스러미, 거스러미. 그것도 많이 해야지, 이제 거스러미도 안 한다. 장갑 껴서 일헤 버리고 하면. 옛날 장갑도 안 끼고 한 때 거스러미 많이 일어.)

113024 @ 응.(응.)

113024 # 거민 아프주게, 아파도 어땡 안허여. 아파도 그디 물이나 들영 허민 거 알리는 사름은 알려도 어땡 안허고게, 거심 ㄱ뜨 거. 알럼젠 허주게. 생손 알럼젠 허영. 그것도 약 엇인 때라부난 마농지시 짠 것도 처매고 뭐 허다근에 좋주.(그러면 아프지, 아파도 어떻게 안 해. 아파도 거기 물이나 들어서 하면 거 아리는 사름은 아려도 어떻게 안하고, 거스러미 같은 거. 아린다고 하지. 생인손 아린다고 해서. 그것도 약 았는 때라서 마늘짱아지 짠 것도 처매고 뭐 하다가 좋지.)

113024 @ 마농지시?(마늘짱아지?)

113024 # 짠 거. 소금도 처매고 약 엇인 때라부난, 방법이 엇주게. 방법이 엇

어.(짤 거. 소금도 쳐매고 약 없는 때라서, 방법이 없지. 방법이 없어.)

113024 @ 아.(아.)

113024 # 이제 ㄹ뜨민 주사 강 맞아불민 좋주마는 방법이 없어. 옛날 사름덜은 고생했주. 장갑 아이 쩡 하간 일해 보라. 이디 거심 안 일크냐게, 손가락마다게.(이제 같으면 주사 가서 맞아버리면 좋지마는 방법이 없어. 옛날 사람들은 고생했지. 장갑 안 껴서 온갖 일해 보라. 여기 거스러미 안 일겠니, 손가락마다.)

113020 @ 부스럼 말고 종기는?(부스럼 말고 종기는?)

113020 # 그 ㄹ뜨민 거. 종기ㄹ라 부스럼 낫젠 험주게. 허물 낫젠 허는 게 부시럼 이주게. 요새 사름덜은 종기여 무시겨여 해도.(그 같은 거. 종기보고 부스럼 낫다고 하고 있지. ‘허물’ 낫다고 하는 게 부스럼이지. 요새 사람들은 종기다 뭐다 해도.)

113021 @ 혈리는 어떻 험니까?(헌데는 어떻게 험니까?)

113021 # 혈리 낫젠, 그 부시럼 낫당 그차지민 혈리 아니가? 혈리 낫젠.(헌데 낫다고, 그 부스럼 낫다가 잘라지면 헌데 아니냐? 헌데 낫다고.)

113021 @ 부시럼 그차지민?(부스럼 잘라지면?)

113021 # 응, 술 이디 무시걸로 허영 혈리 나민게. 어디게 술이 만약에 부시럼 낫당 좋지 안행 뭐허민게 혈리 낫젠 안허느냐게?(응, 살 여기 뭐로 해서 헌데 나면. 어디 살이 만약에 부스럼 낫다가 좋지 않아서 뭐하면 헌데 낫다고 안 하느냐?)

113021 @ 그뎨 어떻 허민 좋아?(그뎨 어떻게 하면 나아?)

113021 # 그 약 이젠 엇어졌어. 주리치기엔 약이 그 혈리 난 디 블르민 곧 아무는 약이 있는데 엇어졌어.(그 약 이젠 없어졌어. ‘주리치기’라고 약이 그 헌데 난 데 바르면 곧 아무는 약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113021 @ 주리치기?(‘주리치기’?)

113021 # 옛날 드르에 나낫주게. 주리치기라고 해 가지고 이제 못 봐. 나 드르에 안 뎡겨불고. 이제 테역밭디 그게 낭 소름소름 이제, 저을 들민 거 해다근에 낫당 술아근에 춤지름에 개영 블르민 단작 좋아. 춤말로 그거.(옛날 들에 낫었지. 장구채라고 해 가지고 이제 못 봐. 나 들에 안 다녀버리고. 이제 잔디밭에 그게 나서 길쭉길쭉 이제, 겨울 들명 그거 해다가 놔두었다가 태워서 참기름에 개어서 바르면 단번에 나아. 참말로 그거.)

113021 @ 혈리 난 디?(헌데 난 데?)

113021 # 응, 견디 그 약이 이제 몰라, 엇어졌어. 우리 전이 옛날은 해당 놔뒀난 디 이젠 원 못 봐, 못 봐.(응, 그런데 그 약이 이제 몰라, 없어졌어. 우리 전에 옛날은 해다가 놔뒀다가 이젠 원 못 봐, 못 봐.)

113025 @ 두드러기 난 덴?(두드러기 난 덴?)

113025 # 두드러기도 그거 어떻 허당. 거 미시거 잘못 먹영이나 어떻 허영 거 두드럭 낫당도 어떻 안허여.(두드러기도 그거 어떻게 하다가. 거 뭐 잘못 먹어서나 어떻게 해서 거 ‘두드럭’ 낫다가도 어떻게 안 해.)

113025 @ 두드럭?(‘두드럭’?)

113025 # 응, 흐쓸 허민 두드레기 낫젠 해도 어떻 안허여.(응, 조금 하면 두드레기 낫다고 해도 어떻게 안 해.)

113025 @ 두드럭이짜, 두드레기짜?(‘두드럭’입니까, 두드레기입니까?)

113025 # 정도 허꼭게 굳는 게 그 말.(그렇게도 하고 말하는 게 그 말.)

113028 @ 화상 입으민?(화상 입으면?)

113028 # 덴 거?(덴 거?)

113028 @ 응.(응.)

113028 # 덴 거는이 심허게 덴 건 참지름이 젤. 지름 물지름 붙른 거 허고. 요새 얼음 엇이나? 얼음 헤영 탁 부찌민 좋고게.(덴 거는 심허게 덴 건 참지름이 제일. 기름 말기름 바른 거 하고. 요새 얼음 없니? 얼음 해서 탁 붙이면 낫고.)

113028 @ 옛날게, 옛날.(옛날, 옛날.)

113028 # 옛날 참지름 하영 주로 불러. 불러민 좋아.(옛날 참기름 많이 주로 불러, 바르면 나아.)

113028 @ 화상에?(화상에?)

113028 # 응, 화상에.(응, 화상에.)

113029 @ 게민 추워근에 발 동상 입으민?(그러면 추워서 발 동상 입으면?)

113029 # 그건 방법 엇어. 것도 그냥 그대로 시민 낫어.(그건 방법 없어. 그것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나아.)

113030 @ 감기에는 뭐가 좋아?(감기에는 뭐가 좋아?)

113030 # 감기에 미신 먹는 게 좋을 말고게?(감기에 무슨 먹는 게 좋을 말이냐?)

113030 @ 미깡차?(굴차?)

113030 # 이 풀초가 핫주마는 필요 없어, 이제.(이 풀이 많지마는 필요 없어, 이제.)

113030 @ 옛날에게.(옛날에.)

113030 # 옛날은 게 저디 저 소웁이엔 풀이 이서이. 그거 이제 허영, 씨, 그거 막 씨.(옛날은 저기 저 영경퀴라고 풀이 있어. 그거 이제 해서, 씨, 그거 아주 씨.)

113030 @ 빨리?(뿌리?)

113030 # 소웁이 빨리도 잇고 그냥 낭도 이신디 그거 파다근에 딸려 먹나게.(영경퀴 뿌리도 잇고 그냥 나무도 잇는데 그거 파다가 달여 먹어.)

113030 @ 빨리를 딸려, 아니면 낭을 딸려?(뿌리를 달여, 아니면 나무를 달여?)

113030 # 낭도 딸리고.(나무도 달이고.)

113030 @ ㄴ찌?(갈이?)

113030 # ㄴ찌 낱 딸려. 거 먹넨 헤낫주게. 두루에기 빨리도 먹꼭게. 감기에 딸령 먹넨. 미깡 헤영 나스미깡 ㄴ뜨 거 헤영 딸령 먹고. 땡유지 딸려 먹고. 약 엇이 난 헤볼 수 엇주게. 감기에는 오장을 드뚝허게만 헤야 것이 낫이니까.(갈이 ㄴ쳐서 달여. 거 먹는다고 했었지. 하눌타리 뿌리도 먹고. 감기에 달여서 먹는다고. 굴 해서

하꿀 같은 거 해서 달여서 먹고. 땀유자 달여서 먹고. 약 없으니까 해볼 수 없지. 감기에는 오장을 따뜻하게만 해야 그것이 나오니까.)

113030 @ 곤죽에 패마농 썰어넣 허는 죽은 무신 죽?(흰죽에 쪽파 썰어놓고 하는 죽은 무슨 죽?)

113030 # 패마농 썰어넣 감기 때에 드뜻이 행 먹음으로 패마농 낱.(쪽파 썰어놔서 감기 때에 따뜻하게 해서 먹는 것으로 쪽파 놔서.)

113030 @ 감기 때 약 엇넌 험게마는 이신게.(감기 때 약 없다고 하더니마는 있네.)

113030 # 맛좋주게, 맛좋아. 예에 무신 거 약이냐? 약이라 것도?(맛있지, 맛있어. 예에 무슨 그거 약이니? 약이야 그것도?)

113030 @ 무사 패마농 놔?(왜 쪽파 놔?)

113030 # 패마농은 뭐 승키 엇이난 거 죽에 놓민 맛좋주. 무신 거 약이냐? 따뜻하게.(쪽파는 뭐 푸성귀 없으니까 거 죽에 놓으면 맛있지. 무슨 그거 약이니? 따뜻하게.)

113030 @ 흰죽 안 먹고 패마농 놔?(흰죽 안 먹고 쪽파 놔?)

113030 # 흰죽은 잘 먹는 사람은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아이 먹지게. 겨니까, 패마농 놓고 소금 농곡 허민 아무나 먹주게.(흰죽은 잘 먹는 사람은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지. 그러니까, 쪽파 놓고 소금 놓고 하면 아무나 먹지.)

113030 @ 무신 죽이엔 곤는 말 엇어?(무슨 죽이라고 하는 말 엇어?)

113030 # 엇어, 엇어. 흰죽은 이제 패마농도 아이 농곡 현 거 그냥 쏘 거?라 흰죽이고, 그건 이제 그냥 죽으로 먹고, 거베피 무신 약이 이서. 이 오장에 병이난 거 자연으로 좋아야지, 약이 엇어.(엇어, 엇어. 흰죽은 이제 쪽파도 안 놓고 한 거 그냥 쏘 거보고 흰죽이고, 그건 이제 그냥 죽으로 먹고, 그것밖에 무슨 약이 있어. 이 오장에 병이니까 거 자연으로 좋아야지, 약이 엇어.)

113031 @ 기침할 땐 무신거 먹으면 좋아?(기침할 때 뭐 먹으면 좋아?)

113031 # 게메 그거베피 엇주게.(글쎄 그거밖에 엇어.)

113031 @ 아까 그거 감기 걸렸을 때 허는 거?(아까 그거 감기 걸렸을 때 하는 거?)

113031 # 그게 감기주 뭐라, 거.(그게 감기지 뭐야, 거.)

113031 @ 감기는 열도 나고 허주마는 기침만 많이 허는 애기는 뭐 먹이는지?(감기는 열도 나고 하지마는 기침만 많이 하는 애기는 뭐 먹이는 거?)

113031 # 그거 옛날은 물애기덜 옛날, 것도 옛날이주, 거 맥일 거냐?(그거 옛날은 간난아이들 옛날, 그것도 옛날이지, 거 맥일 거니?)

113031 @ 뭐?(뭐?)

113031 # 상충이라고 해 가지고 벌레, 벌레.(상충이라고 해 가지고 벌레, 벌레.)

113031 @ 벌레? 어떤 벌레?(벌레? 어떤 벌레?)

113031 # 벌레도이 저 무니냥 상충, 뽕나무 상충 그런 거 허여다근에 벌레라,

큰 굽베랭이 닮은 거.(벌레도 저 느릅나무 상충, 뽕나무 상충 그런 거 해다가 벌레야, 큰 굽베랭이 같은 거.)

113031 @ 굽베랭이 닮은 거?(굽베랭이 같은 거?)

113031 # 응, 똑닮지게. 그거 해다근에 까 가지고 이제. 거 오일장에 막 팔, 이제도 풀암실걸.(응, 똑같지. 그거 해다가 까 가지고 이제. 거 오일장에 막 팔, 이제도 팔고 있을걸.)

113031 @ 굽베랭이는 풀주게.(굽베랭이는 팔지.)

113031 # 굽베랭이 말앙 상충도 풀암실 거라, 시방. 우린 안 맥여봤.(굽베랭이 말고 상충도 팔고 있을 거야, 시방. 우린 안 먹여봤어.)

113031 @ 어떻 맥여?(어떻게 먹여?)

113031 # 그거 이제 짜어 가지고 그 영 행 소굽에 거 맥여.(그거 이제 짜어서 그 이렇게 해서 속에 거 먹여.)

113031 @ 그냥 생으로?(그냥 생으로?)

113031 # 응, 애기. 그거 맥이민 감기 낫넨 허멍 어린애기덜 그거 막 사명덜 맥여났저. 막 사명덜. 우린 추접허영 안 맥여. 더러왕. 또이 그거 해당 푼는 사름 막 하. 요 어는제7장 풀암더라.(응, 야기. 그거 먹이면 감기 낫는다고 하면서 어린애기들 그거 막 사면서들 먹였었어. 막 사다가. 우린 더러워서 안 먹여. 더러워서. 또 그거 해다가 파는 사람 아주 많아. 요 언제까지 팔고 있더라.)

113032 @ 딸꾹질.(딸꾹질.)

113032 # 툄국지 약 엇어.(딸꾹질 약 없어.)

113032 @ 놀래면 멈춰? 우린 경허는디.(놀래면 멈춰? 우린 그렇게 하는데.)

113032 # 경도 헤여. 경허여.(그래도 해, 그렇게 해.)

113033 @ 코피 하영 나민?(코피 많이 나면?)

113033 # 것도 약 엇고.(그것도 약 없고.)

113033 @ 썩이라도.(썩이라도.)

113033 # 에에.(에에.)

113035 @ 이런 디 멩얼 사민 그거 뤼엔 곴아?(이런 데 멩을 서면 그거 뤼라고 말해?)

113035 # 멩얼 사는 거 무신거라게?(멩을 서는 게 뤼야?)

113035 @ 늦인돌?(‘늦인돌’?)

113035 # 그렇게도 곴아. 멩얼 사는 게 맞아.(그렇게도 말해. 멩을 서는 게 맞아.)

113035 @ 늦인돌이엔 말도 들어뵈?(‘늦인돌’이라고 말도 들어뵈어?)

113035 # 들어뵈. 것도 곴으메 경.(들어뵈어. 그것도 말해 그렇게.)

113036 @ 설사 하영 헐 땡?(설사 많이 할 땡?)

113036 # 설사 하영 해도 약 엇다게.(설사 많이 해도 약 없어.)

113036 @ 정로환 맥여?(정로환 먹여?)

113036 # 정로환 저디 잊저마는 거 먹어봐도 소용 엇어.(정로환 저기 있다마는 그거 먹어봐도 소용 없어.)

113036 @ 계민 어땡 허여? 설사할 때. 병원 엇일 때.(그러면 어떻게 해? 설사할 때. 병원 없을 때.)

113036 # 방법 엇다게. 세월이 감시민 좋아, 것도. 음식을 잘못 먹든지, 어떻게 해서 설사가 난 거 아니냐. 그거 건디 그것이 츠츠츠츠 자연으로 좋아야 허지. 그렇지 안허영 약이 엇다고.(방법 없어. 세월이 가고 있으면 나아, 그것도. 음식을 잘못 먹든지, 어떻게 해서 설사가 난 거 아니냐. 그거 그런데 그것이 차츠차츠 자연적으로 좋아야지. 그렇지 않아서 약이 없다고.)

113036 @ 죽이라도 썰 맥여살 거 아니?(죽이라도 썰어서 먹어야 할 거 아니?)

113036 # 죽도 썰 먹고 허주게, 그런 때. 약이 엇고 허민. 경험시민 세월이 가가민 좋주게. 하루 이틀이나 사흘 해가민 좋아.(죽도 썰어서 먹고 하지, 그런 때. 약이 없고 하면. 그리고 있으면 세월이 가가면 낫지. 하루 이틀이나 사흘 해가면 좋아.)

113036 @ 응.(응.)

113040 # 속 막으민 좋아. 속베끼 약 엇어. 또이 이디 이제 우리가 미짱이라도 타다근에 ㄱ새로 손을 다치지. 속이 쥔. 피 나는 덴 속이 일등. 속베끼 엇어. 속 부찌민 피가 가되불민 그 대일밴드도 부찌꼭 연고도 블라도 좋아.(썩 막으면 좋아. 썩밖에 약 없어. 또 여기 이제 우리가 굴이라도 따다가 가위로 손 다치지. 썩이 쥔. 피 나는 덴 썩이 일등. 썩밖에 없어. 썩 붙이면 피가 가두어 버리면 그 대일밴드도 붙이고 연고도 발라도 나아.)

113040 @ 먼저 속으로 해야 돼?(먼저 썩으로 해야 돼?)

113040 # 응, 먼저 속으로 해야 돼. 나 밧디 속 혼 폐기 싱겨서.(응, 먼저 썩으로 해야 돼. 나 밧에 썩 한 포기 심었어.)

113040 @ 이디 마당에도 속 하선게.(여기 마당에도 썩 많던데.)

113040 # 쥔디 이디도 한디 이디 오길 못 츠지게, 밧디서.(그러면 여기도 많은데 여기 오기까지 못 참지, 밧에서.)

113042 @ 뱀 물릴 땐?(뱀 물릴 땐?)

113042 # 거 물릴 때. 것도 약 엇어.(거 물릴 때. 그것도 약 없어.)

113042 @ 독을 빨아?(독을 빨아?)

113042 # 빠나마나 것도 타는 사람은 허고 안 타는 사람은 어땡 안 해. 난 안 타.(빠나마나 그것도 타는 사람은 하고 안 타는 사람은 어떻게 안 해. 난 안 타.)

113042 @ 진짜? 뱀이 조끄디 안 오는구나?(진짜? 뱀이 곁에 안 오는구나?)

113042 # 아니 왕 물어. 세 번이나 물연.(아니 와서 물어. 세 번이나 물렸어.)

113042 @ 계도 아무 충도 안헨?(그래도 아무렁지도 앓아?)

113042 # 아무 충도 안해.(아무렁지도 앓아.)

113042 @ 뱀은 뱀이엔 곶아? 다른 말 이수과?(뱀은 뱀이라고 말해? 다른 말 있습니까?)

113042 # 진거. 진게 췌왓젠.(‘진거’, ‘진거’ 쏘었다고.)

113042 @ 진거를 세 번이나 췌와신디 멀쩡해불언?(뱀을 세 번이나 쏘었는데 멀쩡해 버렸어?)

113042 # 멀쩡해 불언. 그거이 타는 사름 막 타. 난 어린 때 감낭 아래 감 주서 먹으레 아으덜이영 막 갖거든. 가니까 이만한 거 그냥 여기 췌와 불언.(멀쩡해 버렸어. 그거 타는 사람 아주 타. 난 어린 때 감나무 아래 감 주워 먹으러 아이들이랑 막 갖거든. 가니까 이만한 거 그냥 여기 쏘여 버렸어.)

113042 @ 아이고.(아이고.)

113042 # 경허난 집이 완에 경 헛젠 허난 막 겁난이. 게도 아무통도 안헛.(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주 겁나서. 그래도 아무렇지 않았어.)

113042 @ 다른 사름은 뱀 물리민 어떻 헛넌 헛니까?(다른 사름은 뱀 물리면 어떻게 한다고 헛니까?)

113042 # 드르에 뎅기단에 그냥 췌와불언게. 경 헤낫저게.(뜰에 다니다가 그냥 쏘여 버렸어. 그렇게 헛었어.)

113042 @ 다른 사름덜은 어떻?(다른 사름들은 어떻게?)

113042 # 다른 사름덜은 막 붓어.(다른 사름들은 막 부어.)

113042 @ 계난 계민 어떻 헛삽니까?(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3042 # 그거이 저 방법은 거 잘 안허여, 사름덜이. 불르는 건 게 무신 약덜이나 이샤게, 요새 요소비료도 불른다, 무시거 헛다 중간엔 허여라마는.(그거 저 방법은 거 잘 안헛, 사름들이. 바르는 건 게 무슨 약들이나 있니, 요새 요소비료로 바른다, 무엇 한다 중간에 하더라마는.)

113042 @ 더 옛날에.(더 옛날에.)

113042 # 더 옛날에도 약이 엇어. 저 췌 이제 귀 가지고 그 췌물을 그레 덩게 시리 착착 흘치면 그거베피 약 엇어.(더 옛날에도 약이 없어. 저 쇠 이제 구어 가지고 그 췌물을 그리 덩게 착착 흘리면 그거밖에 약 없어.)

113042 @ 그냥 이런 췌?(그냥 이런 쇠?)

113042 # 응, 호미 현 거나 뭐 그런 췌를 구어 가지고 드똥허게 해서 그레 탁탁 흘쳐. 그거 췌운 더레.(응, 낫 현 거나 뭐 그런 쇠를 구어 가지고 따똥허게 해서 그리 탁탁 흘려. 그거 쏘인 데로.)

113042 @ 췌 녹을 정도 뜨거우민.(쇠가 녹을 정도 뜨거우면.)

113042 # 췌 드똥허게 구워 가지고. 겨민 그 물을 이제 그레 착착 췌로 흘치면 췌물이 그레 착착 흘치거든. 그것가 췌 약이라.(쇠 따똥허게 구워 가지고. 그러면 그 물을 이제 그리 착착 쇠로 흘리면 췌물이 그리 착착 흘리거든. 그것이 제일 약이야.)

113042 @ 췌를 막 뜨겁게 해놔, 물을 이레 비와, 물이 지나가명 흘치는 거?(쇠를 막 뜨겁게 해놔서. 물을 이리 비워, 물이 지나가면서 흘리는 거?)

113042 # 응, 그레 흘쳐. 췌운 더레. 그것이 췌 큰 방법이라.(응, 그리 흘려. 쏘

인 데로. 그것이 켈 큰 방법이야.)

113041 @ 모기 물린 딘 어떻게 해?(모기 물린 데 어떻게 해?)

113041 # 모기 물린 디 무신 약이 이서게?(모기 물린 데 무슨 약이 있어?)

113041 @ 춤 블라?(침 발라?)

113041 # 요새 약 엇이나? 연고 블르주.(요새 약 없니? 연고 바르지.)

113041 @ 옛날에.(옛날에.)

113041 # 옛날엔 약 엇어 부난 내불민.(옛날엔 약 없어 버리니까 내버리면.)

113043 @ 벌.(벌.)

113043 # 벌 췌운 것도 약 엇어. 붓엇당 낫주.(벌 쏘인 것도 약 없어. 부엌다가 낫지.)

113043 @ 애기 오줌 안 허여?(아기 오줌 안 해?)

113043 # 안 허여.(안 해.)

113043 @ 할머니는 아무 충도 안해도게 늬들은 아프주게?(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남들은 아프지.)

113043 # 벌은, 주냉이 물민 붓어?(벌은, 지네 물면 부어?)

113043 @ 게민 주냉인 어떻게 해?(그러면 지네는 어떻게 해?)

113043 # 주냉인 아무 충도 안해.(지넨 아무렇지도 않아.)

113043 @ 다 아무 충도 안허덴.(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113043 # 아, 붓엇당 좋아블주게.(아, 부엌다가 나아 버리지.)

113043 @ 흐뎡 가라얏히젠 허민게.(조금 가라얏히려고 하면.)

113043 # 시간이 뵤민 다 낫아.(시간이 되면 다 나아.)

113044 @ 옷 올른덴 험니께?(옷 오른다고 하잖아요?)

113044 # 아 그거 이제 선흘 고지 그 낭이 이서낫젠 허는디 난 몰라, 잘.(아, 그 거 이제 선흘 숲 그 나무 있었다고 하는데 난 몰라, 잘.)

113044 @ 칠낭에 칠 올르민 어떻 해야뵤?(칠나무 칠 오르면 어떻게 해야 뵤?)

113044 # 건 득 먹넨 현다.(그건 닭 먹는다고 한다.)

113044 @ 득을 먹으라고?(닭을 먹으라고?)

113044 # 득. 득 먹넨. 그냥 득만 숲양 모욕도 막 심헌 사름은 모욕도 현덴 헤라.(닭, 닭 먹는다고. 그냥 닭만 삶아서 목욕도 아주 심한 사람은 목욕도 한다고 하더라.)

113044 @ 뵤로?(뵤로?)

113044 # 득 숲양.(닭 삶아서.)

113044 @ 득 숲은 뵤로?(닭 삶은 뵤로?)

113044 # 응.(응.)

113044 @ 닭하고 옷이 뵤가 있는 모양이다예?(닭하고 옷이 뵤가 있는 모양이네요?)

113044 # 경헌 췌이라. 거 말만 들어난.(그런 모양이야. 거 말만 들었었어.)

113044 @ 옷도 여러 종류파?(옷도 여러 종류입니까?)

113044 # 으라 질이 아닌디 거 올르는 사름 벨로 엇어.(여러 종류 아닌데 거 올르는 사람 벨로 없어.)

113044 @ 옷냥, 본지방, 북냥 이런 것도 다 옷 올르는 거?(옷나무, 폰지나무, 불나무 이런 것도 다 옷 올르는 거?)

113044 # 그 저 본지도 그 칠이나 비슷해. 본지 올르민 근지러우명 허고 그저 칠은 흐뎡 저 더 두드레기가 많이 난덴 허여.(그 저 폰지도 그 칠이나 비슷해. 폰지 올르면 간지러우면서 하고 그저 칠은 조금 저 더 두드레기가 많이 난다고 해.)

113044 @ 북은?(붉은?)

113044 # 그게 그거주 뭐. 어디 북이 셔? 본지방도 올르는 게 잇고 안 올르는 게 셔.(그게 그거지 뭐. 어디 붉이 있어? 폰지나무도 올르는 게 잇고 안 올르는 게 있어.)

113044 @ 어디 부딪청 명들민?(어디 부딪쳐서 명들면?)

113044 # 명든 것도 놔두민 낮주.(명든 것도 놔두면 낮지.)

113044 @ 명든 건 그냥 명이엔 곱습니까?(명든 건 그냥 명이라고 말합니까?)

113044 # 아, 거떻게 명들엇젠 허주게.(아, 거떻게 명들었다고 하지.)

113044 @ 독새기 안 둥그려?(달걀 안 굴려?)

113044 # 것도 놔두민 세월이 가가민 좋아불주, 독새기 둥그려 밧자여게.(것도 놔두면 세월이 가면 좋아버리지, 달걀 굴려 봐도.)

113039 @ 체헌 거?(체한 거?)

113039 # 체가 내어사주.(체가 내려야지.)

113039 @ 어떻 허민 웨여? 집이서 임시로. 바놓으로 찢르꼭 허는 거라도.(어떻게 하면 돼? 집에서 임시로. 바늘로 찢르고 하는 거라도.)

113039 # 아이고, 거 필요엿다, 뭐 그거 헌 것에. 아니 여기 저 체허민 이제 손가락 저 바놓으로 침 주는 사름덜도 그렇게 허면은 이제 쭈악허게 찢르민 아이고 허게 아플 거 아니가? 겨민 느려가는 거라.(아이고, 거 필요없다, 뭐 그거 한 것에. 아니 여기 저 체하면 이제 손가락 저 바늘로 침 놓는 사름들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쭈악하고 찢르면 아이고 하게 아플 거 아니냐? 그러면 내려가는 거야.)

113039 @ 아이고 허는 소리에 느려가는 거라?(아이고 하는 소리에 내려가는 거야?)

113039 # 그거베끼 방법이 엇어. 침 준 것에 이디 속에 가냐?(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침 놓는 것에 어디 속에 가니?)

113039 @ 내가 요즘에 자꾸 체헬수다.(내가 요즘 자꾸 체합니다.)

113039 # 건 체 내사 웨크라.(그건 체 내야 되겠네.)

113047 @ 발목 삐거나 허리 뻐 때 뭐 허민 좋습니까?(발목 삐거나 허리 뻐 때 뭐 하면 좋습니까?)

113047 # 아 그거, 생주왕이엔 헌 약이 이시네, 생주왕.(아 그거, 생지황이라고

한 약 이 있잖아, 생지황.)

113047 @ 생주왕이 뭐?(생지황이 뭐?)

113047 # 생주왕 거 안 봐난? 풀암네, 저 동문시장에.(생지황 거 안 봤었어? 팔잖아, 저 동문시장에.)

113047 @ 생주왕이 어떤 거? 약초?(생지황이 어떤 거? 약초?)

113047 # 불리, 불리. 생주왕이라고 허는 약이 이서, 불리가. 이 다쳐근앵이 어디 강 탁 패영 꺾사 명들곡 이런 얼굴에는 잘 못 부찌지마는 탁이 어디 패어분 건 단작 좋아. 그거 부찌민. 거 처매민.(뿌리, 뿌리. 생지황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 뿌리가. 이 다쳐서 어디 가서 탁 부딪쳐서 아까 명들고 이런 얼굴에는 잘 못 붙이지마는 탁 어디 부딪친 건 단번에 좋아.)

113047 @ 생주왕?(생지황?)

113047 # 생주왕허고 치지허고 서꺼서 뺏아 가지고 이제 그레 막걸리허고 모 물꺾루나 밀꺾루나 행 떡 멘글양 탁 부짱 놔두민 시커멍허여, 그게. 시커멍허여 피독 올라 불민 좋아. 그건 좋메, 찜. 난 이 허린 하영 다쳐 부난.(생지황하고 치자하고 섞어서 빵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막걸리하고 메밀가루나 밀가루나 해서 떡 만 들어서 딱 붙여 놔두면 시커멓게 돼, 그게. 시커멓게 피독 올라와 버리면 좋아. 그건 좋아, 찜. 난 이 허린 많이 다쳐 버리니까.

113047 @ 허리 빨 때도 이렇게?(허리 빨 때도 이렇게?)

113047 @ 응, 그거 좋나. 생주왕 막 꼭느네게. 동문시장 안에 그 약방에 약덜 낱 풀지 안허느냐게, 불리덜.(응, 그거 좋아. 생지황 막 팔잖아. 동문시장 안에 그 약방에 약들 놔서 팔지 않느냐, 뿌리들.)

113048 @ 쓸개풀로 빼었을 때 안해?(제비꽃으로 빼었을 때 안 해?)

113048 # 아, 쓸갯잎. 것도 헤여.(아, 제비꽃잎. 그것도 해.)

113048 @ 빼었을 때?(빼었을 때?)

113048 # 응, 발 빨 때도 그거 허고 열 날 때도 그거 쓸갯잎도 허여. 꺾사 들느 물 곁아주지 안해서, 들느물. 들느물허고 쓸갯잎 그런 디 허영 처매민.(응, 발 빨 때도 그거 하고 열 날 때도 그거 제비꽃잎도 해. 아까 들나물 말해주지 않았니, 들나물하고 제비꽃잎 그런 데 해서 처매면.)

113048 @ 열 날 때도 허고 빨 때도 허고?(열 날 때도 하고 빨 때도 하고?)

113048 # 발 빨 땀 생주왕.(발 빨 땀 생지황.)

113048 @ 생주왕이 젼이고 엇이민 쓸갯잎으로?(생지황이 젼이고 없으면 제비꽃잎으로?)

113048 # 쓸갯잎도 허고 들느물도 허고.(제비꽃잎도 하고 들나물도 하고.)

113049 @ 귀에 물 들어가민 어떻 허여?(귀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해?)

113049 # 방법 엇어.(방법 없어.)

113049 @ 따뜻한 돌에 귀를 대나 한쪽 발로 뛰든가 안 해?(따뜻한 돌에 귀를 대나 한쪽 발로 뛰든가 안 해?)

113049 # 경헛젠 물이 나와? 아니 곳 든 땀 나오지게. 경허주마는 오래민 나오지 안허주.(그렇게 했다고 물이 나와? 아니 곧 들었을 땀 나오지. 그렇지마는 오래면 나오지 않지.)

113049 @ 오래민 어떻 해?(오래면 어떻게 해?)

113049 # 오래민 아프당 좋주, 어떻 허여? 귀막으렌 안헌 사름은 어떻 안 헤여. 것도 스주에 귀막으렌 해야 막주. 경 안허민이 나이가 만허영 그때가 뤄민 귀막는 건 할 수 엇고. 젊은 때사 귀도 막으렌 헤사 막주.(오래면 아프다가 낫지, 어떻게 해? 귀먹으라고 안 한 사름은 어떻게 안 해. 그것도 사주에 귀먹으라고 해야 먹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많으면서 그때가 되면 귀먹는 건 할 수 없고. 젊은 때야 귀도 먹으라고 해야 먹지.)

113050 @ 무죸은?(무죸은?)

113050 # 아, 무죸, 약 엇어. 무죸이 요새 약이 천지라도 스뭇 좋지 안헌다게. 무죸 그냥이.(아, 무죸, 약 없어. 무죸이 요새 약이 천지라도 사뭇 좋지 않아. 무죸 그냥.)

113051 @ 습진은?(습진은?)

113051 # 습진이나 거나 비슷한 거주게. 습진도 ㄱ롭고 저 무죸이나 비슷허여. 일본말론 니스미시²¹³라고 허여이.(습진이나 거나 비슷한 거지. 습진도 가렵고 저 무죸이나 비슷해. 일본말론 ‘미즈무시’라고 해.)

113051 @ 니스미시?(니스미시?)

113051 # 이 무죸 보고 물충이라고 헌 말이주. 니스미시라고. 물충이라고 헌 말이라.(이 무죸 보고 물충이라고 한 말이지, ‘미즈무시’라고. 물충이라고 한 말이야.)

113052 @ 까치눈. 발이 일로 영 헤싸지는 거.(까치눈. 발이 이리로 이렇게 헤싸지는 거.)

113052 # 아, 발 눈 텅. 것도 약이 엇주마는 요샌 약이 좋난 것도 좋아. 니스미시 걸리민 경 헌다.(아, 발 눈 떠서. 그것도 약이 없지마는 요샌 약이 좋으니까 그것도 좋아. ‘미즈무시’ 걸리면 그렇게 한다.)

13.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죽을 뻔했던 일도 있지예?(죽을 뻔했던 일도 있지요?)

114001 # 나도 죽을 뻔 몇 번 넘었저, 몇 번 넘었어. 게난 나 죽어 불어시민 즈손덜 안 날 걸 행 어떤 땀 막 웃느네게. 나가 죽을 뻔을 몇 번을 넘언, 우리.(나도 죽을 뻔 몇 번 넘었어, 몇 번 넘었어. 그러니까 나 죽어 버렸으면 자손들 안 낳을 걸 해서 어떤 땀 막 웃잖아. 내가 죽을 뻔을 몇 번을 넘었어, 우리.)

114001 @ 응.(응.)

213) ‘니스미시’는 무죸의 일본어인 ‘미즈무시(みずむし, 水虫)’를 말하는 것이다.

114001 # 어른덜이영 ㄴ찌 무시거 함덕 그 스삼스건에 선홀은 이제 산촌 부락 이난 불을 다 부져 불어나세. 계난 집이 엇이난 함덕 느려갓어. 식구가 다 함덕을 느려갓어, 동싱들 다 데리고. 겐 느려간 이제 불을 숨젠 허난 검질이 시냐?(어른들 이랑 같이 무엇 함덕 그 사삼사건에 선홀은 이제 산촌 부락이니까 불을 다 붙여 버렸었어.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함덕 내려갓어. 식구가 다 함덕을 내려갓어, 동싱들 다 데리고.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불을 때려고 하니까 검불이 있니?)

114001 @ 응.(응.)

114001 # 빈 막, 시월 음력 시월에 그믐에 느려갓는데 눈은 매일 쳐 오고 비오고 검질이 엇은 거라. 우리 선홀 저 함덕에 이모님이 딸 하나하고 식구가 엇이 사는 디 갓어. 간디 방은 두 개 이시니까 뭐 사는디 검질 엇언 밥을 행 먹어질 말가? 불쏘시개 엇언.(비는 막, 시월 음력 시월에 그믐에 내려갓는데 눈은 매일 많이 오고 비오고 검불이 없는 거야. 우리 선홀 저 함덕에 이모님이 딸 하나하고 식구가 엇이 사는 데 갓어. 갓는데 방은 두 개 있으니까 뭐 사는데 검불 없어서 밥을 해서 먹을 수 있을 말이냐?)

114001 @ 갱 어떻게?(그래서 어떻게 했어?)

114001 # 이제ㄴ찌 신문지가 시냐? 어디 종이 혼 장이 시냐? 계난 이제 나가 어른덜이 선홀 오켄 허난 눈은 막 묻은 디 완에 이젠 검질 두 무께밀 지언 간 거라.(이제처럼 신문지가 있니? 어디 종이 한 장이 있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른들 이 선홀 오겠다고 하니까 눈은 막 묻은 데 와서 이젠 검불 두 묶음을 쳐서 간 거야.)

114001 @ 두 무께미를?(두 묶음을?)

114001 # 응, 베로 그 어른들이 완 지와 주니까, 나가. 혼 열여섯 뉘 땡가? 나 모르크라. 경헨 이젠 간디 이젠 눈 막 오고 난 원 뒷날도 올 생각에서, 나가 동싱, 우리 셋성님은 스삼사건에 죽어분 때라이. 나가 젤 옥은 아이라. 우리 동싱들 어린 아이덜 초롱초롱 이신 땡디.(응, 바로 그 어른들이 와서 지워 주니까, 내가. 한 열여섯 뉘 땡가? 나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이젠 갓는데 이젠 눈 막 오고 난 원 뒷날도 올 생각에서, 내가 동싱, 우리 둘째형님은 사삼사건에 죽어버린 때야. 내가 젤 큰 아이야. 우리 동싱들 어린 아이들 초롱초롱 있을 땡데.)

114001 @ 응.(응.)

114001 # 겐 우리 아버지네는 무서워서 못 오고, 난 이제 어른덜이영 왕 가는디 겐 지언 간디, 뒷날은 그 어른덜은 뒷날 왔주게. 오난 그자 함덕 가름 나오자말자 죽여불언. 그 어른덜 너이. 계난 나 그날 와서민 죽을 거. 여지엇이 죽지.(그래서 우리 아버지네는 무서워서 못 오고, 난 이제 어른들이랑 와서 가는데, 그래서 쳐서 갓는데, 뒷날은 그 어른들은 뒷날 왔지. 오니까 그냥 함덕 마을 나오자마자 죽어버렸어. 그 어른들 넷. 그러니까 난 그날 왔으면 죽을 거. 여지없이 죽지.)

114001 @ 아이고.(아이고.)

114001 # 경헌디 이젠 그 어른덜은이 얘기 너 오누이 내불어된 죽은 사름, 서

오누이 내불어 된 죽은 사람. 그 아이덜이 게도 다 성장허연 켜. 요작이도 그 애기 너 오누이 내분 막내아덜, 아덜이 이제 혼 칠십 몇 똥주게.(그런데 이젠 그 어른들은 아기 네 오누이 내버려두고 죽은 사람, 세 오누이 내버려 두고 죽은 사람. 그 아이들이 그래도 다 성장해서 컸어. 요전에도 그 애기 너 오누이 내버린 막내아들, 아들이 이제 한 칠십 몇 똥지.)

114001 @ 응.(응.)

114001 # 겨난 이제 일본 갓단 오고 북촌 살암서, 그 아이. 그 누난, 나보다 혼 나 알에 누난 죽어불고. 너 오누이 내불어된 죽어불언, 죽은 집이. 그 아이덜이 경헨에 산디. 요번에 잔칫집이 간 봐지난 막 날 안으멍 누님, 누님 허멍.(그러니까 이제 일본 갔다가 오고 북촌 살고 있어, 그 아이. 그 누난, 나보다 하나 아래 누난 죽어버리고. 네 오누이 내버려두고 죽어버렸어, 죽은 집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요번에 잔칫집에 가서 보니까 막 날 안으면서 누님, 누님 하면서.)

114001 @ 예.(예.)

114001 # 고자 이때도록 살안에 허고. 아이고, 느도 사난에 봐점시네 허멍 막 울지 안험뿐 헛어.(아직 이때까지 살아서 하고. 아이고, 너도 사니까 볼 수 있네 하면서 막 울지 않았을 뿐 헛어.)

114001 @ 사삼때 죽을 뻔했다는 거지예?(사삼때 죽을 뻔했다는 거지요?)

114001 # 응, 스삼때, 스삼때. 게난 그 어른덜이영 그날 와서민 나가 죽을 거, 죽을 거.(응, 사삼때, 사삼때.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랑 그날 왔으면 내가 죽을 거, 죽을 거.)

114001 @ 응.(응.)

114001 # 겐 나 그날 아니 와부난 살앗주게. 겨난 우리 아이덜ㄹ라 나 경 곶으민 어멍 죽어 불어시민 우리 아이 날 거 경허멍 막 웃어. 스삼사건에 죽을 목이 몇 번 넘엇주게. 곶앗당도 영 곶아시민 막 조사 오랑은예, 우리 아무 죄도 엇는디 그거 주 뭐.(그래서 나 그날 안 와버리니까 살았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보고 나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 죽어 버렸으면 우리 안 낳을 거 그러면서 막 웃어. 사삼사건에 죽을 대목을 몇 번 넘엇지. 숨엇다가도 이렇게 숨엇으면 막 조사 와서, 우리 아무 죄도 없는데 그거지 뭐.)

114001 @ 게메예.(그러게요.)

114001 # 그냥 흥끔 지레 오지락허영 십오 세 넘은 사람은 이건 막 그냥 뭐엔 허멍 심어만 가젠 허난.(그냥 조금 키 '오지락'해서 십오 세 넘은 사람은 이건 막 그냥 뭐라고 하면서 잡아만 가려고 하니까.)

114001 @ 산엿 사람이, 경찰이?(산의 사람이, 경찰이?)

114001 # 경찰이. 경허난 이젠 경찰 왁저 허민 어디 강 숨어야 돼여, 집이라도 영 못 볼 디.(경찰이. 그러니까 이젠 경찰 온다 하면 어디 가서 숨어야 돼, 집이라도 이렇게 못 볼 데.)

114001 @ 산엿 사람은 안 잡아가?(산의 사람은 안 잡아가?)

114001 # 산엿 사름도 잡아가, 말 잘못허민. 이견 양쪽이 물리는 거라. 이젠 경찰은 산에쪽 부뎃젠 허영 사름 죽이지, 산엿 것덜은 경찰쪽 부뎃젠 허영 사름 죽이지, 이거 원원.(산의 사름도 잡아가, 말 잘못하면. 이견 양쪽이 말리는 거야. 이젠 경찰은 산쪽에 붙었다고 해서 사름 죽이지, 산의 것들은 경찰쪽 붙었다고 해서 사름 죽이지, 이거 원원.)

114001 @ 어떻 헐 노릇이라예.(어떻게 할 노릇이예요.)

114001 # 겨난 이젠, 말로 이젠, 산엿 사름덜이 밤이 곱아듬서 뉘 일을 허여, 영 곱으민 그냥 그 말을 트집 잡아 가지고 ㅈ 심어당 죽여 불젠 허여, 산에 것덜도. ㅈ 소와, ㅈ 소와, ㅈ 소와났어. 거민 또 말도 못허고 가만히 허영 그자.(그러니까 이젠, 말로 이젠, 산의 사름들이 밤에 숨어서 무슨 일을 해,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 말을 트집 잡아 가지고 곧 잡아다가 죽여 버리려고 해, 산의 것들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웠었어. 그러면 또 말도 못하고 가만히 해서 그냥.)

114001 @ 계난예.(그러니까요.)

114001 # 경허단 이제 세월이 오래난 침, 살았주. 그런 시절 다시 왕은 안 뉘여. 겨난 스삼에 어떻해서 억울허냐면 산에 곱으레도 헐 번 아이 가보고 집이 가만이 이신 사름도 스상자라고 해 가지고 잡아단 ㅈ 죽여분 거 그것이 쉐 억울허여. 원원 아무 꼭단 없이. 그렇게 억울허여.(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오래니까 침, 살았지. 그런 시절 다시 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사삼에 어떻해 억울허냐면 산에 숨으려도 한 번 안 가보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름도 사상자라고 해 가지고 잡아다가 모두 죽어버린 거 그것이 쉐 억울해. 원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억울해.)

114001 @ 응.(응.)

114001 # 이 선홀도 죽은 사름 그런 사름 많다. 아무 분시도 몰른 사름. 우리 나이 사름도 지레 ㅎ꿈 큰 사름은 ㅈ딱 죽여불었저.(이 선홀도 죽은 사름 그런 사름 많다. 아무 분수도 모른 사름. 우리 나이 사름도 키 조금 큰 사름은 모두 죽여버렸어.)

114001 @ 지레 죽은 게 좋은 거네이.(키 작은 게 좋은 거네.)

114001 # 심으레 오민게 곱을 수베피 엇이니까, 양쪽을 무서우니까, 겨니까 이젠게 곱아시난에 스상자라고 해서 ㅈ딱 죽여불었주. 계난 막 억울허여. 그런 쉐 엇인 사름. 무신 스상이라고 해서 뉘 알앙 것도 죽어시민 청원 안 허주민 번쩍²¹⁴⁾ 이견 아무것도 몰른 사름. 그런 침 나쁜 시대가 셔.(잡으러 오면 숨을 수밖에 없으니까, 양쪽을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젠 숨었으니까 사상자라고 해서 모두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막 억울해. 그런 죄 없는 사름. 무슨 사상이라고 해서 뉘 알아서 그것도 죽었으면 청원 안 해주면 ‘번쩍’ 이견 아무 것도 모른 사름. 그런 침 나쁜 시대가 있어.)

114002 @ 도깨비 닳은 거 봐난 일 엇수과?(도깨비 같은 거 봤던 일 없습니까?)

114002 # 그런 거 안 봐난. 어떻 행 볼 말고게? 그것도 보는 사름, 봐저라 허는

214) ‘번쩍’은 ‘아무 의심할 것 없이 말갈게’의 뜻이다.

사름은 이서도 거 이녁이 정신 상태가 뭐 헛지, 구신이 었어.(그런 거 안 봤었어. 어떻게 해서 볼 말이니? 그것도 보는 사람, 보이더라 하는 사람은 있어도 거 자기 정신 상태가 뭐 헛지, 귀신이 없어.)

114002 @ 그슨새²¹⁵)는 귀신?('그슨새'는 귀신?)

114002 # 구진 거.(긋은 거.)

114002 @ 이런 초집 지붕에 잇는 것도 그슨새²¹⁶)엔 허지 안해?(이런 초가집 지붕에 잇는 것도 '그슨새'라고 하지 않아?)

114002 # 초집 그거 그신새 서끈 것ㄴ라 그신새엔. 새 서꺼분 거ㄴ라.(초가집 그거 '그신새' 섞은 것보고 '그신새'라고. 띠 섞어버린 것보고.)

114002 @ 흑 쫄 때도 서끄지 안해?(흑 이길 때도 섞지 않아?)

114002 # 수세로 놔. 산뒤냥이 제일인디 산뒤냥이 어디 경 하? 쉼 맥여불고 산뒤 하영 아이 갈곡 허민 었어부난 그신새도 놔 헛주.(수세로 놔. 발벼짚이 제일인데 발벼짚이 어디 그렇게 많아? 소 먹여버리고 발벼 많이 안 갈고 하면 없어버리니까 '그신새'도 놔서 헛지.)

114003 @ 어렸을 때 참외나 수박 같은 거 서리해난?(어렸을 때 참외나 수박 같은 거 서리했었어?)

114003 # 그런 것사 많이 싱거봤주.(그런 것이야 많이 심었었지.)

114003 @ 싱근 거 말고 늪의 밧디 거?(심는 거 말고 남의 밧에 거?)

114003 # 아니, 절대 그런 거 하나 타 먹음이랑 말앙, 우리 밧디 아이덜이 타 먹으레 와이. 경해도 막 부모덜 우리 저 앓선홀에 이제 집 즈끗디난. 어린아이덜이 막 이제 오주게, 자마리²¹⁷)로게 오면, 저 거시기게 스삼 유적지 엠에 우리 밧 잇저, 그디 경허민.(아니, 절대 그런 거 하나 따 먹기는 커녕, 우리 밧에 아이들이 따 먹으러 와. 그래도 막 부모들 우리 저 아랫선홀에 이제 집 곁이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이제 오지, '자마리'로게 오면, 저 거시기 사삼 유적지 옆에 우리 밧 잇어, 거기 그러면.)

114003 @ 선인동?(선인동?)

114003 # 아니 앓선홀. 낙선동, 낙선동. 경허민이 아이덜이 자마리로 타 먹으레 오지 안허느냐게?(아니, 아랫선홀, 낙선동, 낙선동. 그러면 아이들이 '자마리'로 따 먹으러 오지 않느냐?)

114003 @ 자마리?('자마리'?)

114003 # 자마리, 게 수박 타먹젠 아이덜이 경허민 이젠 우리가 막 타 먹지 말렌 해도 말 안 들어. 쟁 이제 어스름에 직허레 가주게. 가명 보난 아이덜이 아닌 게 아니라 수박밧디 들어왔어.('자마리', 게 수박 따먹으려고 아이들이 그러면 이젠 우리가 막 따 먹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어스름에 지키러 가지. 가면

215) '그슨새'는 '킴킴한 밤에 지상에 한없이 큰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해친다는 흑독한 사귀'를 말한다.

216) '그슨새'는 앞의 사귀와 동음이어로 '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217) '자마리'는 장난이라는 뜻으로 '자파리'를 잘못 발음한 것 같다.

서 보니까 아이들이 아닌 게 아니라 수박밭에 들어왔어.)

114003 @ 예.(예.)

114003 # 게민, 야 나오라덜, 나오라덜, 해도 곱아불영. 옥허카부덴. 이제 부모덜이 알아들영 와. 막 지네 아이덜을 심어놔 따리젠. 게민 난 아이 따리지 말렌, 따리지 말렌 그 수박 타 먹은 것에 아이 두드리민 돼느넌, 경행 헤나부난 이제도 넘어가명 인스 곱복, 그 아이덜이 성장했거든, 이제.(그러면, 야 나와라들, 나오라들, 해도 숨어버려서. 옥할까봐. 이젠 부모들이 알아들어서 와. 막 자기네 아이들 잡아놓고 때리려고. 그러면 난 아이 때리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그 수박 따 먹은 것에 아이 두드리면 되느냐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도 지나가면서 인사 꾸벅, 그 아이들이 성장했거든, 이제.)

114003 @ 응.(응.)

114003 # 시내에서 봐저도 절행 넘어가. 사람은 그렇게 해뒤사주. 그거 타 먹었다고 그 아이덜 따리꼭 막 욱질해봐. 이녁 거 일르고 인심만 일러.(시내에서 봐도 절해서 지나가. 사람은 그렇게 해뒤야지. 그거 따 먹고 있다고 그 아이들 때리고 막 욱해봐. 자기 거 잃고 인심만 잃어.)

114003 @ 응.(응.)

114003 # 그렇게 허니까 그런 것도. 그 부모덜은 막 그 아이 따리젠 해. 이녁 아이덜. 왜 수박 타 먹었냐고. 손 심으멍 아이고 야야 따리지 말라, 따리지 말라 경허멍 헤난.(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그 부모들은 막 그 아이 때리려고 해. 자기 아이들. 왜 수박 따 먹었냐고. 손 잡으면서 아이고 야야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했었어.)

114003 @ 응.(응.)

114003 # 수박 하나 참 우리 타 먹어본 역스도 엇고. 옥도 안 허여보고 헛저. 아이고, 혼 번은 수박밭디 간 시난에 어떤 사람이 새백이 건 어른, 아니ㄴ라 타레완, 수박을 하나 탁 탄.(수박 하나 참 우리 따 먹어본 역사도 없고. 옥도 안 해보고 했어. 아이고, 한 번은 수박밭에 가서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새벽에 그건 어른, 아니 따러 왔어, 수박을 하나 딱 찢어.)

114003 @ 응.(응.)

114003 # 너 어디냐 허난 아이고 저 어디 대홀 사람인디, 아이고, 선홀 아무가 권당이우다, 권당이우다 허난 어떻허여게, 그냥 보내 불었지.(너 어디냐 하니까 아이고 저 어디 대홀 사람인데, 아이고, 선홀 아무개가 권당입니다, 권당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 그냥 보내 버렸지.)

114003 @ 하하하.(하하하.)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돈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

발행인 박찬식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